東方漢文學

第 108 輯

동방한문학회

2026. 9

목 차

정재(貞齋) 박의중(朴宜中) 한시에 나타난 표현기법과 문학적 특징 … 하정승 ‖ 7
15세기 조(朝)·명(明)의 여성 효행 담론 연구 …… 구슬아 ‖ 49
『지봉유설』이 후대 지성사 형성에 끼친 면모 …… 강민구 ‖ 99
이정귀(李廷龜)의 「임진피병록(壬辰避兵錄)」 저술 의도 재고(再考) … 정서현 ‖ 155
박세채(朴世采) 『정주경연고사(程朱經筵故事)』의 편찬 배경과 서술 방식
…… 박혜민 ‖ 187
남계(南溪) 박세채(朴世采) 문인의 전개와 문학관 …… 윤재환 ‖ 235
운와(芸窩) 홍중성(洪重聖)의 비지류(碑誌類) 산문 연구 …… 권진옥 ‖ 277
영조 대 종묘 악장 통합과 구성(九成) 복원 …… 신호승 ‖ 311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와 백이(伯夷) 기사에 나타난
시간의 형상화와 쓰기 전략 …… 박수밀 ‖ 343
상주지역 열운사(悅雲社)와 낙강선유시회의 한 사례 …… 방현아 ‖ 377

[부록]
회칙 ‖ 413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 416
논문심사서 ‖ 420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 421
투고 규정 ‖ 426
학회지 발행 규정 ‖ 431
휘보 ‖ 432
임원·편집위원 명단 ‖ 433

DONGBANG KOREAN CLASSIC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Vol. 108 September, 2026

CONTENTS

Expression Techniques and Literary Characteristics in the Poetry of Park Eui-jung ····· Ha, Jung-seung

Discourses on Women's Filial Conduct in Fifteenth-Century Joseon Korea and Ming China ····· Koo, Seul-ah

A Study on the Intertextual Reception and Intellectual Impact of Yi Su-gwang's Jibong yuseol in the Late Joseon Dynasty ····· Kang, Min-gu

Reconsidering the Authorial Intention of Yi Jeong-gwi's「Imjin Pibyeongnok」 ····· Chung, Seo-hyun

The Compilation Context and Narrative Strategies of Park Se-chae's『Cheng-Zhu Gyeongyeon Gosa』····· Park, Hea-min

The Development and Literary Views of Namgye Park Se-chae's Disciples ····· Yoon Jae-hwan

A study on the inscriptional prose of Unwa(芸窩) Hong, jungseong(洪重聖) ····· Kwon, Jin-ok

The Consolidation of Jongmyo Musical Movements and the Restoration of the Nine-Part System (Guseong)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 Shin, Ho-Seung

『Yeolha Diary』,「Crossing the River Nine Times in One Night」, episode, Park Ji-won, temporal configuration, chronotope, reverse chronological structure, writing strategy, myeongsim(冥心) ····· Park, Su-mil

A Study on 'Yeol-unsa(悅雲社)' and a Case of the Nak-river Boating Excursion Poetry Gathering in the Sangju Region ····· Bang, Hyun-a

東方漢文學, 東方漢文學會
Dong-Bang Korean Chinese Literature Society
2026, 第108輯, pp.7~48
http://dx.doi.org/10.17293/dbkcls.2026.108.
ISSN 1226-668X

정재(貞齋) 박의중(朴宜中) 한시에 나타난 표현기법과 문학적 특징

하정승*

目 次

1. 문제 제기
2. 정재의 교유관계와 사상적 지향
3. 정재 시의 문학적 특징
4. 결어

|국문초록|

박의중(朴宜中: 1337~1403)의 본관은 밀양(密陽)이고 초명은 박실(朴實)이며, 자는 자허(子虛), 호는 정재(貞齋)이다. 1362년(공민왕 11) 홍언박(洪彦博)이 지공거(知貢擧), 유숙(柳淑)이 동지공거(同知貢擧)가 되어 주시(主試)한 과거에서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학맥으로 보면 그는 양파(陽坡) 홍언박(洪彦博), 사암(思菴) 유숙(柳淑)과 불훤재(不諼齋) 신현(申賢)을 계승하였고, 초은(樵隱) 이인복(李仁復)과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정도전(鄭道傳), 이숭인(李崇仁)과는 과거 동방으로 교유가 깊었으며 그 외 정몽주(鄭夢周), 김구용(金九容), 이집(李集), 변계량(卞季良), 권근(權近)과 가까웠다. 박의중의 문집은 본래 『부재집(負齋集)』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전기까지 전해지고 있었으나, 어떤 이유로 그 후에 일실(逸失)되었다가 1924년이 되어서야 『동문선(東文選)』을 비롯한 각종 전적에

* 국립경국대학교 인문・문화학부 한자문화콘텐츠학 전공 교수.

전해지고 있는 작품들을 모아 후손들에 의해 『정재일고(貞齋逸稿)』라는 이름으로 초간본이 간행되었기에 현재 전해지는 박의중의 시문은 매우 소략하다. 『정재일고(貞齋逸稿)』에 수록된 박의중의 시는 불과 32제이고, 문은 3편뿐이다. 1367년(공민왕 16) 이색이 성균관 대사성으로 임명되어 성균관을 비롯한 국학의 부흥을 도모할 때, 정몽주, 김구용, 이숭인 등과 더불어 학관(學官)으로 근무했던 일을 계기로 박의중은 목은그룹의 일원으로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당대를 대표하는 학자인 목은은 박의중을 가리켜 "사문(斯文)의 흥기(興起)를 자허(子虛)와 더불어 시작했으니 자허와 더불어 끝맺어야 한다."고 했고, 『고려사』의 기자(記者)는 박의중의 자질과 문학을 가리켜 "박의중은 타고난 자질이 명민하고 학문이 독실하였으며, 청렴하고 강개하여 태평할 때나 위태로울 때나 절개가 한결 같았다. 또한 문장을 지은 것이 정심(精深)하고 전아(典雅)하였다."고 평가했다. 이상 제가의 언급과 같이 박의중은 14세기 후반기를 대표하는 문인이라고 할 수 있다. 비단 문인이나 학자로서의 면모뿐만 아니라 정치인이나 시인으로서의 자질과 활약도 뛰어났다. 1388년(우왕 14) 명나라에서 철령위(鐵嶺衛)를 설치하려 하자 명나라로 사행(使行)을 가서 철령위의 철폐를 교섭하여 이를 중지시킨 사건은 그가 정치·행정적 측면에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박의중의 시는 산수·전원의 풍광이나 시정(市井)의 발랄한 생기를 묘사하는 데에 뛰어나며, 자연의 맑은 정취를 표현하는 '청신(淸新)'한 품격의 미의식을 살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진밀(縝密)하고 정심(精深)하다는 제가의 비평처럼 그의 시는 시적 구성이 치밀하고 시의(詩意)가 풍부하고 깊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핵심어 정재(貞齋), 박의중, 박실(朴實), 『정재일고』, 『부재집』, 유숙(柳淑), 철령위, 정심(精深), 목은그룹, 성균관.

1. 문제 제기

박의중(朴宜中, 1337~1403)의 본관은 밀양(密陽)이고 초명은 박실(朴實)이며, 자는 자허(子虛), 호는 정재(貞齋)이다. 조부는 경상도 안렴사(慶尙道按廉使), 밀직부사(密直副使)를 지낸 박화(朴華)이며, 부친은 박인기(朴仁杞)로 판도총랑(版圖摠郎)을 역임하였다. 1362년(공민왕 11) 홍언박(洪彦博)이 지공거(知貢擧), 유숙(柳淑)이 동지공거(同知貢擧)가 되어 주시(主試)한 과거에서 장원으로 급제하였기에[1] 일명 '박장원(朴壯元)'으로도 불렸다. 함께 급제한 과거 동방(同榜)으로는 이숭인(李崇仁), 정도전(鄭道傳), 김도(金濤) 등이 있다.[2] 특히 동지공거였던 유숙과는 평생 좌주와 문생의 관계를 유지하며 가깝게 지냈고, 이숭인·정도전 등과는 동방으로서 교유가 깊었으며, 대표적인 제자로는 양촌(陽村) 권근(權近)이 있는데, 박의중이 1367년(공민왕 16) 성균관 학관(學官)으로 학생들을 교수(敎授)할 때, 사제(師弟)의 인연을 맺었던 것으로 보인다.[3] 박의중의 문집은 본래 『부재집(負齋集)』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전기까지 전해지고 있었으나[4] 어떤 이유로 그 후에 일실(逸失)되었다가 1924년이 되어서야 『동문선(東文選)』을 비롯한 각종 전적에 전해지고 있는 작품들을 모아 후손들에 의해 『정재일고(貞齋逸稿)』라는 이름으로 초간본이 간행되었기에 현재 전해지는 박의중의 시문은 매우 소략하다. 『정재일고』에 수록된 박의중의 시는 불과 32제이고, 문은 3편뿐이다. 따라서 박의중의 생애와 사상, 학문과

1) 『高麗史』 권73, <志> 권27, 「選擧 一」. "十一年十月, 右侍中洪彦博知貢擧, 知都僉議柳淑同知貢擧, 取進士, 賜朴實等三十三人及第." 참조.

2) 『貞齋逸稿』 권2, 「文科榜目」 및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people.aks.ac.kr), <고려문과>, 「공민왕11, 壬寅榜」 참조.

3) 權近, 『貞齋逸稿』 권2, 「字說」. "昔先生之爲講官於成均也, 予以鼓篋而受業, 由是從遊者數十年之久." 참조.

4) 成俔, 『慵齋叢話』 권8. "我國文章家尠少, 而著書者尤尠. …… 負齋集一帙, 朴宜中所著, …… 今姑取行於世者, 錄之如左." 참조.

문학적 특징 등을 고찰하는데 있어서 자료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당대를 대표하는 학자인 목은은 박의중을 가리켜 “사문(斯文)의 흥기(興起)를 자허(子虛)와 더불어 시작했으니 자허와 더불어 끝맺어야 한다.”[5]고 했고, 『고려사』의 기자(記者)는 박의중의 자질과 문학을 가리켜, “박의중은 타고난 자질이 명민하고 학문이 독실하였으며, 청렴하고 강개하여 태평할 때나 위태로울 때나 절개가 한결 같았다. 또한 문장을 지은 것이 정심(精深)하고 전아(典雅)하였다.”[6]고 평가했다. 이상 제가의 언급과 같이 박의중은 14세기 후반기를 대표하는 문인이라고 할 수 있기에 그에 대한 연구는 고려후기 학문과 문학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박의중 관련 연구는 그의 삶과 교유관계를 논한 것, 그의 한시에 대한 것, 성균관 학관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것, 김제 지역에서 활동했던 양상과 사상적 특징을 다룬 것 등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자료적 한계로 인하여 많은 연구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7] 이에 본고에서는 그의 삶과 교유관계, 학맥 등을 통해 그의 사상적 지향을 살펴보고, 정재시의 표현기법과 문학적 특징, 의미 등에 대해서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정재에 대한 학술사적·문학사적 자리매김은 14세기 후반 고려의 지성사를 폭넓게 이해하기 위한 선결 과제라고 생각한다.

---

5) 鄭道傳, 『貞齋逸稿』 권2, 「李牧隱送朴子虛詩序跋」. “先生曰, 斯文之興, 子虛旣與其始, 當與子虛終之.”

6) 『高麗史』 권112, <列傳> 권25, 「朴宜中」. “天資明敏, 學問篤實, 廉淸慷慨, 夷險一節. 爲文章, 精深典雅.”

7) 지금까지 보고된 박의중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박금규, 「정재 박의중의 시세계」, 『春岡 柳在泳博士 華甲紀念論叢』, 이회문화사, 1992; 구사회, 「박의중의 시세계」, 『동악어문논집』 33집, 동악어문학회, 1998; 박영호·강민구, 「年譜를 통해 본 貞齋 朴宜中의 삶과 문학」, 『동방한문학』 37집, 동방한문학회, 2008; 하정승, 「14세기 후반 목은그룹의 형성과 遁村 李集의 문학 활동」, 『한문학보』 44집, 우리한문학회, 2021; 강지희, 「사료와 시문에 나타난 성균관의 재건과 儒風의 一新」, 『포은학연구』 32집, 포은학회, 2023; 박학래, 「金堤 지역의 유학 전통과 그 특징」, 『범한철학』 114호, 범한철학회, 2024.

2. 정재의 교유관계와 사상적 지향

정재가 남긴 글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교유관계를 살피고 동료들과 주고받은 시문이나 동료들이 남긴 평가를 알아보는 것은 그의 사상적 지향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정재와 교유를 나누었던 그룹으로는 1362년(공민왕 11) 과거 급제할 때 함께 등과(登科)했던 동방(同榜)들, 1367년(공민왕 16) 성균관을 재건하여 국학을 진흥시킬 때 성균관 학관(學官)으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 기타 학계와 정계, 문단의 선·후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과거 동방 중에 가장 가까웠던 인물로는 이숭인, 정도전 등이 있다. 『정재일고』에 이숭인에게 준 시가 2제 보이고,[8] 이숭인 역시 박의중에게 준 시가 2제 있다.[9] 정도전 또한 목은 이색이 박의중을 전송하며 쓴 시서(詩序)를 모은 책의 발문을 써서[10] 박의중과의 교유를 짐작할 수 있다. 성균관 학관 재직 시절 동료였던 인물들로는 당시 성균관 대사성이었던 이색과 정몽주, 김구용 등이 있으며, 동방이었던 이숭인도 성균관 동료였다. 이색은 박의중보다 나이가 9살 많고, 과거에 급제한 시기도 1353년(공민왕 2)으로 박의중보다 9년이나 빠르기에 대선배뻘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교유는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의중이 이색에게 준 시가 1제 있으며, 이색 역시 박의중에게 준 시가 4제 보인다.[11]

---

8) 시제는 「與李陶隱崇仁登山觀稼」(『貞齋逸稿』 권1)와 「贈李陶隱」(『貞齋逸稿』 권1)이다.

9) 시제는 「憶朴壯元時隨計留京師」(『陶隱集』 권2); 「奉記密陽朴狀元」(『陶隱集』 권3).

10) 『貞齋逸稿』에 실린 글의 제목은 「李牧隱送朴子虛詩序跋」(『貞齋逸稿』 권2)이고, 『三峯集』에 실린 글의 제목은 「李牧隱送子虛詩序卷後題」(『三峯集』 권4)이다.

11) 박의중이 이색에게 준 시는 「贈李牧隱」(『貞齋逸稿』 권1)이며, 이색이 박의중에게 주거나 박의중과 관계된 시는 「韓柳巷來過, 冷坐談笑間, 朴狀元子虛適至, 柳巷欣然取酒肴, 酬酢旣罷, 始覺半醉, 吟成一首」(『牧隱集·詩藁』 권15), 「丁巳十月二十日晩, 康子野見訪, 欲留之同宿而未果也. 是夜, 風雨大作, 呼燈題此, 當與其同年朴子虛, 李子安同賦云」(『牧隱集·詩藁』 권6), 「歧灘長橋送判書朴壯元還歸田舍」(『牧隱集·詩藁』 권35), 「得交州廉使朴會長崖蜜五味子, 詩以致謝走筆」(『牧

뿐만 아니라 이색은 박의중의 호인 '정재(貞齋)'에 대한 기문(記文)까지 작성하였다.[12] 목은은 이 글에서 '정(貞)'의 의미를 설명하고 박의중에게 당부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심지어 목은은 박의중을 가리켜 "사문(斯文)의 흥기(興起)를 자허(子虛)와 더불어 시작했으니 자허와 더불어 끝맺어야 한다."[13]고 말하였다. 유학을 일으키고 성균관을 부흥시킴에 있어서 박의중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정도전은 이를 두고 포은과 정재가 목은을 만나게 된 것은 하늘의 뜻이며, 목은이 포은과 정재를 만난 것도 하늘의 뜻이라고 평가하였다.[14]

포은과도 교유가 깊었는데 박의중이 정몽주에게 준 시가 1제 있으며, 정몽주 또한 박의중에게 준 시가 1제가 있다.[15] 포은은 박의중에게 준 시에서, "평생의 친구들 새벽별처럼 드물어지니/늙은 나는 이제 쓸쓸함을 탄식한다/도은은 중국으로 갔고 척약재는 죽었으니/나로 하여금 매번 박중서를 생각나게 하네"[16]라고 하여 옛 친구들이 부재(不在)한 현실에서 박의중을 심적으로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구용 역시 박의중과 가까웠는데, 정재가 김구용 시에 차운한 것이 1제 보이고, 김구용이 정재에게 준 시도 2제가 보인다.[17] 김구용은 특히 정재의 학문을 높게 평가하여 우

隱集·詩藁』 권24) 등이 있다.

12) 제목은 「朴子虛貞齋記」(『牧隱集·文藁』 권4)이다.

13) 앞의 각주 5) 참조.

14) 鄭道傳, 『三峯集』 권4, 「李牧隱送子虛詩序卷後題」. "今二子之遇先生, 天也, 先生之得二子, 亦天也."

15) 박의중이 포은에게 준 시의 제목은 「與鄭圃隱夢周 登明月臺」(『貞齋逸稿』 권1)이고, 포은이 박의중에게 준 시는 「寄密陽朴中書」(『圃隱集』 권2)이다.

16) 鄭夢周, 『圃隱集』 권2, 「寄密陽朴中書」. "平生親舊曉星踈, 老圃如今嘆索居. 陶隱西遊若齋死, 令人每憶朴中書."

17) 박의중이 김구용에게 차운한 시제는 「次金若齋九容」(『貞齋逸稿』 권1)이며, 김구용이 박의중에게 주거나 박의중과 수창한 시제는 「酬朴子虛」(『貞齋逸稿』 권2)와 「寄朴中書」(『惕若齋學吟集』 권상) 등 2제이다. 「酬朴子虛」는 김구용의 문집인 『惕若齋學吟集』에는 「九日與朴宜中司藝飮酒」(『惕若齋學吟集』 권상)로 되어 있다.

왕에게 올린 상소에서 이색·정몽주와 더불어 박의중을 중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였다.[18] 기타 학계나 문단의 선·후배로 정재와 교유가 깊었던 인물로는 유숙(柳淑), 이인복(李仁復), 이집(李集), 권근(權近), 변계량(卞季良)을 꼽을 수 있다. 유숙은 전술한 바와 같이 1362년(공민왕 11) 박의중이 급제했을 당시 과거를 주시한 인물로 좌주·문생의 관계를 맺고 박의중이 평생 존경하였다. 박의중이 과거에 급제하자 좌주 유숙이 축하와 격려를 담은 시가 『정재일고』에 실려 전한다.[19] 유숙이 준 시를 보자.

새로 급제한 박자허를 권면하다

왕업을 중흥시킨 것 한나라 유방과 비슷한데	王業中興似漢劉
게다가 이제 경국제민을 이룰 이윤과 주공 얻었구나	況今經濟有伊周
멀리서 옥과 비단을 가지고 관광을 오니	遠方玉帛觀光日
성대한 의관은 옛 제도를 회복했네	盛代衣冠復古秋
꿈속 혼백은 점점 희미해지는데 단풍잎 우거져 있고	魂夢漸疏楓葉密
쇠하고 야위니 그윽한 초가집 절로 사랑스럽네	衰羸自愛草廬幽
선생은 나이가 어리고 재주는 크니	先生年少才名大
한가한 이들이 세상 밖에서 노니는 것 배우지 말게	莫學閑人物外遊[20]

시제의 "자허(子虛)"는 박의중의 자이다. 시의 전반부인 제1구에서 4구까지는 과거 급제한 젊은 영재들을 얻었으니 나라의 앞날이 희망차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특히 시인은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한 박의중을 가리켜 경국제민(經國濟民)을 이룰 인재로 여기고 중국의 이윤(伊尹)과 주공(周

18) 金九容, 『貞齋逸稿』 권2, 「惕若齋金九容上疏」 참조. 이 글은 김구용의 문집인 『惕若齋學吟集』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19) 시제는 「勉朴子虛新恩」(『貞齋逸稿』 권2)으로 형식은 칠언율시이다.

20) 『東文選』 권16에도 실려 있는데, 시제가 「次韻贈朴宜中壯元」으로 『貞齋逸稿』와 차이가 있다.

公)에 비기고 있다. 마지막 미련은 박의중에 대한 당부이다. 시인 본인은 나이가 들어 점점 그윽한 자연이 사랑스러워 가지만, 박의중은 이제 26세의 젊은이니 한가한 이들[閑人]처럼 세상 밖[物外・自然]에서 노니는 것을 배우지 말고, 갈고 닦은 학문을 나라와 백성을 위해 펼칠 것을 당부한 말이다. 새로 급제한 문생에 대한 좌주의 애정을 읽을 수 있다.

그 후 박의중은 여러 벼슬을 거쳐 간관이 되어 가무와 사냥을 경계하는 「계일예소(誡逸豫疏)」를 올렸는데 아무런 답이 없자 벼슬을 버리고 모친이 거주하는 전라도 김제[碧城]로 근친(覲親)을 떠나게 된다. 박의중이 상소를 올린 시점은 1382년(우왕 8) 6월로 우왕대(禑王代)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21] 그런데 이 때 박의중을 전송하며 송별의 시를 쓴 사람들로 이색, 이인복, 김구용, 이숭인 등이 등장한다. 문제는 이인복인데, 이인복은 1374년에 사망하였으니 우왕 때에 송별시를 쓸 수가 없다. 그렇다면 박의중이 김제로 떠난 것이 한 번이 아니라 1374년(공민왕 23) 이전과 우왕 때의 두 번일 것으로 추정된다.[22] 박의중은 1370년(공민왕 19) 명나라 제과(制科)에 응시할 인원을 선발하는 향시(鄕試)에 뽑혔는데, 당시 과거의 고시관(考試官)이 이인복과 이색이었다.[23] 이를 계기로 이인복과 이색을 전술했던 유숙과 더불어 평생의 스승으로 섬기게 된 것 같다. 박의중이 벼슬을 버리고 근친을 떠날 때 이인복이 쓴 시를 살펴보자.

---

21) 『高麗史節要』 권31, 「우왕 8년 6월」 조에서 "간관 鄭釐와 朴宜中 등이 상소하여 이르기를"이라고 하면서 박의중이 올린 상소를 소개하고 있으니 박의중의 상소는 우왕에게 올린 것이 확실하다.

22) 박의중이 벼슬을 버리고 근친하러 가자 이인복, 이색, 김구용, 이숭인 등이 전별의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인복은 1374년 3월에 사망하였으니 餞別宴은 그 이전에 베풀어졌음을 알 수 있다. 박영호・강민구, 「年譜를 통해 본 貞齋 朴宜中의 삶과 문학」에서는 이색, 이인복, 김구용, 이숭인 등이 박의중을 전별하는 시를 지었는데, 이 때를 1382년(우왕 8)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인복의 사망 시점을 고려하면 이는 잘못이다.

23) 『高麗史』 권74, 「공민왕 19년 8월」. "八月 李仁復・李穡爲考試官, 通考三場文字, 取李崇仁・朴實・權近・金濤・柳伯濡, 以充貢士, 崇仁・近, 以年未滿二十五, 不遣."

박자허가 김제로 떠나는 것을 전송하다

명성이 매우 높은 성균관 유생이	籍甚芹宮客
우뚝히 장원급제를 차지하였네	飄然桂榜魁
사문이 이제 망하지 않게 되었구나	斯文今未喪
그대는 재주가 많으니까	吾子故多才
전별(餞別)의 자리에 가을바람은 세차고	祖席西風急
귀향하는 말을 뒤따르는 말이 재촉하네	歸鞍後騎催
아아! 나만 홀로 무엇 때문에	嗟余獨何事
가려다가 다시 주저하는가	欲去更徘徊[24]

시의 전반부인 제1구에서 4구까지는 박의중에 대한 찬사이다. 박의중이 장원으로 급제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같은 인재가 있으니 이제 사문[유학]이 망하지 않고 번성하겠다는 희망을 말한 것이다. 하지만 후반부인 5~8구에서는 시의 분위기가 일변하여 멀리 김제로 떠나는 박의중을 위한 전별의 자리를 묘사하고 있다. 박의중이 벼슬을 버리고 어머니가 있는 김제로 떠나게 되자 가까운 선·후배들이 모여 전별연을 베풀어 주었던 것 같다. 그 자리에 이인복도 참여하여 위의 시를 작시하게 된 것이다. 제5구에서 "가을바람"이라고 했으니 박의중이 근친하러 떠난 계절이 가을임을 알 수 있다. 시인은 '바람이 세차다[急]', '재촉한다[催]' 등의 시어를 사용하여 전별의 자리가 무겁고 가라앉은 분위기임을 암시하고 있다. 마지막 미련은 시인 본인의 내적 갈등을 나타내고 있으니, 박의중과 같은 인재가 사직을 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본인 또한 사직을 하고 싶지만, 벼슬을 버리고 떠나려하다가 다시 주저하는 모습을 진솔하게 표현한 것이다.

둔촌(遁村) 이집(李集) 역시 박의중과 교유가 있었다. 이집(1327~

24) 李仁復, 『貞齋逸稿』 권2, 「送朴子虛金堤」. 이 시 역시 『東文選』(권10)에도 실려 있는데, 시제는 「送朴部令宜中覲母金堤」(부령 박의중이 김제로 어머니께 근친가는 것을 전송하다)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1387)은 이색과 막역한 사이였으며 정몽주, 김구용, 이숭인 등을 비롯한 소위 목은그룹의 핵심 인사였다.[25] 박의중과는 10살의 나이차가 나는데, 그의 문집인 『둔촌잡영(遁村雜詠)』에는 이집이 박의중에게 준 시가 2제 보인다.[26] 그 내용을 보면, “사간원에 임금님 은혜가 가득하니/그 누가 자미랑의 영광과 같겠는가(獻納司中雨露香, 光榮誰似紫薇郎)”[27]라든지 “친구들아 나에게 시흥이 없다고 말하지 마소/근래 질병으로 누워 시 짓기에 게을러졌으니(故人休道無情興, 臥疾年來懶作詩)”[28]라고 하였다. 첫 번째 시에서 “자미랑(紫薇郎)”이란 당나라 때 중서성(中書省)을 자미성(紫薇省)이라 불렀던 데에서 유래하여 당시 간관(諫官)으로 있었던 박의중을 지칭하는 말이다. 임금의 은택을 입은 자들 중 최고의 영광을 박의중이 차지했다는 칭찬이다. 두 번째 시는 둔촌과 박의중을 비롯한 친구들 사이에 활발한 작시 활동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목은, 포은, 도은, 척약재, 둔촌, 정재 등은 일종의 시회(詩會)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자주 시를 주고받았다.[29] 따라서 박의중과 둔촌 사이의 교유는 목은그룹 안에서 작시 활동이 주요한 동기였음을 알 수 있다. 14세기 후반 고려의 학계와 문단은 목은그룹이 중심이었다. 이에 대해 정도전이 쓴 다음 글은 목은그룹의 구성원과 그 역할을 알 수 있게 해준다.

---

25) 遁村 李集과 목은그룹에 대한 사항은 하정승, 「14세기 후반 목은그룹의 형성과 둔촌 이집의 문학 활동」, 『한문학보』 44집, 우리한문학회, 2021 참조.

26) 시제는 「次韻呈子虛先生」 및 「寄賀朴中書子虛」로 두 작품 모두 칠언절구이다. 「寄賀朴中書子虛」는 『貞齋逸稿』(권1)에는 「賀朴中書子虛」로 되어 있고, 약간의 글자 출입이 있는데, 『遁村雜詠』에 ‘光榮’, ‘一童’으로 되어 있는 것이 『貞齋逸稿』에는 ‘榮光’, ‘一章’으로 되어 있다. ‘光榮’과 ‘榮光’은 의미상 차이가 없지만, 『遁村雜詠』의 ‘一童’은 의미상 『정재일고』의 ‘一章’의 誤記로 보인다.

27) 李集, 『遁村雜詠』, 「寄賀朴中書子虛」.

28) 李集, 『遁村雜詠』, 「次韻呈子虛先生」.

29) 목은그룹의 시회 활동에 대한 사항은 하정승(2021), 117~120쪽 참조.

우리 동방이 비록 해외에 떨어져 있긴 해도 대대로 중화(中華)의 문명을 흠모하여 문학에 종사하는 유자(儒者)들이 전후로 줄을 이었는데, 그중에서도 고구려에서는 을지문덕(乙支文德), 신라에서는 최치원(崔致遠), 그리고 본국(本國)에 들어와서는 시중(侍中) 김부식(金富軾)과 학사(學士) 이규보(李奎報)가 특히 뛰어났다. 그러다가 근세에 이르러서는 계림(雞林)의 익재(益齋) 이공(李公)과 같은 대유(大儒)가 나와서 처음으로 고문(古文)의 학설을 제창하였는데, 한산(韓山)의 가정(稼亭) 이공과 경산(京山)의 초은(樵隱) 이공이 이에 따르며 화답하였다. 오늘날의 목은(牧隱) 이선생은 일찍이 가정의 교훈을 이어받고 북으로 중원에 유학하여 바른 사우(師友)의 연원(淵源)을 얻고서 성명(性命)과 도덕(道德)의 설을 궁구하였으며, 동방으로 돌아와서는 제생(諸生)을 교육하였다. 이 선생의 가르침을 접하고서 흥기한 자로는 오천(烏川)의 정공 달가(鄭公達可: 정몽주)와 경산(京山)의 이공 자안(李公子安: 이숭인)과 진양(晉陽)의 하공 대림(河公大臨: 하륜)과 반양(潘陽)의 박공 성부(朴公誠夫: 박상충)와 영가(永嘉)의 김공 경지(金公敬之: 김구용)와 밀양(密陽)의 박공 자허(朴公子虛: 박의중)와 영가(永嘉)의 권공 가원(權公可遠: 권근)과 무송(茂松)의 윤공 소종(尹公紹宗: 윤소종) 등이 있고, 또 나처럼 불초(不肖)한 자도 몇 분 군자의 대열에 끼이는 영광을 얻었다.[30]

이 글을 요약하면 고려조 문학사에서의 문통(文通)은 김부식→이규보

30) 鄭道傳, 『陶隱集』 권수, 「陶隱先生詩集序」. “吾東方雖在海外, 世慕華風, 文學之儒前後相望, 在句高麗曰乙支文德, 在新羅曰崔致遠, 入本國曰金侍中富軾, 李學士奎報其尤者也. 近世大儒有若鷄林益齋李公, 始以古文之學倡焉, 韓山稼亭李公, 京山樵隱李公從而和之. 今牧隱李先生蚤承家庭之訓, 北學中原, 得師友淵源之正, 窮性命道德之說, 旣東還, 延引諸生, 其見而興起者, 烏川鄭公達可, 京山李公子安, 晉陽河公大臨, 潘陽朴公誠夫, 永嘉金公敬之, 密陽朴公子虛, 永嘉權公可遠, 茂松尹公紹宗, 雖以予之不肖, 亦獲厠於數君子之列.” 위의 본문에서 제시한 국역문은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에 수록된 국역문을 인용하되, 필자가 부분적인 수정을 가했음을 밝혀둔다. 이하 본고에서 인용하는 諸賢들의 문집의 글도 <한국고전종합DB>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와 마찬가지임을 밝힌다. 다만 『貞齋逸稿』 한시들의 경우에는 <한국고전종합DB>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 필자가 국역하였음도 밝힌다.

→이제현→이색으로 계승되었으며, 특히 목은은 중국에 유학을 하여 정통 성리학을 공부하고 귀국하여 고려의 학계와 문단을 이끌었고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였다. 목은의 영향 하에 있었던 대표적인 학자로는 정몽주, 이숭인, 하륜, 박상충, 김구용, 박의중, 권근, 윤소종, 정도전 등이 있다. 정도전이 여기에서 언급한 학자들 중 정몽주, 이숭인, 박상충, 김구용, 박의중은 전술한 바와 같이 1367년 성균관 재건 시에 목은과 더불어 학관으로 참여했던 인물들이고, 하륜, 권근, 윤소종, 정도전은 당시 성균관 학관은 아니었으나 목은이 주시(主試)했던 과거에 급제하여 목은그룹의 일원으로 들어온 것으로 판단된다. 정도전의 언급 중에서 목은그룹 핵심 구성원이지만 누락된 자는 둔촌 이집 정도이다. 둔촌이 누락된 이유는 아마도 다른 구성원들과는 달리 벼슬을 버리고 은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말선초의 정국(政局)에서 정치적 활약이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권근의 경우는 전술한 바와 같이 박의중이 1367년(공민왕 16) 성균관 학관(學官)으로 학생들을 교수(教授)할 때, 사제(師弟)의 인연을 맺었다. 권근은 성균관 유생으로 재학 중에 박의중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31] 『양촌집』 연보에 의하면 17세 되던 1368년(공민왕 17) 성균시(成均試)에 합격을 했기에[32] 권근이 박의중에게 수학한 시점은 이 무렵으로 추정된다. 그는 1401년(태종 1) 박의중의 자(字) 인 '자허(子虛)'에 대한 글을 지었는데, 이 글에는 박의중의 인품과 기질, 사상적 지향이 잘 나타나 있다. 다음 글을 보자.

> 정재(貞齋) 박 선생(朴先生)은 고려 임인년(1362, 공민왕11) 과거에 장원한 사람이다. 자질이 단정하고 학문이 정박(精博)하여 한때 진신(縉紳)의 으뜸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름을 실(實)이라 하고, 자를 자허(子虛)라 하더

31) 權近, 『貞齋逸稿』 권2, 「字說」. "昔先生之爲講官於成均也, 予以鼓篋而受業, 由是從遊者數十年之久." 참조.

32) 『陽村集』 권수, 「陽村先生年譜」. "洪武元年戊申, 公年十七, 八月, 中成均試."

니, 뒤에 이름을 의중(宜中)으로 고치고, 자는 그대로 하였다. 일찍이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논어(論語)』에 '차도 빈 것같이 하라'는 말을 취하여 나의 이름과 자를 지었다가 뒤에 오늘의 이름으로 고치고 자는 고치지 않았으니, 그대가 그에 대한 설(說)을 지어 내 자손에게 전하게 하라." 하였다. 나는 어리석고 졸렬하기 때문에 사양하였으나 들어 주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군자의 학문은, 덕은 무실(務實)하게 하고, 마음은 겸허(謙虛)하게 하려는 것이니, 허(虛)는 곧 내 마음의 본체요 뭇 이치가 갖추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그 속을 비우나니 그런 뒤에야 사욕(私欲)이 머무르지 않고 천리(天理)가 항상 존재하게 되며, 도를 행하는 자 역시 그 마음을 비우나니 그런 뒤에야 교만과 인색함이 생기지 않고 나의 덕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허(虛)란 실(實)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선생이 앞서 이미 이것으로 이름과 자(字)를 삼아 스스로 힘썼던 것이다. 그러나 군자가 학문을 배우는 것은 장차 사업에 시행하려는 것이니, 능히 사업에 시행하여 그 시의(時宜)를 잃지 않게 하는 것은 오직 그 중(中)뿐이다. 위로 요(堯)·순(舜)·탕(湯)·무(武)가 다스린 것과 아래로 공자(孔子)·안연(顔淵)·자사(子思)·맹자(孟子)가 전한 것이 모두 이 중(中)이었다. 그러나 이른바 중이란 것은 체(體)가 있고 용(用)이 있다. 그 발하지 않았을 때 허를 극도로 하여 그 치우침이 없는 체를 지킨 뒤에야 발함이 절도에 맞아서 과불급(過不及)이 없는 용(用)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니, 이 허는 또한 중의 체(體)인 것이다. 그러므로 선생이 뒤에 이것으로 이름과 자를 삼아 더욱 힘쓴 것이다. 선생이 덕으로 나아가고 학업을 연마했던 차례와 체(體)를 밝히고 용(用)을 적용했던 학문은 그 이름과 자만 보아도 그 힘쓴 바를 알 수 있다. 대개 선생의 학문은 오로지 내면에 마음을 쓰기 때문에, 중을 지키는 공부가 이미 정밀하되 감히 그것으로써 스스로 만족하지 않으며, 확충하고 쌓은 것이 이미 진실하되 감히 이것으로 스스로 만족하지 않아서, 일상생활에서나 언어와 행동에 있어서 궁달이나 환란 속에 이르더라도 자처하기를 매양 시의(時宜)에 맞게 하려고 하였다. 이 때문에 대과(大科)에 장원하고 요직을 역임하여 상부(相府)에까지 올랐으되 그 기상이 교만하거나 자랑하는 태도가 없었으며, 적과 접전하는 속에 사명(使命)을 받들고 갔다가 적국에 구류되어 생명이 조석의 위험 속에 있었으되, 의지가 조금도 좌절되지 않

> 고 끝내 전대(專對)의 재주로 우리의 강토를 완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 공로가 이미 컸으되 은퇴하여 한가롭게 지내며 검약(儉約)으로 스스로 지키기를 한사(寒士)와 같이 하니, 이는 그 마음이 허(虛)하되 주(主)된 바가 있었던 것에 말미암은 바이다. 그러므로 그 덕이 능히 충만하고도 떳떳함이 있어 행사에 나타나는 것이 모두 시의에 맞아 이와 같이 뛰어나게 된 것이다. 옛날 선생이 성균관(成均館) 강관(講官)으로 있을 때 내가 비로소 입학하여 배웠다. 이로 말미암아 종유(從遊)한 지 수십 년의 오랜 세월이 되었으므로 선생을 매우 소상히 안다. 이제 그 학문과 사업의 대략을 써서 자설(字說)을 짓는 것이요, 감히 아첨하는 것이 아니다. 건문(建文) 3년(1401, 태종1) 가을 8월 16일.[33]

위 글을 요약해보면 박의중은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하였으며 자질이 단정하고 학문이 정박(精博)하였다. 초명을 '실(實)', 자를 '자허(子虛)'라고 하였는데, 이는 『논어(論語)』에 '꽉 차 있어도 텅 빈 것같이 하라[實若虛]'

---

33) 權近, 『陽村集』 권21, 「子虛說」. "貞齋朴先生, 高麗壬寅科狀元也. 資稟端謹, 學問精博, 爲一時縉紳之秀. 初諱實, 字子虛, 後改宜中, 字仍舊. 嘗謂予曰, 吾嘗取魯論實若虛之說, 以爲名若字, 後改今名, 而字不改, 子爲著其說, 以貽吾子孫. 予以鄙拙辭不獲, 告之曰, 君子之學, 德欲其務實, 而心欲其謙虛, 虛者卽吾心之本體而衆理之所具也. 故欲正心者必虛其中, 而後私欲不留而天理常存, 行道者亦虛其心, 而後驕吝不生而己德益尊, 是虛者實之本也. 故先生之於前也, 旣以是爲名字而自勉之. 然君子之爲學, 將以措諸事業也, 能措諸事而不失其時宜者, 唯其中而已矣. 上而堯舜湯武之所以治, 下而孔顔思孟之所以傳, 皆以此中也. 然所謂中者有體有用, 方其未發而極其虛, 以守其無所偏倚之體, 然後有以發而中節, 以全其無過不及之用, 是虛者亦中之體也. 故先生之於後也, 又以是爲名字而益勉之. 先生進德修業之序, 明體適用之學, 觀其名字, 而可以知其用力矣. 盖先生之學, 專用心於內, 故持守旣密而不敢以是自足, 充積旣實而不敢以是自滿, 彝倫日月之常, 動靜語默之際, 以至夫窮通患難之中, 凡所以自處者, 每欲必合乎其宜. 是以魁大科歷顯仕, 以登相府, 而其氣無驕矜, 奉使於兵交之日, 拘留敵國, 命在晨夕, 其志不少挫, 卒能以專對之才, 完我封疆, 爲功旣大, 斂而閑居, 窮約自守若寒士然, 是繇其心能虛而有主, 故其德能實而有常, 所以現乎事爲之上者, 皆合乎時措之宜如此其卓卓也. 昔先生之爲講官於成均也, 予始鼓篋而受業, 由是從游者數十年之久, 故知先生甚詳, 爲著其學問事業之大略, 以爲其說, 非敢佞也. 建文三年秋八月旣望."

는 의미를 취한 것이다. 『논어』의 이 구절은 증자가 안회를 추억하며 한 말로 알려져 있는데, "증자가 말하기를, '능력이 있으면서도 능력 없는 사람에게 묻고, 많이 알면서도 적게 아는 사람에게 물었으며, 있으면서도 없는 듯하고, 꽉 차 있으면서도 텅 빈 듯하고, 남이 자기에게 잘못을 범해도 잘잘못을 따지며 다투지 않았다. 예전에 나의 친구가 이를 실천하며 살았다.'"[34]라는 구절이다. 권근은 군자의 학문은 '무실(務實)'과 '겸허(謙虛)'가 중요한데, 특히 '허(虛)'는 마음의 본체요, 뭇 이치가 갖춰져 있어서 박의중이 '허'로써 자를 삼았다는 것이다. 또한 후에 개명한 이름에 '중(中)'을 쓴 것은, '중'이 과(過)하거나 불급(不及)함이 없어 치우침이 없는 정재의 삶의 태도와 의식을 지칭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니, 이를 통해 박의중 사상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고 하였다. 최종적으로 권근은 박의중의 삶의 태도를 평가하며 "일상생활에서나 언어와 행동에 있어서 궁달이나 환란 속에 이르더라도 자처하기를 매양 시의(時宜)에 맞게 하려고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증거로 박의중은 요직에 올랐을 때도 조금도 교만하거나 자랑하는 기색이 없었고, 적국에 구류되어 생명이 위험한 순간에서도 의지가 조금도 꺾이지 않았으며, 벼슬을 그만두고 은퇴해서는 '검약(儉約)'으로 자신을 지켜나간 것을 예로 들고 있다. 이상의 권근의 평가를 바탕으로 박의중의 사상을 요약하자면, '중용(中庸)'의 철학이요, '시의(時宜)'를 중시하는 철학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이색은 박의중의 호인 '정재(貞齋)'에 대한 기문을 썼는데, 이 글에도 박의중의 사상적 특징과 경향이 드러나 있다. 다음 글을 보자.

> 자허 씨는 자질이 명민한 데다 학문이 또 독실하기만 하니, 모든 행동이 항상 하나에 기초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절조(節

34) 『論語』, 「泰伯」. "曾子曰, 以能問於不能, 以多問於寡, 有若無, 實若虛, 犯而不校, 昔者吾友, 嘗從事於斯矣."

操)와 언행(言行) 모두가 확고하여 동요시킬 수 없는 것이, 마치 소나무와 잣나무의 내부에 불변의 마음이 깃들어 있어서 사계절 내내 곧게 뻗은 가지와 무성하게 푸른 잎들이 변치 않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요, 그리하여 비와 이슬에 축축히 젖는 은택을 입었다고 해서 더 영화롭게 되는 법도 없고, 바람과 서리에 꺾이는 불행을 당했다고 해서 더 초췌해지는 법도 없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그런 까닭에 화곤(華袞 예복)을 가지고 화려하게 장식해 주어도 자허 씨는 이를 바라지 않고, 부월(斧鉞 형벌)을 가지고 위압을 가해도 자허 씨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사림(士林)과 상대할 때에도, 화락하게 어울리긴 하면서도 구차하게 부화뇌동하지 않고, 자신을 맑게 유지하면서도 굳이 유별나게 행동하지 않는 가운데 늠연히 범할 수 없는 기상을 지니고 있으니, 사람들이 자허 씨를 '정(貞)'으로 지목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나는 『주역』을 공부하긴 하였으나 미처 다 끝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정(貞)'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자허 씨에게 기대를 거는 바가 큰 것이다. 그러니 자허 씨가 만약 그 '정(貞)'을 보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자허 씨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 크다고도 할 것이다.[35]

목은은 박의중이 자신의 거처하는 집을 '정재'라고 이름지었는데, 이는 『주역』에서 그 의미를 취한 것이라고 하였다.[36] 목은은 위 글에서 박의중을 가리켜 자질이 명민(明敏)하고 학문이 독실(篤實)하다고 평하였다. 특히 박의중의 절의를 칭찬하면서 소나무와 잣나무에 비기고 있다. 이른바 '송백지절(松柏之節)'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지조를 지닌 사람의 특징은 은택을 입든, 또는 불행을 당하든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는다는 점이

35) 李穡, 『牧隱集·文藁』 권4, 「朴子虛貞齋記」. "子虛氏明敏之資, 篤實之學, 動而貞夫一也. 故其操履之確乎不可拔也, 如松柏之有心也, 貫四時而不改柯易葉, 雨露霑濡而不加榮, 風霜摧敗而不加瘁. 是以華袞賁如也, 而子虛無慕焉, 斧鉞威如也, 而子虛無怵焉. 所以周旋士林, 和而不苟同, 淸而不苟異, 凜然有不可犯之色, 人固以貞目之矣. 予也學易而未卒業, 欲貞而莫能貞也, 故於子虛氏, 深有望焉. 子虛氏能保其貞也, 則予也受賜多矣."

36) 李穡, 『牧隱集·文藁』 권4, 「朴子虛貞齋記」. "壬寅科壯元朴子虛號其所居曰貞齋, 蓋取諸易也."

다. 그래서 박의중은 평소 높은 관직을 바라지도 않았고, 어떤 위협을 가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결과 박의중은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 화락하게 어울리기는 하지만 구차하게 부화뇌동(附和雷同)하지 않고, 항상 자신을 맑게 유지하며 늠름한 기상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박의중을 가리켜 '정(貞)'하다고 지목하고 있고, 박의중 본인 역시 '정(貞)'의 가치를 중히 여겨 자신의 당호로 이름하였다는 것이다. 목은의 말을 정리해보면 박의중은 『주역』에서 강조한 '정(貞)'의 정신을 중요시했는데, 그 결과로 나타난 정신적 지향이 '절의'이다. 이같은 절의를 중시하다 보면 삶의 행복과 불행 등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고, 관직과 재물 등에 대해 초연한 태도를 보이게 되며, 최종적으로 늠름한 기상을 갖게 될 수 있다.

변계량(卞季良: 1369~1430)은 박의중 사후 만시(挽詩)를 지어 평소 그에 대한 존경이 컸음을 보여주고 있다. 변계량이 성균관에 입학하여 공부한 것은 1381년(우왕 7) 무렵이니,[37] 이 때는 박의중이 성균관 학관을 그만두고 간관으로 재직하던 때이므로 직접 배울 기회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춘정이 지은 만시를 보면 그가 박의중에게 받은 은혜가 컸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시를 보자.

박 제학(朴提學) 의중(宜中)을 애도하며

포은 도은 모두 떠나고 목은도 이미 없으니	圃逝陶亡牧已非
남쪽으로 삼봉을 바라보며 그리워하네	三峯南望也依依
십 년 간 받은 은혜 생각하며 두 소매로 눈물 적시고	十年雙袖懷恩淚
오늘 아침 관을 만지며 또 한 번 눈물 뿌리네	扶柩今朝又一揮[38]

37) 『春亭集·續集』 권2, 「年譜」. "옛날 내 나이 열세 살 때/책을 끼고 學宮에 다녔지(昔余年十三, 挾冊遊學宮)" 참조.

38) 卞季良, 『春亭集』 권4, 「哭朴提學宜中」.

박의중이 세상을 떠난 해가 1403년(태종 3)이니 위 시는 아마도 그 무렵 작시되었을 것이다. 당시 변계량의 나이는 35세였다. 제1구에서 포은과 도은, 그리고 목은마저 떠났다는 것은 포은과 도은은 1392년 사망하였고, 목은은 조선조 개국 후인 1396년(태조 5)에 사망한 것을 가리킨다. 시인은 박의중마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남쪽으로 삼봉을 바라본다. 삼봉은 정도전이 기거하던 장소이자 동시에 정도전을 지칭하는 말이다. 정도전은 1398년(태조 7) 소위 1차 왕자의 난 때 죽었기에 이 때는 이미 그가 죽은 지 5년이나 지난 무렵이었다. 위 시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둔촌 이집과 척약재 김구용도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기에 박의중의 죽음은 소위 목은그룹 구성원의 마지막에 해당된다. 목은그룹의 핵심 구성원인 이색, 이집, 정몽주, 김구용, 박의중, 이숭인, 정도전 등이 모두 죽었고, 이제 남은 사람은 권근(權近)과 하륜(河崙) 정도 밖에는 없는 것이다. 3~4구에서는 변계량이 박의중과의 개인적 친분이나 관계를 회상하며 망자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 시인이 “십 년 간 받은 은혜”라고 했으니 추정컨대 환로에 올라 관료 생활을 시작한 변계량에게 10여 년간 박의중이 이모저모로 돌봐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변계량에게 있어 박의중은 정계와 학계의 대선배였다. 특히 자신의 스승인 목은, 포은과 밀접한 관계하에 있었던 박의중이었기에 그의 죽음은 개인적인 큰 슬픔이자 나라를 위해서도 큰 손실이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두 소매로 눈물 적시고, 또 관을 어루만지며 다시 한 번 눈물을 뿌리고 있다.

이상으로 박의중의 교유관계와 그의 사상적 지향을 살펴보았다. 정리해 보면 그는 홍언박, 유숙, 이인복, 이색, 신현의 문인이었고, 정몽주, 이집, 김구용, 이숭인, 정도전, 권근, 하륜 등과 함께 목은그룹의 핵심 구성원으로 활동했으며, 특히 김구용, 이숭인과 각별한 교유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대표적인 제자로는 성균관 학관 시절 가르쳤던 권근이 있으며, 변계량에게도 선배로서 많은 도움을 주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박의중의 사상적 지향이나 특징은 『정재일고』에 남아 있는 그의 글이 소략하여 이색이나 권근 등 다른 이가 쓴 글을 통하여 유추할 수밖에 없다. 박의중의 사상적 특징은 무실(務實)과 겸허(謙虛)를 중시하고, 특히 과불급이 없는 중용(中庸)을 강조하였으며, 시의(時宜)에 맞는 행동을 중요시하였다. 또한 『주역』의 '정(貞)'의 정신을 지향하여 '절의(節義)'를 강조하고, 늠름한 기상을 지닌 채 인생의 행복과 불행 등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말 것을 강조한 것으로 요약된다. 그가 자신의 자를 '자허(子虛)'라고 짓고, 이름을 '의중(宜中)'으로 개명한 것도 모두 이러한 철학적 신념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3. 정재 시의 문학적 특징

박의중 문학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품격적인 측면에서는 정심(精深)·전아(典雅)·청신(淸新)을 꼽을 수 있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나그네 의식' 즉 '객창감(客窓感)'과 전원생활의 즐거움, 당대(當代) 시정(市井)의 발랄한 모습을 묘사한 것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특히 그는 시인으로서의 사명감에 투철하였고, 시를 쓰는 즐거움을 자신의 삶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였다. 이는 박의중이 문학의 가치, 또는 문학의 역할에 대해 매우 긍정적 인식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고려사』의 기자(記者)는 박의중의 문학을 평가하며 "문장을 지은 것이 정심(精深)하고 전아(典雅)하다."[39]라고 하였는데, 이는 목은 이색이 박의중 문학을 평가한 '진밀(縝密)·정절(精切)'[40], 그리고 포은 정몽주가 박의중의 자질과 학문을 평가한 "경학을 강

39) 『高麗史』 권112, <列傳> 권25, 「朴宜中」. "天資明敏, 學問篤實, 廉淸慷慨, 夷險一節. 爲文章, 精深典雅."

40) 鄭道傳, 『三峯集』 권4, 「李牧隱送子虛詩序卷後題」. "道傳, 奉閱牧隱先生送子虛詩序, 至其稱子虛曰, 縝密精切, 一毫不盡, 堙然如不得."

론함에 더욱 그 정밀함을 얻었다."[41]는 말과 그 궤를 같이한다. '정심', '진밀', '정절'은 모두 시적 구성이 치밀한 시를 평하는 품격 용어이다. '정심'에서서 '정(精)'은 미세하고 섬세한 시어의 구사를 지칭하고, '심(深)'은 시의(詩意), 즉 주제가 심오한 것을 지칭한다. 다시 말해 시어를 구사하는 조어적인 측면과 시상을 전개하는 구성적인 측면에서 모두 세련되고 치밀함을 갖춘 시를 평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42] '전아'는 일반적으로 고운(高韻)·고색(古色)한 선비들의 모임이나 국가의 공식 행사 등에서 나타나는, 법도와 격식에 맞고 점잖고 단정한 분위기를 지닌 시를 평하는 용어이다.[43] 이같은 시들은 대체로 시의(詩意)가 풍부하고 깊은 면모를 보여준다. 그러면 박의중 시에 대한 제가의 평을 참고로 하여 실제로 그의 시에 나타난 면모가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하자.

(1) 나그네 의식

'나그네 의식'은 박의중의 사상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귀향과 은거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재는 신흥사대부로서 일찍이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였지만, 혼란한 정세에서 벗어나 자연에 은거하는 삶을 희구하였다.[44] 이 세상은 나그네로 와서 잠깐 동안 머물다 가는 것이라는 '나그네 의식'은 고려후기 시인들의 시에 종종 등장한다. 그 대표적인 시인은 포은 정몽주이다. 포은은 그의 시 곳곳에서 나그네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예컨대 "구월 높은 바람은 나그네를 시름에 잠기게 하고/평생의 호기는 서생의 신세를 그르쳤네(九月高風愁客子, 百年豪氣誤書生)",[45]

41) 金福漢, 『貞齋逸稿』 권2, 「神道碑銘」. "圃隱則以講論經學, 尤得其精."
42) 하정승, 『고려조 한시의 품격 연구』, 다운샘, 2002, 238쪽 참조.
43) 하정승, 『고려조 한시의 품격 연구』, 다운샘, 2002, 120쪽 참조.
44) 박영호·강민구, 「年譜를 통해 본 貞齋 朴宜中의 삶과 문학」, 『동방한문학』 37집, 동방한문학회, 2008, 145쪽 참조.
45) 鄭夢周, 『圃隱集』 권2, 「登全州望景臺」.

“매년 봄바람 향해 먼 나그네 되고 보니/비로소 알겠도다 호기가 사람을 그르침이 많음을(每向春風爲客遠, 始知豪氣誤人多)”,[46] “꿈꾸는 것은 계림의 우리 옛 집 뿐인데/해마다 무슨 일로 돌아가지 못하는가(夢繞鷄林舊弊廬, 年年何事未歸歟)”,[47] “천지간의 한평생 몸은 한낱 좁쌀과 같고/공명 두 자에 얽매여 귀밑머리 세려 하네(百年天地身如粟, 兩字功名鬢欲霜)”,[48] “인생은 백 년을 넘지 못하며/세월은 빨리도 지나가는데/어찌하여 스스로 안정하지 못하고/머나먼 나그네가 되었는가(人生百歲內, 光陰如過隙, 胡爲不自安, 而作遠游客)”,[49] “천지는 우리들을 용납했지만/세월은 이 늙은 사내를 저버렸도다(天地容吾輩, 光陰負老夫)”[50] 등과 같은 시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몽주는 평생을 국가를 위하여 종군(從軍)과 사행(使行)을 마다하지 않았고, 조정의 관료로 경세(經世)와 보국(報國)의 임무를 다하였다. 그는 현실 정치의 고단함에서 벗어나 가족과 자연으로 돌아가 안식하고자 하였으나, 그 소망은 끝내 이뤄지지 못하였다. 포은시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나그네 의식과 귀거래에 대한 갈망은 그의 내면적 갈등과 상처를 보여주고 있다.[51] 박의중의 경우에는 포은에 비해서 내적 갈등의 정도가 덜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점은 박의중은 실제로 고향으로 돌아가 귀거래를 실천했기 때문이다. 또 정치 일선에서의 책임감과 거기에서 오는 정신적 피로도가 포은과는 달랐던 점도 들 수 있다. 요컨대 박의중과 정몽주는 정치적 입지와 상황이 전혀 달랐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의 공통점 중 하나는 그들의 시에 나그네 의식이 깊이 자리하고

46) 鄭夢周, 『圃隱集』 권1, 「洪武丁巳奉使日本作」.
47) 鄭夢周, 『圃隱集』 권1, 「洪武丁巳奉使日本作」.
48) 鄭夢周, 『圃隱集』 권1, 「登州過海」.
49) 鄭夢周, 『圃隱集』 권1, 「大倉九月」.
50) 鄭夢周, 『圃隱集』 권1, 「客中自遣」.
51) 하정승, 『포은 정몽주 한시 연구』, 박영사, 2017, 103~105쪽 참조.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같은 나그네 의식은 시인으로서 작시를 하게 만드는 동인(動因)이 되고 있다. 다음 시를 보자.

소윤 홍재(洪載)를 전송하다

세월은 어느덧 저물어 가는데	節序忽云暮
나그네 발걸음은 어디로 가는가	客行何所之
내 몸은 늘 걸림돌이 되고	一身長作梗
두 귀밑머리 이미 하얗게 되었네	雙鬢已成絲
짧은 모자에는 바람소리가 세차고	短帽風聲緊
성긴 등잔불에는 밤 그림자가 더디네	疏燈夜影遲
어제의 잘못을 오늘에야 비로소 깨달았으니	昨非今始覺
모든 일은 다 기대하던 것과 같지 않구나	事事不如期[52]

『정재일고』에 실린 병서(幷序)에 의하면, 시제의 홍재(洪載)는 공민왕 대에 출사(出仕)를 하였는데, 잘못된 시사(時事)를 보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은(殷)나라가 장차 망하려 하매 비간(比干)은 죽고 미자(微子)는 떠나버렸다. 각자가 자신의 뜻에 따라 처신함이 옳겠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결심을 하고 전원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에 목은과 양촌 등 여러 사람들이 도성 문에서 전별연을 베풀었는데, 그때 박의중은 외지에 있어서 전별연에 참석하지 못하고 위의 시를 보냈다고 한다.[53] 위의 시는 홍재를 전송한 시지만, 동시에 시인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에게 한 독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계절이 바뀌어 간다. 시인은 시의 서두에서부터 "나그네 발걸음은 어디로 가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이

52) 朴宜中, 『貞齋逸稿』 권1, 「送別洪少尹」. 이 시는 『동문선』 권10에 「遣興」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53) 朴宜中, 『貞齋逸稿』 권1, 「送別洪少尹」. "洪耳溪良浩所撰洪公傳云, 少尹洪公載仕恭愍朝, 見時事日非歎曰, 殷之將亡, 比干死, 微子去, 各遂其志可也, 遂決意歸田里. 牧隱陽村諸公皆餞于都門, 時貞齋在外, 未及送, 致書贈詩. 出海東風雅." 참조.

말속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속에서 자신은 여전히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는 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인은 3구에서 자신을 "길이 떠도는 신세"라고 하고 있다. 즉 나그네로 살아온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다는 의미다. 이는 4구의 "두 귀밑머리 이미 하얗게 되었네"라는 말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시의 후반부인 5~6구에서는 분위기가 일변한다. 수련과 함련이 시인 자신에 대한 성찰이라면, 경련에서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이야기한다. 바람 소리가 세차게 들려오고 성긴 등잔불 앞 밤 그림자가 더디다는 것이다. 이 말 속에는 밤의 시간이 길다는 의미와 더불어 스스로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마지막 미련은 시인의 깨달음으로 끝을 맺고 있다. 시인은 7구에서 어제의 잘못을 오늘 비로소 깨달았다고 하였다. "어제의 잘못"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확실치는 않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 전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자 그대로 얼마 전에 했던 잘못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어찌됐든 지금 시인은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과오를 성찰하고 있다. 8구의 모든 일들이 다 기대했던 것과는 같지 않다는 고백을 통해 7구의 "어제의 잘못"이 어떤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성찰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시인에게 있어서 '나그네 의식'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자신이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는 나그네 의식은 필연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소망으로 연결된다.

초여름 날에

버드나무 다리에 빽빽한 신록이 무성함을 사랑하고	柳橋愛翠密
꽃 언덕에 지는 붉은 꽃 적음을 애석해하노라	花塢惜紅稀
푸른 느릅나무를 마찰시켜 불을 바꾸고	鑽改青楡火
새로 재단하여 흰 모시옷 만든다네	裁新白苧衣
뽕잎이 성기매 누에는 이미 늙었고	桑疏蠶已老

풀이 무성하매 말이 비로소 살찌는구나	草茂馬初肥
무슨 일로 오랜 길손이 되어	久客緣何事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가	思歸未得歸[54]

위 시에서 시인은 어느 초여름날 아름다운 풍광을 바라보며 돌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하고 있다. 수련, 함련, 경련은 모두 여름의 풍광을 묘사한 것이다. 빽빽한 신록이 우거지고 붉은 색을 자랑하던 꽃은 지고 있다. 시인은 느릅나무, 뽕잎과 누에, 무성한 풀을 등장시켜 초여름의 활기를 제시한다. 하지만 미련에서는 "무슨 일로 오랜 길손이 되어/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가"라고 스스로를 자책한다. 여기에서도 앞의 시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오랜 길손[나그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시인은 다만 돌아가고 싶다는 말만 하고 있지, 어디로 돌아가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더불어 돌아가서 무엇을 하고 살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 이 점은 박의중의 다른 시를 통해서 유추해야 한다. 어느 늦봄에 연못에 내리는 가랑비를 읊은 시에서, "꽃동산에 붉은 꽃 시드는 것은 싫지만/풀이 난 정원에 녹음이 짙어지는 건 기쁘다네/현진자(玄眞子)의 맑은 뜻을 알겠구나/강산의 맑은 경치 지금이 가장 좋도다(肯嫌花院深紅減, 更喜草庭淺綠添, 料得玄眞淸意味, 江山淑景此時占)"[55]라고 하여 자신이 지향하는 돌아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자연임을 밝히고 있다. '현진자(玄眞子)'는 당나라 때 은사(隱士)로 유명했던 장지화(張志和)의 호로, 그는 벼슬을 그만두고 강호(江湖)에 은거하며 '연파조도(煙波釣徒)'라고 자호하고 낚시와 음주를 즐기며 어부사(漁父詞)를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현진자의 맑은 뜻을 알겠구나"라는 시인의 말은 곧 강호 자연

54) 朴宜中, 『貞齋逸稿』 권1, 「首夏卽事」.
55) 朴宜中, 『貞齋逸稿』 권1, 「蓮塘細雨」.

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어느 늦은 봄날에 쓴 또 다른 시에서, “이슬은 구슬처럼 엉겨 들길을 침노하고/아름다운 풍광을 뒤덮은 안개는 성루를 감싸고 있네/돌아와서 안석에 기댄 채 재미삼아 시구를 써보니/무성한 풍물이 꿈속에 떠다니네(露濕凝珠侵野逕, 煙籠秀色繞城樓, 歸來憑几戲題句, 風物萋萋夢裏浮)”[56]라고 하여 시인은 자연으로 돌아가 자신의 할 일이 시쓰기[作詩]임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박의중 사상의 특징으로 ‘나그네 의식’을 들 수 있고, 나그네 의식의 결과 그는 줄곧 돌아가기를 꿈꾸었으며, 돌아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자연이고 돌아가서 할 일은 시쓰기였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박의중에게 있어서 ‘나그네 의식’은 작시와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전원 생활을 통한 작시의 즐거움

박의중에게 시쓰기는 삶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었다. 사대부 관료로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문인으로서 시를 쓰며 살아가는 두 요소는 그의 인생의 양대 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쓰기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나그네 의식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다음 시를 보자.

봄을 보내며

병든 나그네 무슨 재주로 백발을 잦아들게 하리요　病客何材白髮沈
억지로 꽃나무 가져다가 꺾어서 비녀 만들었네　强將花樹折爲簪
난초는 향기가 다함 싫어하여 뿌리를 굳게 하려 하고　蘭嫌香盡堅根意
복숭아나무는 빈 가지가 두려워 잎사귀를 생각하네　桃怕枝空感葉心

56) 朴宜中,『貞齋逸稿』권1,「江干綠草」.

두견새 옛 마을에서 슬프게 우는 소리 어찌 차마 들을 수 있으랴　忍聽鵑愁啼古塢
나비가 춤추며 빈 숲 날아가는 것 끝까지 바라본다　終看蝶舞過空林
흥은 오히려 줄지 않으니 무엇을 남길까　興猶不淺留何物
해마다 이런 날에는 괴롭게 읊조리네　此日年年苦我吟[57]

이 시는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지는 봄을 아쉬워하는 일명 '송춘시(送春詩)'이다. 제1구에서 시인은 자신을 가리켜 "병든 나그네[病客]"라고 말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나그네 의식이 드러난 시에서 자신을 "나그네"라고 지칭한 것에 비해 병들었다는 수식어가 추가되었다. 그러면 시인은 왜 자신을 병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을까. 그 답은 이어진 시구에서 "무슨 재주로 백발을 잦아들게 하리요"라는 언급을 통해 유추할 수 있으니, '병객'은 어떤 특별한 병이 든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 자신을 향해 지칭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3구의 향기가 다한 난초, 4구의 빈 가지만 있는 복숭아나무 역시 늘그막의 인생과 유사한 의경(意境)을 가진 시어들이다. 5구의 "옛 마을[古塢]", 6구의 "빈숲[空林]" 역시 쇠잔하고 스러져가는 우리 인생을 비유한다. 이처럼 각종 비유어의 구사와 더불어 또한 3~4구인 함련과 5~6구인 경련은 완벽한 대구(對句)로 소위 '대장(對仗)'의 형식에 들어맞는다. 앞에서 박의중 한시의 품격으로 '정심(精深)'을 언급했는데, 이는 위 시에서와 같이 시어를 구사하는 용의(用意)의 측면과 전체적인 시의 구성적인 측면에서의 치밀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 시의 핵심 구는 마지막 7~8구이다. 백발만 무성한 인생의 황혼에서도 오히려 시인의 흥은 줄어들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도 시인으로서의 감수성과 치열한 의식은 여전한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해마다 이런 날이면 괴롭게 읊조릴[苦吟]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보면 박의중에게 시쓰기는 평생의 과업이

57) 朴宜中, 『貞齋逸稿』 권1, 「送春 二首」.

자 기쁨이요, 때로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쓰기는 때와 장소, 처한 상황, 주어진 여건 등에 구애받지 않는다. 예컨대 중국 사행의 현장에서도 좋은 경치를 만나면 시를 지었다. 박의중이 사문도(沙門島)에서 쓴 시에서, "끝없이 시원한 경치 말로 다할 수 없으니/새롭게 시를 지어 좋은 놀이 적을 수밖에(無窮爽槪應難盡, 故作新詩記勝遊)"[58]라고 하여 머나먼 이국 땅에서도 승경(勝景)을 만나면 곧바로 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시쓰기는 곧 박의중의 인생에서 희노애락(喜怒哀樂)을 함께 한 동반자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박의중은 줄곧 돌아가기를 꿈꾸었는데, 그 돌아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자연이었다. 따라서 그의 시에는 전원생활의 한가로움과 은거의 기쁨 등을 나타낸 것이 많이 나타나 있다. 다음 시를 보자.

집을 정하다

그윽한 거처의 맛을 아는 이가 적지만	幽居氣味少人知
나의 오두막을 홀로 사랑하여 낡은 울타리를 지키네	獨愛吾廬護弊籬
아침엔 바다 구름 바라보려고 일찍부터 문을 열고	朝望海雲開戶早
밤에는 산달을 사랑하여 주렴을 더디게 내린다네	夜憐山月下簾遲
흥이 나면 손님을 맞이하여 새로 담근 술 맛보고	興來邀客嘗新釀
시가 이뤄지면 아이 불러 옛날에 지은 시를 고치네	吟就呼兒改舊詩
보잘 것 없는 벼슬하다 병에 걸려 몸은 이미 늙었고	因病抱關身已老
태평성세에 공로 없음이 너무나 부끄럽네	愧無功業補明[59]時[60]

시인은 제1구에서 그윽한 거처의 맛을 아는 이가 적다고 말한다. 여기서 "그윽한 거처[幽居]"란 자연에서의 은거를 의미한다. 2구에서는 나의 오두막을 홀로 사랑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주의할 표현은 "홀로[獨]"이다. 남

58) 朴宜中, 『貞齋逸稿』 권1, 「題沙門島壁上」.
59) 『貞齋逸稿』의 細註에 '明'이 一本에는 '淸'이라고 되어 있다는 설명이 보인다.
60) 朴宜中, 『貞齋逸稿』 권1, 「卜居」.

들은 자연 속에 살아가며 낡은 오두막을 좋아하는 이가 드물지만, 자신만은 자연 속에서의 은거를 즐긴다는 뜻이다. 이는 은거생활의 불편함, 가난함 등을 모두 기쁘게 수용하겠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함련과 경련은 전원생활의 구체적 묘사이다. 아침에는 바다 구름이 바라보이는 집의 문을 열어두고, 밤에는 달빛을 보기 위해 주렴을 더디게 내린다. 흥이 나면 손님을 불러 새로 담근 술을 함께 마시며 서로 시를 짓는다. 마지막 미련은 좀 더 일찍 벼슬을 그만두고 자연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이다. 시인은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벼슬을 "보잘 것 없는 벼슬[抱關]"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앞의 제2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박의중이 역임했던 대표적인 벼슬은 좌사의대부(左司議大夫),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과 같은 간관(諫官), 혹은 학술·교육을 담당하는 일이었다. 품계로 보면 좌사의대부가 정4품, 성균관 대사성이 정3품이므로 박의중이 말한 "보잘 것 없는 벼슬"은 아니다. 박의중이 좌사의대부, 성균관 대사성 등을 지낸 시점이 우왕대 후반인데, 위의 인용시가 그 이전에 작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보잘 것 없는 벼슬"이란 실제 품계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관직 생활에 대한 후회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7구에서 시인은 벼슬하다 병에 걸려 몸이 이미 늙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니 평생 환로에 오른 결과가 늙음과 질병이라는 자탄이라 할 수 있다. 다음에 살펴볼 시에는 '청신(淸新)'의 품격이 드러나 있다.

비 갠 후의 맑은 경치

비가 맑게 갠 날 돌아가서 읊조리나니	和雨新晴詠以歸
한가로운 경물이 아침 햇빛에 고요하네	閒區景物靜朝暉
산은 아직도 젖었는데 꾀꼬리는 수심에 겨워 앉아있고	山容猶濕鶯愁坐
강물은 분명도한데 해오라기 게을리 날아가네	水面分明鷺倦飛
초록빛 성 밖까지 이어지니 보리가 익어감을 알겠고	嫩綠連郊知麥秀

도처에 꽃이 져서 꽃을 보기가 어렵다네	殘紅到處見花稀
먼지가 씻겨가니 맑은 운치 많아져	塵織洗去多淸致
농익은 마음에 옷깃 떨치고 일어나네	也自濃心起拂衣[61]

위 시는 어느 늦봄, 혹은 초여름 날의 풍광이다. 시인은 비가 맑게 갠[新晴] 어느 날, 시를 읊고 있다. 한가롭게 자리하고 있는 자연의 경물(景物)은 아침 햇빛 속에 고요하다. 비가 내린 직후라 산은 아직도 젖어있고, 모든 먼지가 제거되어 강물은 분명하게 경계를 드러낸다. 초여름의 신록은 성 밖까지 무성하고 꽃은 이미 모두 져서 찾아보기 힘들다. 시인은 이 모든 풍광을 제7구에서 "먼지가 씻겨가니 맑은 운치 많아"졌다고 요약하고 있다. 이 시는 품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청신'의 특징이 강하다. '청자계(淸字系) 시품'은 이미 고려시대 최자의 『보한집』에서부터 가장 강조된 시품으로 최자는 시어를 구사하는 조어적(造語的)인 측면, 시의(詩意), 즉 주제적인 측면, 시격적(詩格的)인 측면 등 세 가지 방면에서 청자계 시품을 사용하고 있다. 명(明)나라의 문인 양신(楊愼)은 『승암시화(升庵詩話)』에서 "청(淸)이란 유려(流麗)하여 탁하거나 막히지 않는 것"이라 하였고,[62] 또 다른 명나라의 문인 호응린(胡應麟)은 『시수(詩藪)』에서 "청(淸)은 범속(凡俗)함을 뛰어넘고 속된 것을 끊는 것"[63]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시품으로서 청자계 비평어의 특징은 표현적인 면에서는 기존의 진부한 표현을 벗어나고, 시의적인 면에서는 탁하거나 막히지 않고 유려(流麗)한 시를 비평하는 용어임을 알 수 있다.[64] 모든 세속의 먼지가 씻겨진 비가 내린 직후의 풍광과 맑고 산뜻한 의경을 참신한 시어를 구사하여 표현한 시라

61) 朴宜中, 『貞齋逸稿』 권1, 「霽後淑景」.
62) 楊愼, 『升庵詩話』 권9. "淸者, 流麗而不濁滯."
63) 胡應麟, 『詩藪』 外編, 권4. "淸者, 超凡絶俗之謂."
64) 하정승, 「제정 이달충 시의 특질과 문학사적 의미」, 『동방한문학』 100집, 동방한문학회, 2024, 357쪽 참조.

고 할 수 있겠다. 다음 시 역시 비가 그친 어느 늦봄, 혹은 초여름 날의 흥치를 담아내고 있다.

봄을 보내며

비 그친 뒤 흥이 나서 저 산에 오르니	乘興雨餘陟彼山
새롭게 푸르른 아름다운 나무들 온 숲을 덮었네	新青嘉木覆林間
저녁 안개는 성벽을 둘러서 짙푸른 색을 엷게 하고	暮烟鎖壁淡濃碧
석양이 하늘로부터 비치니 채색 그림자가 아롱지네	夕照返空繽影斑
바람을 맞은 새는 울며 다투어 뜻을 얻고	啼鳥臨風爭得意
술병을 든 시인은 함께 한가로움 즐기네	騷人携酒共偸閑
맑고 온화한 기운 오히려 꽃피는 시절보다 나으니	淸和猶勝花時節
특별히 노니는 정에 돌아가는 것도 잊었네	別槩遊情忘却還[65]

이 시는 봄을 보내며 쓴 송춘시(送春詩)이다. 시인은 비가 그친 늦봄의 어느 날 산에 오른다. 숲에는 새롭게 푸르른[新青] 아름다운 나무들로 가득하다. 함련과 경련은 저물녘에 산 위에서 바라본 풍광을 묘사한 것인데, 시어(詩語)의 구사와 시의(詩意)를 창출한 것이 상당히 참신하여 청신의 품격에 들어맞는다. 비가 온 직후라 온 산에 가득한 저물녘 안개는 성벽을 둘러있고, 아름다운 석양이 비쳐와 온 천지를 채색한 듯이 분위기를 자아낸다. 5~6구에선 “바람을 맞은 새”와 “술병을 든 시인”을 대비적으로 등장시켜 묘한 의경을 만들어낸다. 저녁의 새들은 울며 다투고 있고, 시인은 한가로움을 즐기고 있다. 시끄럽게 다투는 새들의 소리마저 시인에게는 한가로운 자연의 풍광일 뿐이다. 미련에서 시인은 자신이 느끼는 이같은 분위기와 감정을 가리켜 “맑고 온화한 기운[淸和]”이라고 표현한다. 늦봄, 혹은 초여름 날에 겪는 이러한 분위기가 봄날의 절정일 때보다 더 낫다는

65) 朴宜中,『貞齋逸稿』권1,「送春 二首」.

것이다. 마지막 8구의 “특별히 노니는 정에 돌아가는 것도 잊었”다는 말은 지금 시인이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를 누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시에는 전원생활의 모습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다.

유천에서 고기 잡다

세 개 물결이 합해지는 아래에 물고기가 가장 많으니	三流合下最多魚
물가 근처 어부들은 이에 힘입어 살아가네	近渚漁人賴以居
양쪽 언덕의 등불은 바람이 잦아지니 꺼져가고	兩岸燈花風靜後
앞마을의 갈대와 고사리는 비가 온 후라 무성하네	前村蘆蕨雨晴餘
작은 배 타고 강물을 따라 가서	扁舟逐水▦▦▦
큰 그물 모래사장에 비껴 놓으니 나무 그림자 듬성듬성	巨綱橫沙樹影疏
하루종일 잡아 온 것 한 자가 넘는다며 자랑하고	盡日携來誇滿尺
가늘게 썰은 농어회 맛은 담백하기 그지없네	纖纖鱸鱠淡然如[66]

위 시는 전형적인 전원시라고 할 수 있다. 시제의 ‘유천(柳川)’이 어느 하천을 지칭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세 개의 물결이 합쳐지는 곳으로 물고기가 제법 많이 잡히는 곳으로 보인다. 근처의 어부들은 이 하천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쪽 언덕에 밝혀둔 등불은 바람이 세차게 불자 꺼져가고, 비가 온 직후라 고사리와 갈대는 더욱 무성하다. 경련은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구체적인 묘사이다. 배를 타고 강물을 따라 가서 큰 그물을 모래사장에 설치한다. 그물에 잡힌 고기의 크기를 재보니 어떤 놈은 한 자가 넘어가는 것도 있다. 8구를 보면 잡힌 어종은 주로 농어[鱸魚]였던 것으로 보인다. 시인은 어부들과 더불어 잡아 온 농어를 회를 쳐서 먹어보는데, 그 맛이 담백하기가 그지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66) 朴宜中,『貞齋逸稿』권1,「柳川打魚」.

박의중의 전원시는 전원생활의 기쁨과 흥치를 다룬 것이 주를 이루며, 작법적인 면에서 보면 청신한 품격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다음 시에는 자연에서의 은거와 세속에서의 추억, 혹은 미련이 갈등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최우를 만나 희롱삼아 짓다

도도히 흘러가는 이 세상에서 나는 어디로 가야하나	滔滔此世吾安適
산속에 물가 하나 있는 줄만 알겠노라	知有山林水一濱
술 취하고 깨는 그윽한 마음 세속 말로 표현 못하고	醒醉幽情非俗話
엄숙하게 도타운 학문을 닦으니 무리에서 뛰어났네	莊修篤業出凡倫
거문고 타는 중에 산과 강물은 뛰어난 벗이고	琴中山水良朋友
자리의 술과 노래는 좋은 주인과 손님이라네	座上酒歌好主賓
날 저물자 술잔은 부질없이 사람과 그림자 흩어놓고	日暮杯空人影散
구름 낀 산봉우리 자주 바라보니 생각이 주저케 되네	頻瞻雲嶺意逡巡

시제의 '최우(崔友)'가 이름인지, 혹은 최씨 성을 가진 친구라는 의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시의 1~6구까지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기쁨에 대해 쓴 것이다. 시인은 제1구에서 "도도히 흘러가는 이 세상에서 나는 어디로 가야하나"라고 자문한 뒤 곧바로 2구에서 "산속에 물가 하나 있는 줄만 알겠노라"라고 하여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산속[자연]임을 답하고 있다. 3~6구는 은거생활이 주는 유익함이다. 아무 때나 술에 취하였다가 깨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열심히 학문을 연마하기도 한다. 홀로 거문고를 타면 온 산과 강이 모두 벗이 되고, 자리에 벌여놓은 술과 부르는 노래는 좋은 주인과 손님 역할을 한다. 하지만 마지막 미련에서 시의 분위기는 전환이 된다. 날이 저물어가자 시인은 멀리 구름이 낀 산봉우리를 자꾸만 바라본다. 여기에서 주의할 표현은 "주저케 된다[逡巡]"는 말이다. 무엇을 주저한다는 뜻인지 자세한 설명이 없기에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 시가 세속의 친구인 최우를 만나고 지은 것임을 고려해볼 때, 세속에 대한 추억, 혹

은 미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실제로 박의중은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김제에 은거한 후에도 1392년 조선이 개국이 되자 다시 벼슬길에 올라 조준(趙浚)·정도전(鄭道傳) 등과 함께 『고려사』를 수찬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박의중에게 환로(宦路)와 은거는 절대 불변의 가치가 아닌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처신하면 되는 것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3) 시정의 발랄한 생기와 이역의 풍속

박의중 시의 또 다른 특징으로 시정(市井)의 발랄한 생기와 이역의 풍속을 읊은 것을 꼽을 수 있다. 다음에 살펴볼 시는 조정에서 퇴청하고 귀가하는 길에 저잣거리를 지나면서 목도한 시정의 발랄한 생기를 묘사한 작품이다.

조정에서 퇴청하고 돌아오는 길에 저잣거리를 지나면서

땀에 젖은 옷을 입고 거리를 오르락 내리락하며	汗雨衽冊上下街
기약 없이 모여든 장사치들이 그 몇 명인가	無期以會幾商儕
소금자루를 싼 해녀들 연기 낀 마을로 돌아가고	裹鹽海女歸煙巷
술을 찾는 늙은이는 버드나무 가에 서 있네	覓酒山翁立柳崖
화로와 주석 기이한 보화들은 북쪽에서 왔고	鑪錫奇貨來北貊
아름다운 옥돌은 회수 남쪽에서 왔도다	瑤琨美質自南淮
시끄러운 소리가 종일토록 누대 밖까지 나서	鬧聲終日樓臺外
또한 성문 길에까지 이어지는구나	又是城途繹絡騈[67]

수련을 보면 땀에 젖은 옷을 입고 거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인들의 숫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제2구에서 기약 없이[無期] 모여들었다고 하여

67) 朴宜中, 『貞齋逸稿』 권1, 「朝退歸路過城市」.

이들이 저잣거리에 항상 정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뜨내기임을 보여주고 있다. 저잣거리에는 상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소금자루를 싼 해녀들”도 있고, 심지어 “술을 찾는 늙은이”도 버드나무 가에 서 있다. 경련은 시장에서 판매하는 진귀한 보석을 설명하고 있다. 화로와 주석, 각종 기이한 보석들은 북쪽에서 넘어왔고, 아름다운 재질의 옥돌은 회수 남쪽 지방에서 건너왔다. 마지막 미련에서는 시장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하루 종일 계속되고 심지어 도성 거리에까지 이어진다고 하여 저잣거리의 생기 넘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시정의 발랄한 모습을 그린 위 시는 고려후기 한시사에서는 드물게 보이는 것으로, 마치 18세기 후반 강이천(姜彝天)의 「한경사(漢京詞)」나 19세기 초반의 강준흠(姜浚欽)과 강세륜(姜世綸)의 「한경잡영(漢京雜詠)」과도 유사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68] 다음 시는 중국에 사행을 가서 견문한 이역의 풍속과 우리나라의 풍속을 비교한 작품이다.

봉래역 유감

작년 단옷날은 김제골에서	去年重五金堤郡
금년 단옷날은 봉래역에서	今年重五蓬萊驛
김제골 안에서는 모두가 일가며 친구들이었는데	金堤郡中盡鄕黨
봉래역에는 모조리 색다른 풍속이구나	蓬萊驛裏皆殊俗
일가들은 다투어 술과 고기 가져다 먹었는데	鄕黨爭持酒肉饗
마침 내가 선영에 분황할 때였지	値我先壟焚黃席
녹음 속에서 고운 아가씨들은 그네를 타고	紅粉鞦韆綠陰動
금 안장 위의 소년들은 타구 놀이를 하였지	打毬年少金鞍勒
그런데 여기는 풍속이 아주 달라	此中風俗殊不同
쓸쓸한 빈 객사에 인적도 끊겼구나	空館寥寥人迹絶

68) 「漢京詞」나 「漢京雜詠」에 대한 논의는 백승종, 『정조와 불량선비 강이천』, 푸른역사, 2011; 방현아, 『지원 강세륜의 삶과 시문학』, 학자원, 2023; 방현아・최상근, 『조선의 선비 서울을 노래하다: 세편의 한경잡영』, 학자원, 2024를 참조할 것.

해마다 이날이면 하늘 끝 한 쪽에서	年年此日天一涯
처자식들 술상 앞에서 응당 나를 말하리라	妻孥應向尊前說[69]

박의중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1370년(공민왕 19)과 1388년(우왕 14) 두 번이었다. 1370년에는 김도(金濤)·유백유(柳伯濡)와 함께 회시(會試)에 응시하기 위한 것이었고, 1388년은 명나라에서 철령위(鐵嶺衛)를 설치하려 하자 사신으로 가서 철령위의 철폐를 교섭하여 이를 중지시키고자 함이었다. 1388년 사행은 2월에 출국하여 6월에 귀국하였는데,[70] 위 시 제2구의 "금년 단옷날은 봉래역에서"라는 말과 그 시기가 일치하므로, 위 시는 1388년 사행에서 작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3구에서 10구까지는 김제의 단오 풍속과 중국의 단오 풍속을 비교한 것이다. 시인은 4구에서 "봉래역에는 모조리 색다른 풍속이구나"라고 하여 중국의 풍속이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름을 말하고 있다. 그 일례로 우리나라에서는 선영(先塋)에 분황(焚黃)하고 일가 친척들이 술과 고기를 가져다 먹었으며, 녹음 속에서 아가씨들은 그네를 타고 소년들은 말을 타고 타구(打毬) 놀이를 하였는데, 중국에서는 인적이 끊길 정도로 사람이 보이지 않고 큰 행사나 놀이도 없다는 것이다. '분황'이란 죽은 조상에게 관직이 추증되었을 때 그 죽은 이의 자손이 조정에서 수여하는 사령장(辭令狀)과 황색 종이에 쓴 부본(副本)을 가지고 선조의 무덤 앞에서 이를 고하고 부본을 태우는 일을 말한다. 이 시를 보면 당시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단오 절기를 크게 지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박의중 시에는 중국 사신으로 우리나라에 온 상린(桑麟)이나 곽영석(郭永錫)에게 준 시도 있어서[71] 당시

69) 朴宜中, 『貞齋逸稿』 권1, 「蓬萊驛有感」.

70) 『高麗史節要』 권33, 「우왕 14년 2월」 조에, "政堂文學 郭樞를 京師로 보내어 약재를 하사한 데 대하여 사례하고, 密直提學 朴宜中은 鐵嶺 이북을 돌려주도록 청하게 하였다."라고 하였고, 동년 6월 조에 "朴宜中이 京師에서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중국 사신이 우리나라에 오면 그 접반사(接伴使)로 박의중이 활약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결어

박의중은 14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문인이다. 학맥으로 보면 그는 양파(陽坡) 홍언박(洪彦博), 사암(思菴) 유숙(柳淑)과 불훤재(不諼齋) 신현(申賢)을 계승하였고, 초은(樵隱) 이인복(李仁復)과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정도전(鄭道傳), 이숭인(李崇仁)과는 과거 동방으로 교유가 깊었으며 그 외 정몽주(鄭夢周), 김구용(金九容), 이집(李集), 변계량(卞季良), 권근(權近)과 가까웠다. 특히 이숭인과 각별하여 서로 주고받은 시가 많으며, 김구용은 우왕에게 상소(上疏)를 하여 박의중을 중용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권근은 성균관 유생 시절에 박의중에게 학업을 전수받은 사실을 말하며 본인이 박의중의 제자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1367년(공민왕 16) 이색이 성균관 대사성으로 임명되어 성균관을 비롯한 국학의 부흥을 도모할 때, 정몽주, 김구용, 이숭인 등과 더불어 학관(學官)으로 근무했던 일을 계기로 박의중은 목은그룹의 일원으로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숭인과는 과거 동방으로 이전부터 알고 지냈지만, 정몽주·김구용과의 교유는 성균관 근무 시절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 같다.

박의중은 당대에 학자로서 명성이 매우 높았다. 이는 『고려사』를 비롯한 각종 사서와 목은을 비롯한 당대 명유(名儒)들의 언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학(經學)을 강론(講論)함에 있어서는 당대 최고였던 것으

71) 시제는 각각 「送遼東使桑公」(『貞齋逸稿』 권1)과 「贈河南王使郭九疇永錫」(『貞齋逸稿』 권1)이다.

로 보인다. 더불어 그는 성품이 고매(高邁)하고 절의가 뛰어나 당대는 물론이요 후대 학자들의 모범이 되기도 하였다. 비단 학자로서의 면모뿐만 아니라 정치인이나 시인으로서의 자질과 활약도 뛰어났다. 1388년(우왕 14) 명나라에서 철령위(鐵嶺衛)를 설치하려 하자 명나라로 사행(使行)을 가서 철령위의 철폐를 교섭하여 이를 중지시킨 사건은 그가 정치·행정적 측면에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학의 측면에서도 명성이 높아 목은은 그의 시를 '진밀(縝密)'·'정절(精切)'하다고 평하였고, 『고려사』의 기자는 '정심(精深)'·'전아(典雅)'하다고 평하였다. 조선전기까지도 확실하게 전해지던 그의 문집 『부재집』이 어느 순간 일실되면서 20세기가 되어서야 『정재일고』가 편찬되었기에 현재 『정재일고』에 전해지는 32제의 시로는 그의 시세계를 온전히 살필 수 없다. 하지만 남아있는 시들을 통해서도 산수·전원의 풍광이나 시정(市井)의 발랄한 생기를 묘사하는 데에 뛰어났으며, 자연의 맑은 정취를 표현하는 '청신(淸新)'한 품격의 미의식을 살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진밀(縝密)하고 정심(精深)하다는 제가의 비평처럼 그의 시는 시적 구성이 치밀하고 시의(詩意)가 풍부하고 깊은 면모를 보여준다. 지금까지 14세기 후반의 한시사를 기술함에 있어서 박의중의 존재는 크게 부각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당대의 중요한 시인 중 한 사람으로 당대 및 후대 문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論語』.
『東文選』.
權近, 『陽村集』.
金九容, 『惕若齋學吟集』.
박영호 譯註, 『國譯 貞齋先生逸稿』.
朴宜中, 『貞齋逸稿』.
卞季良, 『春亭集』.
成俔, 『慵齋叢話』.
李穡, 『牧隱集』.
李崇仁, 『陶隱集』.
李集, 『遁村雜詠』.
鄭道傳, 『三峯集』.
鄭夢周, 『圃隱集』.

강지희, 「사료와 시문에 나타난 성균관의 재건과 儒風의 一新」, 『포은학연구』 32집, 포은학회, 2023.
구사회, 「박의중의 시세계」, 『동악어문논집』 33집, 동악어문학회, 1998.
박금규, 「정재 박의중의 시세계」, 『春岡 柳在泳博士 華甲紀念論叢』, 이회문화사, 1992.
박영호・강민구, 「年譜를 통해 본 貞齋 朴宜中의 삶과 문학」, 『동방한문학』 37집, 동방한문학회, 2008.
박학래, 「金堤 지역의 유학 전통과 그 특징」, 『범한철학』 114호, 범한철학회, 2024.
방현아, 『지원 강세륜의 삶과 시문학』, 학자원, 2023.
방현아・최상근, 『조선의 선비 서울을 노래하다: 세편의 한경잡영』, 학자원, 2024.
백승종, 『정조와 불량선비 강이천』, 푸른역사, 2011.
하정승, 『고려조 한시의 품격 연구』, 다운샘, 2002.
_____, 『포은 정몽주 한시 연구』, 박영사, 2017.
_____, 「14세기 후반 목은그룹의 형성과 遁村 李集의 문학 활동」, 『한문학보』 44집, 우리한문학회, 2021.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투고일 2026. 7. 27 심사시작일 2026. 8. 18 게재확정일 2026. 9. 21

Abstract

Expression Techniques and Literary Characteristics in the Poetry of Park Eui-jung

Ha, Jung-seung

Park Eui-jung(1337~1403) was a member of the Miryang Park clan. His childhood name was Park Sil, and he also went by other names, such as Jaheo and Jeongjae. Among these, 'Jeongjae' was 'Ho(號)' reflecting his life philosophy and values. In 1362(the 11th year of King Gongmin's reign), he ranked first in a civil service examination overseen by Hong Eon-bak as the chief examiner and Yu Suk as the vice examiner. Academically, he inherited the intellectual traditions of Yangpa Hong Eon-bak, Saam Yu Suk, and Bulhyeonjae Shin Hyun. He was also deeply influenced by Choeun Lee In-bok and Mokeun Lee Saek. Additionally, he maintained close interactions with Jeong Do-jeon and Lee Seung-in and was associated with figures such as Jeong Mong-ju, Kim Gu-yong, Lee Jip, Byeon Gye-ryang, and Gwon Geun.

Park Eui-jung's literary collection, 『Bujaejip』 was preserved until the early Joseon period but later disappeared for unknown reasons. In 1924, works scattered across other anthologies, such as 『Dongmunseon』 were compiled and republished under the title 『Jeongjaeilgo』. As a result, the quantity of Park Eui-jung's surviving works is very limited. Only 32 poems and three prose pieces are included in 『Jeongjaeilgo』.

In 1367 (the 16th year of King Gongmin's reign), Lee Saek was appointed as the head of the Sungkyunkwan to revitalize the nation's traditional studies and literature. Around this time, Park Eui-jung appears to have joined the Mokeun group through his work as an educational administrator alongside figures such as Jeong Mong-ju, Kim Gu-yong, and Lee Seung-in.

Mokeun, a leading scholar of the time, praised Park Eui-jung, saying, "The development of 'Samun(斯文, Confucian learning)' began with Park Eui-jung and must conclude with him." Similarly, Poeun evaluated Park Eui-jung as

someone who “clarifies and meticulously lectures on Confucianism.” The author of『The History of Goryeo』noted that Park Eui-jung was “naturally intelligent, exceptionally diligent in his studies, honest, unwavering in his integrity in times of peace or crisis, and profound and beautiful in his writing.”

Based on such evaluations, Park Eui-jung can be considered a representative literary figure of the late 14th century. He excelled not only as a scholar but also as a politician and poet. In 1388(the 14th year of King U’s reign), when the Ming dynasty sought to establish the Cheollyeongwi to directly govern the northern provinces from Cheollyeon in Goryeo, Park Eui-jung traveled to Ming China to successfully negotiate its cessation, demonstrating his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prowess.

Park Eui-jung’s poetry is noted for its vivid depictions of natural landscapes and the lively vibrancy of market streets. His works are characterized by a refined elegance that captures the pure essence of nature, known as ‘Cheongshin(淸新, clarity and freshness). Furthermore, consistent with evaluations by his contemporaries, his poems display meticulous structure, rich expression, and profound depth.

Keywords Jeongjae, Park Eui-jung, Park Sil,『Jeongjaeilgo』,『Bujaejip』, Yu Suk, Cheollyeongwi, Mokeun Group, Sungkyunkwan.

東方漢文學, 東方漢文學會
Dong-Bang Korean Chinese Literature Society
2026, 第108輯, pp.49~98
http://dx.doi.org/10.17293/dbkcls.2026.108.
ISSN 1226-668X

15세기 조(朝)·명(明)의 여성 효행 담론 연구*

-『효순사실(孝順事實)』·『삼강행실효자도(三綱行實孝子圖)』의 비교를 통하여-

구슬아**

目 次

1. 서론
2. 15세기 관찬 교화서 속 여성 효행 일화 개괄
3. 『효순사실』: 여성 생활세계의 현실적 포착
4. 『삼강행실효자도』: 한반도의 특수성과 효의 보편성
5. 15세기 관찬 교화서의 여성 효행 담론

|국문초록|

이 연구는 『효순사실(孝順事實)』과 『삼강행실효자도(三綱行實孝子圖)』에 수록된 여성 효행 일화를 비교하여, 15세기 조선과 명나라 양국이 유교 국가의 가치 규범 형성 과정에서 여성 주체의 가능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공표하였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여성 효행 주체의 위상을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 효행 주체들의 효행 수행 양상을 유형화하고, 편찬자가 유도하는 해석의 방향을 분석함으로써 같은 시기에 양국이 공유한 젠더적 가치 규범의 특징 및 분기점을 살폈다.

먼저 『효순사실』은 여성이 혼인 이후에 수행한 효행의 실제와 고난 속에서 보여준 판단력, 효행 완수의 의지 등을 강조하였다. 또 가사와 돌봄

* 이 연구는 2025년도 계명대학교 비사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과제번호: 20250631).
** 계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등 여성들이 가족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행한 현실적 노력의 면모를 핍진하게 재현하였다. 『효순사실』의 논단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여성의 의무로 당연시하지 않고 지속적 노력과 굳은 의지를 통해서만 수행할 수 있는 어려운 과업으로 해석함으로써 여성 효행 주체의 가능성과 위상을 높이 평가하였다.

『삼강행실효자도』는 현실적 생활세계의 포착보다는 가족 질서의 위기 앞에서 여성의 효심이 결정적 행동으로 발현되는 순간을 포착·재현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 특히 한반도 여성 사례를 통해 부모 세대의 무력함으로 인해 발생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써 딸이 부모를 구하고 가족 질서를 회복하는 행위를 부각하였다. 이 과정에서 남-녀, 중국-한반도 효행 일화를 대응시킴으로써 효행 능력이 성별·신분·교육·지역의 경계를 넘어 존재할 수 있음을 공표하였다.

두 자료 속에서 여성은 유교적 젠더 규범에 수동적으로 복종하기보다는 상황의 경중을 판단하며 가족의 위기를 실질적으로 수습하는 윤리적 주체로 형상화되었다. 15세기, 조선과 명나라는 여성 효행 주체들을 공적으로 현창하는 일화형 관찬 교화서를 통해 여성들의 판단과 실천을 유교적 인간다움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현실에서도 그것을 실천할 것을 독려하였다.

핵심어 『효순사실』, 『삼강행실도』, 15세기, 효자도, 여성 효행, 젠더, 가족, 교화서.

1. 서론

이 연구는 『효순사실(孝順事實)』과 『삼강행실효자도(三綱行實孝子圖)』(이하, 『효자도』로 지칭함)에 수록된 여성 효행 일화를 비교 분석하여, 조선-명 양국이 건국 초기에 상정한 유교적 인간다움이라는 가치 규범 중 '여성 효행'에 대한 특징적 해석 양상과 그 정치적 함의를 살핀 것이다. 15

세기 초는 조·명 양국이 유교적 통치 이념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한 시기이다. 효·충·열과 관련한 일화형 관찬 교화서[1]는 가족 윤리를 근간으로 한 유교적 사회 운영 방식을 구성원들에게 공표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효순사실』과 그것의 직접적 영향을 받아 편찬된 조선의 『효자도』는 그 대표적 사례로서, 가치 규범을 추상적·교조적으로 제시하는 대신, 평범한 일상이나 가족 질서가 흔들리는 위기 앞에서 구성원들이 어떠한 감정·판단·행동을 보이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사화하여 보여준 자료이다.[2]

특히 『효순사실』과 『효자도』의 여성 효행 일화는 각각 후한(後漢)부터 명초(明初), 삼국(三國)부터 선초(鮮初)에 이르기까지의 다기한 역사적 맥락 위에, 부모나 시부모의 질병과 죽음, 빈곤, 전란과 재난, 남편의 부재 등으로 가족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을 재현한 것이다. 그 안에서 여성들은 (미혼/기혼) 딸·며느리·아내·어머니로서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다양한 효를 수행한다. 이처럼 두 자료는 효라는 가치 규범을 현실에서 실천한 여성의 존재를 증빙하는 자료이면서, 국가가 공인한 젠더적 행동 기준이라는 윤리적·정치적 맥락을 복합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유교적 여성상과 여성 대상 교화서의 상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삼종지도와 효·열의 규범, 부덕(婦德)이라는 명명 등이 여성을 남성 중심의 가족 질서에 종속시키고, 순종과 자기희생을 내면화(혹은 세뇌)하게 한 과정을 주로 비판해 왔다.[3] 특히 국가 주도로 편찬된 교화서가 여성의 생

1) 명나라 건국 초기에 편찬된 관찬 교화서의 書目과 각 서적의 개략적 내용, 조선에의 頒賜 여부 등은 이상민(2017)에 잘 정리되어 있다. 『효순사실』, 『爲善陰騭』, 『古今列女傳』, 『仁孝皇后勸善書』가 조선에 수용된 대표적인 일화형 교화서이며, 이들은 모두 효와 열을 강조한 것이다. 관찬 교화서 가운데 충에 대한 일화를 별록한 서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필자는 『인효황후권선서』 권4에 충과 관련한 일화가 선별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2) 구슬아(2024), 36~43쪽.

3) 강명관(2013); 김가람(2024); 김미영(2007); 김언순(2005); 박영민(2003); 성민경

애 중 가부장적 질서에 부합하는 부분만을 선별하고 신체 훼손이나 죽음을 포함한 예외적 희생을 공적 전범으로 현창함으로써, 여성에게 과도한 윤리적 책임을 전가한 부분이 집중 조명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교화서의 규범적·정치적 성격과 그 안에 내재한 윤리적 폭력성을 밝히는 데 기여하였으나, 논의가 열녀 담론에 집중되면서 유교적 인간다움을 구성하는 핵심 덕목인 효의 영역에서 여성이 어떠한 행위 능력을 지닌 존재로 서술되고 평가되었는지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조명되지 못하였다. 유교 사회에서 여성은 효행의 '주체'로 인식되기보다는 가부장적 질서의 부차적 존재로 정위(定位)되었으며, 특히 기혼 여성에게는 딸로서의 효행보다 시부모에 대한 효행에 집중할 것을 암묵적으로 강요하였다는 비판적 관점이 우세했다.[4] 그러나 열녀 담론에서 확인되는 여성 통제 논리가 효행 담론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였는지, 16~17세기 가부장제 본격 정착 이전의 여성 담론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규범적 담론의 내면화라는 설명만으로 전근대 여성의 유교적 삶과 그녀들이 추구한 삶의 가치를 재단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아래, 여성이 가족 질서 안에서 여러 현실적 문제에 대응한 양상을 담은 문학적·역사적 기록으로부터 그 삶의 주체성을 복원하려는 연구도 이루어졌다.[5] 주로 18세기 이후의 사례를 대상으로 하기는 하였으나, 전근대 여성의 삶에 대한 평가를 소극성·수동성으로 일괄하지 않고 여러 제약 안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실천의 능동성을 발견하려는 의도였다. 그렇다면 여성의 생활사나 문학적 형상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능력이 정치적 효력을 목적으로 한 관찬 교화서의 편찬 과정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

(2019); 이경하(2023); 이재두(2019); 마르티나 도이힐러(2013).

4) 전기화(2017), 151~155쪽.

5) 강성숙(2013); 김기림(2015); 이경하(2009); 이정민(2023); 이혜순(2004); 장영란(2008); 한보람(2023).

관찬 교화서에 수록된 여성 효행 일화는 현실 속 여성의 삶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거나 포착한 기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편찬자의 정치적 의도만으로 이루어진 텍스트라고 할 수도 없다. 역사서에 기록된 여성의 행적이 선별· 축약·강조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교화의 문맥에 놓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특히 『효순사실』은 '논단(論斷)' 안에 15세기의 유교적 가치 규범에 대한 젠더적 관점을 상세히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므로 일화 속 행위를 실제 여성의 온전한 목소리로 간주하거나, 반대로 국가의 규율을 전달하는 도구로만 읽는 것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두 자료는 편찬 시기가 가깝고 상당수의 일화를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자료의 구성과 표현 방식, 상정한 수용자의 범위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어떤 여성의 삶이 효행의 모범으로 선택되었는지, 그 행위가 어떤 현실적 조건과 관계 속에서 서술되는지, 본문·논단·찬시가 여성의 효행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등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효순사실』과 『효자도』 속 여성 효행 일화를 유별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후 여성의 효행이 관찬 교화서의 전범으로 선별·공표되는 방식을 살핌으로써, 유교 문명의 정착 과정에서 여성의 도덕적 능력이 어떠한 범위에서 인정되었고, 그 인정이 당시의 젠더 인식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중국의 전범이 조선에서 선택·배제된 이유를 추정하고 한반도 여성의 효행이 그 전범과 어떤 관계 속에 배치되었는지도 살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15세기 유교 문명의 형성 과정에서 규범과 순종이라는 편견을 넘어 유교적 여성 인식의 실상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15세기 관찬 교화서 속 여성 효행 일화 개괄

이 연구는 『효순사실』 권10(계명대 벽오고문헌실본, 청구기호: 이귀 172.7 성조ㅎ)과 『삼강행실효자도』 한문본(고려대 만송문고본, 청구기호: 만송 貴 296B 1)에 수록된 여성 효행 일화를 대상으로 한다.[6] 『효순사실』은 여성 주체들의 효행 총 17편을 권10에 별도로 집록하였는데, 이는 전체 207개의 일화 가운데 약 8%의 비중이다. 『효자도』의 여성 효행 일화는 『효순사실』 및 고려시대에 편찬된 『효행록(孝行錄)』에서 인용한 사례와 새로 추가한 한반도의 사례 등 총 18편이다. 이는 전체 110개의 일화 가운데 약 16%의 비중이다. 한반도의 사례로 추가된 21편 중 여성 효행 일화는 8편이다. 『효순사실』의 여성 효행 일화는 선행연구에서 한 번도 언급된 바 없으므로, 독자의 편의를 위해 주요 내용을 표로 개괄하였다.[7]

<표 1> 『효순사실』 여성 효행 일화

번호	수록제목 (성명)	출처	역할	효행 대상	효행 방식
191	叔先沉江 (叔先雄)	후한서	딸(기) 어머니	친부	부친이 익사한 장소에서 100여 일간 시신 찾으려 투신 시도. 동생의 꿈에 나타나 정한 기일에 부친의 시신과 함께 떠오름.

6) 본고는 논의의 선명성을 위해 서사의 주인공이 여성인 일화를 '여성 효행 일화'라고 명명하고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효순사실』에는 「姜詩出鯉」(권1, 아내), 「杜孝寄魚」(권2, 아내), 「劉殷夢粟」(권2, 아내 張氏), 「賈恩捄棺」(권3, 아내 栢氏) 등, 보조 인물인 아내가 주인공인 남편을 도와 남편의 부모를 향한 효행을 함께 완수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으나, 형상화 초점 및 논단이 모두 남성 인물에게 맞추어져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7) 표의 '번호'는 『효순사실』 전체 일화를 기준으로 한 일련번호이며, 각 일화의 인용 출처, 본문에 기록된 여성 주인공의 성명이나 관련된 칭호, 부여받은 역할과 효행의 대상, 일화 내용에 근간한 효행 방식의 순으로 정리하였다. 역할 중, 딸이 기혼이면 '(기)', 미혼이면 '(미)'로 표기하였다.

192	女勝哀殞 (姚女勝)	북사	딸(미)	친부모	죽은 부친을 어려서부터 애도. 모친 사후, 수일간 절음·절수하며 통곡하다 애훼(哀毁)로 사망.
193	李氏奔喪 (李令儀, 貞孝女宗)	북사	딸(기) 과부 며느리	친부모 시모	출가 후 부친 삼년상 치르며 애훼, 친정 왕래, 남편 사후 시모 봉양, 모친 부고에 80일간 분상(奔喪)하다 반복된 애훼로 사망.
194	覃氏貧孝 (覃氏)	북사 고금 열녀전	과부 며느리	양(養)시모 시가 형제	18세에 과부가 되어 양(養)시모 봉양. 가난으로 인해 10년간 절약·길쌈하여 시가 식구 8명의 장례 완수.
195	李氏擧喪 (楊三妄妻 李氏)	구당서	과부 며느리	시부모 시가 형제	시부모·남편이 모두 죽고 어린 두 아들과 가난에 직면. 3년간 농사·길쌈으로 시부모·남편 등 7명의 장례 완수.
196	張氏哭父 (于敏直妻 張氏)	구당서	딸(기) 며느리	친부모 시부모	어려서 부모 병을 간호하는 효심. 혼인 뒤 시부모를 섬기다 친부의 부음 듣고 애훼로 사망.
197	王氏遷葬 (楊紹宗妻 王氏)	구당서	딸(기)	생모 계모 친부	3세에 생모 잃고 계모에게 양육, 15세에 친부 전사, 계모 사망, 생모·계모의 관을 수습하고 시신 찾지 못한 친부의 초상 만들어 초혼·합장·여묘살이.
198	楊香搤虎 (楊香)	태평어람	딸(미)	친부	맨손으로 범의 목을 졸라 부친 구출함.
199	張氏訴天 (張氏)	송사 고금 열녀전	딸(미)	친모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사통했다는 누명까지 쓰고 하옥된 모친과 함께 고문을 견디며 거짓 자백 거부. 하늘에 원통함을 호소하겠다 말한 뒤 죽어 범인 검거되게 만듦.
200	詹女紿賊 (詹氏)	송사 고금 열녀전	딸(미) 누이	친부 오라비	도적떼에게 살해될 뻔한 부친과 오라비 구하려 거짓으로 수괴에게 자신을 바치겠다고 함. 방류를 확인한 뒤에 적을 따라가다 다리 위에서 투신자살.
201	廖氏孝節 (節婦廖氏)	송사	아내 며느리	시모	도적떼에게 쫓기자 남편과 함께 시모 부축하여 피난, 자기 몸으로 시모를 가리고 기회 틈타 남편과 시모만 피신 시킴. 성폭행 위기에 항거, 귀와 팔이 잘려도 저항하다 사망.
202	王氏治家 (王氏·陳 堂前)	송사 고금 열녀전	과부 며느리 어머니 할머니	시부모 시가구성원	19세에 남편이 죽자 집안 경영을 맡아 시부모 봉양·자손 교육·시누이와 빈궁한 친족 및 고을의 윤락녀 구휼. 이후 후손 5대가 한집에 살며 가문의 명예가 높아짐.

203	良子感星 (呂良子)	송사	딸(미)	친부	위독한 부친을 간호, 하늘에 기도하며 대신 죽기를 청하여 부친의 질병 치유(+원전: 허벅지를 베어 죽을 끓여 먹임).
204	趙婦鬻子 (趙孝婦)	원사 고금 열녀전	과부 며느리 어머니	시모	일찍 과부 되어 삯바느질로 시모 봉양, 자신은 부실한 밥을 먹어도 시모에게는 맛있는 음식 대접, 미래에 있을 시모 장례를 위해 아들을 부잣집에 팔아 관을 마련, 예기치 못한 화재 때 시모는 피신시켰으나 관을 옮기지 못함에 통곡하니 불이 꺼짐.
205	聞氏養姑 (聞氏)	원사	과부 며느리 어머니	시모	청상과부가 된 딸에게 친정 부모가 개가를 권유하자 눈물로 거부하고 삭발. 오랜 병을 앓다 시력을 잃은 시모의 대소변을 처리하고 눈을 혀로 핥아 회복시킴. 아들과 함께 시모 장례 완수.
206	甄氏心驚 (甄氏)	고금 열녀전	기혼 며느리	시모	타지에 간 시모의 병을 직감하고 달려가 기도·탕약·병간호하여 시모의 병 치유. 시모 사후 3년간 시묘살이.
207	劉氏孝姑 (劉氏)	고금 열녀전	과부 며느리	시모	남편의 부임지에 가는 동안 자꾸 병에 걸리는 시모를 치유하려 팔을 찔러 피를 내 먹임. 남편 사후 채소 길러 시모 봉양. 병든 시모를 지극정성으로 간병하고 허벅지 살로 죽을 끓여 임종 직전의 시모를 살림. 사후 5년간 귀장(歸葬) 추진

<표 1>과 같이『효순사실』에 수록된 여성 효행 일화는 다양한 신분의 여성들이 친부모와 시부모를 효성으로 모신 기록이다. 시부모 봉양과 같은 전형적 젠더의식에 부합하는 일화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여성 효행 일화가 남성 효행 일화에 비해 편수가 적기 때문에 유형의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소거된 데서 기인한 착시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효행의 대상은 친부모(9편)-시부모(8편)가 비등하게 선별되었으며, 딸/며느리가 죽음으로 효행을 완수한 사례는 7편, 신체를 훼손하는 장면이 포함된 일화는 1편이다. 본문의 일화는 주로 역사서 열전 열녀전(列女傳)에서 큰 변형 없이 인용하였으며,『효순사실』과 비슷한 시기에 해진(解縉, 136

9~1415)이 칙명을 받아 1403년에 편찬한 『고금열녀전』을 중복 출전으로 하는 일화도 7편이나 된다.

다음은 『삼강행실효자도』 속 여성 효행 일화이다. 『효순사실』에 준하여 주요 효행 대상과 중심 위기, 효행의 양상을 간략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8]

<표 2> 『삼강행실효자도』 여성 효행 일화

번호	수록제목 (성명)	출전	역할	효행 대상	중심 위기-효행
9	양향액호	효순사실	-	-	-
13	緹縈贖父 (淳于緹縈)	효행록 후찬	미혼 딸	친부	부친의 형벌 위기-5녀 중 막내딸로 장안까지 따라가며 자신이 대신 관비가 될테니 부친을 용서해달라고 호소, 황제의 사면.
14	陳氏養姑 (陳孝婦)	효행록 후찬	과부 며느리	시모	남편의 사망과 부친의 개가 명령-수자리 살러 간 남편이 어머니를 부탁하고 사망, 시모 봉양하며 개가하지 않고 시모 장례 완수.
21	孝娥抱屍 (曹娥)	효행록 전찬	미혼 딸	친부	부친의 익사-무당에게 속은 부친이 굿을 하다 익사하여 시체를 찾지 못함. 부친의 시신 찾으려 17일간 강가에서 통곡하다 투신자살, 부친의 시체와 함께 떠오름.
64	義婦割股 (王武子妻)	효행록 전찬	아내 며느리	시모	남편의 부재 속 시모의 질병-기도하며 허벅다리 살을 베어 약으로 먹여 치유.
65	唐氏乳姑 (崔山南 祖母)	소학	며느리	시모	연로한 시모가 이가 없어 식사하지 못함-최산남의 증조모 장손씨(長孫氏)는 치아가 없어 밥을 먹지 못하였는데, 조모 당씨가 수년간 자신의 젖을 먹여 장수하게 함. 가문 번성.
74	첨녀태적	효순사실	-	-	-
75	조부육자	효순사실	-	-	-
87	견씨심경	효순사실	-	-	-
88	유씨효고	효순사실	-	-	-
89	知恩賣身	삼국사기	미혼 딸	친모	빈곤-자신을 노비로 팔아 모친 봉양.
90	薛氏分鏡	삼국사기	미혼 딸	친부	전쟁 및 부친의 개가 명령-눈물 흘리며 부친의 뜻 거절, 결혼 약속한 사람과 재회.

8) 『효순사실』에서 인용한 중복 작품은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였다.

98	辛氏扼賊	고려사	미혼 딸	친부	왜구의 침략-부친을 살해한 왜구의 목을 조르고 발로 차며 항거하다 사망.
100	蟲介斷指	[장계]	미혼 딸	친모	모친의 악질(惡疾)-손가락을 잘라 약으로 먹여 치유.
101	石氏負姑	[장계]	과부 며느리	시모	부친의 개가 명령-청상과부가 된 딸을 개가시키려는 부친의 명을 거부, 시모를 봉양하며 측간에 갈 때마다 업어서 이동시킴.
102	林氏救姑	[장계]	아내 며느리	시모	남편의 부재 속 화재 발생-남편이 타지에 간 사이 집에 불이 나자 뛰어들어 거동 못 하는 시모 구출하고 자신은 화상 입음.
108	恩時斷指	[장계]	미혼 딸	친부	부친의 급질(急疾)-손가락을 잘라 약으로 먹여 치유.
109	四月斷指	[장계]	미혼 딸	친모	병든 모친을 부친이 쫓아냄-치료법 탐색하고 손가락을 잘라 약으로 먹여 치유.

『효자도』는 전체 110편의 일화 가운데 『효순사실』로부터 전재하다시피 인용한 것이 총 70편[9]인데, 여성 효행 일화의 경우 『효순사실』에서 인용한 사례가 5편에 그친다. 이는 조선이 명의 여성 효행 담론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정황을 짐작하게 한다. 『효순사실』에서 인용한 다섯 편은 어린 소녀가 부친을 호랑이로부터 구하려는 용기[楊香搤虎], 부형을 살해하려는 소녀의 기지와 투신[詹女紿賊], 자식을 팔아 마련한 관이 화재로 소실 위기에 처하자 울부짖는 효부[趙婦斸子], 피와 살을 내어주며 시어머니를 봉양한 효부[劉氏孝姑] 등 극적인 서사들이다. 반면, 혼인 이후에도 친정에 대한 효를 지속하는 이씨, 긴 시간에 걸쳐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간 왕씨나 담씨처럼 현실적 맥락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사례는 선별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효자도』의 여성 효행 일화가 『효순사실』처럼 다양한 유형의 삶과 관계를 고르게 대표하기보다는 짧은 본문과 도상을 통해 핵심 효행을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9) 구슬아(2025), 13~14쪽.

시사한다. 『효순사실』이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관계와 책임의 변화 및 지속을 강조하는 일화를 주로 선별한 것과 달리, 『효자도』는 여성의 효심이 결정적인 행동으로 발현되는 순간을 포착하는 일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 이는 주로 역사서를 출전으로 하는 『효순사실』과 달리, 『효자도』의 경우 『삼국사기』, 『효행록』, 『고려사』, 장계(狀啓)와 같이 인용 자료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데서 기인한 차이로 보인다. 또한 『효자도』는 논단 없이 본문과 도상(圖像)을 통해 궁벽한 향촌에 사는 우부우부(愚夫愚婦)의 마음까지 감화시키려는 의도로 편찬되었기에,[10] 긴 시간에 걸쳐 전개되는 일화보다는 한 인물에게 닥친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작용한 효행이 선명하게 부각되는 사례를 택하여 장면 중심으로 구성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효자도』에 수록된 18편의 여성 효행 일화 중 성종대에 완성된 언해본에는 한반도의 사례가 모두 빠지고, 「양향액호」, 「진씨양고」, 「효아포시」, 「유씨효고」 등 네 편이 수록되었다. 3장에서는 이러한 개괄을 바탕으로 각 자료 속 여성 효행 일화의 유형화 양상 및 그에 대한 편찬자의 의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3. 『효순사실』: 여성 생활세계의 현실적 포착

(1) 관계와 책무의 중첩과 여성의 판단력

『효순사실』의 여성 효행 일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여성이 가정을 꾸리기 전과 꾸린 이후 등, 생애주기에 따라 맞닥뜨리는 현실적 관계의 변화를 단순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여성은 '딸이자 며느리'와 같이 중첩되는 정체성 속에서 마주하는 문제에 따라 효를 실천하는 것이다. 15세기 『조선왕조실록』이나 『신증동국여지승람』 속 여성 포상기록에

10) 구슬아(2024), 56~60쪽.

는 여성에게 시부모를 향한 효행만 실천하기를 권유하는 사회적 통념이 반영된 반면, 친정 부모에 대한 효행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지적[11]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특기할 만한 부분이다.[12]

> 이씨(?~519)는 이숙윤(李叔胤, 468~503)의 딸로, 범양(范陽)의 노원례(盧元禮)에게 시집갔으며,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애통해하다 거의 죽을 뻔한 것이 여러 날이었으나, 어머니 최씨가 위로하며 타이른 덕분에 겨우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다. 삼년상을 치르는 동안 몰골이 바짝 여위고 수척해져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다면 일어나지 못할 정도였기에, 어머니가 그녀를 남편의 집으로 돌려보냈으나, 음식 먹는 날이 줄고 끊임없이 눈물만 흘리니 나날이 쇠약해졌다. …… 남편 노원례가 세상을 떠나자 이씨는 죽은 남편을 추모하며 남은 집안사람들을 돌보고, 시어머니를 효성과 공경으로써 섬기기로 이름났다. 그러다 어머니 최씨가 낙양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부고가 막 이르자 소리 지르며 통곡하다 기절하여 하룻밤 만에 깨어났다. 엿새 동안 마실 것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니 시어머니가 제대로 회복하지 못할 것이 염려되어, 모친상을 치르도록 직접 돌려보냈다.[13]

인용한 글은 위(魏)나라의 효녀 이씨에 대한 일화로, 기혼 여성의 가족 관계 및 유대감이 친정에서 시가로 일방적으로 이전·단절되지 않는 면모

---

11) 김가람(2024), 15~18쪽.

12) 유교적 통념과 달리, 조선 후기 문인들의 문집에 담긴 여성 묘지명 등 생활사적 기록에는 기혼 여성이 친정과의 유대를 단절하지 않고 물질적·정서적·신체적 봉양을 지속하는 모습, 시가에서도 이를 갈등으로 여기지 않았던 현실이 담겨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참고된다. 여성 효행의 장기적 지속과 친정에 대한 유대는 조선 후기 통혼 거리의 밀착성, 딸에게도 친정 부모에 대한 효행을 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시가의 경제적 안정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정민(2023), 231~250쪽.

13) 『효순사실』 권10, 「193.李氏奔喪」. "李氏, 趙郡李叔胤女也, 歸范陽盧元禮, 性至孝. 父卒, 號慟幾絶者數日, 賴母崔氏慰勉之得全. 三年之中, 形骸銷瘠, 非人不起. 母遣歸夫家, 便飮食日損, 涕泣不絶, 日就羸篤. …… 及元禮卒, 李追亡撫遺, 事姑以孝謹著. 母崔終於洛陽, 凶問初到, 擧聲慟絶, 一宿乃蘇. 水漿不入口者六日, 其姑慮其不濟, 親送奔喪."

가 잘 드러난다. 이씨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지닌 가문의 장녀[14]인 반면, 남편 노원례에 대한 역사 기록은 별도로 찾을 수 없었다. 문맥으로 미루어 그녀는 혼인 이후 친정에 머물면서 부친의 삼년상을 치렀고, 애통함으로 인해 딸의 건강이 쇠하여짐[哀毁]을 염려한 친정어머니에 의해 시가[15]로 보내진다. 시부모 역시 그녀가 친정에 대한 걱정과 돌아가신 친정아버지에 대한 슬픔의 지속 때문에 제대로 일상을 영위하지 못하자 다시 수차례 친정으로 귀녕(歸寧) 보낸다. 이처럼 출가 이후에도 친정과의 유대감이 깊던 이씨가 남편이 죽은 뒤에는 '각성'하여 '딸'로서의 감정보다는 '며느리'로서의 책임감을 앞세워 시모를 정성스레 섬기는 것으로 나오지만, 이는 그녀가 부덕을 충족하였음을 보여주는 규범적 근거로써 간략히 진술될 뿐, 서사의 중심은 친정 부모를 향한 딸 이씨의 감정과 그에 따른 신체적 반응 묘사에 있다.

이어지는 대목에는 시가에서 규범적 삶을 살던 이씨가 친정어머니의 부고를 뒤늦게 전해 듣고 통곡하다 기절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6일간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할 정도로 슬퍼하던 이씨가 부친상 때처럼 크게 건강을 해칠까 염려한 시모가 직접 상례에 참여[奔喪]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350여 km의 거리를 80일 만에 도달할 정도로 쇠약해진 이씨는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의 상여를 붙들고 곡용(哭踊)하다 그대로 숨진다.[16]

일화 속에서 이씨는 기혼임에도 친정을 향한 과잉에 가까울 정도의 애틋한 효심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다. 스스로도 그런 행동

14) 본문에 언급된 이씨의 부친 이숙윤은 자의참군·남조군태수 등을 지냈고, 모친 崔賓媛(458~519)은 높은 덕망과 식견으로 가문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로 전해진다. 최빈원의 조카 崔巨倫이 남긴 「李叔胤妻崔賓媛墓誌」에 최빈원의 삶과 성품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15) 이씨의 친정은 趙郡[오늘날 중국 허베이성 隆堯縣 일대]이고, 시가인 范陽은 허베이성 北京 근처의 지명이다. 두 지역 사이의 거리는 350~400km 정도로 보인다.

16) 『효순사실』 권10, 「193.李氏奔喪」. "而氣力危殆, 自范陽向都, 八旬方達, 攀櫬號踊, 遂爾頓絶."

이 남편이나 시가에 대한 윤리적 의무와 배치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기에, 남편이 죽은 뒤 가장으로서 시모와 남은 가족들을 돌보면서도[撫遺], 친정 부모에 대한 감정과 딸로서의 책임 역시 지속하려 한다. 그녀는 자식으로서 연로한 부모를 돌보고 장례를 제대로 치르는 '생사사장(生事死葬)'[17]의 기본적 효행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함을 애석해하여, 여러 차례 기절하며 죽음에 가까워질 정도로 애통해한다.

주목할 점은 시가 구성원들 역시 친정 부모를 향한 며느리의 마음씀이 문제라고 간주하지 않고 도리어 어루만져 준다는 것이다.[18] 엄밀히 말해 이씨는 시가보다 친정에 더 효성을 다한 여성임에도 사후(死後) 황제로부터 '정효여종[貞孝女宗: 정결하고 효성스러운 모범적 여성]'이라는 시호를 추증받기까지 했다. 다른 일화인 「196.장씨가 부친상에 통곡하다[張氏哭父]」에도 기혼 여성이 친정아버지의 부음에 슬퍼하다 건강을 해쳐 목숨을 잃은 일이 재현되는데, 심지어 편찬자는 논단에서 이를 '태사(太姒)'의 경지에 견주기까지 하였다.[19] 태사는 문왕과 결혼한 뒤에도 친정 부모에 대한 효심을 지속하였다는 점에서 기혼 여성의 친정을 향한 효행에 강력한 전범이 되기 때문이다.

「191.숙선웅이 강에 몸을 던지다[叔先沉江]」 속 후한의 효녀 일화에서는 조금 더 문제적 상황이 펼쳐진다. 기혼 여성인 숙선웅은 아직 어린 1남 1녀를 둔 어머니다. 그런데 친정아버지가 공무 수행 중 익사하여 그 시신을 찾지 못하자 제대로 상례를 치르지 못함에 마음이 사무쳐 통곡하고, 아

17) '생사사장'은 효행의 기본과 끝이다. 『효경』 「喪親」. "生事愛敬, 死事哀戚, 生民之本盡矣, 死生之義備矣, 孝子之事親終矣."

18) 『효순사실』 권10, 「193.李氏奔喪」. "盧氏合家, 慰喩不解, 因命歸寧, 乃復故. 如此者八九焉."

19) 『효순사실』 권10, 「196.張氏哭父 論斷」. "有能盡孝, 若張氏者, 不多見也, 方之葛覃之夫人歸寧以致孝, 豈過哉?" 여기에 언급된 『시경』 周南 「葛覃」은 "言告師氏, 言告言歸. 薄汚我私, 薄澣我衣. 害澣害否, 歸寧父母."와 같이 태사의 부덕에 대한 칭송을 주 내용으로 한다.

버지의 시신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투신을 계획하지만 가족들의 감시로 번번이 실패한다. 그녀는 장래를 대비하여 아이들에게 금은보화가 가득 든 주머니를 각각 매어 준 뒤 호시탐탐 투신의 기회를 노리다가, 100여 일쯤 지나 감시가 허술해진 틈을 타 마침내 투신에 성공한다. 그리고 동생의 꿈에 나타나 아버지의 시신을 거두어 함께 떠오를 것이라고 예언하고 과연 그렇게 하였다는 일화이다.[20]

숙선웅은 이씨나 장씨와 달리 돌보아야 할 어린 자녀를 둔 여성임이 강조된다. 그런데 편찬자는 논단에서 이 점을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어머니로서 아이를 제대로 양육해야 한다는 전형적 젠더 의무를 저버리고 투신자살했음에도, 죽음을 두려워하게 마련인 연약한 여성[以女子眇然之身]이 아버지의 시신을 찾아 효를 완수하기 위해 대수롭지 않게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결연함[不惜一己之死], 그 변치 않는 효심의 강도[一念孝誠]만을 강조할 뿐이다.[21]

위의 세 일화는 시부모 봉양이나 자녀 양육의 의무보다 친정 부모를 향한 유대감과 효행을 서사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기혼 여성을 일률적으로 '시가의 며느리'라는 정체성으로 환원시키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효순사실』의 편찬자는 독자인 여성들에게 혼인이 기존의 관계와 삶을 단절시키는 사건이 아니며, 친정 부모에 대한 마음과 시가에 대한 마음이 양자택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을 보여준다. 시가에 대한 부덕 역시 친

20) 『효순사실』 권10, 「191.叔先沉江」. "叔先雄者, 犍爲叔先泥和之女也. 漢順帝永建初, 泥和爲縣功曹, 縣長遣其拜檄謁巴郡太守. 乘船墮湍水而溺, 尸喪不得. 雄感念怨痛, 號泣晝夜, 心不圖存, 常有自沉之計. 所生一男一女俱幼, 雄各作一囊, 盛珠環繫兒, 數爲訣別之辭, 言欲赴水求其父. 家人每防閑之, 經百許日後, 稍懈, 雄乘小船於父溺處慟哭, 遂自投水死. 弟賢, 其夕夢雄來告曰: '却後六日, 當與父尸同出.'至期俟之, 果與父相持浮於江上."

21) 『효순사실』 권10, 「191.叔先沉江 論斷」. "夫好生惡死, 人之常情. 叔先雄, 以女子眇然之身, 乃能視死如歸. 自沉於江流湍悍之中, 以求其父已死之體, 夫豈惡生而好死哉? …… 其一念孝誠, 彰著於已沒之後, 炳炳烈烈, 在人耳目."

정을 향한 효심을 제약하는 상충적 의무로 제시되지도 않는다. 혼인 뒤에도 친정 부모에게 마음을 다하는 행위는 예외적 일탈이 아니라 천성에서 비롯된 온전한 효로 칭송되며, 심지어 '태사'에 비견함으로써 고전적이고 아름다운 부덕의 한 형태로 승인하는 것이다.[22] 주의할 점은, 『효순사실』 속 여성들이 오로지 효의 완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책무를 방기하는 맹목적·충동적 감정의 소유자로 그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 (조씨는) 일찍 과부가 되었으나 시어머니를 효성으로 섬겼다. 집이 가난하여 삯바느질로 먹고살았는데, 맛있는 음식을 얻으면 반드시 가지고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자신은 거칠고 부실한 밥을 먹으면서도 싫어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난으로 인해) 연로한 시어머니가 하루아침에 돌아가시더라도 관을 마련할 길이 없을까 걱정하였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부잣집에 팔아 돈 백 꿰미를 받아 삼나무 사서 관을 짜두었다. …… 집에 불이 나자 조씨는 급히 시어머니를 부축하여 대피시켰지만 관은 무거워서 옮길 수가 없었다. 이에 가슴을 치고 대성통곡하며 말했다. "내가 시어머니를 위해 자식까지 팔아 만든 관인데, 나를 위해 이것을 꺼내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너무나도 괴롭구나!" 말을 마치자마자 바람의 방향이 북쪽으로 바뀌어 효부의 집이 불타지 않으니, 사람들이 효성에 감응한 소치라고 여겼다.[23]

인용한 이야기는 본능이라는 감정과 효라는 책무가 상호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인지를 독자들에게 묻는 일화이다. 『효자도』에 같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조씨는 젊어서 남편을 잃는 바람에 생계를 꾸리기 어려웠기에 삯바느질로 시모와 남은 자식들을 건사한다.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

---

22) 이러한 유형의 여성 효행 일화는 『효자도』에 모두 선별되지 않았다.

23) 『효순사실』 권10, 「204.趙婦鬻子」. "早寡, 事姑孝. 家貧, 傭織於人, 得美食, 必持歸奉姑, 自啖麤糲不厭. 嘗念姑老, 一旦有不諱, 無由得棺. 乃以次子鬻富家, 得錢百緡, 買杉木治之. …… 火勢及孝婦家. 孝婦亟扶姑出避, 而棺重不可移. 乃撫膺大哭曰: '吾爲姑賣兒得棺, 無能爲我捄之者, 苦莫大焉!' 言畢, 風轉而北, 孝婦家得不焚, 人以爲孝感所致."

의 가난한 환경이다 보니 시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쓸 관을 마련하지 못할까 염려하다가, 결국 둘째 아들을 부잣집에 노비로 팔아 그 대가로 관을 마련한다. 이 이야기는 빈곤한 여성에게 가족 질서의 유지와 회복이라는 효행 의무가 얼마나 가혹한 결정을 마주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듯하다.

아들을 팔 때조차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그녀는 정작 어렵사리 마련한 관이 화재로 타버릴 위기에 처하자 옮길 수 없는 관을 부여잡고 통곡한다.[24] 그런데 『효순사실』의 편찬자는 논단에서 그녀가 자식을 파는 결단을 주저함 없이 내렸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어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부인의 상정[夫愛少子者, 婦人之情也]"이라고 전제함으로써, 조씨가 모정이라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누르고 시모의 장례를 완수하는 효행[以凡大事]을 더 우선시하였다고 해석한 것이다. 화재 속에 시모를 대피시키는 데 성공하였음에도 자식을 팔아 겨우 마련한 관을 옮기지 못하게 되자 감정을 폭발시키며 절규하는 조씨의 면모에 이러한 고심과 선택의 무게가 잘 드러난다.

즉, 조씨는 빈곤의 해결·자녀 양육·시어머니 봉양 및 장례 준비 등 산적한 현실적 고난에 직면한 가진 것 없는 여성이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식을 파는 극단적인 행위를 통해 기계처럼 효를 수행해서가 아니라, 모정과 효심 사이의 충돌에 대해 '칼로 사랑을 끊어내는[割慈忍愛]' 듯한 고심을 거쳐 후자를 더 무겁게 선택하였기에 칭송받는다. 즉, 조씨는 가난한 여성임에도 상황과 경중을 판단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효행을 완수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결연한 판단을 실현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계책을 수립하는 면모가 상세히 재현되기도 한다.

24) 효를 위해 모성을 포기하는 유형의 설화는 가족 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전근대 효의 절대적 가치 우위를 보여주며, 이를 기꺼이 실현하는 며느리의 모습은 가부장제에 대한 순응을 상징한다고 보는 견해가 참고된다. 정경민(2012), 23~31쪽.

17세인 첨씨 여인은 '말벌 떼'라고 불리던 회수 일대의 반란군[淮寇]에 의해 갑작스럽게 마을이 점령당하자 이렇게 탄식하였다. "부모와 자식 모두 살 길은 없으니, 내 계획은 결정되었다!" 이윽고 반란군들이 들이닥쳐 그녀의 아비와 오라비를 붙잡아 죽이려고 하자,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비록 비루한 몸이지만 장군을 모실 터이니 아비와 오라비의 목숨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지 않으신다면 저도 함께 목숨을 버릴 것이니, 아무런 이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옳다고 여긴 적들이 아버지와 오라비의 결박을 풀어주었다. 여인이 손을 흔들어 아버지와 오라비에게 어서 떠나라고 하면서 말하였다. "저를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장군을 모시게 된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는 적을 따라 몇 리쯤 가다 저자의 동쪽 다리를 지날 때, 물속으로 뛰어들어 죽었다. 적들이 돌아보고는 깜짝 놀라 감탄하며 떠났다.[25]

인용한 일화는 『송사(宋史)』, 『고금열녀전』을 출전으로 하는 미혼 소녀의 이야기이며, 『효자도』에도 선별된 것이다. 일화 속에서 17세의 소녀 첨씨는 남송초의 혼란기, 회하 일대에서 창궐한 도적떼의 습격으로 인해 가족이 붕괴될 위기에 놓인다. 정작 오라비는 위기 속에서 용기를 내어 아버지와 여동생을 구할 시도조차 못 하는 사이, 소녀는 결연히 "나의 계책은 이미 결정되었다[我計決矣.]"라고 선언한다.[26] 자신의 안위보다 부형의 구원을 우선시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어지는 장면에는 그녀가 수립한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가 형상화되

25) 『효순사실』 권10, 「200.詹女紿賊」. "詹氏女, 蕪湖人. 宋高宗紹興初, 年十七, 淮寇號一窠蜂, 倏破縣. 女歎曰: '父子無俱生理, 我計決矣.' 頃之賊至, 執其父兄將殺之. 女泣拜曰: '妾雖窶陋, 願相從, 贖父兄命. 不然, 且併命無益也.' 賊然之, 釋父兄縛. 女麾手使亟去, '無相念. 我得侍將軍, 足矣.' 從賊行數里, 過市東橋, 躍入水中死. 賊相顧駭, 歎而去."

26) 이러한 일화는 후한 때 반란군에게 잡힌 아우를 대신해 스스로 결박하고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하게 해달라고 한 王琳(권2, 「16.王琳守塚」), 서슬 퍼런 적의 칼날 앞에서 부모를 구하려 목숨을 내던진 彭脩(19.彭脩扞賊, 권1), 司馬芝(권2, 「30.子華守母」) 潘綜(권2, 「47.潘綜救父」) 등의 남성 효행 일화와 대응된다.

어 있다. 적의 수괴에게 자신을 바치겠다고 제안하는 대신 부형을 목숨을 살려 달라고 협상하거나, 위기에서 벗어난 부형이 도망갈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적들을 다시 한번 속이며 함께 이동한 뒤에야 강물에 투신 자살하는 등의 결기가 빠짐없이 묘사되었다. 논단과 찬시에서도 편찬자는 첨씨가 '가냘픈 여인'임에도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夫女以閨門弱息, 而制行若是]를 완수하기 위해 적을 속이고 부형을 환란에서 구원[免父兄於難者, …… 能以計紿賊, 脫其父兄]한 계략은 물론이거니와, 죽음으로 대처할 부분까지 미리 정하여 뜻을 바꾸지 않은 과정[其預處以死, 秉志不回]을 되짚고 있다. 이를 근거로 '효와 정절을 늠연하게 지킨 기개의 소유자[孝道旣盡, 而貞節凜然]'로 극찬하는 것이다.

이처럼 『효순사실』 속 여성 주체는 가정 안에서 부형의 보호를 받는 연약한 존재나 시가에 충실한 순종적 존재로만 설정되지 않는다. 그녀들은 효행을 완수하기 위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한편으로는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며 이를 남성이나 시부모 등 가족 구성원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기혼 상태에서도 친정 부모에 대한 효심을 우선시하는 일화나 남성 가족 구성원의 무기력한 면모를 드러내는 장면을 삭제하지 않고 모두 선별·수록한 점도 여성 효행의 주체적 가능성을 인정하려는 편찬의 의도를 추측할 수 있게 한다.[27] 물론, 그녀들의 판단과 실천이 여전히 가족 질서의 유지와 같은 젠더적 규범 안에 긴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적어도 『효순사실』의 편찬자가 여성에 대해, 정해

27) 딸이 목숨을 바쳐 구하는 대상이 남성 가족 구성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199.장씨가 하늘에 호소하다[張氏訴天]」는 모녀의 이야기이다. 사족의 딸인 장씨는 과부가 된 어머니와 함께 산다. 어머니가 집안에 일어난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억울하게 지목되는 가운데 사통을 덮으려 살인했다는 누명까지 쓰자, 혹독한 고문 앞에서도 거짓 자백을 하지 않고 죽음으로써 하늘에 호소하여 어머니의 무고를 밝히겠다며 숨을 거둔다. 장씨의 죽음 이후 고을에 지진과 굉음 등 이상한 재변이 일어나고, 옥사에 의문을 품고 재조사를 시작한 관리에게 용의자를 알려주는 신이한 감응을 거쳐 어머니의 정절과 결백이 밝혀진다.

진 규범이나 성별 역할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마음과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교화를 통해 여성에게 '자발적인 효행'을 요구한다는 것은 복합적이고 현실적인 여러 관계와 맥락을 판단하여 실천할 수 있다는 능동성을 전제로 한다. 각 효행 일화의 배경은 삼종지도와 같은 윤리적 명제를 그대로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다. 현실은 늘 '기출 변형'이기 때문이다. 『효순사실』 내에 빈출하는 여성에 대한 젠더적 통념인 '(물리적·감정적) 연약함[眇然之身; 弱息; 孱弱]', '경험의 부족[閨門女婦之流]'과 능동적 판단/결단력에 대한 극찬 사이의 간극은 남성 효행 일화에 비해 더 선명한 감동을 일으키며 여성 수용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28] 사족 부녀뿐 아니라 조씨나 첨씨 같은 평민조차 딸-아내(과부)-며느리-어머니 등 여성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관계와 의무 속에 놓인다. 그러한 가운데 자신에게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관계가 무엇이고 그것을 책임지고 수행하기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 자체가 여성 효행에서 중요한 분량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유형의 일화를 선별한 것은 여성 효행 주체의 능동성을 요구하는 현실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돌봄·노동을 통한 가족 질서 지속에의 기여

그렇지만 『효순사실』에 가장 많은 분량으로 등장하는 일화는 역시 남편의 죽음과 그로 인해 초래된 가난, 시부모 봉양·간병·상례 등 의무의 지속과 같이, 안온하게 유지되지 않는 일상에서 여성이 수행해야 하는 부덕,

28) 당나라의 고문 운동가 한유가 진리를 현실 바깥에서 찾고 현실의 덧없음을 강조한 불교·도교가 당나라 쇠약의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그 영향으로 인해 부각된 인간의 수동적 순응성을 되돌리려 했다는 연구가 참고된다. 불교에서 유교로의 전환과 그에 기반한 풍속의 개량을 추구한 한반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김영민(2021), 339~342쪽 참고.

즉, 젠더적 책무에 대한 것이다. 현실에서는 이런 악조건이 감정의 표출이나 희생 결단 등을 통해 해소되지 않는다. 여성들은 결혼 이후 마주한 시가 해체 위기 속에서 자신의 남은 전 일생에 걸쳐 가족 질서의 지탱과 회복에 헌신하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 18세에 진안절에게 시집간 왕씨는 높은 품행으로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 모두 그녀를 '어머니[堂前]'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녀를 자기의 어머니 대하듯 존경하였기 때문이다. 1년 남짓에 남편이 죽고 오직 아들 하나만 있으니 시부모가 생계를 꾸릴 대책이 없었다. 당전은 눈물을 거두고 이렇게 말했다. "자식은 부모를 봉양하고 가업을 계승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이 며느리가 아들이 살아있을 때처럼 (남편을 대신해) 집안을 이끌어 가기를 바라나이다." 시부모는 "그래 준다면 우리 아들이 죽지 않은 것이나 진배없다."라고 하였다. 남편을 장례 지낸 뒤 부모를 섬기고 집안을 다스리는 데 법도가 있어 시부모가 편안히 여겼다. 아들 진일신이 다소 성장하자 이름난 유자와 훈도를 초빙해 가르쳤는데, 20세에 태학에 입학하고 30세에 죽었다. 손자들은 모두 학문에 독실하다고 이름났다. 시부모가 천수를 누리다 세상을 떠나자 상제례에 최선을 다하였다.[29]

인용한 일화는 효부 왕씨가 일생에 걸쳐 이룩한 모범적 부덕을 칭송하는 사례로, 『송사』, 『고금열녀전』 등에 수록된 것이다. 10대 후반에 이미 시가 마을의 사람들로부터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존경받던 왕씨는 결혼하고 1년 남짓 만에 남편과 사별한다. 생계를 꾸릴 방도가 없는 가운데 어린 아들과 연로한 시부모를 모두 봉양해야 하자, 그녀는 아내로서의 슬

29) 『효순사실』 권10, 「202.王氏治家」. "(王氏) 年十八, 歸同郡陳安節, 行義爲鄉人所敬, 但呼之曰'堂前', 蓋尊之如母也. 歲餘夫卒, 僅有一子, 舅姑無生事. 堂前斂泣告曰: '人之有子, 在奉親克家爾. 今已無可奈何, 婦願幹蠱, 如子在日.' 舅姑曰: '若然. 吾子不亡矣.' 旣葬其夫, 事親治家有法, 舅姑安之. 子日新, 年稍長, 延名儒訓導. 旣冠入太學, 年三十卒. 二孫曰綱曰綉, 紱, 咸篤學有聞. 舅姑相繼以壽終, 喪葬盡禮."

픔을 거두고[斂泣] 시부모에게 자신이 남편을 대신하여 집안의 생계와 가업을 꾸려나가겠다고 선언한다. 실제로 그녀는 가업을 일으키고 자식을 교육하는 일, 유일한 후계자인 아들마저 요절하자 그 아들이 남긴 손자들을 잘 가르쳐 가문의 명예를 이어가게 하는 일, 천수를 누리는 시부모를 지속적으로 봉양하며 장례를 치르는 일 등, 돌봄의 과업을 일생에 걸쳐 수행하는 '가장'으로 자리매김한다.

인용한 대목의 후반부에는 여성 가장의 책임감이 직계 가족의 질서를 회복하는 차원을 넘어 친족 구제와 지역민 구휼에 이르기까지 확대되는 면모가 그려진다. 남편의 어린 여동생을 가르치고 후한 예물을 마련하여 시집보내거나, 그 시누가 오빠의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자 재물을 기꺼이 나눠 준다. 심지어 시누의 남편이 재산을 모두 탕진하자 또다시 전답을 팔아 생활 기반을 마련해주고, 조카를 포함한 어려운 처지의 친족들을 모두 거두어 짝을 지워준 덕분에 종족이 번성한다. 그리고 부모가 술집에 팔아넘긴 고을의 가난한 여성을 속량시키고 혼인까지 시켜준다.[30] 즉, 왕씨는 가사노동이나 간병, 자녀 교육과 같이 여성에게 요구되는 부덕을 실천하는 차원이 아니라 재산을 관리하여 불리고, 친족의 곤경을 직접 구휼하여 일족의 장기적 번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자신의 효행을 완수하였다는 점에서 가족의 실질적 책임자로 형상화된다. 그 결과 위기 극복을 넘어 종족의 규모가 번성[宗族無慮百數]하고, 후손들은 5대에 걸쳐 효성과 우애・유업을 겸비한 가문으로 명예를 드높이게[子孫遵其遺訓, 五世同居, 並以孝友儒業著聞] 되었다. 애초에 그녀가 시부모 앞에 천명한 '봉친극가(奉親克家)'를 말 그대로 완수해낸 것이다. 물론, 이 일화에서 여성이 제도적으로 남성 가

30) 『효순사실』 권10, 「202.王氏治家」. "堂前歸陳時, 夫之妹尙幼, 敎育之. 及笄, 以厚禮嫁遣. 其後, 妹求分財, 堂前盡遺室中所有無靳色. 不五年, 妹所分財, 爲夫所罄, 乃歸悔謝. 堂前爲買田治産, 撫育諸甥, 無異己子. 親屬有貧窶不能自存者, 收養婚嫁, 至三四十人, 自後宗族無慮百數. 里有故家甘氏貧, 而質其女於酒家. 堂前出金贖之, 俾有所歸."

장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논단 역시 여성 가장의 가업 주관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전제로 시작한다.

> 부인은 집안 내부의 음식 조리와 가사를 주관하며 오직 술과 식사, 옷 등을 장만하는 것을 일삼아야 할 뿐, 가업을 계승하여 집안을 다스리는 일은 본디 그들의 직분이 아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고 자식이 어리며 시부모는 연로한데, 만약 가업 경영을 자신의 책무로 삼지 않는다면 장차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는가?[31]

부인은 오직 부덕과 관련한 가사[中饋]에만 집중하게 해야지 정치에 관여하게 하거나 집안의 가업을 주재하게 해서는 안 된다[國不可使預政, 家不可使幹蠱]는 『안씨가훈(顔氏家訓)』의 통념적 젠더 규범을 인용한 구절이다.[32] 왕씨가 시부모에게 천명한 '간고' 역시 아들이 아버지의 유지를 계승 발전시킨다는 뜻으로, 딸이나 며느리의 직분이 아니다. 그러나 편찬자는 곧바로 가족 질서의 유지와 존속에 위기가 발생하는 비상 상황에서조차 여성이 규범에 얽매여, 수동적으로 중궤에만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왕씨가 남성 가장에 준하는 역할을 자임한 것에 대해, 일화에서는 고을 사람들이 그녀의 성명을 함부로 부르는 대신 존경하는 어머니라는 의미의 '당전(堂前)'이라고 부르며 존경을 표하였고, 조정에서도 정려문을 하사함으로써 가장으로서의 위상이 대내외에 공표되었음을 특기하였다.

즉, 『효순사실』의 편찬자는 여성이 실질적 가장으로서 집안 내의 인정을 넘어 사회적 존경까지 획득한 사례를 젠더 규범에서 어긋나는 일탈이

---

31) 『효순사실』 권10, 「202.王氏治家 論斷」. "婦主中饋, 惟當以飮食衣服爲事, 幹蠱理家, 本非其職. 然或夫死子幼, 舅姑年老, 苟不以家務爲己責, 將誰仰哉?"

32) 같은 내용이 『소학』 嘉言 「廣明倫」 제45장에도 수록되어 있을 만큼 유교의 전형적 여성 인식을 보여주는 명제이다.

나 여성의 월권이라고 비판하지 않고 도리어 고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가사노동, 돌봄과 관련한 여성적 장점과 끈기가 가계의 계승과 명예를 드높이는 주요 근간이 되었다. 제도적 인정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윤리 수행이 현실에서의 여성 능력이 표출되는 주요한 계기가 됨으로써 여성이 가족 질서의 연장과 재생산에 이르기까지 주체로서 기여할 수 있음을 독자들에게 어필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시어머니가 길에서 병에 걸렸는데 유씨가 팔을 찔러 그 피를 탕약에 섞어 드리자 시어머니의 병이 나았다. 과주에 이르러 병이 도졌을 때도 이같이 하였다. 화주에 도착했을 때 남편 한태초(韓太初)가 죽었다. 그러자 유씨는 채소를 가꾸어 먹거리를 대며 시어머니를 더욱 공경히 봉양하였다. 2년이 지나 시어머니가 풍병에 걸려 일어나지 못하였다. 한여름이라 유씨가 밤낮으로 시어머니 곁을 지키며 모기와 파리를 쫓아냈는데, 시어머니에게 욕창이 생겨 자리에 구더기가 생기자 입으로 깨물어 없애니 구더기가 다시는 생기지 않았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위독해지니 유씨의 손가락을 깨물어 그녀에게 영결의 뜻을 드러냈다. 유씨가 신명을 부르짖으며 허벅다리 살을 베어 죽에 섞어 올리니 시어머니가 다시 소생하여 한 달을 넘긴 뒤에야 죽었다.[33]

인용한 일화는 명초의 효부 유씨에 대한 이야기이다. 『고금열녀전』에도 수록되어 있으며, 『효자도』 한문본 및 언해본에 모두 선별되었다. 타지로 발령난 남편을 따라 온 가족이 임지로 가는 사이에 시모가 누차 질병에 걸렸는데, 유씨는 그때마다 간병을 담당한다. 그러다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가계 운영까지 도맡게 되고, 시모의 사망을 지연시키기 위한 간절한 기도와 간병과 같이 생애 전 기간에 걸쳐 그녀가 며느리로서 수행한 부양

33) 『효순사실』 권10, 「207.劉氏孝姑」. "姑在道遇疾, 劉氏刺臂血和湯以進, 姑疾愈. 至瓜洲復病, 亦如之. 比至和州, 太初卒. 劉氏種蔬以給食, 養姑尤謹. 又二年, 姑患風疾, 不能起. 時盛暑, 劉氏晝夜侍姑側, 驅蚊蠅, 姑體腐, 蛆生席間, 又爲齧蛆, 蛆不復生. 及姑病篤, 齧劉氏指與之訣. 劉氏號呼神明, 刲股肉和粥以進, 姑復甦, 越月而卒."

의무와 효의 완수 과정이 나열되어 있다.

일견, 수용자들에게 시모 간병 과정 중 그녀가 팔의 피를 내고 허벅다리 살을 베어내는 훼손 장면이나 욕창이 생긴 시모의 썩은 살에서 나온 구더기를 깨물어 없애는 장면 등이 강렬한 인상으로 남을 듯하다. 그러나 이 사례를 신체 훼손의 극단성으로만 읽는다면 지겨우리만치 반복되는 고난의 연속 위에 그녀가 효행을 완수할 수 있었던 원동력과 노력이 가려진다. 애초에 『효순사실』의 편찬자는 자식의 신체 훼손 모티프를 선호하지 않을 뿐더러,[34] 통상적인 효행 일화에서는 자식이 피를 내고 살을 잘라 부모에게 먹이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소된다.

반면, 유씨의 경우 그러한 지극정성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절망감과 남편의 부재 속에서 직접 채소를 재배하여 생계를 꾸리거나, 거동하지 못하고 자리보전한 시모 곁에서 묵묵히 시간을 견디며 간호하는 익숙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인용하지 않은 결말부에서 유씨는 타지에서 사망한 시모의 유해를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가 시부와 합장[欲還合葬于舅墓]하려는 시도를 무려 5년간 지속한다. 「194.담씨가 가난 속에 효도하다[覃氏貧孝]」는 18세에 가난한 과부가 된 담씨가 시모와 남편의 형제, 조카 등의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 밤낮으로 길쌈하며 재산을 모아 '10년' 만에 가족 여덟 명의 장례를 완수하는 일화[氏家貧, 無以葬. 乃躬自節儉, 晝夜紡績蓄財, 十年而葬八喪]이다. 기약 없이 이어지는 인내와 노동의 서사라는 점에서 두 일화의 강조 포인트가 비슷하다.

과부가 된 여성이 '효의 진정한 주체'인 남성 가족 구성원의 부재 속에서 남은 생애 동안 유족의 봉양·양육·간병 등의 돌봄을 모두 책임질 때,

---

34) 남성의 사례에서는 송나라 종실의 후손 「151.조선웅의 순정한 효심[善應純孝]」(권8) 한 편을 찾을 수 있으며 그나마도 "지극히 효심이 깊어 부모가 병들자 피를 짜내어 약에 섞어 드렸다.[性純孝, 親病, 嘗刺血和藥以進]" 정도로 무미건조하게 서술되어 있다. 여성의 사례로 유일한 것이 바로 「207.劉氏孝姑」이다.

그것은 남편에 대한 '열행(烈行)'이자 여성들의 삶에 유일하게 의미 있는 일로 인식된다는 점,[35] 이는 삶의 다른 길을 선택할 권한은 없이 여성에게 오직 가족 질서의 존속을 위한 대리자[36] 혹은 유사가장이라는 책무에 더해 효행의 부담까지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37]

그러나 『효순사실』에서는 『안씨가훈』과 『소학』에서 여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쪽으로 평가절하해 온 가사 노동과 돌봄이 마냥 자연스러운 임무로 처리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해체 위기에 놓인 가족 질서의 회복과 존속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 기반이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을 요하는 수고인지를 여러 일화에 걸쳐 반복 강조한다. 논단에서 편찬자는 불가피한 현실적 유혹과 어려움 앞에서도 가사와 돌봄이 오랜 시간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은 그녀들의 의지와 결단 덕분이며, 실질적 노동을 마다하지 않고 고난의 시간을 '감내'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여성 효행의 남다른 원동력이라고 칭송한다.[38] 이를 '여사(女士)'의 행위로 격상하기도 하는데, 배움의 기회나 사회적 지위를 지닌 '장

35) 김기림(2015), 152~162쪽.

36) 여성은 평소에는 가족의 일상사를 책임지고 가정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존재이지만, 오직 남편이 죽었을 때만 주도적 역할을 '일시적'으로 수행하고 곧바로 아들이 성년이 되면 주도권을 넘겨주며 '남성-가족'의 구성원을 향하는 존재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마르티나 도이힐러(2013), 358~359쪽.

37) 김기림(2015), 163쪽. 『효순사실』에도 이러한 비판적 평가에 부합하는 일화가 수록되어 있다. 「205.문씨가 시어머니를 봉양하다[聞氏養姑]」는 청상과부가 된 문씨를 친정에서 개가시키려 하자, 늙은 시어머니와 어린 자식을 두고 떠날 수 없다며 머리카락을 잘라[斷髮自誓] 수절을 맹세하는 대목이 그려진다. 문씨는 가난한 집안에서 중풍을 앓는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거나 돌아가신 뒤에는 손수 흙을 져 나르며 소박하지만 정성스레 장례를 완수한다. 그 논단은 "부인의 덕성은 효순[孝順: 부모를 진심으로 봉양하고 부모의 뜻에 순종함]과 정절을 근본으로 삼는다.[婦人之德, 以孝順貞節爲本.]"는 명제로 시작함으로써, 문씨가 이 둘을 겸비하였음을 칭송하였다.

38) 『효순사실』 권10, 「207.劉氏孝姑 論斷」. "遇夫疾病危急, 不以其夫之亡, 能盡心竭力以事之, 此固足以見其孝."; 「194.覃氏貧孝 論斷」, "夫以覃氏之遇艱難如此, 而孝行終始不變, 豈非賢哉?"

부(丈夫)', '군자(君子)' 등도 쉽게 실천·완수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그 고결성을 강조하기도 한다.[39]

요컨대, 『효순사실』 속 여성 효행 주체는 가족 질서의 존속과 회복에 부역하고 희생되는 존재 그 이상으로 형상화된다. 그녀들의 삶을 기록으로 남긴 1차 사료를 『효순사실』에서 선별·인용한 것은 여성이 가사와 돌봄·인내를 지속하는 면모, 곤경에 처한 다른 사회 구성원에 대한 구제를 포기하지 않는 면모가 유교적 인간다움의 한 발현태이며, 여성의 그러한 능력과 노력이 유교적 사회질서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임을 국가에서 인정한 결과이다. 여성 수용자들은 그 안에서 자기의 삶을 발견하고 긍정적 강화를 통해 효를 수행할 의지를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 『삼강행실효자도』: 한반도의 특수성과 효의 보편성

(1) '딸'의 재발견

『효자도』 속 여성 효행 일화에서 두드러지는 경향은 미혼인 '딸'의 서사가 강화된다는 것이다. 18편 중 「양향액호」, 「첨녀태적」[이상 『효순사실』 인용], 「제영속부(緹縈贖父)」, 「효아포시(孝娥抱屍)」[이상 『효행록』 인용], 「지은매신(知恩賣身)」, 「설씨분경(薛氏分鏡)」, 「신씨액적(辛氏扼賊)」, 「충개단지(蟲介斷指)」, 「은시단지(恩時斷指)」, 「사월단지(四月斷指)」 등 10편이 미혼 딸에 대한 일화로 '며느리' 서사와 편수가 비슷하지만, 특히 한

39) 『효순사실』 권10, 「195.王氏遷葬 論斷」. "人有不幸而連遭親喪, 在丈夫固難經營之矣.(밑줄 강조: 필자) 至以閨門女婦之流, 而克襄其事, 豈不謂之賢矣哉?"; 「194.覃氏貧孝 論斷」. "世之爲人婦, 少年早寡, 而不安其室者, 有矣. 幸而能守也, 而悖慢其姑者, 亦有矣. 至於孑立貧苦, 鮮不怨懟而委去焉. 而覃氏之所立有絶人者, 其行豈愧於士君子哉? 此詩之所謂女士者也."; 「199.張氏訴天 論斷」. "使當是時, 含垢忍恥, 死於拷掠之下, 則母潔清之行, 終無所暴白矣. 孰謂女子於親緩急, 果無所益哉? 觀張氏女所爲, 非所謂烈丈夫者乎?"

반도에서 추가한 여성 사례는 대부분 며느리의 시부모 봉양보다 딸이 친부모의 생명을 살리는 장면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 능동성을 부각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 사월은 곽산의 군인 김말건(金末巾)의 딸이다. 19세에 어머니가 전광증(癲狂症)에 걸려 1년이 지나도 낫지 않고 봄여름에 더욱 심해지니, 남편에게 버려졌다. 그러나 사월은 산 사람의 뼈가 약이 된다는 말을 듣고 마침내 자기 손가락을 잘라 약을 만들어 먹였다. 평안감사가 이 소식을 조정에 보고하니 마을에 정표하고 요역을 면제하였다.[40]

인용한 일화는 딸의 능동적 면모가 가장 잘 형상화된 것이다. 평안도 곽산의 효녀 김사월의 이야기는 1422년 6월 27일, 관찰사의 장계 형식으로 『세종실록』에 수록되었으며, 귀진[貴珍, 男, 황해도 백정], 은시[恩時, 女, 평안도 평민]와 함께 『효자도』에 수록된 최신 한반도 사례이기도 하다. 일화의 첫머리부터 눈에 띄는 부분은 가장인 아버지 김말건[41]의 '책임 방기'이다. 사월의 어머니는 전광병에 걸렸는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병이 낫지 않자, 김말건은 병든 아내를 버린다.[42] 이에 사월이 직접 모친의 치료법을 찾다가[43] 살아 있는 사람의 뼈가 전광증 치료의 약이라는 민간 비방을 듣고는 기꺼이 자기 손가락을 잘라 약을 만들어 바친다.

이 사례도 『효순사실』 「유씨효고」처럼 '단지(斷指)'라는 극단적 신체 훼

---

40) 『삼강행실효자도』, 「四月斷指」. "四月, 郭山軍人金末巾女也. 年十九, 母得狂疾, 經年不愈, 春夏尤甚, 爲夫所棄. 四月聞生人之骨[爲?]藥. 遂自斷手指, 爲藥以進. 監司以聞, 旌門復家."

41) 『세종실록』에는 金麼彦이라고 되어 있다. 『세종실록』 권16, 세종4(1422), 6월 27일.

42) 세종대에는 이미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었고, 질병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경(2010), 210쪽.

43) 사월의 이러한 노심초사는 『삼강행실효자도』보다 『세종실록』에 더 상세히 재현되어 있다. 『세종실록』 권16, 세종4(1422), 6월 27일. "其女四月旁求醫治之術, 有云: '碎生人骨, 服之則立效.' 四月卽截左手無名指碎之, 和羹以進."

손이 수용자들의 뇌리에 먼저 박힐 듯하다. 한반도의 미혼 여성 효행 일화 중 세 건이 단지 모티프를 전면화하고 있고, 그러한 신체 훼손을 효행의 모범으로 공표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편찬자가 평안도 관찰사 정진(鄭津)이 올린 장계를 원전으로 활용하되, 일부 구절을 변용하여 본문을 작성함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부분이 눈에 띈다. 치료법을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니는 과정을 비롯해 사월이 무명지를 잘라 부수는 잔혹한 장면 묘사[四月卽截左手無名指碎之], 난치병이던 전광병이 나았다는 결과[病遂已]가 생략된 것이 그것이다. 『효자도』는 일화 선별에 많은 인원을 투입하였고 그 기준이나 표현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확언할 수는 없지만,[44] 적어도 이 일화에 한정하여 편찬자는 딸의 신체 훼손과 결과적 보상(병의 치유) 그 자체보다는 가장의 책임 방기로 인해 가족이 해체될 위기에 처하자 딸이 직접 문제해결에 나섰음을 부각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사월단지」는 병에 걸린 어머니를 치유하는 딸[蠱介斷指]-병에 걸린 아버지를 치유하는 딸[恩時斷指]의 나열 끝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 두 일화와 달리 남성 가장의 부정적 면모가 고스란히 담겨 가정 붕괴의 현실감이 강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사월은 아버지가 포기한 돌봄과 가족 질서 유지의 책무를 자임하여, 능동적으로 치료법을 탐색하고 그 의학적 타당성과는 별개로 아무렇지 않은 듯 손가락을 잘라 어머니를 치유함으로써 이 가정의 실질적 가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전범이 된다.[45] 『삼국사기』에서 인용한 「설씨가 거울을 나누다[薛氏分境]」 역시 마찬가지이다. 설씨의 아

44) 예컨대, 「恩時斷指」의 사례에서는 아버지의 급질에 자식의 손가락을 말린 것[陰乾子手指]이 효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딸 은시가 손가락을 잘라 술에 타 먹인 결과 아버지의 병이 나았음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삼강행실효자도』의 일화 취택 과정의 우연성과 모순성에 대해서는 구슬아(2025) 참조.

45) 『삼강행실도』의 효자도 및 열녀도가 당사자가 효나 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낄 법한 번민과 고통을 축소·은폐하고 이를 숭고한 자발성으로 포장하는 문제에 대한 비판은 이경하(2009) 참조.

버지는 늙은 자신을 대신해 기꺼이 수자리 살러 간 가실과의 혼약을 파기하고 부잣집에 시집가라고 딸에게 종용하지만, 설씨는 끝까지 가실에 대한 신의를 지킨다.

이러한 일화를 통해 수용자들이 가장을 비난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가장의 도덕적 권위가 성별이나 지위에 의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가장인 아버지보다 어린 딸이 오히려 능동적 노력을 통해 도덕적 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라의 노처녀 「지은이 자신을 팔다[知恩賣身]」의 사례도 유사하다. 지은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32세가 되도록 결혼하지 않은 채 홀로 어머니를 봉양한다. 그녀가 결혼하지 못한 것은 가난으로 인해 지속된 노동 때문이다. 품팔이나 구걸로도 생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녀는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결혼은 물론 자유까지 포기[부잣집에 자신을 노비로 팔기]하며 밤낮없이 노동과 봉양의 책무를 수행한다. 지은의 이러한 면모는 책임을 방기하지 않는 가장의 면모 그 자체로, 사월의 아버지와 대비된다. 결국 고생하는 딸의 실상을 알게 된 어머니가 미안해하며 통곡하고, 모녀의 울음소리를 들은 화랑들이 그녀를 속량시키는 한편, 신라의 국왕이 이 집의 생활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으로 일화가 종결된다. 어려운 백성을 구제하는 국가의 공적 책임은 가장인 아버지의 책무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46] 공적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모녀를 구원한 것은 이러한 국가의 돌봄이 아닌, 개인적 자유와 행복보다 평생을 바쳐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았던 딸 지은의 눈물겨운 책임감 그 자체인 셈이다.

「양향액호」, 「신씨액적」에는 가족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외적 폭력[호랑

46) 국가 주도로 수용자의 선한 본심을 움직이고 감발시키는 교화서를 편찬하여 반포한 것은 위계질서의 확립과 순응이라는 정치적 의도를 백성들에 공표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에게도 위기에 처한 이들을 발견하여 살아가도록 돕고 그 효행을 그림·행록·찬시로 재현하여 공표함으로써 미풍을 확산시킨다는 국가적·공적 책무를 새삼 자각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왜구] 앞에 온몸으로 항거하는 딸의 결기가 형상화되어 있다. 특히 「신씨액적」은 『효순사실』에서 인용한 「첨녀태적」과 유사한 모티프로 이루어져 있다. 앞서 보았듯, 첨씨는 부형을 구원하기 위해 지략을 발휘한 뒤 자발적으로 투신하지만, 신씨는 부형이 이미 살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형의 원수를 갚겠다며 무장한 왜구의 멱살을 잡고 발로 차 거꾸러뜨리다 역부족으로 인해 살해된다.[47] 편찬자는 찬시에서 신씨의 죽음이 왜구에게 정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저항으로 읽히지 않도록, 부모의 원수와 한 하늘을 이고 살아갈 수 없다고 외치는 신씨의 준열한 꾸짖음과 신체적 항거를 재차 부각[父母之讐不共天, 何心從汝下江船? 扼吭罵賊聲彌厲, 雖死芳名永世傳.]하였다.

『효자도』는 이처럼 '딸'의 이야기를 재발견하여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제시한다. 즉, 딸은 결혼하여 시가의 질서에 편입되기 전의 임시적 가족 구성원이라거나 살림 밑천 혹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부모의 부양과 돌봄, 가문의 명예 회복 등에 있어 가장의 존재 여부와 상관 없이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그 위상이 강화되어 있다. 특히 지은과 사월의 효행 일화는 딸이 부모 세대의 무력함·무능함으로 인한 책임 공백을 대신하여 가족을 구원한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익숙한 여성 중심 서사[48]와도 상통하는 면모가 있다.[49]

---

47) 『삼강행실효자도』, 「辛氏扼賊」. "賊露刃擬之, 辛大罵曰: '賊奴! 汝殺則殺我, 汝旣我父, 不共戴天之讎也!' …… 遂扼賊吭, 蹴而倒之. 賊怒害之."

48) 잘 알려져 있듯, 「지은매신」은 『심청전』의 원형으로 읽히며, 가장의 책임방기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월의 이야기는 「바리데기」 설화와도 맥이 닿아있다고 보인다. 한반도의 여성중심서사는 딸을 가족의 위기에 대한 궁극적 구원자로 형상화한다. 극단적 희생을 통해 가족 구원을 요구받으며 소극적이나마 가부장제의 인정을 받는 면모부터 「가믄장애기」와 같이 가장의 윤리적 문제를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해소하는 면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장영란(2008), 3~14쪽.

49) 이혜순은 『삼국사기』 열전 속 설씨녀, 평강공주, 지은 등 여성 효행 일화를 대상으로, 여성에게 부과된 '효'라는 윤리 개념이 부모를 공경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린다는 고정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실천하는 것으로 이

외딴 시골의 아녀자인 충개　　蟲介**窮村一女兒**
아직 비녀도 꽂지 않은 소녀인데도　　行年況復未笄時
마음 다해 약을 만들어 어머니 병을 고쳤으니　　盡心奉藥醫親疾
누구에게나 하늘이 준 떳떳한 본성 있음을 믿을 수 있겠도다
　　須信人皆**有秉彝**
-「충개단지 찬시 제2수」

외딴 시골의 어리석은 여인이 무엇을 알겠는가　　**荒村癡女有何知**
오직 바란 것은 부모님이 오래도록 사시는 것　　只願爺孃鬢帶絲
임금님 덕화가 근래 멀고 가까운 곳 없이 퍼지니　　**王化**邇來無遠近
저 산기슭에 우뚝 솟아 있는 정려문을 보게나　　請看旌表峙山陂
-「사월단지 찬시 제2수」

인용한 찬시에서 편찬자들은 충개나 사월을 공통적으로 '외딴 시골의 아녀자'라고 칭한다. 이는 두 여인의 효행이나 능력을 폄하하는 의도라기보다는 평민이라는 신분적 상황, 교육·경험의 부족을 강조하려는 표현으로 보인다.[50] 이처럼 '딸'의 재발견은 일화 속 여성 효행 주체의 사회적 위치와 『효자도』가 상정한 수용자층이 서로 밀접하게 맞물린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다. 『삼강행실도』는 민간의 어리석은 자, 어린이, 여염의 부녀["賢愚貴賤孩童婦女" 「三綱行實圖序」(1432); "街童巷婦" 「敎書」(1434)]와 같은 사회구성원을 반포와 교화의 범위에 포함하였는데, 이는 이 책에 등

해하는 김부식의 유교의식의 결과임을 언급하고, 여성을 남성에 부수적인 존재로만 보기보다는 여성도 유교적 사회에 구성원으로 기여하는 기능적 존재로 보고 있다고 보았다. 이혜순(2004), 434~436쪽.

50) 정진의 장계에는 이러한 의도가 한층 선명하게 드러난다. "사월은 미천한 집에서 태어나 교육받은 바도 없습니다. 오직 어미가 아비에게 버림받은 것을 보고 자기 몸은 아끼지 않고 어미의 병을 고친 것이니, 이는 曹娥와 魯姑에 견줄 수 있는 효행입니다. 마땅히 장려하여 풍속을 두텁게 하소서.[四月生於微賤, 旣無敎誨之資, 但見其母爲父所棄, 不惜其身, 以療其病, 是曹娥、魯姑之儔也. 宜加奬勵, 以厚風俗.]" 『세종실록』 권16, 세종4(1422), 6월 27일.

장하는 효행 주체들과 상응한다. 『효자도』 속 딸-특히 한반도의 딸-은 가난한 집의 딸(지은, 설씨), 군인의 딸(신씨, 충개, 은시, 사월) 등,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존재이지만 남다른 효행을 끝내 완수 해낸다.

편찬자들은 『효순사실』에 비해 평민-딸 효행담의 비중을 더 높임으로써, 효의 보편적 실현가능성을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러한 방식의 '교화'가 효과를 발현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것이 가능했던 원동력은 찬시에 언급된 바와 같이 '병이(秉彝)'이다. 부모의 질병과 가족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와 자신도 모르게 결연히 행동할 수 있는 선한 본성 및 실천 능력이 '미혼의 딸'에게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효순사실』에서도 비슷하게 강조된 바 있다. 이러한 선언에 따라 효행의 주체적 가능성은 남성, 사인(士人)을 넘어 궁벽한 향촌의 어린 여성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었다. 교화 대상인 여성 수용자들이 여러 현실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효를 실천함으로써 그 천성을 증명하였기에 칭송받는 도덕적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2) 남-녀·조-명 효행 일화의 상호 대응을 통한 주체적 위상 강화

여성 효행 일화를 별도의 권차에 분류해 둔 『효순사실』과 달리, 『효자도』는 남성-중국 효행 일화와 함께 인물의 생몰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치[51]하고 있다. 또한 『효순사실』은 비슷한 효행 모티프를 서로 다른 일화에서 반복하여 수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유사한 화두를 지속 반추하게

51) 구슬아(2025), 13쪽. 물론 이것은 『삼강행실도』의 창안은 아니다. 또 다른 인용서적인 『효행록』이 이러한 편집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52] 이는 『효자도』도 마찬가지이다. 일화를 선별할 때, 남성 효행 일화 혹은 중국 여성 효행 일화 속 전범과 상호 대응하는 모티프를 한 차례 이상 반복할 수 있도록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① 아버지를 따라 밭에서 곡식을 베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렸다. 양향은 겨우 14세였는데 손에 작은 칼조차 없어 곧바로 범의 목을 조르니, 아버지가 그 덕분에 벗어날 수 있었다.
>
> –「양향액호」[53]

> ② (최루백이 15세에) 아버지가 사냥하다 호랑이에게 해를 당하자, 최루백이 호랑이를 잡으려 하였다. …… 즉시 도끼를 베고 호랑이를 추적하니, 호랑이가 이미 배가 불러 누워있었다. 최루백이 곧장 호랑이 앞으로 가서 소리쳤다. "네가 우리 아버지를 잡아먹었으니 나도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가 꼬리를 휘두르며 엎드리자 도끼를 내리쳐 배를 가르고 아버지의 시신을 꺼냈다.
>
> –「누백포호(婁伯捕虎)」[54]

①은 남조송(南朝宋)의 14세 소녀 양향이 호랑이에게 물린 아버지를 구출한 일화이다. 사건이나 감정묘사가 다소 소략하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갑작스러운 호환으로 인한 당혹감과 자기도 모르게 달려든 효심이 잘 드러난다. 그런데 『효순사실』의 남성 효행 일화에는 신분을 막론하고 자식

---

52) 구슬아(2024), 45쪽

53) 『효순사실』 권10 및 『삼강행실효자도』, 「楊香搤虎」. "隨父田間穫粟, 豐爲虎所噬. 香年甫十四, 手無寸刃, 乃搤虎頸, 豐因獲免."

54) 『삼강행실효자도』, 「婁伯捕虎」. "(崔婁伯) 年十五時, 父因獵爲虎所害, 婁伯欲捕虎. …… 卽荷斧跡虎, 虎旣食飽臥. 婁伯直前叱虎曰,: '汝食吾父, 吾當食汝!' 虎乃掉尾俛伏, 遽斫而刳其腹, 取父骸肉." 『효순사실』의 남성 효행 일화 중에는 이에 대응하는 유사한 모티프의 일화가 있다. 권9에 수록된 「184. 석명삼이 호랑이를 베다(明三斫虎)」이다. 호환(虎患)을 당한 어머니의 원수를 갚기 위해 아들이 호랑이 일족을 모두 죽이고 자신도 힘이 다해 숨을 거두었다는 내용이다.

이 호환을 당한 부모를 구해낸 일화가 한 건도 없다. 이에 따라 『효자도』의 편찬자는 「양향액호」에 대응되는 남성 효행담을 별도의 인용 서적에서 선별할 필요가 있었고, 『고려사』 「효우열전(孝友列傳)」에도 수록된 최루백의 일화(②)를 통해 무기도 없는 여린 소녀의 몸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오직 아버지 구할 것만 생각한 양향의 맹렬한 효심[55]과 유사한 모티프의 효자 구출담을 마주 세울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효순사실』로부터 일화를 선별할 때에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시어머니가 둘째 아들의 집에 갔다. 며느리 견씨가 뒤따라가며 차마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못하자, 시어머니가 억지로 그녀를 보내어 집으로 돌아가게 했다. 사흘이 지났을 즈음, 견씨는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니[忽心驚, 擧身流汗]** 시어머니에게 병이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이에 급히 시어머니를 뵈러 가는데, 과연 시어머니가 병에 걸렸음을 알리러 오던 사람과 마주쳤다. 견씨는 길을 가면서도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고 시어머니 곁에 당도해서는 탕약을 달이며 병간호하니, 며칠 만에 병이 나았다.[56]

> (타지로 부임하여 아버지를 떠나 있는 사이) 유검루는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므로**[忽心驚, 擧身流汗] 그날로 관직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오니, 식구들 모두 그가 갑자기 돌아온 것에 깜짝 놀랐다. 그때, 유이는 병을 앓은 지 이틀째였다. …… 유검루는 밤마다 북극성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며 자기가 아버지 대신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다.[57]

---

55) 『효순사실』 권10, 「198.楊香搤虎 論斷」. "香以一女子, 年纔十四, 體尙孱弱, 手無寸刃, 當是時, 豐之死, 必矣. 香乃奮不顧身, 惟知有父, 而不知有虎. 遂勇往詣前, 搤持虎頸, 虎亦靡然而逝, 父竟得以免. 噫! 香之所爲, 亦烈矣哉!"

56) 『효순사실』 권10 및 『삼강행실효자도』, 「甄氏心驚」. "一日姑往視其次子家, 甄氏隨行, 不忍去姑側, 姑力遣之還. 甫三日, 甄氏忽心驚, 擧身流汗, 意姑有疾. 亟往省之, 果有以疾來告者. 甄氏沿道拜禱, 至姑側侍湯藥, 數日而愈."

57) 『삼강행실효자도』, 「黔婁嘗糞」. "黔婁忽心驚, 擧身流汗, 卽日棄官歸家, 家人悉驚其忽至. 時易疾始二日. …… 至夕, 每稽顙北辰, 求以身代." 이 일화는 『효순사실』

유검루의 효행은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효심으로 인해 부모와 자식의 마음이 서로 감통한 사례로, 『효자도』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일화이기도 하다. 유검루가 집을 떠난 지 10일쯤 되었을 때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며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부친에게 어떤 유고가 생긴 것은 아닌지 의심하여 집으로 돌아온 덕분에 부친의 병을 초기부터 간호할 수 있었다. 『효순사실』의 논단에서는 자식이 부모의 기질을 물려받아 간혹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경우가 있지만, 부모를 사랑하는 진심이 없다면 타지에서 부모의 병을 미리 알아채고 대처하게 하는 감응이 일어날 수 없다며 유검루의 순수한 효심을 칭송하였다.[58]

반면, 『효자도』에는 이와 대응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여성 효행 일화가 없었다. 유사한 남성 효행 일화 역시 없다. 이에 따라 편찬자는 『효순사실』의 여성 효행 일화 중 며느리 견씨의 일화를 선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남녀 효행 일화를 대응시킬 수 있었다. 두 일화는 밑줄 강조한 바와 같이 (시)부모에게 생긴 변고를 알아채는 신체 증상에 대한 묘사가 동일하며, 간병이라는 인간적 수단뿐 아니라 기도를 통해 신이한 효험을 기대하는 간절한 효심 역시 유사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의 일화 선별은 효행의 수행 능력에 남녀 간 성차(性差)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며, 효행이 곧 성별을 뛰어넘는 도덕적 능력임을 강조하는 데 효과적이다. 「양향액호」의 논단에서 성조(成祖)는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부친을 곤경에서 구해낸 양향의 효심은 '열장부(烈丈夫)'라 하더라도 따라갈 수 없을 것[雖烈丈夫, 亦無以過之]이라고 극찬한 바 있다. 이러한 대비는 여성의 위대한 행적을 통해 남성・지식인의 도덕적 결핍이나 용기 없음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게 하는 심상한 수사법이

권3에 「60.黔婁誠禱」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58) 『효순사실』 권3, 「60.黔婁誠禱 論斷」. "人之一身, 親之遺體也, 故其心志, 相爲感通. …… 生之膝下, 一體而分, 喘息呼吸, 氣通於親. 然非有孝愛之誠心, 亦何以能感通若是之神哉?"

기도 하지만, 여성 수용자들에게는 유교적 관념 속에 여성 효행의 수단적 활용과 제한-가족의 유지를 위한 가사노동 등-을 극복하고 스스로 효행의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는 용기와 깊은 감화를 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의 효행담을 별록하지 않고 한 책 안에 남성과 함께 순차적으로 배치한 『효자도』의 편집방식 역시 효행 주체로서 여성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녀 간 전범의 대응뿐 아니라, 중국-한반도 효행 간의 마주 세움도 눈에 띈다.

남편 유신(兪新)이 죽었을 때 문씨는 아직 젊었다. 친정 부모는 그녀가 절개를 지키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다시 시집보내려 하였다. 그러자 문씨가 울면서 말했다. "한 몸으로 두 남편을 섬기는 것은 열부로서 부끄럽게 여기는 바입니다. 제가 살지 않을지언정 어찌 부끄러운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시어머니는 늙으셨고 자식은 어린데, 제가 떠나면 장차 누가 이들을 돌보겠습니까?" 말을 마치자 곧 머리카락을 자르며 스스로 맹세하니, 아버지가 딸의 의지가 굳음을 알고 차마 억지로 강요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중풍을 앓다가 실명했다. 문씨는 손수 대소변이나 고름[溷穢]을 닦아드리는 데 게을리하지 않았고, 때마다 입을 헹구고 방으로 가서 시어머니의 눈을 핥아 드리니 시력을 회복하였다.[59]

스무 살에 남편이 죽었으나 시어머니를 효성으로 섬겼다. 친정아버지가 개가시키려 하자 고사하며 말했다. "남편은 독자로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아버지께서 만약 저의 뜻을 꺾으신다면, 죽은 남편과 병든 어머니를 그 누가 모시겠습니까?" 마침내 친정아버지의 명을 따르지 않고 시어머니를 더욱 공경히 섬겼다. 시어머니가 측간에 갈 때마다 자기 등에 업고 다녔다.[60]

---

59) 『효순사실』 권10, 「聞氏養姑」. "新卒, 聞氏年尙少. 父母慮其不能守, 欲更嫁之. 聞氏哭曰: '一身二夫, 烈婦所恥, 妾可無生, 可無恥乎? 且姑老子幼, 妾去當令誰視也?' 卽斷髮自誓, 父知其志篤, 乃不忍强. 姑久病風, 且失明. 聞氏手滌溷穢不怠. 時嗽口上堂舐其目, 目爲復明."

60) 『삼강행실효자도』, 「石氏負姑」. "年二十, 夫亡, 事姑孝. 其父欲改嫁, 辭曰: '良人以獨子早逝. 父若奪志, 亡夫病母, 其誰奉養?' 遂不從命, 事姑益謹. 姑每如厠, 身

두 일화는 각각 원나라와 조선의 효부[61]에 대한 이야기이다. 문씨와 석씨의 친정아버지는 너무 젊은 나이에 홀로 된 딸의 안위를 염려하여 개가를 권한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병들고 연로한 시모 등 남은 가족들은 누가 부양하느냐고 반문하며 개가를 거부한다. 중국의 문씨는 죽은 남편에 대한 신의를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삭발함으로써 부친의 개가 권유를 결연히 저지한다는 점에서 '효열(孝烈)'의 경지까지 나아간다. 조선의 석씨 역시 개가 거부의 이유로 죽은 남편에 대한 봉양-제사 등-을 내세웠고 "지아비의 혼령이 아직 죽지 않았다면, 정녕 기뻐하며 황천에서도 감동하겠지[夫也精魂如不死, 定應喜氣動黃泉.]"라는 찬시의 내용으로 보아 이러한 선택이 남편에 대한 신의의 발로임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두 여인은 장기간에 걸쳐 병석에 누운 시어머니의 위생관리와 이동을 직접 도우며 극진한 돌봄을 실천한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효자도』「임씨가 시어머니를 구하다[林氏救姑]」라는 일화는 사인의 아내 임씨가 남편의 부재중 갑자기 일어난 화마로부터 거동하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불길로 뛰어들어 머리카락이 그을리고 팔에 화상을 입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구해내는 일화이다. 이는 『효순사실』「204.조부육자」 속 한 장면[南隣失火, 時南風烈甚, 火勢及孝婦家, 孝婦亟扶姑出避.]과 오버랩된다.

여성에 대한 교화가 대부분 중국 고전 속 유교적 여성규범의 표준을 따르고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선행연구의 지적[62]을 떠올릴 때, 효행 일화의 상호 대응이라는 편집 방식으로부터 편찬자의 의도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즉, 『효자도』의 여성 효행 일화 선별 및 편집 방식은 중국의 여성 전범을 한반도에 있는 그대로 이식하지 않고 한반도 여성 효

親負之."

61) 이 일화는 『태종실록』 권29, 태종15(1415) 1월 16일 및 『세종실록』 권7 세종2(1420) 1월 21일에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보고된 것으로, 효부 포상을 악용한 사례였을 가능성이 있다.

62) 김언순(2004), 49~74쪽 및 87~105쪽; 성민경(2019), 36~39쪽.

행 주체의 위상을 역사적 계보 안에 편입시키는 한편, 그것이 한반도의 현실 속에서도 충분히 구현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를 통해 조선의 평범한 여성 수용자들이 고대 중국의 효녀뿐 아니라 자국의 역사적 전범을 통해 더욱 핍진하게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 15세기 관찬 교화서의 여성 효행 담론

이상과 같이 『효순사실』과 『삼강행실효자도』의 여성 효행 일화를 비교하여, 15세기 조·명의 관찬 교화서가 여성의 도덕적 가능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이들에게 어떤 실천적 책무를 지웠는지 살펴보았다. 비교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두 자료가 여성 효행 주체의 위상이나 능력을 '인정했는가' 여부보다는 능력의 인정 범위,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효행의 성격, 수용자에 대한 교화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먼저, 두 자료는 부모-시부모의 봉양·돌봄 등 가족 질서의 유지와 보전을 위한 일련의 과업은 물론 위난에서의 구원까지 여성에게 요구하였다. 그렇지만 일화 속 여성 효행 주체들은 주어진 명령을 순종적으로 따르며 희생하거나, 위계관계에 무조건 복속되는 존재로만 형상화되지 않았다. 친정-시가, 모정(母情)-봉양, 개인의 안위-신의처럼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나 남성 구성원의 죽음 및 책무 방기로 인해 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사태를 명확히 판단하여 결단을 내린다. 또한 음식 장만, 삯바느질, 길쌈, 품팔이, 간병, 고름이나 대소변 받아내기 등 부덕의 범주로 인식되는 가사노동을 포함해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수단을 강구하고 실천한다.

『효자도』는 『효순사실』이 공유한 여성 효행 능력의 보편성이 신분·교육·지역의 경계를 넘어 구현됨을 더욱 선명하게 공표하였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독서와 학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위기 앞에서 인내와 결단을 통해 타고난 효심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칭송된다. 충개는 '궁촌의 어린 딸'이지만 아버지를 치료하기 위해 손가락을 끊은 행위로 "사람마다 떳떳한 본성이 있다[人皆有秉彝]"는 증거가 되고, 사월은 '미천하게 태어나 가르침이라고는 받은 적이 없는' 여성이면서도 고대의 효녀[曹娥魯姑之儔]에 견주어진다. 이들의 존재는 효의 천성이 궁벽한 향촌의 미천한 여성에게도 존재하며, 유교적 교화를 완수하려는 국가의 의지와 진심이 곳곳에 미치고 있음[化邇來無遠近]을 상징하였다.

효행의 원동력과 실현 가능성이 성별-성차와 무관하며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선한 본성[天性]과 관련된다는 인식은 『효순사실』에서도 확인된다. "효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니, 부녀자라 하여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孝者, 人心之所同, 固不以女婦而有間也.]"라는 「이씨분상」의 논단이나, 독서와 학문의 도움을 받지 못한["夫以閨門之秀, 豈有讀書學問之益?"] 장씨의 독실한 효행을 "타고난 천성이 훌륭하기 때문[篤孝如此, 非其天性之美哉]"이라고 해석한 「장씨곡부」의 논단이 그 사례이다. 여성의 인내와 결단은 탁월한 개인의 특행(特行)에 대한 표창을 넘어 인간의 보편적 본성이 실현된 사례도 해석되었고, 이는 국가가 그 행위를 공적으로 현창하고 윤리적 전범으로 승인하는 근거가 되었다.

특히 『효자도』에 추가된 한반도의 여성 효행 일화에서는 '딸'의 존재가치가 두드러지게 부각된다. 『효순사실』의 미혼 여성은 첨씨를 제외하면, 부모의 죽음과 질병 앞에 슬퍼하고 인내하며 대신 죽기를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강하다.[63] 반면, 『효자도』의 지은・충개・은시・사월 등은 가장의 부재나 책임 방기, 부모의 무력함으로 인해 발생한 가족

63) 개가하지 않은 채 고생하며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죽거나[「192.女勝哀殞」], 억울한 오명을 뒤집어쓴 어머니를 위해 고문을 견디다 못해 죽음으로써 죄인의 단서를 알리는 인내의 면모(「199.張氏訴天」), 병이 위독한 아버지를 구하려 하늘에 자신이 대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갸륵한 모습(「203.良子感星」) 등이 그 사례이다.

위기의 해소를 자임하고 가장의 공백을 메우는 존재로 형상화된다. 전근대 현실 속 수많은 딸들이 그러했듯, 이들은 자신의 신체와 노동을 매개로 가족을 지탱할 실제 해결책을 마련하고 효행을 완수한다. 기혼의 며느리나 사족 여성에 국한되지 않고, 출가 이전의 딸과 향촌의 평민 여성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도덕적 능력은 포괄적으로 인정되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관찬 교화서의 편찬자들이 실제 현실 속에서 여성의 이러한 능력이 어떠한 방향으로 받아들여지고 발휘되기를 기대하였는가이다. 『효순사실』의 여성 효행 일화는 위난에서 부모를 구해내는 일회적 행위보다는 여성의 상황 판단, 노동과 돌봄이 친정-시가의 중첩된 관계나 남편의 죽음과 빈곤·연속되는 상장례와 같은 실제 현실의 지속적 곤경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수행하기 어려운 것인지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소학』·『예기』·『시경』 등에 수록된 통념적 여성인식과 성별 역할을 자주 환기한다.

> ① 여자의 의리는 남을 따르는 것을 정도로 여긴다. 그러므로 시집간 뒤에 시부모에게 공경을 다 하느라 친정 부모의 곁에서 멀어져 효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드문 것이다.64)

> ② 며느리가 시부모를 섬길 때는 친정부모를 섬기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니, (시부모에게) 효성을 다할 수 있는 일이라면 마땅히 마음을 다해야 한다.65)

> ③ 부인이란 남을 따르는 자이니, 시집갔을 때 시부모가 모두 살아 계시고 집안이 화목하고 평화로워 집안의 음식 장만과 (시부모) 봉양의 직분을 완수

64) 『효순사실』 권10, 「196.張氏哭父 論斷」. "女子之義, 以從人爲正. 故其歸也, 則致隆於舅姑, 而遠於父母, 其盡孝道者, 蓋鮮焉."

65) 『효순사실』 권10, 「204.趙婦鬻子 論斷」. "婦事舅姑, 猶子事父母. 凡可以致其孝者, 當無所不竭其心焉." 비슷한 문장이 「206.甄氏心驚 論斷」에도 반복된다. "爲人婦者, 事其舅姑, 竭誠盡愛, 如事父母, 斯爲孝矣."

할 수 있다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불행히 돌아가신 분을 장사 지내야 하는 일이 잇따르는데 집안은 가난하고 자식이 어리다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장례를 치르고자 하더라도 역시 어렵지 않겠는가?[66]

4 부인이 하기 어려운 일 중에, 젊어서 과부가 되어 스스로 수절하는 일보다 어려운 것은 없다. 젊어서 과부가 되었는데도 양 시어머니를 섬기는 일은 더욱 어렵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가난하여 의지할 곳 없게 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그 덕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67]

1은 송대의 성리학자 정호(鄭顥)의 견해[68]를 인용한 것으로, 『시경』에서 유래한 전통적 여성관-특히 며느리에게 적용되는-[69]이기도 하다. 2와 3은 각각 『예기』 「내칙」과 「교특생」에서 인용한 것으로, 삼종지도와 시가에 대한 여성의 헌신을 정당화하는 전통적 규범의 전제가 되는 것들이다. 여성이 수절을 포함하여 어려운 임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성별적 편견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4와 같은 구절은 더 많다. 여성은 시부모를 친부모처럼 섬기고 남편이 죽은 뒤에도 가족을 떠나지 않으며, 생계와 돌봄을 끝까지 책임질 것을 요청받는다.

그러나 『효순사실』은 이러한 원칙과 실제 현실 사이의 괴리를 숨기지 않는다. 남편의 죽음, 어린 자녀와 연로한 시부모를 혼자 먹여 살리고 돌

66) 『효순사실』 권10, 「195.李氏擧喪 論斷」. "婦人從於人者也. 歸于夫家, 而舅姑具慶, 家室和平, 以遂其中饋奉養之職, 固爲幸矣. 不幸死喪相仍, 家貧子幼, 於此而欲營送終之事, 不亦難乎?"

67) 『효순사실』 권10, 「194.覃氏貧孝 論斷」. "婦人之所難, 莫難於早寡而自守也. 以早寡而事後姑, 又難也; 至於姑死, 而貧無依, 則又甚難也, 然於此可以觀德焉."

68) 鄭顥, 『程氏經說』 권3, 詩解 「蝃蝀」. "여자의 의리는 남을 따르는 것이니, 반드시 부모의 명과 형제의 의논, 중매쟁이의 말을 기다려야 한다.[女子之義, 從於人也, 必待父母之命, 兄弟之議, 媒妁之言.]"

69) 『시경』 邶風 「泉水」. "여자가 시집가는 도리는 친정 부모 형제를 멀리함이라네.[女子有行, 遠父母兄弟.]"

보는 일, 빈곤 등의 문제 앞에서는 순종만으로 현실에 대응하기 어렵다. 여성들은 상황을 판단하여 행동하고 노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며, 가족의 미래를 꾸려간다. 기존의 성별 역할을 폐기하거나 여성에게 제도적 권위를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그 규범이 생활세계에서 실현되려면 여성의 판단과 정성 어린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한 것이다.

선한 본성을 지녔다고 하여 모든 여성이 그것을 효로 발현할 수 있는 것 역시 아니었다. 『효자도』는 곤경 앞에서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 것은 장사(壯士)도 실천하기 어렵다고 말한다.[70] 『효순사실』 논단에서도 여성 효행 주체를 자신의 안위만 우선시하거나 안정된 삶만을 바라는 여성들과 대비한다. 그러나 두 자료가 문제 삼는 것은 감정과 욕망의 존재 자체가 아니다. 3장 「조부육자」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 여성의 감정이 솔직하게 발현되고 폭발하는 것은 효행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요소로 긍정되기도 한다. 요컨대, 『효순사실』과 『효자도』가 여성에게 요구한 것은 감정과 욕망을 제거하는 일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서 관계와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고 이를 유교적 질서에 맞게 능동적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 자료가 이러한 효행의 방향을 수용자에게 설득한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예기』나 『소학』과 달리 일화형 교화서는 여성이 실제 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족 해체의 위기를 구체적 사건으로 형상화한다. 현실에서 효를 실천하는 여성 수용자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생애주기에 따른 관계와 정체성의 변화를 겪으며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또한 여성 수용자가 일화 속 상황을 자기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로 받아들이게 하는 현실감과 몰입감이 요구된다. 이러한 전제 아래 인용 전거에 역사적 여성의 행적으로 기록된 효행 일화는 국가의 선별과 재서술[71]을 거쳐 편찬 목적

70) 『삼강행실효자도』, 「林氏救姑」 讚詩. “夜半焰中令得脫, 吾知壯士亦難能.”(제1수), “婦女貞能問幾何, 平時孝順且無多. 可憐急難忘主意, 留得青篇永不磨.”

에 적합한 능력과 덕목이 더욱 잘 드러나도록 배치된다. 일화형 교화서는 전범의 행동을 일방적·축자적으로 모방하도록 명령하기보다, 사건과 인물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형상화[72]하여 수용자의 다양한 감정적 반응과 반추를 유도하면서도 논단이나 찬시의 해설을 통해 그 반응을 특정한 규범적 방향으로 이끄는 방식을 결합하였다.

논단은 모범적 여성과 현실 속의 부정적 인물을 대비하여 수용자의 부끄러움과 반성을 촉구하기도 한다. 부모가 죽었는데도 장례를 포기하여 시신을 방치한 사람,[73] 부모의 곤경 앞에서 두려워하며 자기 한 몸만 구차하게 살려는 사람[74]은 성별과 무관하게 인간적 도리를 다하지 못한 존재로 호명된다. 청상과부가 된 뒤 시부모와 반목하며 박대하거나, 빈곤과 곤경을 견디지 못하고 책임을 방기하려는 여성,[75] 스스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친정에 계속 재물을 요구하며 응석부리는 여성[76]은 생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부정적 사례로 제시된다. 효행을 통해 가족의 질서를 존속·회복시키는 지난한 과정을 견디는 여성을 칭송하는 것과 대비되어, 고난의 기세에 눌려 견디지 못하고 순응하는 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금수(禽獸)'와 같다고 비판받는다.[77] 남편은 사랑하고 따르면서도 시부모에 대한 효를 저버리

71) 두 책 모두 1차 원전으로부터 선별·인용·변형한 2차 자료이기에 재서술이라고 표현하였다.

72) 『효자도』는 이를 도상으로 가시화하는 작업까지 거친다.

73) 『효순사실』 권10, 「191.叔先鮮沈江 論斷」. "彼有父死不葬, 使骸骨暴露, 喙食於蠅蚋狐狸之口者, 視雄之殞生取義, 寧不有愧於心乎?"

74) 『효순사실』 권10, 「198.楊香搤虎 論斷」. "世有爲人之子, 親或遇難, 而顧畏退避, 求苟活於朝夕者, 視香, 寧無所愧乎?"

75) 『효순사실』 권10, 「194.覃氏貧孝 論斷」. "世之爲人婦, 少年早寡, 而不安其室者, 有矣. 幸而能守也, 而悖慢其姑者, 亦有矣. 至於孑立貧苦, 鮮不怨懟而委去焉."; 「205.聞氏養姑 논단」, "彼夫死而卽去, 至再三從人, 而不以爲恥, 或生不能事其姑, 至反脣以相稽者, 安望其能盡孝於旣死哉?"

76) 『효순사실』 권10, 「196.張氏哭父 論斷」. "閭巷女子, 狎恩恃愛於在室之時, 責望資賄於出適之後, 不饜其欲, 則反怨焉."

는 행위 역시 교정의 대상이 된다.[78] 이처럼 논단은 전범과 현실의 수용자를 직접 대면시키고, 자기 행동을 일화 속 인물과 비교하도록 요구한다. 남성과 여성, 중국 여성과 한반도 여성의 효행 일화가 유사한 모티프로 반복·대응하는 구성 역시 효의 보편성을 설득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효행의 능력이 특정한 성별이나 신분, 국가, 지역에 독점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한편, 조선의 여성 수용자가 고대 중국의 효녀뿐 아니라 자국의 역사적 여성 전범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보도록 하였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능력은 '효'-'전근대 여성'의 맥락과 결부되어 가족 질서의 유지와 회복이라는 범위 안에서 인정되었으며, 그것이 여성 전반의 사회적·인식적 지위 향상으로 전환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효행을 실천하는 여성은 유교적 인간의 범주에 포함되었지만,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관계의 변화 속에서 남성보다 더 많은 노동과 돌봄의 책무를 짊어지는 것으로 그려지는 점 역시 문제적이다. 여성이 실질적 가장이 되고 향촌 사회의 존경을 얻더라도, 그 역할은 여전히 효부나 '어머니'의 덕행으로만 명명되었다. 특히 신체 훼손 같은 예외적 행위를 국가가 전국적인 전범으로 공표한 것은 여성 수용자들에게 과도한 책임과 고통을 전가하고 그러한 요구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 교화서가 여성의 삶에 가한 규제와 윤리적 폭력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교화가 여성의 사유와 행동 능력을 박탈하고 제한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일화 속에서 여성의 판단 능력-지략·결단·

77) 『효순사실』 권10, 「205.聞氏養姑 論壇」. "其行, 蓋與禽獸等矣." 이는 예의를 알고 따르는 것이 사람을 금수와 다르게 만든다는 『예기』의 논리에서 비롯된 인식이다. 『예기집설』, "그런 까닭에 성인이 나서 예를 만들어 사람을 가르쳐, 사람으로 하여금 예가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스스로 금수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였다.[是故, 聖人作爲禮, 以敎人, 使人以有禮, 知自別於禽獸.]"

78) 『효순사실』 권10, 「207.劉氏孝姑 論斷」. "彼爲人婦者, 知順其夫, 不知事其舅姑, 觀劉氏, 能無愧焉?" 이를 보면, '순종' 자체가 여성 윤리의 충분조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저항-, 가사경영 능력-노동・인내・위기 관리-, 돌봄 능력-간병・양육・봉양・장례・친족 구제-을 이처럼 다채롭게 재현하고 공적으로 칭송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일화형 관찬 교화서는 역사적 여성의 행적에서 드러난 능력 가운데 의미 있는 부분을 선별하여 유교적 인간다움의 실현으로 승인하고, 이를 가족 질서의 유지와 유교적 왕화의 증명에 필요한 역량으로 의미화하였다. 『효순사실』과 『효자도』의 여성 효행 담론은 여성의 능력을 부정하거나 축소하기보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공적으로 승인하면서, 이를 가족 윤리 지속의 차원을 넘어 유교적 인간다움의 한 축으로 배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5세기 조・명 양국의 유교 문명 수립 과정에서 여성이 가부장적 통념으로 인해 그 문명을 실현할 구성원의 범주에서 배제되었다고만 말하기는 어렵다. 여성은 왕화가 미치는 백성이면서 도덕적 능력을 지닌 주체이고, 국가가 공인하는 윤리적 전범으로 형상화되었다.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양가적 시선의 길항 속에서 정치적 권한의 배제와 도덕적・교화적 포섭이 서로 다른 층위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관찬 교화서에 대한 상반된 평가 가운데 어느 한쪽을 폐기하기보다, 여성의 능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인정되고 그 인정이 다시 어떤 책임과 한계로 조직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내훈』이나 열녀전류 교화서에서 나타나는 여성 통제와 윤리적 폭력의 양상을 효자도류의 여성 사례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열녀 담론이 신체 훼손과 죽음을 통한 성적 정절의 고수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여성 효행 담론은 가족의 부양과 관련하여 갑작스러운 위기 수습에 필요한 여성의 능력을 폭넓게 재현하였다. 효・충・열의 각 범주가 여성에게 어떠한 능력과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공적으로 가시화하였는지를 구별하는 작업은 15세기 유교 문명의 형성과 여성 인식의 관계를 보다 온전하게 규명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참고문헌

『孝順事實』(계명대 벽오고문헌실본, 청구기호: 이귀 172.7 성조ㅎ)
『三綱行實孝子圖』(고려대 만송문고본, 청구기호: 만송 貴 296B 1)
四庫全書(문연각 DB)
朝鮮王朝實錄(국사편찬위원회 DB)

강명관, 『열녀의 탄생』, 돌베개, 2013(초판 3쇄본).
강성숙, 「19세기 여성 孝烈 담론 일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3.
구슬아, 「『孝順事實』과 『三綱行實孝子圖』 간의 거리-15세기 朝·明이 구상한 '유교적 인간다움'의 공유 방식 고찰-」, 『동방한문학』 99, 동방한문학회, 2024.
_____, 「孝에서 三綱으로: 『三綱行實圖』 편찬 과정을 통해 본 유교 조선의 자기 표상」, 『대동한문학』 83, 대동한문학회, 2025.
김가람, 「15세기 조선 여성의 정체성 변화-효녀·절부·열녀를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 83, 역사실학회, 2024.
김기림, 「19세기 이후 효열부 담론의 양상과 의미-19세기 말, 개화기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58, 동양고전학회, 2015.
김미영, 「유교 가족 윤리와 '여성 정체성'-三從之道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33, 고려대 철학연구소, 2007.
김언순, 「朝鮮時代 女訓書에 나타난 女性의 正體性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5.
김영민, 『중국정치사상사』, 사회평론아카데미, 2021.
박경, 「조선 전기 棄妻 규제 정책의 영향과 한계」, 『사학연구』 98, 한국사학회, 2010.
박영민, 『한국 한시와 여성 인식의 구도』, 소명출판, 2003.
성민경, 「女訓書의 편찬과 역사적 전개: 조선시대~근대전환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이경하, 「『삼강행실도』의 폭력성 재고-열녀편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35, 한국고전문학회, 2009.
_____, 『조선여성문학사: 이론과 실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이상민, 「조선 초 '勅撰勸戒書'의 수용과 『삼강행실도』 편찬」, 『한국사상사학』 56, 한국사상사학회, 2017.

이재두, 「조선전기 열녀의 존재양상과 열행 인식」, 『영남학』 70,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9.
이정민, 「조선후기 '기혼(旣婚) 효녀' 사례들의 특징과 의미」, 『한국학』 173, 한국학중앙연구원, 2023.
이혜순, 『고려전기 한문학사』, 이화여대출판부, 2004.
장영란, 「한국여성-영웅서사의 희생의 원리와 자기 완성의 철학-'딸'의 원형적 이미분석과 '효'이데올로기 비판」, 『한국여성철학』 9, 한국여성철학회, 2008.
전기화, 「〈유씨삼대록〉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효 수행」, 『여성문학연구』 41,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정경민, 「자녀희생효설화에 나타난 '효'와 '모성'의 문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한보람, 「19세기 말~20세기 초 여성의 '효(孝)' 개념 인식과 실제」, 『한국사상사학』 73, 한국사상사학회, 2023.
마르티나 도이힐러 저, 이훈상 역, 『한국의 유교화 과정-신유학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꾸었나』, 너머북스, 2013.

투고일 2026. 7. 31 심사시작일 2026. 8. 18 게재확정일 2026. 9. 7

Abstract

Discourses on Women's Filial Conduct in Fifteenth-Century Joseon Korea and Ming China

-A Comparative Study of 『HyosunSasil』 and 『SamgangHaengsilHyojado』-

Koo, Seul-ah

This study compares narratives of women's filial conduct included in 『HyosunSasil(孝順事實)』 and 『SamgangHaengsilHyojado(三綱行實孝子圖)』 in order to examine how 15th-century Joseon Korea and Ming China recognized and publicly articulated the potential of women as moral agents in the process of shaping the normative values of a Confucian state. To this end, the study classifies the modes in which women performed filial conduct and analyzes the interpretive directions encouraged by the compilers, thereby identifying bo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ndered value norms shared by the two states and the points at which they diverged.

『HyosunSasil』 emphasizes the concrete realities of women's filial conduct after marriage, their capacity for judgment in the face of hardship, and their determination to fulfill their filial obligations. It also vividly represents the practical efforts women made to sustain familial order through domestic labor, caregiving, and other forms of everyday practice. The evaluative commentaries in 『Hyosun Sasil』 do not simply take such conduct for granted as a woman's duty. Rather, by interpreting it as a difficult undertaking achievable only through sustained effort and steadfast determination, they accord significant recognition to the capacity and status of women as agents of filial conduct.

『SamgangHaengsilHyojado』, by contrast, is less concerned with capturing the realities of everyday life than with identifying and representing moments in which women's filial devotion is translated into decisive action in the face of a crisis in familial order. In particular, its accounts of women from the Korean Peninsula highlight daughters who rescue their parents and restore familial order in response to crises brought about by the incapacity of the

parental generation. By placing narratives of male and female filial conduct, as well as those from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in corresponding relationships, the text publicly affirms that the capacity for filial conduct can exist across boundaries of gender, social status, education, and region.

In both works, women are represented not as passive subjects who merely submit to Confucian gender norms, but as ethical agents who assess the gravity of particular circumstances and take practical action to resolve crises within the family. In the fifteenth century, Joseon and Ming China employed state-sponsored anecdotal works of moral instruction that publicly honored women exemplars of filial conduct, thereby recognizing women's judgment and action as an integral dimension of Confucian humanity and encouraging their realization in actual social life.

Keywords 『HyosunSasil(孝順事實)』, 『SamgangHaengsilHyojado(三綱行實孝子圖)』, Women's filial conduct, Gender, Confucian didactic texts, Family.

東方漢文學, 東方漢文學會
Dong-Bang Korean Chinese Literature Society
2026, 第108輯, pp.99~154
http://dx.doi.org/10.17293/dbkcls.2026.108.
ISSN 1226-668X

『지봉유설』이 후대 지성사 형성에 끼친 면모

강민구*

目 次

1. 서론
2. 출전 명시 인용과 지식의 보존・전승
3. 출전 미표기 인용과 지식 자원의 내재화
4. 부분 귀속적 인용과 지식 맥락의 변용
5. 입론・비판적 인용과 학술 담론의 확장
6.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이수광의 『지봉유설』이 조선 후기 지성사에 미친 실질적 영향력과 고전적 위상을 후대 문헌의 인용과 수용 양상을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텍스트의 가치는 후대 독자와의 부단한 상호작용 및 수용의 역사 속에서 완성된다는 전제 아래, 조선 후기의 대표적 유서(類書)와 개인 문집에 나타난 『지봉유설』의 인용 궤적을 분야별・유형별로 추적하였다.

『지봉유설』의 후대 수용 양상은 네 가지 측면에서 전개되었다.

첫째, 출전 명시 인용을 통해 여행기・식물학・물산・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파편화되어 사라지는 것을 막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의 보존・전승자로 기능하였다.

둘째, 출전 미표기 인용을 통해 당대 지식인들에게 별도의 검증 절차조차

*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필요 없는 '공유된 보편적 지식 자원'으로 내재화되었다.

셋째, 부분 귀속적 인용과 선택적 변용을 통해 후대 학자들의 집필 목적과 실생활의 필요에 부합하는 주제 체계로 재조직되었다.

넷째, 착상의 단초를 제공하여 새로운 학술적 입론을 가능하게 하고 비판적 논쟁을 촉발하는 '살아있는 담론의 장'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봉유설』은 단순한 백과전서적 지식 나열을 넘어, 관념성을 탈피하고 조선 후기 실학파 학풍의 사유적 원형을 제시한 텍스트이다. 400여 년간 지성사의 거대한 중력장으로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변주된 이 지속적인 수용의 역사는 『지봉유설』이 조선 최고의 고전이라는 자격을 지님을 입증한다.

핵심어 『지봉유설』, 이수광, 상호텍스트성, 조선 후기 지성사, 인용, 전재, 표절.

1. 서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많은 저작이 출현하고 사라졌으나,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과 망각의 체를 통과하여 끊임없이 읽히고 인용되는 소수의 문헌을 '고전(Classic)'이라 명명한다. 특정 텍스트를 고전으로 규정하는 학문적·문화적 자격 요건은 물리적 시간의 경과에 있지 않다. 고전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의 독자와 부단히 상호 작용하는 역동적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고전의 핵심 자격 요건은 보통 다음의 네 가지로 집약된다.

먼저, 보편성과 실존적 본질에 대한 탐구가 있어야 한다. 특정 시대나 지역에 매몰되지 않고 인간의 본원적 감정과 보편적 본질을 관통해야 한다. 다음으로, 시간의 검증과 역사적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 문명의 붕괴와 왕조의 교체 속에서도 일시적 유행을 넘어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되며 끊임없이 읽히는 영속성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다층적 의미 구조와 재해

석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독단적 메시지를 강요하지 않는 열린 구조로서, 독자의 시대적 배경에 따라 새로운 질문을 유도하는 능동적 담론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명적 원형으로서의 파급력이 있어야 한다. 후대의 학문·예술·제도·대중의 사유 방식을 형성하는 문화적 유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후대에 미친 파급력은 고전성을 증명하는 가장 실질적인 지표이다.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의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이론이나 가다머(Hans-Georg Gadamer)의 효과사(Wirkungsgeschichte) 이론이 말해주듯, 텍스트의 가치는 후대 문헌들이 그것을 얼마나 참조하고 변형하며, 역사 속에서 어떤 중력과 영향력을 발휘했는지에 따라 완성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봉유설』은 정보의 집합체를 넘어 조선 최고의 고전이라는 자격을 증명한다. 『지봉유설』은 방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백과전서이자 빅데이터이다. 일반적인 백과사전류 문헌은 정보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낡은 정보로 화석화되어 고전의 지위를 잃기 쉽다. 그러나 『지봉유설』이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생명력을 유지하며 고전의 반열에 오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새로운 패러다임과 문명적 원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고전은 후대 학문 형성의 모태가 되어야 한다. 『지봉유설』은 당시 조선 지성계를 지배하던 관념론에서 탈피하여, 세계를 객관적이고 실용적으로 바라보는 실학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책이다. 천주교, 세계지도 등 서구 문물을 선도적으로 소개하며 조선 지식인들의 사유 지평을 확장했다. 즉, 조선 후기 실학파 학풍의 구조적 뼈대를 형성한 문명적 원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고전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다음으로, 비판적 안목과 다층적 재해석 가능성이다. 이 책은 지식의 나열 편철이 아니다. 방대한 문헌을 인용하면서도 그 저변에는 사실을 주체

적으로 맥락화하고 조선의 현실을 날카롭게 진단하는 이수광의 비판적 시선이 살아있다. 이러한 열린 구조는 후대의 독자들과 학자들이 시대적 필요에 따라 텍스트를 끊임없이 재해석할 수 있는 다층적 의미 구조를 제공하였다.

이수광은 『지봉유설』, 「범례」에서 총 348가(家)의 서적을 인용했다고 밝히며, 백과전서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철저한 문헌적 근거가 필요하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객관성과 엄밀성은 이 책이 잡기(雜記)가 아닌, 지성사의 주류 텍스트로 살아남는 생명력의 기반이 되었다. 『지봉유설』의 고전성은 역사적·서지적 기록에 나타난 영향력과 후대 수용의 실증을 통해 증명된다.

『지봉유설』은 조선의 어떤 유서(類書)나 문헌보다도 널리 간행되고 유포되었다. 현재 국립고궁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규장각·한국학연구원·국사편찬위원회는 물론 서울대·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계명대·영남대와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15개소 이상의 소장처에 최소 3종 이상의 상이한 목판본이 존재한다. 가필(加筆)과 메모, 착간·오자의 수정 흔적이 교차하는 여러 판본의 존재는 이 책이 수백 년간 지식인들 사이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복제되고 읽혔는지를 보여주는 실존적 증거이다.

이 책은 조선 후기 학문의 지형도를 바꾸었다. 『성호사설』·『송남잡지』·『산림경제』·『오주연문장전산고』 등 조선을 대표하는 유서들이 『지봉유설』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또 정약용 등 실학자들의 저작에서 이 책의 활용 증거가 도처에 나타나며, 다수의 문집에서 망실된 시문이나 인물의 행적을 고증할 때 권위 있는 문헌 자료로 인용되었다. 심지어 윤기(尹愭)의 『무명자집』과 같이 이 책을 무단 전재하는 사례조차, 역설적으로 『지봉유설』이 가진 거대한 영향력을 반증한다.

『지봉유설』은 20세기에 들어서도 한문 독해가 불가능한 대중을 위해 구

두점을 찍은 판본(1915년, 조선고서간행회본)이 간행되는 등 지속해서 대중적 수요에 부응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일제 식민지 시기인 1916년, 조선총독부 산하 기관이나 다름없던 조선연구회가 최초의 완역서인 『원문화역 대조 지봉유설(原文和譯對照芝峯類說)』을 간행했다는 사실이다. 일제가 조선의 영구 식민화를 목적으로 조선 문화를 본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역사에서는 『삼국사기』를, 문화와 지성사에서는 『지봉유설』을 시급히 번역한 점은, 이 책이 지닌 문명사적 대표성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지봉유설』은 지식의 백과사전적 나열을 넘어, 조선 후기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풍의 사유적 원형을 제시하고,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판본의 분화와 인용, 비판과 변주를 거치며 조선 지성사의 중력장 역할을 해왔다. 정보의 파편성과 장르적 한계를 뛰어넘어 후대 수용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재탄생했다는 점이야말로 이 책이 조선 최고의 고전이라는 자격을 갖추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지봉유설』은 당대 지식의 총체를 넘어 후대 학풍의 원형을 제시한 텍스트이지만, 이 책이 지닌 진정한 고전성을 학술적으로 완결 짓기 위해서는 후대의 구체적인 인용 양상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요구된다.

텍스트의 고전성은 저자의 일방적 선언이나 당대의 평가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후대 독자들과 부단한 상호작용 속에서 실증되기 때문이다. 효과사 이론이 짚어내듯 고전의 가치는 역사적 수용의 과정을 통해서만 온전히 드러난다. 따라서 『지봉유설』이 조선 후기 지성사에 드리운 중력의 크기를 증명하려면, 후대 학자들이 이 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용하고, 비판하며, 재맥락화했는지 그 궤적을 정밀하게 추적해야 한다.

조선 후기 유서들과 학자들의 문집 속에 산재한 『지봉유설』 인용과 변주 방식을 데이터화하여 분석하는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학술적 필요성을 지닌다.

첫째, 고전성의 실증적 규명이다. 이는 추상적 평가를 넘어, 텍스트의

계보학적 영향력을 객관적 물증으로 입증할 수 있다.

둘째, 지식 변용의 역동성 확인이다. 후대 학자들이 『지봉유설』의 정보를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쳤는지, 혹은 시대적 필요에 맞게 비판적으로 재해석, 더 나아가 재창조했는지 파악함으로써 고전이 가진 다층적 의미 구조를 실증할 수 있다.

『지봉유설』의 후대 인용 양상을 종적(縱的)으로 고찰하는 일은, 이 책이 시간의 풍화를 견디고 조선 지성사의 패러다임을 바꾼 고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실질적 방법론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만 『지봉유설』은 과거의 화석화된 백과사전이 아닌,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지적 담론을 생산하는 역동적이고 문명적인 원형으로서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2. 출전 명시 인용과 지식의 보존·전승

이전 문헌의 인용은 과거의 지식을 현재로 불러오는 통로이며, 지식의 보존과 전승은 그 통로를 통해 지식의 생명력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결과이다. 인용이라는 매개적 행위가 없다면 지식은 축적되지 못한 채 세대마다 파편화되어 사라졌을 것이다. 전근대 시대의 학술에서 인용은 문헌의 권위를 빌리는 일인 동시에 지식의 창고를 풍요롭게 만드는 강력한 수단이었다.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인 인용 방식은 원문 그대로 전사하는 것이다. 먼저, 출처를 명시한 뒤, 인용 표지를 사용하여 원작자의 말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사실을 표기하며, 최대한 자구를 수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자와 연도(또는 페이지) 등 서지 사항을 밝힌다. 한문에서는 문장 부호가 없지만, 문장의 전후로 인용 사실을 나타내는 글자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曰/謂~云'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출전 표기는, 보통 서명·편

명·저자명 중 최소 하나를 제시하며, 모두 다 제시하는 사례도 있다.

단순 인용은 생각을 다듬거나 문장을 재구성할 필요가 없기에, 글을 쓸 때 가장 쉽고 빠르게 사용하는 방식이다.

『지봉유설』, <잡사부(雜事部)>, 「이문(異聞)」을 인용한 조병덕[趙秉悳, 1800~1870]의 「상매산홍선생(上梅山洪先生)」은 『지봉유설』이 후대 지식인의 독서 대상으로 소비되던 현상을 보여준다. 「상매산홍선생」은 '지봉유설 이문부(芝峯類說異聞部)'라고 서명과 편명까지 소상히 명기한 뒤에 『지봉유설』의 원문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그 저자인 이수광으로까지 관심을 확장하였다.

조병덕이 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 1776~1852]에게 보내는 편지인 「상매산홍선생」에 『지봉유설』에서 본 이문(異聞)을 전재하였는데, 그것에 특별한 의도가 있지는 않다. 다만 그와 관련하여 "지봉 선생의 사적(事跡)은 어떠하며, 오늘날에는 누가 이 공(李公)의 후손입니까?"라고 하여 『지봉유설』의 저자 이수광의 사적과 그의 후손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사례는 『지봉유설』이 후대에 지속적으로 읽히고 신뢰받는 지식 저장소이자 문화적 기억의 매개체로 기능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芝峯類說』, 卷十七, <雜事部>, 「異聞」.

盧斯文某爲御史, 到衿川, 大雨水漲, 有一柩漂出. 見柩面刻曰: "丘陵千載後, 此地化爲川. 更逢盧御史, 移入碧山前." 盧異之, 卽瘞于小山下, 問其地名, 土人言: "此名波羅山也." 波羅山, 乃俗音碧山. 吁, 可怪哉!

→

『肅齋集』, 卷之四, 「上梅山洪先生」, 趙秉悳.

偶閱芝峯類說異聞部曰: "盧斯文某爲御史, 到衿川, 大雨水漲, 有一柩漂. 出見柩面刻曰: '丘陵千載後, 此地化爲川. 更逢盧御史. 移入碧山前. 盧異之. 卽瘞于小山下. 問其地名. 土人言: '名波羅山." 波羅山. 乃俗音碧山. 吁. 可怪哉!" 芝峯事跡何如? 今世誰爲李公之後耶?

다음에서 분야별로 나누어 출전을 명기한 인용의 양태를 분석해 보겠다.

여행기 분야에서 『지봉유설』을 인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지항(李志恒)의 『표주록(漂舟錄)』에는 「조생완벽(趙生完璧)」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조완벽(趙完璧)의 해외 체험을 부록으로 소개하여 이지항의 표류기를 조선의 해외 체험 전통과 연결하고, 일본·해외에 관한 정보를 보완하며 『표주록』의 역사적·기록적 가치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 「조생완벽」에서는 명확한 출전 의식을 볼 수 있으니, 『지봉유설』이라는 서명(書名)에, 편명인 「이문(異聞)」까지 정확히 밝혔다. 또 「조생완벽」은 원전의 충실한 재현을 특징으로 하니, 내용상 축약이나 변형이 거의 없다. 다만 '隨商倭'에 '舶' 한 글자를 추가하여 '隨商舶倭'로 고쳤으니, 원문을 수정하거나 재구성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이다.

이 사례는 『지봉유설』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지식의 저장소 역할을 하였으며, '이문(異聞)'과 같은 특수한 기록이 후대에도 반복적으로 인용됨으로써 개인의 경험이 집단의 기억으로 확산 전환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芝峯類說』, 卷十七, <雜事部>, 「異聞」.

趙生完璧者, 晉州士人也. 弱冠遇丁酉倭變, 被擄入日本, 隨商倭, 三往安南國. 安南去日本海路三萬七千里, 自日本薩摩州開洋, 海水西高東下, 晝夜行五六十日, 抵安南興元縣. 其地甚煖, 水田耕種無時, 三月間有始耕者, 有將熟者, 有方穫者. 桑則每年治田種之以飼蠶. 有木花樹高大, 花大如芍藥, 人上樹摘取. 果則橘荔子外無他果. 饋以乾柿, 則不識之. 常喫檳榔, 渴則啖蔗草. 其人多壽, 有老人年百二十, 髮白而復黃, 蓋所謂黃耆者也. 後十餘年, 完璧得還本土. 其老母及妻俱無恙, 人以爲異事.

→

『漂舟錄』, 「趙生完璧」, 李志恒.

趙生完璧者. 晉州士人也. 弱冠遇丁酉倭變. 被擄入日本. 隨商舶倭. 三

往安南國. 安南去日本海路三萬七千里. 自日本薩摩州開洋. 海水西高東下. 晝夜行五六十日. 抵安南興元縣. 其地甚煖. 水田耕種無時. 三月間有始耕者. 有將熟者. 有方穫者. 桑則每年治田種之以飼蠶. 有木花樹高大. 花大如芍藥. 人上樹摘取. 果則橘荔子外無他果. 饋以乾柿, 則不識之. 常喫檳榔. 渴則啖蔗草. 其人多壽. 有老人年百二十. 髮白而復黃. 蓋所謂黃耆者也. 後十餘年. 完璧得還本土. 其老母及妻俱無恙. 人以爲異事. 出芝峯類說異聞.

식물학 분야에서 『지봉유설』을 인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만부[李萬敷, 1664~1732]의 「시초지(蓍草識)」는 『지봉유설』의 「초(草)」에 수록된 시초(蓍草)에 관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시초지」는 『본초』와 박자우(朴子羽)의 견해를 차례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에도 시초가 자생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논증 구조까지 「초(草)」를 그대로 따랐다. 글의 첫머리에는 '안지봉선생유설운(按芝峯先生類說云)'이라고 하여 『지봉유설』을 출전으로 명시하였다. 특히 '지봉선생(芝峯先生)'이라 존칭하였으니, 이는 이만부가 『지봉유설』을 동족 선현의 저술이자 학술적 권위를 지닌 문헌으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시초지」의 내용을 『지봉유설』 원문과 대조해 보면, 변개는 사실상 없으니, '千歲'를 '千年'으로 바꾸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글은 원문을 거의 완전하게 보존한 전문 인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사례는 『지봉유설』이 단순한 유서나 참고서가 아니라, 조선 후기 학자들이 식물학적·본초학적 고증을 수행할 때 직접 인용하는 학술 문헌으로 기능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수광이 『본초』와 『도경본초』 등 중국 문헌을 종합하여 조선의 실정에 맞게 고증한 내용이 다시 후대 학자의 논거로 활용되고 있으니, 『지봉유설』이 지식의 집성에 그치지 않고, 중국 문헌과 조선의 경험을 결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구성한 저작으로 인식되었음을 의미한다.

『芝峯類說』, 卷二十, <卉木部>, 「草」.

古以耆筮. 按本草曰: "耆類蒿, 花似菊." 又曰: "耆千歲一本百莖." 今人不求其形似, 而必求一本百莖, 不得則乃謂: "耆非我國所産", 誤矣. 朴敎授子羽言: "嘗於田圃間, 見異草, 有一根三四十莖者. 似蒿而非蒿, 葉細而長, 花似菊淡紫. 較諸本草圖經, 則其爲耆草無疑"云. 昔有婦刈耆薪而亡耆簪. 醫方, 耆實入藥. 今我國此草固多有之, 而人不知爲耆, 蓋耆非貴物也. 唯取其壽以占吉凶, 故以千歲一本百莖者, 爲難得耳.

→

『息山集』, 「耆草識」, 李萬敷.

按芝峯先生類說云: "按本草曰: '耆類蒿. 花似菊.' 又曰: '耆千年一本百莖.' 今人不求其形似, 而必求一本百莖. 不得則乃謂: '耆非我國所産', 誤矣. 朴敎授子羽言: '嘗於田圃間. 見異草有一根三四十莖者. 似蒿而非蒿, 葉細而長, 花似菊淡紫. 較諸本草圖經, 則其爲耆草無疑'云. 昔有婦刈耆薪而亡耆簪. 醫方, 耆實入藥, 今我國此草固多有之, 而人不知爲耆, 蓋耆非貴物也. 惟取其壽以占吉凶, 故以千歲一本百莖, 爲難得耳."

지리 물산 분야에서 『지봉유설』을 인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의 『연경재전집(硏經齋全集)』, 「기동방토산(記東方土産)」은 가자미류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지봉유설운(芝峯類說云)'이라고 출전을 명시하고, 『지봉유설』의 핵심 논지인, '비목어(比目魚)가 동해에서 산출됨', '우리나라를 접역(鰈域)이라 부름', '가자미가 가자미류의 대표', '광어(廣魚)·설어(舌魚)도 가자미류'라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만 『지봉유설』의 원문과 비교하면, 약간의 축약과 정리가 이루어졌다. '북호록왈(北戶錄曰)' 이하의 중국 문헌 인용 부분을 삭제하였고, '一名鰈, 一名鰜', '南越志謂之板魚' 등 어명(魚名)에 관한 고증 부분을 생략하였다. 그리고 '안(按)' 이하 조선의 산물과 관련된 부분만 선택하였다.

성해응은 『지봉유설』 전체 조항을 옮기지 않고, 기술 주제인 조선 토산

과 관련된 부분만 선별하여 활용하였으니, 목적에 따른 선택적 인용이라 하겠다. 그리고 출전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니, 『지봉유설』의 저작권을 존중하는 토대에서 자신의 논지를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한 것이다.

한편, 한치윤(韓致奫, 1765~1814)의 『해동역사』, <물산지>, 「어류」에서는 더욱 간략하게, '芝峯李氏曰, 比目魚, 出東海, 故以我國爲鰈域.'이라고 하여 『지봉유설』을 저자의 성명과 함께 명시하고 인용하였다. 한치윤은 『지봉유설』이라는 서명보다 '지봉이씨(芝峯李氏)'라는 저자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이수광이라는 저자의 학문적 권위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또한 『연경재전집』과 달리 '俗以加佐魚爲鰈, 然如廣魚・舌魚皆鰈類'라는 후반부 내용도 생략하고, 조선의 지명이 '접역(鰈域)'으로 불리는 근거가 되는 핵심 문장만 취하였으니, 역사・지리・물산 고증이라는 글의 편찬 목적에 맞추어 핵심 정보만 추출한 요약형 인용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지봉유설』이 조선의 자연・물산에 관한 고증 지식을 제공하는 권위 있는 선행 연구서로 기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芝峯類說』, 卷二十, <禽蟲部>, 「鱗介」.

北戶錄曰: "比目魚, 一名鰈, 一名鰜. 南越志謂之板魚, 亦曰左介, 介亦作魪." 按: 比目, 出東海, 故謂我國爲鰈域, 今俗以加佐魚爲鰈. 然如廣魚・舌魚, 皆鰈類也.

→

○ 『研經齋全集』, 卷之四十六, <北邊雜議>, 「記東方土産」, 成海應.

芝峯類說云: "比目魚, 出東海. 故謂我國鰈域. 俗以加佐魚爲鰈. 然如廣魚・舌魚皆鰈類." 此說是也.

○ 『海東繹史』, 卷第二十七, <物産志[二], 魚類>, 「鯛魪鮸鮮魪鱇鮪鱳鯫鯜」, 韓致奫.

芝峯李氏曰: "比目魚, 出東海, 故以我國爲鰈域."

방술(方術) 분야에서 『지봉유설』을 인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홍만선(洪萬選, 1643~1715)의 『산림경제(山林經濟)』, <잡방(雜方)>, 「사노비무도심방(使奴婢無逃心方)」과 그 아래 이어지는 「사도노비자환방(使逃奴婢自還方)」은 각각 '노비에게 도망치려는 마음을 없게 만드는 비방'과 '도망친 노비가 제 발로 돌아오게 하는 비방'을 기술한 내용인데, 이것은 모두 『지봉유설』, <어언부(語言部)>, 「속언(俗諺)」에서 인용한 것이다.

「사노비무도심방」은 『지봉유설』에서 인용한 장화(張華)의 『물류상감지(物類相感志)』(②)를 재인용하였고, 말미에 출전으로 '유설(類說)'라고 명기하였다. 그리고 「사도노비자환방」은 장화의 『물류상감지』(①)와 『본초강목』(③)을 재인용하였고, 이수광의 견해(④)를 인용한 후 말미에 출전으로 '유설(類說)'이라고 명기하였다. 이 같은 출전 명기법은 인용된 글의 범위를 쉽고 정확히 알게 만든다.

홍만선은 『지봉유설』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지봉유설』에서는 「속언(俗諺)」 항목 아래에 도망친 노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속설로, ①도망간 노비의 의복을 우물에 드리우기, ②시루를 동였던 삼끈으로 만든 실을 노비의 옷에 꿰매기, ③도망간 노비의 머리카락을 베틀에 감기, ④도망간 노비의 이름을 종이에 적어 대들보에 붙이기를 연속적으로 소개하였다. 반면 『산림경제』는 이를 기능에 따라 두 개의 방술로 분리하였다. 즉 「사노비무도심방」에는 ②의 노비에게 도망갈 마음을 없애는 방법만을 인용 수록하였다. 그리고 「사도노비자환방」에는 ①·③·④의 도망친 노비가 스스로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을 모아 별도의 방술로 편성하였다.

『지봉유설』은 다양한 민간의 방술 소개에 기술 목적을 두었지만, 『산림경제』는 이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용도에 맞게 재편하였다. 이는 소개된 지식을 실용 가능한 생활 지식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사례는 『산림경제』가 『지봉유설』의 백과사전적 지식을 목적에 따라 선별·재구성하여 실용적 처방 체계로 편입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지식의 실용화 경향과 생활 백과 편찬 방식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芝峯類說』 卷十六, <語言部>, 「俗諺」.

① 張華物類相感志曰: “取逃人衣裳, 井中垂運之, 則逃人自還. ②以甑帶麻, 作線, 左緊之, 縫奴婢衣脊一尺六寸, 卽無逃走之心.” ③本草曰: “取逃人髮, 於緯車上却轉之, 則迷亂不知所適”云. ④今俗以紙書逃人姓名, 貼梁上, 亦此類也.

→

○『山林經濟』 卷之三, <雜方>, 「使奴婢無逃心方」, 洪萬選.

② 張華物類相感志曰: “以甑帶麻, 作綿左緊之, 縫奴婢衣一尺六寸, 卽無逃走之心.”【類說】

○『山林經濟』 卷之三, <雜方>, 「使逃奴婢自還方」.

① 張華志曰: “取逃人衣裳, 井中垂運之, 則逃人自還.” ③本草曰: “取逃人髮, 於緯車上却轉之, 則迷亂不知所適”云. ④今俗以紙書逃人姓名, 貼梁上, 亦此類也.【類說】

다음은 『산림경제』가 『지봉유설』의 여러 항목을 하나의 「잡기(雜忌)」 조항으로 집성(集成)한 사례이다.

『지봉유설』에는 각 내용이 서로 다른 항목에 흩어져 있으니, ①·③·⑤는 「속언(俗諺)」, ②는 「잡설(雜說)」, ④는 「절서(節序)」에 각각 실려 있다. 그러나 『산림경제』는 이들을 모두 「잡기(雜忌)」라는 하나의 조목 아래 모아 재배열하였다. 즉, 원래의 문헌 분류 체계를 따르지 않고, 생활 속에서 삼가야 할 금기라는 실용적 기준에 따라 재분류하였다.

한편, 본문의 표현은 대체로 『지봉유설』을 그대로 옮기되, 불필요한 접

속어나 설명을 생략하고, 일부 글자를 정리하였다. 예를 들어, '古人避影爲此云'은 삭제하고 핵심 문장만 남겼으며, '蓋以是也'를 '蓋以此也'로 바꾸는 등 경미한 수정만 하였으니, 내용의 변형보다 실용적 활용을 위한 간결한 편집에 목적을 둔 것이다.

첫 번째 조항에는 '유설(類說)'이라고 명기하고, 이어지는 네 개의 조항에는 모두 '상동(上同)'이란 말을 붙여 동일한 출전이라는 것을 표시함으로써, 반복적인 출전 표기를 줄였다.

이처럼 『산림경제』는 『지봉유설』을 전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산된 내용을 기술 목적에 맞게 선별·배열하여 하나의 실용적 지식 체계로 재구성하였으니, 조선 후기 실용서 편찬에서 재분류와 재맥락화가 중요한 편찬 원리로 작용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①『芝峯類說』, 卷十六, <語言部>,「俗諺」.

酉陽雜俎曰: "影不欲照水照井及浴盆中. 古人避影爲此"云. 所謂"行不履影", 蓋亦此意歟.

②『芝峯類說』, 卷十六, <語言部>,「雜說」.

山居四要曰: "凡臥歌詠, 大不祥", 世言: "夜臥喜歌者多夭", 蓋以是也.

③『芝峯類說』, 卷十六, <語言部>,「俗諺」.

酉陽雜俎曰: "俗諱五月上屋, 言五月人蛻, 上屋見影, 魂當去."

④『芝峯類說』, 卷一, <時令部>,「節序」.

"和帝時, 初令伏閉盡日", 註: "伏日萬鬼行, 故盡日閉, 不干他事." 程曉伏日詩曰: "平生三伏時, 道路無行車."

⑤『芝峯類說』, 卷十六, <語言部>,「俗諺」.

說郛曰: …… 又曰: "賣宅之財, 買奴婢及生物, 竝不利於人. 賣驢馬之財, 不聘婦, 令家耗不安."

→

『山林經濟』, 卷之三, <雜方>,「雜忌」.

① 酉陽雜俎曰: "影不欲照水照井及浴盆中", 所謂"行不履影", 亦此意歟.【類說】

② 山居四要曰: “凡臥歌詠, 大不詳”, 世言: “夜臥喜歌者, 多夭”, 蓋以此也.【上同】

③ 酉陽雜俎曰: “俗諱五月上屋, 言五月人蛻, 上屋見影, 魂當去.”【上同】

④ “漢和帝時, 初令伏閉盡日”, 註: “伏日萬鬼行, 故盡日閉, 不干他事.” 程曉伏日詩曰: “平生三伏時, 道路無行車.”【上同】

⑤ 說郛曰: “賣宅之財, 買奴婢及生物, 並不利於人, 賣驢馬之財, 不聘婦, 令家耗不安.【上同】

행정·제도 전고 분야에서 『지봉유설』을 인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연려실기술별집(燃藜室記述別集)』, <사전전고(祀典典故)>, 「제사(諸祠)」의 ‘숭의전(崇義殿)’ 관련 기사는 『지봉유설』, <잡사부(雜事部)>, 「이문(異聞)」에서 인용한 것인데. 이긍익(李肯翊, 1736~1806)은 『지봉유설』의 내용을 역사적 사실과 일화를 보충하는 자료로 삼아 원문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였으니, 이는 인용 원문의 보존을 중시한 인용 방식이다.

「제사」는 『지봉유설』에 있던 ‘祭高麗太祖顯宗文宗于此’라는 숭의전의 제향 대상에 관한 설명을 생략하였고, 숭의전의 신이(神異)를 보여주는 두 가지 일화는 모두 유지하였으니, 「제사」가 제도의 일반적 설명과 함께 사당의 영험함이나 권위를 드러내는 정보에도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사 말미에 ‘지봉유설’이라고 출처를 명시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이 사례는 『지봉유설』을 역사적 일화를 전하는 신뢰 가능한 자료로 인식하여 원문을 그대로 전재하고, 불필요한 부분만 생략한 뒤 출전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芝峯類說』, 卷十七, <雜事部>, 「異聞」.

崇義殿在麻田江岸. 王太祖仕弓裔時, 自松京往來憩息之所, 蓋因太祖故宅而殿之. 祭高麗太祖·顯宗·文宗于此. 昔有人偸割祭肉而去. 其夜祭官

夢, 三王列坐殿上, 怒曳偸肉者斬之. 翌朝按其人, 卽首服抵罪. 又有竊負殿內帷帳器用而出者, 未及門, 四肢如縛, 不能移一步, 遂就捕. 以故邑吏肅敬將事, 不敢少懈云.

→

『燃藜室記述別集』, 卷之四, <祀典典故>, 「諸祠」, 李肯翊.

崇義殿在麻田江岸. 王太祖仕弓裔時, 自松京往來憩息之所, 蓋因太祖故宅而殿之. 昔有人偸割祭肉而去, 其夜祭官夢, 三王列坐殿上, 怒曳偸肉者斬之. 翌朝按其人, 卽首服抵罪. 又有竊負殿內帷帳器用而出者, 未及門, 四肢如縛, 不能移一步, 遂就捕. 以故邑吏肅敬將事, 不敢少懈云. 【芝峯類說】

『지봉유설』, <잡사부>, 「이문(異聞)」 '숭의전(崇義殿)' 관련 기사는 정약용의 『여유당전서』, <대동수경(大東水經)>, 「패수(浿水)」에도 인용되었기에 앞서 본 『연려실기술』의 인용 사례와 비교가 된다.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지봉유설』의 '王太祖'에서 '王'을 '高麗'로, '有竊負殿內帷帳器用而出者'에서 '內'와 '出'을 '上'과 '去'로 고쳐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지봉유설』 말미의 "以故邑吏肅敬將事, 不敢少懈云."이라는 문장을 생략하였으니, 글의 주제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인용문 첫머리에 '李芝峯云'이라고 하여, 문헌명인 『지봉유설』 대신 저자인 이수광을 출전으로 제시하였으니, 저자의 권위를 강조하는 인용 방식이다.

『연려실기술』이 원문을 거의 그대로 전재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약간 생략하여 자료의 보존과 전승에 중점을 두었다면, 『여유당전서』는 원문의 핵심은 유지하면서도 표현을 교정하고 내용을 선별하여 고증과 재구성을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지봉유설』이 후대에 역사·지리·제도 연구의 기초 자료로 폭넓게 활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芝峯類說』, 卷十七, <雜事部>, 「異聞」.

崇義殿在麻田江岸. 王太祖仕弓裔時, 自松京往來憩息之所, 蓋因太祖故

宅而殿之. 祭高麗太祖・顯宗・文宗于此. 昔有人偸割祭肉而去. 其夜祭官夢, 三王列坐殿上, 怒曳偸肉者斬之. 翌朝按其人, 卽首服抵罪. 又有竊負殿內帷帳器用而出者, 未及門, 四肢如縛, 不能移一步, 遂就捕. 以故邑吏肅敬將事, 不敢少懈云.

→

『輿猶堂全書』, <大東水經 其四>, 「浿水 三」, 丁若鏞.

李芝峯云: "崇義殿在麻田江岸, 高麗太祖仕弓裔時, 自松京往來憩息之所, 蓋因太祖古宅而殿之, 祭太祖・顯宗・文宗于此. 昔有人偸割祭肉而去, 其夜祭官夢, 三王列坐殿上, 怒曳偸肉者斬之. 翌朝按其人, 卽首服抵罪. 又有竊負殿上帷帳器用而去者, 未及門, 四肢如縛, 不能移一步, 遂就捕."

다음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의 『임하필기(林下筆記)』는 '李晬光曰'이라고 출처를 밝혔으니, 『지봉유설』이라는 문헌 자체보다 '이수광'이라는 저자의 식견과 논평에 권위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지봉유설』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일부 표현을 삭제하거나 축약하였다.

'我國家不愛高官重秩'에서 '家'와 '重秩'을 삭제하여 '我國不愛高官'으로 문구를 간결하게 만들었으며, '唯以愛身自重爲務 ~ 難以指使'에서 '唯', '爲士卒倡', '可勝痛哉', '志滿氣得, 難以指使.' 등을 삭제하여 논지에 필수적이지 않은 감정적 표현이나 부연 설명을 제거하고, 핵심적인 정책 논의만 남겼으니, 이는 의미를 변화시키는 변개가 아니라, 문헌의 목적에 맞춘 압축적 재서술이다.

『지봉유설』에서 조선의 무장(武將) 운영 실상을 비판하는 시론(時論)으로 서술 제시한 내용을 『임하필기』는 「양장지방(養將之方)」이라는 항목 아래 배치하여, 장수 양성이라는 특정 주제에 관한 선현의 견해로 재구성하였다. 이는 전대 지식을 보존하려는 의도보다는, 후대의 관심 주제에 맞게 선별하고 재배열하는 지식 편찬 방식의 특징이다.

『芝峯類說』, 卷四, <官職部>, 「將帥」.

我國家不愛高官重秩, 以餌武將, 而爲武將者, 旣飽其欲, 不思報效, 唯以愛身自重爲務, 率皆臨敵先走, 爲士卒倡, 可勝痛哉? 大抵驟貴無識之人, 易致驕亢, 志滿氣得, 難以指使, 不如草萊寒士, 奮勇先登者之可用. 養將之方, 恐不在於崇爵苟榮而已.

→

『林下筆記』, 卷之二十一 , <文獻指掌編>, 「養將之方」.

李晬光曰: "我國不愛高官, 以餌武將, 而爲武將者, 旣飽其欲, 不思報效, 以愛身自重爲務, 擧皆臨敵先走, 大抵驟貴無識之人, 易致驕亢, 不如草萊寒士, 奮勇先登者之可用, 養將之方, 恐不在於崇爵苟榮而已."

『임하필기(林下筆記)』, 「광희악(廣熙樂)」은 『지봉유설』, <기예부(技藝部)>, 「기악(妓樂)」과 <문장부(文章部)>, 「명시(明詩)」의 내용을 통합 인용한 것으로, 대부분 자구의 변개 없이 원내용을 충실히 전재하였다.

『지봉유설』은 '사문옥설왈(事文玉屑曰)'이라는 원출처를 제시하였지만, 『임하필기』는 이를 '이수광왈(李晬光曰)'로 바꾸었으니, 『지봉유설』이 전하였던 중국 문헌 정보를 이수광의 견해로 귀속시킨 것이다.

이 사례의 특징은 서로 다른 문헌 항목의 내용을 하나의 주제로 통합했다는 점이다.

『지봉유설』에서는 여악(女樂) 관련 내용이 두 곳에 분산되어 있으니, <기예부>, 「기악」에서는 영기(營妓)의 설치 목적과 군사 제도와 관련한 관기 운영을, <문장부>, 「명시」에서는 명 사신 접대 여악, 기녀 관련 시와 일화를 기술하였다. 그러나 『임하필기』에서는 이를 「광희악」이라는 항목 아래 결합하여, 관기 제도의 기원 → 조선의 여악 운영 → 명 사신 접대와 여악 논쟁 → 임진왜란 이후의 변화라는 역사적 흐름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는 원자료를 주제 중심으로 재편집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임하필기』는 두 개의 독립된 자료를 '이수광왈(李晬光曰)'이라는 출처 아래 하나로 묶어 제시하였으니, 이는 현대적 인용 기준에서는 불완전한

방식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봉유설』 안에서도 글의 원출처가 다르기 때문이다. 『임하필기』는 『지봉유설』을 인용하면서, 그 안에 포함된 원자료의 계통까지는 구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는 표절적 은폐라기보다 조선 후기 유서 편찬에서 전대 편찬물을 하나의 지식 단위로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芝峯類說』, 卷十八, <技藝部>, 「妓樂」.

○女樂, 自古有之, 唐宋至胡元最盛, 而大明初, 亦有妓樂, 顧佐爲御史奏罷之, 凡官吏宿娼者, 終身永廢. 故相傳: "有一朝官假婦人服, 潛宿娼樓, 爲仇家所覺, 遂得罪"云, 法亦重矣. 今中朝號娼女爲養漢的, 隨其色貌美醜, 而上下其價. 亦有本夫牙儈而取利者, 俗謂王八, 蓋賤之也. 頃歲有宋某以書狀官赴京, 變着唐服, 出入倡店, 淫逐爲事, 乃前古所未聞也. 竟被罪死, 至今華人嗤點之, 辱國之罪, 曷勝誅哉?

○事文玉屑曰: "營妓, 古以待軍士之無妻者." 我國, 於邊鎭, 皆置妓樂, 蓋爲此也. 祖宗朝立制之意, 可謂至矣, 而爲帥臣者, 不恤軍卒, 耽樂是事, 獨何心哉?

○唐人謂妓爲錄事, 亦曰酒糾. 又妓所居曰錄事巷. 按小說云: "凡飮, 以一人爲錄事, 以糾坐人." 又云: "妓絳眞與鄭擧擧, 互爲席糾, 寬猛得所", 是也.

○『芝峯類說』, 卷十二, <文章部 五>, 「明詩」.

祖宗朝天使接宴時用女樂. 故祁[1]天使順有卻妓詩曰: "聖朝風化萬方瞻, 男女綱常貴謹嚴", 又曰: "幽盟只與寒梅共, 不爲閑花別動情", 徐四佳次之曰: "自是東韓遵古禮, 敢將雲雨惱高情?" 措語太迫矣. 龔用卿天使時, 妓一朶紅有殊色, 天使悅之, 酒闌用濃筆抹其面以戲云, 兩使氣象不侔矣. 自壬辰變後, 凡宴享, 但用男樂, 不用女樂矣.

→

『林下筆記』, 卷之十六, <文獻指掌編>, 「廣熙樂」, 李裕元.

燕山十年, 於諸道大小邑, 設娼妓, 號運平, 樂工曰廣熙. 李晬光曰: "營妓, 古以待軍士之無妻者, 我國於邊鎭, 皆置妓樂, 盖爲此也." 又曰: "祖宗

1) 祁: 중앙도서관 소장본에는 '祈'로 되어 있다. '祁'와 '祈'는 통하는 글자이다.

朝, 天使接宴時, 用女樂, 故祈天使順, 有部[2]妓詩曰: '聖朝風化萬方瞻, 男女綱常貴謹嚴.' 又曰: '幽盟只與寒梅共, 不爲閑花別動情.' 舘伴徐居正, 次之曰: '自是東韓遵古禮, 敢將雲雨惱高情.' 龔用卿天使時, 妓一朶紅有殊色, 天使悅之, 酒闌用濃筆抹其面以戱, 兩使氣像不侔矣. 自壬辰變後, 凡宴享, 用男樂, 不用女樂."

의학 분야에서 『지봉유설』을 인용한 사례는 다음에서 볼 수 있다.

홍만선(洪萬選, 1643~1715)의 『산림경제(山林經濟)』, <섭생(攝生)>, 「복식(服食)」은 『지봉유설』, <식물부(食物部)>, 「약(藥)」에서 토사자(菟絲子)의 효험에 관한 기록을 그대로 수용하였는데, 토사자의 복용 사례를 제시한 서술 구조와 토사자의 보기(補氣) 효능에 대한 결론까지 그대로 유지하였고, 내용의 변개나 재해석은 하지 않았다.

다만, 편찬 과정에서 일부 표현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문체를 다듬는 정도의 수정이 이루어졌으니, 불필요한 시간적·상황적 설명을 축약하여, '癸巳年間. 因兵荒'을 '荒年'으로 바꾸어 사건의 핵심 배경만 남기고 구체적인 연대는 삭제하였다. 이는 약효를 설명하는 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를 줄여 서술을 간결히 만들고자 하는 편집 의도이다. 그리고 어휘나 문구를 정확하고 간략하게 수정하였으니, '村民'을 '村氓'으로, '金銀花汁'을 '金花汁'으로, '蓋菟絲子能補氣故也'를 '蓋菟絲能補氣也'로 바꾸어 의미는 유지하면서 문장을 압축하였다.

『산림경제』가 출전을 명시함으로써 『지봉유설』을 신뢰할 수 있는 참고문헌으로 인정하고 그 권위를 존중한 것과 달리, 『의령』은 동일한 내용을 무단 전재하였다.

『芝峯類說』, 卷十九, <食物部>, 「藥」.

有村民患風疾, 不能出戶, 癸巳年間, 因兵荒, 收得菟絲子數斛, 作飯常

2) 部: 却의 오기임.

服之, 舊疾頓愈, 氣力壯健, 勝於未病之前. 又一人少服菟絲子, 飮食倍常, 氣血充盛, 而忽得背疽, 飮金銀花汁, 兩日至數斤, 腫卽消盡. 蓋菟絲能補氣故也.

→

『山林經濟』, 卷之一, <攝生>, 「服食」.

有村氓患風疾, 不能出戶, 荒年, 收得菟絲子數斛, 作飯常服之, 舊疾頓愈, 氣力壯健, 勝於未病之前. 又一人少服菟絲子, 飮食倍常, 氣血充盛, 而忽得背疽, 飮金花汁, 兩日至數斤, 腫卽消盡, 蓋菟絲能補氣也. 【類說】

다음 사례는 정약용이 『의령』에서 부종(浮腫)과 법유(法油)에 관한 내용을 『지봉유설』에서 인용한 것으로, '지봉운(芝峯云)'이라고 출전을 명시하였다. 『의령』은 원문의 핵심 내용인 오래된 법유(法油)가 부종에 효과 있다는 속설과, 잘못 복용하면 설사로 사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써야 한다는 경계, 그리고 연수서(延壽書)의 견해를 모두 그대로 유지하였다. 따라서 내용의 변개 없이 원문의 취지를 충실하게 계승한 출전 명시형 인용이다.

다만, 인용 과정에서 몇 가지 편집이 이루어졌으니, 원문의 '속언(俗言)'이라는 말을 제거함으로써 속설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지봉유설』의 견해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바꾸었다. 이는 정보의 출처를 민간의 경험에 의한 처방이 아니라, 『지봉유설』이라는 문헌의 처방으로 귀속시키려는 편집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봉유설』에서는 '법유(法油)'라고만 하였으나, 『의령』은 법유가 청소유(靑蘇油)와 동일한 말이라는 설명을 주석으로 추가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약물의 실체를 분명하게 하였다.

또 일부 문장을 간결하게 정리하였다. '況可多服乎'를 '況可多乎'로 줄이는 등 의미를 유지하면서 간결한 문체로 만들었으니, 이러한 수정은 내용의 변경이 아니라 표현을 다듬기 위한 편집이다.

이 사례는 『지봉유설』이 조선 후기 의학사에서 권위 있는 인용 문헌과

실용적인 정보원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다.

『芝峯類說』, 卷十九, <食物部>, 「藥」.
俗言: "患浮腫人, 服年久法油, 最有效." 然人或服之而洞泄以死. 延壽書曰: "病人不宜陳油飮食, 況可多服乎?"
→
『醫零』, 「雜說 五」.
芝峯云: "浮腫, 服靑蘇油【卽法油】陳久者, 最有效, 然或服之洞泄以死, 延壽書曰: '病人不宜陳油飮食, 況可多乎?'"

다음의 사례는 『지봉유설』의 해당 조목을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불필요한 내용이나 논평을 삭제하고 핵심 정보만을 발췌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즉, '尤可怪也' 이하의 평론, '又有人言嘗見', '須臾平復', '桂皮着樹則樹卽枯死云' 등의 구절을 삭제하고 '今人'을 '今'으로, '椒木皮'를 '椒皮'로 '魚食之則死'를 '魚食之而死'로 고치는 등 자구를 다듬어 문맥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수정하였다. 이러한 변개는 내용의 수정이라기보다 불필요한 표현을 줄여 독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이다.

반면, '逐'은 '豚'의 오자이며, '鼠子'는 '鼠狼子'의 오기이고, '母鼠'는 '母鼠狼'의 오기인데, 『의령』, 「집고」에서는 수정 없이 그대로 답습하였다. 이는 정약용이 『지봉유설』을 원전으로 삼아 이를 신뢰하고 전재하였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해당 부분을 원출전과 대조하거나 문헌 비판을 수행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인용은 원문의 오류를 적극적으로 교정하거나 진위를 검토하는 비판적 인용이라기보다, 내용을 선별하여 재배열한 인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용 양상은 『지봉유설』이 조선 후기 지식인들에게 단순한 참고서가 아니라, 별도의 내용 확인 절차 없이 믿고 전재할 수 있을 정도의 권

위 있는 매개 문헌으로 기능하였음을 보여준다. 정약용은 『지봉유설』을 직접 인용 대상으로 삼아, 『조야첨재』·『북몽쇄언』 등 원전의 표기까지 『지봉유설』을 따랐다. 이는 『지봉유설』이 다양한 중국 문헌의 정보를 선별·정리하여 제공하는 2차 문헌으로서 높은 활용도를 지녔음을 의미한다. 다만, '②說郛云'도 『지봉유설』에서 인용하였으면서, 이 문장은 『설부(說郛)』에서 직접 인용한 것처럼 바꿔 놓았다.

이 사례에서 『지봉유설』이 후대 문헌의 지식 전승에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수행한 만큼, 그 안에 포함된 오자나 오류 역시 함께 전승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지봉유설』은 방대한 중국 문헌을 집성하여 지식의 유통을 촉진한 핵심 문헌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문헌적 가치를 지니지만, 후대 문헌의 계통과 텍스트 전승을 검토할 때는 원출전의 대조를 통해 오자와 오류의 답습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시사도 준다.

①『芝峯類說』, 卷十九, <食物部>, 「藥」.

朝野僉載: "虎中藥箭, 食靑泥而解, 野猪中藥箭, 逐薺苨而食, 雉被鷹傷, 啣地黃葉貼之. 鼠中毒如醉, 取泥汁飮之, 須臾平復." 北夢瑣言: "鼠子爲蛇所傷, 母鼠啣豆葉嚼而傅之, 皆活." 又有人言: "嘗見雉及秀魚被傷, 皆以松脂傅其瘡處", 尤可怪也. 夫以鳥獸蟲物, 猶知解毒, 況最靈之人而不知藥性, 何耶?

②『芝峯類說』, 卷十九, <食物部>, 「藥」.

說郛云: "以木瓜灰, 和麥糠飯, 投水中, 魚食之則死. 秦椒爲末, 和稻飯, 雀食之則死." 今人, 以椒木皮, 和水上流, 則魚皆死而浮出. 藍漆和飯, 蠅食之則死. 桂皮着樹則樹卽枯死云.

→

『醫零』, 「集古 六」.

①芝峯云 : "虎中藥箭, 食靑泥而解. 野猪中藥箭, 逐薺苨而食. 雉被鷹傷, 銜地黃葉貼之. 鼠中毒如醉, 取泥汁飮之. 【朝野僉載】 鼠子爲蛇所傷, 母鼠銜豆葉嚼而傅之, 皆活. 【北夢瑣言】 雉及秀魚被傷, 皆以松脂傅瘡處."

②說郛云 : “木瓜灰, 和麥糠飯, 投水中, 魚食之而死. 秦椒爲末, 和稻飯, 雀食之則死. 今椒皮浸水上流, 則魚皆死而浮出. 藍漆和飯, 蠅食之則死.”

『의휘(宜彙)』의 인종통(咽腫痛) 처방은 『지봉유설』, <식물부(食物部)>, 「약(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출전인 『지봉유설』을 명시하여 지식의 전승 경로를 드러낸 사례이다.

‘속방(俗方)’이라는 출처 삭제는 정약용의 『의령(醫零)』에서도 동일하게 보이는 특징이다. 이는 민간 처방을 의방(醫方) 체계 안에 편입하기 위한 의식이라고 할 있다. 또 ‘疑是俗名朴赤伊’라는 주석을 추가함으로써 문헌상의 약재 명칭과 실제 민간 명칭을 연결하고, 전대 기록을 임상적으로 활용 가능한 지식으로 확장하였다. 따라서 이는 전대 문헌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경험 정보를 보완하여 지식을 재구성한 실용적 확장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芝峯類說』, 卷十九, <食物部>, 「藥」.

俗方: “咽喉腫痛閉塞, 瓠花上飛蛾, 燒爲末, 吹入喉中.” 或云: “其蛾, 有龍腦臭者, 乃效”, 蓋能散氣故也.

→

『宜彙』, 卷之三, <咽喉>, 「咽腫痛」, 錦里散人.

咽喉腫痛閉塞, 匏花上飛蛾【疑是俗名朴赤伊】爲末, 吹入喉中. 或云: 其蛾, 有龍腦鼻者.【芝峯類說】

3. 출전 미표기 인용과 지식 자원의 내재화

‘인용’은 타인의 저작물(글, 아이디어, 데이터 등)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이고 도덕적으로 빌려 쓰는 행위로, 원작자가 누구인지, 어느 책이나 글에서 가져왔는지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 사용의 목적은 자

신의 주장이나 연구 결과에 객관적인 근거를 더해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반면 '표절'은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직접 창작한 것처럼 속여서 사용하는 부정행위로,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출처를 밝히더라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그 사용의 목적은 타인의 노력과 성과를 가로채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포함된다. 그 결과 도덕적 비난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잃게 된다. 그러나 전근대 시대의 문헌 환경에서는 현재의 저작권 개념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보다, 출전 미표기 상태에서 선행 문헌의 문장과 지식을 자기 저술 안에 편입한 '무단 전재'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다음에서 분야별로 출전을 표기하지 않은 인용의 양태를 분석해 보겠다.

명호(名號) 관련 내용에서 변개 없는 출전 미표기 인용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규경(李圭景, 1788~1856)은『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칭호고금부동변증설(稱號古今不同辨證說)」에서 『지봉유설』을 그대로 전재하였다. 즉 원문의 문장과 표현을 그대로 옮겨왔으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기에 저자의 독자적 서술처럼 보인다.

이 사례는 현대적 기준에서는 표절에 해당한다. 다만 당시의 유서(類書)나 필기(筆記) 등은 선행 문헌을 출처 없이 인용하는 일이 매우 흔했고, 이것을 전재(轉載)·초록(抄錄)·절록(節錄)·채록(採錄) 등으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저작권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芝峯類說』, 卷十七, <雜事部>,「名號」.

唐時郭子儀爲中書令, 故號郭令公, 乃尊稱之辭. 我國以銀臺爲中書, 故呼承旨爲令公, 而通政以上, 通稱令公, 自十許年來, 不曰令公而曰令鑑. 至於書詞亦用之, 殊無意謂, 抑可見習俗之變矣.

→

『五洲衍文長箋散稿』<人事篇, 人事類, 稱號>,「稱號古今不同辨證說」.
而唐時郭子儀爲中書令, 故號郭令公, 乃尊稱之辭. 我國以銀臺爲中書, 故呼承旨爲令公, 而通政以上, 稱令公, 自十許年來, 不曰令公而曰令監, 至於書問亦用之, 殊無意, 抑可見習俗之變矣.

다음으로 경학 분야에서 변개 없는 출전 미표기 인용의 사례를 살펴보겠다.

정약용은『논어고금주(論語古今注)』,「팔일(八佾)」, '子曰夷狄之有君, 不如諸夏之亡也.'에서 『지봉유설』, <경서부(經書部)>, 「논어(論語)」를 인용하였다.

『논어고금주』는 '子曰夷狄之有君, 不如諸夏之亡也.'의 새로운 해석을 소개하면서 그 출전을『황명대정기(皇明大政紀)』로 명기하였다. 그런데『황명대정기』에는 해당 내용이 "夷狄, 禽獸也. 故孔子賤之, 以爲彼國雖有君長, 然不知君臣之禮, 上下之分, 爭鬥紛然, 中國縱亡君長, 必不如此, 是其有君, 曾不如諸夏之亡也. 宋儒乃謂: '中國之人, 不如夷狄', 豈不謬哉?"[3]로 되어 있으니, 글의 전반적 내용은 일치하지만, 자구의 표현은 매우 상이하다. 이 글은 이미『지봉유설』에서 변개 인용한 것인데, 정약용은『지봉유설』을 전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재하면서 출전을 명기하지 않았다. 이는 인용 자료의 계통을 1차 문헌으로 소급시키되 실제로는 2차 문헌에 의존한 인용 방식이다.

『芝峯類說』, 卷六, 經書部二,「論語」.
高皇帝講論語"夷狄之有君, 不如諸夏之無也." 曰: "夷狄, 禽獸也, 無仁義禮智之道, 孔子蓋謂: '中國雖無君長, 人亦知有禮義, 勝於夷狄之有君長者.' 宋儒乃謂: '中國之人, 不如夷狄', 謬矣." …… 出皇明大政紀等書.
→

3) 明 姚士觀 等 編校,『明太祖文集』,「解夷狄有君章說」.

『論語古今注』, 卷一, 「八佾 中」, '子曰夷狄之有君, 不如諸夏之亡也.'
皇明大政紀云: "高皇帝曰: '夷狄, 禽獸也, 無仁義禮智之道, 孔子蓋謂: '中國雖無君長, 人亦知有禮義, 勝於夷狄之有君長者', 宋儒乃謂: '中國之人, 不如夷狄', 謬矣.'"

자학(字學) 분야에서, 약간의 글자를 변개하고 출전을 명기하지 않았으나 『지봉유설』에서 인용한 것이 분명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윤기(尹愭, 1741~1826)의 『무명자집(無名子集)』, 「협리한화(峽裏閒話)」 중 '차자(借字)'는 본래의 뜻과는 관계없이 음이나 훈을 빌려 쓰는 한자에 관하여 기술한 것으로, 『지봉유설』을 출전 명기 없이 인용한 것이다. 그 증거는 전체적 전개와 구성의 정확한 일치이다. 비록 글자를 부분적으로 변개하였으나, 출전을 명기하지 않아도 될 정도는 아니다. 더욱이 '聖善之敎'의 '敎'는 '感'의 오자이며, '歲'는 '壽'의 오자인데, 이것을 『무명자집』에서 그대로 답습하였으니, 윤기는 원전 확인 없이 『지봉유설』에서 몇 개의 글자만 변개하고 전사(轉寫)를 감행한 것이다. 물론 『지봉유설』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설부(說郛)』, <공평중(孔平仲), 공씨잡설(孔氏雜說)>, 「대인(大人)」에서 인용한 것이다. 그러나 문장의 구조나 표현 등 제반 사항을 볼 때, 윤기가 『설부』에서 직접 인용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다만 말미에 "推此類也, ~ 則人必笑以爲牛魚躍肉之類矣."라는 견해를 덧붙임으로써 기존의 논의를 다소 발전시킨 점은 인정할 수 있다.

『芝峯類說』, 卷七, <文字部>, 「字義」.
古人字多借用. 漢書曰: "匄諸宮人", 註: "匄, 遺也", 與人亦稱匄矣. 司馬相如傳: "臨邛令, 日往朝相如", 則造謁人, 亦謂朝矣. 魏文紀: "以詩賦餉孫權", 則贈物亦謂餉矣. 伯夷傳: "仲尼獨薦顔淵", 則稱譽亦謂之薦矣. 范滂與母訣曰: "大人, 割不忍之恩", 則母可稱大人. 楊脩與曹植書, 有聖善之感, 註: "謂武帝也", 父亦稱聖善. 馬援傳: "釃酒享軍士, 皆伏稱萬歲", 潘岳閑居賦: "稱萬歲, 以獻觴", 則萬歲, 人臣, 亦通用矣.

→

『無名子集』, 「峽裏閒話」, 尹愭.

漢書: “匄諸宮人”, 註: “匄, 遺也”, 則與人亦可曰匄. 相如傳: “臨邛令, 日往朝相如”, 則造謁人, 亦可曰朝. 魏文紀: “以詩賦餉孫權”, 則贈詩文, 亦可曰餉. 伯夷傳: “仲尼獨薦顔淵”, 則稱譽亦可曰薦. 范滂與母訣曰: “大人, 割不忍之恩”, 則母亦可曰大人. 楊脩與曹植書, 有聖善之感, 註: “謂武帝”, 則父亦可曰聖善. 馬援傳: “醲酒享軍士, 皆伏稱萬歲”, 潘岳閑居賦: “稱萬歲, 以獻觴”, 則人臣, 亦可用萬歲. 推此類也, 則無不可以通用矣. 然古則可, 今則不可. 今若不据古而用牝雞雄狐等語, 則人必笑以爲牛魚躍肉之類矣.

행정・제도 분야에서 출전을 밝히지 않고 『지봉유설』을 전재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정약용의 <혼돈록(餛飩錄)>, 「중시시(重試詩)」는 『지봉유설』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변형・보완하면서도 출전을 밝히지 않은 재구성형 전재이다. 단순 전사(轉寫)와 달리 정약용은 일부 오류를 수정하고 관련 정보를 추가하였지만, 핵심적인 문헌 정보와 서술 구조는 『지봉유설』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전대 지식의 수정・보완을 통한 재구성이라는 특징을 지니면서도, 출전 표기가 없다는 점에서 인용 윤리상 문제가 남는다.

『지봉유설』은 내용상 당나라 말기 인물 저재(褚載)의 중시(重試) 급제 축하 시 인용과 조선의 문무(文武) 중시가 당나라 제도에서 유래했다는 설명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중시시」는 『지봉유설』의 후반부에 있던 제도 관련 기술을 글의 첫머리로 이동시켜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는 제도의 연원을 먼저 제시하고 그 뒤에 문헌 사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서술 구조를 재편한 것이다.

정약용의 『지봉유설』 인용에서 특징적인 면모는 표현을 다듬고 오류를 수정하였다는 것이다. 정약용은 『지봉유설』의 ‘褚載, 唐季人’을 ‘唐褚載’로 수정하여, 인물 정보를 간결하게 다듬었다. 그리고 『지봉유설』의 ‘丙年’

은 문맥상 2년마다 시험을 시행한다는 '兩年'의 오기인데, 정약용은 이를 수정하였다. 관련 정보의 추가도 이루어졌으니, '武科自唐武后時有之'는 『지봉유설』에 없는 내용으로, 무과 중시의 기원을 당 무후 시기로 특정한 것은 제도의 연원을 분명하게 보충하려는 시도이다.

이처럼 정약용은 『지봉유설』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 아니라, 고증적 관점에서 내용을 검증하고 보충하였다. 그러나 핵심적인 시문 자료와 제도에 대한 설명의 근거를 『지봉유설』에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출전 명기 없는 재구성 인용 또는 변형 전재로 볼 수 있다.

> 『芝峯類說』, 卷四, <官職部>, 「科目」.
> 褚載, 唐季人, 賀趙觀文重試及第曰: "一枝仙桂兩回春, 始覺文章可致身云云." 今本朝例於丙年, 設文武重試, 蓋本唐制也.
> →
> 『與猶堂全書補遺』, <餛飩錄>, 「重試詩」.
> 重試, 自唐有之. 唐褚載賀趙觀重試及第詩曰: "一枝仙桂兩回春, 始覺文章有致身." 我朝每兩年設文武重試. 武科自唐武后時有之.

의약(醫藥) 분야에서 출전을 밝히지 않고 『지봉유설』을 전재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다음의 『의영(醫零)』에 수록된 내용은 『지봉유설』, <식물부(食物部)>, 「약(藥)」의 내용을 그대로 전재하였다. 그런데도 『지봉유설』을 출전으로 명시하지 않고, 『회남자』와 『본초(本草)』 그리고 허준(許浚)의 저작에서 직접 인용한 형식으로 만들었다. 또 『지봉유설』의 '聞'을 삭제하여, '전해 들은 이야기'라는 출처를 제거하고, 일반적인 사실이나 상식을 서술하는 문장으로 바꾸었다.

이 사례는 선행 문헌의 기록을 자신의 의학적 서술 속에 편입하는 양상

이다. 여기에서 『지봉유설』이 약물·음식의 효능과 인체 변화에 관한 경험 지식을 축적한 자료원으로 기능하며, 정약용이 이를 의학적 정보 기술의 자료로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 『芝峯類說』, 卷十九, <食物部>, 「藥」.
> 淮南子曰: "服天雄, 令人武勇", 本草曰: "食鬬鷄肉, 令人勇健." 聞倭奴臨戰, 飮酒以壯膽. 許儀後謂: "日本之兵, 令酒爲膽", 此也.
> →
> 『醫零』, 「集古 八」.
> 淮南子曰: "服天雄武勇," 本草曰: "食鬬雞肉, 令人勇健," 倭奴臨戰, 飮酒以壯膽. 許儀後謂: "日本之兵, 令酒爲膽", 此也.

다음의 사례도 정약용이 『지봉유설』의 내용을 그대로 전재하면서 출전을 명기하지 않은 것이다. 1871년 간행된 금리산인(錦里散人)의 『의휘(宜彙)』에서 동일 내용을 전재하면서 출전을 『지봉유설』이라고 밝히고 있으니, 정약용이 『지봉유설』 아닌 타 문헌에서 인용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의휘』가 동일한 의학서인 『의령』을 인용하지 않고, 『지봉유설』을 인용한 것을 볼 때, 『지봉유설』이 의학서로서 신뢰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약용은 『지봉유설』의 '속방(俗方)'이라는 말을 삭제하여 처방의 출처가 낮은 층위에서 제시되던 요소를 제거하고, 처방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처럼 보이도록 가공하였다. 『의령』은 의학 정보를 기술한 저술이므로, 잡다한 민간 지식을 의학 지식 체계 안으로 편입하려는 집필 상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지봉유설』은 축적된 의학 경험의 저장소로, 후대 의학 저술이 그것을 정보의 원천으로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한편, 정약용은 출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의 계승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지식의 출처가 은폐되고 말았다.

『芝峯類說』, 卷十九, <食物部>, 「藥」.

俗方: "咽喉腫痛閉塞, 瓠花上飛蛾, 燒爲末, 吹入喉中." 或云: "其蛾, 有龍腦臭者, 乃效", 蓋能散氣故也.

→

『醫零』, 「雜說 六」, 丁若鏞.

咽喉腫痛閉塞, 瓠花上飛蛾, 燒爲末, 吹入喉中. 或云: "蛾有龍腦臭者, 乃效", 蓋能散氣也.

다음의 사례도 마찬가지이다.

『의령』은 토사자(菟絲子)와 보골지(補骨脂)에 관한 『지봉유설』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록하면서도 출전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단순 전사(轉寫)가 아니라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편찬자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편집 의식도 확인된다.

정약용은 주석을 통해 시대와 용어를 보충하였다. '토사자' 기사에서는 '癸巳間' 뒤에 '萬曆'이라는 주석을 덧붙여 간지(干支)로만 제시된 연대를 명나라 만력 연간의 계사년이라는 사실을 독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골지' 기사에서는 '補骨脂' 뒤에 '卽破古紙'라는 주석을 부기하여 당시 통용되던 이칭(異稱)을 제시하였다. 이는 원문에 없던 정보를 추가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편집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서술을 축약하였다. '토사자' 기사에서는 '勝於未病之前'을 삭제하여 약효를 과장하는 표현을 줄였고, '보골지' 기사에서는 『본초강목』에서 인용한 '按本草~笑之'의 내용을 전부 생략하였다. 이 부분은 보골지의 명칭 유래와 당시 조선 의가(醫家)의 오인을 기술한 문헌학적 고증인데, 정약용은 이것이 약재의 산지나 효능 파악에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삭제한 것이다. 즉 『의령』은 의학적 실용성과 직접 관련된 정보만 선별하여 수록하는 편찬 방식을 취하였다.

또 당대의 행정구역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였다. 『지봉유설』의 '我國歙

谷等地'를 '江原道歙谷等地'로 고쳐 지역 정보를 보다 명확히 제시하였다. 이는 후대 편찬자가 현실의 독자를 고려하여 정보를 재맥락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한편, 원문에 없는 자료를 덧붙여 내용을 확장하였다. '토사자' 기사 말미에 '古詩曰, 上有百尺絲, 下有千歲苓'을 추가하였으니, 『지봉유설』 전재에 그치지 않고 다른 문헌이나 지식을 결합하여 동일한 주제 아래 관련 정보를 집적하려는 의식이다.

『의령』의 인용은 기본적으로 무단 전재이지만, 주석 첨가·내용의 선택적 삭제·지명의 현지화·관련 자료의 보충을 통해 실용적 의학 지식으로 재편집한 것이다. 즉 문헌학적 고증이나 원전의 계통 보존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반면, 독자의 이해와 실제 활용을 고려하여 내용을 재구성하는 데에는 적극적이었다.

이 사례는 『지봉유설』을 독립적 저작으로 존중하기보다는, 편찬자가 자유롭게 가공할 수 있는 지식 자원으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승 과정은 『지봉유설』의 문장이 후대 저술 속에서 원전의 표지를 잃고 흡수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芝峯類說』, 卷十九, <食物部>, 「藥」.

有村民患風疾, 不能出戶, 癸巳年間, 因兵荒, 收得菟絲子數斛, 作飯常服之, 舊疾頓愈, 氣力壯健, 勝於未病之前. 又一人少服菟絲子, 飮食倍常, 氣血充盛, 而忽得背疽, 飮金銀花汁, 兩日至數斤, 腫卽消盡. 蓋菟絲能補氣故也.

○『芝峯類說』, 卷十九, <食物部>, 「藥」.

補骨脂, 一名胡韮子. 按本草: "生廣南及波斯國, 語訛爲破故紙." 昔東醫不識, 認作故休紙, 入藥用至今, 笑之. 按輿地勝覽: "我國歙谷等地, 亦產此物", 無乃異而同者耶?

→

『醫零』, 「集古 七」.

昔有村民患風疾, 不能出戶. 癸巳間,【萬曆】 因兵荒, 收得菟絲子數斛, 作飯常食, 舊疾頓愈, 氣力壯健. 又一人小服菟絲子, 飮食倍常, 氣血充盛, 而忽得背疽. 飮金銀花汁, 兩日至數斤, 腫卽消盡. 古詩曰 : "上有百尺絲, 下有千歲苓." 記 [四行缺]

補骨脂, 【卽破古紙】 一名胡韭子, 輿地勝覽: "江原道歙谷等地", 亦産此物, 無乃異而同者耶?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는 웅담(熊膽)의 효능을 설명하면서 『지봉유설』의 해당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였으니, 『지봉유설』의 서술 구조와 문장 배열은 물론, 육방옹(陸放翁)의 필기를 인용한 뒤, 이를 현실의 의학 관행과 연결하는 논리까지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지봉유설』을 출전으로 전혀 밝히지 않았으니, 무단 전재에 해당한다.

「웅비변증설(熊羆辨證說)」은 '今俗雜病, 皆用熊膽'을 '雖俗雜病, 皆服熊膽'으로 바꾸었다. '今俗'의 '今'을 '雖'로, '用'을 '服'으로 수정한 것은 표현상의 차이에 불과하며, 문장의 의미나 논리의 실질적 변화가 없다.

「제담변증설(諸膽辨證說)」에서는 '陸放翁筆記'를 '陸放翁老學庵筆記'로 고쳐 원 출전의 명칭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그러나 『육방옹필기』는 『가일기(暇日記)』의 오기이니, 「제담변증설」에서는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또 '今俗雜病, 皆用熊膽, 蓋以是也'를 '雖俗雜病, 皆服有效'로 바꾸어 결론을 단정적인 효능 중심의 서술로 고쳤지만, 이 역시 표현을 일부 수정한 수준에 머물 뿐 서술의 핵심 내용과 구성은 『지봉유설』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변개는 모두 표현상 수정에 해당할 뿐, 새로운 해석 제시나 독자적 논의 전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오주연문장전산고』의 두 사례는 모두 『지봉유설』의 내용을 그대로 활용했으면서도 출전을 숨긴 표절적 수용이다.

이규경이 일부 표현을 수정하거나 원 출전의 명칭을 구체화하는 편집을 수행하였지만, 『지봉유설』을 출전으로 밝히지 않았으니, 이는 당시 유서

편찬에서 선행 유서의 내용을 재편집하여 자신의 체계 속에 흡수하는 관행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주는 동시에,『지봉유설』의 지식이 후대 백과전서 속으로 자연스럽게 편입되어 전승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芝峯類說』, 卷十九, <食物部>,「藥」.

陸放翁筆記曰: “熊膽奇藥, 家有小兒, 不可無此. 用草莖點入水, 轉急者良. 勇氣所聚爲膽故也.” 今俗雜病, 皆用熊膽, 蓋以是也.

→

○『五洲衍文長箋散稿』, <萬物篇, 鳥獸類, 獸>,「熊羆辨證說」, 李圭景.

陸放翁筆記: “熊膽奇藥, 家有小兒, 不可無此. 用草莖點入水, 轉急者良. 勇氣所聚爲膽故也.” 雖俗雜病, 皆服熊膽, 蓋以是也.

○『五洲衍文長箋散稿』, <人事篇, 技藝類, 醫藥>,「諸膽辨證說」, 李圭景.

陸放翁老學庵筆記: “熊膽奇藥. 家有小兒, 不可無此. 用草莖點入水, 轉急者良, 勇氣所聚爲膽故也.” 雖俗雜病, 皆服有效.

윤리 분야에서 출전을 밝히지 않고『지봉유설』을 전재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윤기의 「조맹부지실절(趙孟頫之失節)」은 『지봉유설』, <인물부(人物部)>,「절의(節義)」를 전사한 것이다. 원래『지봉유설』,「절의」는 별도의 인용이 없는 기술이다. 따라서 윤기가『지봉유설』아닌 다른 문헌에서 인용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욱이『지봉유설』의 ‘邵桂子’는 ‘邵桂’의 오류인데,『무명자집』에서 그것을 답습하였으니,『지봉유설』을 표절한 것이 명백하다. 그리고 윤기는 몇 개의 어조사를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등 표현을 바꾸는 등 변개를 가하였으나, 그것이『지봉유설』의 표현보다 우월하다고 하기도 힘들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무명자집』의 글 제목이「조맹부의 실절」이라는 것이다. 이수광은 송원 교체기의 인물 정보를 수집하여 절의의 기준을 제시

하였다. 반면 윤기는 이것을 특정 인물을 평가하는 서술인 '趙孟頫, …… 余於此未嘗不三復而悚然也'의 전제적 논거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지봉유설』의 내용은 새로운 논변 속에서 기능이 변하였다. 이는 전대 지식이 후대 논쟁 속에서 재맥락화되는 과정이다.

> 『芝峯類說』, 卷十五, <人物部>, 「節義」.
>
> 宋亡, 陳宜中入暹羅不返. 其隱居終身, 不仕于元者, 如殷澄·許月卿·邵桂·馬端臨·張山翁·謝國光等, 姓名可考者數十人. 許魯齋·吳草廬, 以大儒而出處大節, 未免後世之議. 吁可惜哉!
>
> →
>
> 『無名子集』, <峽裏閒話>, 「趙孟頫之失節」.
>
> 宋之亡也, 陳宜中入暹羅不返, 其隱居終身, 不仕元者, 如殷澄·許月卿·邵桂·馬端臨·張山翁·謝國光等, 姓名可考者數十人, 而許魯齋, 吳草廬, 以當世大儒, 出處大節, 未免譏議, 豈不惜哉! 若趙孟頫, …… 余於此未嘗不三復而悚然也.

인물 고사 분야에서 출전을 밝히지 않고 『지봉유설』을 전재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다음의 『무명자집』, 「협리한화」에서 인용한 문헌은 ①·②『요산당외기(堯山堂外紀)』, ③『주자어류(朱子語類)』, ④소설의 순서이다. 그리고 '소설'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⑤'又云'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역시 소설의 인용으로 보았다. '소설'은 『지양집(池陽集)』 혹은 그것을 인용한 『고금사문유취』를 이른다. 그러나 윤기는 그 원출전을 찾지 않은 채, 그대로 '소설'이라고 표기하였다. 그리고 ⑤'又云'으로 시작되는 글은 출전은 『주자어류(朱子語類)』, <본조(本朝)>, 「자희녕지정강인물(自熙寧至靖康人物)」로, ③『주자어류』과 동일하다. 『지봉유설』은 이 글에 어떠한 인용 표지도 하지 않았는데, 윤기는 이 역시 출전을 '소설류'로 짐작하고 표지하였다.

○『芝峯類說』, 卷十六, <語言部>, 「雜說」.

①堯山堂外紀: “東坡南遷時, 一妾有娠, 不3得偕往, 出嫁孫氏. 比歸覓之, 則子生六七齡矣, 命名曰覿. 後官尙書, 卽孫覿也.” 余按: 覿乃名人, 若坡出則寧有不歸姓之理乎? ②且外紀, 以梁師成亦爲東坡出. ③朱子語類曰: “梁師成自謂東坡遺腹子, 待叔黨如親兄弟”云.

○『芝峯類說』, 卷十六, <語言部>, 「雜說」.

杜牧, 時號杜紫薇, 以其官稱之, 別於老杜也. ④小說云: “杜牧有妾, 懷孕而出嫁杜筠生子, 卽荀鶴也.” 荀鶴朱梁初, 獻詩拜翰林學士而卒. 雖有小才, 其人不足道也.

○『芝峯類說』, 卷十五, <人物部>, 「小人」.

⑤蘇東坡子過, 范淳父子溫, 皆出梁師成門, 以父事之, 師成妻死, 以母禮衰絰而往. 按: 師成宦者也, 以二人之子而如此, 可謂不肖矣.

→

『無名子集』, 「峽裏閒話」, 尹愭.

①堯山堂外紀云: “東坡南遷時, 一妾有娠, 不得偕往, 出嫁孫氏, 比歸覓之, 則子生六七齡矣, 命名曰“覿”, 後官尙書”, 卽孫覿也, ②且以梁師成亦爲東坡出, ③朱子語類曰: “梁師成自謂東坡遺腹子, 待叔黨如親兄弟云.”

④又小說: “杜牧有妾, 懷孕而出嫁杜筠生子, 卽荀鶴也, 朱梁初, 獻詩拜翰林學士.”

⑤又云: “蘇東坡子過・范淳父子溫, 皆出梁師成門, 以父事之, 師成妻死, 以母禮衰絰而往.”

역사 고증 분야에서 출전을 밝히지 않고 『지봉유설』을 전재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무명자집』, <협리한화(峽裏閒話)>, 「소하봉찬후(蕭何封酇侯)」는 『지봉유설』, <문장부(文章部)>, 「당시(唐詩)」에서 인용한 것이지만 인용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며, 글의 순서를 ③-④-①-②-⑤로 재배열하였다. 『지봉유설』에서는 원래 <문장부>에 속하는 내용이기에 당시(唐詩)를 앞에 배치하였는데, 『무명자집』에서는 역사 고증에 속하는 글이기에 글의 순서

를 바꾸었다.

『지봉유설』은 문학적 관심 속에서 당시의 표현과 글자의 오류를 다루었던 반면 『무명자집』은 이를 소하(蕭何)가 받은 봉작의 정확한 명칭이라는 역사 고증 문제로 전환하였다.

이처럼 이수광이 수집·정리한 문헌 자료는 후대 문인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검토할 때 신뢰도 높은 참고 자료가 되었다. 그리고 윤기는 『지봉유설』의 자료 배열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신의 서술 목적에 맞게 재배치하였다. 이는 전대 지식이 후대 문헌에서 능동적으로 변형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나 출전을 밝히지 않고 『지봉유설』의 편집 성과를 창견처럼 제시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

『芝峯類說』, 卷十一, <文章部四>, 「唐詩」.

①唐詩曰: "麒麟閣上識酇侯." ②焦竑云: "蕭何封酇侯, 史記作鄼, 字相似之誤也." ③班固十八侯銘: "文昌四友, 漢有蕭何, 序功第一, 受封於酇." ④按: 酇, 七何切. 酇在沛, 鄼在南陽. 何沛人, 其封邑疑近之. 但麒麟閣, 乃宣帝時事, 用於蕭何, 未知合否.

→

『無名子集』, <峽裏閒話>, 「蕭何封鄼侯」.

史記, 蕭何封鄼侯, 世皆以贊音讀誤也, ③班固十八侯銘云: "文昌四友, 漢有蕭何, 序功第一, 受封於酇." ④酇, 七何切, 沛邑名, ①唐詩亦曰: "麒麟閣上識酇侯." ②焦竑云: "蕭何封酇侯, 史記作鄼, 字似而誤也."

다음은 우리 고유어에 대한 기록과 관련 내용을 출전 명기 없이 『지봉유설』에서 전재한 사례이다.

『임하필기(林下筆記)』,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무위지칭(無謂之稱)」은 『지봉유설』의 여러 조목에 산재한 우리말 어휘와 명칭에 관한 내용을 출전 표시 없이 결합하여 하나의 논설로 재구성한 것이다. 『지봉유설』에서 '達魯花'를 '達魯化'로 오기한 것을 『임하필기』에서 답습하고 있

으니, 의심의 여지 없이 『지봉유설』이 출전이다.

이 사례는 『지봉유설』이 조선 후기 언어·풍속 지식의 원천 자료로 기능했으며, 『임하필기』가 이를 새로운 주제 체계 속에서 재구성하면서도 출전 표시는 소극적이었던 사실을 보여준다.

○『芝峯類說』, 卷十七, <雜事部>, 「名號」.

唐時郭子儀爲中書令, 故號郭令公, 乃尊稱之辭. 我國以銀臺爲中書, 故呼承旨爲令公, 而通政以上, 通稱令公, 自十許年來, 不曰令公而曰令鑑. 至於書詞亦用之, 殊無意謂, 抑可見習俗之變矣.

○『芝峯類說』, 卷十六, <語言部>, 「方言」.

我國人號中朝爲唐, 蓋以唐之威令, 久行於天下故也, 如華語謂之漢語. 今我國衣服及器皿體制多襲唐. 舊聞中朝儒士呂英命言: “中原有畜古器古服者, 知爾國器服皆唐制, 古朴可觀”云.

我國鄕語最不可解者, 謂御膳曰水剌, 謂內官曰薛里, 以卑稱尊曰進賜, 以奴稱主曰上典. 且奴婢收貢者謂之達化主, 此則因胡元達魯化赤而訛傳云.

今俗謂父曰阿父, 謂母曰阿孈, 疾痛則呼阿爺, 驚恐則呼阿母. 此卽古人所謂“疾痛慘怛, 未嘗不呼父母”之義也. 阿孈字, 出李長吉傳及崔致遠眞鑑碑序, 蓋本唐語也.

○『芝峯類說』, 卷十六, <語言部>, 「謬誤」.

行者之稱, 出自禪家, 蓋謂素食修行者, 而國俗謂奴僕之爲主持喪者爲行者, 其服亦倣僧衣用緇色, 可笑! 今士大夫家, 一從禮文, 奴僕竝製喪服, 而猶稱行者. 或謂之行祭奴, 則非矣.

→

『林下筆記』, 卷之十九, <文獻指掌編>, 「無謂之稱」.

我國人號中朝爲唐, 蓋以唐威, 久行於天下故也. 中州器物, 皆稱唐物, 如華語謂之漢語. 唐時郭子儀爲中書令. 故號郭令公, 乃尊稱之辭也. 我國以銀臺爲中書, 故呼承旨爲令公, 而通政以上通稱令公. 近又不曰令公而曰令監, 至於書詞, 亦用之, 殊無意謂. 又我國鄕語最不可解者, 謂御膳曰水剌, 謂內官曰薛里, 以卑稱尊曰進賜, 以奴稱主曰上典, 奴婢收貢者謂之達化主, 此則因胡元達魯化赤而訛傳云. 又今俗謂父曰阿父, 謂母曰阿孈, 疾

痛則呼阿爺, 驚恐則呼阿母, 此則屈原所謂"疾痛慘怛, 未嘗不呼父母"之義也. 阿孃字, 出李長吉傳及崔致遠眞鑑碑序, 蓋本唐語也. 又行者之稱, 出自禪家, 蓋謂素食修行者, 而國俗謂奴僕之爲主持喪者爲行者. 其服亦從僧衣用緇色, 可笑也. 今士大夫家, 一從禮文, 奴僕並製喪服, 而獨稱行者, 謂之行祭奴, 則非矣.

다음은 자의(字義) 관련 내용을 출전 명기 없이 『지봉유설』에서 전재한 사례이다.

홍경모(洪敬謨, 1774~1851)는 「군자배기(君子杯記)」에서 '술잔'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면서 『지봉유설』, <문자부(文字部)>, 「자의(字義)」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군자배기(君子杯記)」에서 '취(醉)'·'성(醒)'·'후(酗)'·'작(爵)' 자의 순서로 자의를 설명한 구조는 『지봉유설』과 동일하지만, 글의 형식을 변개하고 인용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지봉유설』은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항목에 맞게 나열 구성한 글이지만, 「군자배기」는 '술잔'이라는 특정 사물을 소재로 한 문학적 글이다. 동일한 내용이 텍스트 간 이동을 거치면서 기능이 변한 것이다. 『지봉유설』은 문자학적 차원에서 술잔의 상징을 해석했다면, 「군자배기」는 군자의 수양론을 논하는 소재로 그것을 변환하였다.

「군자배기」의 『지봉유설』 수용은 문자학 자료의 선택적 계승과 윤리적 재해석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홍경모는 이수광의 자의 설명을 그대로 전재하지 않고, 글의 목적에 맞게 취(醉)·성(醒)·후(酗)·작(爵)의 의미만 선택하였다. 홍경모는 '새가 술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작(爵)' 자의 설명을 통해, '작(爵)'을 기물에 한정하지 않고 군자의 절제와 경계의 상징으로 전환하였다.

이 사례는 조선 후기 문인들이 백과전서적 지식을 문학적·철학적 맥락 속에서 재의미화하여 활용한 방식을 보여준다.

『芝峯類說』, 卷七, <文字部>, 「字義」.

醉字從卒, 醒字從生, 蓋以醉則死, 醒則生矣. 酗字從凶, 謂以酒而凶也. 至於卮觴與爵字皆有義. 按綱目註云: "爵, 鳥名, 象其形爲器, 取其能飛而不溺於酒, 以寓儆戒焉."

→

『冠巖全書』, 「君子杯記」, 洪敬謨.

近卒曰醉, 從生曰醒, 酗者從凶, 謂以酒而凶也. 爵者, 鳥名, 象其形取能飛而不溺於酒也.

다음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인용의 사례이다.

『오주연문장전산고』, 「묘변증설(貓辨證說)」은 『지봉유설』, 「수(獸)」의 관련 내용을 출전 명기 없이 전재한 것인데, 표절 의혹을 피하고자 상당한 변개를 가하였다. 먼저 『지봉유설』의 ①-②-③을 ②-①-③으로 문장의 순서를 변경하였다. 그리고 '按記曰, 郊特牲, 迎貓, 爲食田鼠也.'를 '按郊特牲, 七月孟秋, 迎貓于田, 將以辟鼠也. 【爲食田鼠也.】'로 변개하였다. 『지봉유설』에서 출전으로 제시한 『예기』를 그것의 편명인 「교특생(郊特牲)」으로 변경하고, '七月孟秋, 迎貓于田, 將以辟鼠也.'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으나, 이것은 『예기』에 없는 내용이다. 『예기』, 「교특생」의 관련 부분 내용은 '古之君子, 使之必報之. 迎貓, 爲其食田鼠也, 迎虎, 爲其食田豕也, 迎而祭之也.'이므로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없는 내용을 조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봉유설』에서 옮겨온 '爲食田鼠也'를 주석의 형식을 만들었다. 이 구절은 「교특생」의 본문에 있는 내용이므로 주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③의 '又孔子鼓琴, 見猫方取鼠云'은 『공총자(孔叢子)』, 「가언(嘉言)」에서 '夫子曰, 然, 女言是也. 吾有之, 向見猫方取鼠, 欲其得之, 故爲之音也.'라고 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규경은 『지봉유설』의 내용을 그대로 전재하였으면서도 출전을 엉뚱하게도 『가어(家語)』로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有殺伐聲, 則貓本中國獸也, 而出于西域

者.'를 만들어 추가하였다. 『지봉유설』에서는 출전을 따로 밝히지 않았는데, 이규경은 글의 내용으로 볼 때, 『공자가어』가 출전이라고 짐작한 것이다. 『사문옥설(事文玉屑)』의 인용도 부분적으로 변개하였으나, 이 역시 임의적인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오주연문장전산고』는 표절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지봉유설』의 문장 구조를 변경하고 원 출전에 없는 내용을 위조하여 삽입하고 『지봉유설』에서 누락한 원 출전의 문헌명을 임의로 삽입하는 등 심각한 표절 및 위조 행위를 범하였다.

> 『芝峯類說』, 卷二十, <禽蟲部>, 「獸」.
> ①事文玉屑曰: "猫, 非中國之種. 出于西方天竺國, 釋子因鼠咬侵壞佛經養之. 唐三藏, 往西方取經帶歸, 乃遺種也"云. ②按記曰: "郊特牲, 迎猫, 爲食田鼠也." ③又: "孔子鼓琴, 見猫方取鼠"云, 則猫之名久矣. 三藏, ④乃唐太宗時僧, 其說誣矣.
> →
> 『五洲衍文長箋散稿』, <萬物篇, 鳥獸類, 獸>, 「貓辨證說」.
> 貓者. ②按郊特牲: "七月孟秋, 迎貓于田, 將以辟鼠也."【爲食田鼠也.】 ③家語: "孔子鼓琴, 見貓方取鼠, 有殺伐聲, 則貓本中國獸也, 而出于西域者." 註傳也. ①事文玉屑: "猫, 非中國種, 而出于西域天竺, 釋子因鼠咬佛經養之. ④唐三藏, 太宗時往西竺, 取經帶歸, 乃遺種也."

「묘변증설」은 『지봉유설』을 재구성형 표절의 방식으로 수용한 사례이다. 문장 순서를 바꾸고, 출전을 수정하거나 임의로 보완하고, 원전에 없는 내용을 삽입하는 등의 변개가 이루어졌지만, 이는 독창적인 논의를 전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봉유설』에 대한 직접적 의존 관계를 감추기 위한 편집이다. 더욱이 존재하지 않는 『예기』의 문장을 만들어 넣거나 『공총자』의 내용을 『가어』로 오인한 것은 단순한 재편집을 넘어 문헌학적으로 부정확한 서술을 초래하였다.

이규경은 전사의 차원을 넘어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재편집하여 자신의 저술 체계 속에 흡수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원전의 문헌 계통을 왜곡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삽입하는 문제까지 만들었다. 따라서 이 사례는 『지봉유설』이 조선 후기 백과 지식의 중요한 원천으로 기능하였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후대 유서의 편찬 과정에서 출전의 변형과 문헌 정보의 왜곡이 어떠한 경로로 발생하는지 보여준다.

4. 부분 귀속적 인용과 지식 맥락의 변용

『무명자집(無名子集)』, <협리한화(峽裏閒話)>, 「우경지시(牛耕之始)」는 『지봉유설』, <어언부(語言部)>, 「잡설(雜說)」을 인용한 것이다. 이 사례는 윤기가 『지봉유설』 인용에 관한 표지를 하지 않고 무단 전재했던 다수의 사례와 차이를 보인다.

「우경지시(牛耕之始)」는 『지봉유설』이 조선 후기 문인들에게 조선의 농업사·기술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지식 자료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경(牛耕)'이라는 농업 기술의 기원 고증에서 『지봉유설』이 후대 논의의 기반이 된 것이다.

윤기는 인용 사실을 완전히 숨기지는 않고 '東人所記小說'이라는 형태로 출전을 간접적으로 언급하였다. 이는 전대 지식을 활용한다는 의식의 존재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현대적 의미의 출전 표지와 거리가 있다. 『지봉유설』이라는 정확한 문헌명과 '이수광'이라는 저자명을 밝히지 않았고, 윤기 자신이 『논어』와 동국사를 직접 검토한 것처럼 서술함으로써 『지봉유설』의 문헌적 매개 역할을 은폐하였다.

따라서 이것은 전대 지식에 거리를 두고 계승 및 재구성한 사례라고 하겠다.

『芝峯類說』, 卷十六, <語言部>, 「雜說」.

小說言: "漢趙過始爲牛耕, 前世蓋皆人耕也." 余謂: "'長沮·桀溺, 耦而耕', 是已. 然冉耕字伯牛, 則春秋時亦似用牛耕矣." 按東國史, 則新羅智證王時, 始用牛耕. 頃歲壬辰倭變後, 牛畜殆盡, 婦子力耕, 其功倍苦. 舊傳讖說云: "十家共一牛, 九女仰一夫", 至是驗焉.

→

『無名子集』, <峽裏閒話>, 「牛耕之始」.

余謏聞, 未攷牛耕之始於何時, 嘗訪於多聞而亦皆未詳, 偶閱東人所記小說, 有曰: "漢趙過始爲牛耕, 前世蓋皆人耕也." 以長沮桀溺耦而耕觀之, 則此說似然, 而冉耕字伯牛, 司馬耕字子牛, 則非牛耕之義乎? 以耕名者, 必以牛字之, 此可以決知牛耕之已在三代以前矣. 東國則新羅智證王時, 始用牛耕, 見於東史.

역사서에서도 이 같은 인용 사례가 보인다.

안정복(安鼎福)의 『동사강목(東史綱目)』에서 『지봉유설』을 활용하는 방식 가운데 출전을 부분적으로 드러내면서도 인용 범위를 모호하게 처리한 사례가 있다. 명확한 출전 표시를 통한 인용도 아니고, 적극적인 변형을 통한 은폐도 아닌, 인용 경계가 불분명한 혼합형 인용이다.

『동사강목』은 중간 '李氏睟光曰' 이후의 내용만 이수광의 견해로 보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앞의 '令誦律詩四韻百首~然後乃許赴試.'도 『지봉유설』의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따라서 『동사강목』은 『지봉유설』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처리하였다. 사실 서술 부분은 별도의 출전 표시 없이 본문화하고 평가·논평 부분은 '李氏睟光曰'로 출전 표지한 것이다. 이러한 구성은 독자로 하여금 어디까지가 『지봉유설』의 인용이고, 어디부터가 안정복 자신의 서술인지 혼동하게 만든다. 『동사강목』의 이와 같은 인용 방식은 부분 귀속형 인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역사서에서는 사료(史料)를 인용할 때, 원자료의 사실 기록, 후대 학자의 평가를 구분하여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는 사실 기록 부분을 자신의 역사 서술 속에 편입시키고, 후반의 비판적 논평 부분에만 원저자의 이름을 붙였다. 이것은 인용 범위를 축소 표시함으로써 출전 귀속을 불완전하게 처리한 유형이라 하겠다.

안정복은『동사강목』을 편찬하면서『지봉유설』을 고려 제도와 사회상을 설명하는 역사 자료로 활용하였다. 과거의 제도에 관한 기록은 정사 자료에서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지봉유설』의 기록이 근거로 사용된 것이다. 이 사례는 조선 후기의 역사서 편찬에서 선행 문헌을 활용하는 방식이 엄격한 인용 체재를 따르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芝峯類說』, 卷四, <官職部>,「科目」.

高麗忠肅王時, 始令擧子, 讀律詩一百首, 通小學五聲字韻, 乃許赴試, 而本朝則只錄名入試. 故近來場屋不嚴, 擧子目不知書者, 稱以隨從, 至於未許通庶孼・吏胥・賤類, 亦多濫入, 代書借述之弊, 不可禁止, 混雜極矣. 聞中朝每鄕擧前, 州府官會同試取, 許赴初擧云, 倣而行之, 庶可矣.

→

『東史綱目』, 第十三[下], [庚午], 安鼎福.

始令擧子誦律詩.

令誦律詩四韻百首, 通小學五聲字韻, 然後乃許赴試. 李氏晬光曰: "麗制如此, 而後世只錄名入試, 故場屋不嚴, 擧子目不知書者, 稱以隨從, 吏胥賤流, 濫入代書借述之弊, 不可禁止矣."

다음은 의서의 인용 사례인데, '인용'의 방법이라고 보기보다, 기존 문헌을 자신의 저술 목적에 맞게 변형 활용한 것이다.

정약용은『의령(醫零)』,「집고(集古)」에서『지봉유설』을 상당수 인용하였다. 그런데『지봉유설』을 출전으로 명기한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또『지봉유설』에서 몇 개의 글을 인용하면서 앞뒤의 글에는 출전을 쓰지 않고 중간의 글에만 출전을 밝힘으로써 인용 여부를 모호하게 만든 사례가 있다.

『지봉유설』의 '鄭同知協', '郭正郎止善' '今元斯文鐸'에서 필요한 요소는 '이름'이므로 『의령』에서는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鄭協', '郭止善', '元鐸'으로 썼다. 또 '喫輪回酒'에서 '喫'은 '服'으로, '患眼不見物'에서 '見'은 '視'로 고쳐 의미를 분명하게 만들었고, '有人買喫蝦醢'에서 '買'를 삭제하여 문장을 간결하게 만들었다. 또 '醫言, 非針藥可治, 必須三年閉眼不開, 乃有效.'는 '用醫言, 三年閉目, 乃得痊'으로 문장을 간결하게 변개하기도 하였다.

한편, 필요한 내용을 부연 보충하였는데, 그것은 대부분 주석의 형식을 사용하였다. '卽自己尿', '李挺曰, 脾胃虛及血氣弱者, 必補藥中量入.'과 같은 것이 그 예이다.

이처럼 상당 정도의 변개가 이루어진 글은 자신의 글로 인식하여 출전을 밝히지 않았다.

○『芝峯類說』, 卷十九, <食物部>, 「藥」.

鄭同知協少時患心熱, 喫輪回酒, 大有效, 郭正郎止善, 學服數年, 不效而遽殞.

○『芝峯類說』, 卷十五, <身形部>, 「外形」.

今元斯文鐸少時, 用鯨油讀書, 患眼不見物. 醫言: "非針藥可治, 必須三年閉眼不開, 乃有效."

○『芝峯類說』, 卷十九, <食物部>, 「藥」.

本草曰: "周禮: '以嘉草除蠱毒', 嘉草卽蘘荷也." 觀此則蠱毒之害亦久矣. 有醫吳忭者嘗言: "在海西, 有人買喫蝦醢, 患腹痛甚暴, 知其中毒, 卽多與燒酒飮之, 乃吐所食醢物, 已蠢動作魚形, 其病遂愈"云.

→

『醫零』, 「集古 五」.

鄭協少患心熱, 服輪回酒.【卽自己尿】 大有效, 郭止善, 學服數年, 不效而殞.【李挺曰: "脾胃虛及血氣弱者, 必補藥中量入."】

芝峯曰 : "元鐸少時, 用鯨油讀書, 患眼不視物, 用醫言, 三年閉目, 乃得

痊."

海西有人喫蝦鹽, 患腹痛甚暴, 知其中毒, 卽多飮燒酒, 乃吐所食鹽勿, 已蠢動作魚形, 其病遂愈, 本草曰 : "周禮以,[四行缺]"

5. 입론·비판적 인용과 학술 담론의 확장

조선의 학술은 새로운 지식을 독립적으로 창출하기보다 기존 문헌과의 교섭을 통해 발전하였다. 후대의 학자들은 선행 문헌을 권위 확보의 도구로만 쓰지 않고, 그 안의 사실과 문제의식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여기에 비판적 검토와 새로운 경험 사례를 더함으로써 기존 설명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갔다.

이러한 방식은 지식의 단순 재생산이 아닌 창조적 계승이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축적된 전통을 참조하여 지식의 단절을 막는 동시에, 후대의 현실 경험과 결합하여 학술의 설명 범위를 심화하고 확장했기 때문이다.

이문재(李文載, 1615~1689)의 『석동유고(石洞遺稿)』, 「만기(謾記)」는 『지봉유설』이 후대 학자들에게 논의의 출발점 즉 입론의 근거로 기능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문재는 『지봉유설』의 풍향과 강우에 관한 관찰을 직접 인용한 뒤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지봉유설』에서 인용한 정자(程子)의 말을 삭제하는 한편, 음양론적 설명을 보강하였으며, 새로운 사례로 영동 지방의 농업 경험을 추가하였다. 즉 『지봉유설』이 경학의 범주에서 제시한 자연 관찰과 설명을 후대에 답습하지 않고, 비판·검증·사례 축적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확장된 지식으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글의 모두(冒頭)에 '유설(類說)'이라고 출전을 명기하였지만, 어디까지가 『지봉유설』에서 인용된 것인지 모호하게 만들었다.

『芝峯類說』, 卷五, <經書部一>, 「詩」.

詩: "習習谷風, 以陰以雨", 又: "北風其凉, 雨雪其雱", 蓋東北風而雨常也. 程子曰: "自東自北而風則雨, 自南自西則不雨, 何者? 東北屬陽, 陽唱而陰和故也. 今長安西風而雨, 未曉其理. 恐是山勢使然." 以我國言之, 東南風則雨, 西北風則晴, 而又鐵嶺以北, 南風則旱, 北風則雨, 山勢或海氣使然耶?

→

『石洞遺稿』, 卷之五, 雜著, 「謾記 上」, 李文載.

類說. 詩云: "'習習谷風. 以陰以雨.' 又曰: '北風其涼. 雨雪其旁.' 蓋東北風而雨常也. 又如長安西風而雨. 恐是山勢使然. 以我國言之. 東南風則雨. 西北風則晴. 又鐵嶺以北. 南風則旱. 北風則雨. 山勢或海氣使然也." 按雨雪在冬. 而北風乃冬風. 則未必以北風而有雨雪也. 東北陽方也. 二氣交感. 陽先陰倡. 故東北風而雨也. 我國東風. 必傷禾穀. 而獨嶺東東風則大熟. 而南風損稼云. 此亦山勢之使然耶.

다음의 사례는 단순한 인용이나 전재로 보기보다, 『지봉유설』의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삼아 새로운 입론(立論)을 전개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성호사설』, 「진령(榛苓)」은 『지봉유설』, 「시(詩)」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특히 '苓'이 '蓮'의 통자(通字)라는 핵심 명제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운회(韻會)』와 「칠발(七發)」·「칠계(七啓)」를 원용하는 논증의 골격, '山有榛, 隰有苓'의 '苓'을 '蓮'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결론은 『지봉유설』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러한 점에서 착상과 논증의 기본 틀은 『지봉유설』에 의존한 것으로 보이며, 창안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성호사설』은 이를 전사하지 않고, 자신의 경학적 입론을 전개하기 위한 자료로 재구성하였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논증 구조의 재편이다. 『지봉유설』은 '山有榛, 隰有苓'을 먼저 제시한 뒤 '采苓'과 『운회』의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서술하지만, 『성호사설』은 '采苓采苓,

首陽之巔'을 먼저 제시하고, 시의 압운 관계를 분석한 다음, 「칠발(七發)」와 「칠계(七啓)」의 용례를 들어 '苓=蓮'이라는 논리를 확정한 뒤에 '山有榛, 隰有苓'을 해석하였다. 이는 단순한 논리 구조의 배열 변경이 아니라,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음운학적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는 논증 구조로 재조직한 것이다.

내용의 확장도 주목된다. 『지봉유설』은 『운회』의 설명을 인용하는 데 그쳤지만, 『성호사설』은 '下二章苦與下爲韻, 葑與東爲韻, 則苓與巔亦必爲韻'이라고 하여 『시경』의 압운 체계를 논거로 삼았다. 또한 '凡字從令者, 如零·怜之類有連音, 此亦同義也.'라고 하여 자체적인 음운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지봉유설』보다 한층 정교한 언어학적 논증을 전개하였다. 『지봉유설』이 제시한 자료를 반복하지 않고, 고증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논증의 설득력을 강화한 것이다.

더 나아가 『성호사설』은 해석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지봉유설』의 결론은 '隰有苓'을 '隰有荷花'로 이해해야 한다는 데 머물었지만, 『성호사설』은 '此皆興起美人者'라 하여 『시경』의 흥체(興體)라는 문학적 성격을 논거로 제시하였다. 이어 '豈以似栗之榛·甘草之苓爲況耶'라고 반문하며 기존의 식물학적 해석을 비판하고, 나아가 '榛' 역시 단순한 수목명이 아니라 '美盛貌'라고 해석하였다. 이처럼 논의는 '苓'의 음훈 고증을 넘어 『시경』 시어 전체의 상징적 의미를 해명하는 방향으로 확장된다.

따라서 이 사례는 『지봉유설』이 인용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입론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봉유설』이 제시한 문제의식과 자료는 이익에게 하나의 학술적 단서를 제공하였고, 이익은 이를 자신의 고증학적 방법론과 『시경』 해석론 속에 편입하여 보다 체계적인 논증으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진령(榛苓)」은 『지봉유설』의 논의를 단순 재생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독자적인 경학 논의를 구축한 발전적 수용의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芝峯類說』, 卷五, <經書部一>, 「詩」.

①詩: "山有榛, 隰有苓", ②又: "采苓采苓, 首陽之巓." 按韻會云: "說文: '蘦, 大苦也.' 通作苓." 又云: "蓮通作苓. ③枚乘七發: '蔓草芳苓', 註: '苓古蓮字', 曹子建七啓, 亦曰: '搴芳苓之巢龜.'" 苓字讀作蓮字, 則與榛巓同音, 而且是濕生之物, 如曰: "隰有荷花", 是矣.

→

『星湖僿說』, 第二十一卷, <經史門>, 「榛苓」.

②詩唐風: "采苓采苓, 首陽之巓." 下二章'苦'與'下'爲韻, '葑'與'東'爲韻, 則'苓'與'巓'亦必爲韻. 苓一音零·年切, 卽古蓮字也, ③如七發之"蔓草芳苓", 七啓之"芳苓巢龜"可證. 凡字從令者, 如零·怜之類有連音, 此亦同義也. ①邶風云 : "山有榛, 隰有苓", 此皆興起美人者, 豈以似栗之榛·甘草之苓爲況耶? 其苓之爲蓮則定矣. 榛者, 美盛貌, 必指樹之美盛華彩者云也.

후대 문헌에서 이루어진 인용은 언제나 선행 지식을 수용하거나 계승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권위 있는 문헌의 견해를 하나의 학설로 제시한 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반박하는 방식 또한 중요한 인용의 양상이다. 이러한 인용은 선행 문헌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학술적 논쟁의 과정이며, 기존 지식의 권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재검토하는 학문적 태도를 보여준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문자의 훈고와 전통적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문맥·논리·실제 의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실증적 연구 경향이 강화되면서, 인용은 학설의 전승뿐 아니라 비판과 재해석을 위한 논증의 수단으로도 적극 활용되었다.

다음 사례는 이러한 인용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홍양호(洪良浩, 1724~1802)는 「잡지(雜識)」에서 『지봉유설』의 해석을 직접적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지봉유설』이 후대 학계에서 권위 있는 참고문헌으로 기능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권위'가 절대적이지 않고 비판과 재해석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잡지(雜識)」에서 '或'은 『지봉유설』을 이르는데, 『지봉유설』에서 『사기』

의 “居之一歲, 種之以穀/穀”에서 ‘種之以穀’이라고 한 논리가 잘못이라고 반박하였다. 홍양호의 반박은 문자학보다 문맥을 중시한 해석이니, 그의 논거는 훈고학적 근거보다 문장의 의미와 논리적 전개를 우선시한다.

이 사례는 『지봉유설』의 학술적 영향력을 보여준다. 홍양호는 출전을 직접 밝히지 않았지만 『지봉유설』의 해석을 인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홍양호는 선행의 연구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사기』 본문의 문맥을 근거로 선행설을 재검토하였으니, 이는 단순 전재가 아니라, 문헌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방법론이다.

이익이 『성호사설(星湖僿說)』, <시문문(詩文門)>, 「맹상고결(孟嘗高潔)」에서 『지봉유설』 권8, <문장부 1>, 「고문(古文)」 제16칙의 견해를 논박한 것도 그 일례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오주연문장전산고』나 『관암전서』의 사례처럼 『지봉유설』의 내용을 그대로 계승·활용한 것이 아니라, 『지봉유설』의 해석을 하나의 학설로 제시한 뒤 이를 문맥적 논거를 통해 반박하였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지봉유설』이 후대 지식인 사회에서 권위 있는 참고문헌으로 기능하면서도, 동시에 비판과 재해석의 대상이 되는 학술적 근거로 자리매김했음을 알 수 있다.

『芝峯類說』, 卷七, <文字部>, 「字義」.

史記曰: “居之一歲, 種之以穀, 十歲, 種之以木.” 韻書: “穀, 楮也”, 與禾穀之穀不同. 詩云: “其下維穀”, “殷時, 祥, 桑穀共生于朝”, 是也.

→

『耳溪外集』, <群書發悱>, 「雜識」, 洪良浩.

史記曰: “居之一歲, 種之以穀, 十歲, 種之以木.” 或解之曰: “韻書: ‘穀, 楮也.’ 詩云: ‘其下維穀’, ‘殷時, 祥, 桑穀共生于朝’, 是也, 與禾穀之穀不同.” 蓋一年之利, 莫如農, 則今訓以爲楮, 恐不然.

6. 결론

본 연구는 조선 후기 유서 및 저작에 나타난 『지봉유설』의 인용과 수용 양상을 실증적으로 추적함으로써, 『지봉유설』이 지닌 학술사적 위상과 고전성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텍스트의 가치는 후대 독자와 끊임없이 상호작용 하는 과정을 통해 완성된다는 관점에서, 『지봉유설』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선 지성사의 거대한 중력장 역할을 수행하였다.

후대 문헌에 나타난 『지봉유설』의 인용 양태는 지식의 복제를 넘어 역동적이고 다층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그것은 다음의 네 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식의 보존과 전승자로서의 권위를 지닌다. 이는 출전 명시형 인용 사례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 조병덕의 편지나 이지항의 『표주록』, 이만부의 식물학적 고증 등에서 나타나듯, 후대 지식인들은 『지봉유설』을 신뢰할 수 있는 일차적 지식 저장소로 인식하였다. 이들은 서명과 편명을 정확히 명기하며 원문을 충실히 전사함으로써, 희귀한 해외 체험이나 본초학적 정보가 파편화되어 사라지지 않도록 전승하는 교량으로 『지봉유설』을 활용하였다.

둘째, 지식 자원의 은폐와 자연스러운 내재화이다. 이는 출전 미표기 인용의 사례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 정약용의 『의령』,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윤기의 『무명자집』 등에서는 『지봉유설』의 조목을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출전을 밝히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이는 현대적 기준에서는 표절적 전사에 해당하나, 전근대 유서 편찬에서 『지봉유설』이 축적한 지식은 별도의 검증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공유된 보편적 지식 자원'으로 내재화되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셋째, 목적에 따른 재맥락화와 편집이다. 이는 부분 귀속 및 선택적 변용의 사례로 증명할 수 있다. 홍만선의 『산림경제』가 속설을 실용적 처방 체계로 재분류하고, 안정복의 『동사강목』이 사실 서술과 비판적 논평을

분리하여 수용하는 등, 후대 학자들은 자신의 집필 목적에 맞추어 『지봉유설』을 해체하고 재조직하였다. 이 과정에서 오자와 오류가 그대로 답습되는 문헌학적 한계도 노출되었으나, 동시에 텍스트가 지닌 다층적 의미 구조가 실증되었다.

넷째, 학술적 담론의 출발점이자 비판적 입론의 대상이다. 이익의 『성호사설』은 『지봉유설』의 경학적·음운학적 착상을 단초로 삼아 고증학적으로 정교화된 독자적 입론을 구축하였으며, 홍양호는 『지봉유설』의 문구 해석을 반박하며 새로운 학설을 제기하였다. 이는 『지봉유설』이 화석화된 백과사전이 아니라, 후대 학자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을 유도하고 논쟁을 촉발하는 '살아있는 담론의 장'으로 기능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지봉유설』은 지식을 나열하고 편철한 유서로 한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관념적 성리학에 매몰되어 있던 조선 지성계에 세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실학적 사유의 원형을 제시하였고, 다수의 판본으로 분화되면서 인용되었고, 비판과 변주를 거치며 후대 학풍을 진작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지봉유설』의 방대한 계보학적 파급력과 역사적 수용의 궤적은, 이 책이 정보의 파편성을 뛰어넘어 조선 지성사의 패러다임을 바꾼 조선 최고의 고전이라는 자격을 획득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 참고문헌

규장각・국립중앙도서관 등 소장, 『芝峯類說』.
조선고서간행회, 『芝峯類說』(구두점 본), 1915.
조선연구회, 『原文和譯對照芝峯類說』, 1916.

錦里散人, 『宜彙』.
成海應, 『研經齋全集』.
安鼎福, 『東史綱目』.
尹愭, 『無名子集』.
李肯翊, 『燃藜室記述別集』.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李萬敷, 『息山集』.
李文載, 『石洞遺稿』.
李瀷, 『星湖僿說』.
李志恒, 『漂舟錄』.
李裕元, 『林下筆記』.
丁若鏞, 『與猶堂全書』.
韓致奫, 『海東繹史』.
洪萬選, 『山林經濟』.
洪良浩, 『耳溪外集』.
洪敬謨, 『冠巖全書』.

孔鮒(漢), 『孔叢子』.
楊淙(明), 『事文玉屑』.
司馬遷(漢), 『史記』.
朱熹(宋), 『朱子語類』.

투고일 2026. 7. 31 심사시작일 2026. 8. 18 게재확정일 2026. 9. 7

Abstract

A Study on the Intertextual Reception and Intellectual Impact of Yi Su-gwang's 『Jibong yuseol』 in the Late Joseon Dynasty

Kang, Min-gu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clarify the practical influence and classical status of Yi Su-gwang's 『Jibong yuseol』(Topical Discourse of Jibong) in the intellectual history of the late Joseon Dynasty by examining patterns of citation and reception across subsequent literature. Under the premise that a text's value is completed through constant interaction and reception by later readers, this paper traces the citation trajectory of 『Jibong yuseol』 across various fields and typology in representative encyclopedias (yuseo) and personal literary collections of the late Joseon period.

The reception pattern of 『Jibong yuseol』 unfolded in four distinct aspects:

First, through explicit citations mentioning the source, it served as a preserver and transmitter of reliable knowledge, preventing fragmented information across diverse fields—such as travelogues, botany, natural products, and medicine—from fading away.

Second, through implicit citations without source attribution, it became deeply internalized among contemporary intellectuals as a "shared universal knowledge resource" that required no separate verification.

Third, through partial attribution and selective adaptation, it was reorganized into practical prescriptions and thematic frameworks that aligned with the writing purposes and real-life needs of later scholars.

Fourth, by providing foundational insights into Confucian classics and phonology, it facilitated new academic arguments and served as a "living arena of discourse" that sparked critical debates.

In conclusion, 『Jibong yuseol』 transcends a mere encyclopedic listing of knowledge; it is a text that broke away from abstract Neo-Confucianism and presented the cognitive prototype for the Practical Learning (Silhak) school of

the late Joseon Dynasty. This enduring history of reception—continuously reinterpreted and reconfigured as a giant gravitational field in intellectual history for over 400 years—clearly demonstrates that『Jibong yuseol』fully merits its status as one of Joseon's greatest classics.

Keywords 『Jibong yuseol』, Yi Su-gwang, Intertextuality, Late Joseon Intellectual History, Citation, Reproduction, Plagiarism.

東方漢文學, 東方漢文學會
Dong-Bang Korean Chinese Literature Society
2026, 第108輯, pp.155~186
http://dx.doi.org/10.17293/dbkcls.2026.108.
ISSN 1226-668X

이정귀(李廷龜)의 「임진피병록(壬辰避兵錄)」 저술 의도 재고(再考)

정서현*

目 次

1. 문제 제기
2. 피란 경로의 복원과 서술 중점
3. 텍스트 성립 과정과 구성상의 특징
4. 저술 의도
5. 마무리

|국문초록|

본고는 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 1564~1635)의 「임진피병록(壬辰避兵錄)」이 『월사집(月沙集)』 별집(別集)에 수록된 점에 착안하여, 문집에 수록된 시문에 대해서는 그 저술 의도를 고려한 비판적 독해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임진피병록」은 1636년(인조14) 간행된 『월사집』 초간본에는 수록되지 않았으며, 1720년(숙종46) 별집이 원집과 합본되면서 비로소 수록되었다. 이러한 편찬 경위를 고려할 때, 별집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후대의 개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임진피병록」의 전문(全文)을 이동 경로와 사건 전개 양상에 따라 분석하고, 각 대목의 서술 분량과 강조점을 파악함으로써 이 글의

*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박사과정.

저술 의도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어서 「임진피병록」의 간행 시기와 구성상의 특징을 검토하여 이 글이 문집에 수록된 배경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임진피병록」을 충효의 서사 내지 사실의 기록으로 이해해 온 기존의 해석만으로는 이 글의 서사 구조와 저술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임진피병록」의 서사적 장치가 모두 '국왕'으로 수렴된다는 점과 이정귀의 호종을 방해한 사건 및 그가 겪은 기이한 사건들이 치밀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글은 이정귀가 제때 어가를 호종하지 못한 사실과 그 이후 약 반년에 걸친 행적의 공백기를 해명하고 이를 정당화하려는 의도 아래 구성한 '자기 해명'의 서사로 이해할 수 있다.

문집이 단순한 저술의 집합이 아니라는 점은 상식에 속한다. 문집은 저자의 공적을 기리고 이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 편찬되는 만큼, 후대의 편집 과정을 거치며 정제된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저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시문을 선별하여 문집에 수록함으로써, 이상적인 인간상을 형상화한다. 따라서 문집에 수록된 시문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 안에는 의도적으로 선택되거나 은폐된 의미가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핵심어 이정귀(李廷龜), 「임진피병록(壬辰避兵錄)」, 임란 실기, 문집 연구, 저술 의도, 비판적 독해.

1. 문제 제기

「임진피병록(壬辰避兵錄)」은 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 1564~1635)가 임란 당시 피란한 경위를 기록한 실기이다. 이 글은 『월사집(月沙集)』 별집(別集) 권1 <잡저(雜著)>에 수록되어 있으며 전체 분량은 52면 10,500여 자이다. 1592년 4월 27일 광해군의 세자 책봉과 선조의 요동 몽진을 둘러싼 조정 회의부터 1593년 12월 9일 부친의 영구(靈柩)가 있는

토산(兎山)에 이르기까지의 여정 및 임란 전후의 견문을 기록하였다. 전반적으로 편년체 형식을 취하되, 말미에 기사체 기록을 덧붙여 편년체 서사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 사항을 보완하였다.

「임진피병록」 역시 여타 임란 실기와 마찬가지로 호종(扈從), 종군(從軍), 피란(避亂) 등 다양한 유형의 체험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1] 임란 발발 직후 헤어진 부친과 처자를 찾는 1592년 8월까지는 피란 일기로서의 성격이, 가족과 상봉한 뒤 어가(御駕)를 찾아가는 8월 이후로는 호종 일기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한양이 함락되기 직전인 4월 27일부터 성천(成川)에서 어가를 따라잡는 10월 15일까지 약 6개월간의 피란 경위가 서술 전반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임진피병록」은 피란 일기로서의 성격이 더욱 뚜렷한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정귀는 피란 경로를 날짜, 날씨, 그리고 구체적인 지명과 함께 기록하였다. 이 시기 이정귀의 행적은 실록을 비롯한 여타 사료에 자세하지 않으며, 이정귀와 그의 부친의 묘도문자에도 이 시기에 대한 언급은 비교적 간략하다. 따라서 「임진피병록」은 이정귀의 약 반년에 걸친 행적의 공백기를 복원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임진피병록」에 대한 선행 연구는 대체로 문학 작품으로서의 가치와 서사적 특징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안나미는 「임진피병록」의 서술방식과 서술시각을 중심으로 이 글의 기록문학적 특성에 주목하였다.[2] 「임진피병록」의 중심축은 '아버지와의 만남과 이별'이며, 그 이면에는 '군왕 보필'과 '호국의 진정'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여타 임란 실기 전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으로, 「임진피병록」만의 독자적인 창작 의도와 서술 특성을 충분히 해명하지는 못하였다.

임형택은 「임진피병록」을 번역하고 평설을 덧붙였다.[3] 그는 「임진피병

1) 장경남(1998).

2) 안나미(2006).

록」을 관통하는 핵심축을 '군부(君父) 찾아가기'로 규정하고, 그 기저에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도덕률, 즉 충효가 자리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말미의 기사체 기록을 "지루한 감이 든다."는 이유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나머지 이 글의 전체 구조와 서술 의도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정솔미는 이정귀가 부친 사후 「임진피병록」을 집필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글을 '애도의 서사'로 규정하였다.[4] 그는 서사의 주요 축조 원리를 '아버지 찾아가기'로 보면서도, 관료로서의 부채감이 지속적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하였다. 호종하지 못한 데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충절' 의식을 강조한 것을 자기 정당화로 본 견해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과연 '애도'가 이 글을 저술한 핵심 목적인지는 의문이다. 부친을 찾는 과정과 애도에 할애된 서술 분량은 일부에 불과하며, 이 글의 극적 서사 역시 부친 찾기와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임진피병록」이 『월사집』 별집에 수록된 점에 착안하여, 문집에 수록된 시문에 대해서는 그 저술 의도를 고려한 비판적 독해가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임진피병록」은 1636년(인조14) 간행된 『월사집』 초간본에는 수록되지 않았으며, 1720년(숙종46) 별집이 원집과 합본되면서 비로소 수록되었다. 이러한 편찬 경위를 고려할 때, 별집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후대의 개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문집은 저자의 정치적·학문적·도덕적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문헌으로서,[5] 수록된 시문을 통해 이상적인 인간상을 형상화한다. 이를 위해 저자의 위상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시문을 선별하고 편집하며, 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은 강조되거나 축소되고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기도 한다. 그러

3) 임형택(2012), 145~179쪽.
4) 정솔미(2026).
5) 김수진(2013), 362~366쪽.

나 선행 연구는 이 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문면에 드러난 서술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다소 피상적인 결론을 내리는 데 그쳤다.

본고는 우선 「임진피병록」의 전문(全文)을 이동 경로와 사건 전개 양상에 따라 분석하고, 각 대목의 서술 분량과 강조점을 파악함으로써 이 글의 저술 의도를 밝히고자 한다. 이어서 「임진피병록」의 간행 시기와 구성상의 특징을 검토하여 이 글이 문집에 수록된 배경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피란 경로의 복원과 서술 중점

임란 발발 직후, 일본군이 한반도 중부를 거쳐 한양으로 빠르게 진격하면서 한양과 그 주변 지역은 전란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였다. 특히 선조의 몽진 이후 일본군이 그 뒤를 쫓아 북진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나야만 했던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양주목(楊州牧)이었던 만큼, 이 시기 한양과 경기 북부 지역은 피란처로서 결코 적합한 공간이 아니었다.[6] 이처럼 전선의 중심에 위치해 기록을 남길 여건이 갖추어지기 어려웠던 탓에 이 지역의 상황을 전하는 사료는 거의 전하지 않는다. 현전하는 임란 실기의 배경이 지방에 편중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7]

「임진피병록」은 전란 초기 한양과 경기 북부 일대의 실상을 상세히 전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정귀가 선조의 몽진 이틀 뒤인 1592년 4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약 반년에 걸쳐 경기 북부 일대를 전전하며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이정귀가 부친 및

6) 이도남(2004), 163쪽; 김경태(2024), 12쪽.

7) 기록자의 특징에 따라 임진왜란 일기 자료를 분류한 연구를 살펴보면, 전체 40종 가운데 서울을 배경으로 한 것은 4종 내외에 불과함을 확인할 수 있다. 최은주(2020), 16~18쪽.

처자와의 이별과 재회를 거듭하는 과정은 물론, 일본군과 맞닥뜨렸을 당시 목숨이 위태로웠던 순간까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임진피병록」의 서사는 4월 27일 광해군의 세자 책봉 문제와 선조의 몽진을 둘러싼 조정 회의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초 이정귀는 어가를 호종할 계획이었으나, 29일 장인 권극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곧바로 어가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피란 기회마저 놓치게 되었다. 혼란한 전시 상황 속에서 상여꾼조차 구하기 어려워지자, 이정귀는 결국 장인의 시신을 집 앞마당에 임시로 매장할 수밖에 없었다. 4월 27일부터 30일까지의 내용은 이정귀가 조정에서 관료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장인 권극지의 장례를 치른 과정을 담고 있으며, 그 분량은 약 1,200여 자에 달한다.

4월 30일 이후 이정귀는 처자와 함께 양주를 향해 이동하던 중 덕수(德水)의 촌사(村舍)에 투숙하였다.[8] 이때 진위 현령(振威縣令) 이경윤(李景閏)을 만나 일본군이 용진(龍津)을 거쳐 양주에 먼저 도착하였으며, 이로 인해 양주 일대가 도륙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다.[9] 이정귀는 처자를 동반하면 일본군에게 잡힐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여 처자를 고양의 외조모와 누이의 집에 의탁하게 한 후 홀로 부친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5월 2일 양주(楊州)의 고주내(古州內)에 도착하여 부친이 무사히 우사(寓舍)에 머물

8)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德水川의 근원은 淸淡洞에서 나온다. 1755년경부터 1827년까지 이 일대는 고양군 하도면 청담리였다. 현재 昌陵川 부근에 해당하며, 창릉천은 현재 고양시 북한동 북한산에서 시작하여 행주산성 부근을 지나 한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이다. 이정귀가 투숙했던 덕수의 촌사는 현재 창릉천 부근에 위치한 곳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9) 이정귀가 언급한 진위 현령 이경윤의 신원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임진피병록」에는 그의 이름이 李景閏으로 되어있으나, 다른 사료에서는 해당 인물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1592년 당시 이경윤이 진위 현령을 지냈으며 그의 사위가 愼起門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인물은 현감을 지낸 李寶命일 가능성이 있다. 이보명은 全義李氏로 그의 부친은 李念이다. 경윤은 그의 字로 추정된다. 한편, 용진은 龍津渡를 가리킨다. 용진도는 현재의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및 부용리와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를 잇던 나루이다.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의 기록은 부친을 찾기 위한 여정에 해당하며, 이 부분의 분량은 376자에 불과하다.

우여곡절 끝에 부친과 재회한 것도 잠시, 이정귀는 처자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부친에게 질책을 받자 다시 처자를 찾아 길을 나섰다. 5월 9일 홍복산(洪福山)을 거쳐 이튿날 고양(高陽)의 구유동(求有洞)에서 헤어진 처자와 재회한 이정귀는 곧바로 피란을 이어가고자 하였다.[10] 다만 일본군에게 발각될 위험을 우려해 출발을 망설이던 중, 구유동 마을 사람들로부터 대규모 병력이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처자와 함께 성산(城山)으로 피신하였다.[11]

당시 성산에는 일본군을 피해 올라온 3, 4백 명의 피란민을 비롯해 무인 신거상(愼居常), 신거용(愼居庸) 형제와 신충선(愼忠善), 신억춘(愼億春) 등도 함께 있었다. 결국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일본군과의 전투가 벌어졌다. 이정귀는 일본군에 맞서 싸울 것을 독려하며 전투를 주도했고, 격렬한 교전 속에서 수차례 생사의 위기를 겪었다. 이처럼 5월 9일부터 13일까지의 기록은 처자를 찾아가는 여정과 성산 전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분은 약 3,700여 자로 전체 서사의 약 30%를 차지하며, 처자와의 이별과 재회, 일본군과의 전투가 연이어 전개된다는 점에서 서사적 긴장감이 특히 두드러진다.

성산 전투에서 패한 뒤, 이정귀는 한동안 주변에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

---

10) 구유동은 동일한 음을 가진 이체 한자를 사용한 지명일 가능성이 높다. 『朝鮮古分道地圖』와 『大東地志』에서 구유동과 유사한 명칭의 九耳洞이라는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위치상으로는 高峰山에 인접해 있다. 현재의 고봉동 내 5개의 법정동 중 하나인 성석동에 해당한다.

11) 「임진피병록」에서 성산은 사방이 트인 평야 지대에 자리하면서도 세 면이 험준하여 접근이 어렵고, 오직 한쪽의 開豁地를 통해서만 통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지형적 특징과 이정귀의 이동 경로를 고려할 때 성산은 현재 성석동 인근의 산으로 추정된다. 『朝鮮五萬分一地形圖』와 『新增東國輿地勝覽』을 참고하면, 성산은 고봉산일 가능성이 크다.

었기 때문에 곧바로 이동하지 못한 채 처자와 함께 들판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았다. 이후 상황이 다소 진정되자 5월 15일부터 다시 부친을 찾아 양주 방면으로 길을 나섰다. 당시 포천(抱川)의 화산(花山)에 둘째 매부의 집이 있었기에 이정귀는 부친이 양주에서 이곳으로 거처를 옮겼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12] 그러나 이튿날 어떤 사람이 부친이 가평(加平) 경계의 수원산(壽原山)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고, 마침내 부친과 재회할 수 있었다. 5월 15일부터 20일까지의 기록은 헤어진 부친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에 해당하며, 그 분량은 약 1,400여 자에 달한다.

가평의 수원산에서 부친과 재회하여 비로소 온 가족이 모이게 되자 이정귀는 다시 피란을 이어갔다. 6월에는 포천 화산에 있는 누이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고, 7월에는 식량이 부족해지자 양주의 고주내에 머물며 일본군의 동향을 살폈다. 이후 8월 초 일본군을 피해 대박산(大朴山)으로 피신하기까지의 여정은 283자에 불과하다.

이어서 1592년 9월부터 1593년 12월 4일까지의 기록은 어가를 수행하며 조정에 복귀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약 1년 3개월에 이르는 비교적 긴 기간을 다루고 있음에도 그 분량은 838자로, 이전 시기의 기록에 비해 매우 압축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12월 4일 부친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들은 이정귀가 이튿날 길을 나서 9일 부친의 관 앞에 이르는 장면을 끝으로 「임진피병록」 편년체 서사는 종결된다. 이 부분의 분량은 205자이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2) 화산은 특정 산의 명칭이라기보다 포천 일대를 광역적으로 가리킨 지명으로 보인다. 『東國輿地誌』에서 李恒福의 묘가 화산에 있다고 하였고(柳馨遠, 『東國輿地誌』 卷2, 「抱川縣」. “李恒福墓, 在縣南十五里, 花山.”), 崔岦은 李夢亮의 신도비명에서 그가 포천현 화산리에 안장되었다고 하였다.(崔岦, 『簡易集』 卷2, 「議政府右參贊贈領議政李公神道碑銘」. “上爲之輟朝, 使弔祭如儀. 乙丑春, 葬于抱川縣之花山里.”) 현재 가산면 방축리·가산리·금현리 일대의 마을을 아울러 가리키는 명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표 1> 『임진피병록』의 서술 및 전개 양상

날짜	위치	내용	분량
1592년 4월 27일~30일	漢陽	관료 임무 수행 및 장인 장례 처리	1,235자 (약 12%)[13]
4월 30일	德水의 村舍	부친 찾기	376자 (약 3.6%)
5월 2일	楊州의 古州內		
5월 9일	洪福山	처자 찾기 및 성산 전투	3,716자 (약 35%)
5월 10일	高陽의 求有洞		
5월 11일~13일	城山		
5월 15일	大君陵山	부친 찾기	1,411자 (약 13%)
5월 16일	新院 → 日嶺 → 洪福山		
5월 17일	鬱代山		
5월 18일	艾堂 → 綠楊 → 祝石 고개		
5월 19일	抱川 花山		
5월 20일	加平 壽原山		
6월	抱川 花山	부친 및 처자와 피란	283자 (약 2.7%)
7월	楊州의 古州內		
8월	大朴山		
9월	麻田 → 漣川 → 朔寧 → 冤山	어가 호종 및 관료 임무 수행	838자 (약 8%)
10월 15일	城川		
10월 25일	龍岡		
12월 27일	寧邊		
1593년 1월	定州		
2월	義州 → 鐵山 → 定州		
3월	永柔		
4월	安州, 定州		
6월 20일	安州 → 三登		
9월	龍灣		
10월	三登 → 漢陽		
11월	楊州		
12월 4일	漢陽		
12월 5일~9일	漢陽 → 冤山 (『임진피병록』 끝)	부친 찾기	205자 (약 2%)
기사체에 해당			2,523자 (약 24%)

각 대목의 서술 분량을 비교하면, 「임진피병록」의 핵심 서사가 부친 찾기에 있다는 기존의 해석은 설득력이 다소 부족하다. 「임진피병록」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부분은 1592년 5월 9일부터 13일까지의 기록으로, 처자를 찾아가는 여정과 성산에서의 전투가 전개되는 대목이다. 선행 연구는 성산 전투 대목이 전체 분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핵심 서사임을 지적하면서, "아버지가 있는 양주로 가는 길에 왜군이 근접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성산에 급히 피신하고, 그곳에서 전투를 벌이게 된다."라고 설명하였다.[14] 즉, 성산 전투를 부친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설명이다. 이정귀는 5월 2일 처자를 고양으로 피란시킨 뒤 홀로 양주로 이동해 부친의 안부를 확인하였고, 9일 헤어진 처자와 재회하여 고양으로 이동하던 중 성산에 올라 전투에 참여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성산 전투는 부친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처자를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이 부분은 이정귀가 일본군에 맞서 싸우며 사선을 넘나드는 극적인 서사가 돋보일 뿐만 아니라, 서술 면에서도 상당한 공력을 들인 흔적이 엿보인다. 오히려 이 대목을 저자가 특히 강조하고자 한 부분으로 보는 편이 온당할 듯하다.

서사가 종결되는 지점도 마찬가지다. 선행 연구는 "'임진년 피병한 기록'이 이듬해 아버지의 죽음으로 종결"된다는 점을 들어 「임진피병록」이 부친의 죽음을 애도하는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15] 그러나 해당 대목 이후에도 약 2,500여 자에 달하는 기사체 기록이 이어지는데, 그 내용은 부친을 찾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

13) 괄호 안의 수치는 전체 분량(약 10,500여 자) 대비 해당 대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14) 정솔미(2026), 530쪽.

15) 정솔미(2026), 522쪽.

요컨대 「임진피병록」에서 부친 찾기의 서사는 전체 서사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며, 극적인 서사가 전개되는 대목 역시 부친을 찾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이 글의 저술 의도를 보다 다각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3. 텍스트 성립 과정과 구성상의 특징

「임진피병록」은 임란 직후의 저작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높은 완성도를 보인다. 그 서사적 완성도는 동시기 실기류와 비교하더라도 결코 손색이 없으며,[16] 임란 직후에 저술된 글이라고는 쉽게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17] 그런데 사실 「임진피병록」이 실제로 임란 직후에 저술되었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

『월사집』은 이정귀 사후 1636년(인조14) 그의 문인 최유해(崔有海)에 의해 초간(初刊)되었다.[18] 그러나 1688년(숙종14) 무렵 초간본의 판목이 훼손되고 흩어지자, 이정귀의 손자 이익상(李翊相)과 증손자 이희조(李喜朝)가 민정중(閔鼎重) 등의 도움을 받아 중간(重刊)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집 63권과 부록 5권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19] 이후 1720년(숙종46)에 이르러 이희조가 대구 통판 이우신(李雨臣)의 도움을 받아 초간 당시 누락되었던 유고를 수습하여 별집 7권 2책을 추가로 간행하였다.

---

16) 황패강(1994).

17) 선행 연구에서도 「임진피병록」에 대해 "독자로 하여금 꾸며진 기록이 아닌가 의구심을 자아낼 만큼" 서사적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하면서 이 글이 실제로 이정귀의 피란 경험을 바탕으로 임란 직후에 성립한 기록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정솔미(2026), 531쪽.

18) 李廷龜, 『月沙集』 別集 卷7, 「月沙先生文集跋[崔有海]」.

19) 李廷龜, 『月沙集』 月沙先生集序, 「月沙集序[宋時烈]」. "始門人崔有海刊其全集於公山, 今已壞亂, 不可次第. 公之孫判書翊相弼卿, 奉其先旨, 與其堂姪喜朝等亟謀重刊, 而老峯閔相公鼎重大受, 實贊斯役焉."

이로써 『월사집』은 원집 63권, 부록 5권, 별집 7권, 총 75권 22책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20]

「임진피병록」은 이중 별집 권1 <잡저>에 수록되어 전하며, 별본(別本)은 『월사집』 수록본을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21] 「임진피병록」은 서두가 누락되어 있고 편년체와 기사체가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하나의 완결된 저술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별집은 초간본이 간행된 지 약 80년이 지난 시점에 간행되었다. 이는 임란 발발로부터 이미 100여 년이 지난 시점이다. 후대의 개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간이다.

일기의 일반적인 작성 방식을 고려할 때, 기사체 서술이 임란 당시 이정귀가 남긴 기록의 원형으로 보이며, 편년체 서술은 단편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후대의 편집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서사적이고 정제된 형태로 재구성된 것으로 보인다.[22] 이 과정에서 일부 대목이 가필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기사체 서술이 전체 서사의 약 1/4을 차지함에도,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연구가 없다는 점은 문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서사의 완결성에 과도하게 주목한 나머지 기사체 서술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기

---

2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는 편자와 간행 연도가 미상인 2권 1책 분량의 『月沙先生年譜』가 소장되어 있다. 연보의 마지막 기사가 1794년(정조18)인 것으로 미루어 그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보의 내용은 「임진피병록」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다만 「임진피병록」에는 나타나지 않는 내용도 보이는데, 이는 후대에 연보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덧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21) 임형택은 표제에 '擇里誌'라고 표기된 필사본을 통해 「임진피병록」을 처음 접했음을 밝히면서 별본의 존재를 언급하였다. 임형택(2012), 178쪽.

22) 선행연구는 현재 전하는 일기의 상당수가 저자의 친필본이 아니라 후대의 전사본이며, 이 과정에서 일부 기록이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예컨대 저자가 이전에 작성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後考의 과정에서 재구성하거나 자기검열을 통해 일부 내용을 묵삭하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박현순(2016), 106~108쪽.

때문이다.[23] 「임진피병록」의 저술 의도를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대목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표 2> 「임진피병록」 기사체 핵심 내용

내용
① 임진왜란 발발 전, 일본과의 화친을 반대한 이정귀의 모습
② 장인 권극지의 무덤과 시신 훼손
③ 기이한 소리를 통한 위기 회피
④ 중국 관원들의 엄격한 위계질서
⑤ 명나라 관원과의 연회와 이별
⑥ 넙나물[廣菜]에 대한 소개

차례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임란 이후 의도적으로 덧붙인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들이 존재한다. ①과 ②의 경우가 그러하다. 먼저 ①은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의심스럽다. 임란 이후 이정귀가 일본군에 강한 적대감을 지닌 인물이었음을 부각하기 위해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② 역시 전란을 겪으며 선릉과 정릉마저 훼손된 상황에서 장인의 무덤만 온전히 보존되었다는 서술의 부자연스러움을 해소하기 위해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③은 누님을 문안하는 과정에서 겪은 기이한 경험을 기록한 것이며, ④·⑤·⑥은 임란 중 만난 중국인을 통한 견문을 소개한 대목이다. 이처럼 기사체 기록은 내용상 일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모두 부친을 찾는 일과는 무관하다. 편년체 기록에서 이정귀가 부친을 찾기 위한 과정을 상세히 서술한 점을 고려하면, 기사체 기록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일절 나타나지 않는 점은 의외다.

---

23) 정솔미는 “기사체로 기록된 부분은 편년체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붙인 것으로서 서사의 주안점은 1592년 이정귀가 피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편년체로 기록된 부분에 놓여 있다.”라고 하였고, 심지어 임형택은 “후미의 기록은 지루한 감이 들어 번역에서는 생략했다.”라고 하였다. 정솔미(2026), 517쪽; 임형택(2012), 179쪽.

무엇보다도 ②에서 이정귀는 "나는 산골짜기로 피란한 뒤 늘 시신을 몰래 모셔 와 장사 지내려 했다. 이 때문에 포천과 양주 사이를 배회하며 차마 시신을 버리고 멀리 떠나지 못했던 것이다."[24]라고 하여, 호종을 지체하게 된 이유로 장인의 장례 문제를 거론하였다. 포천과 양주를 배회하면서 오랫동안 시간을 지체한 것이 「임진피병록」을 이끄는 핵심 서사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장인의 장례 문제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장인을 애도하는 서술은 편년체 말미의 부친을 애도하는 대목과 내용상 큰 차이가 없다. 분량 면에서도 부친에 대한 애도는 173자, 장인에 대한 애도는 163자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인물의 생애에서 특별히 부각할 만하거나 기억할 만한 사건이 있다면 문집의 부록에 반영되기 마련이다. 행장을 비롯한 묘도문자는 인물의 생애를 요약하여 서술하는 동시에 인물을 칭송하기 위한 성격도 지닌다. 「임진피병록」이 후대의 편집 과정을 거치며 형성된 텍스트인 만큼, 편집 과정에서 부각하고자 한 행적의 단서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월사집』에 수록된 묘도문자는 조익(趙翼)이 지은 행장(行狀), 장유(張維)가 지은 시장(諡狀), 이식(李植)이 지은 묘지명(墓誌銘), 김상헌(金尙憲)이 지은 신도비명(神道碑銘)이다.

> ① 왜적이 경기까지 쳐들어와 대가(大駕)가 서쪽으로 행행(行幸)하게 되었다. 그 하루 전에 장인 권공이 갑자기 죽었는데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공이 남아 치상(治喪)하고 양주에 가매장을 한 뒤 지름길로 행재로 갔고 성천에서 광해를 배알하였다. 10월에 설서(說書)에 제수되었다. …… 12월에 삼등 현령(三登縣令)으로 있던 부친 의정공의 병환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다가 토산에 이르러 부음(訃音)을 듣고 말에서 떨어져 기절했다.[25]

---

24) 李廷龜, 『月沙集』 別集 卷1, 「壬辰避兵錄」. "余避亂山谷, 常欲潛舁以葬. 以此回徨抱川, 楊州之間, 不忍棄而遠去."

25) 李廷龜, 『月沙集』 附錄 卷2, 「行狀 一首[豐壤○趙翼撰]」. "及賊逼郊畿, 大駕西

(조익의 행장)

② 임진왜란 때 선조가 서쪽으로 몽진하였는데 공이 지름길로 행재에 가다가 성천에 이르러서 시강원 설서에 임명되었다.[26] (장유의 시장)

③ 당시에 마침 공의 장인 권 판서(權判書, 권극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아들이 없었으므로 공이 홀로 상주(喪主) 역할을 맡아서 창졸간에 출빈(出殯)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대가가 서쪽으로 몽진하게 되어 공이 미처 호종하지 못하고, 부친 삼등공(三登公)을 모시고 뒤늦게 행재소로 가다가 성천을 지나면서 왕세자를 배알하고 만류를 받아 그곳에서 시강원 설서가 되었다.[27] (이식의 묘지명)

④ 왜적이 도성 가까이 쳐들어오자 상께서 서쪽으로 파천하였다. 공은 그때 마침 장인의 상을 당하여 염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뒤늦게 행재소로 달려가다가 성천에 이르러 시강원 설서에 제수되었다.[28] (김상헌의 신도비명)

이들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이정귀가 장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어가를 제때 호종하지 못했고, 이후 지름길을 따라 성천에 이르러 시강원 설서에 제수되었다는 점이다. 앞서 기사체 기록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호종을 지체하게 된 원인은 장인의 장례를 치르는 데 있다. 아울러 이정귀가 부친을 위해 지은 행장에서도 임란 당시의

幸. 前一日, 權公暴卒無子, 公留治喪, 藁葬楊州, 乃從間道詣行在, 謁光海于成川. 十月, 拜說書. …… 十二月, 聞議政公在三登病亟, 馳往至兎山聞訃, 墜馬氣絶."

26) 李廷龜, 『月沙集』 附錄 卷3, 「謚狀[德水張維撰]」. "壬辰倭難, 宣祖西狩, 公間道赴行在, 到成川, 拜侍講院說書."

27) 李廷龜, 『月沙集』 附錄 卷4, 「墓誌[德水李植撰]」. "會外舅權判書暴卒無子, 公獨莅喪, 倉卒出殯而翌日, 大駕西出, 公不及扈從. 奉三登公追赴行在, 過成川, 謁王世子被留, 爲侍講院說書."

28) 李廷龜, 『月沙集』 附錄 卷5, 「碑銘[安東金尙憲撰]」. "寇深, 上西幸. 公適有喪未殮, 追赴行在, 到成川, 拜侍講院說書."

일은 압축적으로 서술되어 있을 뿐, 부친을 찾아다닌 과정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29]

이상에서 「임진피병록」의 편년체, 기사체 기록, 그리고 『월사집』의 묘도문자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정귀가 부친을 찾아다닌 행적을 특별히 부각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 이 글이 부친을 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술되었다는 견해는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4. 저술 의도

지금까지 「임진피병록」의 저술 의도는 충과 효의 층위에서 이해되어 왔다.[30] 이정귀의 피란 여정을 군왕을 보필하고 부친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그런데 사실 「임진피병록」은 군부를 찾아가는 일관된 서사라기보다[31] 장인의 장례 처리, 부친 찾기, 처자 찾기, 누님 문안, 그리고 어가 호종 등 다양한 사건이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텍스트이다. 기록에 따라서는 주제 의식이 문면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때로는 허구와 과장, 은폐와 축소가 개입되어 저술 의도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좀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임진피병록」은 서술의 완급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글이다. 편년체 기록

29) 李廷龜, 『月沙集』 別集 卷52, 「先府君行狀」. "壬辰四月, 大駕去邠, 前二日, 不肖孤遽遭妻父喪, 以殯斂無托, 不得隨扈, 旣權瘞其喪, 始會府君於楊州, 盡室徒步西行. 至九月, 始達成川, 府君卽拜翊衛司司禦. 癸巳正月, 迎大駕於定州, 旋拜三登縣令."

30) 안나미는 「임진피병록」이 충과 효라는 당시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전쟁의 고통과 부친을 만나기까지의 과정에서 겪는 애환을 통해 개인적 고통을 그려냄으로써 오히려 충효를 감동적으로 인식하게 한다고 설명하였다. 안나미(2006), 43쪽.

31) 임형택(2012), 178~179쪽.

의 경우, 후반부로 갈수록 사건의 전개 속도가 빨라지면서 서술이 대폭 간략해진다. 전반부의 피란 과정은 하루를 오전과 오후로 나누고 날씨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한 반면, 피란이 종료된 이후에는 개인의 감정이나 개별 사건에 대한 언급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몇 월, 장소, 사건 정도만 간략하게 기록했을 뿐이다. 이는 저자가 전란 체험의 모든 양상을 빠짐없이 기록하려 했다기보다 강조하고자 한 경험과 메시지에 따라 서술의 비중을 달리하였음을 보여준다.

우선 「임진피병록」에서 가장 큰 서술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성산 전투 대목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① 내가 대답하기를

"네놈 나라는 은혜를 저버리고 의리를 잊은 채 남의 나라를 침범해 들어왔다. 우리 임금께서 차마 백성들을 전쟁에 내몰지 못해 장차 천자에게 호소하여 대군을 요청해 와서 네놈들을 모조리 죽이고 곧바로 네놈들의 소굴을 무찌를 것이다. 네놈들이 가서 만나려 한들 우리 임금께서 어찌 만나 주겠는가. 우리는 네놈들의 살점을 씹어 먹지 못해 한스러운데, 비록 마필이 있다 한들 어찌 네놈들에게 내주겠느냐. 지금 네놈들이 속히 물러가지 않는다면 응당 천 개의 쇠뇌를 한꺼번에 발사하여 자웅을 가릴 것이다."

라고 하였다.[32]

② 나는 피하려 해도 벗어나기 어려웠다. 그래서 활과 화살로 맞서 보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침내 화살을 메기고 큰 소리로 꾸짖으며 말하기를

"앞서 서너 명의 왜적이 여기를 지나갔는데 내가 모두 화살 한 발로 거꾸러뜨렸다. 지금 네놈들이 만약 속히 물러나지 않는다면 마땅히 목숨을 걸고

32) 李廷龜, 『月沙集』 別集 卷1, 「壬辰避兵錄」. "余答曰: '汝國背恩忘義, 徑入人國. 吾王不忍鬪其民, 將上訴天子, 請大兵來, 鏖殺汝等, 直擣汝巢穴. 汝等雖 往會, 吾王何用爲. 吾輩恨不食汝之肉, 縱有馬匹, 豈給汝等乎? 今日汝等, 若不速退, 當以千弩齊射, 以決雌雄也.'"

겨루어 볼 것이다.”

라고 하자, 말을 탄 왜적이 수중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는데 아마도 어떤 표(標)인 듯했다. 나에게 보여 주며 가져가라는 시늉을 하기에 내가 꾸짖으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 네놈들의 표를 받겠느냐. 죽으면 죽었지 결코 받으러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33]

성산 전투 대목에서 이정귀는 일본군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지닌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성산에 모인 사람들이 일본군에게 마필을 내어주고 물러가기를 애원하자고 주장한 데 반해, 이정귀는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①) 이어 일본군이 “우리들은 서쪽으로 가서 너희들의 국왕을 대면하여 교린(交隣)의 일을 논의하려고 한다.”[34]라고 말하자, 이정귀는 여기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죽음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홀로 일본군에 맞서 싸웠으며, 일본군이 즉각적인 교전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②)

성산 전투 이후의 대목에서는 선조를 염려하는 충신으로서의 또 다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5월 15일, 이정귀는 성산에서의 전투를 마치고 다시 부친을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선조의 안위를 걱정하였다. 이러한 염려는 피란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지속되었다. 17일 울대산에 도착한 이정귀는 양주에서 행주로 이동하던 사람들을 만났다. 이들은 이정귀가 양주로 향한다는 말을 듣고, 이날 관군과 일본군이 의정부에서 전투를 벌일 것이라며 결사적으로 만류하였다. 그럼에도 이정귀는 일

33) 李廷龜, 『月沙集』 別集 卷1, 「壬辰避兵錄」. “余料避亦難免, 不如以弓矢相抗, 遂注矢, 大聲叱之曰: ‘前有三四賊過此, 余皆一矢斃倒. 今汝若不速退, 當以死相較.’ 騎賊出手中一小紙, 蓋是標也. 示余使持去, 余叱之曰: ‘吾豈受汝標. 死則死矣, 決不往受也.’”

34) 李廷龜, 『月沙集』 別集 卷1, 「壬辰避兵錄」. “我輩欲西往, 會爾國王, 面議交隣之事.”

본군과 조우할 위험을 무릅쓰고 선조가 머무는 곳으로 속히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임진피병록」 서사 전반에 걸쳐 이정귀는 지극한 효성을 지닌 아들이자 충성심이 투철한 신하라는 두 가지 면모를 지닌 인물로 형상화된다. 여기서 이정귀가 부친을 찾아다니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국왕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전시 상황에서 관료의 우국지심이나 국왕을 향한 충성의 표명은 여타 임란 실기에도 보이는 비교적 전형적인 서술 양상이다. 그 결과 기존의 연구는 이 지점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단편적인 해석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이 글의 궁극적인 저술 의도는 바로 이 지점을 작품 내 여러 서사적 장치와 연관하여 검토할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 이어서 이와 관련된 서사적 장치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장인 권극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에 따른 장례로 이정귀의 호종이 늦어진 사실을 서두에 배치하였다. 1592년 4월 27일 선조가 북쪽으로 몽진할 계획을 세우자, 이정귀 역시 이를 수행할 준비에 나섰다. 당시 이정귀와 장인 권극지는 장기간 대궐에서 숙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성의 백성들이 대부분 피란한 뒤에도 두 집안은 제때 피란하지 못했다.[35] 다만 이정귀의 부친은 연로하여 어가를 수행하기 어려웠으므로, 이정귀와 권극지만 조정에 남고 처자는 양주로 피란시키고자 하였다.[36] 그러나 당초 계

35) 李廷龜, 『月沙集』 別集 卷1, 「壬辰避兵錄」. "是時, 余連在禁中, 聘君以禮判兼備邊有司堂上, 長宿闕內, 都人皆出去, 獨吾一家不動."

36) 이정귀가 가솔을 雙阜의 농가가 아닌 양주로 피란시키려 한 이유는 양주가 한양에서 가까우면서도 점차 서북쪽으로 이동해 피란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쌍부는 이정귀의 田莊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월사집』에 휴가를 얻어 쌍부의 舊莊을 찾아갔다는 제목의 시가 수록되어 있고(李廷龜, 『月沙集』 卷16, 「休暇尋雙阜舊莊戲簡崔應采丈」), 『浦渚集』에 趙翼이 이정귀의 아들 李明漢에 대한 제문을 쓰면서 쌍부에서 이정귀를 모시며 학업을 닦던 시절, 당시 2세이던 이명한을 귀여워하던 장면을 회고한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趙翼, 『浦渚集』 卷30, 「祭白洲李天章明漢文」).

획과 달리 어가가 예정보다 일찍 출발한 데다, 권극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면서 이정귀는 끝내 어가를 호종하지 못했다.

> 가노들만 데리고 염습(斂襲)하여 저녁에 입관(入棺)하였다. 처음에는 대가가 갑자기 출발하리라고 생각지 못하여 즉시 장례를 치른 뒤에 달려가 호종하려 했다. 그런데 이날 밤, 다음 날 새벽에 대가가 출발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방으로 상여꾼을 구했지만 찾지 못했다. 도성 안팎에는 연기와 불꽃이 하늘을 뒤덮었다. 사람들은 모두 칼을 뽑아 들고 길을 걸었고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백방으로 생각해도 장례를 치를 방법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집 뜰에 시신을 묻으려 하였지만 집에는 하인 몇 명뿐이고 관은 무거워 움직이기조차 어려웠다. 안절부절 소리치고 울기만 할 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37]

실록을 비롯한 여러 사료에서도 권극지가 사망한 이튿날 어가가 출발했으며, 이정귀가 그의 장례를 치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38] 즉, 이정귀가 권극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피란 시기를 놓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의 진위가 아니라, 이를 서두에 배치한 의도이다. 이를 통해 이정귀는 자신의 책임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는 논리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셈이다.

둘째, 진위 현령 이경윤의 잘못된 정보로 이정귀가 피란 과정에서 시간을 지체한 경위를 제시하였다. 5월 2일, 이경윤은 일본군이 용진을 거쳐 이미 양주에 도착했으므로 양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이정귀를 만류하였다.[39] 당시 이경윤은 진위 현령이라는 지방 수령직에 있었으나, 한강 방어

---

37) 李廷龜, 『月沙集』 別集 卷1, 「壬辰避兵錄」. "只率家奴斂襲, 夕入棺. 初不料大駕遽出, 欲卽爲發葬後奔扈. 是夜, 聞大駕於明曉將發, 四求車夫無得. 都城內外, 煙焰漲天. 人皆露刃而行, 哭聲徹天. 百計無路發葬, 不得已欲瘞家園, 家只有數奴, 棺重難動. 遑遑呼泣, 莫知所爲."

38) 『宣祖修正實錄』 25年 4月 14日. "禮曹判書權克智卒, 克智老病聞亂, 憂憤而卒死之. 翌日上西幸, 女壻李廷龜鑽埋于近壟, 被賊發掘, 久乃收葬."

선이 무너지면서 군진을 해체하고 도주 중인 상태였다. 현재로서는 그가 이러한 정보를 전한 이유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혼란스러운 전황 속에서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결과였는지, 혹은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이정귀는 이경윤의 말을 믿고 처자를 고양의 외조모와 누이의 집에 맡겼으며, 양주의 고주내에 도착한 뒤에야 그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정귀는 부친 및 처자와 이별과 재회를 거듭하였고, 피란 초기 상당한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다.

셋째, 이정귀가 일본군과 대치할 때마다 그의 판단과 대응에 이견을 제기하는 인물들을 반복적으로 등장시켰다. 전투를 거부한 하인을 비롯하여, 이정귀의 의견에 수차례 이의를 제기한 김 찰방(金察訪)과 전 현감 신응운(辛應運) 등이 이에 해당한다.

> ① 전 현감 신응운이 와서 말하기를
> "오늘 적들이 만약 물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모두 죽을 것이니, 산 위의 마필을 다 찾아 저들에게 던져 주고 물러가 주기를 애원해야 옳을 것이오. 나의 아흔 노모가 이 산 위에 계시오. 이처럼 서로 겨루다가 혹시라도 이기지 못한다면 응당 모두가 한 점의 고깃덩이가 될 것이오. 이렇게 되면 온 산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모두 죽이는 꼴이오. 그대는 어찌 이런 점을 생각지 않는 것이오."
> 라고 하였다.[40]

39) 용진을 통해 들어온 군대는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가 지휘한 제2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忠州→驪州→楊根[楊平]→용진→한양'이라는 경로를 따라 침입한 뒤 한성의 동쪽 방면으로 향했는데, 이때는 일본군이 아직 한양에 들어오지 않은 시점이었다. 일본군이 한양을 점령한 것은 5월 3일의 일이다.

40) 李廷龜, 『月沙集』 別集 卷1, 「壬辰避兵錄」. "有前縣監辛應運來言曰: '今日賊若不退, 吾輩皆死, 不如盡搜山上馬匹, 搥出給之, 求哀請退可也. 吾有九十老母在此山上, 如是交鋒, 脫或不克, 則應盡爲一臠. 是一山之人, 君皆殺之也, 君何不量如是.'"

② 신응운이 말하기를

"오늘 죽는 것도 그대 때문이요 사는 것도 그대 때문이오. 어찌하겠소, 어찌하겠소."

라고 하고는, 불만스러운 기색으로 일어섰다. 또 김 찰방이라는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공께서 멋대로 이런 계책을 내놓는 바람에 온 산의 남녀가 모두 왜적에게 죽게 생겼습니다. 어찌 말을 내주고 물러나 주기를 요청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하고, 눈을 부릅뜨고 심하게 화를 냈다.[41]

③ 내가 사수(射手)에게 명하여 일제히 활을 쏘도록 하였고, 또 신충선에게 명하여 말을 타고 내려가 적진으로 돌진하게 하였다. 그런데 신응운과 김 찰방 두 사람이 손으로 붙잡고 활을 쏘지 못하게 하였다. 내가 분통이 터져 베어 버리고 싶었지만 두 사람 모두 나이 많은 노인이었고 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으므로 꾹 참았다. 그래서 가노인 업흥(業興)과 잉질산(芿叱山)으로 하여금 활을 쏘게 하였다.[42]

④ 나의 하인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청하기를

"지금 길을 가는 것은 목숨을 구하고자 함인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서 도리어 사지(死地)로 들어가려 하시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였다. …… 하인들이 모두 분을 내며 말하기를

"고양은 양주만큼 심한 상황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적진으로 달려가며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니, 상전께서는 우리 일행을 다 죽일 작정이십니까?"

라고 하고, 모두 떠나가려고 하였다.[43]

---

41) 李廷龜,『月沙集』別集 卷1,「壬辰避兵錄」. "辛曰: '今日死亦君生亦君, 奈何奈何.' 不悅而起. 又有稱金察訪者來謂曰: '緣公妄生此計, 使一山男女, 盡死於賊, 何不給馬請退乎.' 張目怒甚."

42) 李廷龜,『月沙集』別集 卷1,「壬辰避兵錄」. "余命射手齊射, 又令愼忠善騎馬馳下突陣. 辛、金兩公以手抱持, 使不得發矢. 余憤憤欲斬, 而二人俱年老白髮, 且非約束中人, 忍而不爲. 使家奴業興芿叱山發射."

43) 李廷龜,『月沙集』別集 卷1,「壬辰避兵錄」. "余下人皆泣請曰: '今之行, 是欲求生, 求生反入死地, 願更思之.' …… 衆僕皆憤曰: '高陽則不至如楊州之甚. 今衝賊陣,

먼저 ①~③은 성산 전투 당시 인물들 사이에 오간 대화를 인용한 것이다. 이정귀는 일본군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며 선제적으로 공격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신응운과 김 찰방은 갖은 핑계를 들어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며 맞섰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이정귀에게 전가하였다. 심지어 이정귀가 공격을 개시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까지 하였다.

④는 성산 전투 이후 양주로 향하려는 이정귀의 판단에 하인들이 반대하는 장면이다. 이정귀는 울대산에 이르러 피란 중이던 남녀 약 30여 명과 마주쳤다. 이들은 양주 일대에 이미 일본군이 포진해 있어 행주로 향하는 중이라고 말하며 이정귀가 양주로 가는 것을 만류하였다. 그러나 이정귀는 어느 곳으로 가더라도 일본군의 위협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며, 신속히 길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인들은 끝내 그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았고, 결국 일행은 각기 흩어지게 되었다.

넷째, 피란 과정에서 이정귀가 겪은 '기이[奇]'한 사건들을 여러 차례 제시하였다.

> ① 얼마 뒤 왜적이 나를 향해 활을 쏘았다. 화살이 나의 목을 스치고 지나갔다. 나도 활을 쏘아 왜적의 어깨 위에 적중시켰다. 하지만 활의 힘이 약해 꿰뚫지는 못했다. 왜적이 화살을 뽑아 부러뜨렸다. …… 얼마 뒤 포성이 진동하고 연기와 빛이 맹렬히 피어올랐다. 탄환이 나의 왼쪽 다리에 적중하였다. 분명히 관통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 겹의 상의, 바지와 치마에 모두 탄환 구멍이 생겼고 탄환은 내 몸 뒤에 떨어졌다. 탄환이 두 겹의 상의와 두 겹의 치마에 각각 네 개의 구멍을 내고 피부를 스쳐 지나간 것이었다. 약간의 화상 흔적만 생겼고 피부는 상하지 않았으니 **기이하고 다행이었다.[奇哉幸矣.]**[44] (이하 강조는 인용자)

不聽人言, 上典欲盡殺一行乎.' 竝欲叛去."

44) 李廷龜, 『月沙集』 別集 卷1, 「壬辰避兵錄」. "俄而, 賊向我放矢, 矢掠過喉吭. 余亦發射中賊肩上, 弓弱不能穿, 賊拔矢折之. …… 俄頃一聲砲震, 煙光烈起, 丸中余

② 한 그루 성근 나무떨기 아래에 몸을 드러낸 채 앉아 있었는데, 여섯 개 대오 50여 명의 왜적이 지나가는 동안 내 곁을 스쳐 가면서 한 번만 눈길을 돌렸더라면 곧 왜적에게 사로잡혔을 것인데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으니, **기이한 일이면서 다행스러운 일이다.[奇事幸事.]**45)

③ 나는 왜적이 석굴로 들어갔다는 것을 듣고 물러나기를 기다렸다가 곧장 몰래 가서 물어보니, 아내가 이미 굴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고 하였다. 곧장 노비로 하여금 굴 아래에서부터 거슬러 올라오면서 유해를 찾도록 하였다. 굴 아래 거의 밑바닥에 마침 가로로 뻗어 자란 나무가 있었는데 평평하기가 흡사 나무 선반 같았다. 아내는 떨어질 때 그곳에 걸려 가로로 엎어진 채 정신을 잃고 있었다. 나는 이미 죽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소리쳐 불렀는데 약간 기식이 있었다. 물을 먹이고 치료하니 비로소 되살아났으며 온몸에 큰 상처도 없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는 드디어 말을 하였다. 떨어진 곳을 올려다보니 높이를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만약 가로로 자란 나무가 없었더라면 유해도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다.[奇矣奇矣.]**46)

④ 임진년(1592, 선조25) 7월, 내가 양주에 있을 때 왜적이 바야흐로 함경도로 가고 있어서 도로에 왕래가 끊이지 않았다. 하루는 내가 포천의 누님을 문안하고 싶어서 왜적이 이미 다 내려갔다는 말을 듣고 말을 타고 고개를 넘어갔다. 고개에 올라 내려다보니 북쪽으로 가는 길에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산을 내려가려 했는데 문득 연거푸 세 번 '가지 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몰라 말을 세우고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고요하기만 할 뿐 아무도 없었다. 가노에게 물어보니 듣지 못했다고 했

左腿, 慮必穿也. 兩衣及袴裙, 俱有丸穴, 而丸落身後. 蓋丸穿兩衣兩裳各四襞積, 掠過膚上, 微有火痕, 不至傷肌, 奇哉幸矣."

45) 李廷龜,『月沙集』別集 卷1,「壬辰避兵錄」. "露坐一疏林, 經六隊五十餘, 賊掠過余側, 一轉睛便爲所獲, 而俱不顧見, 奇事幸事."

46) 李廷龜,『月沙集』別集 卷1,「壬辰避兵錄」. "余聞賊入窟中, 俟賊退, 卽潛往尋問, 則已落死窟下云. 卽令赤脚自窟下逆上, 尋覓骸骨. 窟下幾底, 適有樹林橫生, 平如木棚. 墜落之際, 掛在其處, 橫倒不省. 意已死也, 呼之微有氣息. 飮水療治始甦, 遍身無大傷處, 移時乃語. 仰視墜落處, 高不可測, 苟無橫樹, 骸骨亦應難覓, 奇矣奇矣."

다. 내가 잘못 들었으려니 생각하고 드디어 내려갔는데 몇 걸음 내려가자마자 또 '가지 말라'고 외치는 소리가 세 번 들렸다. 가노에게 물어보니 역시 듣지 못했다고 하였다. 내가 매우 괴이하고 의심스러워 말을 돌려 채찍질하여 산으로 올라가려 하였다. 얼마 뒤 말을 탄 수십 명의 왜적이 이 산을 수색하며 정면에서 나를 향해 오고 있었다. 급히 말을 달려 산을 넘어갔고 왜적이 추격해 오지 않아 벗어날 수 있었다. **기이한 일이고 괴이한 일이었다[奇事怪事]**.[47]

①은 성산 전투에서 이정귀가 일본군과 대치했을 당시, 일본군이 그를 향해 수차례 화살과 총을 쏘았음에도 단 한 발도 맞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일화이다. ②는 성산 전투 직후 이정귀가 나무 아래에 몸을 숨긴 채 일본군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다리던 긴박한 상황을 서술한 대목이다. ③은 8월 초 일본군이 양주부로 이동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정귀가 부친과 처자를 이끌고 대박산으로 피신했을 당시의 일을 서술한 대목이다. 당시 이정귀의 아내는 일본군에게 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 굴 아래로 몸을 던졌으나, 나무에 걸린 덕분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④는 기사체에 해당하는 대목으로, 7월 무렵 길이 막히고 양식마저 고갈되어 이정귀 일가가 양주의 고주내에 머물러 있던 시기의 일을 담고 있다. 당시 이정귀는 매일 산을 오르내리며 일본군을 피해 다녔는데, 어디선가 "가지 말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

여기서 이러한 서사적 장치가 모두 '국왕'으로 수렴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임진피병록」이 서사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일정한 의도 아래에 형성된 텍스트임이 분명해진다. 이정귀의 피란 여정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47) 李廷龜, 『月沙集』 別集 卷1, 「壬辰避兵錄」. "壬辰七月, 余在楊州時, 賊方往咸鏡, 來往不絶. 一日欲省抱川妹, 聞賊已盡下去, 騎馬越嶺去. 上嶺俯視, 抵北一路, 絶無人影, 欲下山, 忽聞連呼莫往者三聲. 不知出自何處, 停驂四顧, 闃無人. 問之奴則未聞云. 意余誤聞, 遂下去, 纔下數步, 又呼莫往者三. 問之奴則又未聞. 余甚怪疑, 回鞭欲上山. 俄而, 賊數十騎方搜是山, 政向余來. 疾馳過山, 賊追不及, 遂免, 奇事怪事."

방해 요인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결국 호종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해명하기 위한 장치이며, 허구적으로 보이는 기이한 사건들이 여러 차례 서술되는 것 역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끝내 국왕을 호종하고자 했던 이정귀의 충정을 부각하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즉, 「임진피병록」은 이정귀가 제때 어가를 호종하지 못한 사실과 그 이후 약 반년에 걸친 행적의 공백기를 해명하고 이를 정당화하려는 의도 아래 저술한 '자기 해명'의 서사로 이해할 수 있다.

5. 마무리

본고는 「임진피병록」을 충효의 서사 내지 사실의 기록으로 이해해 온 기존 연구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저술 의도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해석만으로는 「임진피병록」의 서사 구조와 저술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문면에 드러난 서술을 그대로 수용한 나머지 이 글의 성립 과정과 서사적 전략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한계다.

「임진피병록」은 1636년(인조14) 간행된 『월사집』 초간본에는 수록되지 않았으며, 1720년(숙종46) 별집이 원집과 합본되면서 비로소 수록되었다. 이는 초간본 간행으로부터 약 80년, 임란 발발로부터 이미 100여 년이 지난 시점이다. 더욱이 「임진피병록」은 서두가 누락되어 있고 편년체와 기사체가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하나의 완결된 저술이라기보다 후대의 편집 과정을 거쳐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임진피병록」의 서사적 장치가 모두 '국왕'으로 수렴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글은 이정귀가 제때 어가를 호종하지 못한 사실과 그 이후 약 반년에 걸친 행적의 공백기를 해명하려는 의도에서 저술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나아가 이정귀의 호종을 방해한 사건과 그가 겪은 기이한 사건들이 치밀하게 배치되어 있는 점은 이 글이 후대의 편집과 재구성을 통해 한층 정교한 서사 구조를 갖추게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임진피병록」을 충효의 서사로 이해해 온 기존의 해석은 문집 편찬 과정에서 형성된 이정귀의 이상적 인물상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만 현전 자료만으로는 편집의 주체와 시기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 문제는 향후 관련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증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저술한 배경은 무엇인가. 이정귀는 임란 발발 당시 조정의 관원으로서 어가를 호종할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비록 장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가주서(假注書)에서 체직되었으나, 도성에 남아 있는 관원으로서 호종의 의무는 여전하였다. 이 때문에 이정귀 역시 “처음에는 대가가 갑자기 출발하리라고 생각지 못하여 즉시 장례를 치른 뒤에 달려가 호종하려 했다.”라고 언급하였다.[48]

임란 당시 어가 호종에서 낙오하거나 행재소에 늦게 도착한 관료는 명령 불복종이나 군율 위반으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49] 반면 1604년(선조37) 선조가 공신을 3등급으로 나누어 책봉했을 때, 한양에서 의주까지 어가를 호종한 인물들은 호성공신(扈聖功臣)으로 책록되었다.[50] 그러나 당시 봉호를 받은 86인의 명단에 이정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당시 이정귀에게는 제때 호종하지 못한 사실이 도망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그 경위를 해명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문집이 단순한 저술의 집합이 아니라는 점은 상식에 속한다. 문집은 저자의 공적을 기리고 이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 편찬되는 만큼, 후대의 편집

48) 李廷龜, 『月沙集』 別集 卷1, 「壬辰避兵錄」. “初不料大駕遽出, 欲卽爲發葬後奔扈.”
49) 『宣祖實錄』 25年 7月 13日, 10月 23日, 11月 3日, 12月 4日.
50) 『宣祖修正實錄』 37年 6月 25日.

과정을 거치며 정제된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저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시문을 선별하여 문집에 수록함으로써, 이상적인 인간상을 형상화한다. 따라서 문집에 수록된 시문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 안에는 의도적으로 선택되거나 은폐된 의미가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月沙先生年譜』, 디지털 장서각 소장본, B9I- 477.
金正浩, 『大東地志』,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古貴0235-2.
_____, 『朝鮮古分道地圖』(1834),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柳馨遠, 『東國輿地誌』,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古4790-51.
李廷龜, 『月沙集』, 한국문집총간 69~70, 한국고전번역원, 2003.
李荇, 『新增東國輿地勝覽』,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K2-4182.
趙翼, 『浦渚集』, 한국문집총간 85, 한국고전번역원, 2003.
崔岦, 『簡易集』, 한국문집총간 49, 한국고전번역원, 2003.

김경태, 「김종의 『임진일록』으로 본 江華 피란 생활과 의병 활동」, 『국학연구』 53, 한국국학진흥원, 2024.
김수진, 「朝鮮後期 文集刊行의 推移와 그 特徵」, 『어문연구』 4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3.
박현순, 「문집을 통해 본 조선시대의 일기와 일기쓰기」, 『조선시대사학보』 79, 조선시대사학회, 2016.
안나미, 「월사 이정구의 「임진피병록」에 관한 고찰」,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이도남, 「朝鮮時代 楊州地方史硏究」,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임형택, 『한문서사의 영토』 상, 태학사, 2012.
장경남, 「壬亂 實記文學의 類型과 그 特性」, 『인문학연구』 28, 숭실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8.
정솔미, 「「壬辰避兵錄」 속 '아버지 찾아가기' 서사와 충절의식」, 『연민학지』 45, 연민학회, 2026.
최은주, 「조선시대 임진왜란 일기자료의 현황과 傳存 양상」, 『한국민족문화』 77,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0.
황패강, 『임진왜란과 실기문학』, 일지사, 199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

투고일 2026. 7. 27 심사시작일 2026. 8. 18 게재확정일 2026. 9. 21

Abstract

Reconsidering the Authorial Intention of Yi Jeong-gwi's 「Imjin Pibyeongnok」

Chung, Seo-hyun

This study examines 「Imjin Pibyeongnok(壬辰避兵錄)」 by Wolsa(月沙) Yi Jeong-gwi(李廷龜, 1564~1635) focusing on the fact that the work was included not in the original edition of the 『Wolsajip(月沙集)』 but in its supplementary collection. Based on this editorial history,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a critical reading of the authorial intentions underlying the writings contained in literary collections. 「Imjin Pibyeongnok」 was not included in the first edition of the 『Wolsajip』 published in 1636 but was incorporated only in 1720, when the supplementary collection was combined with the original collection. Given this editorial process,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contents of the supplementary collection may have been shaped, at least in part, by later editorial intervention.

To explore this possibility, the study first analyzes the entire text of 「Imjin Pibyeongnok」 according to its travel route and narrative development, examining the distribution of narrative space and the emphasis placed on individual episodes in order to clarify the author's underlying intention. It then investigates the publication history and composi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work to identify the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its inclusion in the collected works.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the existing interpretation of 「Imjin Pibyeongnok」 as either a narrative of loyalty and filial piety or a straightforward historical record is insufficient to explain its narrative structure and authorial purpose. Considering that all of the narrative devices ultimately converge on the figure of the king, and that the incidents delaying Yi Jeong-gwi's attendance upon the royal procession together with the extraordinary events he experienced are carefully arranged throughout the narrative, the text can be understood as a meticulously constructed narrative of self-justification. More specifically,

it seeks to explain and legitimize Yi Jeong-gwi's failure to join the royal ento urage at the proper time and the approximately six-month gap in his subsequ ent activities.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collected works are not merely an aggregate of an author's writings. Since such collections are compiled to commemorate an author's achievements and transmit them to posterity, they are refined through successive editorial processes over time. During this process, selected works are incorporated to elevate the author's reputation and construct an idealized image of the author. Consequently, the literary works preserved in collected works must be approached with particular caution, as they may embody meanings that were intentionally selected, reshaped, or concealed through the process of compilation.

Keywords Yi Jeong-gwi(李廷龜), 「Imjin Pibyeongnok(壬辰避兵錄)」, Imjin War records, The collection of literary works, Authorial intention, Critical reading.

東方漢文學, 東方漢文學會
Dong-Bang Korean Chinese Literature Society
2026, 第108輯, pp.187~234
http://dx.doi.org/10.17293/dbkcls.2026.108.
ISSN 1226-668X

박세채(朴世采) 『정주경연고사(程朱經筵故事)』의 편찬 배경과 서술 방식

박혜민

目 次

1. 서론
2. 『정주경연고사』의 성립 배경과 관각(官閣) 문서 관행
3. 『정주경연고사』의 편차 체재와 서술 방식
4. 결론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17세기 후반 정국 상황 속에서 산림(山林) 학자 남계(南溪) 박세채(朴世采, 1631~1695)가 편찬한 『정주경연고사(程朱經筵故事)』를 중심으로, 홍문관의 공적 문서 관행이었던 '고사(故事)' 양식이 산림의 저술로 전유되는 양상과 그 편차 체재 및 비례적 서술 방식을 분석하여 장르적 변별성과 문학사적 의의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세채의 『정주경연고사』는 특정 경연 석상의 대화를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국 경색이나 붕당 갈등으로 경연 제도가 정상 작동하지 않거나 본인이 조정에서 물러나 있는 상황에서 국왕에게 정책적 처방과 정무적 방향을 개진하기 위해 작성된 주의류(奏議類) 산문의 성격을 띤다. 특히 박세채는 홍문관에서 정강일(停講日)에 선현의 언행을 뽑고 안설을 덧붙여 올리던 기존의 '고사식(故事式)' 관행을 원용하되, 비경연관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이라는 처사의 신분적 한계를 진진성(陳眞晟)의 '포의 진헌' 선례를 들어 명분화함으로써 이를 산림의 정치적 발언으로 전유하였다.

『경연고사』는 단순한 선례의 채록물이 아니라 도학적 전범을 주체적으로 선별하고 재배열한 편제의 논리와 텍스트 내부에 송대의 역사적 선례[一層, 고사]와 조선의 정치적 현실[二層, 안설]을 조응시키는 비례(比例) 구조의 글쓰기 전략을 일관되게 구사하였다. 박세채는 출사 고사를 서두에 배치하여 산림으로서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안설을 매개로 송대의 수렴청정과 좌강(坐講) 논의, 정이(程頤)의 파직 서사를 조선의 정희왕후 수렴청정, 조광조의 개혁 좌절, 붕당 정치의 폐단 등 당대 현실 문제와 입체적으로 대응시켰다. 나아가 『대학(大學)』 강독을 통한 심성 수양과 상복·부묘 등 예제(禮制)의 실천적 적용으로 나아가는 점층적 구성을 통해 학문과 정치가 긴밀히 결합된 비례의 수사 체계를 완성하였다.

이러한 『경연고사』의 내적 구조와 서술 논리는 기존의 경연 기록물들과 대비를 이룬다. 16세기 사림의 정계 진출 이후 정착된 '경연진계'·'경연강의'·'경연일기' 등 경연 기록군들은 텍스트의 성립 계기와 서술 방식에서 '실제 경연 현장과의 직접적 연동성'을 공통적인 전제로 삼는다. 경연 석상에서의 발언을 사후에 수록하거나 교재 진강 내용과 문답을 대화체 중심의 편년체로 정리한 이 기록들은, 모두 경연이라는 실제 행위가 끝난 뒤 이를 사후적으로 복기하는 '경험의 기록'이자 사실의 축적을 지향하였다.

반면 박세채의 『경연고사』는 시간의 흐름에 구속되는 편년체 서술을 탈피하고 역사적 고사와 안설을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지나간 현장의 경험을 사후적으로 축적하는 데 머물렀던 기존 경연 산문의 한계를 넘어 향후 군주가 지향해야 할 규범과 정무적 방향을 선제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 면모를 확보한다. 박세채의 『경연고사』는 홍문관의 기존의 '고사(古事)' 문서식을 원용하여 재야 산림의 정치적 발언으로 고도의 비례적 수사 체계로 정교화한 것이다. 이는 조선 후기 경연 관련 산문의 다변화를 이끌고 산문 양식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학사적 의의를 지닌다.

핵심어 박세채, 『정주경연고사』, 『경연고사』, 경연일기, 『홍문관지』, 옥당고사.

1. 서론

조선시대의 경연(經筵)은 국왕과 신하가 경사(經史)를 강론하고 국정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다. 16세기 사림(士林) 세력이 정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그들은 경연을 통해 군주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견제하고 도학적 치도(治道)를 실현하는 장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다.[1] 이러한 경연의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관련 기록의 증가와 다변화를 수반하였다. 국왕을 면대하여 학문을 강론하는 영광스러운 경험을 보존하고자 했던 지식인들은 다양한 형태의 경연 기록을 남겼다.[2] 특히 송대 주희(朱熹)의 「경연강의(經筵講義)」와 진덕수(陳德秀)의 「경연강의(經筵講義)」 등 송나라의 모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16세기 후반 선조 대에 이르러서는 시간의 추이에 따라 경연 석상의 대화를 기록하는 편년체 중심의 '경연일기' 양식의 정형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3]

기존의 경연 기록과 관련된 연구는 관찬 사료의 정비나 개별 왕대의 제도적 운영 실태를 살피는 데 치중해 왔으며 개인의 경연 관련 저술 가운데서도 편년체 산문에만 주목해 온 경향이 있다. 선조 대 경연 기록과 관련해서는 이이(李珥)의 『경연일기(經筵日記)』가 가장 많이 다루어졌고[4],

1) 권연웅, 『경연과 성군 담론』, 지식산업사, 2021, 50~64쪽. 권연웅은 경연관들이 三代의 성군과 어진 신하가 만나 이상 정치를 이룬다는 서사를 강조했다고 보았다. 또한 경연관을 비롯한 언관들이 국왕의 언행과 국정 운영을 견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諫諍을 주요한 정치적 도구로 삼았다고 설명하였다.

2) 이인복, 「16세기 일기체 경연 기록의 등장」, 『대구사학』 147, 대구사학회, 2022, 16~26쪽.

3) 이인복, 「金宇顒의 「經筵講義」의 저술과 특징」, 『조선시대사학보』 99, 조선시대사학회, 2021, 232쪽.

4) 『경연일기(석담일기)』의 서지적 검토와 성격 변화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유

김성일(金誠一)의 『경연일기』[5], 김우옹(金宇顒)의 「경연강의」[6], 유희춘(柳希春)의 「경연일기」[7] 등이 고찰된 바 있다.

이 중 주목해야 할 선행연구는 16세기 일기체 경연 기록을 본격적으로 조명한 이인복의 연구이다. 그는 문집 수록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연 기록의 다양한 서명(書名)들, 즉 '경연(經筵)'이 들어가는 경연강의(經筵講義)·경연일기(經筵日記)·경연강설(經筵講說)·경연수기(經筵手記) 등과 그 외에 '연(筵)'자가 들어가는 연설(筵說)·연주(筵奏)·연석문대(筵席問對)·연중주사(筵中奏事) 등의 사례를 폭넓게 검토하였다. 이인복은 이 중에서도 특히 '경연일기'와 '경연강의'라는 두 가지 글쓰기 방식에 주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에 따르면, 첫째, '경연강의(經筵講義)'는 송대 주희와 진덕수의 저술 모델을 수용한 사림의 학문적 배경에서 유래한 것이다. 일례로 이황의 「경연강의」는 경연석상에서의 자기 발언을 기록한 '경연진계(經筵陳啓)' 형식과 진강을 위해 교재를 교정한 일종의 강의록 형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는 조광조의 「경연진계」나 주희의 경연강의

성선, 「『經筵日記』의 板本 및 標題에 관한 서지적 검토」, 『율곡학연구』 18, 율곡학회, 2009; 유성선, 「「石潭野史, 日記」에서 「經筵日記」까지 간행과정의 사상적 추이 연구」, 『한문고전연구』 22, 한국한문고전학회, 2011. 『경연일기』의 역사의식과 서술 방법(인물평과 재이관)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최영성, 「『石潭日記』의 역사의식과 서술 방법」, 『율곡학연구』 18, 율곡학회, 2009; 신하령, 「『經筵日記』를 통해 본 栗谷의 당대 인물평-'拙技'를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18, 율곡학회, 2009; 김우형, 「『經筵日記』에 나타난 율곡의 災異觀」, 『율곡학연구』 18, 율곡학회, 2009. 『경연일기』에 투사된 정치사상과 경세론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오항녕, 「문치주의와 대칭적 경세론에서 본 『經筵日記』」, 『율곡학연구』 28, 율곡학회, 2014; 김경래, 「栗谷 李珥의 大臣論과 위기의식 -『經筵日記』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88, 조선시대사학회, 2019.

5) 권태석, 「선조 초기 經筵 운영 연구 -경연 기록을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 84, 역사실학회, 2024.

6) 이인복(2021), 전게 논문.

7) 정영민, 「眉巖 柳希春의 經筵活動研究:『眉巖日記』에 나타난 經筵活動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민혜영, 「眉巖 柳希春의 『尙書』 이해 -『朝鮮王朝實錄』과 經筵 자료를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76, 남명학연구소, 2022.

모델과 유사한 양상이었다. 그러나 이후 진덕수의 경연강의 형식이 지닌 편차 방식에 영향을 받으면서, 조선 지식인들이 저술한 경연강의 역시 점차 편년체의 글쓰기로 정착되어 갔다고 설명한다. 둘째, '경연일기'는 본래 조정의 '관찬 경연일기' 편찬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희춘이나 이이의 초기 일기에는 정치적 쟁점이나 일상이 혼재되어 있었으나, 선조대 김우옹에 이르러 외부 요소를 배제하고 경연이라는 단독 주제만을 기록하는 전형적인 '일기체 경연일기'의 형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8]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실제 경연 현장을 사후적으로 복기하는 '경연일기/강의' 양식에만 주목했을 뿐, 군주에게 올리는 정책적 처방이자 주의류(奏議類) 산문에 속하는 '경연고사'라는 글쓰기 양식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접근하지 못했다. 그래서 경연고사류 산문의 성립 과정이나 텍스트 내부의 서술 논리, 그리고 편년체 경연 기록과 차별화되는 글쓰기 양식으로서의 장르적 변별성에 대한 고찰은 여전히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17세기 후반 산림 남계 박세채가 편찬하여 진헌한『정주경연고사(程朱經筵故事)』(이하『경연고사』)를 중심으로, 이 텍스트에 나타난 자료의 재구성 방식과 편제 논리, 그리고 과거의 역사적 선례를 빌려 당대의 현실 정치를 견제하려 한 '비례(比例)'의 서술 구조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홍문관의 공적 문서 관행이었던 '고사' 양식이 재야 산림의 저술로 전유되는 양상을 밝힘으로써 사후적 경험 복기에 머물던 기존 편년체 경연 산문과 구분되는 '경연고사'만의 독자적인 글쓰기 형식과 그 문학사적 의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인『경연고사』는 서인 내부의 갈등과 잇따른 환국(換局)으로 경연 제도가 파행을 겪던 숙종 조의 정국 속에서 송대 도학의 종장인 정이(程頤)와 주희(朱熹)의 경연 관련 문헌을 선별하고 재배열한 뒤 안설(按說)을 덧붙인 텍스트이다.

---

8) 이인복,「16세기 일기체 경연 기록의 등장」,『대구사학』147, 대구사학회, 2022.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먼저 2장에서는『경연고사』가 진헌된 17세기 후반의 정국 상황과 산림으로서의 출처(出處) 맥락을 살피고, 당대 편년체 경연 기록군(일기·강의·진계)의 기술 양상 및 홍문관의 '고사(故事)'의 문서식 관행을 검토하여 본 저술이 성립한 외적 조건을 확인한다. 3장에서는 박세채『경연고사』의 편차 체재와 구체적인 서술 방식을 분석한다. 정이와 주희의 경연 자료가 어떠한 의도하에 선별되고 배열되었는지 그 점층적 편집 논리를 검토하고, 이어서 송대의 선례[一層]와 조선의 현실[二層]이 안설을 매개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비례구조'의 작동 방식을 규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 분석의 결과로서 기존 편년체 기록물들과 구별되는 경연고사만의 장르적 변별성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4장 결론에서는 앞선 논의를 종합하여 관각의 공적 문서식을 개인 산림의 정치적 발언으로 전유해 낸『경연고사』의 문체적 성격과 편차 체재가 지닌 문학사적 가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2.『정주경연고사』의 성립 배경과 관각(官閣) 문서 관행

(1) 17세기 후반 정국 상황과『정주경연고사』의 진헌 배경

박세채는 반남(潘南) 박씨이며, 자는 화숙(和叔), 호는 현석(玄石)·남계(南溪)이다. 부친 박의(朴漪)는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를 지냈으며, 모친은 신흠(申欽) 가문 출신이다. 박세채의 가문은 17세기 정계에 다수의 고위 인물을 배출했다. 증조부 박응복(朴應福)은 대사헌(大司憲), 조부 박동량(朴東亮)은 형조 판서(刑曹判書)를 역임했으며,『사변록(思辨錄)』을 쓴 박세당(朴世堂)과 박태유(朴泰維), 박태보(朴泰輔)가 가까운 친족이다. 또한 송시열(宋時烈)의 손자 송순석(宋淳錫)은 그의 사위이다. 학문적으로는 1651년 김상헌(金尙憲)과 김집(金集)의 문하에서 수학하며 의

리론과 도학의 정통을 전수받았다.

박세채는 29세인 1659년(효종 10)에 천거로 익위사 세마(翊衛司洗馬)에 제수된 이래 여러 차례 관직을 제수받았으나 대부분 나아가지 않았다.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服喪) 문제에 대해서는 「복제사의(服制私議)」를 지어 3년설이 불가함을 밝혔고 제2차 복제 시비가 일어나 송시열 등이 추죄(追罪)를 받게 되자 그도 양근(楊根)·원주(原州) 등지에서 6년 동안 귀양살이를 했다.

1680년(숙종 6) 경신환국(庚申換局)으로 서인이 집권하자 그는 송시열, 윤증(尹拯)과 함께 산림(山林)으로서 조정의 부름을 받았다. 성균관 사업(成均館司業)과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에 제수되었고, 이후 제용감 정(濟用監正) 등에 올랐으나 역시 나아가지 않았다. 이후에도 국왕의 별유(別諭)가 잇따라 내렸으나 상소하여 사양하였다.

그러던 중 1682년 8월 11일 헌납(獻納) 오도일(吳道一), 정언(正言) 김만길(金萬吉) 등이 차자를 올려 율곡(栗谷) 이이(李珥)의 『성학집요(聖學輯要)』를 경연의 교재로 채택해 치국의 법도로 삼을 것을 청하는 한편, 송시열과 박세채를 조정으로 반드시 불러올려야 한다는 여론을 숙종에게 전달하였다.[9] 이에 박세채는 동년 8월 이조 참의(吏曹參議)에 제수되어 소명(召命)에 응해 상경하였으나 중도에 사직하였다.

이후에도 숙종의 입궐 명령이 계속되자, 박세채는 동년 9월 18일 서울 근교에 이르러 상소를 올렸다. 당시 그는 실무가 없는 호군(護軍)의 군직을 띠고 있었기에, 이러한 신분으로는 문관의 정무를 보거나 왕을 배알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외곽에서 버틴 것이다. 이에 숙종은 즉시 그의 군직 체직(遞職)을 윤허하고 속히 들어오게 하였다.[10] 박세채는 이튿날인 19일 궐하(闕下)까지 진입하였으나, 여전히 직함과 예우의 명분이 부족하다며

9) 『肅宗實錄』 숙종 8년 임술(1682) 8월 11일(병술).
10) 『肅宗實錄』 숙종 8년 임술(1682) 9월 18일(임술).

“허례(虛禮)를 함부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재차 사직 소를 올렸다. 숙종은 이를 너그럽게 비답하는 한편, 그가 서울에 머물 수 있도록 음식물과 땔감을 넉넉히 내리며 우대하였다.[11]

9월 20일에는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이 박세채를 서울에 머무르게 할 것을 강력히 청하자 숙종은 그날 밤 소대(召對)를 명하여 조용히 상견하려 하다가 밤이 깊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튿날로 한 차례 미루었다.[12] 9월 21일 박세채는 비록 앞서 군직은 벗었으나 온전한 문관의 직함이 없는 상태에서 감히 숙배(肅拜)의 예전(禮典)을 행할 수 없다는 겸양의 뜻을 아뢰었다. 숙종은 그의 숙배를 면제해 준 뒤 인견하여 서울 집에 머물며 경연에 출입하라고 당부하였으나 박세채는 끝내 사퇴하였다.

9월 22일 박세채는 다시 소를 올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히는 동시에, 정이(程頤)와 주희(朱熹)의 주소(奏疏)를 휘록하고 강의를 덧붙여 직접 편찬한 『경연고사』를 진헌하였다. 이때 박세채는 자신이 경연관의 직임을 갖지 않은 처지에서 이러한 편찬물을 올리는 것에 대한 명분을 명나라 영종(英宗) 때 포의의 신분으로 『정주정학찬요(程朱正學纂要)』를 지어 올렸던 진진성(陳眞晟)의 선례에서 구하였다.

> 그러므로 신이 삼가 두 현인이 경연에 계실 때 올렸던 주소(奏疏)와 강의(講義)를 취하여 차례대로 유취하여 기록하고, 남은 의리와 실제 행적을 덧붙여 한 편의 책으로 정리하여 문득 이에 남겨두어 올립니다. 만약 성명(聖明)께서 굽어 펴서 살펴주심을 입어 깊이 체득하고 힘써 행하심이 있게 된다면, 이는 곧 두 현인이 장막 안 맑고 한가로운 연석(燕席)에서 날마다 모시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 보탬이 되는 바를 어찌 신의 우매함으로 능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
> 그러나 신 또한 망령되이 문득 스스로 진강(進講)의 의리에 참여하려는

11) 『肅宗實錄』 숙종 8년 임술(1682) 9월 19일(계해).
12) 『肅宗實錄』 숙종 8년 임술(1682) 9월 20일(갑자).

것은 아닙니다. 옛날 명나라[皇朝] 영종(英宗) 때 민남(閩南)의 베옷 입은 선비 진진성(陳眞晟)이 일찍이 대궐에 나아가 자신이 찬술한『정주정학찬요(程朱正學纂要)』를 바친 일이 역사책에 실려 있습니다. 이는 비록 반드시 후세에 모범이 될 만한 도학의 순유(醇儒)는 아닐지라도, 요컨대 또한 어리석은 신이 답습하여 미루어 넓히기에는 족함이 분명합니다.[13]

이처럼 박세채는 포의 진헌의 고사를 들어 비경연관으로서 편찬물을 진헌하는 정치적 명분을 획득하는 한편, 문체적으로는 당시 홍문관 정강일(停講日)에 선현의 언행을 뽑고 논평을 붙여 올리던 옥당고사(玉堂故事)의 공적 문서 형식을 원용하였다. 숙종은 사관을 다시 보내 만류하고 친필 편지인 수찰(手札)을 내려 복귀를 당부하였으나, 박세채는 명을 따르지 않고 10월 1일 고향으로 돌아간 뒤 사직 상소를 올렸다.[14] 이는 비록 몸은 재야로 물러나더라도 선현들의 도덕적 선례를 통해 국왕의 자의적인 왕권 행사를 견제하겠다는 산림 특유의 정무적 의사표시였다.[15]

그 이듬해인 1683년(숙종 9) 1월, 송시열이 편지를 보내 조정에 나오기

---

13) 朴世采,『南溪先生朴文純公文正集』卷6, <疏>,「引對後申辭告歸 仍進經筵故事疏」. "故臣竊謹取兩賢在經筵時奏疏講義, 次第彙錄, 附以餘義實跡, 釐成一編, 輒此留進. 若蒙聖明俯賜披繹, 有以深體而力行之, 則是殆兩賢日侍於帷幄淸閒之燕矣. 其所裨益, 又豈臣之愚昧所能量哉. 然臣亦非妄輒自與於進講之義也. 昔在皇朝英宗時, 閩南布衣陳眞晟嘗詣闕獻所撰程朱正學纂要, 著在史冊. 是雖未必道學醇儒, 可以爲法於後世者, 要亦足爲愚臣之沿襲推廣則審矣."

14)『肅宗實錄』숙종 8년 임술(1682) 9월 21일.

15) 유교 사회의 상징적 존재였던 山林은 특히 17세기 국가 정책 수립에 깊숙이 관여하며 국왕에 대한 강력한 비판 세력으로 기능하였다. 반면 때로는 국왕의 친위 세력으로서 정국 안정과 체제 유지를 위한 명분과 실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들은 치사에 응하더라도 자신의 정무적 주장이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사직을 수단 삼아 국왕을 견제・압박하는 행태를 보였으며, 주로 經筵이나 書筵을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甲戌換局(1694) 이후에는 남인계 산림의 정계 진출이 사실상 단절되면서 서인 계열 학자들이 산림의 주류를 형성하였는데, 특히 金長生・宋時烈・宋浚吉로 이어지는 노론 계통에서 가장 많은 인물이 배출되었다.(최영성,『한국유학통사・中』, 심산출판사, 2016, 218~225쪽)

를 적극 권유하자 다시 입성한 박세채는 2월 희정당(熙政堂)에서 숙종을 알현하여 건강지도(乾剛之道)를 체득하고, 황극지도(皇極之道)를 세우며, 화이지도(華夷之道)를 변별할 것에 대한 3건의 차자(箚子)를 올렸다. 이후 이조 참의(吏曹參議)에 임명되어 경연에 나가 『심경(心經)』과 『시전(詩傳)』을 강론하였다.

이 시기 박세채의 행보는 노·소론의 파당적 파국을 막기 위한 중재 노력에 집중되어 있었다. 처음으로 황극탕평설(皇極蕩平說)을 주장하여 왕권 강화에 의한 당쟁의 근절과 서인과 남인의 인재에 의한 공조(共助) 체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이이가 제시한 '붕당간의 의리와 인재를 조제(調劑)한다'는 기본원칙을 채택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인과 남인, 그리고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점차 심해지자 박세채 탕평론 동조자들, 소론의 남구만(南九萬)과 최석정(崔錫鼎), 노론의 이여(李畬), 남인 청류당의 정시한(丁時翰) 등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의 탕평파로 뭉칠 수 없었다.[16]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甲戌換局)으로 소론 중심의 정국이 형성되자 그해 박세채는 좌의정에 제수되었고[17] 윤5월 입성하여 정국 수습에 동참했다. 그는 인현왕후 복위를 맞아 당론 소멸을 골자로 하는 4건의 계차(啓箚)를 올렸고[18], 7월에는 붕당 경계 교서를 찬술했다.[19] 11월 주강(晝講)에 임해 동궁(東宮) 서연관(書筵官) 인선(人選)을 청함과 동시에 과거 자신이 진헌하였던 『경연고사』를 다시 볼 것을 권했다.[20]

---

16) 박광용, 『영조와 정조의 나라』, 푸른역사, 2009, 148~152쪽.

17) 『肅宗實錄』 숙종 20년 甲戌(1694) 4월 27일.

18) 『肅宗實錄』 숙종 20년 甲戌(1694) 6월 4일.

19) 『肅宗實錄』 숙종 20년 甲戌(1694) 7월 19일.

20) 『肅宗實錄』 숙종 20년 甲戌(1694) 11월 9일(癸酉). 최초 진헌은 1682년 임술년 9월에 이루어졌으나(『숙종실록』 8년(1682) 9월 21일), 11년 뒤 숙종 20년(1694) 입시 당시 박세채 자신이 이를 1년 차이가 나는 '계해년(1683)'으로 기억하여 발언하고 있다. 진헌 시점에 관해 1년의 간지 착오 내지 자료 간 불일치가 존재한다. 이는 별도의 고증이 필요한 문제로 남겨둔다.

…… 오직 마땅히『대학(大學)』의 도리를 위주로 삼고 옛 선왕들이 전한 바와 옛 현신들이 진술한 바로써 도움을 삼아, 반복하여 짐작하고 헤아려 세속의 이야기에 정체되지 말고 상규에 구애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성상께서 스스로 그 필연의 이치를 보시어 확고하여 바뀌지 않게 단단히 결단하여 행하신다면 대개 이로써 구제하지 못할 바가 없을 것입니다.

…… 신이 일전에 유신들이 신에게 연이어 경연에 참여할 것을 청한 거조에 대하여, 삼가 신의 신사(神思)가 이미 다하여 비록 조정에 있을 때라도 스스로 힘쓸 수 없음을 아룁니다. 다행히 빌건대 신이 예전에 바친『정주경연고사(程朱經筵故事)』를 다시 한 번 성람(聖覽)하여 주시고, 그대로 옥당관(玉堂官)에 내리시어 그 잘못된 부분을 고치게 하신다면, 오늘날 성상께서 학문을 넓히시는 공효와 경연의 신하들이 인도하여 깨우치는 방도가 모두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듯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하신다면 신의 몸은 비록 물러갈지라도 그 실상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법연(法筵)에 모시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21]

그러나 최초 진헌 이후 당쟁 속에서『경연고사』는 정작 홍문관에 11년간이나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2] 그는『경연고사』를 직접 다시 교정하고 홍문관으로 하여금 한 부를 더 베껴 장본(藏本)하도록 청하였다. 1694년(숙종 20) 11월 좌의정 박세채가 주강(晝講)에 입시하여 숙종에게 '『경연고사』를 수시로 살펴보신다면 정주(程朱)가 곁에서 모시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사실은, 그에게 이 저술이 지나간 경연을 복기한 단순 기록물이 아니라 국왕이 정무 현장에서 독선을 견제하고 의사결정을

21) 朴世采,『南溪先生朴文純公文續集』卷6,「筵中講啓」(甲戌 十一月初九日巳時晝講). "…… 惟當以『大學』之道爲主, 而以先聖王之所傳·古賢臣之所陳爲之助, 反復斟量, 不滯於流俗, 不拘於常規, 惟以聖心自見其必然之理, 確乎不易, 斷而行之者, 殆蔑以濟此矣. …… 臣於日者, 儒臣請命臣連次參講之擧, 謹以臣之神思已竭, 雖於在朝之時, 無可自力. 幸乞將臣舊進『程朱經筵故事』, 更賜省覽, 仍下於玉堂官, 改其訛舛, 則今日聖上緝熙之功, 筵臣啓沃之方, 似皆不外於是. 苟其然者, 臣身雖退, 而其實無異於長侍法筵矣."

22)『肅宗實錄』숙종 20년 甲戌(1694) 11월 9일.

내리도록 돕는 정무적 전범의 텍스트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현재 박세채의 『경연고사』는 그의 문집인 『남계집』 정집(正集) 권7에서 권9에 걸친 <소(疏)> 부문에 편제되어 있다. 『경연고사』가 실린 『남계집』 정집은 저자 자신이 1689년 이후 파주에서 자신의 시문을 산정(刪定)하면서 긴중(緊重)한 것과 헐경(歇輕)한 것을 각각 주점(朱點)과 청점(靑點)으로 표시하여 남겨둔 결과이다. 비록 <소> 부문에 대한 편집은 상고할 수 없으나 정집 내 텍스트는 박세채 본인의 1차적 편집일 가능성이 높다. 이후 저자의 유고는 사당(祠堂)에 보관된 수고초본(手稿草本), 본택(本宅) 등사본, 신완(申琓) 등사본, 신축년(1721) 등사본의 네 가지 판본으로 전해지며 최종 간행에 이르렀는데 다만 최종 간행본이 나오기까지 수차례의 등사와 교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노·소론 간의 정치적 갈등에 따른 산삭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23] 다만 그 논란은 주로 회니시비(懷尼是非) 관련 서간이 집중된 외집(外集)·속집(續集), 그리고 윤증·임영(林泳)에게 보낸 <서(書)> 부문에 국한되었고, 경연고사가 실린 정집 <소> 부문(권7~9)이 이러한 정치적 개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24]

이처럼 박세채의 『경연고사』는 17세기 후반 환국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재야 산림의 정치적 출처(出處) 의리를 표명하고 국왕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현실적 방책으로 진헌되었다. 그렇다면 비경연관 신분이었던 박세채가 자신의 정무적 견해를 개진하기 위해 차용한 이 저

23) 「南溪集 해제」, 한국고전종합DB(한국고전번역원).

24) 박세채가 타계한 후 그의 유고를 목판본으로 출간하려는 시도는 노·소론 간의 학술적·정치적 쟁점, 특히 外集에 집중된 懷尼是非 관련 서간의 수록 여부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수차례 난항을 겪었다. 박세채 사후 그 본가가 소론계 문인과 결탁하여 『남계집』 자료를 독점하면서 노론계 문인은 문집 편찬에서 배제되었고, 이는 노론계가 별도로 『남계예설』·『남계연보』를 서둘러 편간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편간 다툼은 단순한 판본 관리 문제가 아니라 박세채의 晩年定論을 둘러싼 도통 해석의 정치적 쟁점과 직결된 것이었다.(진오균, 「숙종대 후반 朴世采 門人의 老少分化와 노론계 道統意識의 형성」, 『조선시대사학보』 105, 조선시대사학회, 2023 참조)

술 양식은 당대 유통되던 일반적인 경연 기록들과 어떠한 제도적·문헌적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16세기 이래 사림의 정계 진출과 함께 전개된 편년체 경연 기록의 기술 양상과, 홍문관을 중심으로 운용되던 '고사(故事)' 문서식 관행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16·17세기 경연 기록군의 전개와 홍문관의 고사(故事)

16세기 이후 사림의 정계 진출에 따라 경연이 중요한 제도로 인식되었다. 조선의 경연은 태조대도 실시되었으나 그 제도적 정비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성종대에 이르러 비로소 확립되었다.[25] 성종대 이후 사관의 경연 입시가 정례화되면서 관찬 사료인 실록의 경연 기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한층 풍부해졌다. 이러한 관찬 기록의 발달과 더불어, 국왕을 면대하여 학문을 강론하고 국정을 논의하는 것을 특별한 경험으로 인식한 지식인들에 의해 개인 경연 기록 또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초기 경연 기록은 저술 주체의 위치와 서술 목적에 따라 다변화되어 나타났다. 이인복은 선조 초년 이전인 16세기 초기의 개인 경연 기록을 저술 주체의 위치와 서술 목적에 따라 세 가지 형식으로 분류하였다. ① 가장사초(家藏史草): 겸임사관(兼任史官)이었던 권벌(權橃)의 『일기』(『충재집(冲齋集)』 외)처럼 날짜·날씨와 함께 경연 시행 여부, 주요 발언, 사론을 기록한 사관의 개인 사초(史草) 양식, ② 사환일기(仕宦日記): 이자(李耔)의 「일록(日錄)」(『음애집(陰崖集)』)과 같이 정형화된 포맷은 없으나 관직 생활 중 경연 당시의 대화와 인물평을 수록한 양식, ③ 경연진계(經筵陳啓): 경연

25) 권연웅(2016), 전게서, 139~163쪽. 그는 태조대부터 세조대까지 사관의 경연 입시가 온전히 정착되지 못하다가 성종대에 이르러 비로소 정례화되었음을 밝히고, 法講으로 불리는 1일 3강의 정비와 經史 교재의 확립 등 경연 방식의 제도적 완비 역시 성종대에 정착되었다고 보았다. 나아가 성종이 유년에 즉위하여 경연을 통해 정국의 이론과 실무를 체득했기에 성년 이후에도 경연을 국정 협의의 핵심 공간으로 활용한 양상을 '경연정치'로 규정하였다.

에서 자신의 발언만을 별도로 정리한 양식. 조광조(趙光祖)와 한충(韓忠)의 「경연진계」(전자는 『정암집(靜菴集)』, 후자는 『송재집(松齋集)』)가 대표적이며, 일기 형태가 아닌 오직 본인의 발언만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초기 경연 기록의 다변화 경향은 이황으로도 이어져, 중종대부터 선조대까지 경연에 참여했던 그는 「술신경연계차(戊申經筵啓箚)」(『퇴계집(退溪集)』)와 「경연강의」를 남기기도 했다. 이인복은 이처럼 16세기 초·중반에 전개된 다양한 양식의 개인 경연 기록들이 향후 선조대 이후 일기체 경연 기록이 본격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상적·장르적 연결고리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26]

여기에 16세기 조선 지식인들이 중국의 경연 기록 모델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정이 더해졌다. 1543년(중종 38) 6월에 『주자대전』이 처음 간행되었으나, 실제로 『주자대전』을 수급할 수 있는 사람들은 드물었을 뿐만 아니라 100권이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원전 전체에 직접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권벌의 『주자대전고의(朱子大全考疑)』(1543), 기대승(奇大升)의 『문록(文錄)』(1557), 이황(李滉)의 『절요(節要)』(1558) 등 주자학의 전파와 함께 원문을 선집하는 다양한 편집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27] 조선 지식인들은 주희의 서찰을 중심으로 입문 체계를 세우는 한편, 경연과 관련해서는 『주자대전』 권15에 수록된 주희의 『대학』 강의 내용에 주목하였다. 이에 김인후(金麟厚)는 1549년(명종 4) 『주자경연강의(朱子經筵講義)』를 별도로 편차한 뒤 간행하였으며, 1559년에는 전주 부윤(全州府尹) 송순(宋純)이 진덕수(陳德秀)의 『대학강의(大學講義)』에서 선집한 「진서산경연강의(眞西山經筵講義)」와 주희의 경연 강의를 합각하여 재간행하면서 보다 널리 읽히게 되었다. 이처럼 16세기 성리학 지식인들은 개인적

26) 이인복(2022) 전게 논문, 16~26쪽.

27) 이향준, 「한국 성리학의 해석학적 발전 -『朱子大全』의 주석서를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25, 율곡학회, 2012, 134~136쪽.

학문 수양을 위한 서찰류 외에도 국정 운영과 군주 교육에 직결되는 경연 기록들을 별도로 보급함으로써 주자학 수용의 저변을 다각도로 확대해 나갔다.[28]

사림이 중앙 정계를 주도하기 시작한 선조대에 이르러서는 탁월한 경연관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경연 관련 저술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 시기 경연관으로 참여했던 이이의 『경연일기』, 유희춘의 「경연일기」, 기대승의 『논사록(論思錄)』 등은 모두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대표적인 기록들이다.[29] 그러나 기존 이이나 유희춘의 일기는 조정의 정치적 쟁점이나 개인적 일상이 혼재되어 있어 엄밀한 의미의 경연 중심 일기는 아녔다.

반면 선조대 김우옹(金宇顒)이 저술한 「경연강의」(『동강집(東岡集)』)는 외부 요소를 배제하고 경연이라는 단독 주제만을 일기체 형식으로 직접 정리하여 이후의 '경연일기' 양식을 확립한 비교적 이른 시기의 사례이다.[30] 「경연강의」는 대체로 [연월일 – 경연 방식(朝講・晝講・夕講・召對・夜對) – 장소 – 교재 및 진강 범위 – 참석자 명단]을 앞세운 뒤 [교재 진강 내용 및 국정 현안 토론]을 대화체로 서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31]

---

28) 최경훈, 「조선시대 『주자대전』 선집서의 간행과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권 2호, 한국문헌정보학회, 2020, 440쪽.

29) 김태완, 『경연, 왕의 공부』, 역사비평사, 2011, 204~207쪽; 296~301쪽.

30) 이인복, 「金宇顒의 「經筵講義」의 저술과 특징」, 『조선시대사학보』 99, 조선시대사학회, 2021, 231~232쪽. 그는 김우옹에 의해 확립된 글쓰기 포맷은 16세기 후반 이후 사대부 사회로 급격히 확산되었다고 보았다. 박이장의 『筵說』, 이준의 『經筵手記』, 정경세의 『經筵日記』, 최현의 『經筵講義』, 이식의 『經筵日記』 등 다양한 정치적・학술적 주체들에 의해 다채로운 제목과 양식의 경연일기가 유행하였고, 이는 점차 지식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글쓰기 양식으로 정착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31) 박세채는 김우옹의 「경연강의」에 있는 李珥의 발언과 그것을 비판한 글을 모두 1684년(숙종 10)에 간행된 『栗谷別集』에 편집하여 수록하였다. 비록 이 과정에서 송시열이나 林泳 등 서인・노론 학자들로부터 편파적인 기록을 섞어 실었다는 비판과 함께 쟁점 조항을 삭제・산삭하라는 당론의 압박을 받기도 하였다.(이경동, 「조선후기 율곡 이이 문집 편찬의 추이와 의의」, 『유학연구』 52,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한편 박세채 역시 『경연고사』와 별개로 이러한 일기체 경연 기록을 직접 남긴 바 있다. 그가 자신의 문집인 『남계집』 권17에서 권18에 걸쳐 편제한 「연중강계(筵中講啓)」가 그것이다. 이는 실제 경연석상의 경험을 사후에 채록한 경연일기류 산문이다. 「연중강계」는 1682~1683년과 1688년의 희정당(熙政堂)·선정전(宣政殿) 인견(引見), 소대(召對), 경연(經筵) 및 1687년 장릉(長陵) 행궁에서의 인견 내용을 연대순으로 편차한 서술로 숙종과의 대화 형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32] 특히 박세채의 「연중강계」에 수록된 구체적인 내용은 『숙종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 당대의 관찬 사료에는 누락되어 있거나 축약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관찬 사료의 공백을 보완하는 사료적 가치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일기체 경연 기록들과는 별도로, 홍문관(弘文館)에는 정강일(停講日, 경연을 쉬는 날)에 상·하번 시독관(侍讀官)이 국조(國朝)의 미사(美事)나 역대 제왕과 명신의 언행을 초록하여 국왕에게 정납(呈納)하는 '고사(故事)' 형식의 공적 문서 관행이 이미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다.

『홍문관지(弘文館志)』에 수록된 「고사식(故事式)」 규정에 따르면, 관원이 선현의 고사를 가려 뽑아 올릴 때 마음에 품은 소회가 있어 옛 고사 중 남은 뜻[餘義]을 이끌어 내어 따로 한 단락의 글을 지어 덧붙이고자 할 경우에는, 머리말에 반드시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臣謹按] 운운"이라는 표식을 넣어 안설(按說)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단자(單子)는 세 번 접어 첩(帖)의 형태로 만들고, 말미에 연월을 적은 뒤 그 아래에 상·하번 관원의 이름을 차례로 열서하되, 직함은 수찬을 '검토관(檢討官)', 교리를 '시독관(侍讀官)'이라 칭하는 등 경연의 직함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나아가 국왕의 전교에 따라 고사를 추려 올리거나 담당 관원을 추천·낙

2020)

32) 朴世采, 『南溪先生朴文純公文正集』 卷17·18, 「筵中講啓」.

점하는 호망(呼望) 절차 역시 정규 공문서인 '초기(草記)'의 식례를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33] 즉, 고사는 단순한 독서 메모나 사적 감상이 아니라, 지면의 접기 방식[三折作帖]부터 관직 표기, 행정 절차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규격을 갖춘 홍문관의 정례화된 공적 행정 문서 양식이었다.

이와 함께 「고사식」 바로 뒤에 이어 나오는 「박고식(博考式)」 규정 역시 고사와 상호 보완 관계를 이루던 홍문관의 중요한 제도적 기능을 보여준다.

> 조정에서 전례(典禮)나 의장(儀章, 의전 규범과 복제)에 대해 모름지기 상고하여 구명해야 할 사안이 있을 때에는, 임금으로부터 홍문관에 경사(經史)를 널리 상고하라는 하교가 내린다.
>
> 명이 내려진 후 승정원에서 기리(寄吏: 배속 서리)를 불러 분부하면, 기리는 상교(전교 내용)를 등사하여 입번한 책리(冊吏)에게 전해 보이고, 입번 관원에게 고하여 품의해 알린다.
>
> 그때그때 사안을 배분하여 정하고, 집에 머물고 있는[在家] 여러 관원에게도 (참석하러) 나아갈지 여부를 품의해 알린 뒤, 본관(홍문관)에 일제히 모인다. 여러 서적 중에서 의거할 만한 근거 조목들을 널리 상고해 뽑아내어 초안을 잡고, 이를 초기(草記)로써 성상께 상달한다.[34]

즉, 조정에 전례나 의전 등 제도적 규범에 관한 고증이 요구될 때 국왕

---

33) 『弘文館志』(奎3127) 卷1, 「故事式」. "於停講日, 上下番取國朝美事及歷代帝王治政·名臣碩儒奏語一段或數段, 正書呈納. 如有所懷, 演出古事中餘義, 別成一段文字, 頭辭必曰: "臣謹按云云." [019a 상단]單子則三折作帖, 末端書年月, 其下列書上下番. 職銜則用經筵, 如修撰則云檢討官, 校理則云侍讀官. 因傳敎進呈·呼望等事, 與草記同. 傳敎文義及講讀, 依前事例進呈者, 亦名故事, 進呈·呼望與故事同."

34) 『弘文館志』(奎3127) 卷1, 「博考式」. "朝家如有典禮·儀章須行考究之事, 則自上有令玉堂博考經史之敎. 命下後, 政院招寄吏分付, 則寄吏謄示上敎于入番冊吏, 告入番稟知. 隨時以分排, 稟知進不進於在家諸員, 齊會本館, 博考出諸書可據處, 出草以草記陳達."

의 하교에 따라 홍문관 관원들이 동원되어 경사를 널리 상고[博考]하고 이를 홍문관 명의의 초기로 상달하는 집단적 연구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다. '고사'가 정강일에 홍문관 관원이 역사적 전범을 초록·헌상하며 정무적 소회를 개진하는 일상적 업무였다면, '박고'는 조정의 공식 요청에 따라 관서 차원에서 전례를 고증하는 연구 업무였다. 양자는 구체적인 절차와 발의 성격은 다르지만, '홍문관이 경사(經史)의 역사적 전범을 상시적으로 수집·정리·가공하여 왕정의 현장에 조달하는 제도적 기구였다'는 동일한 제도적 기반 위에 놓여 있었다. 『홍문관지』가 「고사식」과 「박고식」을 나란히 편제한 것도 그러한 기능적 연관성을 방증한다.

홍문관의 이와 같은 문서식이 언제 확립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현전하는 관찬지 가운데 최창대(崔昌大, 1669~1720)가 편찬하고 이종성(李宗城)이 증보한 『홍문관지』(규 3127)가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늦어도 숙종 연간 말기에는 관련 제도와 문서 규정이 체계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박세채가 『경연고사』를 진헌한 시기(1682년)에 김창협(金昌協)이 홍문관 수찬으로 1683년(숙종 9) 7월 5일에 올린 「옥당고사(玉堂故事)」(『농암집』)[35]와 같은 실례가 확인된다. 이는 정강일에 선현의 언행을 뽑아 '고사'를 지어 올리는 행위가 박세채의 개인적 저술 이전부터 이미 홍문관의 공적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실증한다.[36]

다만 박세채는 당시 정식 경연관의 직임을 띠지 않았기에 관서 차원의 공적 '옥당고사'를 직접 정납할 수 없었다. 이에 그는 명나라 진진성의 '포의 진헌' 고사를 명분 삼아 재야 산림으로서 저술을 올릴 정치적 정당성을

35) 金昌協, 『農巖集』 卷10, 「玉堂故事」.

36) 본고의 초고에서는 박세채가 『정주경연고사』를 통해 '고사' 양식을 체계화하고 이것이 훗날 관각의 제도적 규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심사위원이 제시한 사료적 단서를 적극 수용하여 선후 관계를 바로잡았다. 즉, 본 절의 논의는 기왕에 확립되어 있던 홍문관의 공적 문서 관행을 박세채가 山林의 정치적 위상과 목적에 맞추어 원용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심사위원의 혜안을 바탕으로 수정·보완된 것임을 밝히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

확보하는 한편, 글쓰기의 형식에 있어서는 조정에서 공적 권위를 확보하고 있던 홍문관의 '고사' 문서식을 원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고사'의 정치적 기능은 후대의 실례에서도 뚜렷이 확인된다. 일례로 영조가 이석표(李錫孝)의 공술 사건에 대한 불만으로 5~6일간 법강(法講)과 소대(召對)를 전면 중단하자, 홍문관 관원들이 즉각 역사적 전례를 정리한 경연고사를 써서 올리며 시위를 벌였다.

> 옥당(玉堂) 이종백(李宗白)·이만유(李萬維) 등이『경연고사(經筵故事)』를 써서 올리니, 비답하기를 "수일(數日)을 철강(撤講)하게 되어도 마음에 항시 두려웠었는데, 하물며 까닭없이 법강(法講)과 소대(召對)를 5, 6일이나 아울러 거행하지 못한 것이겠는가? 대강(對講)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일전에 장전(帳殿)에서 이미 대신들에게 일렀는데, 내가 비록 정성이 모자라기는 하지만 어찌 형식으로 하겠으며, 또한 어찌 이런 일을 즐겨서 하겠느냐?"라고 하였다. 이튿날 이종백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장전에서 신료들을 면대하겠다는 하교가 없었으니, 전하께서 이에 대해서 실언하신 것입니다. 세 차례의 법강과 두 차례의 소대를 한결같이 폐각(廢閣)하셨으니, 밥 먹을 때 목이 메어 먹지 아니하는 것[因噎廢食]과 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위태로운 국세(國勢)를 유지해 가야 하고 문란(紊亂)해진 세상의 도의를 만회해 가야 하는 일이 어느 것이나 전하 한 몸의 책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전하께서 이러하시니, 달리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37]

당시 영조는 "철강하게 되어도 마음에 항상 두려웠다."라며 변명 섞인 비답을 내렸으나, 이종백과 이만유 등은 물러서지 않고 "세 차례의 법강과

37) 인용된 국역문은 국사편찬위원회『조선왕조실록』을 기반으로 하되, 본고의 맥락에 맞추어 필자가 潤文하였음.『英祖實錄』영조 5년 己酉(1729) 8월 9일(辛亥). "玉堂李宗白·李萬維等, 書進『經筵故事』, 批曰, '數日撤講, 心常惕焉, 況無故而法講·召對, 五六日幷未爲者乎? 欲爲對講, 心則切矣. 日昨帳殿, 已諭大臣, 予雖誠淺, 豈文具爲也, 亦豈樂爲哉?' 翌日, 宗白等上箚言, '帳殿無面對臣僚之敎, 殿下於是乎失言矣. 三講兩對, 一任廢閣, 毋或近於因噎而廢食乎? 維持岌嶪之國勢, 挽回澆漓之世道, 何莫非殿下一身之責, 而殿下如此, 他尙何恃?'"

두 차례의 소대를 한결같이 폐각하셨으니, 이는 밥 먹을 때 목이 메어 먹지 아니하는 것[因噎廢食]과 같다."라고 국왕의 실언과 독선을 비판했다. 이처럼 '성군들의 중단 없는 경연 선례를 담은 경연고사'는 국왕의 자의적인 정치적 태업을 지적하고 소통 재개를 강제하는 언론 활동의 무기로 기능했다.

그렇다면 비경연관 신분이었던 박세채가 원용한 이 '고사'라는 관각의 문서식은, 『정주경연고사』라는 텍스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배열되고 확장되었는가? 나아가 그는 단순한 단편적 전범 초록에 머물던 기존의 서식을 넘어 정이와 주희라는 도학 종장의 언행을 어떠한 내적 논리로 편차하고, 이를 조선의 정치 현실과 어떻게 대응시켰는가?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경연고사』의 구체적인 편찬 체재와 비례(比例)의 서술 구조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 『정주경연고사』의 편차 체재와 서술 방식

(1) 자료의 재구성과 편제의 논리
: 정이·주희 경연 자료의 선별과 배열

박세채가 구성한 『경연고사』 권7에서 권9까지의 편제는 송대 도학자들의 자료 초록(抄錄)이나 연대기적 나열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편찬 행위는 단순한 자료의 수집을 넘어, 송대의 전범이 되는 텍스트를 독자적인 시선으로 선별하고 재배열함으로써 편자 자신의 정치적·사상적 문제의식을 드러낸 자료의 재구성이자 편제의 논리가 작동한 결과물이다. 그는 정이(程頤)와 주희(朱熹)라는 도학의 양대 종장이 남긴 경연 관련 차자(箚子), 강의록(講義錄), 어록(語錄) 등을 의도적인 서술적 맥락에 따라 재배치하였다.

박세채의 선집 논리는 1) 도학자의 정치적 위상과 출사 규범을 정립하는 '개설적 총론(출사 규범)', 2) 좌강(坐講)의 복원과 경연 공간 정비를 통해 군주의 일상 환경을 통제하는 '경연 체제와 공간의 제도화(운영과 공간)', 3)『대학』강의록을 삼강령팔조목(三綱領八條目)의 순서에 따라 배열하여 왕의 기질 변화를 촉구하는 '경서 강독을 통한 심성 수양(내면화와 수양)', 그리고 4) 재이(災異)에 맞선 간쟁과 상복(喪服) 및 부묘(祔廟)의 의리론을 다룬 '시무와 예제의 구현(실천적 적용)'이라는 점층적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아래는 권7부터 권9까지의 편집 구조와 자료 배치를 정리한 표이다.

<표 1>『경연고사』권7~권9의 편집 구조와 자료 배치

번호	항목명	貼黃[38]	臣世采按	出典
卷7-1	(序)	-	○	-
卷7-2	論經筵箚子[一]	○	-	『伊川先生文集』卷2
卷7-3	論經筵箚子[二]	○	-	『伊川先生文集』卷2
卷7-4	論經筵箚子[三]	○	○	『伊川先生文集』卷2
卷7-5	乞六參日上殿箚子	-	-	『伊川先生文集』卷2
卷7-6	三學看詳文	-	○	『伊川先生文集』卷3
卷7-7	上太皇太后書	-	○	『伊川先生文集』卷2
卷7-8	語錄	-	-	『性理羣書句解』卷21
卷7-9	年譜	-	○	『二程遺書』卷19
卷7-10	論冬至稱賀箚子	○	-	『伊川先生文集』卷2
卷7-11	又上太皇太后疏	-	-	『伊川先生文集』卷2
卷7-12	乞就寬涼處講讀奏伏	-	-	『伊川先生文集』卷2
卷7-13	又上太皇太后書	○	○	『伊川先生文集』卷2
卷7-14	論開樂御宴奏狀	-	○	『伊川先生文集』卷3
卷8-1	(序)	-	○	-
卷8-2	甲寅行宮便殿奏箚[一]	-	○	『晦庵先生朱文公文集』卷14

卷8-3	甲寅行宮便殿奏箚[二]	-	○	『晦庵先生朱文公文集』卷14
卷8-4	山陵議狀	-	○	『晦庵先生朱文公文集』卷15
卷8-5	經筵講義 大學[十月辛丑始講自經首止第三節]	-	○	『晦庵先生朱文公文集』卷15
卷8-6	年譜	-	-	『朱子年譜』卷4
卷8-7	經筵講義 大學[乙巳晩講自第四節止第六節]	-	○	『晦庵先生朱文公文集』卷15
卷8-8	乞進德箚子	○	○	『晦庵先生朱文公文集』卷14
卷8-9	乞不以假故逐日進講箚子	-	○	『晦庵先生朱文公文集』卷14
卷8-10	乞差官看詳封事箚子	-	○	『晦庵先生朱文公文集』卷14
卷8-11	乞瑞慶節不受賀箚子	○	-	『晦庵先生朱文公文集』卷14
卷9-1	經筵講義 大學[庚戌講傳首章]	-	○	『晦庵先生朱文公文集』卷15
卷9-2	經筵留身面陳四事箚子	-	○	『晦庵先生朱文公文集』卷14
卷9-3	經筵講義 大學[閏十月戊午朔晩講傳二章]	-	○	『晦庵先生朱文公文集』卷15
卷9-4	年譜	-	-	『朱子年譜』卷4
卷9-5	經筵講義 大學[庚申早講傳三章]	-	○	『晦庵先生朱文公文集』卷15
卷9-6	論災異箚子	-	-	『晦庵先生朱文公文集』卷14
卷9-7	乞令看詳官面奏箚	-	-	『晦庵先生朱文公文集』卷14
卷9-8	經筵講義 大學[辛酉晩講傳四章止五章]	-	○	『晦庵先生朱文公文集』卷15
卷9-9	乞討論喪服箚子	-	○	『晦庵先生朱文公文集』卷14
卷9-10	面奏祧廟箚子	-	○	『晦庵先生朱文公文集』卷14
卷9-11	經筵講義 大學[丙戌晩講傳六章]	-	○	『晦庵先生朱文公文集』卷15
卷9-12	乞修三禮箚子	-	○	『晦庵先生朱文公文集』卷14

38) 貼黃은 상소나 절목을 완성한 후 미진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문서 끝에 누런 종이를 붙여 敷衍하는 행위 또는 그 문서를 말한다. 궁중의 은미한 일이나 국왕의 과실을 간할 때 밀봉하여 올리는 비밀 상소의 형태로도 쓰였으나, 정이와 주희의 첩황은 본문을 부연 설명하는 성격을 지닌다.

『경연고사』는 총 3권(권7~9)의 편제를 취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정이의 경연을 다룬 권7과 주희의 경연을 다룬 권8·9의 두 부분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세채는 권7과 권8의 첫머리에 정이와 주희가 조정의 부름을 받아 경연관으로 출사하는 전말을 각각 전면 배치하는 구성을 취하였다. 정이는 북송 철종(哲宗) 원우(元祐) 원년(1086) 여름 4월 숭정전 설서(崇政殿說書), 주희는 남송 영종(寧宗) 소희(紹熙) 5년(1194) 7월 환장각 대제 겸 시강(煥章閣待制兼侍講)으로 임명되었다. 첫머리에 배치된 이 고사는 비록 그들이 관직에 매여 있던 인물이 아니었음에도 도학적 정당성을 쥐고 중앙 정계에 진입한 사건이다.

> 송나라 철종(哲宗) 원우(元祐) 원년(1086) 여름 4월에 정이(程頤)를 불러 숭정전 설서(崇政殿說書)로 삼았다. …… 치평(治平)과 원풍(元豐) 연간에 대신들이 여러 번 천거했으나 모두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사마광(司馬光)과 여공저(呂公著)가 함께 그의 행실과 의리를 소(疏)에 올리기를 "엎드려 보건대 하남(河南)의 처사(處士) 정이는 학문에 힘쓰고 옛것을 좋아하며, 가난함을 편안히 여기고 지조를 지키며, 말은 반드시 충성되고 신의가 있고 행동은 예법을 준수합니다. 나이가 쉰이 넘었으나 벼슬길에 나아가기를 구하지 않으니 참으로 유학자의 높은 자취요, 성스러운 시대의 일민(逸民)입니다. 바라건대 차례를 뛰어넘어 발탁하시어 선비들이 본받고 본보기로 삼을 바가 있게 하소서."라고 하였다.[39]

> 소희(紹熙) 5년(1194) 7월에 영종(寧宗)이 즉위하였다. 8월에 주희(朱熹)를 불러 이르자 환장각 대제 겸 시강(煥章閣待制兼侍講)으로 삼았다. …… 이보다 앞서 황상(黃裳)이 가왕부 익선(嘉王府翊善)이 되었을 때, 임금[孝宗]이 그에게 유시(諭示)하기를 "가왕(嘉王, 당시의 영종)이 학문에 나아간

39) 『南溪先生朴文純公文正集』 卷7, <疏>, 「序」. "宋哲宗元祐元年夏四月, 召程頤爲崇政殿說書. …… 治平·元豐間, 大臣屢薦, 皆不起. 至是, 司馬光·呂公著共疏其行義曰, '伏見河南處士程頤, 力學好古, 安貧守節, 言必忠信, 動遵禮法. 年踰五十, 不求仕進, 眞儒者之高蹈, 聖世之逸民. 望擢以不次, 使士類有所矜式.'"

> 것은 모두 경의 공로이다."라고 하니, 황상이 사양하며 말하기를 "만약 덕성에 나아가고 학업을 닦아[進德修業] 옛 선왕들의 자취를 좇고자 하신다면, 마땅히 천하에서 첫 번째 가는 인물을 찾으셔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그가 누구냐고 묻자 황상이 주희로 대답하였다. 팽구년(彭龜年)이 가왕부직강(嘉王府直講)이 되어, '노장공(魯莊公)이 그 어머니를 제어하지 못했다'는 대목을 강론하다가 말하기를 "어머니는 통제할 수 없으니, 마땅히 그 곁에서 모시는 시종들[侍御僕從]을 통제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이것은 누구의 설인가?"하고 묻자, "주희의 설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40]

정이와 주희는 대신들의 천거로 경연관으로 발탁되었으나 사직을 거듭하다가 마지못해 경연에 나아가 군주의 기치와 규범을 세웠다. 박세채는 이들의 일화를 첫머리에 제시하여 제왕을 교육하는 신하의 위치가 단순한 관료적 복종이 아닌 '도(道)의 전수자'라는 당당한 권위에서 출발함을 명시하고자 했다. 이처럼 텍스트 서두에 출사 전말을 다룬 연표와 조항을 의도적으로 전면 배열한 편집 원리 자체가, 당대 산림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던 박세채의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권7의 내용은 경연의 운영 체계와 공간에 대한 '제도화'를 다룬다. 권7의 전반부(권7-2~7-6)에 배치된 정이의 차자들은 10세의 어린 철종 황제를 보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경연 제도를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현명한 사대부를 가까이하고 환관과 궁녀를 멀리하는 '함양훈도(涵養薰陶)'를 건의하며 경연 후 강관의 교대 숙직을 요청한 대목(권7-2), 고대 삼대의 사·부·보(師·傅·保) 제도를 본받아 군주의

---

40) 『南溪先生朴文純公文正集』 卷8, <疏>, 「序」. "紹熙五年七月, 寧宗卽位. 八月, 召朱熹至, 以爲煥章閣待制兼侍講 …… 先是, 黃裳爲嘉王府翊善, 上諭之曰, '嘉王[주:寧宗時爲嘉王]進學, 皆卿之功.' 裳謝曰, '若欲進德修業, 追跡古先哲王, 則須尋天下第一等人.' 上問爲誰, 裳以熹對. 彭龜年爲嘉王府直講, 因講'魯莊公不能制其母', 云, '母不可制, 當制其侍御僕從.' 王問, '此誰之說?' 對曰, '朱熹之說也.'"

주변 인물을 엄격히 제한하고 사치를 경계함으로써 덕의(德義)를 기르고 신체를 보호해야 함을 주장한 대목(권7-3)이 대표적이다. 특히 예법에 어긋나게 경연관이 홀로 서서 강의하는 강자독립(講者獨立)을 배격하고, 학문 앞에서는 군주와 신하가 스승과 제자의 격식으로 마주 앉아야 한다는 '좌강(坐講)'의 복원을 청한 대목(권7-4)은 제도의 왜곡을 근본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나아가 무더위로 인해 여름부터 중추(仲秋)까지 수개월 동안 경연이 무력하게 중단되는 관행을 비판하며 이 기간에도 육참일(六參日)의 면대(面對)를 통해 접견을 유지할 것을 청하거나(권7-5), 과거 시험의 석차 경쟁 대신 '과(課)'로 고쳐 대면 지도 중심의 교육 체계를 세우고 인재를 천거해야 한다고 논한 것(권7-6) 역시 제도적 보완책에 해당한다.

박세채는 후반부(권7-7~7-14)에서 정이가 태황태후에게 올린 서한들을 통해 강학 공간의 이동과 일상의 통제를 요구한다. 정이는 좁고 무더운 이영각(邇英閣) 대신 넓고 시원한 연화전(延和殿)으로 경연 장소를 옮기도록 촉구하고(권7-7, 7-12), 수렴청정 중인 태황태후가 정무를 마치고 당일의 경연관을 발을 내린 염전(簾前)으로 직접 불러 황제의 학업 성과를 점검하게 하는 대안(권7-11)을 제시한다. 여기에 황제가 무심코 개미를 피하려 물을 뱉거나 버들가지를 꺾는 사소한 언동까지 놓치지 않고 훈계한 일상 통제(권7-8, 7-9), 그리고 선황의 상중(喪中)에 맞이한 동지 하례나 궁중 어연(御宴)을 저지하는 의례적 규제(권7-10, 7-14)를 배치하였다.

> 신 박세채가 살피건대, …… 그(정이)가 함양하고 훈도하는 방법을 논하면서 "어진 사대부를 친근히 하는 시간은 많게 하고, 환관과 궁녀를 친근히 하는 시간은 적게 해야 한다."라고 한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요체입니다. …… 하물며 제왕은 숭고한 지위로 구중궁궐에 처하여, 접하는 것은 후궁들의 화려한 안색이요, 듣는 것은 아첨하고 유순하게 속이는 말뿐입니다. 이와 같다면 과실을 어찌 들을 수 있으며 덕은 어떻게 닦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더욱 어진 이를 친근히 하고 선비를 예우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아야 합니다.

……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아침저녁으로 친밀하게 모시며 마음을 열어 계도하고 바로잡아 주어 극진히 하지 않음이 없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군주가) 보는 것은 바르고 곧으며 공경하는 모습이 아님이 없을 것이요, 듣는 것은 인의도덕의 학설이 아님이 없을 것입니다. …… 이와 같이 해야만 과연 마침내 기질이 변화하고 덕성과 기량이 완성되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이른바 함양하고 훈도하는 방법을 얻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41)

이처럼 박세채는 정이의 언행과 상소를 선별 배치함으로써, 경연이란 단지 하루 몇 시간의 형식화된 강독 시간이 아니라 군주의 일상 공간과 물리적 환경 전체를 도학적 규범으로 포위하고 구속해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경연의 운영과 공간을 제시하였다.

이어지는 권8과 권9는 군주의 내면적 성찰과 심성 수양의 체계를 심화하는 '경서 강독'의 논리를 담고 있다. 박세채는 주희의 경연 자료 중에서도 특히 『대학(大學)』 강의록(권8-5, 8-7, 권9-1, 9-3, 9-5, 9-8, 9-11)을 삼강령팔조목(三綱領八條目)의 학업 순서에 맞추어 유기적으로 안배하였다. 그리고 주희가 차자(권8-3)에서 밝힌 명명덕・신민・지어지선에서 출발하여, 격물치지와 성의(誠意)・신독(愼獨)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제왕학의 근본 요체로 규정하였다.

박세채는 안설을 통해 주희의 이 궁리・거경 차자가 신하가 군주에게 올릴 수 있는 최고의 격언임을 밝히고, 조선 왕실에서도 이 차자를 별도로 등사하여 내전(內殿)에 들여놓고 성람(聖覽)하도록 했던 선례를 언급하며

41) 『南溪先生朴文純公文正集』 卷7, <疏>, 「論經筵箚子[一]」. "臣世采按, …… 其論涵養薰陶之術曰, '親賢士大夫之時多, 親寺人宮女之時少'者, 最爲樞要. …… 況乎帝王以崇高之位, 處於九重, 所接者嬪御華采之色, 所聽者便嬖柔佞之言. 如是而過何由聞, 德何由修? 是故尤當以親賢禮士爲急. …… 使之朝夕昵侍, 啓沃獻替, 靡有不用其極, 則所見者莫非正直恭敬之容, 所聞者莫非仁義道德之說. …… 如是而果能終底于氣質變化, 德器成就之域者, 所謂涵養薰陶之術得矣."

국왕이 성학의 급선무를 올바르게 포착한 조치였다고 높이 평가하였다.[42] 나아가 주희가 경연에서 성탕(成湯)의 반명(盤銘)과 무왕(武王)의 단서(丹書)를 인용하며 임금의 방심(放心)을 경계한 대목(권9-4)을 끌어오고, 수신(脩身)이 군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천하만사의 근본임을 밝힌 강의를 연속 배치했다. 이는 군주의 마음이 곧 정사의 표준이 되므로 철저한 입지(立志)와 극기(克己)를 통해 타고난 기질을 변화[變化氣質]시켜야 한다는 도학적 군주 수양론의 절차를 텍스트 배열 자체로 증명한 것이다.

마지막 부분은 이러한 학문적 심화가 현실의 정치로 결합하는 '실천적 적용'의 배치이다. 박세채는 단순한 경전 주해를 넘어 절검과 효도, 기강 확립 및 산릉(山陵)의 택지 문제까지 포괄하여 간한 차자(권9-2), 천인감응(天人感應)의 논리에 의거해 도성 내 검은 연기가 자욱했던 국가적 재이에 맞서 국왕의 공구수덕(恐懼修德)을 촉구한 차자(권9-6), 백성들이 올린 상소인 봉사(封事)를 경연에서 관원을 차출해 실무적으로 검토하라는 제안(권8-10, 권9-7) 등을 연속 배치하였다. 특히 권9-2에서 제기된 산릉의 문제는, 영종이 조부인 효종의 상을 당해 적손(嫡孫)으로서 3년 복을 입어야 함을 주장한 상복 차자(권9-9)와 부묘(祔廟) 시 희조(熙祖)의 신주를 체천(遞遷)하지 말 것을 청하며 도상(圖像)까지 그려 올렸던 차자(권9-10)로 이어지며 상장례와 종통(宗統)이라는 종법적 의리 문제로 심화된다.

박세채는 이 거상(居喪)과 전례의 고증들을 권9의 종결부에 배치함으로써, 경연을 통해 축적된 제왕의 실심(實心)과 실덕(實德)이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대륜과 예법을 바로 세우는 실천적 치도로 귀결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다만 이 의리의 절대성은 역사적 관철 여부와는 별개의 층위에

42)『南溪先生朴文純公文正集』卷8, <疏>, 「甲寅行宮便殿奏箚[二]」. "臣世采竊惟, 古今人臣, 能以聖學要道, 指陳於君上, 而明白切實, 上下皆通, 未有如此箚者. 亦嘗聞往歲殿下因筵臣進言, 遂命別寫一通入內, 以備省覽, 可謂得爲學之先務也."

서 다루어진다.

신 박세채가 살펴보건대, 『속강목(續綱目)』에 '효종황제(孝宗皇帝)의 상을 3년 동안 행하도록 조서를 내렸으니, 주희의 말을 쓴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주자연보』를 살펴보건대, '예율(禮律)을 상주하여 아뢰기를, 적손(嫡孫)이 승중(承重)하면 참최(斬衰) 3년이라 하니, 예관(禮官)에게 토론하라고 조서를 내렸으나 뒤에 결국 시행되지 못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송사(宋史)』「호굉전(胡紘傳)」에는 또 이르기를 '영종(寧宗)이 효종의 적손으로서 3년의 복을 행하려 하자, 호굉이 말하기를 "오직 마땅히 기년복(期年服, 1년복)만 입어야 합니다."라고 하니, 조서를 내려 논의를 모아 복을 벗게[釋服] 하였다. 이에 호굉의 말을 따랐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준하여 보면 『속강목』의 학설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개 이른바 승중의 복[承重之服]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여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 할아버지의 상복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광종(光宗)이 병을 칭탁하고 나오지 않아 효종의 상에 끝내 정당한 상주[正主]가 없게 만들었으니, 그렇다면 비록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경우는 아닐지라도 의리상 마땅히 대대로 그를 위해 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니, 이것이 주자 차자(箚子)의 본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곁에서 증명할 만한 다른 학설이 없었고, 오직 예경(禮經)의 승중이라는 문구에 의거하여 말했을 뿐이므로 이른바 의리로부터 일으킨 자[義起者]에 거의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상(趙商)과 정현(鄭玄)의 문답을 얻어보니 이것과 일일이 서로 부합하였으므로 마침내 정론(定論)이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능히 대륜(大倫)을 붙들어 세우고 대통(大統)을 밝혔으니, 만세토록 바꾸지 않을 큰 법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이른바 대략적인 것에 기인하여 상세함에 이르고 옛것을 미루어 새것을 만들며, 이미 지나간 자취에 자질구레하게 얽매이지 않고 능히 선왕의 뜻에 합치된 자라고 말할 만합니다. 아, 현명하십니다! 다만 당시의 임금(영종)이 끝내 호굉의 말을 수용하여 그 이미 바로잡힌 상기의 법도[喪紀]를 폐지되어 떨어지고 떨치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 허물을 또한 가히 볼 수 있습니다. 엎드려 성상의 조명(照明)을 청합니다.[43]

『경연고사』 권9-9의 안설에서 박세채는 세 종류의 사료를 교차 대조함으로써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였다. 『속강목』은 효종의 상에 주희의 3년복 건의가 처음 수용된 사실만 기록했으나, 박세채는 『주자연보』와 『송사』 「호굉전」을 대조하여 주희의 의리가 끝내 관철되지 못하고 호굉의 기년복(期年服) 주장으로 변경되었음을 밝혀내어 『속강목』의 내용을 보충하였다.

결과적으로 주희가 정립하려 했던 3년복의 예론은 영종이 호굉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현실 정치에서 좌절되고 말았다. 그러나 광종이 효종의 상중임에도 병을 핑계로 상주의 책무를 방기한 변례(變禮)의 상황에서 주희는 명문화된 기존 『예경』에 조문이 부재함에도 도학적 의리에 입각하여 손자인 영종이 대행해 3년의 참최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창한 것이었다. 이는 당대에 다소 무리하게 의리에 비추어 해석한 것[義起]처럼 여겨졌으나, 훗날 정현(鄭玄)의 주석과 부합함이 입증되면서 조선 성리학에서는 불변의 정론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주희가 천명한 의리의 가치를 감쇄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군주의 그릇된 판단에 따라 대륜이 훼손될 수 있는 현실 정치의 취약성을 반증하는 역설적인 감계(鑑戒)로 기능한다. 즉, 박세채가 텍스트의 종결부에서 강조하는 바는 그 의리가 역사적 현실 속에서 매번 승리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당대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군주가 지켜내야 할 '절대적 규범의 표준'인 것이다.

이렇듯 송대 선현들의 텍스트를 4단계에 걸쳐 선별하고 배열함으로써

43) 『南溪先生朴文純公文正集』 卷9, <疏>, 「乞討論喪服箚子」. "臣世采按, 『續綱目』, '詔行孝宗皇帝喪三年, 用朱熹言也.' 又按, 『朱子年譜』, '奏禮律, 嫡孫承重斬衰三年, 詔禮官討論, 後不果行.' 『宋史』 <胡紘傳> 又曰, '寧宗以孝宗嫡孫, 行三年服. 紘言, '止當服期.' 詔集議釋服. 於是從紘.' 準此, 『綱目』之說誤矣. 蓋所謂承重之服者, 謂父先亡, 而子爲父代服祖喪也. 今光宗稱疾不出, 使孝宗之喪終無正主, 則雖非父先亡, 而義當代爲之服, 此朱子箚子之意也. 然無他說可以旁證, 只據禮經承重之文而言之, 幾於所謂義起者. 而後得趙商・鄭玄問答, 與之一一相符, 遂爲定論. 由此以克扶大倫而明大統, 爲萬世不易之大法. 其亦可謂因略致詳, 推舊爲新, 不屑屑於旣往之跡, 而能合乎先王之意者也. 嗚呼, 賢哉! 但時君卒納胡紘之言, 使其已正之喪紀, 廢墜不振, 其咎又可見矣. 伏乞聖照."

추출해 낸 '도학적 당위'는 박세채의 편집 행위를 거치며 17세기 후반 조선의 구체적인 정무적 맥락과 조응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편제의 논리는 자연스럽게 송대라는 역사적 선례[一層]와 숙종 대라는 당대적 현실[二層]을 포개어 군주를 입체적으로 압박하는 비례(比例)의 수사로 확장된다.

(2) 이층(二層) 구조와 비례(比例)의 수사 : 송대 선례와 조선 현실의 대응

본고에서 '비례(比例)'란 『경연고사』가 송대의 역사적 선례와 조선의 정치적 현실을 대응시켜 배치하는 서술 전략을 가리키는 분석 개념으로 사용한다. 비례의 사전적 의미는 본래 '사례나 조례에 견주어 헤아림'을 뜻한다. 이는 송 사마광(司馬光)이 「지제고를 사양하는 셋째 장[辭知制誥第三狀]」에서 "무릇 자격과 경력[資塗]으로 사람을 등용하면서 능력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선례에 견주어[比例] 일을 처리하면서 옳고 그름을 돌아보지 않으니 이것이 국가의 가장 큰 폐단입니다."라고 비판했던 용례나[44], 『명사』「강지례전(姜志禮傳)」에서 무리한 전지[莊田] 하사를 반대하며 "이를 이어 봉작될 자로 아직 서왕(瑞王)·혜왕(惠王)·계왕(桂王) 세 왕이 남아 있는데, 만약 그들이 앞선 전례에 견주어[比例] 청한다면 장차 허락해 주어야 하겠습니까."라는 발언에서 확인된다.[45] 즉, '비례'는 본래 정치·행정의 현장에서 기존의 선례(先例)나 관례(慣例)를 근거 삼아 당면한 현안을 재단·처리하는 정무적 방식을 의미하며, 나아가 그 전례의 권위에 기대어 특정 논지를 관철시키려는 의도를 내포하기도 한다.

앞서 2.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홍문관에는 정강일(停講日)에 시독

---

44) 『溫國文正公文集』 卷22, <章奏七>, 「辭知制誥第三狀」. "夫以資塗用人, 不問能否, 比例從事, 不顧是非, 此最國家之弊法."

45) 『明史』 卷237, <列傳> 第125, 「姜志禮」. "繼此而封, 尙有瑞·惠·桂三王也, 倘比例以請, 將予之乎? 不予之乎?"

관들이 국조의 미사나 역대 선현의 언행을 초록하고 '신근안(臣謹按)'이라는 안설을 덧붙여 국왕에게 바치던 '고사' 문서 관행이 이미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다. 박세채의 『경연고사』는 이러한 기존의 공적 문서식을 산림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맞추어 원용한 것으로 그 핵심은 단순한 서식 답습을 넘어 텍스트 전체를 비례적 수사 체계로 설계했다는 점에 있다. 박세채는 [역사적 전범 선별 및 재구성] → [송대 선례와 편자의 비판적 안설] → [당대 조선 정치 현실과의 비례적 견인 및 미리 설계하는 미래지향적 규범 제시]라는 '비례의 수사법'을 텍스트의 편차와 서술 전체 구조에 걸쳐 일관되게 조직화하였다. 박세채는 정이와 주희 등 송대 선현들의 경연 관련 언행과 역사적 고사를 전면에 인용한 뒤, 그 아래에 덧붙인 자신의 안설(按說)을 통해 해당 선례를 당대 조선의 구체적인 사건, 인물, 제도와 긴밀히 견인하여 조응시켰다. 상단의 송대 선례가 불변의 객관적 규범층을 이룬다면, 하단의 안설은 이를 조선의 현실 정치 문제와 직접 부딪치게 만드는 현실 응용층을 이룸으로써 텍스트 전체가 입체적인 '이층 구조'를 구축하게 된다.

이러한 이층 구조 속에서 과거의 선례와 당대의 현실 정치가 조응하는 첫 번째 비례 양상은 '출처(出處)의 의리와 도학적 권위의 정립'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경연고사』가 진헌되기 전 박세채에 대한 조정의 천거는 1682년 행 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김수흥(金壽興)[46], 영의정 김수항(金壽恒)[47], 사간원(司諫院)의 관리들에 의해 잇따라 이루어졌다. 그때마다 숙종이 별유를 내렸으나 박세채는 소명을 거듭 사양하였다. 이러한 박세채의 행보는 권7과 권8 첫머리에 배치된 정이와 주희의 출사 고사와 정확히 겹쳐진다. 정이의 경우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오직 도학에 전념하여 '하남의 처사'로 명성이 높았으며 사마광과 여공저 등 조정 대신들의 적극

46) 『肅宗實錄』 숙종 8년 壬戌(1682) 2월 19일(丁酉).
47) 『肅宗實錄』 숙종 8년 壬戌(1682) 4월 27일(甲辰).

적인 천거로 관직을 제수받았으나 거듭 사양하였다. 박세채 역시 효종 대에 이미 과거를 단념하고 도학 학습에 침잠한 이래 조정의 잇따른 부름에도 나아가지 않으며 '산림(山林)'의 정체성을 견지하였다. 즉, 박세채는 자신의 출처 의리를 정이의 역사적 선례와 중첩시킴으로써 재야 산림으로서의 도학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1683년(숙종 9) 1월 15일, 좌의정 민정중(閔鼎重)이 숙종에게 올린 다음과 같은 진달은 이 서사가 텍스트 안에 머물지 않고 당대에서 그대로 재연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 송시열이 조정에 들어온 것은 조야(朝野)의 다행입니다. 영상(領相) 김수항도 속히 나아가도록 힘써 권면하시고, 초야에 있는 여러 신하들도 마땅히 차례대로 불러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세채가 전일에 등대(登對)하고서는 곧바로 물러나 돌아갔으니, 그를 지성으로 부르시도록 원합니다. 군주의 덕이 성취되는 것은 경연에 달려 있으니, 유현(儒賢)들이 조정에 있는 날에 미쳐 자주 강석(講席)을 여시어 경서의 뜻을 토론하기를 청합니다.[48]

유현의 상경과 경연의 활성화를 군주 성학(聖學)의 성패와 동일시하는 이 발언은, 본래 사림 세력이 현실 정치에서 지속적으로 구축하고자 했던 도학적 정당성의 논리를 대변한다. 박세채는 이처럼 유현을 우대하고 처사의 권위를 존중하는 사림계 고유의 사상적 명분을 자신의 출처 행위와 텍스트 편차에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조정의 신료들 역시 사림의 보편적 정론에 기대어 박세채의 이탈을 만류하고 그를 다시 제도권 안으로 재소환하려 하였던 것이다. 즉, 박세채가 정이의 선례를 빌려 처사로서의 정체

48) 인용된 국역문은 국사편찬위원회『조선왕조실록』을 기반으로 하되, 본고의 맥락에 맞추어 필자가 潤文하였음.『肅宗實錄』숙종 9년 癸亥(1683) 1월 15일. "宋時烈入來, 朝野之幸也. 領相金壽恒敦勉速出, 在野諸臣亦宜次第召致, 而朴世采前日登對, 便卽退歸, 願至誠召之. 君德成就, 在經筵, 請及儒賢在朝之日, 頻開講席, 討論經義."

성을 서술 전면에 부각한 행위는 당대 사림의 정치적 요구와 긴밀히 맞물려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정국을 주도하던 서인 관료들이 그 명분을 근거삼아 박세채를 다시 불러들이려 하는 순환적 국면을 만들어 냈다.

다음 비례 양상은 '경연 제도의 왜곡 비판과 좌강(坐講)의 복원'이다. 이는 권7-4 「논경연차자3(論經筵箚子三)」 뒤에 붙은 안설에서 명시적으로 구체화된다. 박세채는 정이가 제기한 '좌강의 복원' 논의를 조선 경연관의 굴욕적인 의전 문제와 직접 병렬시킨다.[49]

> 신 박세채가 또 살펴보건대, 앉아서 강의하는 법[坐講之法]은 비단 정자(程子)가 위와 같이 논하여 청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경연에도 또한 이러한 폐단이 있습니다. 본래 줄곧 조종조(祖宗朝) 시절만 해도 강관들이 모두 전상(殿上)에 앉아서 모시고 강독하였으며 별도로 엎드리는 예[俯伏之禮]가 없었는데, 중간에 정희왕후(貞熹王后)께서 수렴청정함으로 인하여 비로소 그 제도(엎드려 아뢰는 격식)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송나라에서 유독 강관이 어안(御案) 옆에 서서 강의하던 관행[立講]과 비교해 보더라도 훨씬 더 잘못된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연에 나아가 강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기운을 펴고 그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올바른 가르침을 올리는 정성[納誨之誠]을 다할 수 없게 만드니, 일의 실효성에 있어 매우 해롭습니다. 비단 군주가 유학을 존중하고 도를 무겁게 여기는 마음[尊儒重道]이 없는 것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참으로 개탄할 만한 일입니다. 지난 중묘조(中廟朝)에 선정신(先正臣) 조광조(趙光祖)가 처음으로 옛 제도를 회복하기를 청하였으나 채택되어 시행됨을 입지 못했으니, 엎드려 성상의 생각을 청합니다.[50]

---

49) 『南溪先生朴文純公文正集』 卷7, <疏>, 「論經筵箚子[三]」. "臣竊聞經筵臣僚侍者皆坐, 而講者獨立, 於禮爲悖. 欲乞今後特令坐講, 不惟義理爲順, 所以養主上尊儒重道之心."

50) 『南溪先生朴文純公文正集』 卷7, <疏>, 「論經筵箚子[三]」. "臣又按, 坐講之法, 非但程子有所論請如右, 今於我國經筵, 亦有此弊. 盡自祖宗時, 講官皆坐侍殿上講讀, 別無俯伏之禮. 而中間因貞熹王后垂簾, 始設其制. 視諸宋朝獨講官在御案傍立講者, 尤似有失. 是使當筵進講之人, 無以紓其氣·和其聲, 以盡納誨之誠, 於

여기서 박세채는 송 철종 대 태황태후의 수렴청정이라는 역사적 조건을 조선 정희왕후의 수렴청정기 상황과 일대일로 겹쳐 놓는다. 조선 역시 본래 전상에 마주 앉아 학문을 논하던 좌강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수렴청정기를 거치며 신하가 바닥에 엎드려 아뢰는[俯伏] 굴욕적 방식으로 왜곡되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나아가 중종 조 도학 정치를 표방했던 조광조가 좌강 복구를 청했으나 좌절되었던 역사를 소환함으로써, 백여 년이 넘도록 시정되지 않은 경연 제도의 형식주의를 날카롭게 비판한다. 박세채에게 좌강 복원은 단순한 자리 배치가 아니라, 군신 관계를 '도학적 사생(師生) 관계'로 재정립하여 군주의 자의적 권력을 규찰하려는 제도적 간쟁이었다.[51]

그러나 실제 좌강의 복원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송명흠(宋明欽)이 영조 39년(1763) 2월에 올린 상소에서 "신의 선조 송준길(宋浚吉)이 효종께 품(稟)하여 좌강의 제도를 정하였다."라고 술회한 대목은, 중종 조 조광조의 실패 이후 김장생(金長生)을 거쳐 송준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좌강이 제도적으로 수용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송준길이 효종 대에 좌강을 확립시킨 이후인 숙종 조에 이르러서도 박세채가 안설을 통해 여전히 좌강이 아닌 부복(俯伏)의 예가 시행되고 있음을 개탄하는 것을 보면, 효종 조에 일시 복구되었던 좌강 제도가 정국 변동에 따라 지속되지 못하고 다시 흐지부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훗날 영조 39년(1763) 2월, 전 찬성(前贊善) 송명흠이 상소하여 동궁 보도(輔導)의 요령을 진달하며 서

事甚害. 不但人王無尊儒重道之心, 爲可慨也. 往在中廟朝, 先正臣趙光祖始請復舊, 而未蒙採施. 伏乞聖念."

51) 이인복, 「숙종대 武臣의 경연 참여와 역할」, 『청계사학』 27, 청계사학회, 2024, 318쪽. 이인복은 숙종 대 붕당 갈등이 심화된 정국에서 국왕이 문신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무신을 경연에 적극 참여시켰음을 규명했다. 숙종은 환국 정치를 통해 특정 붕당의 세력화를 억제하고자 했으며, 문신들이 무신을 멸시하는 고질적 폐단을 지적하며 주강의 절반 이상에 무신을 입시시켰다. 이는 문신 중심의 독점적 국정 논의 구조를 깨고 왕권 중심의 정국 주도권을 확고히 하려는 전략적 조치였다.

연(書筵)에서 좌강 제도의 복구를 청하였고, 영조가 이를 수용하면서 마침내 좌강 제도가 서연에서는 다시 회복되는 듯하였다.[52] 불과 열흘 만에 송명흠이 별개의 사안인 당상 겸보덕(堂上兼輔德) 재설치 의논을 전개하다가 영조의 뜻을 거스르자 좌강 복구 명령까지 함께 철회되었던 사건[53]은 군신 간의 역학 구도에서 좌강의 쟁취가 얼마나 지난한 과제였는지를 방증한다.

다음 비례 양상은 '송대 당쟁의 국망 서사와 조선 붕당 정치에 대한 경고'이다. 박세채는 권7 말미에서 고림(顧臨) 등의 탄핵으로 정이가 경연관에서 파직되는 북송 대 도학의 좌절 서사를 조선의 붕당 갈등 국면과 유기적으로 결합한다. 그는 정이의 파직 경위를 요약하면서 그 계기를 촉당(蜀黨)의 영수 소식(蘇軾)과의 개인적 알력에서 찾는다. 소식이 정이를 "不近人情"하다 하여 깊이 미워하고 업신여기자, 어사중승(御史中丞) 호종유(胡宗愈),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 공문중(孔文仲), 급사중(給事中) 고림(顧臨)이 연명으로 상소하여 정이는 결국 경연에서 축출되는데, 특히 공문중의 경우 '소식에게 유인되어 협박받아 함께 정자를 배척'한 것으로 서술함으로써, 박세채는 이 탄핵이 세 관원 각자의 사감(私憾)과 소식의 정치적 사주가 결합된 결과로 본다.

> 오직 우리 국가는 치세가 이어지며 평화를 누린 지 대략 200년이었으나, 불행히 붕당의 근심이 선묘조(宣廟朝)에 나와 처음에는 여항의 우연한 말[閭巷之偶語]에서 시작하더니 마침내 종사의 화근[宗社之厲階]이 되었습니다. ……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사사로운 뜻이 멋대로 흐르고[私意橫流] 공도(公道)가 떨치지 못하며, 어진 이와 어리석은 자가 섞여 나아가고[賢愚雜進] 분별함이 정밀하지 못하다면, 장차 주자가 원우(元祐) 연간의 여러 현인들을 비판하며 "가만히 나와 다른 자만이 소인이 되는 줄만 알고, 나

52) 『英祖實錄』 영조 39년 癸未(1763) 2월 29일.
53) 『英祖實錄』 영조 39년 癸未(1763) 3월 7일.

> 와 같은 자라고 해서 반드시 소인이 아니지는 않다는 점은 알지 못했다."라고 비판한 바와 같이 되어, 함께 낙당(洛黨)·촉당(蜀黨)의 화로 귀결되어 갈 것이니, 이는 또 다른 날 화란(禍亂)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54]

박세채는 이 파직 서사를 일련의 개별적 사건으로 고립시키지 않고, 동일한 안설(案說) 내에서 곧바로 "변송(汴宋)의 멸망이 비록 금나라 도적들의 요란함에서 비롯되었으나, 그 근원은 실로 천촉의 분당에 있다.[汴宋之亡, 雖由金寇之擾攘, 而其原實在於川蜀黨分]"라고 하였다. 즉, 북송의 국망(國亡)이 표면적으로는 여진족의 외침(外侵)에 기인한 것일지라도, 그 내인(內因)은 낙당과 촉당의 분열이라는 내부의 당쟁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박세채는 화제를 조선으로 돌려 "오직 우리 국가는 치세가 이어지며 평화를 누린 지 대략 200년이었으나, 불행히 붕당의 근심이 선조 대에 나와[惟我國家重熙累洽垂二百年, 不幸朋黨之患, 出於宣廟朝]" 이하의 안설을 통해 송대의 당쟁을 조선 정국의 고질적인 병폐인 붕당 정치와 직접 조응시킨다. 선조 대에 '여항의 우연한 말[閭巷偶然之言]'에서 발단하여 마침내 '종사의 화근[宗社之禍根]'으로 비화한 조선 붕당의 역사를, 천촉지환(川蜀之患)이라는 송대의 선례 위에 겹쳐 놓은 것이다. 나아가 지금이라도 사의(私意)가 횡류하고 현우(賢愚)가 분별없이 뒤섞여 나아간다면, 주자가 "나와 다른 자만을 소인으로 알고, 나와 같은 자는 반드시 소인이 아니라고는 알지 못한다."라고 비판한 전철을 그대로 밟아 결국 집권층 모두가 '함께 낙당과 촉당이 초래한 파국으로 귀결[同歸於洛蜀之禍]'될 것이라 경고한다.

---

54) 『南溪先生朴文純公文正集』 卷7, <疏>, 「論經筵箚子[三]」. "惟我國家重熙累洽垂二百年, 不幸朋黨之患, 出於宣廟朝, 始以閭巷之偶語, 終成宗社之厲階. …… 不然而乃反未免於私意橫流, 公道不振, 賢愚雜進, 分別未精, 將與朱子所譏于元祐諸賢, '徒知異己者之爲小人, 不知同己者之未必非小人'者, 同歸馴致於川蜀之患, 則此又異日禍亂之所原也."

마지막 비례 양상은 '시무(時務)의 현실 비판과 종통·예제(禮制)의 만세 표준 제시'이다. 박세채는 권8과 권9에 배치된 주희의 실천적 차자들을 조선의 정무 현실에 그대로 투영한다.

> 신이 전일에 직접 대면하여 아뢰며 공손히 조칙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우례와 비의 재이를 이유로 조정의 결함과 과실을 진술하도록 허락하시니, 폐하께서 하늘을 두려워하고 스스로를 반성하시는 뜻을 우러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신이 감히 조칙을 받들어 글을 올리지 못한 까닭은, 그윽이 보건대 폐하께서 즉위하시던 초기에 이미 밝은 조칙을 내리어 의견을 올리게 하시어 간언한 자가 매우 많았음에도 하나라도 시행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직언을 구하시니 거의 헛된 말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영명하신 성지를 바라오니, 지금 이후로는 성관(省官)이 숙직하며 궐문을 걸어 잠그고[鎖宿] 진술된 글을 상세히 살펴[看詳], 훌륭한 것을 가려 뽑아 조목별로 올려 성지를 받아 차례대로 시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
>
> 신 박세채가 살펴보건대 『속강목(續綱目)』에 이르기를 '효종이 즉위하여 중앙과 지방의 신하와 백성을 불러 시정의 결실을 진술하게 하니, 주희가 밀봉한 상소[封事]를 올려 머리에는 제왕의 학문을 말하고, 다음에는 안을 닦고 외적을 물리칠 계책[修攘之計]을 말하였으며, 끝에는 백성의 기쁨과 슬픔의 근본 자리가 조정에 있음을 말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순희 6년 여름 가뭄 때에도 주희는 상소를 올려 "천하의 정무는 백성을 구휼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그 근본은 인군(人君)이 심술(心術)을 바르게 하여 기강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보건대 주자는 매번 직언을 구할 때마다 일찍이 글을 올려 충성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
> 그런데 영종(寧宗)이 즉위하여 우례와 비의 재이로 직언을 구하였을 때에는, 주희가 예전처럼 직접 글을 올리지 않고 오직 관원을 파견하여 신료들이 올린 의견을 상세히 살펴[看詳] 차례대로 시행할 것만을 청하였습니다. 이는 비단 내조(內朝)에 벼슬하여 조용히 풍간(諷諫)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조정에서 앞서 올린 말들을 채택하여 쓰지 않은 채 거듭 구하기만 하니 하늘에 실질로써 응답하는 도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재앙을 근심하며 실질에 힘써 치세를 도모하고자 한 그 뜻을 엄숙히 알 수 있

> 습니다. 이는 또한 예나 지금이나 국가가 구습을 답습[因循]하는 커다란 폐단이며, 상세히 살펴본다는 '간상(看詳)'의 한 대목은 실로 간언을 받아들이는 긴요한 법식입니다. 엎드려 성상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55]

이처럼 박세채는 주희의 차자(권8-10)와 안설을 통하여, 재이(災異)에 직면한 군주의 구언(求言)이 한갓 말치레[文具]에 불과한 요식 행위로 전락했음을 비판한다. 주희는 재이를 당했을 때 장황한 상소를 직접 올리는 대신, 기존에 올라온 상소들을 정밀히 검토할 전담 관원을 파견해 달라고 청하였다. 주희가 효종·광종 연간에는 매번 직언을 아끼지 않았음에도 영종 조에 이르러 유독 '간상(看詳)'의 절차만을 거듭 요청했던 까닭은, 조정이 언로를 열어두고도 실질적인 채택과 시행을 외면하는 고질적인 인순(因循)의 폐단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세채는 이러한 송대의 선례를 거울삼아 당대 조선 조정의 현실을 지적한다. 즉, 조선 역시 재이를 핑계 삼아 교서만 남발할 뿐 실질적인 직언 수용과 시정 개혁을 방기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결국 봉사(封事)를 궐문을 잠그고서라도[鎖宿] 엄밀히 선별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한 주희의 제안을 원용한 것은, 군주가 측근들에게 둘러싸여 여론을 차단당하지 말고 '실심(實心)과 실덕(實德)'으로 언로를 보장하여 하늘의 견책에 응답해야 함

---

55) 『南溪先生朴文純公文正集』 卷8, <疏>, 「乞差官看詳封事箚子」. "臣前日面奏, 恭奉詔旨. 以雷雨之異, 許陳闕失, 仰見陛下畏天省己之意. 然臣未敢奉詔者, 竊見陛下登極之初, 已下明詔來獻, 言者甚衆, 未聞一有施行. 今復求言, 殆成虛語. 欲乞睿旨, 今後省官鎖宿看詳, 擇其善者, 條上取旨, 以次施行. …… 臣世采按, 續綱目, '孝宗卽位, 招中外臣庶, 陳時政闕失. 朱熹上封事, 首言帝王之學, 次言修攘之計, 終言斯民休戚本原之地, 亦在朝廷.' 淳熙六年夏旱, 朱熹上疏, '天下之務, 莫大於恤民, 而其本在人君正心術以立紀綱.' 以此觀之, 朱子每當求言, 未嘗不爲之投匭盡忠矣. 至寧宗卽位, 以雷雨之異, 許陳闕失, 朱子不陳章如前, 只請差官看詳臣僚獻言, 以次施行者, 不惟服在內朝, 意欲從容諷諫, 誠以朝廷未嘗採用其言而復求之, 有非應天以實之道故也. 其敬天憂災·務實圖治之意, 凜然可識矣. 此又古今國家因循流弊之大者, 而其看詳一節, 實爲納諫要法. 伏乞聖念."

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박세채가 안설을 통해 주희의 간쟁 내용을 현실 정치 비판의 잣대로 삼은 데서 더 나아가 그가『경연고사』를 직접 편찬하여 국왕에게 진헌하고 사후적으로 재열람을 건의한 일련의 행위 역시 주희의 정치적 궤적을 따른 것이었다. 권9-3 직후에 삽입된『주자연보(朱子年譜)』의 기록은 박세채의 이러한 의도를 보여준다.

> 선생(주자)이 경연에서 강의함이 수차례에 미치자, 다시 그것을 편차하여 한 책자[帙]로 엮어서 임금의 뜻[旨]을 얻어 대궐 안으로 들여보냈다. 임금이 기뻐하며 또한 구두점을 찍어서[點句] 올리라고 명하였다. 다른 날 경연에서 묻고 대답할 때, 임금이 이르기를 "궁중에서 이것을 항상 읽고 있는데, 그 요체는 방심을 구하는 것[求放心]일 뿐이다."라고 하니, 선생이 머리를 조아려 감사해하였다. 인하여 다시 상소[奏疏]를 올려 임금에게 덕성에 나아갈 것[進德]을 권면하였으니, 대략 말한 운운은『행장(行狀)』에 보이는데, 이는 임금의 뜻을 미루어 넓혀주고자[推廣] 한 때문이었다.
>
> 선생이 문인(門人)들에게 말하기를 "주상께서는 함께 선을 행할 만한 분이시다. 원컨대 항상 현명한 자를 얻어 그(주상)를 보필하고 인도하게 된다면 천하에 가망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56]

송 영종이 주희의『대학』강의록을 궁중에서 수시로 읽으며 '그 요체는 방심을 구하는 것에 있을 뿐'이라고 토로하자 주희가 감격하여 진덕을 재차 권면했던 이 선례는, 1694년(숙종 20) 11월 주강(晝講)에서『경연고사』를 다시 볼 것을 권했던 박세채의 정무적 행보를 떠오르게 한다. 그는 이미 갑술환국 이후 좌의정으로서 정국 수습과 붕당 경계에 힘쓰고 있었는

56)『南溪先生朴文純公文正集』卷9, <疏>,「年譜[附]」. "○先生講及數次, 復編次成帙, 取旨進入. 上喜, 且令點句以來. 他日講問, 上曰, '宮中常讀之, 其要在求放心耳.' 先生頓首謝. 因復奏疏, 勉上進德, 略言云云, 見『行狀』, 所以推廣上意焉. ○先生謂門人曰, '上可與爲善. 願常得賢者輔導, 天下有望矣.'"

데, 지병 속에서도 경연에 복귀하여 11년 전 자신이 진헌했던 이 책을 국왕에게 다시 꺼내 들었다. 이러한 재진헌 건의는 영종이 주희의 강의록을 항상 곁에 두고 성찰했던 송대의 선례를 조선의 현실에서 재현함으로써 자신이 편찬한 텍스트를 매개로 국왕을 올바르게 인도하려는 정무적 의지의 발현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세채의 『경연고사』는 편차와 안설(按說)을 매개로 송대의 역사적 선례와 조선의 정치적 현실을 정밀하게 중첩하고 비례시키는 수사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텍스트 분석 결과는 앞서 2.2절에서 검토한 16·17세기 기존 경연 기록군(일기·강의·진계)과 본 저술이 지닌 장르적 변별성을 드러낸다.

기존의 경연진계, 경연강의, 경연일기 등은 텍스트의 성립 계기와 서술 방식에서 '실제 경연 현장과의 직접적 연동성'을 공통 전제로 삼는다. '경연진계'가 경연 석상에서 자신이 개진한 발언을 사후에 수록한 것이고, '경연강의'가 특정 교재의 진강 내용과 대화를 대화체 중심의 편년체로 정리한 기록이라면, 이들은 모두 경연이라는 실제 행위가 끝난 뒤 이를 사후적으로 복기하는 '경험의 기록'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이들 기록은 필연적으로 일자별 시간 추이에 얽매이는 편년체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박세채의 『경연고사』는 특정 경연 석상의 대화를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정국 경색이나 붕당 갈등으로 경연 제도가 정상 작동하지 않거나 본인이 조정에서 물러나 있는 상황에서 국왕에게 정책적 처방과 정무적 방향을 개진하기 위해 작성된 주의류(奏議類) 산문의 성격을 띤다. 즉, 시간의 흐름에 구속되는 편년체 서술을 달리 도학적 전범을 편자의 시선에서 선별하고 재구성하면서 송대의 고사[一層]에 편자의 조선 당대에 대한 안설[二層]을 결합하여 당대 정치를 직접 견제하는 비편년체 이층 구조와 '비례의 수사'를 전면화하였다. 결과적으로 『정주경연고사』는 지나간 현장의 경험을 사후적으로 축적하는 데

머물렀던 기존 경연 산문과 달리, 향후 군주가 지향해야 할 규범과 정무적 방향을 선제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 면모를 확보한다.

다만 2.2절에서 규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비례의 서술 구조 자체는 기존의 공적 문서식을 원용한 것이다. 홍문관에는 이미 정강일에 전범을 앞세우고 '신근안(臣謹按)'의 안설을 덧붙이는 '옥당고사'의 공적 문서식과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으며, 박세채 역시 비경연관 처지에서 진진성의 선례를 들어 명분을 삼음으로써 이 기성 양식의 제도적 권위를 전제하고 있었다. 박세채의 독자성은 관각의 '고사' 문서식을 재야 산림의 정무적 발언으로 전유하고, 텍스트의 편차 전체를 일관된 비례적 수사 체계로 확장하고 심화시킨 데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17세기 후반 사상계와 정계를 주도했던 산림 학자 남계 박세채의 『경연고사』를 중심으로, 홍문관의 공적 문서 관행이었던 '고사(故事)' 양식이 산림의 저술로 원용되는 양상과 그 편차 체재 및 비례적 서술 방식을 구명함으로써 이 양식이 지닌 장르적 변별성과 문학사적 의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규명한 논의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박세채의 『경연고사』는 기존의 편년체 기록물인 '경연일기'나 '경연강의'와 확연히 구별되는 독자적인 문체와 서술 체재를 보여준다. 16세기 사림의 정계 진출 이후 정착된 경연일기류 산문이 실제 경연에 입시하여 겪은 국왕과의 대화와 현장의 논쟁을 일자순으로 보존하려는 사후적 '경험의 기록'이자 사실의 축적을 지향했던 반면, 『경연고사』는 선현의 전범을 매개로 군주의 정무를 교정하려는 미래지향적 '규범의 설계'에 가까운 주의류(奏議類) 산문의 성격을 띤다. 특히 박세채는 홍문관에서 정강

일(停講日)에 선현의 언행을 뽑고 안설을 덧붙여 올리던 기성의 '고사' 문서식을 원용하되, 비경연관이라는 처사의 신분적 한계를 진진성(陳眞晟)의 '포의 진헌' 선례로 명분을 만들고 이를 산림의 정치적 발언으로 전유하였다. 따라서 편년체의 시간적 구속에서 벗어나 경연관의 신분이 아니더라도 독립적으로 진헌되어, 자의적 왕권을 제한하고 치국의 법도를 바로잡는 정무적, 간쟁론적 텍스트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둘째, 『경연고사』는 송대의 선례를 수동적으로 축적한 단순 채록물이 아니라, 상단의 송대 선례[一層]와 하단의 비판적 안설[二層]을 결합하여 당대 조선의 정치 현실을 직접 견제하는 '이층 구조'와 '비례(比例)의 수사'를 일관되게 구사하였다. 박세채는 텍스트 서두에 정이와 주희의 출사 고사를 배치하여 '출처(出處)의 의리'를 세우고 산림으로서의 도학적 권위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였다. 이어 정이가 제기한 '좌강(坐講)의 복원' 논의를 매개로 조선 정희왕후 수렴청정기 이래 고착된 부복(俯伏)의 폐단을 꼬집으며 군신 간 사생(師生) 관계의 회복을 촉구하였고, 정이의 실각과 북송의 천촉지환(川蜀之患)을 선조 이래 심화된 조선의 붕당사와 환국 정국에 직접 대입하여 당동벌이가 초래할 파국을 경고하였다. 나아가 주희의 실천적 차자들을 통해 당대 조선의 요식화된 구언(求言) 풍조와 언로 차단을 비판하는 한편, 주희가 강의록을 궁중에 들여 영종을 감화시켰던 고사를 바탕으로 1694년 숙종에게 『경연고사』의 재열람을 건의하는 정무적 행보를 취하였다. 이처럼 『경연고사』는 단발적 인용에 그치지 않고 편차와 안설 전체를 유기적인 비례 수사 체계로 설계함으로써, 군주로 하여금 역사적 전범의 거울을 통해 스스로를 성찰하도록 압박하는 간쟁의 논리를 구축하였다.

셋째, 이러한 박세채 『경연고사』의 편차 체재와 서술 논리는 관각(官閣)의 정례적 문서 양식을 재야 산림의 정치적 발언으로 전유하여 비례적 수사 체계로 정교화한 초기 사례로서 문학사적 의의를 지닌다. 이는 정강

일에 선현의 언행을 뽑아 '신근안(臣謹按)'을 덧붙이던 홍문관의 공적 '고사식' 관행을 계승하여 사림 산문의 외연을 확장한 것이었다. 나아가 이 텍스트는 1682년 최초 진헌에 그치지 않고 1694년 갑술환국 직후 좌의정으로 입시한 박세채에 의해 재소환되어 텍스트의 재교정과 추가 장본으로 이어졌으니, 이는 『경연고사』가 당쟁의 파행을 극복하고 성학의 제도적 구속력을 담보하려 했던 실천적 글쓰기이었음을 보여준다.[57]

57) 본 논문의 발표 당시 토론자께서는 박세채 『경연고사』의 서사 구조가 이희조·김종수 등 후대 경연고사류 저작으로 관통하고 이행되는 계보학적 양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편제 논리와 서술 구조에 대한 명확한 분석에 기반한 장르론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해 주셨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수용하여 본고는 박세채가 구축한 선별하고 재구성의 편집 원리와 비례의 수사 구조가 지닌 장르적 변별성을 명확히 밝히는 데 일차적인 초점을 맞추었다. 이 정초를 바탕으로 후대 저자들의 정치·사상적 위치에 따른 계승 및 변용 양상을 통시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은 향후 후속 연구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 참고문헌

「南溪集 해제」(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明史』.
『肅宗實錄』(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DB).
『英祖實錄』(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DB).
『弘文館志』(奎3127).
朴世采, 『南溪先生朴文純公文正集』(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司馬光, 『溫國文正公文集』.

권연웅, 『경연과 임금 길들이기』, 지식산업사, 2016.
_____, 『경연과 성군 담론』, 지식산업사, 2021.
권태석, 「선조 초기 經筵 운영 연구 -경연 기록을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 84, 역사실학회, 2024.
김태완, 『경연, 왕의 공부』, 역사비평사, 2011.
박광용, 『영조와 정조의 나라』, 푸른역사, 2009.
유성선, 「『經筵日記』의 板本 및 標題에 관한 서지적 검토」, 『율곡학연구』 18, 율곡학회, 2009.
이경동, 「조선 후기 율곡 이이 문집 편찬의 추이와 의의」, 『유학연구』 52,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20.
이인복, 「金宇顒의 「經筵講義」의 저술과 특징」, 『조선시대사학보』 99, 조선시대사학회, 2021.
_____, 「16세기 일기체 경연 기록의 등장」, 『대구사학』 147, 대구사학회, 2022.
이향준, 「한국 성리학의 해석학적 발전 -『朱子大全』의 주석서를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25, 율곡학회, 2012.
진오균, 「숙종대 후반 朴世采 門人의 老少分化와 노론계 道統意識의 형성」, 『조선시대사학보』 105, 조선시대사학회, 2023.
최경훈, 「조선시대 『주자대전』 선집서의 간행과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2), 한국문헌정보학회, 2020.
최영성, 『한국유학통사』 中, 심산출판사, 2016.
Leung, Sing-ki, 「조선후기 숙종대 경연과 군신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투고일 2026. 7. 31 심사시작일 2026. 8. 18 게재확정일 2026. 9. 21

Abstract

The Compilation Context and Narrative Strategies of Park Se-chae's『Cheng-Zhu Gyeongyeon Gosa』

Park, Hea-min

This study investigates『Cheng-Zhu Gyeongyeon Gosa(程朱經筵故事, Historical Precedents of Cheng Yi and Zhu Xi in the Royal Lectures)』, compiled in the late seventeenth century by the reclusive scholar(sanrim) Namgye Park Se-chae(南溪 朴世采, 1631~1695). Specifically, it aims to examine how the official document format of gosa(故事, historical precedent) —originally established in the Office of Special Advisors(Hongmungwan)— was appropriated into the writing of a reclusive scholar, and to analyze its organizational framework and analogical narrative methods in order to illuminate its distinct genre identity and significance in Korean literary history.

Rather than serving to recreate the factual dialogue of specific royal lectures (gyeongyeon), Park Se-chae's『Cheng-Zhu Gyeongyeon Gosa』is characterized as memorial-style prose(juui-ryu). It was formulated to present policy remedies and statecraft guidelines to the monarch, particularly during periods when the royal lecture system was dysfunctional due to political deadlock and factional strife, or while the compiler himself was removed from court. In particular, Park appropriated the institutional practice of gosa-sik(故事式)—wherein officials of the Office of Special Advisors excerpted the exemplary conduct of ancient sages and appended critical commentary(anseol, starting with sin geun-an) on non-lecture days(jeonggang-il). While navigating his institutional status as an unofficial scholar-in-reclusion(cheosa), Park cited the historical precedent of Chen Zhensheng(陳眞晟), who presented his writings as a commoner in Ming China. By establishing this historical justification, Park transformed an official bureaucratic form into a medium for the political voice of reclusive literati.

『Cheng-Zhu Gyeongyeon Gosa』is far from a passive compilation of

historical records. Instead, it consistently operates through a rigorous editorial logic that independently selects and rearranges Neo-Confucian exemplars, alongside a writing strategy of 'structural analogy'(birye) that systematically aligns historical precedents from the Song dynasty(the first layer: normative precedent) with the political realities of the Joseon dynasty(the second layer: contemporary critique). By placing the precedents concerning scholars entering public service at the beginning, Park established political legitimacy for the reclusive scholar. Through his critical commentaries(anseol), he drew multifaceted parallels between Song precedents—such as the regency of queen dowagers, the restoration of seated lectures(jwagang), and the political dismissal of Cheng Yi—and pressing issues in Joseon politics, including the regency of Queen Jeonghui, the frustration of Jo Gwang-jo's reforms, and the systemic evils of factional strife. Furthermore, through a cumulative four-stage progression that advanced from the cultivation of mind through The Great Learning to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ritual propriety(yeje) in matters such as mourning attire and ancestral enshrinement, Park completed a coherent system of analogical rhetoric integrating scholarship and governance.

The internal structure and narrative logic of 『Cheng-Zhu Gyeongyeon Gosa』 stand in sharp contrast to conventional records of royal lectures. Established after the entry of the Sarim literati into court politics in the sixteenth century, genres such as royal lecture admonitions(gyeongyeon-jingye), lecture records(gyeongyeon-gangui), and lecture diaries(gyeongyeon-ilgi) shared an underlying premise of direct linkage to the physical site of royal lectures. Whether compiling statements delivered before the throne or recording lecture texts and dialogues in a conversational format, these records operated as post-facto 'records of experience' dedicated to the chronological accumulation of historical facts. Consequently, they remained bound to the annalistic format dictated by temporal progression.

In contrast, Park Se-chae's 『Cheng-Zhu Gyeongyeon Gosa』 breaks free from chronological constraints by organically integrating historical precedents with critical commentary. Transcending the limitations of earlier lecture prose that merely accumulated past experiences, it establishes a forward-looking

orientation designed to proactively prescribe future norms and statecraft directions for the monarch. By appropriating the established official gosa format of the court and refining it into a sophisticated rhetorical system of political discourse for reclusive literati, Park's 『Cheng-Zhu Gyeongyeon Gosa』 holds profound significance in literary history: it diversified the genres of prose surrounding the royal lectures and expanded the boundaries of classical Korean prose in the late Joseon period.

Keywords Park Se-chae, 『Cheng-Zhu Gyeongyeon Gosa』, 『Gyeongyeon Gosa』, Gyeongyeon-ilgi, 『Hongmungwan-ji』, Okdang Gosa.

東方漢文學, 東方漢文學會
Dong-Bang Korean Chinese Literature Society
2026, 第108輯, pp.235~276
http://dx.doi.org/10.17293/dbkcls.2026.108.
ISSN 1226-668X

남계(南溪) 박세채(朴世采) 문인의 전개와 문학관* **

-소론계 문인을 중심으로-

윤재환***

目 次

1. 서론
2. 박세채의 행적과 문인의 분기(分岐)
3. 소론계 박세채 문인의 문학 인식
4. 결론

|국문초록|

남계 박세채는 조선 후기 노·소론의 분리 시기에 중요한 위치에 놓였던 인물이다. 그는 노·소론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었으면서도 이들 사이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고수하며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그의 문인들 역시 확연히 노·소론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다. 그의 문인록에 나오는 254명의 문인 중 노·소론의 구분이 확실한 29명의 문인 중에서는 19명을 노론으로, 10명을 소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가지고 박세채의 문인에는 노론이 더 많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의 문인록

---

* 이 글은 2026년 7월 18일 동방한문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같은 제목으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A2A01049420).
***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에 수록된 문인 상당수가 노론 성향이었고, 이들이 박세채 문인들의 중심에서 활동했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박세채의 문집이 후손과 소론 관료들의 지지를 받은 소론 문인들의 의도와 같이 간행되어 박세채는 소론의 태두라는 위상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박세채 문인 중 소론 문인의 문학론은 소론으로 확정할 수 있는 10명의 문인 중에서 문집에 문학론을 남긴 4명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 박세채와 그의 문인 4명의 문학론을 정리하면 이들이 유가 정통의 도학적 문학관을 공유한다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통점 속에서도 이들은 각자의 처지와 관심에 따라 문학의 기능적 측면을 달리 강조하여 문학의 효용과 지향점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여준다. 박세채의 경우 수양론적 문학에 주목했지만, 양처제의 경우 실천론적 문학에 주목했고, 송징은의 경우 비평론적 문학을 강조했으며, 이태수의 경우 정서적 문학 의식을 보였으며, 이진망의 경우 경세론적 문학 의식을 보였다.

핵심어 박세채, 양처제, 송징은, 이태수, 이진망, 소론, 문학론.

1. 서론

남계(南溪) 박세채(朴世采, 1631~1695)는 조선 후기 대사헌·이조판서·우참찬 등을 역임한 문신이자 학자로, 노·소론의 분리 시기에 중요한 위치에 놓였던 인물이다.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화숙(和叔), 호는 현석(玄石) 또는 남계이며, 부친은 홍문관 교리 박의(朴猗)이고 모친은 신흠(申欽)의 따님이다. 박세채는 명문세족 출신으로, 증조부 박응복(朴應福)은 대사헌, 조부 박동량(朴東亮)은 형조 판서를 지냈다. 여기에 더해 박세채는 그와 함께 당대 학문으로 이름을 날렸던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과 당내간의 족친이고,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의 손자 송순석(宋淳

錫)을 사위로 맞았다. 또 그는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과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의 문하에서 수학했는데, 박세채의 당숙 박호(朴濠)와 백부 박미(朴瀰), 그리고 부친이 일찍이 김장생(金長生)의 문하에서 수학한 것을 인연으로 그의 사승관계(師承關係)가 김집에게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박세채는 이러한 가계와 사승관계에 따라 당대 정국에 나갔으나 정치현실의 부침에 따라 수난을 겪기도 했다.

이 글에서 박세채와 그의 문인에 관심을 두는 것은 당대 그가 지니고 있었던 정치적 위상과 함께 그의 문하 제자들이 보인 치열한 분열의 양상 때문이다. 박세채는 효종이 승하한 뒤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문제(服喪問題)가 논란이 되었을 때 남인(南人)의 3년 대비 복제설을 반대하고, 송시열·송준길(宋浚吉)의 기년설(朞年說)을 지지하며 서인(西人)의 이론가 역할을 담당하였다가 숙종 즉위 이후 남인이 집권하자 관직을 삭탈당하고 유배 생활을 했다. 하지만 1680년 경신대출척으로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자 다시 등용되어 사헌부 집의부터 승정원 동부승지·공조 참판·대사헌·이조 판서 등을 거쳐 우참찬에 이르렀다. 이후 1684년 송시열과 명재(明齋) 윤증(尹拯) 사이의 불화로 회니(懷尼)의 분쟁이 일어나 서인이 송시열과 윤증을 중심으로 나뉘어 대립하자, 그는 황극탕평론(皇極蕩平論)을 통해 이들의 파당적 대립을 막으려 했으나 이루지 못하고 점차 윤증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그는 1689년 기사환국으로 송시열이 사사당한 이후에는 이전까지의 입장을 바꾸어 오히려 송시열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세채의 이와 같은 태도로 인해 그의 문인들은 박세채가 회니시비에서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를 두고 각자의 처지에서 치열하게 논쟁하며 대립했고, 이에 따라 그의 문인들은 송시열을 두둔했다고 보는 쪽과 윤증을 지지했다고 보는 쪽으로 나뉘게 되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조선 후기 당대 박세채 문인들의 대립과 분열에 주목하여 기획된 것이다. 박세채의 문인들은 박세채라는 동일한 스승을 사

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론과 소론이라는 두 계파로 나뉘어 대립을 이어가면서 자신의 입장에 따라 박세채를 각각 노론과 소론으로 규정하고자 했다. 그런 점에서 소론 문인을 사승관계에 따라 나누어 이들의 문학 세계를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 후기 소론 문단 전체의 성격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박세채 문인들의 대립과 분열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소론 문단 전체의 문학적 성격을 확인해 보기 위해 먼저 노·소론의 분립기에 두 집단으로 나뉘어 박세채를 각기 자신들의 의도에 부합하는 인물로 규정하고자 했던 박세채 문인들의 분열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 이들 중 소론 문인들의 문학 경향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이 박세채와 조선 후기 노·소론 문인, 그리고 이들의 흐름과 문학 경향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 박세채의 행적과 문인의 분기(分岐)

경신대출척 이후 송시열의 요청에 의해 다시 정국에 참여한 박세채는 당시 정국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태조추시의(太祖追謚議)와 김익훈(金益勳)의 처리 문제에서 송시열과 대립했는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난 회니시비(懷尼是非)에서 송시열과 윤증의 갈등이 중재되지 않자 윤증을 두둔하는 입장에 섰다. 정국에 복귀한 이후 일어났던 송시열과의 갈등이 회니시비에까지 이어진 양상으로, 박세채의 이런 모습 때문에 소론에서는 박세채를 소론으로 규정하고 윤증과 함께 소론의 태두(泰斗)로 인정한다. 하지만 박세채는 송시열이 사사된 이후 소대(素帶) 3개월의 예를 행하고 윤증에게 송시열을 위해 곡하고 제문을 지어 예를 표하도록 권하여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윤증과 틈이 벌어지게 되었으나, 그런 상황에서도 박세채는 윤증과 교유를 유지했는데, 박세채의 이와

같은 태도는 이후 박세채의 문인들에게 각기 다른 해석의 빌미를 제공하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박세채는 1694년 갑술환국으로 형성된 소론 정권에 좌의정으로 출사하여 기사 남인과 장희재(張希載)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강조하고 시비명변(是非明辨)을 내세우면서 소론 관료들과 갈등했다. 당시 박세채의 태도는 이전과 반대로 소론에게서는 비판을, 노론에게서는 호응을 받았고, 여기에 더해 만년 윤증에 대한 그의 태도가 변한 것으로 인해 박세채는 노론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하지만 박세채는 이들의 비판과 호응 어느 쪽에도 경도되지 않는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갑술환국 이듬해인 1695년 운명했다.

이렇게 보면 박세채에 대한 엇갈린 평가는 그가 노·소론의 갈등에 중립적인 태도를 고수하며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는 기사환국 이후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 표명을 꺼려 자신의 생각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고, 이에 따라 노론에 의해 그의 만년 정론이라고 이야기되는 윤증에 대한 태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그가 노론에 해당하는 몇몇 제자들과 나눈 대화에만 존재할 뿐 그가 직접 남긴 기록에는 보이지 않는다.[1] 이에 따라 윤증에 대한 박세채의 초기 대응과 그의 황극탕평론·조제보합적(調劑保合的) 태도를 강조할 경우 그를 소론으로, 윤증에 대한 만년의 평가와 시비명변적 입장에 주목할 경우 그를 노론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후 박세채의 입장에 대한 그의 문인 사이의 대립은 박세채의 문집 편찬 작업에서 본격화되었다. 결론적으로 박세채의 문집은 소론 문인들의 주도로 편찬되었지만, 노론 문인들은 이에 대응하여 「남계행장(南溪行狀)」과 「남계연보부록(南溪年譜附錄)」을 간행하며 맞섰다. 결국 노·소론에 대한 박세채의 입장은 하나로 정리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1) 이 내용은 김간의 『후재집』과 이세환의 『과재집』 등에 박세채의 이야기로 나오지만, 박세채의 문집이나 그가 남긴 기록에는 보이지 않는다.

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생전 박세채가 노·소론의 사이에서 중도적인 모호한 태도를 취했지만, 노론과 소론 어느 쪽에서도 박세채를 배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록 그의 태도에 대한 노론과 소론 양쪽의 비판이 있었지만, 이 비판은 그를 비난하는 것이라기보다 그가 자신들과 동조해 주기를 바라는 아쉬움의 표현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이런 양상은 송시열과 윤증 모두 박세채를 비판했지만, 끝까지 그를 인정했다는 사실을 보거나 노론 주도로 편찬된 『숙종실록』과 소론 주도로 편찬된 『숙종실록보궐정오』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실록의 박세채 졸기를 보면 노론과 소론 모두 박세채를 온화한 성품의 공정하고 정직한 인물로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박세채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산림으로서의 높은 명망과 이를 뒷받침하는 학문 실력, 반남 박씨 가문의 성세, 학통 상의 인연으로 가능했던 송시열·윤증과의 거리두기, 박세채의 온화한 성정과 경(敬)의 수양[2]을 들기도 하는데, 무엇 때문이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노론과 소론 모두 박세채를 자신들에 호응하는 인물로 보고자 했던 것은 분명하고, 그런 만큼 그의 문하 제자들 사이에서 대립은 상당했다.

박세채의 문하에 제자들이 모인 시점이 언제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남계연보」를 보면 그의 나이 30대 무렵부터 다양한 인물들과의 만남과 교유가 확인되지만, 이 무렵 그를 찾은 인물과 사제관계를 형성했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박세채의 고제(高弟)로 인정되는 후재(厚齋) 김간(金幹, 1646~1732)이 그와 만나 사제관계를 맺은 시기가 27세가 되던 1672년 4월이었던 만큼,[3] 그의 나이 40대 무렵에는 그를 찾은 제자들이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현재 박세채의 문인은 그의 말년 제자인 과재(果齋)

2) 김민재(2025), 34쪽.

3) 『厚齋先生年譜』 卷1. “壬子. 先生二十七歲. 四月. 拜玄石朴先生於白川. 玄翁時寓白川邑內, 先生承判書公命, 與弟執義公往拜受業.”

이세환(李世瑍, 1664~1752)이 편찬한 『동유사우록후속집(東儒師友錄後續集)』 권11에서 권16의 「남계선생문인(南溪先生門人)」편에 대체로 수록되어 있는데, 기록으로 보면 모두 254명이라고 했지만, 현재 권15가 누락되어 권15에 수록된 41명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이세환은 박세채의 문인을 모두 254명이라고 한 뒤 권11부터 권13까지 수록된 131명에 대해 박세채가 운명한 뒤 복을 입고 장례에 참여한 인물로,[4] 권14과 권15에 수록된 53명에 대해 문집에 보이고 분명히 사제관계로 자처한 인물이라고 했다.[5] 그런데 권16에서는 책을 세 편으로 나눠 첫 편에 나오는 7명에 대해서는 문집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문인으로 자처한 인물이라고 하고,[6] 다음 편에서는 최석정(崔錫鼎)·정제두(鄭齊斗)·허욱(許昱) 세 사람을 들고 이들에 대해 스승을 버리고 다른 문하에 귀의한 인물이라고 했다. 또 이렇게 평가한 이유에 대해 최석정은 『예기유편(禮記類編)』으로 『대학』과 『중용』의 장구를 어지럽혀 훼판(毁板)된 것을, 정제두는 양명학에 빠져 돌아오지 못한 것을, 허욱은 박세채의 문하에 출입했으나 스승을 버리고 민이승(閔以升)에게 귀의한 뒤 또 그를 버리고 백운산에 들어간 것을 들었다.[7] 마지막 편에서는 박세채의 외손인 신경(申暻)의 기록에는 보이지만 문집에 없고 또 문견이 미치지 못해 믿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 이름만 기록해 둔다고 하고 52명을 적었다.[8]

---

4) 李世瑍, 『東儒師友錄後續集』 卷11. "南溪先生門人二百五十四. 自此以下三編, 先生喪後受服會葬之類, 一百三十一人."

5) 李世瑍, 『東儒師友錄後續集』 卷14. "南溪先生門人. 自此以下二編, 見於文集, 而分明以師弟相處之類, 五十三人."

6) 李世瑍, 『東儒師友錄後續集』 卷16. "南溪先生門人. 此編不見於文集, 而分明以門人自處之類, 七人."

7) 李世瑍, 『東儒師友錄後續集』 卷16. "南溪先生門人. 此編棄歸他門之類, 三人. 崔領議政諱錫鼎, …… 修禮記類編, 變亂學庸章句之故, 毁板. …… 鄭贊成諱齊斗, …… 惑於陽明學, 溺而不返. …… 許昱字晦仲陽川人, 出入於先生之門, 棄歸閔彦暉門, 又棄之入白雲山, 改名是, 子曰去非, 扁其室曰友巢."

8) 李世瑍, 『東儒師友錄後續集』 卷16. "南溪先生門人. 此編見先生外孫參奉申暻所

그런데 직접 살펴보면 권11에는 김간부터 김재해(金載海)까지 9명, 권12에는 임원성(任元聖)부터 송순석(宋淳錫)까지 50명, 권13에는 권상유(權尙游)부터 이동원(李東元)까지 80명이 있어 권11의 서두에 기록된 131명은 139명의 오기(誤記)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유사우록후속집』의 「남계선생문인록」이 박세채의 문인들에게 폭넓은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박세채의 문인들이 그들의 동문(同門)이라고 확실히 인정한 인물은 여기에 기록된 254명에서 최석정·정제두·허욱 세 사람과 권16의 마지막 편에 나오는 52명을 제외한 199명, 그리고 여기에 『동유사우록후속집』을 편찬한 이세환을 포함해 누락되었을 몇 명을 추가해 대략 200여 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정리한 박세채의 문인은 박세채가 노·소론의 갈등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고수해서였는지, 확연히 노·소론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조선 후기 소론의 성립 시점을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경신대출척 이후 서인 내부에서 분열의 조짐을 보이다가 당대 정치적 논쟁점이 되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박세채와 송시열의 대립, 그리고 윤증과 송시열의 갈등을 거치면서 노론과 소론의 분열이 고착화되었고, 1694년 갑술환국(甲戌換局) 이후 노론과 소론이 다양한 사안에서 첨예한 대립을 지속했다고 본다면, 소론의 태동 시점은 경신대출척이 일어난 1680년 이후로,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본격화된 시점은 1694년 갑술환국 이후로 볼 수 있다.[9]

그렇다면 박세채는 서인 내부에서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시작되던 시점에 다시 정계에 나와, 이들의 대립이 본격화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운명한 것이 된다. 그런 만큼 박세채의 문인 역시 박세채가 생존했었을 당시에는 박세채의 태도를 두고 갈등하더라도 당파를 구분하여 대립하는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또 노론과 소론은 본질적으로 서인이라

錄, 而不見文集, 聞見不及, 無可考信, 只存名帖, 五十二人."

9) 윤재환(2025), 115쪽.

는 동일한 정체성을 지니며 북인(北人)과 남인에 맞서 정치적 풍파를 같이 겪은 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찬반에 의해 구분되는 성향을 보인다. 그래서인지 이후에도 노·소론의 구분은 쉽지 않은데, 박세채의 후손들이 노·소론으로 나뉘었던 것이나 같은 가문의 일원인 조태억(趙泰億, 1675~1728)과 조태구(趙泰耉, 1660~1723)는 소론으로 분류되지만, 조태채(趙泰采, 1660~1722)는 노론으로 분류되는 것과 같은 경우가 적지 않고, 소론 가문의 일원이었던 이하곤(李夏坤, 1677~1724)과 신정하(申靖夏, 1680~1715)가 노론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을, 역시 소론 가문의 홍중성(洪重聖, 1668~1735)이 노론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을 사사한 것과 같은 예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노·소론의 넘나듦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들의 구분을 단순히 가계나 혈연만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박세채 문인의 노·소론 구분 역시 이들의 행적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박세채의 문집 간행 사업이다.[10] 이렇게 된 것은 박세채의 문인들이 자기 주장의 근거로 박세채의 글을 이용했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박세채라는 인물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박세채의 문집 편찬은 자신들의 주장이 지니는 정당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었고, 박세채의 문집 편찬에서 노·소론으로 나뉘어진 문인들의 대립은 자연히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문집 편찬 이전에도 이들의 대립은 1709년 『예기유편』 사건과 1715년 『가례원류(家禮源流)』 간행 사건에서 볼 수 있는데, 『예기유편』은 최석정이 『예기』의 편차를 임의대로 바꿔서 주희가 편찬한 내용을 부정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있자 최석정은 『예기유편』의 강확(講確) 명

10) 박세채의 문집 간행 과정에 대해서는 진오균(2021); (2023)에 자세히 나와 있어 재론하지 않는다.

단에 박세채와 윤증 등을 넣어 이들로부터 저술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증거로 삼으려 했다. 이에 박세채의 문인 중 노론 문인들은 박세채가 『예기유편』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지만, 소론 문인들은 노론 문인들이 불필요한 갈등을 만든다고 비판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박세채 문인들 사이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여 극단적인 대립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다음 일어난 『가례원류』 사건에서는 이들의 갈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가례원류』는 유계(兪棨)가 편찬한 책인데, 그의 손자 유상기(兪相基)가 간행하면서 이를 유계의 단독 편서라고 했으나 이후 윤선거(尹宣擧)와 같이 엮은 것이고, 그 뒤 여기에 윤증이 증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계의 단독 편저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노론과 소론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고, 이를 계기로 다시 회니시비가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이에 따라 회니시비에 대한 당시 박세채의 입장이 주요한 쟁점으로 대두되었고, 1716년 숙종의 병신처분(丙申處分)으로 노론이 정치적 우위를 점하게 되자 1717년 윤증의 문인 이세덕(李世德)이 박세채의 글을 인용하며 윤증의 신원(伸冤)을 청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와 같은 사건들이 지속되자 박세채의 문인 중 노론에 해당하는 문인들은 박세채의 글 중 그가 송시열을 높이고 윤증을 비판했던 만년 정론에 해당하지 않는 초년의 글들은 문집에서 산삭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와 반대로 소론에 해당하는 문인들은 박세채가 문집을 직접 편성하여 정리했기 때문에 그의 글을 함부로 수정할 수 없으니 박세채의 글을 모두 수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론 문인들의 주장은 스승인 박세채의 글을 제자들이 마음대로 손댈 수 없다는 것이지만, 그 내면은 노론 문인들과 반대로 박세채의 초년 저술을 통해 윤증과의 관계를 부각하고 이를 통해 윤증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립에도 불구하고 박세채의 문집 간행은 다양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박세채의 후손들과

소론 문인들의 주도로 1731년 무렵 간행되었고, 노론 문인들은 「남계행장」과 「남계연보부록」을 간행하여 맞섰지만, 이 글들은 끝내 문집에 수록되지 못했다.

이와 같은 박세채의 문집 간행 과정을 살펴보면, 그의 문인들 중 문집 간행 과정에서 윤증과 주고받은 박세채의 초기 서간문 산삭을 주장한 이들은 대체로 노론으로, 반대로 산삭의 불가를 주장한 이들은 대체로 소론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아래의 표에서도 확인되듯 박세채의 문인 중에서 노론에 해당하는 이들은 대부분 송시열과, 소론에 해당하는 이들의 대부분 윤증과 적지 않은 관계를 가졌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동유사우록후속집』에 나오는 박세채의 문인 중에서 행적에 따라 노·소론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이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박세채 문인 당색 구분표[11]

연번	성명	본관	자/호	생몰년	관력	당색	문집	비고
001	金幹	淸風	直卿/厚齋	1646~1732	判書	노론	『厚齋集』	宋時烈 拜謁
002	李行泰	全義	泰而/敬菴	1640~1718	宗簿主簿	노론		
003	林泳	羅州	德涵/滄溪	1649~1696	大司憲	노론	『滄溪集』	李端相 師事
005	金楺	淸風	士直/儉齋	1653~1719	吏曹參判/大提學	노론	『儉齋集』	宋時烈 師事
007	朴尙淳	咸陽	一和/水南	1655~1725	郡守	소론		
008	姜錫朋	晉州	叔重/翠巖	1656~1712	參奉	노론		
009	金載海	慶州	叔涵/知恥齋·雙湖	1658~1720	副率	소론	『雙湖遺稿』	尹拯 師事
010	任元聖	豐川	汝諧	1636~	寺正	노론		
017	梁處濟	南原	季通/默齋	1643~1716	敎官	소론	『默齋集』	尹拯 師事
032	鄭尙樸	雞林	眞卿/果齋	1650~	都事	노론		
033	金裁	淸風	仲固/默齋	1650~	執義	노론		
038	朴泰輿	潘南	述可/易簡	1651~1702	判官	소론		朴世采 次子
045	宋徵殷	驪山	質夫/約軒	1652~1720	參判	소론	『約軒集』	

055	李挺英	完山	士秀	1655~1726	府使	노론		
058	具夏柱	綾城	禹卿	1655~1714	縣監	노론		
059	宋淳錫	恩津	德普	1655~	縣監	노론		큰사위 宋時烈 孫子
060	權尙游	安東	季文	1655~1724	判書	노론		宋時烈 師事
070	李泰壽	完山	士亨/止谷	1658~	主簿	소론	『止谷遺稿』	尹拯 師事
072	朴泰晦	潘南	用章/晦明堂・晦軒	1658~1735		노론		朴世采 季子
084	尹志和	漆原	惠甫	1660~1704	正言	소론		
105	申聖夏	平山	成甫	1665~1736	同知	노론	『和菴集』	둘째 사위
115	申命耆	平山	仲瑞	1667~1745	縣監	소론		
128	李眞望	完山	久叔	1672~1736	判書	소론	『陶雲遺集』	朴泰輿 사위
129	李楫	完山	通老/正齋	1672~1739		노론		
134	朴弼莘	潘南	景任	1675~	經歷	소론		奉祀孫
140	李世弼	慶州	君輔/龜川	1642~1718	右尹	노론		
146	李徵明	全義	伯祥	1648~1699	參判	노론		宋時烈 師事
149	兪得一	昌原	寧叔	1650~1712	判書	노론		
	李世瑛	碧珍	季章/果齋	1664~1752	知敦寧府事	노론[12]	『果齋集』	

이 표에 나오는 문인 이외에도 당색을 확인할 수 있는 소론 문인으로 최석정과 정제두를 들 수 있지만, 『동유사우록후속집』에 배사(背師) 문인으로 나온다는 점에서 일단 이 표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런데 이 표를 보면 당색을 확인할 수 있는 전체 29명의 문인 중에서 노론에 해당하는 문인이 19명이고 소론에 해당하는 문인이 10명이어서 노론 문인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가지고 박세채의 문인에는 노론이 더 많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박세채의 문인 중에서 일찍 운명하여 『동

11) 연번은 『동유사우록후속집』에 수록된 순서로, 이세환은 편저자로 『동유사우록후속집』 속에 없어 연번을 표기하지 않았다.

12) 이세환에 대해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박세채와 윤증을 사사했다고 했지만, 그의 문집인 『과재집』을 살펴보면 윤증을 사사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이세환은 송시열의 학통을 이는 權尙夏의 추천으로 관직에 나갔고, 행적 역시 노론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세환을 노론으로 분류한다.

유사우록후속집』에 수록되지 못한 소론 문인이 있을 수 있고, 또 그의 문인 중에서 소론이었지만 당대 다양한 사정으로 자신의 당색을 선명히 드러내지 않은 문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동유사우록후속집』에 수록된 그의 문인 상당수가 노론 성향이었고, 또 문인록의 앞부분에 노론 문인이 더 많은 것으로 봐서 이들이 박세채 문인의 중심에서 활동했다고 추정할 수는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박세채의 문집은 후손과 소론 관료들의 지지를 받은 소론 문인들의 의도와 같이 간행되었고, 그에 따라 박세채는 소론의 태두라는 위상을 유지하게 되었다.

3. 소론계 박세채 문인의 문학 인식

소론계 박세채 문인의 문학론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일단 박세채의 문인 중에서 소론으로 확정할 수 있는 10명의 문인을 중심으로 논의를 펼칠 수밖에 없지만 이들에게서 문학론을 찾기는 쉽지 않다.[13] 그것은 이 10명의 문인 중에서 문집을 남긴 인물이 5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문집을 남긴 이들 중에서도 문집 속에 자신의 문학론을 명시적으로 밝힌 인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모습을 박세채의 문인들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당대 문인 대부분이 스스로를 문인이라기보다 학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고, 그래서인지 자신의 문학론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현상은 박세채의 문인뿐만 아니라 당대의 문인 대부분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박세채의 문인 중 소론 문인들에게서는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13) 박세채 뿐만 아니라 그의 문인들의 문학에 대한 연구가 아직 거의 이루어지 않았다. 특히 문학론에 대한 선행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에 선행 연구의 검토를 수록할 수 없었다.

이런 현상은 박세채가 정집·외집·속집을 합해 모두 125권 56책의 방대한 문집을 남겼지만, 그 안에서 그의 문학론을 살펴볼 수 있는 글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양상인데, 특히 김재해의 『쌍호유고』에는 문학에 관한 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현재 『쌍호유고』는 규장각(古1360-46-v.1-3)과 단국대학교 율곡도서관(고 850.819 김863ㅆ)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 중 규장각본은 전체 8권 7책 중 4·6·8권만 있는 낙질본이다. 율곡도서관 소장 『쌍호유고』는 표제에 조고유고(祖考遺稿)라고 되어 있고, 권1에 모두 85제 105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지만, 상소와 서간을 제외한 글이 모두 성리학에 관한 글이어서 문학에 관한 글을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은 박세채 문인의 문학론 규명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따라서 이 글에서 언급한 내용 역시 제한된 자료로 인해 적지 않은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이제 박세채의 문인 중 소론 문인 네 사람의 문학론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박세채의 문학론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한다.[14]

> 다행히 하늘이 우리 도(道)를 도우심에 힘입어 염락(濂洛) 사이에 여러 현인들이 이어 일어나셔서 이에 다시 사자(四子)의 글을 기술하고 오경(五經)을 닦아 만세 도학의 연원을 여셨다. 그러나 반우(盤盂)에 명(銘)을 새기고 성악(聲樂)을 연주하던 실상은 끝내 그것을 좇아 회복하지 못했다. 그런데 인산(仁山) 김 선생(金先生)은 송나라 말기에 태어나 위로 자양(紫陽) 사전(四傳)의 실마리를 이어, 은거하며 책을 저술하시니 그 뜻이 정심(精深)하고 넓고 깊어 진실로 성인의 경전을 보좌할 만한 것이 많았다. 그런데 오직 이 한 편이 더욱 옛 성현이 학문하던 남긴 뜻에 보탬이 되는 바가 있으니, 대개 이 또한 여러 현인들의 평소 잠훈(箴訓)과 풍영(諷詠) 가운데에서 뽑아 책을 이룬 것이다. 그 지극한 것은 진실로 이미 성명(性命)의 오묘함을 천명하고 존심(存心)과 성찰(省察)의 세밀함에 관계되었으며, 아래로는 오히려 이단

14) 박세채의 문학론에 대한 논의는 장유승(2008)의 글이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증산염락풍아서」의 분석에는 김기림(1996)과 김동하(2016)의 글이 도움이 된다.

을 물리치고 이익의 근원을 막아 향하는 바에 미혹되지 않게 하기에 충분하다. 학자들로 하여금 외우고 음미하며, 감동하고 떨치며 경계하고 두려워하게 하여 감히 털끝만큼도 그 마음에 게으름이 없게 하면, 우유함영(優游涵泳)하여 길들여져서 손이 춤추고 발을 구르는 경지에 이르러 스스로 그만둘 수 없게 된다. 이로써 헤아려보건대, 비록 옛날 반우(盤盂)의 큰 가르침과 성악의 지극한 가르침이라 한들 어찌 이보다 더하겠는가. 아, 훌륭하도다! 다만 기록한 것이 자못 광범위하여 혹 다 바로잡을 겨를이 없었고, 훈영(訓詠) 중 간절하고 실질적인 것들이 오히려 많이 빠지고 일실되었다. 이제 모두 『성리대전』 등 여러 책에서 이어서 보이므로, 또한 대략 증산(增刪)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겼다. 이에 감히 정리하고 편집하여 깨끗이 베껴 써서, 구구하게 아침저녁으로 경계하는 바탕으로 갖추고자 하니, 거의 선생의 가르침에 저버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못난 내가 이에 가만히 느끼는 바가 있다. 성학이 다시 밝아진 이래로 그 책들이 선반에 가득 차서, 후인들을 위해 요점을 모으고 미묘한 것을 드러내어 전해 주려는 뜻에 이르러서는 더욱 얕지 않다. 그러나 유독 학자들이 이로 인하여 수립한 바가 있다는 것은 끝내 많이 듣지 못했으니, 그 병통이 어디에 있는가? 다만 단속하고 방비함이 엄격하지 못하고, 융회(融會)함이 깊지 못했기 때문일 뿐이다. 이제 이 책을 읽는 자들이 만약 그 잠훈(箴訓)의 설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기를, 질병과 통증의 진절(眞切)함이나 연못의 얼음을 밟는 듯한 전전긍긍함과 다름없게 하고, 반드시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풍영(諷詠)의 말에 종사한다면, 유연히 감발하여 절로 가슴속이 시원하게 탁 트이고 소리개와 물고기가 날고뛰는 듯한 유동함을 깨닫게 될 것이니, 요컨대 화락한 뜻이 일찍이 그 가운데 행해지지 않음이 없어 덕을 이루는 데까지 이른다면, 이는 이 책을 더럽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나아가 삼대(三代) 예악의 도를 우러러 궁구함에 있어서도 걸림이 없을 것이다. 원컨대 동지들과 함께 힘쓰고자 한다.[15]

---

15) 朴世采, 『南溪先生朴文純公文正集』 卷66, 「增刪濂洛風雅序」. "幸賴天祚吾道, 濂洛之間諸賢繼起, 乃復述四子修五經, 以開萬世道學之淵源. 而然於盤盂聲樂之實, 卒莫之追復也. 仁山金先生生于宋季, 上接紫陽四傳之緖, 隱居著書, 精深宏遠, 固多可以羽翼聖經者. 而惟此一編尤有所補於古昔聖賢爲學之遺意, 蓋亦從諸賢平日箴訓諷詠中表出而成書. 其至者固已闡夫性命之奧而關乎存省之密, 下猶

이 글은 박세채의 「증산염락풍아서(增刪濂洛風雅序)」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박세채의 문집에서 그의 문학론을 살펴볼 수 있는 글이 별로 보이지 않는 데, 여기서 인용한 「증산염락풍아서」 외에는 「제소강절관물시후(題邵康節觀物詩後)」 정도가 박세채의 문학론을 엿볼 수 있는 글이다. 그런데 「증산염락풍아서」를 보면 박세채가 문학을 통한 심성 수양과 도학적 성취의 추구라는 도학적인 문학론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글이 『염락풍아(濂洛風雅)』를 증산(增刪)한 뒤에 쓴 글이라는 점에서 이런 모습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가 『염락풍아』에 관심을 가지고 굳이 증산하는 작업을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의 문학론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그는 문학을 성현의 도를 잇는 도학의 도구로 보았는데, 위의 글을 보면 박세채가 문학을 단순히 미적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라, 삼대(三代)의 성인이 했던 수기(修己)와 교인(敎人)의 방식을 회복하는 수단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이 글에서 고대 성왕들이 반우(盤盂)에 경계하는 글을 새기고, 공자가 시와 예악을 정비하여 사람을 가르쳤던 전통을 상기했는데, 이는 그가 문학이 그 자체로 도(道)와 분리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을 기르고 도덕을 완성하는 도학의 연장선에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그가 『증산염락풍아』를 엮은 의도 역시 염락(濂洛)의 학문을 바탕으로 잠훈(箴訓)과 풍영(諷詠)을 정리하여, 학자들

足以斥異端塞利源, 不迷於所向. 使學者誦而玩之, 感奮戒懼, 不敢以毫髮有懈于其心, 優游涵泳, 馴而至於手舞足蹈之域而不能自已. 以是揆之, 雖古盤盂之大訓, 聲樂之至敎, 其何以過此. 嗚呼盛哉. 顧其所錄頗廣, 或有未暇盡正, 而訓詠之切實者猶多放軼. 今皆續見於性理群書大全等書, 似亦不可不爲之略加增刪. 玆敢釐輯繕寫, 以備區區朝夕警戒之資, 庶幾無負于先生之敎者. 采之不肖, 於此竊有所感焉. 粵自聖學再明以來, 其書盈架, 至爲後人纂要揭微以畀之意, 益不淺矣. 獨其學者因此而有所樹立者, 訖未多聞, 其病安在. 特以檢防之不嚴, 融會之不深焉耳. 今之讀此編者, 苟能於其箴訓之說, 惕然恐懼, 無異疾痛之眞切, 淵氷之戰兢, 而必以敬畏從事於其諷詠之辭, 油然感發, 自不覺胸次之灑落, 鳶魚之流動, 而要之和樂之意未嘗不行於其中, 以至成德, 則是不惟可以無褻於此編, 抑將仰究于三代禮樂之道而無所礙矣. 願與同志者勉之."

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학문의 본원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박세채는 문학의 기능을 잠훈과 풍영으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잠훈의 기능은 문학이 학습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허물을 깨닫게 하고, 마치 병을 앓는 것과 같은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스스로를 단속하게 만드는 교정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고, 풍영의 기능은 경계로 마음을 정돈한 후 문학 작품을 통해 마음을 맑게 하고 가슴속을 시원하게 트이게 하며, 최종적으로는 손이 춤추고 발이 구르는 지극한 즐거움과 화락(和樂)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는 문학을 수양의 시작이자 종착점으로 규정한 것으로, 박세채의 수양론적 문학론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박세채의 「제소강절관물시후」를 보면 그가 개인적인 감상을 넘어선 이(理)와 기(氣)의 조화를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제소강절관물시후」에서 은하수를 보면서 시원함을 느끼거나 봄날 초목을 보며 기쁨을 느끼는 것을 단순히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이(理)가 같기 때문이라고 해석했고, 진정한 즐거움은 물욕에 가려진 외형적인 화려함을 좇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맑게 하여 자연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데 있다고 했는데,[16] 이를 문학에 대입하면 훌륭한 문학 작품은 보편적인 천리(天理)를 독자의 마음과 공명하는 매개체이고, 작자의 마음을 맑게 씻어내어 독자 역시 사물의

16) 朴世采, 『南溪先生朴文純公文正集』 卷68, 「題邵康節觀物詩後」. "余或於夜中步于西園, 仰視星河, 輒有爽然澄淸之趨, 或於春時草木向榮, 生氣藹融, 則亦未嘗不有欣然自得之意, 而余誠不自知緣何而有此樂也. 今十二月二十三日夜, 適於性理大全見康節詩, 有曰心爽星辰夜, 情欣草木春. 余於是始知古人亦有此等意思, 不覺躍然而喜也. 因試論之, 惟其所同者理, 故邵翁觀物之樂, 我亦自知其可樂, 而非我獨樂之. 將四海之人皆當知此樂之可樂. 而惟其不齊者氣, 而用力又異, 故邵翁能獨樂其所樂, 而我與四海之人俱爲物欲所蔽, 徒知其外象爲稍可樂, 而不知其眞樂之所以樂也. 然苟從此自哀其不知眞樂, 而冀有以必求邵翁之所以樂者何事, 孜孜用力於此, 而使我之心地日淸理義日明, 益有所得焉, 則其於陽氣流行之端, 萬物俱靜之體, 皆將神會而默契, 蔽自祛而理自全. 然則其所樂之樂, 又將何如. 而是豈前日之樂所可幷語也哉. 因書以自警."

본질을 보게 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그는 「기논저대지(記論著大旨)」에서 "문장의 도가 날로 화려하고 사치스러워지니 마땅히 이를 돌이켜야 한다."[17]라고 하여 당대의 문풍이 본질을 잃고 화려함으로 치닫는 것을 병통으로 규정했다. 그래서 그는 「증산염락풍아서」에서 보듯 고금의 시 중에서 본질을 지키고 있는 시를 골라, 독자가 다시 본래의 도(道)로 돌아오게 하려는 사명감을 지녔던 것이다. 이는 그의 문학론이 새롭고 신기한 작품의 창작보다 정통의 계승과 회복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보면 박세채의 문학론은 인간의 마음을 닦아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박세채의 문학론은 학문적 엄밀함과 내면의 수양을 강조하는 학자적 문학론으로, 그가 문학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도(道)를 체득하며, 나아가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도학적 완성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박세채의 다음으로 살펴볼 사람은 양처제이다. 양처제의 문집『묵재집』은 국립중앙도서관(무구재古3648-46-13)에 소장된 건곤 2책의 필사본이다. 1959년 9세손 양재윤(梁在允)이 편집・간행했는데, 건책이 1~3권, 곤책이 4~6권으로, 권두에 기노장(奇老章)의 서문과 권말에 양재윤의 발문 및 동간록(同刊錄)이 있다. 이 6권 중에서 그의 문학론을 살펴볼 수 있는 글은 모두 권4의 잡저에 수록되어 있다.

> 문장은 도를 싣는 그릇이다. 그러므로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말이 있어 후세에 증험할 수 있으니, 진실로 도를 체득한 자가 아니라면 비록 반고(班固)와 사마천(司馬遷)의 무리라고 하더라도 결국 새 중의 앵무새나 짐승 중의 성성이에 귀결될 뿐이니, 어찌 숭상할 만하겠는가? 양촌(陽村)은 입으로는 성현의 책을 읽고 귀로는 도덕에 부합하는 말을 물들여, 말을 내면 문장을 이루어 대가(大家)라고 일컬어졌다. 그러나 그 행동으로 말하자면, 고려

17) 朴世采,『南溪先生朴文純公文正集』卷58,「記論著大旨」. "文章之道, 日就華靡, 亦當有以反之."

> 의 높은 품계에 있었던 신하로서 존망의 즈음에 옛 고려의 임금을 버려두었고, 두 성씨를 섬기면서도 부끄러워할 줄을 몰랐다. 나라의 멸망에 통곡하고자 하는 의리나 주나라 곡식을 먹지 않은 지조를 일찍이 들었으면서도 알지 못했으니, 그의 문장이라는 것은 단지 말할 줄 아는 짐승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거의 그보다 심함이 있다. 어찌 일찍이 성현의 남기신 가르침을 읽었다고 하면서 두 성씨를 섬기는 것이 의리를 버리는 것임을 알지 못했는가? 저술한 바에는 불교의 학설과 성현의 말이 많았으나, 만년의 절개가 은혜를 잊고 나라를 배반하며 의리를 버린 하잘것없는 무리로 귀결되었으니, 성인의 문하에 있는 성성이로다. 아! 이와 같은 행위를 했으면서도 몸을 깨끗이 하고 도를 체득한 자들에게 돌아갈 과보(果報)를 받아먹어 하늘의 보시(報施)를 이겼으니, 오직 이것이 두렵다. 이를 허수아비 같은 자의 빈말이 되게 하여, 만세의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대의를 부지하고자 한다.[18]

이 글은 양처제의 「서양촌집후(書陽村集後)」이다. 이 글을 보면 양처제의 문학론이 문재도기(文載道器) 즉 문학은 도(道)를 담는 그릇이며, 글 그 자체보다 작자의 내적 덕성과 실천이 본질이라는 문이재도(文以載道)의 문학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 양처제는 "문장은 도를 싣는 그릇이다. 그러므로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말이 있어 후세에 증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는 문학이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성현이 강조한 도(道)를 전달할 때만 가치가 있다고 본 것으로, 그가 문학의 본질을 도를 싣는 것으로 보아 문학적 기교보다 그 안에 담긴 사상과 도덕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여겼음을 보여준다.

---

18) 梁處濟, 『默齋先生遺集』 卷4, 「書陽村集後 甲申」. "文章載道之器. 故有德者必有言, 可徵於後, 苟非體道者, 雖班馬之呂[侶], 歸於禽中之鵡, 獸中之猩耳, 烏足尙哉. 陽村口讀聖賢之籍, 耳染道德之符, 出言成章, 稱爲大家. 而言其行, 則以前朝顯秩之臣, 遺舊君於存亡之際, 事二姓而不知愧焉. 欲哭之義, 不食周粟, 嘗聞之而不知爾者, 其爲文章, 特能言之禽獸而殆有甚焉. 何則曾謂讀聖賢之遺訓, 而不知事二姓之爲棄義耶. 所著多瞿曇之說, 聖賢之言, 而晩節歸於忘恩負國棄義之附庸, 聖門之猩猩. 噫. 以若所爲, 食報於潔身體道者, 絶勝天之報施, 惟是之懼. 此爲偶人空言者, 以爲扶萬世臣事君之大義."

그래서 그는 화려한 수식이나 말재주만 뛰어난 문학을 극도로 경계했다. 그는 「현송당서(絃誦堂序)」에서 "슬프다! 시·서·예·악은 본래 세상을 깨우치는 것이지만, 그러나 배우고도 때로 익히는 공에 이르지 못하여 그 이름만 있고 실상이 없다면, 비록 수만 수레의 책을 널리 배우고 삼대의 음악을 풍부하게 익혔을지라도 다만 읊조리는 데 귀착될 뿐이요 박자를 칠 뿐이다."[19]라고 했는데, 이는 작자의 내적 수양이 이루어져야만 참된 글이 나오며, 덕이라는 알맹이가 없는 글은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기노장 역시 『묵재집』의 서문에서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말이 있지만 말이 있다고 반드시 덕이 있는 것은 아니니, 한갓 말만 잘할 뿐 볼만한 덕이 없다면 그 말은 풀벌레가 찌르르 우는 소리일 뿐이니, 누가 귀담아들으려 하겠는가?"[20]라고 했는데, 이는 마음의 수양이 따르지 않는 문학은 풀벌레 소리에 불과하다고 한 것으로, 좋은 문학 작품은 기교가 아니라 작자의 온화하고 순수한 덕이 가슴속에 쌓여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언급을 기노장이 문집의 서문에서 한 것은 양처제가 내면의 덕성이 문학에 우선한다고 보는 재덕후언(在德後言)의 문학론을 실천했다고 여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양처제는 「서양촌집후」에서 권근의 글을 두고 "단지 말할 줄 아는 짐승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거의 그보다 심함이 있다. 어찌 일찍이 성현의 남기신 가르침을 읽었다고 하면서 두 성씨를 섬기는 것이 의리를 버리는 것임을 알지 못했는가? …… 이를 허수아비 같은 자의 빈말이 되게 하여 만세의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대의를 부지하고자 한다."라고 했는데, 이는 고려 말 조선 초의 대문장가인 양촌 권근이 아무리 문장으로 대가를 이루

19) 梁處濟, 『默齋先生遺集』 卷4, 「絃誦堂序 丁丑冬至日」. "嗚呼. 詩書禮樂, 固所以牖世, 然學而不致時習之功, 有其名而無其實, 則雖博學萬車之書, 富習三代之樂, 只歸於吟咏而已, 彈拍而已."

20) 梁處濟, 『默齋先生遺集』 卷1, 「默齋先生梁公遺集序」. "有德者必有言, 有言者不必有德, 徒能言矣而無德可觀, 則之言也, 候蟲之唧唧而已, 孰肯數焉哉."

고 성현의 말을 익숙히 알았다고 하더라도 두 임금을 섬긴 의리를 버린 삶을 살았다면 그의 문장은 말할 줄 아는 짐승의 문장이자 허수아비의 빈 말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이런 의식은 앞서 언급한 「현송당서」에서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양처제는 "체험하고 힘써 행하는 실상에 어두우면 악보를 손가락 끝으로 짚으면서도 율려(律呂)가 서로 살아나는 묘한 이치를 잃어버리니, 이는 단지 그 악함을 기르고 그 음란함을 더하기에 충분할 뿐이다."[21]라고 했는데, 이는 작자의 창작 행위가 일상생활의 실천과 도리의 체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본 것이고, 작품의 내용과 작가의 삶이 어긋나는 위선적 문학을 배격한 것으로, 그가 언행일치의 실천적 문학론을 지녔음을 의미한다.

그래서인지 문집의 서문에서 기노장은 양처제의 문장에 대해 "온화하고 순수한 덕이 가슴속에 쌓여 훌륭하고 순수한 정화가 바깥으로 드러난 것을 알 수 있으니, 구구하게 청색을 칠하고 자색을 끌어당겨 세상에서 화려한 문장으로 명예를 구하는 부류가 아님을 알 수 있다."[22]라고 했는데, 이는 양처제가 자신의 문학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본다면 양처제는 문학을 시인 묵객의 유희로 보지 않았으며, 작자의 도덕적 삶과 실천이 담긴 언행일치의 문학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전해질 수 있다는 확고한 도학적 문학론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양처제의 문학론을 이렇게 정리한 다음 살펴볼 인물은 송징은이다. 송징은의 문집 『약헌집』은 14권 7책으로 규장각 · 국립중앙도서관 ·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1996년 민족문화추진회에서 『한국문집총간』 163~164권으로 영인 · 간행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영인 · 간행된 『한국문집총간』 소재 『약헌집』을 검토 대상으로 한다. 그의 글을 직접 보도록 한다.

---

21) 梁處濟, 『默齋先生遺集』 卷4, 「絃誦堂序 丁丑冬至日」. "昧體驗力行之實, 傳曲譜於指端, 失律呂相生之妙, 適足以長其惡而益其淫."

22) 梁處濟, 『默齋先生遺集』 卷1, 「默齋先生梁公遺集序」. "今得其遺文而讀之, 可知其和順積中, 而英華粹然發於外, 非規規於繪靑拖紫, 沽妍於世之類也."

내가 일찍이 옛 성인의 책 읽기를 좋아하고 문장을 짓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또한 일찍이 제자백가의 학문에도 손을 댄 적이 있었다. 그런데 하동 유씨(河東柳氏, 유종원)의 글에 이르러서는, 내가 기이함을 조각하고 괴이함을 끄집어내어 기괴하고 경전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 많은 것을 몹시 병통으로 여겼으니 매번 학문을 좋아하는 자가 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고 여겨, 한 편을 다 읽기도 전에 반드시 다시 상자 속에 넣어두곤 하였으니, 이와 같이 한 것이 여러 번이었다. 그러다 마침 이때가 되어 다시 그 평이하고 완전(宛轉)하여 도(道)에 심하게 어긋나지 않는 글들을 가져다가 10여 편을 읽고 나서야 그제야 비로소 그의 문장이 웅위(雄偉)하고 우아하며 굳세어 천고에 우뚝 서서, 마땅히 한유(韓愈)나 육지(陸贄)와 말고삐를 나란히 할 만하며 작자의 규범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문장은 도를 밝히는 것이니, 진실로 반짝이고 빛나는 것만을 하려고 힘써 기이함을 속이고 교묘하고 화려함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의 글을 살펴보니 도에 가까운 말은 한마디도 없고, 왕왕 불교를 숭신(崇信)하여 자비의 배를 타고 피안(彼岸)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으니, 어찌 그 식견이 어둡고 말이 잘못되었는가? 당시의 한문공(韓文公, 한유) 같은 이는 문장으로 공자를 높이고 이단을 물리칠 수 있어서 우리 유도에 자못 힘이 있었는데, 그와 동시대의 무리로서 그 말을 세움이 한결같이 어찌 서로 어긋난단 말인가? 그가 부정한 사람들과 무리를 지어 마침내 스스로 잔인하고 남을 해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반드시 이것이 시초가 아님이 없을 것이다. 슬프다! 허리에 천전(千錢)을 차고 있다가 물에 빠져 죽은 자는 영릉(零陵)의 백성이요, 무거운 짐을 탐내어 짊어지다가 거꾸러져 죽은 자는 부판(蜉蝂)의 벌레이니 문장으로 슬퍼하기도 하고 전(傳)으로 기록하기도 하여 세상의 재물을 탐하고 이익을 좇으며 화를 무릅쓰고도 피할 줄 모르는 자들을 분별한 것이 매우 밝고 풍자한 것이 매우 간절하였다. 그런데 그 후에 도리어 자신이 직접 그 길을 밟았으니, 말만 하고 실행할 수 없는 자였는가? 아니면 화에 미쳐서야 후회한 자였는가? 자후(子厚)가 이 책을 저술하여 비록 스스로 그 몸을 구제하지는 못했을지라도, 후세 사람들이 만약 이것을 보고 경계로 삼는다면 어찌 다시 재물과 이익 사이에서 급급하게 좇아다닐 수 있겠는가?[23]

23) 宋徵殷, 『約軒集』 卷10, 「讀柳文」. "余嘗喜讀古聖人書, 不屑爲文章事, 而亦嘗染

이 글은 송징은의 「독유문(讀柳文)」인데, 이 글을 통해 송징은이 문장은 도(道)를 밝히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문이명도(文以明道)의 문학론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글에서 "문장은 도를 밝히는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이어 유종원의 글을 비판하면서 "도에 가까운 말은 한 마디도 없고, 왕왕 불교를 숭신하여 자비의 배를 타고 피안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며 식견이 어둡고 말이 잘못되었다고 한 것은, 유가의 도리가 배제된 문학을 부정한 것으로, 문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유가의 올바른 도리나 이치를 담아내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題蕃齋集後」에서 유희춘(柳希春)이 "박모(朴某)는 경서(經書)로써 문장을 짓는다."라고 한 말을 인용한 뒤 참으로 헛된 말이 아니다.[24]라고 하여 문학과 경학이 하나로 이어져야 한다고 여긴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송징은은 화려한 장식과 과장을 배격하고 담백함을 숭상하는 불화불미(不華不靡)의 문학을 추구했는데, 이는 기교나 과장된 표현, 화려한 문체를 부정하고 간결하며 진솔한 표현을 미덕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는 인용한 글에서 "진실로 반짝이고 빛나는 것만을 하려고 힘써 기이함을 속이고 교묘하고 화려함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에서도

指於諸子家矣. 於河東柳氏書, 余甚病其鏤奇抉怪, 多詭異而不經者. 每以爲非好學者所宜看, 看一篇未了, 必更篋笥之, 如是者蓋累矣. 適於是時也, 更取其平鋪宛轉, 不甚違於道者, 讀十餘編, 然後始知其文章雄偉雅健, 傑立千古, 宜與韓陸齊鑣, 而足爲作者之軌範也. 然文者, 所以明道, 固不可爲炳炳烺烺, 務譎奇而夸巧麗也. 今考其書, 無一言髣髴於道者, 往往崇信浮屠, 攀慈航望彼岸, 而不以爲怪焉, 何其識之惛而辭之謬也. 當時如韓文公, 能以辭, 尊孔氏拒異端, 頗有力於吾道, 而以一時儕流, 其立言, 一何相懿耶. 其黨比匪人, 卒自禍賊者, 未必不此爲之權輿也. 噫. 腰千錢而取溺, 零陵之氓也, 貪重負而抵死, 蜎蠉之蟲也, 而或以文哀之, 或以傳記之, 則其爲世之嗜貨徇利, 冒禍而不知避者, 辨之甚明, 譏之甚切. 而後乃躬自蹈之, 將言之而不能行者耶, 抑及禍而噬臍者耶. 子厚著是書, 縱未能自救其身, 後之人, 若觀戒於此, 則豈可復逐逐於貨利間耶."

24) 宋徵殷, 『約軒集』 卷10, 「題蕃齋集後」. "柳文節公希春曰, 朴某以經書作文章, 信不虛矣."

알 수 있지만, 「의성김씨임벽당시후(題義城金氏林碧堂詩後)」에서 "섬약하고 음탕하며 방탕한 말들은 진실로 볼만한 것이 못 되고, 대개는 지나치게 화려하고 경박하며 사치스러운 데로 흐르기 일쑤였으므로 내가 일찍이 그것을 병통으로 여겼다. 근래에 의성 김씨 침각(枕角)이 지은 「임벽당시(林碧堂詩)」 두 편을 얻어 보니, 그 그윽하고 한가로우며 곧고 정숙하며 담박하고 간결하며 우아한 지취가, 은은하게 이남(二南)의 남겨진 음조가 있어서 한 번 부르면 세 번 탄식하게 만든다."[25]라고 한 것과 민영숙의 금강산 기행문 뒤에 쓴 「제민영숙동유일록후(題閔永叔東遊日錄後)」에서 "그것을 기록하더라도 과장하고 허황된 데로 흐르지 않는 것 또한 드무니, 내가 일찍이 그것을 병통으로 여겼다. 이제 영숙은 속세의 얽매임을 벗어던지고 내외 산의 여러 승경을 두루 관람하였고, 기록한 것도 과장되거나 허황되지 않아 참된 경지를 그려냈으니, 어찌 아름답지 않은가?"[26]라고 한 것에서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그는 평이한 글보다 문장의 구조적 완성과 기상을 중시하여 문장의 창작에서 법도에 맞으면서도 웅장하고 굳센 기상을 지닌 문장을 높였다. 위에서 인용한 글을 보면 그는 처음에는 유종원의 기이함을 싫어했으나, 도에 어긋나지 않는 글들을 다시 읽은 뒤 유종원의 문장이 웅위하고 우아하며 굳세어 천고에 우뚝 서서, 한유나 육지와 말고삐를 나란히 할 만하며 작자의 규범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유종원의 문장을 인정했다. 이런 모습은 그가 백거이의 문장을 평한 글에서도 볼 수 있다. 그는 「백향산집후(題白香山集後)」에서 백거이에 대해 "내가 일찍이

---

25) 宋徵殷,『約軒集』卷10,「題義城金氏林碧堂詩後」. "其纖巧淫佚之辭, 固不足觀, 而率多流於夸麗浮靡, 余嘗病之矣. 近得義城金氏枕角所題林碧堂詩二首而玩之, 其幽閒貞靜沖淡簡雅之趣, 沨沨乎有二南之遺音, 一唱而三歎者矣."

26) 宋徵殷,『約軒集』卷10,「題閔永叔東遊日錄後」. "能記之而不傷於浮夸誕謾者, 亦罕焉, 余嘗病之. 今永叔能擺脫塵累, 歷覽內外山諸勝, 其所爲記也, 不夸不誕, 寫出眞境,豈不嫩哉."

『백향산집(白香山集)』을 보니 문채가 빛나고 체재와 격식이 다 갖추어져 실로 성당(盛唐)의 대가(大家)가 될 만했다. 그러나 그가 총령(蔥嶺)의 학문에 손을 대어 불교에 마음을 깃들이고 공적(空寂)에 뜻을 두었으니, 대개 불자(佛子)의 기미와 냄새가 많다. 그의 팔점의 게송이나 아미보살 찬은 높이 믿는 뜻이 매우 독실하여 이것으로 저승의 복을 바랐으니, 미혹되었다고 할 만하다. 다만 명리와 이익을 도외시하고 벼슬을 던져버리며 편안히 물러나 산수에 자취를 두어 자못 한적하고 고요한 지취를 얻었으니, 그것을 왕유나 유종원의 무리와 비교한다면 어찌 같은 날에 논할 수 있겠는가?"[27]라고 했는데, 이런 언급들은 그가 유종원과 백거이의 성향에 대해서는 비판했지만, 그들의 문장만큼은 체재와 격식이 잘 갖추어진 우수한 작품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송징은이 문장의 구조적 완성과 기상을 중시하여 문장의 창작에서 법도에 맞으면서도 웅장하고 굳센 기상을 지닌 문장을 높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추구한 문학은 인간과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실질적인 효용을 지니는 것이었다. 위에서 인용한 글의 마지막에서 "후세 사람들이 만약 이것을 보고 경계로 삼는다면 어찌 다시 재물과 이익 사이에서 급급하게 쫓아다닐 수 있겠는가?"라고 했는데, 이는 유종원의 문학이 지닌 가치를 도덕적·사회적 경계와 풍자의 기능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볼 때 송징은의 문학론은 법도와 기상을 지니고, 과장이나 기교를 버린 진솔하고 담백한 문체 속에 올바른 도리와 현실에 대한 경계를 담는 문이명도(文以明道)의 문학론이라고 할 수 있다.

송징은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이태수이다. 이태수의 문집『지곡유고』는 규장각(古3428-801-v.1-6)과 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46-가1044)에 소

27) 宋徵殷,『約軒集』卷10,「題白香山集後」. "余嘗看白香山集, 詞藻映發, 體格具備, 實爲盛唐大家. 其染指於蔥嶺之學, 棲心釋梵, 寄意空寂, 蓋多伊蒲塞氣味. 其八漸之偈, 阿彌菩薩之贊, 崇信甚篤, 以冀冥福, 可謂惑矣. 但遺外名利, 抛官恬退, 浪迹山水, 頗得閒靜之趣, 其視王摩詰柳宗元之徒, 豈可同日而論哉."

장되어 있는데, 전체 6책인 규장각본과 달리 국립중앙도서관본은 권차가 없고 체재가 산만한 4책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규장각본을 저본으로 하지만, 규장각본에서도 그의 문학론을 확인할 수 있는 글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권3의 「신라금서(新羅琴序)」와 권4의 「대백씨제조일사시집(代伯氏題祖一師詩集)」을 통해 문학론의 얼개 정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글을 직접 보도록 한다.

> 거문고를 만든 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그 구조를 말하면, 위가 둥근 것은 하늘을 숭상함이요, 아래가 네모난 것은 땅을 숭상함이며, 두 개의 구멍은 해와 달을 숭상함이요, 용두(龍頭)는 변화를 숭상하는 용이며, 봉미(鳳尾)는 문명(文明)을 숭상함이요, 열두 개의 기둥을 펼친 것은 일 년의 열두 달을 숭상함이며, 여기에 네 개를 더한 것은 네 계절을 숭상함이다. 그 줄을 말하자면, 순(舜) 임금 때의 제도는 다섯 줄이었는데, 왼쪽에 문현(文絃)을 더하고 오른쪽에 무현(武絃)을 더하여 그 수가 일곱이 되었다. 그 소리를 말하자면, 궁(宮)은 사성(四聲)의 벼리가 되고, 상(商)·각(角)·치(徵)·우(羽)는 궁(宮)의 기강이 된다. 그 효능을 말하자면, 사악한 마음을 금지하고 중화(中和)의 덕을 펴며, 혈맥을 요동쳐 흐르게 하고, 정신을 통하게 하여 성(聖)·인(仁)·의(義)·예(禮)·지(智)가 감응에 따라 응하니, 근심 걱정과 사납고 죽이는 기운이 몸에 나타나지 않으며, 평탄하고 곧으며 자애롭고 신실한 마음을 생겨나게 할 수 있고, 천신(天神)을 편안하게 하고 오래 머물게 하는 공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군자는 이것을 몸에서 멀리하지 않았으니, 남풍(南風)의 노래는 그 효험이 광대해졌고, 현학(玄鶴)의 춤은 그 상서로움이 밝아졌다. 거문고의 쓰임이 이처럼 크고 거문고의 책임이 이처럼 무거우니, 세상에서 스스로 수양하고자 하는 군자가 어찌 거문고를 버려두고 수양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훌륭한 장인과 훌륭한 대장장이는 반드시 그 도구를 날카롭게 한 뒤에야 그 일을 잘하는 법이다. 내가 이를 구한 지 10년 만에 관서(關西)의 옛 절에서 얻었는데, 대개 그 자재(資材)는 곧 절의 들보였고, 그 들보는 곧 옛 신라 때의 물건이었다. 위아래로 수천 년 동안 서로 이어지며 썩지 않고 오늘날에 이르러 방백(方伯) 김공(金公)의 손에 들어갔으니, 전생

> 의 인연이 있지 않다면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김공이 이것으로 거문고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흘러서 나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 또한 신령한 물건이 서로 감응하는 이치가 있지 않으면 어찌 이런 지경에 이를 수 있었겠는가. 강가의 집이 적막하여 오직 거문고만을 벗 삼으니, 맑은 바람과 밝은 달 아래 애오라지 스스로 즐기며 높고 화려하거나 자질구레한 소리를 경계하고, 온유(溫柔)하고 중정(中正)한 소리를 펼치니, 뜻을 헤아려 사람으로서 도리를 깨닫고자 하는 것이다. 비록 옛 성인의 읊조림에는 미치지 못하나, 한가한 가운데 방탕하고 넘치는 마음을 스스로 풀어 없앨 수 있다.[28]

이 글은 「신라금서」로 거문고에 대한 것이지만, 전근대 시기에는 음악과 문학을 마음의 소리를 표현한 예술로 보아 같은 관점에서 논한 경우가 많았다. 『시경』 자체가 노래 가사였으며, 시는 뜻을 말하는 것이고, 노래는 말을 길게 하는 것이고, 음악은 길게 늘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고, 음율은 소리를 조화하는 것[29]이라는 전통적 관점이 확고했다는 점에서 이 글이 문학에 관해 별다른 언급을 남기지 않았던 이태수의 문학론을 추정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인용했다. 그러나 이 글이 이태수가 자신의 문학론을 직접적으로 밝힌 글이 아니고, 논의의 대상 역시 문학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기서 언급한 내용을 그대로 문학론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

28) 李泰壽, 『止谷先生遺稿』 卷3, 「新羅琴序 並錄」. "琴之設, 豈偶爾哉. 言其制, 上圓尙乎天, 下方尙于地, 二其穴尙日月, 龍其頭尙變化, 鳳其尾尙文明, 布柱十二尙乎朞, 添以四尙乎四時也. 言其絃, 舜之設有五, 左添以文, 右添以武, 其數七也. 言其聲, 宮爲四聲之綱, 商角徵羽爲宮之紀, 言其效, 禁止邪心, 宣發中和, 動盪血脉, 流通精神, 聖仁義禮智, 隨感而應, 憂愁厲殺, 不見於體, 可以生易直慈諒之心, 可以責安久天神之功. 故君子以之不去于身, 南風之歌, 其效廣, 玄鶴之舞, 其祥明. 琴之用, 如是其大, 琴之責, 如是其重, 世之欲自修君子, 其可捨琴而爲哉. 然良工良冶, 必利其器而後善其事. 余求之十年, 得之於關西之古寺, 盖材卽寺之樑, 樑卽古新羅年間物. 上下數千年間, 相仍不朽, 至于今日, 而入於方伯金公之手, 不有宿緣其能然哉. 金公作之琴, 轉爲予所有, 又非有神物相感之理, 何能至此. 江扉寂寞, 唯琴是伴, 淸風明月, 聊以自樂, 戒亢麗微末之音, 發溫柔中正之聲, 數志爲人之得. 雖未及於古聖詠歎, 淫佚自可消遣於閒中."

29) 『書經』, 「虞書・舜典」. "詩言志, 歌永言, 聲依永, 聲依永, 律和聲."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글을 보면 이태수가 문학·예술을 도(道)를 담아내고 인간의 마음을 바르게 수양하는 도구로 보는 예악(禮樂) 사상과 재도론(載道論)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는 거문고의 구조와 쓰임을 설명하며 유가의 예악(禮樂) 사상과 문학·예술은 도를 담아야 한다는 재도론의 입장을 강하게 보였는데, 이는 인용한 글에서 거문고의 효능에 대해 "사악한 마음을 금지하고 중화의 덕을 펴며 …… 평탄하고 곧으며 자애롭고 신실한 마음을 생겨나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또 "세상에서 스스로 수양하고자 하는 군자가 어찌 거문고를 버려두고 수양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 것에서 볼 수 있다. 이런 표현은 유가의 전통 문학관인 시언지(詩言志)나 사무사(思無邪)와 같은 것인데, 이런 점에서 이태수에게 문학·예술은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사악한 마음을 억제하고 온화한 마음을 기르는 자기 수양의 도구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특히 그는 거문고의 구조를 하늘과 땅, 해와 달, 1년 열두 달과 4계절이라는 대자연에 투영했는데, 이런 표현을 문학·예술과 이어보면 이는 문학·예술은 자연의 이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관념으로, 그가 훌륭한 문학·예술은 인간의 인위적인 기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섭리와 자연의 순리를 담을 때 비로소 성취된다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천인합일의 창작 태도를 추구했다고도 볼 수 있게 한다.

또 그는 문학·예술이 가져야 할 격조에 대해 확고한 기준을 지녀, 지나치게 기교적이거나 감정 과잉의 문학·예술을 배격하고 담백하고 바른 소리를 지향하여, 음란하고 화려한 문풍을 경계하는 온유중정(溫柔中正)의 문학·예술관을 지녔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인용한 글에서 "높고 화려하거나 자질구레한 소리를 경계하고, 온유하고 중정한 소리를 펼치니, 뜻을 헤아려 사람으로서 도리를 깨닫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한 것과 함께 「대

백씨제조일사시집」에서 조일 스님의 시에 대해 "하물며 그 시문은 속세의 찌꺼기를 다 벗겨내어 불도의 미묘하고 심오함이 깃들어 있으니, 한 번 읊조려 읽으면 문득 사람으로 하여금 시원하고 초연해져 세상의 일을 잊어버리려는 뜻을 가지게 하니 이미 지극히 흠모하고 감탄하였다."[30]라고 한 것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런 언급은 이태수가 귀를 자극하는 화려하고 자질구레한 소리를 배격하고 유가의 전통 미학인 온유중정(溫柔中正)을 추구한 것으로, 이를 문학에 적용하면 그가 기교나 감정의 과잉이 없는 담백하고 격조 높은 문학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태수는 「신라금서」에서 훌륭한 장인은 반드시 도구를 날카롭게 한다고 한 뒤, 신라 시대부터 내려온 썩지 않은 들보를 얻고, 그것이 김공의 손을 거쳐 자신에게 온 인연을 강조했다. 이 언급을 문학에 대입해 보면 좋은 문학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작자의 내면 수양이라는 도구의 정비와 함께 오랜 시간 축적되어 깊이 있고 삶의 진정성을 지닌 소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이태수가 문학적 기교 이전에 작자의 의식과 작품의 소재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이태수는 「신라금서」의 마지막에서 "강가의 집이 적막하여 오직 거문고만을 벗 삼으니, 맑은 바람과 밝은 달 아래 애오라지 스스로 즐긴다. …… 한가한 가운데 방탕하고 넘치는 마음을 스스로 풀어 없앨 수 있다."라고 하고 또 앞의 「대백씨제조일사시집」에서 "한 번 읊조려 읽으면 문득 사람으로 하여금 시원하고 초연해져 세상의 일을 잊어버리려는 뜻을 가지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를 문학에 대입하면 그가 거문고가 적막한 삶의 위로였듯, 문학 또한 세상에 알아주는 이 없는 외로운 상황에서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고 위로하는 자아 성찰과 안식의 수단으로 여겼다고 할

30) 李泰壽, 『止谷先生遺稿』 卷4, 「代伯氏題祖一師詩集」. "況其詩文, 剝盡累, 道微奧, 一誦詠, 便令人, 灑然脫然, 有遺世之意, 已極欽歎."

수 있다. 따라서 그는 남을 의식한 과시용 문학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문학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또 그는 좋은 문학이 독자에게 세속의 잡념을 시원하게 벗어던지게 만들고, 한가로운 속에서 번뇌를 스스로 해소하게 해 준다고 보았는데, 이는 그가 문학이 한가로운 가운데 세속의 번뇌를 해소하고 마음을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개인의 내면에 주는 문학의 정서적 효과를 인정한 것으로, 그가 도학자적인 엄격함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학이 가진 정서적 정화와 위안의 기능 역시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게 한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이태수는 문학을 속세의 기교나 자잘한 찌꺼기를 벗겨내고, 인간의 마음을 바르게 수양하며, 독자에게 세속을 초탈한 영혼의 정화를 주는 것으로 간주하는 유가의 전통적인 문학론을 지녔다고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이진망이다. 이진망의 문집『도운유집』은 규장각(奎12458-v.1-2)에『도운공유집(陶雲公遺集)』이라는 제목으로 소장되어 있는 불분권 2책의 필사본인데, 1997년 민족문화추진회에서『한국문집총간』186권으로 영인・간행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영인・간행된『한국문집총간』186권의『도운유집』을 저본으로 한다. 그런데 문집 서문에서 이진망의 시문에 대해 “공의 시와 문장은 다듬고 새긴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으나, 그 기세가 거침없으면서도 전아(典雅)하고 유창하며 풍부했다. 만정(晩靜) 서상공(徐相公)께서 공의 젊은 시절 문장을 보시고는 비문(碑文)을 지을 만한 솜씨라고 허여하셨고, 학산(鶴山) 이상서(李尙書)께서는 일찍이 공의 문장을 농담 삼아 이르기를 ‘자네가 문형(文衡)을 맡게 되면 반드시 나를 천거해주게.’라고 하셨다. 이때는 아직 과거에 급제하기 전이었는데도 선배들이 추중함이 이와 같았다. …… 말년에는 술잔을 기울이며 시를 읊조리는 것을 좋아하시어 지은 편장(篇章)이 매우 많았다.”[31]라고 했지만, 실제 그의 문집을 살펴보면 문학적으로 살펴볼 만

31) 李象恂,『陶雲公遺集』冊1,「陶雲公遺集序」. “公之詩文, 不以鐵鈚刻雕爲貴, 其沛

한 작품이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그가 스스로 지위가 정경(正卿)에 올랐으나 기록할 만한 사업이 없으니, 사후에 문집을 간행하지 말라고 하여 작품의 상당수가 산일된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32] 그 역시 이태수와 같이 문집에서 문학론을 살펴볼 수 있는 글이 보이지 않아 이 글에서는 그나마 문학론의 얼개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두 편의 기문을 대상으로 그의 문학론을 유추해 보도록 한다. 이 글에서 기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조선시대 당대의 기문이 단순히 건물의 외양이나 건축에 관한 기록으로 그치지 않고, 건물을 매개로 정치적 이상·세상에 대한 경계·자신의 의지 등을 논하는 글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글을 직접 보도록 한다.

> 제창(濟昌)의 이자앙(李子昂)이 편지를 보내 "정자가 폐지된 지 오래되었으나 난리를 만나 때가 좋지 않아 미처 경영할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 또 임기가 만료되어 돌아가게 되어, 농사일의 틈을 타서 정자를 중건했습니다. 우뚝 솟은 것은 산이요 넓고 깊은 것은 시내며, 화초를 섞어 심어 화사하게 볼 만하고, 푸른 회나무와 높은 버들이 울창하게 줄을 지어, 바라보면 마치 옅은 구름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 대강의 풍경이니, 그대가 어찌 기(記)를 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라고 했다. 나는 대관(臺觀)을 꾸며 이목을 즐겁게 하는 것은 평화로운 세상에서도 오히려 불가한데, 하물며 오늘날과 같은 때이겠는가 라고 여겼다. 그러나 백성의 힘을 심하게 쓰지 않고도 옛 모습을 회복할 수 있었다면, 이 또한 어진 관리의 일이다. 또한 내가 일찍이 그곳에 가보지 못했으니 그 관람의 풍부함을 칭찬하고자 해도 오히려 신을 신고 가려운 곳을 긁는 것과 같으나, 침류(枕流)의 물이 나를 깨우치는 것이 있었다. 나는 이에 그 뜻을 부연하여 답하기를 "흐르는 물은 베개 삼을 수 없는데 흐르는 물을 베개 삼는다는 것은 어째서인가. 귀를 씻을 수 있다

然而典雅囘瞻. 晩靜徐相公見公少時文, 許以碑版手, 鶴山李尙書嘗戱公文曰, 子典文柄則必薦我. 時未釋褐, 而先輩之推重已如此. …… 晩喜壺觴吟咏, 篇章甚富."

32) 李象恂, 『陶雲公遺集』 冊1, 「陶雲公遺集序」. "公嘗曰, 位躋正卿, 未有事業之可紀, 身後勿爲刊集. 遺訓諄諄, 竟未鋟梓, 而伊來近二百禩, 散落無餘, 百不一二存焉."

는 것에서 취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 정자에 올라 물을 베개 삼는 자가 한갓 바람에 이는 물결을 사랑하고, 그 어지럽고 시끄러움을 씻어내는 데서 그칠 뿐이라면, 가서 영천(潁川)의 물을 찾으면 될 일이지, 어찌 반드시 이 물을 베개 삼겠는가. 이것도 오히려 불가한데, 하물며 맑은 술을 마시고 애절한 거문고 소리를 즐기며 풍경에 머뭇머뭇거리는 자이겠는가. 만약 이와 같다면 이 정자를 지은 것은 도리어 한 고을에 해독을 끼치기에 알맞을 뿐이다. 만약 황당(黃堂)에서 대나무 부절을 나누어 받은 자가 여기에서 물을 베개 삼는다면, 담박하게 그 정신과 식견을 높이고 번잡하고 막힌 것을 씻어내어, 반드시 더위 먹은 자에게 물을 주고 시든 자를 소생시킬 것을 생각할 것이며, 거울처럼 맑게 하여 흐린 것을 가려내어 백성들이 백 리 안에서 편안히 베개를 베고 자게 할 것이다. 당음(棠陰)에서 수레를 멈추는 자가 여기에서 물을 베개 삼는다면, 시원하게 그 가슴을 활짝 열고 의혹을 제거하여, 반드시 어두운 자를 내치고 현명한 자를 등용할 것을 생각할 것이며, 조정의 덕택을 흘려보내어 백성들이 모두 호수와 산 천리 밖에서 스스로 만족하게 살아가도록 할 것이다. 사명을 띠고 이곳을 지나가는 크고 작은 관리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씻어내어 스스로를 깨끗이 할 것을 생각한다면, 이 정자가 사람에게 이익됨이 매우 클 것이고 이자앙(李子昂)의 명성과 치적 또한 장차 침류(枕流)라는 이름과 나란히 영원히 세상에 흐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서 또 느끼는 바가 있다. 내가 태어난 것이 늦어 이 백 가지 두려운 일을 만났으니, 귀로 듣는 것이 통탄스럽고 놀라운 일이 아님이 없다. 그러니 어찌하면 수레에 기름칠하고 말에게 먹이를 먹여, 이 정자 위에서 옷을 털고 한 바탕 먼지를 씻어내어 내 마음을 유쾌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과연 그 어지럽고 시끄러움을 씻어내는 데서 그치고자 하는 것이겠는가. 만약 후세에 양자운(揚子雲) 같은 이가 있다면 반드시 다시 나를 위해 슬퍼해 줄 것이다. 아아.[33]

---

33) 李眞望, 『陶雲公遺集』 冊2, 「枕流亭記」. "濟昌李侯子昂走書來曰, 亭之廢久矣, 而湮難時詘, 未暇營之, 今且官滿而歸, 用農隙重新之. 崢然而山也, 泓然而川也, 雜植花卉, 曄然可觀, 綠槐高柳, 蔚然成行, 望之若稍雲之屯焉. 此其槩也, 子盍記之. 余以爲餘臺觀娛耳目, 在平世猶不可, 況於今日. 然未甚用民, 能復其舊, 則斯亦良吏之事也. 且余未嘗跡乎其間, 欲稱其觀覽之富, 猶搔夫隔靴之癢, 惟枕流之水。有可以起余者. 余乃演其義而復之曰, 流非可枕而枕流何也. 非取乎耳之可洗者耶. 然凡登玆而枕之者, 徒愛其風漪, 要洗其紛囂而止, 則往尋潁川之水可也, 何

이 글은 「침류정기(枕流亭記)」로 앞서 언급한 두 편의 기문 중 하나인데, 이 글 이외의 기문 역시 「지락헌기(知樂軒記)」라는 건물기로, 이 글의 앞에 실려 있다. 따라서 이진망 역시 그의 문집에서 문학적인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글이 모두 건물기여서 이 글에서 살펴본 내용을 그대로 그의 문학론이라고 규정하기에는 몹시 조심스럽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해 문학을 바라보는 이진망의 의식 정도는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인용한 글을 보면 이진망은 정자를 만들어 이목을 즐겁게 하는 행위가 평화로운 세상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또 정자를 만든 것이 술을 마시고 거문고 소리를 즐기며 풍경을 감상하는 개인적인 쾌락을 위해서라면 이는 한 고을에 해독을 끼칠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정자에서 정신과 식견을 높이고 번잡하고 막힌 것을 씻어, 더위 먹은 자에게 물을 주고 시든 자를 소생시키며, 백성들이 백 리 안에서 편안히 베개를 베고 자게 하고, 어두운 자를 내치고 현명한 자를 등용하며, 조정의 덕택을 흘려보내 백성들이 모두 스스로 만족하게 살아가도록 한다면 정자를 만든 것이 사람에게 큰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언급은 「지락헌기」에서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그는 지락(知樂)이라고 한 정자의 이름이 장자가 호숫가에서 물고기의 즐거움을 안다고 한 말에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 뜻을 풀이하기를 백성의 근심을 자기의 근심으로 삼아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다.[34]

必於此水枕之. 此猶不可, 况觴之以淸醥, 樂之以哀絲, 留連光景者乎. 苟如是, 斯亭之作, 適足貽一邑之害矣. 如使黃堂分竹者枕乎此, 則澹然陰其神觀, 蠲其煩滯, 必思喝者沃之, 枯者蕘之, 鏡之淸而激之濁, 使蓂屋奠枕之於百里之內. 棠陰弭節者枕乎此, 則洒然豁其胸襟, 去其聽瑩, 必思幽者黜之, 明者陟之, 流朝廷之德澤, 使元元咸自得於湖山千里外焉. 以至大小啣命過此者, 皆思澡雪自潔, 則是亭之爲益於人大矣, 侯之聲績, 亦將與枕流之名而並流於永世矣. 抑余於此又有所感焉. 余之生也晩, 丁玆百懼, 耳所聞者, 無非可痛可愕. 安得膏車秣馬, 振衣乎斯亭之上, 一洗塵而快吾心哉. 斯果欲洗其紛囂而止者耶. 如有後世之子雲, 必復爲我悲之矣. 噫."

34) 李眞望, 『陶雲公遺集』 冊2, 「知樂軒記」. "名之曰知樂, 盖取義莊氏濠上知魚樂之

이 두 편의 글에서 정자를 만드는 행위를 문학 작품의 창작에 대입해 보면 이진망은 문학 작품이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정치적 교화를 펴는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고 여겼다고 할 수 있다. 즉 그는 문학의 시선을 개인의 즐거움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로 돌린 것인데, 이는 문학이 개인의 감정 배설이나 미사여구로 외면을 장식하는 유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실용적 가치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문학을 실용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담는 재도(載道)와 치용(致用)의 도구로 본 것이다.

또 그는 화려한 기교보다 진정성과 본질을 우선하는 반기교(反技巧)의 질박함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는데, 서문에서 그의 시문에 대해 다듬고 새긴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 것처럼 그의 글에서도 화려한 수식이나 허황된 논리를 배격하는 태도가 보인다. 인용한 「침류정기」에서 시끄러운 세상이 싫어 귀를 씻고 숨어버린 영천의 허유 같은 태도는 본받을 것이 아니라고 하고, 「지락헌기」의 마지막에서는 장자의 황당무계한 말은 비길 것이 아니라고 했다.[35] 이는 표면적으로 장자의 초월적이고 유유자적한 태도를 경계하고 그 논리를 비판한 것이지만, 그 내면에는 문학이 현실 도피의 도구로 쓰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자 문학이란 화려하고 기이한 말보다 현실에 발을 붙인 진솔하고 책임감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그의 문학적 지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침류정기」에서 정자를 중건하고 그곳의 아름다운 풍경을 언급하며 기문을 부탁하는 요청에 대해 그 풍광을 찬미하기보다 정자의 이름을 매개로 이 정자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語云. …… 盖使君以民憂爲己憂, 故民得出憂入樂, 而使君於此, 亦可以轉憂爲樂矣. 想今春氣方舒, 萬品欣欣, 繞池群卉, 藹有生意, 使君與客携酒, 登斯軒而四望, 則耕者歇於野, 行者呼於塗, 群驩衆虞, 宛一春臺上氣像. 則此可謂與民同樂, 而知樂之義, 於是乎乃可見矣."

35) 李眞望, 『陶雲公遺集』 冊2, 「知樂軒記」. "彼漆園詭誕之辭, 何足以當之."

가를 일깨웠다. 그의 기문은 글을 청탁한 사람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추게 하는 격려와 경계의 수단이었던 것이다. 그의 기문은 글을 읽는 사람에게 번잡한 욕심을 씻어내고 정신을 맑게 하여, 궁극적으로 선정을 베풀게 만드는 동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이진망이 기문을 쓴 이유이자 그가 생각한 문학의 효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에게 문학은 독자를 깨우치는 성찰의 도구라는 효용론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이었고, 그런 만큼 이진망의 문학론은 문이재도(文以載道)와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유가 정통 문학론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었으며, 그래서 그는 개인의 풍류나 화려한 기교를 앞세우는 문학을 지양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위정자를 성찰하게 하며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하는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문학을 지향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박세채와 그의 문인 네 사람의 문학론을 정리하면 이들이 유가 정통의 도학적 문학관을 공유한다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문학을 미적 유희나 기교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성현의 도(道)와 천리(天理)를 담아내고 밝히는 도구로 인식하는 문이재도(文以載道)·문이명도(文以明道)의 문학관을 가지고, 외형적인 화려함이나 과장·사치스러운 문풍을 경계하는 반기교주의와 담백함을 숭상했으며, 유가적 가치관에 위배되는 불교와 도가 사상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통점 속에서도 이들은 각자의 처지와 관심에 따라 문학의 기능적 측면을 달리 강조하여 문학의 효용과 지향점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여준다. 박세채의 경우 문학을 통한 심성 수양의 체계화라는 수양론적 문학에 주목했지만, 양처제의 경우 작가의 내적 덕성과 실천이 문학에 우선한다는 실천론적 문학에 주목했고, 송징은의 경우 규범과 기상이라는 문장 자체의 구조적 완성과 사회적 경계를 중심으로 하는 비평론적 문학을 강조했으며, 이태수의 경우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정서적 정

화라는 온유중정의 정서적 문학 의식을 보였으며, 이진망의 경우 개인의 쾌락을 넘어선 사회적 책무와 치용(致用)이라는 경세제민과 정치적 교화의 경세론적 문학 의식을 보였다.

4. 결론

박세채와 그의 문인 중 소론 문인 네 사람의 문학론을 문이재도(文以載道)와 문이명도(文以明道), 기교의 배격과 수양론적 문학의 추구로 정리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문학론은 이들만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조선 전 시기에 걸친 공통적이고 전통적인 문학론이다. 따라서 이들의 문학론은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를 읽어내지 못하는 보수성과 폐쇄성이라는 치명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들은 문학을 철저히 도학의 하위 개념이자 수양의 도구로 보았는데, 이런 인식은 문학이 가진 고유의 미적 가치·언어적 기교·허구성과 상상력이라는 예술적인 면모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은 조선 후기 문단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를 문풍의 타락이자 문학의 병통으로 규정하여 새로운 문학적 흐름을 부정하는 수구적·보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작품 그 자체보다 작자의 도덕적 실천을 문학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문학 작품을 작자의 행적과 도덕성에 따라 평가했다. 이런 인식은 작자의 자유로운 창작 의지와 문학의 본질적 속성을 억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문학론은 정치적·사상적 혼란기에 흔들리는 당대의 문풍을 다시 주자학적 규범 아래 결집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보편적인 문학론의 이론적 당위성을 넘어 실천의 절박함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시대에 변질된 문풍을 목격하고 그것을 애초의 원형으로 복구하려는 사명감을 가진 인물로, 문학 창작

활동을 자기 수양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구체화했으며, 전통적 문학론이 너무나 당연해서 오히려 힘을 잃어갈 때, 다시 그 당연함을 주장하여 조선 후기 사회에서 문학의 정체성을 환기하고자 했던 인물들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문학론이 조선 후기 당대 문단에서 보수성과 경직성이라는 분명한 한계를 지녔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들의 문학론은 문학을 개인의 말재주나 출세를 위한 도구로 소비하던 당대의 풍조를 강하게 비판하는, 문학의 정서적 정화와 사회적 책임의 재발견이자 진정성 있는 삶에서만 진정성 있는 문학이 나올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작품 너머에 있는 작자의 삶을 묻는 인간 중심의 비평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결국 이들의 문학론은 변화하는 시대를 포용하지 못하는 벽이었으나, 기교주의에 빠진 문단에 문학의 도덕적 진정성과 사회적 책임을 환기한 정통 도학 문학론으로 규정할 수 있고, 또 그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참고문헌

『南溪先生年譜』, 국립중앙도서관(古貴2511-25-3).
『書經』.
『肅宗實錄補闕正誤』.
『肅宗實錄』.
金幹, 『厚齋集』,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 155～156, 民族文化推進會, 1995.
金載海, 『雙湖遺稿』, 규장각(古1360-46-v.1-3)/단국대학교 율곡도서관(고 850.819 김863ㅆ).
李眞望, 『陶雲公遺集』, 규장각(奎12458-v.1-2).
朴世采, 『南溪集』,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 138～142, 民族文化推進會, 1995.
宋徵殷, 『約軒集』, 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46-가77)/규장각(奎6659-v.1-7/奎7104-v.1-7/奎7105-v.1-7)/장서각(K4-6255 1～7).
_____, 『約軒集』,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 163～164, 民族文化推進會, 1996.
梁處濟, 『默齋集』 국립중앙도서관(무구재古3648-46-13).
李世瑍, 『果齋集』, 벽진이씨찬성공파 종회, 影印, 1991.
_____, 『東儒師友錄後續集』, 규장각(古1360-48b).
李眞望, 『陶雲遺集』,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 186, 民族文化推進會, 1997.
李泰壽, 『止谷先生遺稿』, 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46-가1044)/규장각(古3428-801-v.1-6).

姜信曄, 『朝鮮後期少論研究』, 봉명, 2001.
김기림, 「朴世采의 『增刪濂洛風雅』에 대한 고찰」, 『東洋古典研究』 6, 東洋古典學會, 1996.
김동하, 「朴世采의 『增刪濂洛風雅』 增補 作品 考」, 『한국시가문화연구』 38, 한국시가문화학회, 2016.
김민재, 「남계 박세채의 心學旨訣이 지니는 현대 교육적 함의」, 『범한철학』 117-2, 범한철학회, 2025.
윤재환, 「남구만 계열 문인의 전개와 문학적 계승」, 『한민족어문학』 108, 한민족어문학회, 2025.
장유승, 「朴世采의 漢詩를 통해 본 17세기 山林의 현실 인식」, 『한국한시작가연

구』 12, 한국한시학회, 2008.
진오균, 「18세기 전반 『南溪集』 편간과 朴世采의 蕩平에 대한 논란」, 『역사와 현실』 129, 한국역사연구회, 2023.
_____, 「18세기 『南溪集』 간행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朴世采 死後 門人의 老少對立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투고일 2026. 7. 22 심사시작일 2026. 8. 18 게재확정일 2026. 9. 21

Abstract

The Development and Literary Views of Namgye Park Se-chae's Disciples
-Focusing on the Soron-aligned Disciples-

Yoon Jae-hwan

Namgye Park Se-chae was a pivotal figure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a period marked by the split between the Noron and Soron factions. Although positioned at the very center of the conflict between Noron and Soron, he maintained a neutral stance and refrained from clearly declaring his allegiance. Perhaps for this reason, it is not easy to definitively classify his disciples into Noron or Soron factions. Among the 254 disciples listed in his register, 29 can be clearly identified by faction: 19 as Noron and 10 as Soron. However, based on this fact alone, it is difficult to assert that there were more Noron disciples in Park Se-chae's circle. It can only be inferred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the disciples listed in his register leaned toward the Noron faction and played a central role within his school. Nevertheless, since Park's literary collection was published in line with the intentions of his descendants and Soron officials who supported him, Park Se-chae has retained his status as the ideological leader of the Soron faction.

An examination of the literary theories of Park Se-chae's Soron-aligned disciples must naturally focus on the four individuals who left behind written literary theories among the ten confirmed Soron disciples. Synthesizing the literary theories of Park Se-chae and these four disciples reveals a shared foundation in the orthodox Confucian moralistic view of literature. However, despite this common ground, they emphasized different functional aspects of literature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circumstances and interests, thereby revealing subtle differences in the utility and orientation of literature. While Park Se-chae focused on literature as a means of self-cultivation, Yang Cheo-je focused on practical literature, Song Jing-eun emphasized critical

literature, Yi Tae-su demonstrated an emotional literary consciousness, and Yi Jin-mang exhibited a statecraft-oriented literary consciousness.

Keywords Park Se-chae, Yang Cheo-je, Song Jing-eun, Yi Tae-su, Yi Jin-mang, Soron, Literary Theory.

東方漢文學, 東方漢文學會
Dong-Bang Korean Chinese Literature Society
2026, 第108輯, pp.277~310
http://dx.doi.org/10.17293/dbkcls.2026.108.
ISSN 1226-668X

운와(芸窩) 홍중성(洪重聖)의 비지류(碑誌類) 산문 연구

권진옥*

目 次

1. 머리말
2. 핍진한 묘주(墓主)의 진면목 형상화
3. 간엄(簡嚴)한 편장의 구성 방식
4. 전언(傳言)을 통한 형식적 변격의 추구
5.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운와(芸窩) 홍중성(洪重聖, 1668~1735) 문학 연구의 일환으로, 그가 창작한 비지류(碑誌類) 산문을 살펴본 글이다.

비지류 산문 창작에 있어서 홍중성의 기조는 근엄한 체재를 추구하되 비지류 하위 문체나 창작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법도를 아교로 붙인 듯 고수하지 말고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었다. 그가 창작한 비지류 산문은 총 3편으로 이정연(李挺淵)을 위해 지은 「이주서묘지명(李注書墓誌銘)」, 신홍(申泓)의 아내 풍산 홍씨(豊山洪氏)를 위해 지은 「공인신씨부묘지명(恭人申氏婦墓誌銘)」, 이집(李墐)의 아내 풍산 홍씨(豊山洪氏)를 위해 지은 「증정경부인풍산홍씨묘지명(贈貞敬夫人豐山洪氏墓誌銘)」이다.

첫 번째로 「이주서묘지명」을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핍진한 묘주(墓主)의

*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진면목 형상화를 분석하였다. 세상의 명리에 초연한 담박함이나 군중 속에서의 고요함을 보여 주는 이정연의 사건이나 일화는 모두 겸손한 성품으로 수렴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홍중성이 파악한 이정연의 지향과 행실, 즉 묘주의 진면목인 것이다. 그리고 이 외에 스승에 대한 추모의 정신이나 의리에 결연한 모습, 시비와 득실을 확고하게 분별하며 스스로를 엄하게 단속하는 모습 등은 겸손함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정연의 또 다른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묘주의 입체적인 진면목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증정경부인풍산홍씨묘지명」을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간엄(簡嚴)한 편장(篇章)의 구성 방식을 분석하였다. 비지류 산문의 필수적인 요소인 묘주의 정보와 사실 관계를 도입 부분에 제시하고, 그 이후의 단락들은 묘지명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묘주의 진면목을 형상화하는 데 치중하고 한편으로는 서사와 의론을 착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실의 나열에 집중한 도입 부분에 바로 이어서 묘주의 진면목을 형상화하고, 다시 작자의 슬픔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구성 방식은 묘주의 진면목과 작자의 심정을 간단하고 요령 있게 드러내는 편장 구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명문(銘文)의 구성적 측면에서도 살펴볼 만한 지점이 있다. 홍중성은 일률적으로 기록하는 명문에서도 묘주의 생애나 진면목을 간단하게 요약하거나 혹은 미진한 묘주의 형상화를 보강하면서 비지류 산문의 문학성을 제고하였다.

세 번째로 「공인신씨부묘지명」을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변격적인 비지류 창작 기법을 분석하였다. 묘지명의 청탁 과정, 묘주의 가계와 무덤의 위치 정보, 명문을 제외한 전편이 모두 묘주의 부친이 직접 작자에게 건넸던 말을 전재하고 있다. 매우 독특하고 파격적인 비지류 산문 창작 방법인데, 이러한 비지류 작법 역시 정격에만 국한되지 않고 변격을 아울러 구사하려고 노력했던 홍중성 비지류 산문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핵심어 운와(芸窩), 홍중성(洪重聖), 비지류(碑誌類), 묘주(墓主)의 진면목, 간엄(簡嚴)한 편장(篇章) 구성, 명문(銘文), 「이주서묘지명(李注書墓誌銘)」, 「공인신씨부묘지명(恭人申氏婦墓誌銘)」, 「증정경부인풍산홍씨묘지명(贈貞敬夫人豐山洪氏墓誌銘)」.

1. 머리말

본 논문은 운와(芸窩) 홍중성(洪重聖, 1668~1735) 문학 연구의 일환으로, 그가 창작한 비지류(碑誌類) 산문을 살펴본 글이다.

홍중성은 조선 후기 소론 계열의 문인 지식인으로 관직 생활보다는 주로 문학 활동에 치중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1696년(숙종22) 진사시에 합격한 이후 늦은 나이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지만, 내직으로는 세자익위사 세마, 호조 정랑, 공조 좌랑 등을 역임한 것에 그치고 주로 석성 현감(石城縣監), 김화 현감(金化縣監), 증산 현감(甑山縣監), 예천 군수(醴泉郡守), 단양 군수(丹陽郡守), 강화 경력(江華經歷) 등의 외직을 역임하는 등 순탄하거나 현달한 벼슬살이는 하지 못하였다. 그 대신 당대의 대표적 문인들과 교유하면서 문학 활동에 매진하였는데,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을 사사하고 최창대(崔昌大, 1669~1720), 조유수(趙裕壽, 1663~1741), 이병연(李秉淵, 1671~1751), 홍세태(洪世泰, 1654~1725), 신정하(申靖夏, 1680~1715), 조문명(趙文命, 1680~1732), 이하곤(李夏坤, 1677~1724) 등과 교유하였다. 이렇게 홍중성은 당색이나 신분을 초월하여 당대에 문학적 성취가 뛰어났던 인물들과 교유 관계를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일체의 세상 명리를 마음속에 두지 않았고 오직 문학과 역사만으로 스스로 즐겼다.[一切世味不入於懷, 惟以文史自娛.]”[1]라는 평가가 홍중성의 삶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홍중성의 삶의 모습에 기인하여 그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문학 방면에서 이루어진 게 사실이다. 홍중성의 가계와 생애, 그의 문학론을 고찰한 연구를 시작으로,[2] 최근에는 유람시(遊覽詩) 및 교유시(交遊詩)와 기문(記文)에 대한 연구,[3] 한문 비평사 측면에서의

1) 洪重一, 『芸窩集』 권6, 「行狀」. “一切世味不入於懷, 惟以文史自娛.”
2) 이상주(2005).

산문론 연구[4] 등이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 또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그의 문학에 주목하되 비지류 산문을 살피고자 한다.

한문 산문사에서 17세기 이후는 이전 시기에 비해 문학적으로 성숙된 시기였다. 명대 문학 사조의 유입에 대한 기민한 대응, 한문 산문 비평 의식의 제고, 산문 장르의 분화와 정착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한문 산문은 공용문이나 실용문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한시 못지않은 순수 문예를 담보하는 문학으로 인식되었다. 그 가운데 비지류 산문은 공기(公器)[5]로서 한문 산문의 한 지점을 확보하고 있다. 비지류 산문은 작자가 대상을 선정하지 않기 때문에[6] 묘주(墓主)의 행적이 작자의 경향성과 맞아떨어지는 것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작자가 비지류 산문을 짓기로 수락한 이상 주어진 조건을 통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만큼 작자가 문학적으로 구사하는 운신의 폭이 적지만, 그 가운데서도 문학적 성취를 도외시할 수 없다. 또한 비지류 산문 문체에는 신도비(神道碑)·묘갈(墓碣)·묘표(墓表)·묘지(墓誌) 등이 있고, 이들 비지류 산문은 각각 고유한 속성과 정격이라 할 수 있는 규격화된 틀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속성과 정격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문학성을 추구한 작자의 노력과 성취를 밝히는 것이 비지류 산문 연구의 본질이라 하겠다.[7]

홍중성이 창작한 산문에 대한 평가들을 참고하면 대체로 일관된 내용인데, 육경(六經)·『장자(莊子)』·『사기(史記)』 등에 근원을 두고 한유(韓愈)와 구양수(歐陽修)를 비롯한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를 법도로 삼았다.

---

3) 유명석(2024); 윤재환(2024); 유진희(2026).

4) 백진우(2026).

5) 李滉, 『退溪續集』 권3, 「答宋台叟」. "文章公器, 豈可一時緣情遷就, 貽譏後世乎?"

6) 작자의 직계를 대상으로 하는 비지류 산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비지류 산문은 제3자의 청탁에 의해 이루어진다.

7) 권진옥(2018a), 74~75쪽.

> 문장은 『장자(莊子)』와 『사기(史記)』를 근본으로 하고 만년에는 한유(韓愈)와 구양수(歐陽修)를 모범으로 삼았다. …… 내 생각에 공의 문장은 경술(經術)에 근원을 두어 성대하게 전아하면서도 법도가 있었기 때문에 필시 후세에 전해질 것임은 의심할 바가 없다.[8]

> 고문(古文)은 육경(六經)에 근원을 두고 당송팔대가를 모범으로 삼았으니, 말을 엮고 이치를 분석함에 순수하게 한결같이 올바른 데로 돌아갔다.[9]

> 그가 지은 문장은 육경(六經)에 근본을 두고 당송팔대가를 법도로 삼았다.[10]

그의 산문이 육경(六經)과 같은 경술(經術)에 근원을 두었다는 평가는 특별히 주목을 요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장자』와 『사기』로 대표되는 선진양한(先秦兩漢)의 문장과 한유와 구양수로 대표되는 당송팔대가의 문장을 아울러 전범으로 삼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11] 홍중성이 활동했던 당시에도 여전히 선진양한과 당송의 고문를 둘러싼 비평과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

8) 洪重一, 『芸窩集』 권6, 「行狀」. "文章本之莊馬, 晩以韓歐爲準. …… 竊嘗謂公之文章, 本源經術, 蔚有典則, 可以必傳無疑."

9) 洪良浩, 『耳溪集』 권16, 「芸窩集跋」. "古文則本源六經, 型範八子, 纂言析理, 粹然一歸於正."

10) 洪良浩, 『耳溪集』 권32, 「祖考郡守贈吏曹參判府君墓誌」. "爲文章, 本之六經, 矩繩於八子."

11) 洪重一이 작성한 「行狀」에서 "晩以韓歐爲準"이라고 언급한 내용과 관련하여, '만년[晩]'이라는 표현은 주목을 요한다. 洪重聖의 손자 洪良浩가 지은 발문과 묘지에는 '만년'의 얘기는 없고 唐宋八大家를 법도로 삼았다는 언급만 있어서, 홍중성의 재종제 홍중일의 언급과는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2가지의 추측이 가능하다. 첫째, 문장의 근본을 『莊子』와 『史記』로 삼고 만년에 韓愈과 歐陽修를 법도로 삼았다는 홍중일의 언급을 홍양호가 마땅하게 여기지 않아서 문장의 근본을 六經으로 삼고 당송팔대가를 법도로 삼았다라고 수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실제 홍중성의 古文 공부 순서가 先秦兩漢 고문, 당송고문 순서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선후의 문제보다는 선진양한 고문과 당송 고문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섭렵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루 섭렵하려고 노력했으며 그만큼 그의 산문 창작 규모와 편폭이 넓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홍중성의 비지류 산문 창작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글이 참조할 만하다. 홍중성은 자신의 외조부 홍명일(洪命一, 1603~1651)을 위해 행장을 짓기도 하였는데,[12] 묘도문자(墓道文字)로서 묘갈문(墓碣文) 창작을 서종태(徐宗泰, 1652~1719)에게 우선 부탁하였고[13] 이어서 서교(西橋 미상)에게 묘표음기(墓表陰記)를 부탁하였다.[14][15]

> 외조부님의 묘표음기(墓表陰記)를 이미 심부름꾼을 통해 돌려 드리고 아울러 저의 견해를 가지고 질정하고자 했으나 아직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세하게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니 성대한 뜻에 참으로 식견이 있었으니, 문체가 매우 다양하고 편편마다 각기 다르다고 한 것은 진실로 그대의 말씀과 같습니다. 제가 어찌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하겠습니까마는 외조부님의 묘도문자(墓道文字)와 관련해서는 가장(家狀)만 있을 뿐 묘지명(墓誌銘)이나 묘갈문(墓碣文) 등이 없으니, 가장에 근거하여 사실만을 평탄하게 서술하면 본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이미 송현(松峴 서종태(徐宗泰))이 지은 묘갈문이 있으니 그 글이 매우 상세하여 물 샐 틈 없이 치밀한데 다만 묘도(墓道)에 비석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
> 묘도의 비석을 세울 때 묘표음기는 가장(家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과 유사(遺事)에서 뽑아내어 드러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있는 묘갈문(墓碣文)을 그대로 따라 답습하여 서술과 순서에 변화가 없다면 묘갈문에도 있는 내용이 다시 묘표문(墓表文)에도 있게 되니 중복된 군더더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후대 사람들이 본다면 다음과 같이 평가할 것입

12) 『芸窩集』 권6에 수록된 「外祖葆翁先生行狀」이다.

13) 『晩靜堂集』 권14에 수록된 「贈領議政行江原道觀察使洪公墓碣銘」이다.

14) 西橋가 창작한 墓表陰記는 현전하지 않는다.

15) 기존의 연구 성과에서는 아래 인용 글의 내용을 토대로 고정된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대상의 특수성과 작문상의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용하는 홍중성의 산문 창작 방법론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비지류 산문 창작 방법론을 산문 전반의 논의로 확대한 것이다. 백진우(2026), 22~26쪽.

니다. “아무개 공의 묘도에 세운 묘갈문이 이미 상세한데도 다시 묘표문에 상세하게 적었으니 묘표문에 더하거나 뺀 것도 없다.” 그렇게 된다면 장차 그 의혹을 어떻게 풀어 주겠습니까.

보내 주신 글을 살펴보니 묘갈문과 다른 점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자구(句字) 가운데 쓸데없이 긴 것을 깎아 내어 간결함을 추구했을 따름이지, 사실을 순서대로 그대로 서술한 것은 본래 그대로입니다. 대개 뛰어난 선배들의 묘도문자(墓道文字)는 문체가 본디 절로 특별하니, 생전에 행한 일과 이력에 대해서는 근엄한 체재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묘갈문의 문체가 이미 평탄하게 서술되었으니, 그대의 묘표는 마땅히 묘갈문의 문체를 조금 변화시켜 직접 서술하는 중간중간에 의론을 끼워 넣어 때로는 앞부분에서 잡아채기도 하고 때로는 뒷부분에서 잡아채기도 하여 착종하고 마름질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글이 체격을 얻지 못한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금석문(金石文)의 체재가 근엄함을 귀하게 여기지만, 소식(蘇軾)이 사마광(司馬光)을 위해 지은 「사마온공신도비(司馬溫公神道碑)」에서 서사와 의론을 종횡으로 착종한 것은 그 글이 천고의 절조가 되는 데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묘비(墓碑 신도비)가 이와 같은데 하물며 다른 문체가 되는 묘표 음기를 지을 때 금석문의 상규(常規 법도)를 아교로 붙인 듯 고수하며 변화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한 제가 어찌 반드시 그 사실을 없애거나 생략하여 별도의 체재[機軸]를 만들고자 하겠습니까. 다만 묘갈문의 문체를 조금 변화시켜 자신의 의론을 집어넣을 뿐입니다. 만약 그 의론이 지나치게 많아진다면 이는 별도로 체재를 만드는 것이니, 한유(韓愈)와 구양수(歐陽修) 등이 별도의 풍격으로 지은 뒤에야 별도의 체재가 된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16]

16) 洪重聖, 『芸窩集』 권5, 「上西橋書」. “外王考表記, 業欲嵩人奉還, 兼欲以鄙見禀質而未果矣. 今承縷縷之視, 盛意固有見矣, 如文體萬殊, 篇篇各異云者, 誠有如盛教. 弟豈不看到此? 而但外王考墓道文, 只是家狀, 無誌碣等文, 則據家狀而平叙事實, 固不害矣. 今旣有松峴所撰碣文, 極其詳核, 盛水不漏, 特未竪墓道耳. 竪墓道則墓表陰記, 不過採摭家狀中大關捩及遺事以表之而已. 若一循碣文, 叙事次第無變化, 則有墓碣焉, 有墓表焉, 得無爲架疊乎? 後之人目擊而評曰, ‘某公墓道碣文旣詳, 而又詳之於墓表, 無所增減云爾.’ 則將何以解其惑也? 試看高文, 其與碣文異者幾希. 特刊落其句字之冗長, 以趨於簡耳, 其事實之循次直叙, 固自如也. 大抵先輩鉅公墓隧之文, 文體固自別, 事行履歷, 貴在乎謹嚴. 故碣文文體, 已如是平

결론부터 말하면 서교가 지은 묘표문(墓表文)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기존에 서종태가 창작한 묘갈문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서종태의 묘갈문 가운데 자구(字句)가 쓸데없이 긴 부분을 깎아 내어 간결함을 추구했을 뿐 사실을 순서대로 그대로 서술한 것은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묘표문을 포함한 묘도문자나 금석문(金石文)에 대해서 홍중성이 생각하는 올바른 창작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 묘도문자나 금석문은 근엄(謹嚴)한 체재를 추구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유사한 문체의 글이 있을 경우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변화를 주어야 한다. 위의 인용 글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후자이다. 이미 작성된 묘갈문에서 묘주의 사실 관계를 평탄하게 서술하였으니, 이어서 창작하는 묘표문은 문체를 조금 변화시켜 사실을 열거하는 중간중간에 의론을 삽입하여 때로는 앞부분에서 잡아채기도 하고 때로는 뒷부분에서 잡아채기도 하여 착종하고 마름질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소식(蘇軾)이 사마광(司馬光)을 위해 지은 「사마온공신도비(司馬溫公神道碑)」는 근엄한 체재나 법도를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서 서사와 의론을 종횡으로 착종했기 때문에 천고의 뛰어난 작품이 되었다. 이처럼 비지류 산문 창작은 근엄한 체재를 추구하되 비지류 하위 문체나 창작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법도를 아교로 붙인 듯 고수하지 말고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비지류 산문 창작에 대한 홍중성의 기본적 경향이다.

叙, 則在高文, 宜稍變碣體, 直叙間間, 揷得議論, 或捉在前, 或捉在後, 以錯綜裁剸, 未見其爲不得體也. 且金石體貴謹嚴, 而蘇長公之於司馬溫公, 以叙事議論, 交錯縱橫, 不害其爲千古絶調. 墓碑如此, 况墓表陰記之爲別體, 而膠守金石常規, 不爲之變動乎? 且弟豈必欲刪略其事實而爲別機軸乎? 只稍變碣體, 揷得自家議論. 多則是爲別機軸, 非如韓歐輩之爲別調而後, 爲別機軸云爾."

2. 핍진한 묘주(墓主)의 진면목 형상화

홍중성이 지은 비지류 산문은 총 3편으로,[17] 『운와집(芸窩集)』 수록 순서대로 홍중성의 벗 이정연(李挺淵, 1673~1726)을 위해 지은 「이주서【정연】묘지명(李注書【挺淵】墓誌銘)」(이하 「이주서묘지명」), 홍중성의 재종제 홍중장(洪重章, ?~?)의 딸이자 신홍(申泓, 1710~?)의 아내 풍산 홍씨(豊山洪氏, 1708~1729)를 위해 지은 「공인신씨부묘지명(恭人申氏婦墓誌銘)」, 홍중성의 큰누님이자 이집(李墐, 1664~1733)의 아내 풍산 홍씨(豊山洪氏, 1662~1687)를 위해 지은 「증정경부인풍산홍씨묘지명(贈貞敬夫人豐山洪氏墓誌銘)」이다.

첫 번째로 살펴볼 작품은 「이주서묘지명」이다. 묘주인 이정연은 홍중성과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생장하였는데, 이정연이 44세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나자 그의 부친 이세련(李世璉, 1655~?)이 홍중성에게 아들의 묘지명을 부탁하였다.

> ① 충원(忠原 충주) 상류의 마곡리(麻谷里)에 부해(負亥)의 언덕이 있으니, 바로 고(故) 주서(注書) 이춘백(李春伯)이 묻힌 곳이다. 무덤가의 나무는 이미 양손으로 움켜쥘 만큼 굵어졌으나 무덤에는 아직 묘지명이 없었는데, 그의 부친인 종묘 영(宗廟令 이세련(李世璉))이 눈물을 흘리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이 불행히도 재능은 있었으나 명(命)이 없어 일찍 죽었

17) 洪重聖이 지니는 당대의 文名에 비해 현전하는 『芸窩集』 소재 작품들의 작품 분량이 비교적 소략한 게 사실이다. 현전하는 『운와집』은 홍중성의 손자 洪明浩가 安岳郡守 시절 형 洪良浩와 함께 1784년(정조8)에 간행한 활자본이다. 홍중성 사후 그의 벗인 槎川 李秉淵이 문집 간행을 독려하자, 이에 홍양호가 家藏 초고본을 바탕으로 일실된 작품을 수습하고 행장을 덧붙인 뒤에 이병연에게 교정을 받아 총 6권 3책으로 정리하였다. 홍양호의 발문을 참고하면, 집안에 보관되어 있던 옛 글 상자 속의 유고를 확인하였는데 초년의 작품들이 모두 없어서 예전 홍중성의 벗 집안을 통해 겨우 몇 편을 구했을 뿐이다. 그리고 실제 『운와집』 수록 한시와 산문은 대체로 홍중성의 나이 40세 이후 작품들인 것을 보면, 그 이전의 작품들은 유실된 듯하다.

네. 지금 세상에 내 아들을 아는 사람은 오직 그대뿐이니, 어찌 그대가 무덤에 명(銘)을 지어 영원토록 전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아! 나는 춘백과 같은 마을에서 살면서 어릴 적부터 함께 학업을 닦았는데 머리털이 희끗희끗해질 때까지 이제 20여 년이 되었으니, 춘백을 아는 사람 중에 나만한 사람이 없다. 이러하니 내가 어찌 차마 명을 짓지 않을 수 있겠는가.[18]

② 군(君)의 이름은 정연(挺淵)이고 춘백은 그의 자(字)이니 성주(星州) 벽진(碧珍) 사람이다. 시조 휘 총언(忩言)은 고려의 장군으로 삼한(三韓)을 통일할 때 공을 세웠다. 이때부터 대대로 높은 관직으로 빛났는데, 조선 왕조에 들어와서는 휘 약동(約東) 평정공(平靖公)이 덕행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고조부 휘 상급(尙伋)은 참지를 지내고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증조부 휘 인(塤)은 우부승지를 지냈으며, 조부 휘 지도(志道)는 광릉 참봉(光陵參奉)을 지냈다. 종묘 영은 이름이 세련(世璉)이고, 그의 아내 여산 송씨(礪山宋氏)는 현감 휘 송광준(宋光浚)의 딸이자 승지를 지내고 참찬에 추증된 휘 시철(時喆)의 손녀인데, 계축년(1673, 현종14) 3월 12일에 군을 낳았다.[19]

③ 태어날 때부터 총명하고 영특하여 7세 때 처음 증선지(曾先之)의 『십팔사략(十八史略)』을 배웠는데, 삼고(三古) 시대 이래의 역대 제왕들을 모두 기억하여 그것을 외우게 하면 즉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힘없었으니 그가 일찍부터 총명함이 이와 같았다. 14세에 정재(定齋) 박태보(朴泰輔)의 문하에서 수학하면서 『논어(論語)』·『시경(詩經)』·『서경(書經)』 등을 배웠으니, 정재공(定齋公)은 그의 자질과 성품이 밝고 총명함을 사랑하여 기삼백

18) 洪重聖, 『芸窩集』 권5, 「李注書【挺淵】墓誌銘」. "忠原上游麻谷里, 有負亥之原, 曰故注書李君春伯藏也. 墓木已拱矣, 而幽宅尙無誌, 其大人宗廟令泣而詔曰, '吾兒不幸有才而無命, 今世知我兒者唯子, 盍銘諸幽以圖其不朽?' 嗚呼! 余與春伯同里閈, 少而攻業, 至顚髮種種, 于今二十年餘, 則知春伯者莫我若也, 余何忍不銘?"

19) 洪重聖, 『芸窩集』 권5, 위의 글. "君諱挺淵, 春伯字也, 星州碧珍人. 鼻祖諱忩言, 麗朝將軍, 有統三時功. 自是冠冕奕嬴, 入我朝, 有諱約東平靖公, 以德行著于世. 高祖諱尙伋參知, 贈吏曹判書, 曾祖諱塤右副承旨, 祖諱志道行光陵參奉. 宗廟令名世璉, 娶礪山宋氏, 縣監諱光浚女, 承旨贈參贊諱時喆之孫也, 以癸丑三月十二日生君."

주(朞三百註)을 추산하는 역법(曆法)까지 가르쳐 주며 친자식처럼 그를 보살폈다. 기사년(1689, 숙종15) 요화지변(瑤華之變 인현왕후 폐위 사건) 때 정재공이 항거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죄를 입고 곧이어 또 멀리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군이 당시 17세의 나이로 노량진(露梁津)까지 따라가 눈물을 흘리며 스승을 구호하였다. 스승이 세상을 떠나자 조복(弔服)에 마질(麻絰)을 가하고 마침내 제문을 지어 제사지냈다.[20]

④ 그의 문사(文詞)는 분명하고 통창하며 사의(辭意)는 슬프고 애틋하여 숙유(宿儒)일지라도 또한 양보할 정도였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과거시(科擧詩)를 잘 짓고 또 변려문(騈儷文)에 솜씨가 있어 유극장(劉克莊)과 왕조(汪藻)의 문체를 모의한 것이 아니면 짓지 않았다. 글이 전아하고 풍부하며 정교하고 치밀한 것이 정식(程式)에 딱 들어맞아 학사(學士)들이 그를 동학들 가운데 으뜸으로 추대하였다. 향교의 시험에서 어떤 이가 그가 지은 글을 표절하여 제출하는 터에 부화뇌동의 혐의를 뒤집어쓰고 여러 차례 낙방하였으나 개의치 않았다. 기묘년(1699, 숙종25)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임진년(1712, 숙종38)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에 선발되어 들어갔다. 얼마 후 승정원 주서에 추천되었으나 고립되어 당파가 없었기에 한쪽 무리의 세력가에게 가로막히고 말았다. 군은 마침내 여러 차례 벼슬길이 막혀 여기서 멈추고 말았으니, 이 어찌 그의 운명이 아니겠는가.[21]

⑤ 군의 사람됨은 담박하고 고요하였으니, 무리와 함께 모여 눈앞에서 한껏 담소를 나눌 적에도 군은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 듯했고, 문을 닫아걸고

---

20) 洪重聖,『芸窩集』권5, 위의 글. “生而聰穎, 七歲始受曾先之史略, 自三古以下歷代帝王, 皆能記識, 使之誦, 輒應口不漏, 其夙慧如此. 十四歲, 遊朴定齋泰輔之門, 受論語詩書, 公愛其資性明慧, 推筭朞三百註以敎, 撫視如己出. 己巳瑤華之變, 定齋公抗疏見法, 旋又遠謫, 君時年十七, 隨往露梁, 涕泣救護. 及卒也, 爲弔服加麻, 遂操文以祭.”

21) 洪重聖,『芸窩集』권5, 위의 글. “文詞明愜, 辭意悲惋, 雖宿儒, 亦爲之讓頭. 自勝冠能程詩, 又工於騈儷, 非摹擬後村浮溪, 不爲也. 典贍精緻, 曲中程式, 學士諸公, 推以爲同研之長. 試鑾庠, 人或剽竊其所製以呈, 坐雷同, 屢黜而不以屑意. 己卯中進士, 壬辰擢庭試, 選入槐院. 俄被堂后薦, 以孤立無黨, 爲一番人所枳, 君遂連蹇而止於斯, 豈非其命也?”

스스로를 지키며 세속에서 으스대며 서로 부르고 따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평소에는 세상일에 마음을 두지 않는 듯했으나, 시비와 득실을 분별하는 데 이르러서는 확고하여 그 뜻을 빼앗을 수 없었다. 대개 스스로를 지키는 성품 탓에 남들과 잘 화합하지 못했고, 남들과 잘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꺾이고 눌려 뜻을 펼치지 못했다. 그러나 그를 아는 이들은 그 뜻을 안타까워했고 그를 모르는 이들 또한 그가 현달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을 슬퍼했다. 아, 슬프도다! 겨우 4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니 실로 병신년(1716, 숙종42) 8월 28일의 일이었다.[22]

⑥ 첫째 아내는 감역 황정하(黃鼎夏)의 딸이니 아들 둘을 낳았는데 장남은 용보(龍普)이고 차남은 홍보(鴻普)이다. 둘째 아내는 유학 조정(趙珽)의 딸이니 딸 하나를 낳았다. 용보는 윤지수(尹志洙)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 하나를 낳았고, 홍보는 진사 조진태(趙鎭泰)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둘 둘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모두 어리다. 딸은 김덕현(金德顯)에게 시집갔다.[23]

⑦ 명(銘)은 다음과 같다. “재능이 있어도 없는 듯이 하였고, 겸손함으로써 스스로를 다스렸네. 날개를 다 펼치지도 못했거늘 마침내 날개가 꺾이고 말았네. 아, 저 충원의 휑한 골짜기, 검은 돌에 새겨 후손들에게 보이노라.”[24]

「이주서묘지명」을 그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구분하면 총 7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에서는 묘주인 이정연의 무덤 위치, 창작자와 묘주와

22) 洪重聖, 『芸窩集』 권5, 위의 글. “君爲人恬潔而靜嘿, 羣居笑譚滿前, 而言若不出口, 杜門自守, 不爲俗間翿翿徵逐態. 平居若不經意於世事, 至分辨是非得失, 確然不可奪, 盖其自守故寡合, 寡合故終挫摅而不振. 然知者惜其志, 不知者亦悼其不顯而遽歿矣. 噫悲夫! 君死時, 壽廑四十四, 實丙申八月二十八日也.”

23) 洪重聖, 『芸窩集』 권5, 위의 글. “初娶監役黃鼎夏女, 生二男, 長龍普, 次鴻普, 後娶幼學趙珽女, 生一女. 龍普娶尹志洙女, 生一男, 鴻普娶進士趙鎭泰女, 生二子一女, 並幼. 女適金德顯.”

24) 洪重聖, 『芸窩集』 권5, 위의 글. “銘曰, 有若無, 謙自牧. 飛不盡, 遂垂翼. 猗中原, 呀然谷, 詒後人, 識玄石.”

의 관계, 이에 수반한 묘지명을 창작한 계기 등을, ②에서는 이정연 본인의 객관적 정보, 부친을 포함한 이정연의 가계(家系), 모친 여산 송씨(礪山宋氏)의 가계와 이정연의 생년 등을, ③에서는 이정연의 어린 시절 에피소드, 스승 박태보(朴泰輔, 1654~1689)와의 관계와 일화 등을, ④에서는 이정연의 문학적 재능과 관직 이력 등을, ⑤에서는 이정연의 성품과 행실, 그의 몰년 등을, ⑥에서는 이정연의 아내들과 자식들의 객관적 정보를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⑦은 이상의 이정연의 생애를 총괄하는 명문(銘文)이다.

비지류 산문의 본질적인 속성은 묘주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①, ②, ⑥은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객관적 정보의 열거에는 작자의 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작자의 개입이 비교적 수월하고 이에 따라 작자의 평가나 의론이 드러나는 부분은 ③, ④, ⑤, ⑦과 같이 묘주의 재능과 성품, 특별한 사건이나 에피소드, 작품 전체를 통관하는 명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작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묘주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묘주의 진면목이 지니는 함의에 대해선 아래의 글이 참조가 된다.

> 옛사람은 만나볼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책을 읽다가 때때로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를 만나게 되는 것은 결코 법도나 준칙 사이에서가 아니라, 그의 폐부와 심장이 간혹 한 가지 사건이나 한 마디 말 속에 유연히 드러날 때이다. 비록 평범하여 아주 빼어나고 기특한 일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해도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지향하는 뜻[志尙]을 넉넉히 볼 수 있다. 그러면 천 년 뒤에라도 황홀하게 얼굴을 마주 대하고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듯하다. 그러므로 아무리 거칠거나 속 좁은 별 볼일 없는 범인이라도 그 지향하는 뜻을 볼 수 있으면 도리어 취할 점이 있다. 반면에 아무리 이름난 군자라도 지향하는 뜻의 실재를 볼 수 없다면 취하기에 부족하다.[25]

25) 李勉伯, 『岱淵遺藁』 권2, 「碑誌說」. "古人不可見也, 然吾嘗讀書, 而有時乎得其

이면백(李勉伯, 1767~1830)은 「비지설(碑誌說)」이라는 글을 통해 자신만의 비지론(碑誌論)을 개진하였는데, 비지류 산문의 본질은 묘주가 지향한 뜻[志尙]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수백 년이 흘러 비지류 산문을 읽는 이가 묘주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경우는 그의 폐부와 심장이 간혹 한 가지 사건이나 한 마디 말 속에 유연히 드러날 때이다. 이를 통해 비지류 독자로 하여금 묘주가 지향하는 뜻을 넉넉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묘주 자신이 평생에 걸쳐 지향한 정신세계를 온전하게 밝히는 것이 비지류 산문의 본령이고, 여기서 묘주 자신이 지향한 뜻과 이에 따른 실제의 행실이 바로 묘주의 진면목인 것이다.[26] 이는 해당 비지류 산문을 창작하는 작자에 의해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정연을 묘주로 한 「이주서묘지명」에서는 이정연의 진면목이 ③, ④, ⑤, ⑦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첫째, 스승 박태보를 사모하는 모습이다. 14세부터 박태보의 문하에서 수학한 이정연은 자질과 성품을 인정받았기에 박태보가 친자식처럼 그를 아꼈다. 그런데 기사환국 때 박태보가 인현왕후(仁顯王后) 폐위의 부당함을 주장하다가 숙종의 노여움을 사서 심한 고문을 받고 진도(珍島)로 귀양을 가던 도중 노량진(露梁津)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귀양을 떠나는 죄인의 처지로 세상을 떠난 스승이었지만 이정연은 이러한 정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스승을 위해 조복(弔服)에 마질(麻絰)을 가하는 심상(心喪)을 지내고 마침내 제문을 지었다. 이를 통해 스승에 대한 추모의 정신과 함께 스승이 지킨 의리에 결연하게 동참하는 이정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담박하면서도 굳센 의지를 지닌 모습이다. 이정연은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고 특히 과거 문장

爲人. 所以得之者, 固不在於檢柙尺度之間也, 其肺肝心曲, 或悠然呈露於一事片言之中. 雖若尋常不足爲殊絶奇特者, 亦足以見其志尙之所寄, 怳乎覿面接談於千載下. 故雖稱爲凡夫細人狂踈褊窄者, 苟得其志尙, 却有可取者, 雖有名君子, 不得其志尙之所在, 或有不足取者."

26) 권진옥(2018b), 122~123쪽.

에 특장을 보였다. 과거 시험을 함께 공부하는 동학들 사이에서 으뜸으로 추대될 정도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정연의 글을 표절하여 과거 답안지를 작성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기도 하였다. 결국 이러한 일로 인해 이정연은 억울하게 여러 차례 과거 시험에 낙방하기도 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마침내 문과에 급제하였지만 자신을 지지하는 당파나 세력이 없었던 탓에 벼슬길이 수차례 막혀서 낮은 관직에 그치고 말았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세상의 명리에 초연한 이정연의 담박한 모습을 잘 보여 준다. 한편 이정연은 평소 무리와 함께 있을 적에도 입 밖으로 말을 꺼내지 않아 세상일에 마음을 두지 않은 듯하였지만, 시비와 득실을 분별하는 데 이르러서는 확고하여 그 뜻을 빼앗을 수 없을 정도였다. 결국 이정연은 스스로를 엄하게 단속하는 성품 탓에 남들과 잘 화합하지 못했고 이렇게 남들과 잘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꺽이고 눌려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했다. 이러한 내용들 또한 평소 고요한 성품을 지녔지만 필요시 굳센 의지를 보이는 이정연의 모습이다.

특히 담박하고 겸손한 이정연의 성품은 명문을 통해서 더욱 부각된다. “재능이 있어도 없는 듯이 하였고, 겸손함으로써 스스로를 다스렸네.[有若無, 謙自牧.]”라고 시작하는 명문은 『논어(論語)』 「태백(泰伯)」에서 증자(曾子)가 안연(顔淵)의 겸허한 덕성을 칭찬한 말, 그리고 『주역(周易)』 「겸괘(謙卦)·상전(象傳)에서 “겸손하고 겸손한 군자는 몸을 낮춤으로써 스스로를 다스린다.[謙謙君子, 卑以自牧.]”라고 한 데서 원용한 표현이다. 이정연의 겸손한 성품을 안연에 견주는 동시에 『주역』 「겸괘」의 언사를 근거로 그의 겸손한 미덕을 더욱 칭양한 것인데, 명문의 속성이 묘주의 생애를 집약하는 것인 만큼 홍중성은 이정연의 생애를 총괄하는 모습으로 겸손함을 지목한 것이다.

④, ⑤에서 세상의 명리에 초연한 담박함이나 군중 속에서의 고요함을 보여 주는 이정연의 사건이나 일화는 모두 겸손한 성품으로 수렴되고 있

으며, 이것이 바로 홍중성이 파악한 이정연의 지향과 행실, 즉 묘주의 진면목인 것이다. 그리고 ③에서 보이는 스승에 대한 추모의 정신이나 의리에 결연한 모습, ⑤에서 보이는 시비와 득실을 확고하게 분별하며 스스로를 엄하게 단속하는 모습 등은 겸손함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정연의 또 다른 진면목을 드러냄으로써 묘주의 입체적인 진면목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간엄(簡嚴)한 편장의 구성 방식

두 번째로 살펴볼 작품은 「증정경부인풍산홍씨묘지명」이다. 홍중성에게는 5명의 누이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큰누님과의 나이 차는 27살이었다. 홍중성의 부친 홍만회(洪萬恢, 1643~1710)와 이광하(李光夏, 1643~1701)는 평소 뜻을 함께한 벗이었는데, 홍만회의 장녀와 이광하의 아들 이집이 혼인을 맺었다. 홍중성의 큰누님은 16세에 시집을 갔다가 10년 뒤 26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로부터 거의 50년이 지났을 때 이집의 아들 이주진(李周鎭, 1691~1749)[27]이 홍중성에게 묘지명을 부탁하였다.

> ① 나에게는 5명의 누이가 있는데, 큰누님이 현숙하였으나 불행히도 오래 살지 못하고 후사도 없었으니 '증정경부인홍씨의묘(贈貞敬夫人洪氏之墓)'라는 무덤이 양주(楊州) 치소 남쪽 해등촌(海等村) 부임(負壬)의 언덕에 있다. 부인이 세상을 떠난 지 50년이 지나 무덤가의 가래나무가 이미 아름드리가 되었지만 무덤에 묻을 묘지명이 없었다. 목숨이 짧았던 탓에 사람들의 눈과 귀에 드러나지 못했고 또한 세계(世系)와 생몰을 사실대로 기록하지 못했으니, 다시 천만 년이 지난 뒤에 누가 이 무덤의 주인인지 알겠는가. 지금 검

27) 李周鎭은 李墀의 두 번째 아내 金壽賓의 딸 安東 金氏 소생이다. 이집의 첫 번째 아내 豐山 洪氏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토관 이주진(李周鎭)이 실로 부인의 제사를 주관하고 있는데, 나에게 묘지명을 부탁하며 말하기를 "공(公)이 아니면 제 어머니의 묘지명을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기에, 마침내 눈물을 흘리며 글을 쓰노라.[28]

② 부인의 본관은 풍산(豐山)이니 고려 시대 학사 휘 지경(之慶)의 후손이고, 대사헌을 지낸 모당(慕) 휘 이상(履祥)의 현손이고, 참판 휘 영(霙)의 증손이고, 영안위(永安尉) 문의공(文懿公) 휘 주원(柱元)의 손녀이고, 판결사 휘 만회(萬恢)의 딸이다. 어머니는 숙부인 남양 홍씨(南陽洪氏)로 부친은 관찰사를 지낸 보옹(葆翁) 휘 명일(命一)이고, 조부는 학곡(鶴谷) 문정공(文靖公) 휘 서봉(瑞鳳)이다. 이것이 부인의 내외 가계(家系)이다. 부인은 16세에 덕수(德水)의 이씨(李氏) 명문가인 좌의정 취촌(醉村) 휘 이집(李墐) 공에게 시집갔으니, 판윤을 지내고 영의정에 추증된 정익공(貞翼公) 휘 광하(光夏)와 대사간을 지낸 휘 합(柙)과 동악(東岳) 문혜공(文惠公) 휘 안눌(安訥)이 곧 취촌공(醉村公)의 부친, 조부, 증조부 3대이다. 이것이 부인의 시댁 가계이다. 임인년(1662, 현종3) 3월 13일에 태어나 정묘년(1687, 숙종13) 1월 17일에 세상을 떠나니 향년 겨우 26세였다. 이것이 부인의 생몰이다.[29]

③ 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총명하고 지혜로워 그 밝음이 마치 빙설(氷雪)과 같았고, 겨우 밥을 입에 대기 시작할 무렵에 이미 숫자와 방위를 알았다. 할머니이신 정명공주(貞明公主 선조의 딸)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무릎 위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마치 보배로운 구슬을 가지고 놀 듯하셨다. 성

---

28) 洪重聖, 『芸窩集』 권5, 「贈貞敬夫人豐山洪氏墓誌銘」. "吾有五姊妹, 最長而賢, 不幸無年無嗣, 而曰贈貞敬夫人洪氏之墓, 在楊州治南海等村負壬之原. 夫人歿五十年, 梓木已連抱矣, 而無銘誌掩諸幽. 緜命之短, 未克表白於人耳目, 而亦無世系生卒以紀實, 則更千萬年後, 孰知爲誰氏藏也? 今者李檢討周鎭, 實尸夫人祀, 屬銘於余曰, 非公無以銘吾母, 遂泣而叙之."

29) 洪重聖, 『芸窩集』 권5, 위의 글. "夫人籍豐山, 麗朝學士諱之慶之後, 大司憲慕堂諱履祥之玄孫, 參判諱霙之曾孫, 永安尉文懿公諱柱元之孫, 判決事諱萬恢之女. 妣淑夫人南陽洪氏, 考曰觀察使葆翁諱命一, 王考曰鶴谷文靖公諱瑞鳳, 此夫人內外系也. 年十六, 適德水名閥左議政醉村李公諱墐, 而判尹贈領議政貞翼公諱光夏, 大司諫諱柙, 東岳文惠公諱安訥, 卽醉村公三世, 此夫人舅家系也. 生於壬寅三月十三日, 卒於丁卯正月十七日, 得年廑二十六, 此夫人生卒也."

인이 되어서는 『소학(小學)』을 배웠는데 대략 그 대의(大意)를 이해하였다. 배필이 될 만한 훌륭한 사위를 골라 취촌공에게 시집을 보냈으니, 나의 선친(先親)과 정익공께서 평소 뜻을 같이한 벗이었기에 양가 자녀의 어짊을 익숙하게 알아서 주씨(朱氏)와 진씨(陳氏) 집안 사이에서 대대로 혼인하는 의리를 기탁하신 것이다. 시집을 가서 시부모를 섬김에 부드러운 낯빛을 다하였고, 부마(駙馬) 집안에서 생장했음에도 교만하고 부귀한 습속을 통렬히 제어하니, 시부모께서 칭찬하며 "훌륭한 며느리로다."라고 하셨다. 취촌공은 어질고 문재(文才)가 있었으며 부부 사이는 금슬처럼 화목한 즐거움이 있었는데, 취촌공이 갑자년(1684, 숙종10)에 사마시에 합격하니 부인도 그 영광을 함께 누렸다. 병인년(1686, 숙종12) 겨울에 한질(寒疾)에 걸려 조금씩 병이 침범하더니 이듬해에 끝내 세상을 떠났다.[30]

④ 아, 슬프도다! 그로부터 43년 뒤인 기유년(1729, 영조5)에 취촌공이 삼공(三公)의 지위에 오르자 부인에게 '정경(貞敬)'의 봉작이 내려지니 이는 남편의 작위에 따라 봉해진 것이다. 부인께서 세상을 떠날 당시에 나는 겨우 성인이 되었을 때라 눈으로 보고 기억하는 것은 오직 뽈송곳을 차고 다니던 모습뿐이었다. 더군다나 이제 세월이 오래되어 당시를 기억하는 노인들도 살아 계시지 않으니, 부인의 행적을 한두 가지라도 찾아볼 길이 없다. 게다가 아이 하나를 남겨서 그 법도를 이어받지 못하게 하였으니, 비록 남편의 존귀함 덕분에 봉작 교서가 찬란한들 다만 저승에 계신 사후의 몸을 빛낼 뿐이리라. 이것이 어찌 살아남은 자의 슬픔에 도움이 되겠는가.[31]

---

30) 洪重聖, 『芸窩集』 권5, 위의 글. "夫人生而朗慧, 烱然如氷雪, 甫口食, 能識數與方. 王母貞明公主特奇愛, 置膝撫頂, 若弄珠琲. 及笄授小學, 略曉大意. 擇快婿可相媲者, 歸于醉村公, 盖吾先君子與貞翼公爲平生同物友, 熟知兩家子女賢, 而托朱陳之義. 及歸事二人, 盡柔色, 生長禁臠, 痛鉏驕貴習, 舅姑嘖嘖曰, 佳婦也. 醉村公賢而文, 有琴瑟靜好之樂, 甲子升司馬, 夫人與榮焉. 丙寅冬, 遇寒疾稍侵, 翼年竟不淑."

31) 洪重聖, 『芸窩集』 권5, 위의 글. " 嗚呼悲夫! 後四十三年己酉, 醉村公登三事, 貤夫人貞敬, 封夫爵也. 當夫人棄代, 余始戴冠, 所睹記者, 唯觿佩之容爾. 矧今年紀久, 遺老無見在, 莫繇觀采其一二. 又不遺一兒, 以承其典刑, 雖以夫貴, 命誥煒煌矣, 而秖資泉壤身后乎! 奚裨此後死者之悕也?"

⑤ 명(銘)은 다음과 같다. “도봉산(道峰山) 아래 흙을 쌓고 나무를 심은 곳 이곳이 부인의 무덤이로다. 소구(昭丘 선산)의 기슭 도끼 형상이나 낮은 집 모양을 한 곳 이곳이 선친의 유택이로다. 먼 곳과 가까운 곳에 두 무덤이 서로 따르니, 부인의 효성에 하늘이 혹 도우신 것이리라. 내가 무덤에 글을 새김에 눈물을 흘리며 짓노라.”[32]

무덤의 위치, 묘주와 작자와의 관계, 묘지명 청탁 과정과 묘지명 창작 동기 등을 ①에서 서술하고, 묘주 본인의 객관적 정보를 비롯한 가계 소개, 시댁의 가계, 묘주의 생몰년 등을 ②에서 서술하는 구성은 앞서 살펴본 「이주서묘지명」과 동일하다. 다만 ②에서 본가와 시댁의 가계, 묘주의 생몰을 기술할 적에 “이것이 부인의 내외 가계이다[此夫人內外系也]”, “이것이 부인의 시댁 가계이다[此夫人舅家系也]”, “이것이 부인의 생몰이다[此夫人生卒也]” 등과 같이 객관적 사실과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형식으로 문장에 변화를 주기도 하였다. ③에서는 묘주의 어린 시절 모습, 혼인한 뒤 시집에서 생활할 때의 행적, 세상을 떠날 즈음의 일 등을 기술하고 있고, ④에서는 묘주가 세상을 떠난 후의 일, 묘주에 대한 작자의 안타까운 심정 등을 서술하고 있으며, ⑤는 이상의 묘주의 생애를 총괄하는 명문이다.

비지류 산문은 묘주의 객관적 정보와 가계, 묘주와 작자와의 관계, 창작 동기, 일생의 행적 등을 서술해야 하는데, 이러한 필수적인 항목들을 고정된 틀 안에서 나열식으로 서술한다면 묘주만 바뀔 뿐 천편일률적인 체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문학성을 추구하려면 필수적인 항목들을 어떻게 안배할지, 즉 편장(篇章) 단위의 구성 방법에 대한 고민을 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고민의 결과 이른바 간엄(簡嚴)의 수사법과 같은 창작

32) 洪重聖, 『芸窩集』 권5, 위의 글. “銘曰, 道峰之下, 壤而樹者, 夫人之墓. 昭丘之麓, 斧而屋者, 先君之宅. 莽蒼之邇, 玄隧于隨, 惟夫人孝, 天或佑之. 我銘幽窀, 涕以爲辭.”

론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김창협(金昌協, 1651~1708)으로 대표되는 간엄의 비지류 창작론은 그 함의하는 바가 다양하지만 그 핵심만 거론하면 편장 구성의 간약함이고, 이 편장 구성의 간약함이란 결국 묘주의 진면목을 간단하고 요령 있게 드러내는 구성 원리라고 할 수 있다.[33][34]

「증정경부인풍산홍씨묘지명」은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 즉 ①과 ②를 통해 비지류 산문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무덤의 위치, 묘주를 둘러싼 객관적 정보, 묘지명 청탁 과정과 창작 동기 등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성 방식은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 정보들을 한데 모아 제시함으로써 묘주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속도감 있게 이해하도록 만든다. ②에서 본가와 시댁의 가계, 묘주의 생몰을 기술할 적에 객관적 사실과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형식으로 구성한 것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

③과 ④는 이 묘지명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묘주의 진면목을 형상화하는 데 치중하고 한편으로는 서사와 의론을 착종하고 있다. ③은 묘주의 전반적인 생애, ④는 사후에 벌어진 일을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고 있다. ③에서 어린 시절의 총명함, 할머니 정명공주(貞明公主)의 총애, 『소학(小學)』 공부 등은 시집가기 이전 본가에서의 행적이고, 부드러운 낯빛

33) 권진옥(2018a), 93쪽.

34) 이른바 簡嚴의 碑誌論은 金昌協을 대표하는 비지류 창작론이다. 그런데 洪重聖이 김창협의 아우인 金昌翕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창협의 비지론이 홍중성의 비지류 창작론이나 실제 창작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하다. 홍종성의 謹嚴과 김창협의 간엄 사이의 개념은 대동소이한 측면이 있다. 비지류 산문에서의 간엄은 간약함・긴요함・엄정함・엄숙함 등의 의미망인데, 字句 단위에서 篇章 단위에 이르는 표현과 구성의 간약함이요, 墓主에 대한 사실 적시와 인물 평가에 따르는 엄정함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홍중성이 언급한 근엄한 문체나 체재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또한 기실 '簡'이나 '謹' 글자의 함의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홍중성의 근엄이나 김창협의 간엄이나 유사한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홍중성과 農淵 사이의 관계가 특별한 사이였기 때문에 이 가운데 산문 비평이나 이론과 관련해서 김창협과의 영향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앞서 韓愈과 歐陽修를 법도로 삼았다는 언급을 참고하면, 이른바 農巖 계열의 韓歐正脈論과도 연결되는 지점이 보이기 때문이다.

으로 시부모를 섬기고, 교만하거나 부귀한 습속을 보이지 않으며, 남편과 화목하게 지내는 일상 등은 시집간 뒤의 행적이다. '총명하고 지혜로움[朗慧]', '부드러운 낯빛[柔色]', '훌륭한 며느리[佳婦]', '금슬처럼 화목함[琴瑟靜好]' 등의 표현은 생애 전반에 걸친 묘주의 핵심적인 모습들을 형상화하는 용어들이다. ④는 묘주가 세상을 떠난 후에 벌어진 일을 다루고 있는데, 묘주 사후 43년이 되었을 때 남편이 좌의정에 오르자 이에 따라 묘주에게 '정경(貞敬)'의 봉작이 내려진다. 그런데 이런 영예에 대해 "아, 슬프도다![嗚呼悲夫!]"라는 비탄의 정조를 조성하는가 하면, 심지어 봉작 교서가 찬란한들 다만 죽은 뒤 몸을 빛낼 뿐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아남은 자의 슬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까지 고백한다. 서사에 끼어든 홍중성의 의론인 셈이다. 묘주가 생전에 누리지 못한 봉작의 영광을 사후 40여 년이 지나서 얻게 되고, 묘주의 동생으로서 이 묘지명을 창작하는 시기가 또한 사후 50년이기 때문에 뒤늦은 봉작의 영광과 묘지명 찬술은 오히려 작자의 슬픔을 배가하는 요소가 될 뿐이다. 또한 ④의 중간에 작자가 묘주를 떠올리는 회상 장면은 일종의 시간의 착종인데,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진행하는 서사 사이에 시간을 거꾸로 돌림으로써 묘주에 대한 작자의 그리움과 애통함을 더욱 극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실의 나열에 집중한 ①과 ② 도입 부분에 바로 이어서 ③을 통해 묘주의 진면목을 형상화하고, 다시 ④를 통해 작자의 슬픔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구성 방식은 묘주의 진면목과 작자의 심정을 간단하고 요령있게 드러내는 편장 구성이라 할 수 있다.

⑤는 묘지명을 표방한 이상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명문이지만 구성의 측면에서도 살펴볼 만한 지점이 있다. 명문은 당연히 작품의 말미에 부기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도하여 구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묘주의 생애나 진면목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측면에서, 혹은 미진한 묘주의 형상화를 보강하는 측면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명문을

구성할지는 여전히 작가의 문학적 역량이고 작품의 수사적 영역이다. 앞서 살펴본 「이주서묘지명」의 명문이 묘주의 생애를 수렴하는 진면목을 다시 확인하는 성격이라면, 「증정경부인풍산홍씨묘지명」의 명문은 미진한 묘주의 형상화를 보완하는 성격에 가깝다. “도봉산(道峰山) 아래 흙을 쌓고 나무를 심은 곳 이곳이 부인의 무덤이로다. 소구(昭丘 선산)의 기슭 도끼 형상이나 낮은 집 모양을 한 곳 이곳이 선친의 유택이로다. 먼 곳과 가까운 곳에 두 무덤이 서로 따르니, 부인의 효성에 하늘이 혹 도우신 것이리라.[道峰之下, 壤而樹者, 夫人之墓. 昭丘之麓, 斧而屋者, 先君之宅. 莽蒼之邇, 玄隧于隨, 惟夫人孝, 天或佑之.]” 실제로 홍중성의 큰누님 무덤은 도봉산(道峰山) 아래에 있고 홍중성의 부친 무덤은 우이동(牛耳洞)에 있었다. 이렇게 부녀가 우연히 가까운 거리에 안장된 사실을 홍중성은 우연이 아니라 큰누님의 효성(孝誠)에 하늘이 도운 것이라 의미를 부여한다. 다시 말해 명문을 통해 묘주의 진면목으로서 효성을 부각한 것이다. ③을 통해 묘주의 몇몇 진면목을 확인하면서도 효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언급은 찾을 수 없다. 물론 시부모를 섬김에 부드러운 낯빛을 다하는 모습은 효성의 발현이자 확장이긴 하지만, 정작 효성과 직접 관련한 본가에서의 행적은 표출하지 않았다. 다만 어린 시절 총명과 지혜, 할머니의 각별한 총애, 『소학』에 대한 깊은 이해, 훌륭한 며느리로 인정받은 사실, 남편과의 화목한 일상 등을 언급함으로써 넌지시 그 근원이 효성임을 추측하게 만들다가 마침내 명문을 통해 확실히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홍중성은 일률적으로 기록하는 명문에서도 묘주의 생애나 진면목을 간단하게 요약하거나 혹은 미진한 묘주의 형상화를 보강하면서 비지류 산문의 문학성을 제고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35]

35) 洪重聖이 특히 韓愈와 歐陽修를 전범으로 삼았다는 점은 그의 비지류 산문 창작과도 관련이 있다. 기존의 한유 비지류 연구에서, 그의 비지류 산문의 특징으로 墓主의 생애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측면을 찾아내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적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흔히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남

4. 전언(傳言)을 통한 형식적 변격의 추구

세 번째로 살펴볼 작품은 「공인신씨부묘지명」이다. 홍중성의 재종제 홍중장이 자신의 딸이자 신홍의 아내 풍산 홍씨가 22세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나자, 홍중장이 홍중성을 찾아가 묘지명을 부탁하여 지어진 글이다. 그런데 이 작품은 형식적으로 변격의 모습을 보인다.

> 나의 재종제 반재옹(槃齋翁 홍중장(洪重章))이 죽은 딸을 위해 곡(哭)하며 지은 제문을 소매 속에서 꺼내어 눈문을 흘리며 나에게 보여 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
> "제 죽은 딸의 행적이 바로 여기 제문에 담겨 있습니다. 제 딸은 무자년(1708, 숙종34) 12월에 태어나 기유년(1729, 영조5) 12월에 세상을 떠났으니, 향년이 겨우 22살입니다. 저는 늙었으니 딸 하나 잃은 것으로 종신토록 애통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 평생을 돌아보면 오직 이 딸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 마침내 딸 없는 아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제 딸의 현숙함이 보통 부녀자들에 비할 바가 아니니, 저의 애통함이 어찌 그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묘지명의 글만이 땅속에서 영원히 전해지게 할 수 있으니, 제가 당신의 글을 구하여 저 정호(程顥)가 요절한 딸 단랑(澶娘)을 위해 묘지명을 지은 뜻을 잇고자 합니다. 그리하면 내 죽은 딸을 거의 영원히 전해지게 할 수 있을 터이니, 당신의 묘지명이 아니면 그 누가 지을 수 있겠습니까."[36]

위의 인용 글은 「공인신씨부묘지명」의 도입 부분이다. "나의 재종제 반재옹(槃齋翁 홍중장(洪重章))이 죽은 딸을 위해 곡(哭)하며 지은 제문을

종진(2003), 46쪽. 이러한 측면에서 홍중성이 비지류 산문에서 보인 핍진한 묘주의 진면목 형상화는 한유와의 접점으로도 볼 수 있다.

36) 洪重聖, 『芸窩集』 권5, 「恭人申氏婦墓誌銘」. "余再從弟槃齋翁, 袖其哭女之文, 泣視余曰, '吾亡女行蹟斯在矣. 吾女生於戊子十二月, 坳於己酉十二月, 得年廑二十二. 吾衰矣, 不必以失一女爲終身慟, 而顧吾平生, 秖有此女, 今焉遂作無女之父. 况吾女之賢, 非比凡婦女, 則吾之慟, 其曷可已乎? 唯有文字, 可以不泯滅於地中, 而吾丐子之文, 以踵夫澶娘誌, 則庶可以不死我亡女, 非子之銘而誰也?'"

소매 속에서 꺼내어 눈문을 흘리며 나에게 보여 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余再從弟槃齋翁, 袖其哭女之文, 泣視余曰.]"라고 하면서 글을 시작하는데, 이어지는 "제 죽은 딸의 행적이 바로 여기 제문에 담겨 있습니다.[吾亡女行蹟斯在矣]" 이하 부분 전체는 모두 홍중장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형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위의 인용 글 마지막 "당신의 묘지명이 아니면 그 누가 지을 수 있겠습니까[非子之銘而誰也]" 이하 부분에서 홍중장이 홍중성에게 언급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 제 딸은 나에게 늦둥이로 태어나 내가 끔찍이 아꼈는데, 딸은 총명하고 어질며 효성스러워서 말문을 떼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부모를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일찍이 위독한 병에 걸렸을 때, 딸이 몸소 약을 달여 병을 고치고는 말하기를 "이 일을 축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며, 비녀와 귀걸이를 팔아 떡과 음식을 마련하여 함께 고생한 여종들에게 대접하며 노고를 보답하였습니다. 시집을 가서는 친정 부모를 섬기던 정성으로 시부모를 섬겼는데, 시어머니가 병을 앓자 또 아비를 구했던 정성으로 시어머니를 살려 내어 마침내 걱정이 없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 딸의 지극한 성품은 타고난 것이라 배우지 않고도 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바느질 솜씨가 뛰어났으니 집이 가난한 탓에 남의 옷을 지어 주고 그 값을 받아 생활에 보태었는데, 옷을 짓고 남은 자투리 천이 있으면 모두 싸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이가 너무 청렴하다고 말하니, 딸은 말하기를 "나는 내 손품을 팔아서 먹고 살면 충분한데, 어찌 또 그 나머지를 바라겠습까."라고 하였습니다. 무신년(1728, 영조4) 이인좌(李麟佐)의 난리 때 도성 안이 솥이 끓듯 혼란스러웠는데, 제가 난리를 피할 계획을 세우며 급박한 상황이 닥치면 죽음에 잘 처신하라고 딸을 면려하고 손을 맞잡아 눈물을 닦으며 생사 이별의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집안의 여러 종들 또한 딸을 애틋하게 여겨 심지어 환난을 함께하고자 목숨을 바쳐 지켜 주겠다고 맹세했으니, 평소에 딸의 어진 마음이 남들을 깊이 감동시키지 않았다면 어찌 이와 같았겠습니까.
>
> 제가 세상에서 곤궁해진 지 오래되었을 적에 집 밖을 나가 시냇가와 바위 사이를 배회하고 돌아오면 제 딸과 담소하며 날을 보내다 보니, 극심한 가난

도 많이 늙은 줄도 몰랐습니다. 저는 딸이 언서(諺書)를 읽는 모습을 보았는데, 딸이 말하기를 “이것이 비록 가벼운 이야기이지만 시비와 선악은 모두 자신의 스승이 됩니다. 부귀와 영화 같은 것은 일체 몸 밖의 외물이라 부러워할 것이 못되고 오직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바를 행할 뿐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딸의 담박한 성품으로 저를 깨우침이 이와 같았습니다. 제 아내가 혹 일 처리가 미진하여 제가 아내의 잘못한 일을 가지고 여종을 꾸짖으면서 장차 벌을 내리려 하면, 딸이 곧 마루 아래로 내려가서 사죄하며 말하기를 “어머니의 일을 돌보는 것을 잘하지 못한 탓에 아버지를 노하게 하였으니, 이는 딸의 죄입니다. 청컨대 저에게 먼저 벌을 내리시고 종들은 죄를 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습니다. 이는 대장부도 하기 어려운 일인데 딸이 이를 해내었습니다. 딸은 저의 유일한 딸이라 제가 진귀한 보물처럼 아꼈으니, 물건 하나라도 얻으면 딸에게 선물로 주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정원에 들어가 복숭아를 따서 딸과 여러 며느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당시 딸은 성년이 되기 전이라 여러 며느리들의 끝자리에 앉아 있었으니 화장하고 고운 옷을 입은 모습이 붉은 복숭아와 서로 비추며 번쩍번쩍 광채가 났습니다. 제가 시를 지어 기쁜 마음을 드러내고 마음속으로 ‘훌륭한 사위를 얻어 딸의 배필로 삼아 이곳에 둔다면, 내 만년의 복이니 어찌 공후(公侯)의 부귀함을 부러워하겠는가.’라고 하였는데,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홀연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슬프도다! 딸의 현숙함은 이미 저의 글에 상세하게 적었으나, 다 말할 수 없는 저의 심정은 글로도 다 표현하지 못하였으니 당신께서 어찌 죽은 제 딸을 위해 묘지명을 지어 저의 끝없는 슬픔을 채워 주지 않겠습니까.[37]

---

37) 洪重聖,『芸窩集』권5,「恭人申氏婦墓誌銘」. “嗚呼! 吾女於吾爲晩生, 吾鍾愛甚, 而女明慧仁孝, 自學語, 已知愛父母. 吾曾被危疾也, 躬煮藥以救病已, 曰, 此不可以不賀, 賣簪珥設餠食, 餉同事女僕以償勞. 及于歸, 以事父母者事舅姑, 姑病又以救父之誠捄姑, 遂以無憂. 此吾女至性出於天, 不待學而能也. 女工於箴紉, 以貧故製人衣裳, 取其直資活, 縫餘有尺帛, 悉封還其主. 或告以太廉, 則曰吾賣手而食足矣, 又可取其餘耶? 戊申之縕, 王城鼎沸, 吾爲避亂計, 而以臨急善處死勉於女, 執手抆涕, 有死生訣別之悲. 家中諸僕, 亦爲女哀矜, 至欲同患難, 誓以身捍衛, 非平日仁心入人深而如是乎? 吾窮於世久矣, 出而倘佯於溪石, 入而與吾女談笑遣日, 不知貧之甚而老之至. 見吾女讀諺書曰, 此雖軟譚, 是非善惡, 皆我師也. 如富貴繁華, 一切是身外物, 不足羨, 唯當爲我之所當爲而已. 以女之澹泊, 其誨之也如此.

위의 인용 글에서 보이는 묘주의 어릴 적 성품과 행실, 효성과 관련한 본가와 시댁에서의 묘주의 효행, 묘주의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 태도, 무신년(1728, 영조4) 이인좌(李麟佐)의 난리 때 부녀 사이의 일화, 대장부 못지않은 묘주의 담대한 에피소드, 묘주를 끔찍이 사랑한 부친의 사랑, 안타까운 묘주의 죽음 등은 모두 묘주의 부친인 홍중장이 홍중성에게 묘지명을 부탁하면서 직접 건넨 언사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후에 비로소 "나는 글솜씨가 서투르다는 이유로 차마 거절하지 못하였다.[余不忍以文拙辭]"라고 하면서 홍중성의 필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가 했는데, "아! 나는 공인(恭人)의 재주와 덕성에 대해 익숙하게 들었는데, 지금 그 아비의 글을 보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噫! 余聞恭人之才德熟, 今見其大人文益驗.]"라는 말을 끝으로 별도의 서사나 의론이 없고 다만 묘주의 본가와 시댁의 가계, 무덤의 위치 등 객관적 정보만 나열하고 바로 명문이 이어진다.[38] 다시 말해 묘지명의 청탁 과정, 묘주의 가계와 무덤의 위치 정보, 명문을 제외한 전편이 모두 묘주의 부친이 직접 작자에게 건넸던 말을 전재하고 있는 것이다. 매우 독특하고 변격적인 비지류 산문 창작 방법인데, 이러한 비지류 작법 역시 정격에만 국한되지 않고 변격을 아울러 구사하려고 노력했던 홍중성 비지류 산문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吾妻或事有不逮, 吾以責吾妻責婢而將施之罰, 女輒下堂謝曰, 以不能幹母蠱, 貽大人怒, 此女之罪也, 請先罰我, 以謝諸僕, 此丈夫之所難能而女爲之. 女吾一女也, 吾愛之如奇寶, 得一物賜女, 以爲之娛. 吾入園摘含桃, 分賜女與諸婦, 女時未笄, 坐諸婦之末, 靚粧絃服, 與朱實相暎, 奕奕有光艷. 吾賦詩以志喜, 心語而曰, 得快婿配女置於此. 吾晩年之福, 奚羨公侯耶? 及成婚未一年而遽歿矣. 嗟乎! 女之賢已詳於吾文, 而情之所不能道者, 文亦不能盡, 子盍爲之銘, 以塞吾無窮之悲?"

38) 洪重聖, 『芸窩集』 권5, 위의 글. "余不忍以文拙辭. 噫! 余聞恭人之才德熟, 今見其大人文益驗. 恭人姓洪氏, 豐山人. 我洪肇自麗朝光顯, 大司憲號慕堂諱履祥五代祖, 禮曹參判諱霙高祖也. 諱柱韓, 諱萬載, 曾祖若大父也. 父重章字文叔, 卽所謂槃齋翁也, 母安東金氏, 生員盛久之女. 申泓夫也, 籍高靈, 領議政文忠公叔舟之後. 以庚戌四月, 葬于楊州金村坐壬之原. 申泓娶繼室, 恭人無子, 嗚呼可哀已! 銘曰, 菀彼金村兮, 萬歲之岡. 我闡其幽兮, 百世之光. 有欲考之, 此其爲洪氏之藏."

이와 같은 특징은 앞서 언급한 한유 및 구양수 비지류 산문과의 접점도 확인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모곤(茅坤)은 『당송팔대가문초(唐宋八大家文鈔)』를 편찬하면서 한유의 비지류 산문 가운데 「양양노승묘지명(襄陽盧丞墓誌銘)」을 두고 '변체[變調]'라고 평가하였는데,[39] 한유의 이 작품은 노행간(盧行簡)이 자신의 부모를 장사 지내려 할 때 한유에게 묘지명을 부탁한 계기로 지어진 글이다. 그런데 이 글은 노행간이 한유에게 묘지명을 청탁하면서 말한 부분 "저의 선조는 대대로 족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吾先世世載族姓書]"를 시작으로 "금년 10월에 하음현(河陰縣)에서 여주(汝州)의 임여현(臨汝縣) 임여원(臨汝原)에 개장(改葬)하려 합니다.[將以今年十月, 自河陰啓葬於汝之臨汝之汝原.]"까지가 모두 청탁한 노행간의 언사로 이루어져 있다. 묘지명 가운데 노행간의 부친 양양현승(襄陽縣丞)의 행적은 모두 이 언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한유는 노행간의 언사를 직접 인용으로 처리하고, 이어서 노행간의 학문적 명성이나 효성, 노행간 3대의 기본 정보만을 짤막하게 부기한 뒤에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유의 이 글은 전편이 묘지명을 청탁한 제3자의 말을 전재하는 형식으로 비지류를 창작한 것이다. 한편 구양수의 「북해군군왕씨묘지명(北海郡君王氏墓誌銘)」은 태상승(太常丞)의 오씨(吳氏) 부인으로 훗날 북해군군(北海郡君)으로 추봉된 왕씨(王氏)을 위해 지은 작품이다. 그런데 이 글은 모곤이 "전편이 뭇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내용으로 묘지(墓誌)를 삼았으니 하나의 변체이다.[通篇以衆所稱許爲誌, 一變調.]"라고 평가한 것처럼, 글 전체가 묘주의 모친, 시어머니, 자매, 남편, 아들, 이웃 사람 등이 묘주에 대해 칭찬하거나 인정하는 말을 직접 인용하는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정작 작자인 구양수는 묘주의 아들이 묘지를 청탁한 사실, 후손들의 기본 정보, 명문만을 짤막하게 부기하면서 글을 끝맺고 있다. 제3자의 언사가 한 사람이냐 여러 사람이냐의 차이는 있지만 한유와

39) 茅坤은 이 작품을 두고 "一篇俱是求文者自言, 更不言一事."라고도 평가한 바 있다.

구양수의 이 두 작품은 모두 비지류 창작자의 서술이나 평가는 최대한 축소하고 그 대신 제3자의 생생한 언사를 전면에 내세우는 변격 형식을 추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한유와 구양수가 대화와 구술 방식을 비지류 작품 전편에 걸쳐서 활용한 것은 홍중성이 「공인신씨부묘지명」을 창작하면서 참조했을 것임은 자명하지만, 홍중성의 이 작품에서 보이는 방식, 요컨대 작품에서 직접 인용하고 있는 묘주 부친의 언사가 분량적으로 압도적이라는 점, 제3자의 전언(傳言)을 전재하는 과정에서 마치 별도의 독립된 비지류 산문과 같이 묘주의 생애 주기와 사건에 따른 구체적인 행적 서술, 묘주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핍진한 서사, 묘주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언사를 다시 직접 인용하는 방식 등은 한유와 구양수가 창작한 비지류 변격 산문 형식을 홍중성이 다시 변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 맺음말

이상의 본론을 통해 운와 홍중성이 창작한 비지류 산문을 살펴보았다.

비지류 산문 창작에 있어서 홍중성의 기조는 근엄한 체재를 추구하되 비지류 하위 문체나 창작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법도를 아교로 붙인 듯 고수하지 말고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었다.

그가 창작한 비지류 산문은 총 3편으로 이정연을 위해 지은 「이주서묘지명」, 신홍의 아내 풍산 홍씨를 위해 지은 「공인신씨부묘지명」, 이집의 아내 풍산 홍씨를 위해 지은 「증정경부인풍산홍씨묘지명」이다.

첫 번째로 「이주서묘지명」을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핍진한 묘주의 진면목 형상화를 분석하였다. 묘주 자신이 평생에 걸쳐 지향한 정신세계를 온전하게 밝히는 것이 비지류 산문의 본령이고, 여기서 묘주 자신이 지향한 뜻과 이에 따른 실제의 행실이 바로 묘주의 진면목인 것이다. 이는 해

당 비지류 산문을 창작하는 작자에 의해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주서묘지명」에서는 이정연의 핵심적인 모습이 2가지로 형상화되어 있는데, 첫째는 스승 박태보를 사모하는 모습이고, 둘째는 담박하면서도 굳센 의지를 지닌 모습이다. 이를 통해 스승에 대한 추모의 정신과 함께 스승이 지킨 의리에 결연하게 동참하는 모습, 세상의 명리에 초연한 담박한 모습, 고요한 성품을 지녔지만 필요시 굳센 의지를 보이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세상의 명리에 초연한 담박함이나 군중 속에서의 고요함을 보여 주는 이정연의 사건이나 일화는 모두 겸손한 성품으로 수렴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홍중성이 파악한 이정연의 지향과 행실, 즉 묘주의 진면목인 것이다. 그리고 이 외에 스승에 대한 추모의 정신이나 의리에 결연한 모습, 시비와 득실을 확고하게 분별하며 스스로를 엄하게 단속하는 모습 등은 겸손함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정연의 또 다른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묘주의 입체적인 진면목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증정경부인풍산홍씨묘지명」을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간엄한 편장의 구성 방식을 분석하였다. 비지류 산문은 문학성을 추구하기 위해 필수적인 항목들을 어떻게 안배할지, 즉 편장 단위의 구성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고민의 결과 이른바 간엄의 수사법과 같은 창작론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간엄의 비지류 창작론이라는 것은 편장 구성의 간약함이고, 이 편장 구성의 간약함이란 묘주의 진면목을 간단하고 요령 있게 드러내는 구성 원리이다. 「증정경부인풍산홍씨묘지명」은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에서 비지류 산문의 필수적인 요소인 무덤의 위치, 묘주를 둘러싼 객관적 정보, 묘지명 청탁 과정과 창작 동기 등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성 방식은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 정보들을 한데 모아 제시함으로써 묘주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속도감 있게 이해하도록 만든다. 도입 부분 이후의 단락들은 묘지명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묘주의 진면목을 형상화하는 데 치중하고 한편으로는 서사와 의론을 착종하고 있

다. 이와 같이 사실의 나열에 집중한 도입 부분에 바로 이어서 묘주의 진면목을 형상화하고, 다시 작자의 슬픔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구성 방식은 묘주의 진면목과 작자의 심정을 간단하고 요령 있게 드러내는 편장 구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묘지명을 표방한 이상 필수적인 명문이지만 구성의 측면에서도 살펴볼 만한 지점이 있다. 묘주의 생애나 진면목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측면에서, 혹은 미진한 묘주의 형상화를 보강하는 측면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명문을 구성할지는 여전히 작가의 문학적 역량이고 작품의 수사적 영역이다. 「이주서묘지명」의 명문이 묘주의 생애를 수렴하는 진면목을 다시 확인하는 성격이라면, 「증정경부인풍산홍씨묘지명」의 명문은 미진한 묘주의 형상화를 보완하는 성격에 가깝다. 이처럼 홍중성은 일률적으로 기록하는 명문에서도 묘주의 생애나 진면목을 간단하게 요약하거나 혹은 미진한 묘주의 형상화를 보강하면서 비지류 산문의 문학성을 제고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공인신씨부묘지명」을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전언을 통한 형식적 변격의 측면을 확인하였다. 묘지명의 청탁 과정, 묘주의 가계와 무덤의 위치 정보, 명문을 제외한 전편이 모두 묘주의 부친이 직접 작자에게 건넸던 말을 전재하고 있는데, 매우 독특하고 변격적인 비지류 산문 창작 방법이다. 이러한 비지류 작법 역시 정격에만 국한되지 않고 변격을 아울러 구사하려고 노력했던 홍중성 비지류 산문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비지류 창작 방법은 기존의 한유와 구양수의 변격 비지류 산문 창작 방법을 참고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작품에서 직접 인용하고 있는 제3자의 언사가 분량적으로 압도적이라는 점, 제3자의 전언을 전재하는 과정에서 마치 별도의 독립된 비지류 산문과 같이 서술하는 방식은 한유와 구양수가 창작한 비지류 변격 산문 형식을 홍중성이 다시 변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李勉伯,『(영인표점) 岱淵遺藁』, 한국문집총간 290, 민족문화추진회, 2002.
鄭澔,『(영인표점) 丈巖集』, 한국문집총간 157, 민족문화추진회, 1995.
洪重聖,『(영인표점) 芸窩集』, 한국문집총간속 57, 한국고전번역원, 2008.

권진옥,「陶菴 李縡 碑誌類 문장의 일고찰-신도비를 중심으로-」,『온지논총』54, 온지학회, 2018a.
_____,「회은(晦隱) 남학명(南鶴鳴)의 산문 일고-망자를 위한 산문을 중심으로-」,『동양한문학연구』51, 동양한문학회, 2018b.
남종진,「韓愈 所撰 墓誌銘의 記述 特徵」,『중국문학연구』28, 한국중문학회, 2003.
백진우,「운와 홍중성의 산문론과 비평적 특질」,『동양고전연구』102, 동양고전학회, 2026.
유명석,「운와(芸窩) 홍중성(洪重聖)의 금강산 유람시 연구」,『온지논총』78, 온지학회, 2024.
유진희,「홍중성 시에 나타난 타인과의 시공간 공유 양상」,『한민족어문학』112, 한민족어문학회, 2026.
윤재환,「芸窩 洪重聖 記文 硏究」,『한문고전연구』48, 한국한문고전학회, 2024.
이상주,「芸窩 洪重聖의 文學論에 대한 考察」,『남명학연구』19,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5.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승정원일기 https://sjw.history.go.kr

투고일 2026. 7. 31 심사시작일 2026. 8. 18 게재확정일 2026. 9. 7

Abstract

A study on the inscriptional prose of Unwa(芸窩) Hong, jungseong(洪重聖)

Kwon, Jin-ok

This paper examines the inscriptional prose authored by Unwa(芸窩) Hong jungseong(洪重聖, 1668~1735) as a means of studying his literary work.

In inscriptional prose works, Hong, jungseong(洪重聖)'s guiding principle w as to pursue a dignified style while adapting—rather than strictly adhering to —established conventions. He authored three such prose works: the「Leejuseo myojimyeong(李注書墓誌銘)」for Lee, jeongyeon(李挺淵), the「Gonginsinssibu myojimyeong(恭人申氏婦墓誌銘)」for the wife of Sin, hong(申泓), Pungsanhong ssi(豊山洪氏), and the「Jeungjeonggyeongbuinpungsanhongssimyojimyeong(贈貞敬夫人豊山洪氏墓誌銘)」for the wife of Lee, jip(李墐), Pungsanhongssi(豊山洪氏).

First, I examined the the「Leejuseomyojimyeong(李注書墓誌銘)」and analyz ed how the true character of the tomb's occupant was portrayed. The various incidents and anecdotes concerning Lee, jeongyeon(李挺淵) all converge on his humble nature, a trait that Hong, jungseong(洪重聖) identified as the essence of Lee, jeongyeon(李挺淵)'s aspirations and conduct, and thus his true charact er. Furthermore, other aspects of his life, those not fully explained by humility alone, reveal additional facets of his personality, thereby creating a multi-dim ensional portrait of the tomb's occupant.

Secondly, I examined the「Jeungjeonggyeongbuinpungsanhongssimyojimye ong(贈貞敬夫人豊山洪氏墓誌銘)」and analyzed its concise structure. The compo sition—moving immediately from an introductory section focused on listing fa cts to a portrayal of the deceased's true character, followed by a dramatic exp ression of the author's grief—effectively reveals both the essence of the decea sed and the author's emotions in a succinct manner.

Thirdly, I examined the「Gonginsinssibumyojimyeong(恭人申氏婦墓誌銘)」a

nd analyzed the unique and unconventional creative techniques. Aside from th e formal inscription itself, the process of the commission, family lineage, the tomb's location, and the myeongmun(銘文), the entire text consists of a record of words actually spoken to the author. This represents a unique and unconve ntional creative techniques in inscriptional prose works.

Keywords Unwa(芸窩) Hong Jung-seong(洪重聖), Inscriptional prose(碑誌類), T rue character of the tomb's occupant, Concise structure, Myeongmun(銘文), 「Leejuseomyojimyeong(李注書墓誌銘)」, 「Gonginsinssibumyojimyeong(恭人申氏婦墓誌銘)」, 「Jeungjeonggyeongbuinpungsanhongssimyojimyeong(贈貞敬夫人豐山洪氏墓誌銘)」.

東方漢文學, 東方漢文學會
Dong-Bang Korean Chinese Literature Society
2026, 第108輯, pp.311~342
http://dx.doi.org/10.17293/dbkcls.2026.108.
ISSN 1226-668X

영조 대 종묘 악장 통합과 구성(九成) 복원

신호승*

目 次

1. 서론
2. 조선 초기 악장과 「중광장(重光章)」의 첨입
3. 의례적 착란 극복과 구성(九成)의 복원
4. 결론

|국문초록|

조선 초기 종묘제례악은 『주례(周禮)』의 구변(九變) 원칙에 따른 구성(九成) 체제였다. 그러나 황정욱, 오윤겸 등에 의해 각 묘실에 고유 악장을 제정하자는 '1실 1악장'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인조 대에 선조를 기리는 「중광장(重光章)」이 첨입되어 10성(十成) 체제로 변모하였다. 이는 개별 국왕의 업적을 기리려는 '내용적 명분'과 의례 원칙인 '형식적 규범' 간의 예학적 충돌이자 제례 절차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영조 대에 악장 통합과 구성 복원 논의가 전개되었다. 1743년(영조 19) 1차 논의에서 영조는 「중광장」을 삭제하자는 주장을 물리치고, 명분을 포용하여 태종의 「현미장(顯美章)」과 원경왕후의 「정명장(貞明章)」을 합치는 타협안을 택했다. 그러나 이는 두 악장 사이의 「용광장(龍光章)」을 건너뛰어 역사적 선후 관계가 바뀌는 도치 현상을 낳았고, 실제 연주에서도 10성이 유지되는 한계를 남겼다.

1765년(영조 41) 2차 논의에서 부제학 서명응(徐命膺)이 이러한 음악적

* 원광대학교 한문고전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생.

구조의 모순을 지적하였다. 이에 영조는 1차 복원의 도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종의 「용광장」과 원경왕후의 「정명장」을 통합 대상으로 삼았다. 연주 시 박자를 압축하여 여덟 자를 한 박으로 부르게 하는 방식으로 '용광정명합일(龍光貞明合一)' 방안을 도출했고, 이를 채택함으로써 마침내 음악적인 구성 체제를 회복하였다.

영조 대의 구성 복원은 역사적 명분을 유지하면서도 고증을 통해 국가 의례의 규범을 조화롭게 회복한 작업이다. 이는 조선 후기 예악(禮樂) 정비와 탕평(蕩平) 정책의 적용 양상을 보여주는 예학적 통합의 사례이다.

핵심어 종묘제례악, 종묘 악장, 구성(九成), 영조, 구성(九成) 복원, 「중광장(重光章)」, 예악 정비, 탕평책.

1. 서론

조선(朝鮮)의 예악(禮樂)을 상징하는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은 역대 국왕의 공덕을 기리고 왕조의 무궁함을 기원하는 국가 차원의 최고 의례(儀禮)이다. 종묘제례악에서 연주되는 '악장(樂章)'은 단순한 제례용 노랫말을 넘어 해당 군주의 통치 이념과 업적을 후대에 전달하고 의례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대한 정치적·의례적 도구였다. 조선의 종묘 악장은 1463년(세조 9) 세조가 세종 대의 음악을 바탕으로 악장을 재정비하여 국가의 공식 제례악으로 정립하였고, 이듬해인 1464년(세조 10) 첫 종묘 제사를 지낸 이래로 조선 왕조 전반에 걸쳐 그 권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왕조의 역사가 누적되고 종묘에 모시는 신실(神室)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세조 대에 정립된 악장의 문사(文辭)와 후대에 시행하고 있는 종묘 의례 악장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창업 서사에 맞추어져 정형화된 국초(國初)의 악장 내용과 형식을 두고, 예학자들 사

이에서 국가 의례의 본질을 묻는 논쟁이 벌어졌다. 이들의 대립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의견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악장 개정론(개별 공덕 중시)'이다. 선조 대 황정욱(黃廷彧, 1532~1607)을 시작으로 인조 대 오윤겸(吳允謙, 1559~1636)과 이정귀(李廷龜, 1564~1635) 등으로 이어지는 이 견해는 각 왕이 이룬 사공(事功)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초의 악장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후대 묘실로 밀어내며 돌려 쓰는 관행을 비판하였다. 이들은 신령을 위로하고 실제 업적을 기리는 의례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각 세실(世室)에 부합하는 고유한 악장, 소위 '1실 1악장'을 주장하며 새로운 악장을 제술(製述)하여 의례의 '내용적 정실(正實)'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는 '악장 유지론(의례적 격식 중시)'이다. 숙종 대 남구만(南九萬, 1629~1711), 영조 대 김재로(金在魯, 1682~1759) 등으로 이어지는 이 견해는 중국 고대 예법의 기준인 『주례(周禮)』와 『서경(書經)』에 근거하여 '구변(九變)' 혹은 '구성(九成)'의 원칙을 강조한 입장이다. 인귀(人鬼)의 제사에는 아홉 번의 음악적 변화가 있어야만 예를 이룰 수 있다는 고례(古禮)의 상징성을 우선시한 것이다. 이들은 종묘 악장이 구성의 원칙으로 이루어진 것은 단순한 의례적 구조가 아닌 조종(祖宗)의 정통성을 수호하는 음악적 틀이므로, 이를 함부로 고치거나 덧붙이는 것은 국가 예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인식하였다.

여기서 본고의 핵심 분석 틀로 삼고자 하는 '내용적 명분'과 '형식적 규범'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내용적 명분이란 개별 군주의 실질적인 사공(事功)을 음악과 가사를 통해 온전히 기리고 현창(顯彰)하려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요구를 의미한다. 반면, 형식적 규범이란 『주례(周禮)』 등과 같은 고례(古禮)에 기반하여 국가 최고 의례가 지녀야 할 보편적 원칙인 '구변(九變)·구성(九成)'이라는 의례 구조의 완결성을 수호하려는 규범적 요구를 뜻한다.

이처럼 '내용'과 '형식'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인조 대에 선조의 업적을 선창(宣暢)하며 왕권 계승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목적 아래 「중광장(重光章)」이 새롭게 찬진(撰進)되어 종묘제례악에 편입되었다. 이때부터 영조 때 '구성 복원'이 있기 전까지 종묘 악장은 기존의 구성 체계가 깨진 '십성(十成)'의 상태가 되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1실 1악장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 것처럼 보였으나, 이와 동시에 예법의 보편적 원칙인 구변을 상실했다는 새로운 예학적 모순을 낳았다.

조선 후기의 종묘제례악에 관한 기존 연구[1]는 대개 음악사적 흐름에 치중하였고, 영조 대 구성 복원의 예학적 의미는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다. 정치사 연구는 탕평책의 국정 운영에만 몰두하여 악장 개편이라는 예악 정비를 간과했고, 음악사 연구는 이를 정치·예학적 맥락과 분리한 채 실증적인 악보 분석에 국한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영조 대의 '구성 복원'은 단순한 음악적 정리를 넘어 당대 탕평 정치가 예악(禮樂)의 고증과 타협 과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관철되는 양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이에 선조의 「중광장」을 포용하면서도 9성의 전례 규범을 회복해 나간 구체적인 논쟁과 음악적 조율 과정을 추적하여, 영조 대 악장 통합과 구성 복원의 정치적·예학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세종과 세조 대에 확립된 종묘의 구성 체제 확립 배경과 인조 대 「중광장」 첨입으로 인한 십성 체제의 성립 과정을 고찰하고, 이어 새로운 악장의 첨입으로 발생한 논점들을 살펴, 영조 대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악장 통합을 통해 '구성 복원'이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1) 조선 후기의 악장 변천 과정에 음악사적 연구로는 김영주, 「朝鮮 中期 宗廟樂章에 관한 史的 考察」(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과 이정희, 「음악 문헌을 통해 본 조선 후기 종묘악장의 추이」(『장서각』, 2024, 220~249쪽)가 있고, 인조 대의 「중광장」에 대한 연구로는 정해은, 「조선후기 宣祖에 대한 현창과 그 의미」(『조선시대사학보』, 조선시대사학회, 2013, 149~180쪽) 등의 연구가 있다.

2. 조선 초기 악장과 「중광장」의 첨입

(1) 조선 초기 종묘 악장의 제작과 정립

왕조가 새롭게 바뀌거나 새로운 국왕을 기리기 위해서 그 공덕에 알맞은 새로운 악장(樂章)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조선 건국 초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 전조(前朝)의 말계(末季)에 정사가 쇠퇴하고 법도가 무너져서, 토지 제도가 바르지 못하여 백성이 그 해를 받게 되었고, 예악(禮樂)이 일어나지 않아서 관원이 그 직책을 잃게 되었는데, 전하께서 일체 모두 바로잡아 정하였으므로, 천도(天道)로써는 저와 같았고 인도(人道)로써는 이와 같았으니, 공을 비교하고 덕을 헤아려 보아도 함께 비할 데가 없습니다. 이것을 마땅히 성시(聲詩)로써 전파하고 현가(絃歌)에 올려 한없는 세상에 전하여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덕(聖德)의 만분의 일이라도 알게 해야 할 것입니다.[2]

1393년(태조 2),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은 상소를 통해서 고려 말기에 올바른 정치와 그에 맞는 예악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국운이 다하여서 멸망했음을 지적하며, 조선이라는 새로운 시대에는 마땅히 새로운 악장을 만들어서 공덕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도전은 여기에 태조의 문공(文功)을 칭송한 「몽금척(夢金尺)」·「수보록(受寶籙)」과 무공(武功)을 칭송한 「납씨곡(納氏曲)」 등을 찬술(撰述)해서 함께 올렸다. 이를 통해 보면, 정도전은 악장의 제정을 단순한 음악적 장치를 넘어 왕조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왕의 업적을 칭송하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 『太祖實錄』 권4, 태조 2년 7월 26일. “前朝之季, 政廢法壞, 經界不正, 民受其害, 禮樂不興, 官失其守, 殿下一皆正而定之. 以天道則如彼, 以人道則如此, 較功度德, 無與爲比. 是宜播之聲詩, 被之絃歌, 傳之罔極, 俾聞者知聖德之萬一焉.”

이러한 악장 제정에 대한 논의는 세종 대에 이르러 한층 더 구체화되었다. 1432년(세종 14)에 있었던 예악 제술(製述)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악장 제작의 핵심적인 기틀을 마련했다.

> 태조께서는 전 왕조가 쇠퇴해 가는 말기에 백 번 싸우면 백 번 이겨 공덕이 사람들을 흡족하게 만들었으며, 어지러운 것을 제거하고 세상을 바로잡아 왕업(王業)을 창건하여 실마리를 후손에게 전하셨다. 태종께서는 예악을 새로 제정하시어 교화가 행해지고 풍속이 아름다워졌으며 안과 밖이 모두 평안해졌으니, 태조를 위하여 무무(武舞)를 만들고 태종을 위하여 문무(文舞)를 만들어 만세토록 통용될 제도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3]

세종은 국운이 다해가는 고려 말기에 수많은 전투를 이겨내고 왕업을 창건한 태조(太祖)의 뛰어난 무공(武功)을 찬양하기 위해 무무(武舞)를 만들고, 예악을 새로 제정하여 국가의 평화와 교화를 이룩한 태종(太宗)의 위대한 문덕(文德)을 기리기 위해 문무(文舞)를 지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에 따라 당해 12월, 대제학(大提學) 정초(鄭招, ?~1434)와 제학(提學) 정인지(鄭麟趾, 1396~1478) 등에게 명하여 회례(會禮)에서 사용할 문무 악장을 짓게 하였다.[4]

이후 1447년(세종 29), 세종은 중국의 아악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조선의 문덕(文德)과 무공(武功)을 조선만의 고유한 가락에 담아내고자 직접 「보태평(保太平)」과 「정대업(定大業)」을 지었다.[5] 다만 당

3) 『世宗實錄』 권56, 세종 14년 5월 7일. “太祖當前朝衰季, 百戰百勝, 功德洽人, 拔亂反正, 創業垂統; 太宗制禮作樂, 化行俗美, 中外乂安, 宜爲太祖作武舞, 爲太宗作文舞, 以爲萬世通行之制也.”

4) 『世宗實錄』 권58, 세종 14년 12월 10일. “命大提學鄭招・參判申檣・提學鄭麟趾, 製會禮文武樂章, 歌詠太祖・太宗功德.”

5) 『世宗實錄』 권116, 세종 29년 6월 5일. “初, 上以「龍飛御天歌」被管絃, 調其緩急. 作「致和平」, 「醉豐亨」, 「與民樂」等樂, 皆有譜, 「致和平譜」五卷, 「醉豐亨」, 「興民樂譜[與民樂譜]」各二卷. 後又作文武二舞, 文曰「保太平」, 武曰「定大業」, 譜各一卷.”

시의 「보태평」과 「정대업」은 처음부터 종묘 제례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닌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치화평(致和平)」, 「취풍형(醉豐亨)」, 「여민락(與民樂)」 등과 같이 궁중 연향(燕享)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세종 대에 만들어진 이 연향악이 종묘제례악으로 변모된 것은 세조 대의 일이다. 1463년(세조 9), 세조는 신숙주(申叔舟, 1417~1475)와 최항(崔恒, 1409~1474) 등에게 명하여 세종 대에 만들어진 「보태평」과 「정대업」의 음악과 춤을 교묘(郊廟)에 쓰기 위해서 고악(古樂)을 상고하도록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종묘 악보와 악장 등의 의례를 정립하였다.[6] 이때 개정된 음악은 이듬해인 1464년(세조 10)부터 정식으로 종묘 제례에 도입되어 초헌례(初獻禮)에는 문덕을 기리는 「보태평」을 연주하며 문무를 추고, 아헌례(亞獻禮)와 종헌례(終獻禮)에는 무공을 기리는 「정대업」을 연주하며 무무를 추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7]

당시 세조가 종묘 악장을 제정하면서 내세운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고악(古樂)의 예법인 '구성(九成)' 혹은 '구변(九變)'의 체제였다. "종묘에서 연주하는 음악이 아홉 번 변해야 사람과 귀신이 감동하여 예(禮)를 이룰 수 있다"[8]는 『주례(周禮)』의 사상에 입각한 것이다. 본래 「보태평」과 「정대업」은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사의 시작을 알리는 인입장(引入章)과 마무리를 알리는 인출장(引出章)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선조(先祖)의 공덕을 칭송하는 악장은 9장[9]으로 구성되어 있다.

---

6) 『世祖實錄』 권48, 「樂譜」 後序. "天順七年癸未冬十月, 命領議政府事臣申叔舟・右參贊臣崔恒・同知中樞院事臣梁誠之・工曹參判臣成任・樂學副使臣鄭沈等, 若曰: '世宗朝始制保大平・定大業二舞, 聲容盡美. 今欲用之郊廟, 宜聽予言, 更考古今制度以聞.'"

7) 『世祖實錄』 권32, 세조 10년 1월 14일. "上親祀宗廟, 奏新制定大業・保太平之樂."

8) 『周禮』, 「大司樂」. "於宗廟之中, 奏樂九變, 則人鬼可得以禮矣."

9) 인입장과 인출장을 제외하고 초헌례는 「熙文」, 「基命」, 「歸仁」, 「輯寧」, 「隆化」, 「顯美」, 「龍光」, 「貞明」, 「大猷」로, 아헌・종헌례는 「篤慶」, 「濯征」, 「宣威」, 「新定」, 「奮雄」, 「順應」, 「寵綏」, 「靖世」, 「赫整」으로 되어 있다.

9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구성'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가사가 있는데, 「보태평」의 마지막 악장인 「역성장(繹成章)」의 가사에서 "왼손에 약을 들고 오른손에 적을 쥐고, 이미 구변(九變)했다고 하도다. 빛나는 공렬(功烈)을 밝히니, 모두 아름답고 모두 훌륭하도다.(左籥右翟, 曰旣九變, 式昭光烈, 盡美盡善.)"[10]라고 말한 것이다. 즉, 종묘 악장의 제술 과정에서 구변·구성의 원리를 철저하게 구현했음을 방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세조 대에 완성된 종묘 제례의 악장은 각 묘실(廟室)에 한 곡씩 나누어서 불리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닌, 각각의 제례 절차를 아울러서 9장을 연주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고례를 상고하여 완성된 '구성 체제'는 훗날 왕조의 역사가 누적되고 새로운 세실(世室)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형식의 고수와 내용적 현실 사이에서 예법적 충돌을 맞이하게 된다.

(2) 악장 개정 논의와 「중광장(重光章)」의 첨입

왕조의 역사가 쌓이며 종묘에 모시는 신위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초에 제정된 악장을 답습하는 관행은 의례의 고착화라는 문제를 낳았다. 이에 따라 세조 대에 정립된 구성 체제에 대해 가장 먼저 악장 개정의 단초(端初)를 제시한 것은 선조 대의 예조판서 황정욱(黃廷彧)이 1590년(선조 23)에 올린 상소이다.

> "종묘에서 제향(祭享)할 때 연주하고 있는 음악은 단지 국초에 사신(詞臣)이 창정(創定)한 약간의 악장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묘에 나누어 배향해서 사공(事功)이 각각 달라 서로 합치되지 않으니, 하나의 실마다 각각 한 개의 악장을 찬정(撰定)하게 하소서."[11]

---

10) 『국악전집』 제18집, 275쪽, 국립국악원, 2006년 참조.

11) 『宣祖修正實錄』 권24, 선조 23년 2월 1일. "廟享奏樂, 只用國初, 詞臣所創定若干

그는 각 세실의 공덕과 악장가사에서 말하는 공덕이 서로 다름에도 국초의 악장만을 그대로 답습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각 왕의 묘실에 쓰이는 악장은 그 왕의 '사공'과 부합해야 한다는 '1실 1악장' 논의를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이에 새로운 악장을 만들었으나, 악공(樂工)들이 새로운 가사를 기존 음률에 맞추어 연주하지 못하는 음악적 숙련도의 한계 혹은 음악적 구조의 차이로 인해 황정욱의 '1실 1악장' 논의는 무산되었다.[12] 그러나 그가 남긴 "각 왕의 사공에 부합하는 악장이 필요하다."라는 명분은 사라지지 않고 후대 악장 개정 논의의 중요한 전거(典據)로 기능하게 되었다.

1626년(인조 4) 오윤겸(吳允謙)은 황정욱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계승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신이 이전에 예조에 있으면서 종묘의 친제(親祭)에 참여했었는데, 악장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해서 감히 의심되는 것이 있어서 의논하여 정하고자 합니다. 태조의 악장은 마땅히 「융화장(隆化章)」을 써야 하고, 태종의 악장은 「현미장(顯美章)」과 「용화장(龍化章)」을 써야 하는데, 사조(四祖)의 신실이 이미 옮겨진 후인데도 사조의 악장이 그대로 종묘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1, 2실의 악장이 밀려나 6, 7실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악장이 이렇게까지 문란해졌으니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예로부터 제왕에게 존호(尊號)가 있으면 악장이 있었는데, 다른 묘실에는 악장이 없으니, 역시 매우 큰 결함입니다.[13]

오윤겸은 왕조의 역사가 누적됨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신실에 기존의 악장을 그대로 가져다 쓰다 보니 악장의 순서가 뒤섞이게 됐고, 이에 따라

章, 而今則分侑于諸廟, 則事功各異, 不相合着, 請一室各撰一章."

12) 위의 글. "上命廣議施行. 其後, 諸廟雖有撰進樂章, 樂工無協律者, 不能被諸管絃, 仍用舊文焉."

13) 『仁祖實錄』 권9, 인조 3년 7월 20일. "臣曾忝禮曹, 得參宗廟親祭, 樂章一事, 竊有所疑, 欲爲議定矣. 太祖樂章, 當用「隆化」, 太宗樂章, 當用「顯美」·「龍光」, 而四祖旣遷之後, 四祖樂章, 仍用於宗廟, 故第一二室樂章, 推移至於六七室. 樂章紊亂至此, 殊甚未安. 自古帝王, 有尊號則有樂章, 而他室則無樂章, 亦甚欠缺."

황정욱의 주장처럼 각 왕의 사공(事功)과 악장의 내용이 맞지 않은 '흠결(欠缺)'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본 것이다. 시대는 흘러 태조 이전 4대조의 신실은 영녕전(永寧殿)으로 체전(遞傳)되었으니, 빠진 신실의 악장은 쓰지 않아야 하고, 새롭게 승부(陞祔)된 신실에 맞게 새로운 악장을 제정해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오윤겸이 실제 제례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례의 착란에 대해서 언급했다면, 예조판서였던 이정귀(李廷龜)는 이에 대한 역사적·이론적 근거를 찾기 위해 옛 실록의 기록과『악학궤범(樂學軌範)』및『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등을 면밀하게 상고하였다. 4대조의 신실을 이미 영녕전으로 이안(移安)했으니, 사조의 악장은 영녕전에서만 전용하게 하고, 종묘에서는「희문장」·「융화장」에서부터 연주를 시작하면 위차(位次)가 밀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각 실의 악장을 추가로 제술(製述)하여 보충하는 일을 논의케 하자고 주장했다. 그리고 선조의 광국중흥(光國中興)의 업적만큼은 통용 악장으로 묶어둘 수 없으므로 별도의 악장을 지어야 한다고 하며 구체적인 악장 제정안을 건의하기도 하였다.[14]

반면, 우의정 신흠(申欽, 1566~1628)은 위의 인물들과 뜻을 같이하면서도 예법과 음악적 실무 측면에서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는 4대조의 악장을 태조 이하의 신실에 통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조가 언급한 '묘악(廟樂)은 가장 높은 이에 따라야 한다.'"라는 논리를 긍정하며 당장의 종묘 악장이 완전히 문란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4대조 이하인 태조·태종·세종의 악장을 영녕전에 올려 쓰는 현상이 더욱 부당하다고 지

14)『仁祖實錄』권13, 인조 4년 윤6월 25일. "…… 世德作求, 率維敉功, 又曰: '於皇列聖, 世有武功', 此似是通用各室之樂章也. 但宣廟則有光國中興之烈, 似當別爲廟樂, 而特未及擧行耶? 至於穆祖·翼祖·度祖·桓祖廟樂, 則旣移永寧殿之後, 則不當疊用於宗廟, 而因循不改, 故四祖及三室廟樂, 次次延至於八九室, 誠極未安. 今後四祖樂章, 只用於永寧殿, 而宗廟則自「熙文」·「隆化」而始用, 則似不至於紊亂矣. 各室樂章追製補用事, 則臣等識見荒陋, 不得容易議啓, 請更議大臣."

적하였다. 특히 그는 무리한 악장 개정의 결과로 기존 제례악이 지닌 '악무(樂舞)의 조화'가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다보았다. 이미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기존 악장에 새로운 악장을 가감하는 일은 기존의 예법에 어긋나게 되고, 음악적 조화를 깨뜨릴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한 것이다. 신흠은 이에 선조(宣祖)의 공덕을 기리는 새 악장을 짓는 명분에는 찬성하면서도, "새 악장이 악무에 조화를 잘 이루는가에 대한 여부를 해조(該曹)와 악사(樂師)들이 강구해서 시행할 문제"라며 철저한 음악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함을 표명했다.[15]

신흠과 함께 좌의정 윤방(尹昉, 1563~1640)도 새로운 악장 제술에 대해서는 구제(舊制)를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조가 "선조묘(宣祖廟)에는 따로 악장이 있어야 할 듯하다."라며 선조를 위한 악장 제술을 명하자, 예조에서는 기존 악무의 조화를 깨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했다.

> …… 그렇다면 초헌과 아헌, 종헌은 9장이 모두 갖춰져 있으니 첨입(添入)할 악장이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구수(句數)와 자수(字數)를 살펴보면, 초헌은 모두 72구의 308자이고, 아헌과 종헌은 87구의 328자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의 사신(詞臣)이 찬술하던 시기에 우연찮게 자수의 차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악사들이 '초헌은 악장이 조금 짧아 다른 악장을 끌어와서 다시 연주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새로운 악장을 찬술해서 「정명장」 다음에 추가한다면 구수와 자수가 아헌·종헌과 비슷해질 것이니 마땅할 듯합니다.[16]

---

15) 위의 글. "「保大平」·「定大業」, 不徒用之於宗廟, 亦用之於永寧殿. 以宗廟言之, 則四祖樂章, 用之於太祖以下, 其序, 似無紊亂, 而以永寧殿言之, 則太祖·太宗·世宗大王樂章, 亦不當登用也. 以常情驟而言之, 則各室似當各有樂章, 四祖樂章, 不當用之於宗廟, 而數百年來, 沿而不改, 未知何故也. 豈該曹所謂廟樂, 當從最尊者, 或近之耶? …… 若其叶於樂舞與否, 在該曹與樂師等講究施行."

16) 위의 글. "…… 然則初獻及亞終獻, 九章皆備, 似無添入之章, 而第考句數字數, 則初獻通共七十二句三百八字; 亞終獻則八十七句三百二十八字. 此則非有他意. 其

위의 계사가 올려진 이후, 이명한(李明漢, 1595~1645)[17]·이민성(李民宬, 1570~1629)[18]·심액(沈詻, 1571~1654)[19] 등을 비롯한 여러 관원의 활발한 논의를 거쳐 1626년(인조 4) 7월 28일에 예조의 건의대로 새롭게 찬진한 「중광장」[20]을 「정명장」 다음으로 편입하면서 비로소 종묘 제례의 절차에 「중광장」이 공식적으로 연주되었다.[21]

이로써 선조 대 황정욱으로부터 촉발된 '개별 공덕 찬양', '1실 1악장'에 대한 주장이 이어져 「중광장」의 첨입이 이루어졌다. 이 시점부터 종묘 악장은 '내용적 정실(正實)'을 얻었지만, 세조 대부터 확립되어 내려온 기존 종묘 악장의 틀은 불가피하게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중광장」의 첨입은 결과적으로 기존의 구성 체제에서 '10성(成) 체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곧 후술할 10성 체제와 그에 따른 착란의 예법적 화두를 야기하게 된다.

時詞臣撰出時, 偶有多少耶. 以故, 樂師等皆云: '初獻則樂章稍短, 故以他聲引出, 覆奏' 云. 今以新撰樂章, 添入於初獻『貞明』之下, 而句數字數, 與亞終獻相稱, 則似爲宜當."

17) 『承政院日記』 14책, 인조 4년 윤6월 25일 을축기사에서 이명한은 선조를 위한 개별 악장이 있어야 하고, 사조의 신위는 이미 영녕전으로 체전되었으니, 종묘에 중첩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8) 『承政院日記』 14책, 인조 4년 윤6월 28일 무진기사에서 이민성은 선조의 광국 중흥의 업을 기리기 위해서 악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고, 4대조의 악장을 종묘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하였다.

19) 『承政院日記』 14책, 인조 4년 7월 8일 무인기사에서 심액은 앞선 4대조의 악장을 종묘에서 쓰는 것이 잘못된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유신(儒臣)들과 악장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것을 청하였다.

20) 『국악전집』 제18집, 263쪽, 국립국악원, 2006년. "아아! 위대한 선조 임금께서는, 높은 덕으로 거듭 빛을 내셨네. 중국에 가서 잘못됨을 밝히시고, 우리 종계를 바로 잡으셨네. 의를 지켜 흉노를 제거하고, 우리 강역을 정하셨네. 복을 받아 앞길 여니, 유구하게 빛나고 창성하리.(於皇宣祖, 峻德重光. 格天昭誣, 正我宗祊. 抗義除匈, 奠我封疆. 受釐啓後, 悠久熾昌.)"

21) 『承政院日記』 14책, 인조 4년 7월 28일 무술. "今以新撰樂章, 添入於初獻貞明之下, 而句數字數, 與亞·終獻相稱, 則似爲宜當. 敢啓."

3. 의례적 착란 극복과 구성(九成)의 복원

(1) 의례적 '착란(錯亂)'의 발생과 구성 복원 논의

인조 대에 선조의 공덕을 기리는 「중광장」을 첨입하면서 종묘 악장은 10성(혹은 10장) 체제로 확장되었다. 이렇게 변모된 종묘 악장의 구조는 선조의 '광국 중흥(光國中興)'의 공적을 기린다는 명분은 충족시켰으나, 1실 1악장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말하는 구조적 모순은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의례적 착란을 발생시켰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광장」이 제정된 것을 근거로 다른 세실에도 악장을 제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데, 1665년(현종 6)에 좌참찬이던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이 차자(箚子)를 올려 선조묘 이외의 세실에도 새로운 악장을 제정하자고 주장하였다.

> 선조 조(宣祖朝)에 황정욱이 예판을 지내던 적에 태묘의 한 실마다 각각 하나의 악장을 찬술할 것을 청하였고, 인조 조(仁祖朝)에 오윤겸도 경연에서 이러한 청이 있었습니다. 황정욱과 오윤겸은 모두 명신이니 그들이 말한 것에 필시 소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윤겸이 올린 상소를 여러 대신이 함께 논의했으나 모두 채용되지 않았고, 단지 선묘(宣廟)를 위해서만 별도로 악장을 제정하여 사용했습니다. 효종 조(孝宗朝)에 권우(權堣, 1610~1685)[22]가 장악정(掌樂正)일 적에 상소하여 묘악(廟樂)을 정리할 것을 청했고, 또 선조의 전례에 따라 인조의 묘실에도 별도로 악장 제정을 청했으나 여러

22) 1651년(효종 2), 권우는 당시 종묘 악장가사에 오역과 잘못된 발음이 있으니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선조의 「중광장」을 선례로 인조를 위한 악장가사도 만들어야 한다고 계사를 올렸다. 『孝宗實錄』 권 7, 효종 2년 9월 16일. "…… 樂師等只憑諺釋, 而誦習, 承訛襲謬, 不知其字音之誤傳, 今始覺悟云. 太廟樂章, 何等重事, 而謬誤至此, 誠可怪也. …… 大臣收議亦曰: '前代帝王, 雖非創業之主, 而有功德於民, 則廟樂亦有別章. 宣祖大王旣有光國中興之偉烈, 別製樂章以用之意, 已盡陳達.'云. 以此見之, 仁祖大王之廟, 亦當別有樂章, 而闕而不擧, 豈非欠禮之大者乎?"

> 대신이 모두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선조를 위하여 악장을 별도로 제정하였는데, 위로 세조·성종·중종 삼대의 묘실과 아래로는 인조·효종 양 묘실에 대해서만은 별도로 제정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를 신은 알지 못하겠습니다.23)

송준길은 황정욱 때부터 내려온 주장과 권우의 상소를 언급하면서 인조를 비롯한 다른 묘실의 악장을 찬정하기를 주장하였다. 즉, 각 왕의 실제 사공(事功)에 부합하도록 세실마다 고유한 악장을 별도로 제정해서 새로운 악장을 보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것이다. 이어서 송준길이 종묘 악장의 흠결을 이야기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또한 태묘에서 사용하는 음악은 비록 한 악장을 통용한다고 명분을 세웠지만 실상은 각 실에 각각 하나의 악장을 연주합니다. 이 때문에 사공(事功)이 각자 다르고 서로 부합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9번째 악장을 연주하는 것은 9번째 신실에서 그쳐야 합니다. 그러나 태묘가 현재 10실이기에 제10실인 효묘(孝廟)에는 쓸 수 있는 악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인출곡인 「역성장(繹成章)」을 끌어와 사용하고, 인출할 때 또다시 그 악장을 중복해서 사용하며, 아헌과 종헌 때에도 인출곡인 「영관장(永觀章)」을 끌어다 사용합니다.24)

이는 앞서 오윤겸이 이야기했던 '신실이 늘어났으나 기존의 악장을 그

23) 『顯宗實錄』 권10, 현종 6년 8월 15일. "宣祖朝黃廷彧爲禮判, 請於太廟一室, 各撰一章, 仁祖朝吳允謙於筵中, 亦有此請. 廷彧·允謙皆名臣, 其所云云, 必有所見. 而允謙之啓, 諸大臣雜議, 皆不採用, 但爲宣廟, 別製樂章以用之. 孝宗朝權堣爲掌樂正, 上疏請釐廟樂, 且請依宣廟例, 別製樂章於仁祖之廟, 諸大臣皆以爲不可. 而夫旣爲宣廟別製樂章, 則其上焉若世祖·成宗·中宗三世室, 下焉若仁祖·孝宗兩廟, 獨不可別製者, 亦臣所未曉也."

24) 『顯宗實錄』 권10, 현종 6년 8월 15일. "且太廟所用之樂, 雖名以一樂通用, 而實則各室各奏一章. 故不但事功各異, 不相合着, 九章所奏, 止於九室, 而太廟今爲十室, 則孝廟第十室, 無所可用之樂. 故不獲已. 以引出曲「繹成章」用之, 引出時則又疊用其章, 亞、終獻亦以引出曲「永觀章」用之."

대로 사용하니 순서의 착란이 생긴 것이다.'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다. 새로운 악장의 제정이 없는 상태에서 각 실마다 악장을 하나씩 연주하게 된 결과, 가사와 묘실의 주인이 쌓은 사공이 전혀 맞지 않게 된 것은 물론, 제10실(효종)에 이르러서는 정작 연주할 악장이 고갈되고 만 것이다. 결국에는 헌관(獻官)을 인도하여 제례를 마치고 나갈 때 연주해야 하는 인출곡(引出曲)인 「역성장」과 「영관장」을 억지로 끌어와 10실에서 연주하고, 인출할 때도 마찬가지로 「역성장」과 「영관장」을 연이어 사용하는 '미안(未安)한 현실'이 빚어진 것이다.

이러한 악장의 부족 사태와 의례적 착란은 신실이 늘어남에 따라 후대로 갈수록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계속해서 생겨났다. 1694년(숙종 20)에는 부제학 이봉징(李鳳徵, 1640~1705)은 상소를 통해, 제11실에 이르러서는 제례를 마치고 나갈 때 부르는 인출곡(引出曲) 「역성장(繹成章)」을 억지로 부르고 가사와 묘실 주인이 전혀 맞지 않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상소를 올렸다.[25] 그러나 이봉징의 주장 역시 앞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악장의 부족, 가사와 신실 간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각 실에 맞는 악장 제정을 요구하는 데에만 그쳤지, 기존의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실 1악장'이라는 주장이 성행한 가운데 숙종 대의 영의정(領議政)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은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1실 1악장은 세조 대에 종묘제례악을 확립하며 내세운 '음악이 아홉 번 변해야 예를 이룬다'라는 『주례』의 '구변(九變)'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하였다.

> 우리 조정에서 두 음악(「보태평」·「정대업」)의 9개 악장을 정해서 열성(列

25) 『肅宗實錄』 권26, 숙종 20년 3월 3일. "第一室歌基命, 第二室歌歸仁, 第三室歌亨嘉, 第四室歌輯寧, 第五室歌隆化, 第六室歌顯美, 第七室歌重光, 第八室歌龍光, 第九室歌貞明, 第十室歌大猷, 第十一室歌繹成, 此乃初獻樂章, 而觀其義旨, 則與各室功德多不侔."

聖)의 제사에 병용(竝用)한 것도 하나의 신실 안에서 악장을 각각 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반드시 아홉으로 악장의 수를 갖춘 것은 『주례』에 "종묘에서 연주하는 음악이 아홉 번 변해야 사람과 귀신이 감동하여 예(禮)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니 두 음악의 9개 악장은 실로 이 의미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보태평」의 「역성장」에 "이미 구변(九變)했다고 하도다. 모두 아름답고 모두 훌륭하도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악장을 정하고 그 수를 갖춘 뒤에는 어떻게 열성을 승부(陞祔)할 때 신위에 따라서 악장을 제정하여 9개의 악장 이외에 추가할 수 있겠습니까?[26]

남구만은 「보태평」과 「정대업」이 비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제례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인입곡과 끝을 알리는 인출곡을 제외하면 실제 신실에서 시행되는 악장의 구성은 『주례』에서 말하는 구변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고증했다. 즉, 세조 대에 확립된 「보태평」과 「정대업」은 인입곡과 인출곡을 제외한 9개의 악장이 각 실에 하나씩 나눠서 부르는 '축실악장(逐室樂章)'이 아니라, 전체 제례 과정을 아우르도록 설계된 구조임을 꿰뚫어 본 것이다. 아울러 신위가 새롭게 추가될 때마다 해당 왕의 공덕에 맞추어 새로운 악장을 찬술해서 억지로 악장의 개수를 늘리는 행위 자체가 종묘의 틀을 제정한 세조 대의 근간인 '구성'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인조 대에 첨입한 「중광장」의 문제를 함께 언급하였다.

지금 「중광장」 1장이 「정대업」의 9번째 악장 다음에 배치되어서 10개의 악장을 연주하니, 그 음악이 구변의 의미와 너무도 크게 어그러집니다.[27]

---

26) 『肅宗實錄』 권30, 숙종 22년 1월 14일. "惟我祖宗朝, 定兩樂九章, 竝用於列聖之祀者, 亦以一廟之中, 有難各用樂章故也. 且其必以九備數者, 『周禮』曰: '於宗廟之中, 奏樂九變, 則人鬼可得以禮矣.' 兩樂九章, 實據斯義. 是以『保太平』之繹成章曰: '曰旣九變, 盡美盡善.' 夫然則當初定樂備數之後, 安得於列聖之陞祔, 逐位制樂, 添加於九章之外耶?"

27) 위의 글. "今以重光一章, 置之於「定大業」九章之下, 衍爲十章, 其於樂必九變之義, 大相逕庭矣."

다시 말해, 남구만은 종묘 악장의 착란 원인이 각 왕의 사공에 알맞은 '1실 1악장'의 부재가 아닌, 이미 치밀하게 계산되어 만들어진 구변의 원칙을 깨뜨리면서 무리하게 악장을 추가하려고 하는 데에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남구만 역시 문제의 근원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네 조정을 거치며 자리를 잡아버린 10성 체제를 당장 뒤엎는 것에는 '아마도 갑자기 쉽사리 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신중하게 입장을 드러냈다. 조종조의 전례를 고치는 것에 대한 커다란 정치적 부담감 때문이었다. 그리고 송나라 인종 대의 재상 한기(韓琦)가 국방과 민생을 이유로 음악 개정을 만류했던 고사를 인용하며, 예악의 개정은 훗날 태평성대(治化)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논의하는 것이 완급의 순서에 맞다며 스스로 물러섰다.[28] 결과적으로 남구만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10성의 예법적 모순은 숙종 대에도 해결되지 못한 채 영조 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곪아가게 된다.

(2) 악장 통합과 구성 복원

위와 같은 개정 논의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지점은 종묘 악장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예학적 대립이 앞선 현종과 숙종 대부터 서인(후일 노론 학맥)과 소론 핵심 신료들의 명확한 시각차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중광장」의 첨입으로 기존의 구성 체제가 무너지고 의례적 착란이 발생하자, 1665년(현종 6) 서인인 송준길은 차자를 올려 '1실 1악장'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소론의 영수였던 숙종 대의 남구만(南九萬)은 1696년(숙종 22) 차자를 통해 모순의 근본 원인이 '1실 1악장의 부재'가 아니라, 인조 대의 「중광장」 첨입으로 인해 『주례』에 명시된

28) 위의 글. "昔宋仁宗時, 命朝臣, 同詳定阮逸·胡瑗等所造鍾律, 韓琦以爲: 祖宗舊法, 遵用斯久, 不若窮作樂之源, 爲致治之本, 使政令平簡, 民物熙洽. 當今所急, 又在邊備, 緩玆求樂之誠, 移訪安邊之議, 急其所急, 在理爲長. 仁宗遂命停議, 仍用舊樂矣. 伏願聖明, 覽古察今, 更加澄念, 而仍命以該曹回啓, 復議於諸大臣, 以求當理之歸, 不勝幸甚."

‘구변’ 원칙이 무너진 것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송준길과는 반대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처럼 내용(개별 공덕)을 중시한 송준길의 악장 개정론과 형식(구변의 규범)을 수호하려 한 남구만의 구성 유지론은 팽팽하게 대립했으나, 조종조의 전례를 뜯어고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착란은 곧바로 시정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종묘 악장의 해묵은 의례적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대대적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1743년(영조 19) 윤4월의 일이다. 영조가 태묘 악장에 관한 일로 널리 수의(收議)하라는 명을 내리자, 이에 당시 영의정이었던 노론의 김재로(金在魯)가 남구만의 구변 원칙 논리를 이어받아 구체적인 논의를 올렸다.

> …… 세종조에서 예악을 만들던 때에 초헌(初獻) 악장을 제정했는데 9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대저 악(樂)이란 아홉 번 변하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가사에서 “이미 구변(九變)했다고 하도다. 모두 아름답고 모두 훌륭하도다.(曰旣九變, 盡美盡善.)”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각 실에 통용해서 연주하였는데, 초헌을 올릴 때는 음악을 이루던 것일 뿐이지 본래 각 실에 하나의 악장을 연주하던 것이 아닙니다. …… 하물며 세종조의 태묘에는 5개의 신실만 있었으니, 마땅히 5개의 악장만 있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9개의 악장을 편찬하였겠습니까? 『오례의(五禮儀)』는 성종조에서 완성되었는데, 세종·세조 조의 악장은 어째서 추술해서 첨입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이로써 살펴보면 각 실에 1개의 악장을 쓰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29]

김재로의 이 고증은 남구만의 주장을 계승하여 100여 년간 이어진 ‘1실 1악장’ 혹은 축실악장(逐室樂章)을 주장하던 이들의 주장을 정면에서 논

29) 『英祖實錄』 권57, 영조 19년 윤4월 23일. “…… 則世宗朝制禮作樂時, 定著初獻樂章, 乃是九章. 蓋樂以九變爲成, 故其詞亦曰, ‘旣九變, 盡美盡善.’ 以此通奏於各室, 初獻之頃以成樂而已, 元非各室各奏一章也. …… 況世宗朝太廟, 只有五室, 只當撰五章. 何必撰九章乎? 『五禮儀』成於成宗朝, 則世宗·世祖朝樂章, 何爲無追撰添入者乎? 以此觀之, 其非各室一章明矣.”

파한 핵심적인 근거가 되었다. 악장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일었던 세종 대의 태묘에는 단지 5실만 존재했으므로, 만약 각 실마다 1곡씩 배정할 목적이었다면 5장만 지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9장으로 편성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각각의 악장이 개별 왕의 공덕을 칭송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였다.

나아가 김재로는 후대의 신하와 악사들이 제정될 때의 본뜻을 알지 못하고 각 실마다 곡을 억지로 나누어 배정한 탓에 악장의 가사와 신위가 어긋나는 모순이 시작되었음을 지적했다. 특히 인조 대의 신하들이 이 근본적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 채, 선조를 위한 「중광장」을 무리하게 첨입하여 10장을 만든 것이 국가 의례의 문란함을 더욱 부추겼다고 보았다. 실제로 '1실 1악장'이라는 배정 방식과 무리한 첨입으로 생긴 '10성 체제'가 맞물리면서, 선조를 기린 악장은 효종의 묘실에 쓰이게 됐고, 제11실과 제12실에 이르러서는 10장의 노래가 모두 바닥나 다시 목조(穆祖)와 익조(翼祖)의 악장을 끌어다 쓰게 되면서 「중광장」 찬정의 목적 자체가 어긋나게 되었고, 착란이 극심해졌다고 주장하였다.[30]

김재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전악(典樂)에게 직접 "지금부터 12실에 한 번 헌작(獻爵)하는 사이에 9장을 통용하여 연주해도 막히는 것이 없을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전악으로부터 "악장의 잘못을 바로잡아 연주하게 하시면 9장을 12실에 통용하여 연주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아냄으로써 예학적 명분뿐만 아니라 실제 의례에서 시행할 수 있다는 음악적 실현 가능성까지 입증하였다.[31]

---

30) 위의 글. "只撰宣廟樂章以用之, 妄加於一成九章之外, 皆由於考之未詳, 而其所謂紊者愈紊矣. 惟其未正分屬之謬, 故宣廟樂章之追撰者, 循次而用於孝宗之室, 第十一室·十二室, 則以十章已盡之故, 復用穆祖·翼祖樂章, 以致紊舛之甚."

31) 위의 글. "臣昨招典樂, 言各室一章之謬, 仍問'自今十二室一獻之間, 可以通奏九章而無礙耶?'云爾, 則對以'朝家今若正謬, 使之通奏, 則自當以此九章, 通奏於十二室'云."

이러한 김재로의 주장과 근거를 바탕으로 당해 6월, 조정에서 본격적으로 '악장 통합과 구성 복원'을 위한 논의가 펼쳐지게 되었다. 다음은 1743년 6월 3일, 구성 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했던 인물들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악장 통합과 구성 복원을 위한 논의[32]

인물	주장	근거
영조	10장에서 2장을 합쳐 1장으로 만들어 9장(九成)의 복원을 제안. 「현미장」과 「정명장」을 합치는 안에는 순서의 착란을 우려.	「현미장」과 「정명장」 사이에 「용광장」이 끼어 있어, 이 두 장을 합치면 역사적 선후 관계가 뒤바뀔 염려가 있음.
김재로·조현명	10장 가운데 「중광장」을 빼내어 본래의 9장으로 되돌리자고 주장.	선조의 공덕이 지극히 성대하다 하더라도, 그 악장을 다른 왕의 묘실에 쓰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1장을 빼는 것이 무방함.
김상적	「중광장」을 빼버리자는 원칙론에 찬성.	이미 악장을 이정(釐正)하고자 했다면 빼는 것이 원칙상 옳음.
원경하	태종실의 「현미장」과 원경왕후실의 「정명장」을 하나로 합쳐 1장으로 만들자고 건의.	두 악장의 의미가 비록 다르지만, 감란(戡亂)의 공훈을 찬양한 것으로, 그 뜻이 서로 같음.
송인명	「중광장」을 빼는 대신 「현미장」과 「정명장」 2장을 합쳐 구성의 복원을 건의함	선조의 위대한 공덕을 기린 「중광장」을 빼버리는 것은 매우 곤란하고 난편(難便)함.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0성 체제를 구성 체제로 되돌려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군신(君臣)이 모두 동의한 사항이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자세한 근거에 있어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는데, 크게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기존의 10장 가운데 추술(追述)된 「중광장」을 완전히 삭제하여 본래의 9장으로 되돌리자는 의견이다. 노론 측이었던 김재로와 소론 측이었던 조현명(趙顯命, 1690~1752)의 논의는 당파를 막론하고 하나의 의견

32) 『英祖實錄』 58, 영조 19년 6월 3일 기사 참조.

을 제시하였는데, '사공(事功)과 신실이 일치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악장 개정을 주장하던 사람들의 논지까지도 반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중광장」이 선조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첨입되었지만, 인조 대 이후로도 신실은 계속해서 추가되었고, 결과적으로 선조를 기린 악장이 밀려 다른 신실에 쓰이게 된다면 본래 제정의 의의가 무색해진다고 본 것이다. 또 다른 노론인 김상적(金尙迪, 1708~1750)은 이미 이정(釐正)을 결심한 이상 악장을 빼버리는 것이 원칙상 옳다며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세조 대에 적립된 종묘제례악의 구변 원칙을 가장 철저하고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원칙론적 주장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는 선조의 공덕이 담긴 「중광장」을 보존하되, 기존의 악장 2개를 하나의 악장으로 통합하여서 9장으로 수를 맞추자는 의견이다. 이 주장은 조종조의 위대한 공덕을 기린 악장을 함부로 뺄 수 없다는 현실적인 고민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주장하던 인물들은 두 악장을 합치자는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에는 미세한 시각차가 있었다. 여기서 살펴볼 만한 지점은 견해 차이에서 발생한 다른 시각이 오히려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노론인 원경하(元景夏, 1698~1761)는 「현미장」과 「정명장」이 비록 묘실의 주인은 다르지만 모두 난(亂)을 평정한 공훈을 찬양했다는 내용적·주제적 유사성을 통합의 명분을 삼았다. 소론인 송인명(宋寅明, 1689~1746)은 선조의 업적에 주안점을 뒀다. 선조의 '광국 중흥'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담은 「중광장」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사체(事體)에 있어서 매우 곤란한 일이라며 역사적 현실에 중점을 둔 것이다. 즉, 원경하가 두 악장을 합쳐도 된다는 '내용적 당위성'을 제공했다면, 송인명은 중광장을 지켜내야만 하는 '현실적 명분'을 강조했다. 이 시각차는 노론(원경하)이 제안한 합리적인 통합의 방법을 소론(송인명)이 정치적 사체를 내세운 논리로 강력하게 뒷받침해 줌으로써, 이 두 근거는 톱니바퀴처럼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하여 통합안의 설득력을 높이는 결과

를 만들어 냈다.

이처럼 구성 복원을 둘러싸고 통합과 제거, 그리고 명분과 현실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영조는 신하들의 악장 통합 및 삭제라는 주장을 무작정 수용하지 않았다. 영조는 「현미장」과 「정명장」 사이에 태종의 잠저(潛邸) 시절 공적을 기린 「용광장(龍光章)」이 있어, 이를 건너뛰고서 통합하게 된다면 역사적 선후 관계가 뒤바뀌는 도치(倒置)의 문제가 발생함을 짚어냈다. 그러나 송인명의 '선조의 공덕을 기린 「중광장」을 빼는 것은 사체(事體)에 있어 곤란하다'라는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며, 영조는 자신의 악장 제거 주장을 한발 물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현미장」과 「정명장」을 합주(合奏)하도록 명하고 이를 「현미정명(顯美貞明)」이라 통칭하여 『악원의궤(樂院儀軌)』에 싣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1743년의 1차 구성 복원 이정(釐正) 논의는 단순한 정치적 타협의 수준을 넘어, 노론과 소론이라는 당파적 대립을 초월하여 예학적 원칙과 역사적 명분을 조화시켜 타협안을 이끌어낸 '초당파적 합의의 양상'을 잘 보여준다. 비록 순서 도치라는 미안(未安)한 해결책을 가진 채로 「현미정명장」으로 결론이 나게 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보여준 신하들 간의 초당파적 합의와 영조의 수용 과정은 당대의 국정 기조였던 탕평적 성격이 국가 최고 의례인 예악의 정비 과정에 실질적으로 투영되고 조율되었음을 방증하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1743년(영조 19)의 악장 통합은 당파를 초월한 군신의 탕평적 합의라는 성과를 만들었지만, 역사적 선후 관계가 뒤바뀌는 역사적 정실의 '도치(倒置)'라는 흠결을 남겼다. 이뿐만 아니라, 악장을 합쳤음에도 실제 제향의 연주에 있어서는 구성이 아닌 10성의 형태로 연주되는 미완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의례적 착란과 모순을 일단락시킨 일은 1차 악장 통합 논의에서 20여 년이 흐른 1765년(영조 41), 『해동악장(海東樂章)』[33]을 편찬하는 일

을 맡았던 부제학 서명응(徐命膺, 1716~1787)이 종묘 악장에 대해서 살펴보다 시행(時行) 악장에서 구성 체제가 아닌 10성 체제인 상태가 사라지지 않은 문제점을 발견한다.

> 이전에 태묘 악장 가운데 「현미」·「정명」 두 장을 합쳐 한 장으로 만들어서 구성을 만들려고 하셨으나, 실제로는 이전과 똑같이 십성(十成)인 상태이니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34]

> 다만 가(歌)는 비록 바로잡았으나 악(樂)은 여전히 옛것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두 장(章)을 합하여 한 장으로 하는 성의(盛意)를 보지 못하였습니다.[35]

즉, 1차 논의에서는 대신들의 합의를 통해 두 곡의 가사[歌]를 문서상으로만 연이어 놓았을 뿐, 실제 종묘의 제례에서 연주되고 있는 음악[樂]은 통합되기 이전과 같은 상태라는 것이다. 「현미정명장」이 하나의 악장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닌, 통합 이전과 마찬가지로 「현미장」과 「정명장」으로 각각의 독립적인 완결성을 지닌 상태로 음악적 모순을 발생시키고 있었다. 이 때문에 10성이라는 구조적 모순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부분을 짚어냈다. 서명응이 살핀 악장의 구성(構成)은 황종(黃鍾)에서 시작해서 황종에서 끝나는 것을 1성(成)으로 보았다. 이것을 「현미정명장」에 대입하면 한 악장에서 황종에서 시작해서 황종에서 끝나는 구조가 2번, 즉 2성으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문사(文詞)의 의미에서 악장은 통합

---

33) 『國朝樂章』이라고도 불리며, 영조가 海東, 즉 우리나라의 악장을 편찬할 것을 명함에 따라 1765년(영조 41)에 홍계희·서명응·김치양·구상이 엮은 것이다. 1책(4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161편이 수록되어 있다. 내용은 제례 악장, 가례 악장, 존호 악장, 군례 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맨 뒤에 영조가 지은 발문이 있다. 『국악사전』, 송지원 작성, 국립국악원 참조.

34) 『英祖實錄』 권106, 영조 41년 12월 8일. “副提學徐命膺, 以太廟樂章中, 顯美·貞明二章, 曾命合爲一章, 作九成, 而其實則依舊爲十成, 不可不釐正矣.”

35) 위의 글. “但歌雖釐正, 而樂猶循舊, 故不見其合二章爲一章之盛意.”

이 되어 구성이 되었지만, 음악적 구조에서는 통합하기 이전과 같은 10성의 상태라고 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영조와 서명응은 선조를 현창(顯彰)한 「중광장」을 제거해서 세조 대에 정립된 구성의 형태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악장의 구조를 새롭게 재편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를 나눴다. 영조가 "만약 중광(重光) 한 장(章)을 빼내어 버린다면 대체로 무사하다 할 것이지만, 지금은 구차함을 면할 수 없다."라고 선조 현창의 역사적 명분을 지켜야 하는 고충을 드러내자, 서명응 역시 "진실로 성교(聖敎)와 같습니다. 이 한 장을 뺀다면 일은 모두 순편(順便)하지만, 단지 사체(事體)가 중대함으로써 중간에 보태어 넣은 것을 빼내지 다시 국초의 정제(定制)를 회복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며 「중광장」을 보존해야 한다는 영조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였다.[36]

영조는 「중광장」을 온전히 유지하면서도 구성을 복원하기 위한 해법을 '박자(拍字)의 압축', 역사적 순서의 도치를 보완한 「용광장」과 「정명장」을 통합하는 것에서 찾았다. 영조가 "무릇 악(樂)은 넉 자가 한 박이고, 여섯 박이 일성(一成)인데, 「용광장」과 「정명장」은 넉 자가 한 박인가, 여덟 자가 한 박인가? 경(卿)은 이것을 다시 전악(典樂)에게 묻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지시하였고, 서명응이 "「용광장」과 「정명장」은 넉 자가 한 박이라 합니다."라고 전악에게 물어서 확인하였다. 이에 영조는 "이와 같다면 실로 십성이고 구성이 아니다. 전악에게 차후에는 「용광장」과 「정명장」은 여덟 자를 한 박으로 하고 여섯 박을 일성으로 하게 함이 좋겠다"라고 최종 명을 내렸다.[37]

---

36) 위의 글. "上曰: '若拔去重光一章, 可謂都無事, 而今則不免苟簡矣.' 命膺曰: '誠如聖敎. 拔此一章, 則事皆順便, 而只以事體重大, 欲不拔中間之添入, 更復國初之定制, 故不得不如是矣.'"

37) 위의 글. 上曰: "凡樂四字一拍, 六拍爲一成, 龍光 貞明, 四字一拍乎, 八字一拍乎? 卿以此更問於典樂可也." 命膺還奏曰: "「龍光」·「貞明」四字一拍云矣." 上曰:

영조의 결단으로 단행된 '8자 1박'이라는 박자 조직은, 단순한 연주 속도의 변동이 아니라 1성(一成)이라는 음악적 단위 내에 48자에 달하는 문사를 온전히 수용하기 위한 구조적 압축의 결과였다. 『세조실록』의 「악보」 및 『대악후보(大樂後譜)』[38] 등의 악보 기록을 살펴보면, 「용광장」과 「정명장」은 각각 '4자 6구'의 가사 구조로 악장당 자수는 각각 24자였다. 「용광장」과 「정명장」이 각각 독립되어 있을 때는 4자를 1박으로, 6박을 1성으로 하는 연주 구조를 지녔다. 즉, 1성 동안 소화할 수 있는 가사는 24자[4자 × 6박]에 불과하고, 「용광장」과 「정명장」을 기존의 4자 1박 방식으로 연이어 가창할 경우, 1성이 두 번 반복된 총 12박이 소요되어 문서상으로는 1개 장이라 할지라도 실제 음악 연주상으로는 2성(二成)으로 연주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바로 이 점이 1차 통합(1743년) 이후에도 실제 제향에서 10성(十成)의 연주가 지속되었던 결정적 모순이었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고 선조의 「중광장」을 수용하면서도 국가 제례의 근간인 '구성(九成)' 원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합산 48자의 가사를 반드시 단 1성(6박)의 음악적 틀 안에 완성해야 했다.

가사 총 자수(48자) ÷ 1성의 음악적 박수(6박) = 1박당 가사 자수(8자)

즉, 기존의 1박당 가창 밀도를 정확히 2배로 압축한 '8자 1박'을 적용해

"如此則果是十成, 而非九成矣. 其令典樂, 此後則「龍光」·「貞明」章八字一拍, 六拍一成可也."

38) 주요 사전류에서는 『대악후보(大樂後譜)』의 편찬 연도를 1759년(영조 35)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대악후보』에는 「용광정명장(龍光貞明章)」이 명시되어 있다. 『영조실록』 영조 41년(1765) 12월 8일 조에 따르면, 서명응이 1743년(영조 19)의 1차 통합 악장인 「현미정명장」의 연주상 모순(10성 연주)을 지적하자 영조가 「용광장」과 「정명장」의 통합 및 '8자 1박' 조칙을 내린 것은 1765년의 일이다. 이러한 시차는 『대악후보』가 1759년 편찬에 착수한 이후 1765년의 악제 개편 성과를 추후 보완·수개(修改)하여 성책(成冊)하였거나, 적어도 현전본의 최종 성책 하한선을 1765년 이후로 재검토해야 함을 시사한다.

야만 6박(1성)이라는 한정된 구조 안에서 두 악장의 가사 전체(48자)를 완결되게 가창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영조 대의 박자 조정을 통해서 「용광장」과 「정명장」은 하나의 악장으로 통합되었다. 이른바 '용광정명합일(龍光貞明合一)'을 통해 역사적 도치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선조의 「중광장」을 포용하면서 종묘제례악의 기조인 구성(九成)·구변(九變) 원칙을 음악적으로 회복해 낸 것이다.

이로써 100여 년간 이어진 10성 체제로 인한 종묘 악장의 착란이 일단락되었다. 영조 대의 구성 복원은 문란해진 악장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덜어낸 작업이 아니다. 이는 반정(反正)으로 즉위한 정권[인조]의 정통성 확립이라는 정치적 기제로 덧붙여진 역사적 실재성[개별 공덕이라는 내용]을 함부로 부정하지 않고 포용하면서도, 『주례』에 명시된 국가 최고 의례의 규범인 구변의 원칙[형식]을 의례적 결단으로 복원해 낸 철학적 통합이었다.

결론적으로 영조의 악장 통합 과정은 국왕과 신료들이 당파적 이해관계[노론과 소론]를 뛰어넘어 국가 전례(典禮)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해 화합한 '탕평(蕩平) 정치'의 가장 이상적인 결과물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조종조의 공덕을 기리는 실재적 명분과 예법 수호라는 형식적 규범을 완벽한 형태로 융합해 낸 이 철학적 결단이 『해동악장』이라는 문헌 편찬과 맞물려 국가 법식으로 안착했다는 사실이다. 앞서 서명응이 20여 년 만에 1차 통합의 모순을 예리하게 짚어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해동악장』의 편찬 과정이 있었다. 당해(1765년) 4월 편찬 지시를 받고 종묘 악장의 실태를 고증하던 서명응이 10성의 한계를 발견하여, 12월의 2차 악장 통합 논의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치열한 논의 끝에 마침내 구성 체제를 완벽히 담아내어 간행된 『해동악장』의 어제발문(御製跋文)에서, 영조는 이 성과를 두고 "주(周)나라의 아(雅)·송(頌)과 표리(表裏)를 이룬다."라고 선언하였다. 이는 당파적 갈등을 초월하여 이뤄낸 조선의 예학적 통합이 이상적인 예악 정치 수준에 도달했음을 영조 스스로 천명한 것이다.

4. 결론

조선 초기의 종묘제례악은 세종 대에 지어진 「보태평」과 「정대업」을 바탕으로 세조 대(1464년)에 이르러 국가의 공식 제례악으로 정립되었다. 이때 세조가 내세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주례』와 『서경』에 명시된 구변과 구성의 체제였다. 인입장과 인출장을 제외한 9개의 악장으로 선조(先祖)의 공덕을 칭송하도록 치밀하게 설계된 이 구성 체제는 종묘 의례의 음악적 기틀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왕조의 역사가 누적되고 신위가 늘어남에 따라, 각 묘실에 고유한 악장을 제정해야 한다는 '1실 1악장' 주장이 선조 대 황정욱과 인조 대 오윤겸 등을 통해 제기되었다. 이 주장을 반영하여 반정으로 즉위한 인조 정권에서 취약한 정통성을 극복하기 위해 선조의 공덕을 기린 「중광장」을 무리하게 첨입하면서 종묘 악장은 기존의 구성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10성 체제로 변모하였다. 그 결과, 악장과 신위가 어긋나는 모순은 더욱 심해졌는데, 효종 대에 이르러서는 「중광장」 찬정의 본래 의미조차도 잃어버리는 극심한 의례적 착란을 겪게 되었다.

100여 년의 해묵은 모순을 해결한 것은 영조 대에 이르러서였다. 영조 대의 구성 복원 논의는 1743년(영조 19)과 1765년(영조 41)의 두 차례 논의를 거치며 전개되었다. 이는 조선 초기에 『주례』의 구변 원칙에 따라 구성 체계로 정립된 종묘제례악이 선조 현창을 위한 「중광장」 첨입으로 인해 10성 체계가 됨에 따라 발생한 구조적 모순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1743년, 김재로 등은 「중광장」을 삭제하여 본래의 9장으로 되돌리자는 원칙론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영조는 선대 현창이라는 역사적 명분을 포용하고자 「현미장」과 「정명장」을 합치는 타협안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 선후 관계가 도치되고, 실제 연주에서는 여전히 10성으로 연주되는 음악적 한계를 남겼다. 이후 1765년에 부제학 서명응이 이러한 음

악적 구조의 모순을 명확히 지적하자, 영조는 실제 연주의 박자를 압축하여 여덟 자를 한 박으로 부르게 하고, 태종의 「용광장」과 원경왕후의 「정명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용광정명합일'의 방법을 제시하여 『주례』의 구변 원칙을 구조적·음악적으로 복원을 해냈다.

영조 대의 종묘 악장 통합과 구성 복원은 제례에 쓰이는 노랫말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가감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다. 이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덧붙여진 역사의 실체 -개별 공덕- 인 「중광장」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치밀한 예학적 고증과 탕평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군신 간의 타협을 통해 국가 최고 의례의 규범 -구변의 원칙- 을 복원해 낸 예학적 통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국악전집』 제18집, 국립국악원, 2006년.
『大樂後譜』.
『承政院日記』.
『朝鮮王朝實錄』.
『周禮』.
국악사전. https://www.gugak.go.kr/ency/ (검색일: 2026.06.10.)

김영주, 「朝鮮 中期 宗廟樂章에 관한 史的 考察」,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이정희, 「음악 문헌을 통해 본 조선 후기 종묘악장의 추이」, 『장서각』 51, 한국학중앙연구원, 2024.
정해은, 「조선후기 宣祖에 대한 현창과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66, 조선시대사학회, 2013.

투고일 2026. 7. 30 심사시작일 2026. 8. 18 게재확정일 2026. 9. 21

Abstract

The Consolidation of Jongmyo Musical Movements and the Restoration of the Nine-Part System(Guseong)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Shin, Ho-Seung

In the early Joseon period, Jongmyo Jeryeak(Royal Ancestral Ritual Music) operated under a nine-part(Guseong)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 of nine transformations(Gubyeon) from the Rites of Zhou(Jurye). However, scholars such as Hwang Jeong-uk and O Yun-gyeom proposed the principle of 'one room, one movement'(il-sil il-akjang), advocating for dedicated musical movements for each shrine room. Consequently, during the reign of King Injo, "Junggwang-jang"(Chapter of Glorious Renewal), honoring King Seonjo, was interpolated, transforming the music into a ten-part(Sipseong) system. This caused a ritualistic conflict between the 'substantive justification' of honoring the achievements of individual kings and the 'formal norm' of ceremonial rules, thereby leading to confusion in ritual procedures.

To rectify this issue, discussions on consolidating musical movements and restoring the nine-part system unfolded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In the first discussion in 1743(the 19th year of King Yeongjo's reign), King Yeongjo rejected the proposal to delete "Junggwang-jang." Instead, embracing the moral justification, he chose a compromise by combining King Taejong's "Hyeonmi-jang" and Queen Wongyeong's "Jeongmyeong-jang." However, this skipped over "Yonggwang-jang," which lay between the two chapters, resulting in an inversion(dochi) of historical sequence, and left the limitation of maintaining ten parts in actual performance.

In the second discussion in 1765(the 41st year of King Yeongjo's reign), Seo Myeong-eung, the Vice Director(Bujehak), pointed out the contradiction in this musical structure. To resolve the inversion problem of the first restoration, King Yeongjo selected King Taejong's "Yonggwang-jang" and

Queen Wongyeong's "Jeongmyeong-jang" as the target for integration. By compressing the beats during performance to sing eight characters per beat, the method of 'the integration of Yonggwang and Jeongmyeong'(Yonggwang Jeongmyeong Habil) was derived. Adopting this approach, the musical nine-part system was finally restored.

The restoration of the nine-part system during King Yeongjo's reign was an undertaking that preserved historical justification while harmoniously restoring state ritual norms through historical verification. This serves as a case of ritualistic integration that demonstrates the reorganization of ritual music(yeak) and the application of the policy of impartiality(tangpyeong) in the late Joseon dynasty.

Keywords Jongmyo Jeryeak, Jongmyo Musical Movements, Nine-Part System, Restoration of the Nine-Part System, 「Junggwang-jang」, Reorganization of Ritual Music, Policy of Impartiality.

東方漢文學, 東方漢文學會
Dong-Bang Korean Chinese Literature Society
2026, 第108輯, pp.343~376
http://dx.doi.org/10.17293/dbkcls.2026.108.
ISSN 1226-668X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와 백이(伯夷) 기사에 나타난 시간의 형상화와 쓰기 전략*

박수밀**

目 次

1. 문제 제기
2. 연암의 시간 의식과 『열하일기』의 시간 형상화
3. 「일야구도하기」와 백이 기사에 나타난 시간의 형상화 양상
4. 현재 중심의 시간 재구성과 연암의 글쓰기 전략
5.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와 <관내정사> 7월 27일 자 백이(伯夷) 기사를 대상으로, 『열하일기(熱河日記)』에 나타난 시간의 형상화 양상과 글쓰기 전략을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중세의 귀고천금(貴古賤今) 시간관 아래에서 과거는 현재를 규정하는 절대적 권위였으나 연암(燕巖)은 과거와 현재를 차이의 관계로 생각했다. 이러한 시간 의식은 즉사진취(卽事眞趣)의 정신으로 나타났으며 『열하일기』의 서사 구성 속에서 역순행적 시간 배열이라는 구체적인 글쓰기 방식으로 형상화되었다. 이를 밝히기 위해 미하일 바흐친의 크로노토프(chronotope) 개념과 폴 리쾨르의 서사적 시간 이론을 분석 시각으로 삼았다. 「일야구도하기」는 한밤중 강을 아홉 번 건너는 현재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5A16076411).
**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의 체험이 연암협의 시냇물 기억과 요동의 낮 도강 경험을 반복적으로 불러내며 명심(冥心)의 깨달음으로 수렴되는 시간 구조를 지닌다. 여기서 현재가 되묻는 것은 눈과 귀 같은 감각 기관에 대한 맹신이다. 강이라는 공간은 삶과 죽음, 관습과 각성이 교차하는 문턱의 크로노토프로 기능하며, 낮과 밤이라는 시간의 전환은 인식론적 전환으로 이어진다. 백이 기사는 현재의 고사리 체험이 건량관의 일화, 태휘의 소동, 17년 전 백문에서의 기억, 백이·숙제의 고대 고사(故事)라는 서로 다른 시간층을 중첩시키는 중층적 시간 구조를 보여주는데, 현재가 되묻는 것은 춘추의리라는 역사적이고 이념적인 권위이다. 곧 「일야구도하기」가 감각의 허상을 들려주었다면 백이 기사는 절대화된 역사적 권위와 이데올로기의 허상을 고발하였다. 두 작품 모두 결론을 앞세우지 않고 독자를 체험 속으로 이끄는 귀납적 서술 전략과 현재를 중심축으로 과거를 재배열하는 시간 구성 원리를 공유하였다. 본고는 『열하일기』의 시간 형상화가 연암의 즉사 정신을 문학적으로 구현하는 중요한 서사 원리이자 글쓰기 전략임을 밝힘으로써 연암 산문의 시간 구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핵심어 『열하일기(熱河日記)』,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 백이(伯夷) 기사, 박지원(朴趾源), 시간의 형상화, 크로노토프, 역순행적 구성, 글쓰기 전략, 명심(冥心).

1. 문제 제기

중세 시대엔 옛날을 귀히 여기고 지금을 천하게 여기는 상고(尙古) 전통이 있었다. 진리는 고대 성인의 시대에 완성되었으며 완전한 과거의 시간에서 멀어질수록 본질이 훼손된다고 생각했다. 과거는 권위의 근원이었으며 현재는 과거의 권위를 모방하거나 계승해야 하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은 과거와 현재를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차이로 바라본다. 옛날은 그때의 지금이었으며 지금은 훗날엔 과거

가 된다. 따라서 과거는 절대적인 권위를 지닐 수 없으며 과거와 현재는 서로 다른 시간의 층위일 뿐이라 생각했다. 연암이 말한 즉사진취(卽事眞趣)는 이러한 시간 인식을 보여준다. 즉사(卽事)는 눈앞의 현장과 현실에서 참된 이치를 발견하려는 태도이며 진실은 지금 이곳에서 새롭게 드러난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지금 이곳에 참된 진실이 있다는 연암의 시간 의식은 작품의 서사와 글쓰기 방식에서 구체적으로 형상화된다. 특히 날짜순으로 기록한 『열하일기(熱河日記)』의 전반부에는 과거의 권위를 허물고 현재에서 진실을 발견하려는 연암의 생각이 노련한 쓰기 행위 속에 형상화되어 있다. 『열하일기』 전반부는 날짜순으로 기록한 편년체 서술이지만 연암은 곳곳에서 전통적인 시간관에서 벗어나 현재의 시간에서 진실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1)]

『열하일기』의 시간 인식과 관련해 주목되는 특징 중 하나는 역순행적 구성을 활용한다는 점이다.[2)] 전통적인 일기체 기행문과 연행록은 대체로 사건의 발생 및 이동 순서에 따라 서술하는 순차적인 구성을 취한다. 그러나 연암은 시간 순서를 의도적으로 뒤바꾸어 주제 의식을 전달하기도 한다. 연암은 사건의 발생 순서를 재배열하기도 하고, 현재의 체험 속으로 과거의 기억을 불러들이기도 하며, 하나의 공간 안에 서로 다른 시대를 중

1)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夜出古北口記」와 「馹迅隨筆序」에 나타난 연암의 상대적 시간관과 일회적 시간의 형상화 양상을 살핀 바 있다. 박수밀(2026), 「『熱河日記』에 나타난 시간의 형상화 방식과 쓰기 전략 -<馹迅隨筆序>와 <夜出古北口記>에 나타난 卽事 정신을 중심으로-」, 『고전과해석』 48,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본고는 앞선 논문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현재 중심의 시간 재배열'이라는 점에 새롭게 주목하여 연암의 시간 의식과 형상화 전략을 살핀 것이다. 특히 바흐친과 리쾨르의 시간 이론을 적극 반영하여 연암의 시간 형상화 원리를 밝힌 점이 선행연구와 크게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2) 역순행적 구성은 단순히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가는 좁은 의미의 역순 구성이 아니라,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가거나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시간을 교차, 중첩하는 넓은 의미의 비순차적 시간 구성의 뜻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첩하기도 한다. 곧 『열하일기』에서 시간은 사건의 순서를 표시하는 기능이 아니라 작가의 문제의식을 조직하고 작품의 의미를 형성하는 서사 장치로 기능한다.

특히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와 7월 27일의 백이 관련 기사에서 역순행적 구성이 잘 나타나 있다. 「일야구도하기」에서는 한밤중에 강을 아홉 번 건너는 현재의 체험이 과거의 시냇물 기억과 낮의 도강(渡江) 체험을 불러내고 명심(冥心)의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시간은 현재와 과거가 번갈아 바뀌는 역순행적 구조로 형상화되고 있다. 백이(伯夷) 관련 기사에서는 현재의 고사리 체험이 과거의 개인 체험을 소환해 과거의 권위를 현재에서 다시 해석하게끔 한다. 두 작품은 모두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를 재구성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동안 『열하일기』는 실학과 북학사상, 문학 세계, 문체, 대청 인식, 이본 검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다. 그러나 『열하일기』의 시간을 작품의 구성 원리이자 인식의 형식으로 접근한 논의는 드물다. 연암의 즉사 정신, 곧 지금 이곳의 현실 속에서 진실을 발견하려는 태도는 여러 연구에서 지적해 왔지만 그러한 생각이 작품 속에서 어떠한 서사 구조와 글쓰기 전략으로 형상화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한 논의는 찾기 힘들다.

이에 본고는 「일야구도하기」와 7월 27일자 백이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연암이 시간의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의 권위와 선입견을 해체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3] 이를 통해 『열하일기』의 시간

3) 본고는 2009년 논문에서 다룬 「일야구도하기」의 구성 전략 및 2022년 논문에서 다룬 백이 기사의 형상화 방식을 바흐친과 리쾨르의 시간 이론으로 재조명하고, 연암의 시간 형상화 공통 원리를 새롭게 밝히려 한다는 점에서 두 편의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연암의 '시간 의식'을 분석 범주로 삼아 연암 산문이나 『열하일기』의 구성 원리를 살핀 다른 연구 성과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박수밀(2009), 「맥락으로 본 일야구도하기의 구성전략」, 『온지논총』 23, 온지학회.
박수밀(2022), 「熱河日記 伯夷 記事의 형상화 방식과 쓰기 전략」, 『동방한문학』 90

형상화가 연암의 즉사 정신을 문학적으로 구현하는 주요 원리임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연암의 시간 의식과 『열하일기』의 시간 형상화

문학 작품에서 시간은 단순히 사건이 발생한 순서를 표시하는 기능에 머물지 않는다. 시간은 공간과 결합하여 사건과 인물의 형상을 빚어내며, 서사적 구성을 통해 서로 다른 체험과 기억을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엮는 원리로 기능한다.[4] 특히 여행기에서 시간은 공간의 이동을 하나의 경험으로 통합하고 흩어진 체험과 기억을 하나의 의미망으로 엮어 여행의 의미를 구성한다. 여행은 근본적으로 공간의 이동을 전제로 하는 양식이지만 이동을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하는 것은 시간이다.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경험하였는가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지며, 현재의 체험은 과거의 기억을 불러오고 미래의 성찰을 예비하기도 한다. 따라서 여행기에서 시간은 일정의 선후를 기록하는 연대기적 질서를 넘어 이동과 체험, 기억과 사유를 조직하는 서사의 축이다.

그러나 조선 시대의 기행문, 특히 날짜별 이동과 견문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일기체 연행록에서는 대체로 출발에서 귀환까지의 여정을 순차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이 기본적인 서술을 이룬다. 이들 연행록은 출발에서 귀환까지의 여정을 날짜와 이동 순서에 따라 기록하는 편년체 형식을 취하며, 사건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서술하는 순차적 구성을 따른다. 언제 어느 곳을 떠나 어디에 도착했고, 누구를 만나 무엇을 보고 들었는가를 차례

집, 동방한문학회.

4) 미하일 바흐찐 저/전승희・서경희・박유미 옮김(1988),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비, 260~262쪽; 같은 책, 450~460쪽; 폴 리쾨르 저/김한식・이경래 옮김(1999), 『시간과 이야기 1』, 문학과 지성사, 125~188쪽.

대로 기록하는 것이 기본적인 서술 방식이다. 물론 편년체는 여행의 실제 과정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은 대체로 이동의 순서를 표시하는 기준으로 기능할 뿐 사건을 재배열하거나 기억을 교차시키는 적극적인 서사 장치로 활용되지는 않았다.

아울러 현재의 체험보다 고대의 전범과 권위를 중시한 귀고천금(貴古賤今)의 시간 의식도 현재를 독자적인 의미 생성의 시간으로 전면화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귀고천금의 전통적 시간관에서는 진리가 이미 요·순과 삼대(三代)의 성인 시대에 완성되었다고 여겼으며, 현재는 이미 확립된 과거의 질서를 재현하는 시간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지금 여기의 시간은 이미 확립된 고대의 질서를 확인하는 장(場)에 가까웠다. 이러한 시간 의식에서는 현재가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거나 사건의 시간을 재구성하여 다른 의미를 만들어낼 필요가 크지 않다.

그러나 『열하일기』는 연행록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전통적인 시간 의식에서 한 걸음 벗어난다. 『열하일기』도 날짜를 따라 기록된 연행록이지만, 작품 속 시간은 단순한 연행 일정이나 사건의 선후 관계에 머물지 않는다. 현재의 체험은 과거의 기억을 불러오고, 과거는 다시 현재를 해석하며, 하나의 공간에는 서로 다른 시대가 중첩되기도 한다. 때로는 사건의 실제 발생 순서가 의도적으로 뒤바뀌고, 현재가 과거를 새롭게 의미화하는 중심축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곧 『열하일기』에서 시간은 연행 과정을 기록하기 위한 배경을 넘어 작가의 사유를 전달하는 적극적인 서사 장치로 활용된다. 이러한 점에서 『열하일기』는 전통적인 연행록의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시간의 활용 방식에서 새로운 문학 성취를 보여준 작품이라 하겠다.

문학에서 시간의 형상화는 현대 서사 이론에서도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되어 왔다.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은 문학 작품에서 시간과 공간이 서로 분리된 요소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적 통일체를 이룬다고 보고 이를 크로노토프(chronotope)라 명명하였다. 그에게 시간은 추상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공간 속에서 사건으로 구체화되며, 공간 또한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인물의 행동과 인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장소이다. 길, 문턱, 광장과 같은 공간이 삶의 전환을 발생시키는 것은 이러한 까닭이다.[5] 따라서 크로노토프는 시간과 공간이 결합하여 의미를 생성하는 문학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문턱의 크로노토프는 삶과 죽음, 결단과 주저가 교차하는 위기와 분기점의 시공간으로서 인물의 전환을 발생시키는데,[6] 이러한 시각은 「일야구도하기」에서 밤의 강물을 건너는 위기의 순간이 명심의 깨달음을 낳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하나의 공간에 서로 다른 시대가 중첩되는 크로노토프의 원리는 백이 기사에서 이제묘가 고대의 백이·숙제 고사와 개인의 기억, 현재의 체험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 시공간적 구조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편 폴 리쾨르(Paul Ricoeur)는 시간은 이야기를 통하여 비로소 인간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리쾨르에게 중요한 것은 사건의 발생 순서를 그대로 재현하는 일이 아니라 서로 이질적인 사건과 행위 등을 플롯으로 종합하여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를 구성하는 일이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메시스 개념을 계승하면서도, 이를 실제 사건을 있는 그대로 모사하는 수동적 행위가 아니라 이질적인 사건과 행위들을 하나의 플롯으로 종합해내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형상화 작업으로 재정의한다. 곧 서사는 삶 속에 이미 존재하는 시간적 이해를 출발점으로 삼되 흩어진 사건들을 시작·중간·끝을 지닌 전체로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사건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와 전체적인 의미를 만든다. 이 과정에서 시간은 단순한 연대

5) 미하일 바흐찐 지음/전승희·서경희·박유미 옮김(1988), 260~262쪽, 450~460쪽; 김욱동 저(1988), 『대화적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208~218쪽. 글에 따르면 크로노토프는 본래 시공간의 상호 연관성을 뜻하는 과학 용어인데 바흐친은 이를 문학 작품에서 예술적으로 표현된 시간과 공간의 본질적 연관성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차용하였다.

6) 미하일 바흐찐 지음/전승희·서경희·박유미 옮김(1988), 456쪽

기적 나열이 아니라 우연적이고 어긋나는 사건들이 하나의 화합된 이야기로 짜이는 의미의 시간이 된다.[7] 바흐친의 크로노토프가 시간과 공간이 결합하여 사건과 인식의 전환을 발생시키는 양상을 설명한다면 리쾨르의 형상화 개념은 서로 이질적인 사건과 체험이 플롯을 통해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구성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러한 논의는『열하일기』에 나타난 시간의 형상화를 이해하는 데 일정한 시각을 제공한다. 바흐친과 리쾨르의 논의는 연암이 활용한 시간 구성의 특징을 설명하는 참고 시각이 된다. 예컨대「일신수필서」에서는 역사적 시간과 찰나 시간을 상대화하여 독자에게 시간의 절대적 질서를 의심하게 만들고 현재의 순간 속에서 세계를 다시 바라보도록 이끈다.[8] 시간은 기록의 대상이 아니라 작가적 진실을 전달하는 글쓰기 전략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 의식은 연암의 즉사 정신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귀고천금의 전통적인 시간관에서는 진리가 이미 고대 성인의 시대에 완성되었으므로 현재는 과거를 계승하고 모방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러나 연암은 과거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옛날 또한 한때는 그 시대의 현재였으며, 지금 역시 훗날에는 과거가 된다. 따라서 진실은 과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새롭게 발견될 수 있다. 즉사는 바로 이러한 현재 중심의 시간 의식 위에서 성립하는 사유이다. 연암에게 현재는 과거보다 열등한 시간이 아니라 과거의 의미를 다시 묻고 새롭게 해석하는 능동적인 시간이다.

이러한 현재 중심의 시간 의식은『열하일기』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형상화된다.「일야구도하기」에서는 현재의 밤 도강 체험이 과거의 시냇물 기억과 낮의 도강 경험을 차례로 불러오면서 명심(冥心)의 깨달음에 이르

7) 폴 리쾨르 저, 김한식・이경래 옮김(1999).
8) 박수밀(2026), 175쪽.

고, 백이 관련 기사에서는 현재의 고사리 체험이 백이의 역사와 개인의 기억을 호출하면서 절대화된 역사적 권위를 다시 성찰하게 만든다. 두 작품 모두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를 재구성한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하나는 감각과 인식의 전환을, 다른 하나는 역사와 가치의 재해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시간 형상화 방식을 드러낸다.

따라서 본고는 바흐친과 리쾨르의 시간 이론을 하나의 참고 시각으로 삼아 「일야구도하기」와 백이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열하일기』에 나타난 시간의 형상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연암이 시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자신의 사유를 전달하고,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의 권위와 선입견을 어떻게 해체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3. 「일야구도하기」와 백이 기사에 나타난 시간의 형상화 양상

(1) 「일야구도하기」의 시간 재구성과 명심(冥心)의 형상화

「일야구도하기」는 열하로 향하던 연암이 하룻밤 사이에 같은 강을 아홉 번 건넜던 경험을 소재로, 눈과 귀의 한계와 외물(外物)에 현혹되지 않는 삶의 자세를 이야기한 글이다. 낮에는 보이는 위험 때문에 강물 소리가 들리지 않고, 밤에는 소리에만 온 신경이 쏠려 두려움이 생긴 경험을 통해, 연암은 눈과 귀가 진실을 올바로 보고 듣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작품이 오랫동안 높은 평가를 받아온 데는 단지 글의 생동감 때문만이 아니라 감각 기관에 의존하는 인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마음에 선입견을 두지 않는 명심(冥心)을 궁극적 깨달음으로 제시하는 철학적이고 인식론적인 깊이에 있다.

작품의 의미는 인식론의 층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일야구도하기」는 강물을 건너는 구체적 체험에서 출발해 명심의 깨달음에 이르는 구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진행 속에서 위험이라는 화두는 단순한 감각의 문제를 넘어 관습과 습속에 안주하는 삶의 태도에 대한 성찰로 확장된다. 말고삐를 남에게 맡기는 것을 당연시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스스로 고삐를 풀어버리는 연암의 행동은 명심이라는 추상적 깨달음이 구체적 실천으로 옮겨지는 장면이다.[9] 글의 말미에서 자기 몸을 챙기는 데만 약삭빠르고 자신의 총명함을 과신하는 이들에게 던지는 경계의 말은 이 작품이 개인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당대 사회의 인식 태도 전반을 겨냥한 비판적 시선을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야구도하기」는 감각과 마음, 위험과 극복, 관습과 깨달음이라는 여러 층위를 오가며 하나의 주제를 향해 수렴해 가는데, 이러한 다층적 의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주목할 지점이 시간의 배열 방식이다.

1) 재배열된 경험과 명심(冥心)의 현재

「일야구도하기」는 사건이 실제 발생한 순서대로 전개되지 않는다. 첫머리는 눈 앞에 펼쳐진 무시무시한 강물 소리에 대한 묘사로 시작된다. 누군가 옛 전쟁터인 까닭에 무섭게 운다고 말하자 연암은 강물 소리는 어떻게 듣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라 말한다. 이어지는 글에선 과거 연암협에서 지냈을 때 감정 상태에 따라 시냇물 소리가 다르게 들렸던 경험을 이야기한다. 앞서 한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거의 경험을 끌어들인 것이다. 하지만 다시 굴절이 일어난다. 이 모든 소리는 올바로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미리 정한 생각에 따라 귀가 그렇게 들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

9) 박수밀(2009), 190쪽.

이어 지금 같은 강을 아홉 번 건너는 상황을 들려준 후 다시 요동에서 한여름 대낮에 강을 건넜던 기억을 소환한다. 흙탕물이 된 강물을 건널 때 눈앞의 시뻘건 광경에 압도되어 강물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다시 현재의 밤으로 돌아와 이번엔 한밤중에 건너자니 무시무시한 소리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 이를 통해 귀와 눈이 진실을 방해하므로 감각기관이 가져다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명심(冥心)해야 한다는 깨달음에 이른다. 이어 우 임금의 도강 고사를 통해 명심의 깨달음을 역사적 차원에서 확인한다. 결론적으로 소리와 색이라는 외물의 한계를 성찰하고 장차 연암협으로 돌아가 다시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이를 검증하겠다는 다짐으로 끝맺는다. 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무시무시한 강물 소리
바윗돌에 부딪혀 흐르는 강물이 전차와 대포 소리에 비유될 만큼 무시무시하게 울린다. 강물 소리는 어떻게 듣느냐에 달렸다.

과거: 연암 골짝에서 들은 시냇물 소리
문을 닫고 누워 시냇물 소리를 들으니 마음 상태에 따라 퉁소, 비파, 천둥 등 제각기 다르게 들렸다. 제각기 다른 소리는 선입견에 따라 귀가 그렇게 들렸을 뿐이다.

현재: 하룻밤에 강을 아홉 번 건너는 현재의 경험
밀운강에서 흘러나온 백하를 한밤중에 아홉 번이나 건너야 했다.

과거: 요동에서 한여름 대낮에 강을 건넌 경험
시뻘건 흙탕물의 요동 강을 건널 때 눈이 위험에만 쏠려 강물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현재: 밤의 도강(渡江) 속에서 명심(冥心)의 깨달음
강으로 땅과 몸을 삼겠다고 각오하니 강물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고 마

음에 선입견이 없으면 귀와 눈이 폐가 되지 않는다는 명심(冥心)을 깨닫는다.

과거: 우(禹) 임금의 도강 고사(故事)
우 임금이 강을 건널 때 누런 용이 배를 등에 얹어 위험했지만 죽고 사는 판가름이 마음 속에 분명해지자 용의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현재: 외물의 한계와 삶에 대한 경계
소리와 색은 외물로써 보고 듣는 것의 올바름을 잃게 만든다. 세상살이는 강 건너기보다 위태롭다.

미래: 연암협에서 다시 검증하겠다는 다짐
연암협으로 돌아가 시냇물 소리로 오늘의 깨달음을 검증하고, 총명함을 과신하는 이들에게 경계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의 강물 소리의 두려움 → 과거 연암협에서 냇물 소리 경험 → 현재의 도강 체험 → 과거 대낮의 도강 경험 → 현재의 명심 깨달음 → 역사적 고사의 소환 → 현재와 미래의 경계와 다짐"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현재와 과거가 교차하는 단순한 왕복 구조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일야구도하기」의 시간은 현재와 과거가 반복되는 구조가 아니라, 현재의 체험이 과거를 끊임없이 불러내면서 점차 인식의 깊이를 심화하는 구조를 이룬다. 과거는 독립적으로 회상되는 시간이 아니라 현재를 설명하기 위해 선택된 시간이며, 각각의 과거는 현재의 의미를 한 단계씩 깊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작품의 중심은 과거의 체험이 아니라 현재이며 모든 경험은 현재의 명심에 이르기 위한 과정으로 기능한다.[10]

10) 冥心은 연암의 사유와 인식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이기에 임형택(1988), 김명호(1990), 박희병(1999), 김혈조(1993), 박수밀(2009) 등 연암 전공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박수밀은 명심을 개인적 수양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이러한 시간 구성은 리쾨르가 말한 서사적 시간의 특징과도 연결된다. 연암이 실제 체험의 순서를 뒤바꾸어 기록하는 것 자체는 서사의 순서를 재배열하는 서술 기법이다. 그러나 이 재배열이 지니는 의미는 순서를 바꾸었다는 사실 자체에 있지 않다. 리쾨르에 따르면 서사는 사건들을 발생한 순서대로 나열하는 삽화에 머물지 않고, 이질적이고 우연한 사건들을 하나의 플롯으로 종합해 의미 있는 전체를 형성하는 형상화(configuration)의 기능을 한다. 시간은 이러한 형상화를 통해 비로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를 갖는다.[11] 「일야구도하기」에서도 연암은 현재의 체험을 먼저 들려주고 그 체험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호출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들이 뒤바뀐 순서로 배열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연암협의 시냇물 기억과 요동의 낮 도강 경험이라는 서로 이질적인 체험이 재배열을 통해 명심으로 종합된다는 점이다. 곧 「일야구도하기」의 시간은 사건의 시간이라기보다 재배열이라는 형식적 장치를 매개로 서로 다른 기억들이 하나의 깨달음으로 통합되는 서사의 시간이다.

작품 속 과거의 기억들은 각각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먼저 연암협에서 시냇물 소리를 들었던 경험은 밤의 강물 소리를 이해하는 첫 번째 해석의 층위를 형성한다. 연암은 당시 자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 같은 시냇물 소리가 퉁소 소리, 비파 소리, 천둥소리 등으로 다르게 들렸던 경험을 떠올린다. 이 기억은 소리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

실천적 현실 대응 태도로 바라보고 있다. 본고는 연암의 시간관을 규명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에 명심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지 않는다. 각 연구자의 명심에 대한 논의는 강영주(2026), 『熱河日記의 구도자 여정과 冥心 修行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5쪽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11) 폴 리쾨르 저, 김한식・이경래 옮김(1999), 125~188쪽. 리쾨르가 말한 미메시스 Ⅱ가 형상화에 해당하는데 형상화란 플롯에 의해 사건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플롯은 단순히 사건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사건들을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조직한다. 따라서 형상화는 현실의 시간을 이야기의 시간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여기서 과거, 현재, 미래는 연대기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플롯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

태에 따라 달리 지각된다는 사실을 들려준다. 이어 요동에서 한여름 대낮에 강을 건넜던 경험은 두 번째 해석의 층위를 이룬다. 낮에는 시뻘건 흙탕물이 눈을 압도하였기 때문에 귀는 강물 소리를 의식하지 못했다. 반대로 밤에는 시야가 차단되면서 귀가 모든 위험을 떠맡았다. 두 경험이 서로 대비되면서 연암은 감각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상황, 마음의 상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도달하는 것이 명심의 현재이다. 연암은 강으로 땅을 삼고, 강으로 옷을 삼고, 강으로 몸을 삼으며, 한 번 떨어질 것을 각오하자 강물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말한다.[12] 이는 실제로 소리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소리를 두려움으로 증폭시키던 마음의 선입견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명심은 단순히 마음이 평온해진 상태가 아니라 선입견이 제거된 현재이며, 앞서 제시된 모든 과거의 기억은 바로 이 현재를 설명하기 위해 재배열된 것이다. 현재는 과거의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과거의 의미를 새롭게 조직하는 중심축이 된다.

작품에서 반복되는 아홉 번의 도강도 이러한 시간 구조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반복은 동일한 사건의 단순한 되풀이가 아니다. 작품은 아홉 차례 도강의 변화를 점층적으로 말하지는 않는다. 다만 같은 위험을 아홉 번 건너면서도 아무런 걱정이 없었다는 서술을 통해 명심의 깨달음이 순간적인 통찰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도강 속에서 계속 유지되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아홉 번의 도강은 명심을 통해 획득한 새로운 태도가 반복되는 위험 속에서 검증되는 과정이 된다.

마지막으로 우 임금의 도강 고사와 연암협으로 돌아가 다시 시냇물 소리를 들어 보겠다는 다짐은 작품의 시간을 현재에서 미래로 확장한다.[13]

---

12) 朴趾源, 『熱河日記』, <山莊雜記>, 「一夜九渡河記」. “今吾控夫足爲馬所踐, 則載之後車, 遂縱鞚浮河, 擧膝聚足於鞍上, 一墜則河也. 以河爲地, 以河爲衣, 以河爲身, 以河爲性情, 於是心判一墜, 吾耳中遂無河聲. 凡九渡無虞, 如坐臥起居於几席之上.”

우임금의 고사는 현재의 깨달음을 역사적 차원에서 확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연암협에서 다시 검증하겠다는 다짐은 현재의 깨달음을 미래의 실천으로 연결한다. 이로써 작품의 시간은 과거·현재·미래가 직선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를 호출하고 미래를 향해 열려 가는 시간 구조를 형성한다. 요컨대 「일야구도하기」의 서사 시간은 과거와 현재가 단순히 교차하는 구조가 아니라, 현재가 과거를 반복적으로 재구성하면서 점차 인식의 깊이를 확장해 가는 시간 구조라고 할 수 있다.

2) 강이라는 문턱의 크로노토프와 감각의 전환

「일야구도하기」는 『열하일기』 가운데 시간과 공간의 결합이 압축적으로 드러나는 작품이다. 작품에서 강은 단순한 자연 공간이 아니다. 강은 밤이라는 시간, 아홉 번의 도강이라는 반복 행위, 어둠 속에서 밀려오는 물소리, 죽음의 위험을 감지하는 몸의 긴장과 결합하여 특수한 시공간을 이룬다.

특히 『열하일기』가 시작되는 공간인 압록강과 「일야구도하기」의 공간인 밀운강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연암은 조선과 중국을 가르는 압록강을 건널 때 수석 역관인 홍명복에게 "자네 도를 아는가?"라고 묻는다. 이어 압록강은 조선과 중국의 경계가 되는 곳이라고 말하며 도(道)는 "강물과 언덕의 경계[際]에 있네."라는 이른바 '경계의 사유'를 들려준다.[14] 이어 북경에서 열하를 향해 갈 때, 중화와 오랑캐를 나누는 경계를

---

13) 朴趾源, 『熱河日記』, <山莊雜記>, 「一夜九渡河記」. "而況人生涉世, 其險且危, 有甚於河, 而視與聽, 輒爲之病乎? 吾且歸吾之山中, 復聽前溪而驗之. 且以警巧於濟身而自信其聰明者."

14) 朴趾源, 『熱河日記』, <渡江錄>, 六月二十四日. "余謂洪君命福首譯曰, 君知道乎. 洪拱曰, 惡, 是何言也. 余曰, 道不難知, 惟在彼岸. 洪曰, 所謂誕先登岸耶. 余曰, 非此之謂也. 此江乃彼我交界處也. 非岸則水. 凡天下民彝物則, 如水之際岸. 道不

상징했던 만리장성의 한 관문인 고북구 장성을 지나자마자 한밤중에 밀운 강을 건넌다. 장마철에 뿌연 강물이 불러일으키는 압도감에 공포를 느낀 연암은 "나는 이제야 도를 알았다"라며 명심의 사유를 설파한다.[15] 강이 이쪽과 저편을 가르는 경계가 되고 낮과 밤의 서로 다른 감각의 경험이 가져온 깨달음이 인식의 공간으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일야구도하기」에서 밤의 강이라는 공간은 연암의 인식과 감각이 새롭게 전환되는 사건의 장소가 된다.

일반적인 여행기에서 강은 이동 경로의 일부로 활용된다. 어디에서 출발해 어느 강을 건너 어디에 도착했다는 식으로 서술된다. 그러나 「일야구도하기」에서 강은 단순한 이동의 배경을 넘어 감각의 변화와 인식의 변화를 촉발하는 핵심 공간이 된다. 밤의 강은 보이지 않지만 귀로 들린다. 밤은 시야를 막고, 차단된 시야 속에서 청각은 극도로 예민해진다. 낮의 강이 눈으로 보는 강이라면 밤의 강은 귀로 듣는 강이다. 낮의 강은 보이는 시뻘건 물 때문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강의 밤은 들리는 무서운 소리 때문에 두려움을 가져다준다. 같은 강이지만 낮과 밤의 시간에 따라 전혀 다른 세계가 되고 마음에 선입견을 심어준다.

그러므로 「일야구도하기」의 시간 형상화는 단순한 시간대의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낮과 밤의 차이는 감각의 차이를 불러온다. 낮에는 눈이 세계를 장악한다. 시뻘건 흙탕물이 앞을 가로막고, 물살의 위태로움이 시각적으로 다가온다. 귀는 뒤로 물러난다. 눈이 위험한 광경에 사로잡혀 있기에 강물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반대로 밤이 되면 눈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어둠은 사물을 가리고 귀가 세계를 떠맡는다. 보이지 않는 강물은 소리로 밀려오고, 소리는 두려움을 심어준다.

他求, 卽在其際."

15) 朴趾源, 『熱河日記』, <山莊雜記>, 「一夜九渡河記」. "今吾夜中渡河, 目不視危, 則危專於聽, 而耳方惴惴焉, 不勝其憂. 吾乃今知夫道矣. 冥心者, 耳目不爲之累, 信耳目者, 視聽彌審, 而彌爲之病焉."

그러므로 「일야구도하기」에서 낮과 밤의 전환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인식론적 전환이 된다. 낮에는 시각이 청각을 압도하고 밤에는 청각이 시각을 대신한다. 시간대가 바뀌면 감각의 질서가 바뀌고 감각의 질서가 바뀌면 세계의 모습이 달라진다. 연암은 이 작품에서 어느 하나의 감각도 절대적 진실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한다. 낮에 본 강과 밤에 들은 강은 각각 특정한 시간과 감각의 조건 아래 포착된 세계이다. 어느 한쪽도 강의 실상을 온전히 담보하지 못하며 감각이 마음의 선입견과 결합할 때 부분적인 지각은 대상 전체의 진실로 잘못 인식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바흐친의 크로노토프 개념이 유효하다. 「일야구도하기」의 강은 물리적 공간이면서 동시에 시간적 사건이다. 바흐친이 말한 크로노토프의 대표적 유형 가운데 하나가 문턱(threshold)의 크로노토프이다. 문턱은 삶과 죽음, 결단과 주저, 관습과 각성이 교차하는 위기의 시공간으로, 이곳에서 인물은 이전과 다른 존재로 전환된다.[16] 「일야구도하기」의 강은 문턱의 크로노토프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다. 강을 건너는 행위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기의 순간이며, 위기의 시공간 안에서 낮과 밤이라는 시간의 차이는 서로 다른 감각의 국면을 드러낸다. 낮에는 시뻘건 흙탕물이 시야를 압도하여 눈이 세계를 장악하고, 밤에는 시야가 차단되면서 귀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이처럼 같은 문턱의 시공간이 시간대에 따라 다른 감각의 체계를 불러오고, 감각의 체계가 인식의 방식을 바꾼다. 그러므로 「일야구도하기」에서 시간은 추상적인 흐름이 아니라 문턱이라는 공간 속에서 감각적으로 실현되는 힘이다. 낮과 밤의 강은 연암의 눈과 귀를 압도하고, 마음속 두려움을 증폭시켜 마침내 명심의 깨달음을 발생시키는 시공간적 장치이다.

이 작품에서 밤은 감각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시간이다. 귀는 선입견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강물 소리는 자연의 소리이면서

16) 미하일 바흐찐 지음/전승희 · 서경희 · 박유미 옮김(1988), 456~458쪽.

마음의 소리이다. 이중적 성격 때문에 「일야구도하기」의 강물 소리는 단순한 묘사 대상이 아니라 인식의 매개가 된다.

연암은 감각 기관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추상 명제로 제시하지 않는다. 연암은 독자를 먼저 밤의 강물 소리 속으로 인도한다. 보이지 않는 물살의 소리는 위험하고 압도적이다. 그런 뒤에야 연암은 과거의 시냇물 체험과 낮의 도강 체험을 불러온다. 장면이 먼저 오고 해석이 뒤따른다. 이로 인해 독자는 강물 소리에 대한 설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강물 소리의 공포를 먼저 통과한다.

이러한 방식은 연암 산문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장면은 작가적 진실의 예시로 나타나지 않고 진실이 발생하는 자리가 된다. 「일야구도하기」에서 밤의 강이라는 장면은 '마음에 선입견이 없으면 귀와 눈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작가 의식을 설명하기 위한 단순한 배경이 아니다. 오히려 작가의 주장은 문턱이라는 위기의 시공간을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발생한다. 곧 크로노토프는 주제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 주제를 만들어내는 장치이다.

이처럼 「일야구도하기」에서 강이라는 문턱적인 시공간은 단순히 시간을 배경으로 한 공간이 아니다. 밤이라는 시간과 강이라는 공간은 삶과 죽음, 관습과 각성이 교차하는 위기 상황을 조성한다. 연암은 이러한 문턱의 시공간 속에서 독자에게 먼저 두려움을 경험하게 한 뒤 그 체험을 통해 감각이 얼마나 불완전한가를 깨닫게 한다. 따라서 「일야구도하기」의 밤의 강은 단순히 도를 깨달은 배경이 아니라 도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는 장소이다. 도에 대한 깨달음은 미리 준비된 명제가 아니라 밤의 강이라는 시공간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독자는 밤의 강을 함께 건너며 명심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바로 여기에 「일야구도하기」가 지닌 서사적 긴장과 연암 산문의 독창적인 글쓰기 전략이 있다.

강이라는 공간은 『열하일기』 전체의 공간 구조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열하일기』의 시작에서 압록강은 조선과 청나라를 나누는 국경이자

"도는 경계에 있다."는 관념적인 사유가 제시되는 공간이었다. '경계[際]'라는 표현은 이미 문턱의 시공간과 대응하는 개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밀운강에 이르러 그 경계는 언어로 설명되는 관념이 아니라 몸으로 통과해야 하는 실제의 문턱으로 구체화된다. 연암은 한밤중 강을 건너며 감각의 한계를 몸으로 체험하고 나서야 "이제야 도를 알았다."고 말한다. 압록강에서 도는 언어와 사유를 통해 제시되었다면, 밀운강에서 도는 문턱이라는 위기의 시공간을 실제로 통과하는 체험을 통해 획득된다. 곧 『열하일기』의 두 강은 서로 대응하면서 연암의 인식이 경계에 대한 관념에서 문턱을 통과하는 체험으로, 설명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상징한다. 따라서 밤의 강이라는 문턱은 단순히 명심을 깨달은 장소가 아니라 『열하일기』 전체를 관통하는 경계의 사유가 체험적 깨달음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지점이며, 연암이 독자에게 자신의 체험을 함께 따라가도록 구성한 서사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2) 백이 기사에 나타난 중층적 시간과 백이 우상화의 비판

백이 기사는 『열하일기』 <관내정사(關內程史)> 7월 27일 자에 실렸다. 표면적으로는 이제묘(夷齊廟)를 들른 연암 일행이 고사리를 먹고 겪은 몇 가지 일화를 소개하는 짧은 소품처럼 보인다. 그러나 백이 기사는 조선 후기 사회에서 민감하게 다루던 소재를 건드리고 있다. 백이는 공자와 맹자, 그리고 사마천의 「백이열전(伯夷列傳)」을 거치며 효와 절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병자호란 이후로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와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을 투영하는 춘추의리의 표상이 되었다. 조선의 사신들은 중국을 오갈 때마다 이제묘에 들러 고사리 국을 끓여 먹으며 백이의 절의를 추모하는 의례를 관례로 삼았을 만큼 백이는 불사이군(不事二君)의 표상이자 신성한 이름이었다.[17]

그런데 연암은 백이 기사에서 절의를 상징하는 고사리를 사람을 해치는

독한 음식으로 뒤집고, 백이·숙제라는 이름을 발음이 비슷한 익힌 나물인 백이·숙채(熟菜)로 부르는 말장난으로 희화화하는가 하면[18] 어린 동자의 입을 빌려 춘추의리 자체가 처지에 따라 뒤바뀔 수 있는 상대적인 이념임을 풍자한다.[19] 백이를 이처럼 노골적인 풍자의 대상으로 삼은 작품은 백이 관련 기사를 통틀어도 발견하기 힘들다.

백이의 신화화에 대한 풍자는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연암은 몇 겹의 장치를 통해 자신의 발언을 숨긴다. 우선 백이 기사 사건은 실제로는 7월 26일에 일어난 일이지만 연암은 이를 굳이 다음 날인 27일 일기로 옮겨 적었으며, 그 안에서도 십수 년 전과 17년 전의 옛 일화들을 다시 끌어들여 작가의 의도를 여러 겹의 과거 속에 숨겨 놓았다. 나아가 연암 자신은 사건의 중심에 나서지 않은 채 고사리를 헐뜯는 말도 백이의 이름을 우스개로 만드는 말도 모두 건량관이나 마두, 동자 같은 제3자의 입을 통해 전달되도록 거리를 둔다. 각각의 일화 끝에는 어김없이 주위 사람들이 크게 웃었다고 서술하여, 자칫 불경하게 읽힐 수 있는 내용을 그저 우스갯소리로 넘어가도록 만든다.

이처럼 시간을 과거로 돌리고, 스스로는 발을 빼고, 웃음으로 무게를 덜어내는 전략을 통해 연암은 오랫동안 신봉해 온 백이와 춘추의리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은밀하면서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겹겹이 감추어진

17) 『열하일기』 백이 신화의 형성과정 및 백이 기사의 주제와 형상화 방식에 대해서는 박수밀(2022), 253~284쪽 참조.

18) 朴趾源, 『熱河日記』, <關內程史>, 七月二十七日. “及聞薇毒殺人, 乃大聲號慟曰, 伯夷熟菜殺人, 伯夷熟菜殺人.”

19) 朴趾源, 『熱河日記』, <關內程史>, 七月二十七日. “鄕先生爲旅酬, 設薇蕨之菜. 時禁酒, 以蜜水代酒, 盛畫瓷盆, 盆之款識曰, 大明成化年製. 旅酬者必俯首視盆中, 爲不忘春秋之義也. 遂相與賦詩. 一童子題之曰, 武王若敗崩, 千載爲紂賊. 望乃扶夷去, 何不爲護逆. 今日春秋義, 胡看爲胡賊. 坐者皆大笑. 鄕先生憮然, 爲間曰, 兒不可使不早讀春秋, 惟其不早辨, 故乃爲此怪談也. 可賦卽景. 又有一童子題之曰, 採薇不眞飽, 伯夷終餓死. 蜜水甘過酒, 飮此亡則冤. 鄕先生皺眉曰, 又一怪談. 一坐皆大笑.”

발언을 가능케 한 핵심적인 장치가 시간을 다루는 방식이다. 이제 백이 기사에서 시간 구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현재가 호출하는 과거의 시간

「일야구도하기」에서 연암은 현재의 밤에 강물을 건너는 상황을 보여준 뒤 과거의 기억을 불러와 현재의 의미를 심화하였다. 과거는 독립적으로 회상되는 시간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 선택되고 재배열된 시간이었다. 이러한 시간 구성은 7월 27일 일기에 수록된 백이 관련 기사에서도 나타난다. 「일야구도하기」가 감각과 체험을 중심으로 시간을 구성했다면, 백이 기사는 역사와 기억을 현재 속으로 끌어들여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백이 기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7월 26일): 이제묘에서 고사리를 먹고 체한 경험
연암은 이제묘에서 고사리 국을 먹은 뒤 길에서 갑자기 비바람을 만나 소화가 되지 않아 체하고 만다. 철에 맞지 않게 고사리를 낸 까닭을 묻는다.

과거(십수 년 전): 건량관이 곤장을 맞은 사연
건량청에서 고사리 가져오는 것을 잊는 바람에 건량관이 서장관에게 곤장을 맞고 냇가에 앉아 "백이 숙제야, 나하고 무슨 원수가 졌느냐?"며 통곡했다는 일화를 옆 사람이 들려준다. 고사리가 사람을 죽이는 독한 음식이라는 말에 모두 크게 웃는다.

현재(7월 26일): 태휘가 풋대추를 먹고 배탈 난 사연
노참봉의 마두인 태휘가 풋대추를 따 먹고 복통을 일으킨다. 고사리 독이 사람을 죽인다는 말을 듣고 "백이 숙채(熟菜)가 사람 잡네"라며 대성통곡한다. 숙제(叔齊)와 숙채(熟菜)의 발음이 비슷한 데서 빚어진 언어유희에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웃는다.

과거(17년 전): 백문(白門)에서 겪은 글방 선생과 동자의 일화
명나라 의종이 자결한 날을 기념해 글방 선생이 학동들을 이끌고 우암 송시열의 영정에 절하고 담비 가죽을 어루만지게 한다. 이어진 술자리에서 한 동자는 춘추 의리의 모순을 풍자하는 시를, 다른 동자는 백이의 절의를 폄훼하는 시를 지어 좌중이 크게 웃는다.

현재(7월 27일): 옛이야기를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함
17년 전의 노인들은 다 세상을 떠났건만 오늘 다시 고사리로 말썽이 생겨 타향의 풍등 아래서 옛이야기를 기억하다 보니 끝내 잠을 설치게 되었다.

백이 관련 기사임에도 백이를 논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는다. 글의 출발은 연암 자신의 현재 이야기다. 연암은 이제묘에서 고사리를 먹고 체한 경험을 먼저 이야기한다. 십수 년 전에 건량관이 고사리를 가져오지 않아 생긴 일화, 태휘에 관한 기억, 17년 전 백문 근처에서 살 때 경험했던 일들이 차례로 이어진다.

이러한 구성은 사실을 순차적으로 기술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가는 역순행적 서술이다. 나아가 과거는 하나의 층위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작품에는 현재의 체험, 17년 전의 개인 기억, 십수 년 전의 건량관 일화라는 서로 다른 경험과 시간 층이 중첩되어 있다. 각각의 시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현재라는 하나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시간 구성은 리쾨르의 형상화 개념과도 다시 만난다. 리쾨르가 말한 형상화란 이질적이고 우연한 사건들을 하나의 플롯으로 종합해 의미 있는 전체를 구성하는 작업이다. 백이 기사에서 연암은 고사리를 먹고 체한 현재의 체험을 중심으로 건량관의 실수, 마두 태휘가 대추 먹고 배탈난 소동, 17년 전 백문에서의 기억, 백이·숙제의 고대 고사(故事) 등 서로 다른 시간의 사건들을 하나의 플롯으로 종합해 백이 우상화의 허위성이라는 주제 의식으로 형상화한다. 연암은 백이를 논하기 위해 자신의 체험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백이 신화를 다시 이야기함으로써 종합을 수행한다. 따라서 과거는 현재보다 우위에 있는 절대적 시간이 아니다. 현재라는 형상화의 중심축을 통과할 때 비로소 새로운 의미를 얻는 시간이다.

일반적인 기행문이라면 사당을 방문한 뒤 백이의 충절을 회고하고 자신의 감회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곧 과거가 현재를 규정한다. 그러나 백이 기사는 그 반대이다. 현재를 먼저 제시하고, 현재가 과거를 불러낸다. 현재는 과거의 결과가 아니라 과거를 새롭게 조명하는 출발점이 된다.

이러한 이야기 방식은 「일야구도하기」와도 대응한다. 「일야구도하기」에서는 밤의 강물 소리라는 현재의 체험이 집 앞 시냇물의 기억과 낮의 도강 경험을 불러왔듯이, 백이 기사에서도 현재의 고사리 체험은 개인의 기억과 백이의 신화까지 끌어들인다. 두 작품 모두 현재는 여러 시간을 응축시키는 중심이 된다.

그러므로 백이 기사의 현재는 단순한 여행의 현재가 아니다. 과거를 다시 쓰게 만드는 현재이며, 역사를 다시 읽게 만드는 현재이다.

2) 중층적 시간과 백이 우상화의 비판

현재가 과거를 호출하는 방식은 백이의 의미를 재해석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조선 후기 사신들에게 이제묘는 충절과 춘추의리를 상징하는 장소였다. 이제묘를 찾는다는 것은 백이와 숙제의 절의를 추모하고,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되새기는 의례적인 행위였다. 따라서 이제묘는 과거의 역사가 현재를 규정하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연암은 이러한 시간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집는다. 연암은 이제묘에 도착하자마자 백이의 충절을 논하지 않는다. 먼저 자신의 몸 상태를 이야기한다. 고사리를 먹고 체한 경험을 말하고, 건량관이 고사리를 가져오지 않는 바람에 고초를 당한 사연을 회상하며, 다시 마두인 태휘의 소동

을 이야기한다. 백이를 둘러싼 숭고한 상징들은 일상의 경험 속으로 끌려 내려온다. 고사리는 더 이상 절의를 상징하는 성스러운 음식이 아니라 배탈을 일으키는 현실의 음식이 된다. 여기에서 과거의 시간은 현재에 의해 탈신성화된다.

연암은 백이를 직접 비판하지 않는다. 대신 현재와 과거의 경험을 다룸으로써 백이의 권위를 상대화한다. 백이는 더이상 절대적인 우상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다시 해석되어야 할 역사적 존재가 된다. 이러한 서사 전략은 현재가 과거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한다는 점에서 「일야구도하기」의 명심 체험과도 연결된다. 「일야구도하기」에서는 현재의 감각이 과거의 기억을 다시 해석하였다면, 백이 기사에서는 현재의 행위가 과거의 역사를 다시 해석한다.

이 과정에서 작품 안에는 세 층의 시간이 동시에 존재한다. 먼저 백이와 숙제의 고사(故事)가 담긴 고대의 역사적 시간이다. 둘째는 연암 자신의 과거 경험과 기억의 시간이다. 셋째는 중국 연행 중이라는 현재의 시간이다.

이 세 시간은 순차적으로 흐르지 않는다. 현재 속에서 동시에 호출되고 서로를 비추며 새로운 의미를 만든다. 바흐친의 크로노토프로 본다면 이 제묘는 단순한 사당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대가 한 장소 안에서 공존하는 기억의 공간이다. 공간 하나가 여러 시대를 품고 있으며, 현재는 그 모든 시간을 연결하는 접점이 된다.

요컨대 백이 기사의 핵심은 백이를 논하는 데 있지 않다. 연암은 백이를 통해 백이의 역사를 다시 읽는다. 과거는 더이상 현재를 지배하는 권위가 아니며, 현재 속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될 뿐이다. 백이 기사와 「일야구도하기」 모두 현재를 과거보다 우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과거의 의미가 새롭게 생성되는 장소로 만든다. 이는 연암의 즉사 정신과도 맞닿는다. 진실은 오랜 역사 속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의 구체적인 체험 속에서 다시 평가된다.

4. 현재 중심의 시간 재구성과 연암의 글쓰기 전략

「일야구도하기」와 백이(伯夷) 기사에 나타난 시간의 비순차적 구성은 단순한 서술상의 기교를 넘어 연암의 의도적인 글쓰기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결론을 앞서 제시하지 않고 독자를 체험 속으로 끌어들이는 서술 방식의 전략이며, 다른 하나는 현재를 중심축으로 과거를 재배열함으로써 과거의 권위를 상대화하는 비판적 인식 전략이다. 앞장에서 살핀 시간의 재구성과 중층적 시간 구조는 이러한 두 전략이 실제 작품에서 실현된 양상이다.

먼저 체험을 우선하는 귀납적 서술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암은 자신의 주장을 먼저 제시한 뒤 사례를 덧붙여 이를 입증하는 연역적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 오히려 독자를 체험의 한가운데로 이끌어 실제 경험을 먼저 공유하게 하고, 체험에 대한 성찰을 거쳐 자연스럽게 결론에 이르게 하는 귀납적 서술 방식을 택한다. 「일야구도하기」에서 명심도 추상적인 개념으로 먼저 제시되지 않는다. 독자는 한밤중 강물의 공포를 자아내는 물소리를 먼저 경험한 후에 이어 과거의 시냇물 기억과 낮의 도강 경험을 차례로 따라가면서 마침내 명심의 의미에 이르게 된다. 아홉 번의 도강은 단계적인 인식의 발전 과정을 보여준다기보다는 동일한 위험을 반복하여 건너는 체험 속에서 명심의 깨달음이 일회적인 통찰에 머물지 않고 실제 경험을 통해 검증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만일 연암이 처음부터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거나 '귀와 눈에 의존하지 말고 명심해야 한다.'는 결론을 말했다면 작품은 철학적 논설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러나 연암은 독자를 먼저 밤의 강물 소리와 도강의 공포 속으로 이끌어 넣고, 체험을 충분히 통과하게 한 뒤에 비로소 명심의 의미를 들려준다. 곧 명심은 설명을 통해 이해되는 개념이 아니라 체험과 성찰을 거쳐 스스로 도달하게 되는 깨달음이다. 연암은 결론을 앞세우지

않고 체험을 앞세움으로써 독자에게 자신의 사유를 단순히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형성과정을 함께 따라가도록 만들고 있다.

백이 기사 역시 같은 원리를 따른다. 일반적인 이제묘 기사라면 백이와 숙제의 절의를 먼저 이야기하고 자신의 감회를 덧붙이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연암은 고사리를 먹고 체한 자신의 경험, 건량관의 실수, 태휘의 배탈 소동, 어린 동자의 풍자시를 차례로 들려주는데, 독자는 처음엔 그 의미를 쉽게 알아채지 못한다. 글의 끝에 이르러서야 반복된 일화들이 하나의 문제의식, 곧 백이의 절대화에 대한 비판으로 수렴된다. 곧 반복과 지연은 체험 우선의 귀납적인 서술을 완성하는 기법이다.

「일야구도하기」의 아홉 번 도강은 명심을 통해 획득한 태도가 반복되는 위험 속에서 검증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한편 백이 기사에서는 고사리와 백이의 이름을 둘러싼 서로 다른 에피소드들이 연쇄적으로 배치되면서 비판의 의미가 점차 선명해진다. 두 작품은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결론을 곧바로 제시하지 않고 체험을 축적하여 독자의 성찰을 유도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 지점에서 연암의 글쓰기는 독자를 단순한 수용자가 아니라 사유의 동반자로 전환시킨다. 명심이든 백이 우상화의 비판이든, 이는 설명되는 명제가 아니라 독자가 체험을 함께 통과하며 스스로 도달하는 발견이 된다. 이러한 독자의 위치는 리쾨르가 말한 재형상화(refiguration)의 층위와 맞닿아 있다. 리쾨르에게 서사의 형상화는 작품 안에서 완결되지 않는다. 형상화된 이야기는 독자에게 읽히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독자 자신의 시간 경험을 새롭게 조직하는 데까지 나아가며, 이 세 번째 계기를 리쾨르는 재형상화라 불렀다.[20] 「일야구도하기」와 백이 기사에서 연암이 결론을 미

20) 폴 리쾨르 저, 김한식・이경래 옮김(1999), 147~180쪽. 재형상화는 작품의 세계와 독자의 세계가 교차하면서 독자의 시간 경험과 자기 이해가 새롭게 구성되는 미메시스Ⅲ의 단계이다. 본고에서는 두 작품이 독자로 하여금 감각과 역사에 관한 기존 이해를 재검토할 가능성을 여는 과정에 주목했다.

리 말하지 않고 체험을 앞세운 서술은 독자에게 작품의 시간과 자신의 경험을 교차시키며 감각과 역사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다시 검토하게 한다. 이러한 읽기 과정은 작품이 구성한 의미가 독자의 삶과 시간 경험 속에서 새롭게 수용되는 리쾨르의 재형상화 개념과 맞닿는다.

두 번째는 현재 중심의 과거 재배열을 통한 과거의 상대화이다. 「일야구도하기」에서 연암협의 기억과 요동의 낮 도강 경험은 독립적으로 회상되는 과거가 아니라 밤의 강물 소리라는 현재의 체험을 심화하기 위해 재배열된 시간이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통해 과거가 이해되는 것이다.

특히 두 번째 백이 기사에서 시간의 역순행은 과거의 절대적 권위를 무너뜨리는 장치로 기능한다. 귀고천금의 전통적 시간관 아래에서 과거는 현재를 규정하는 기준이었다. 그러나 연암은 이 질서를 뒤집어 현재를 출발점으로 삼고 과거를 그 현재를 들려주기 위해 불러내는 시간으로 재배치한다. 조선 후기 선비들에게 이제묘는 백이와 숙제의 절의를 추모하는 성역이었다. 이제묘를 찾는다는 것은 곧 춘추대의를 확인하고, 존명(尊明)의 의리를 되새기는 의례적 행위였다. 일반적인 이제묘 관람기에서는 백이의 절의를 찬양하고 자신의 감회를 덧붙이는 것이 관례였다. 현재는 과거의 권위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으며, 백이는 현실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연암은 기존의 서술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집는다. 연암은 이제묘에 이르자마자 백이를 논하는 대신에 고사리를 먹고 체한 자신의 경험을 먼저 이야기한다. 이어 백이 관련 과거 경험을 차례로 들려준다. 백이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의 의미는 일상 경험들이 쌓인 뒤에야 비로소 선명하게 드러난다. 여기서 현재는 과거를 추모하는 시간이 아니라 과거를 다시 질문하는 시간이 된다.

특히 연암이 선택한 소재들은 우연한 삽화가 아니다. 백이의 절개를 상

징하는 고사리는 현실에서는 사람을 체하게 만드는 음식이 된다. 건량관의 일화는 백이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관념화되고 소비되는지를 드러낸다. 태휘의 소동은 절의의 이념을 희극적 상황 속으로 끌어들인다. 글방 아이들의 천진한 반응과 웃음은 백이를 둘러싼 숭고한 분위기를 무너뜨린다. 연암은 처음부터 백이를 직접 비판하지 않는다. 대신 현재의 일상 경험을 차례로 들려줌으로써 독자가 스스로 백이 우상화의 허위성을 인식하도록 만든다.

백이 기사에 나타나는 웃음은 단순한 해학이 아니며 역사적 권위를 상대화하는 문학 장치이다. 백이는 더 이상 절대적인 도덕의 화신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백이는 현재의 현실 속에서 다시 질문하고 다시 평가해야 할 역사적 인물로 재맥락화된다. 연암이 겨냥하는 것은 백이라는 개인이라기보다 백이를 절대적 가치로 신격화한 조선 사대부의 역사 인식이다. 결국 백이 기사는 백이 개인에 대한 희화화를 넘어 백이를 절의의 절대적 표상으로 신화화한 근본주의적 춘추의리론자들을 겨냥하는 글이라고 보아야 한다.

두 작품의 차이는 해체되는 권위의 성격에 있다. 「일야구도하기」에서 현재가 되묻는 것은 감각 기관에 대한 맹신이며, 백이 기사에서 현재가 되묻는 것은 춘추의리라는 역사적이고 이념적인 권위이다. 하나는 감각의 허상을 고발하는 글이고, 다른 하나는 이데올로기의 허상을 해체하는 글이다. 그러나 원리는 비슷하다. 과거는 현재보다 우월한 시간이 아니라 현재의 구체적인 체험과 결합할 때 새로운 비판적 의미를 얻으며, 현재는 과거를 무비판적으로 반복하는 시간이 아니라 과거의 의미를 다시 질문하는 시간이다. 백이 기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웃음, 곧 주위 사람들이 크게 웃었다는 서술도 권위 해체의 연장선에 있다. 웃음은 단순한 해학이 아니라 절대화된 역사적 권위를 무겁지 않게 상대화하는 문학 장치로 기능한다.

이러한 시간의 재배열은 연암 개인의 서술 취향이 아니라 즉사 정신, 곧 지금 이곳의 구체적 현실에서 진실을 발견하려는 태도가 문학 형식으로 구현된 결과이다. 연암은 과거를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과거가 현재를 일방적으로 규정하도록 두지 않을 뿐이다. 시간의 역순행적 구성은 이 점에서 단순한 서사 기법을 넘어, 과거의 권위를 현실의 눈으로 질문하는 연암 특유의 비판적 글쓰기 전략으로 규정될 수 있다.

요컨대 연암에게 현재는 과거를 계승하는 시간이 아니라 과거를 질문하는 시간이다. 현재는 과거를 단순히 재현하지 않고, 과거 속에서 절대화된 가치와 신화를 다시 현실의 눈으로 검토한다. 시간의 역순행적 구성은 독자로 하여금 과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현재의 현실 속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한다. 이 점에서 백이 기사의 시간 형상화는 과거에 부여된 절대적 권위와 고정된 역사 해석을 전복하는 쓰기 전략으로 기능한다. 연암에게 현재는 단순히 과거와 상대되는 시간이 아니라, 신화화된 과거를 역사적 검토의 대상으로 되돌리고 절대화된 권위를 다시 현실의 눈으로 질문하는 비판의 시간이다.

5.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일야구도하기」와 백이 기사는 소재도 다르고 시간을 다루는 결도 달랐지만, 밑바탕에는 하나의 동일한 원리를 담고 있었다. 연암은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그대로 따르는 대신, 현재의 한순간을 보여주고, 과거의 여러 기억을 현재와 연결한다. 「일야구도하기」에서는 끌려온 과거의 기억들이 감각의 층위에서 겹겹이 쌓이며 명심이라는 깨달음을 향해 나아갔고, 백이 기사에서는 과거의 사소한 체험과 신화가 된 역사적 인물이 한자리에서 부딪히며 절대적이라 믿어온 권위에 균열을 냈다. 이러

한 시간 형상화는 다시 두 가지 글쓰기 전략으로 수렴되었다. 하나는 결론을 미리 말하지 않고 독자를 체험 속으로 끌어들이는 서술 전략이며 다른 하나는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를 재배열함으로써 과거의 권위를 상대화하는 전략이다. 방향은 다르지만 두 작품 모두 과거를 현재보다 우위에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아가 시간의 배열을 진실을 발견해가는 과정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같은 시간 의식을 공유한다. 연암에게 시간은 사건을 실어 나르는 그릇이 아니라 독자를 체험 속으로 끌어들여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글쓰기 장치였다.

본고는 「일야구도하기」와 백이 기사를 중심으로 연암이 시간을 의미 생성의 핵심 장치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연암에게 현재는 과거보다 열등한 시간이 아니라 과거를 새롭게 의미화하는 중심축이며, 시간의 역순행적 구성은 현재 중심의 시간 의식을 문학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인 글쓰기 방식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연암의 즉사 정신은 단순한 사상의 내용에 머무르지 않고 시간을 조직하고 재배열하는 서사 형식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었다. 곧 현재에서 진실을 발견하려는 연암의 사유는 작품의 시간 형상화와 긴밀하게 결합해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점이 『열하일기』 글쓰기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연암의 즉사 정신을 사유의 내용뿐 아니라 문장을 조직하는 글쓰기의 원리로 작동하는 방식까지 밝혔다는 점에서 본고의 의의가 있다.

『열하일기』에는 현재와 과거, 기억과 공간이 중층적으로 교차하는 시간 구조를 지닌 글들이 여럿 존재한다. 압록강에서 열하에 이르는 연행의 공간 이동은 시간 의식과 결합해 거대한 서사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열하일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연암 산문의 구성 원리와 서사 미학은 물론 현실 인식과 즉사 정신을 더욱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 시간의 형상화라는 관점은 『열하일기』뿐 아니라 연암 산문 전반의 서사 구조와 글쓰기 원리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

이다. 특히 연암의 즉사 정신이 작품 속에서 어떠한 시간 형상화와 서사 전략을 통해 문학적으로 구현되는지를 밝히는 작업은 연암 문학의 미학적 특성과 사상적 특징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욱동 저,『대화적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1988.
미하일 바흐찐 저, 전승희・서경희・박유미 역,『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비, 1988.
박지원 저, 김혈조 역,『열하일기』 1・2・3, 돌베개, 2017.
박지원 저, 신호열・김명호 역,『연암집』 上・中・下, 돌베개, 2007.
박희병,『한국의 생태 사상』, 돌베개, 1999.
폴 리쾨르 저, 김한식・이경래 역,『시간과 이야기 1』, 문학과 지성사, 1999.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강영주,『熱河日記의 구도자 여정과 冥心 修行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6.
공성수,「서사적 시간의 형상화와 문학적 이해」,『한국문학이론과 비평』83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9.
김명호,『열하일기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0.
김혈조,『燕巖 朴趾源의 思惟樣式과 散文文學』,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3.
박수밀,「맥락으로 본 일야구도하기의 구성전략」,『온지논총』23, 온지학회, 2009.
_____,「熱河日記 伯夷 記事의 형상화 방식과 쓰기 전략」,『동방한문학』90집, 동방한문학회, 2022.
_____,「熱河日記에 나타난 시간의 형상화 방식과 쓰기 전략 -馹迅隨筆序와 夜出古北口記에 나타난 卽事 정신을 중심으로-」,『고전과해석』48,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26.
임형택,「박연암의 인식론과 미의식」,『한국한문학연구』 11집, 한국한문학회, 1988.

투고일 2026. 7. 31 심사시작일 2026. 8. 18 게재확정일 2026. 9. 21

Abstract

『Yeolha Diary』, 「Crossing the River Nine Times in One Night」, episode, Park Ji-won, temporal configuration, chronotope, reverse chronological structure, writing strategy, myeongsim(冥心)

Park, Su-mil

This study examines the modes of temporal configuration and the writing strategies employed in 『Yeolha Diary』, focusing on 「Crossing the River Nine Times in One Night」("Illya gudohagi") and the account of Boyi dated July 27 in the "Gwannjeongsa" section. Under the medieval temporal consciousness of "valuing the past and devaluing the present"(gwigo cheongeum), the past functioned as an absolute authority that defined the present. Yeonam Park Ji-won, however, conceived of the past and the present in terms of difference rather than hierarchy. This temporal consciousness found expression in his spirit of jeuksa jinchwi, or the pursuit of genuine meaning in immediate events, and was embodied in the narrative structure of The Jehol Diary through the specific writing technique of reverse chronological arrangement.

Drawing on Mikhail Bakhtin's concept of the chronotope and Paul Ricoeur's theory of narrative time, this study analyzes the temporal structures of the two texts. 「Crossing the River Nine Times in One Night」 presents a temporal structure in which the narrator's present experience of crossing a river nine times at midnight repeatedly evokes his memory of listening to a stream in Yeonam Gorge and his earlier experience of crossing a river in Liaodong during the daytime, ultimately converging on the realization of myeongsim, a state of mind free from preconceived notions. What the present calls into question here is the unquestioning reliance on sensory organs such as the eyes and ears. The river functions as a chronotope of the threshold, where life and death, convention and awakening intersect, while the temporal transition between day and night leads to an epistemological transformation.

The Boyi account, meanwhile, presents a multilayered temporal structure in

which the narrator's present experience of gathering bracken overlaps with several distinct temporal strata: an episode at Qianliang Pass, the commotion involving Taehwi, a memory from Baekmun seventeen years earlier, and the ancient story of Boyi and Shuqi. What the present interrogates in this text is the historical and ideological authority of the Confucian doctrine of loyalty associated with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Thus, while 「Crossing the River Nine Times in One Night」 exposes the illusions produced by sensory perception, the Boyi account dismantles the illusion of absolutized historical authority and ideology.

Both texts employ an inductive narrative strategy that draws readers into concrete experience rather than presenting a conclusion in advance. They also share a principle of temporal organization in which the past is rearranged around the present, thereby calling into question the presumed absoluteness of the past. By demonstrating that temporal configuration in The Jehol Diary constitutes both a major narrative principle and a writing strategy through which Yeonam's spirit of immediacy is given literary form, this study offers a new understanding of the temporal organization of Yeonam's prose.

Keywords 『Yeolha Diary』, 「Crossing the River Nine Times in One Night」, episode, Park Ji-won, temporal configuration, chronotope, reverse chronological structure, writing strategy, myeongsim(冥心).

東方漢文學, 東方漢文學會
Dong-Bang Korean Chinese Literature Society
2026, 第108輯, pp.377~412
http://dx.doi.org/10.17293/dbkcls.2026.108.
ISSN 1226-668X

상주지역 열운사(悅雲社)와 낙강선유시회의 한 사례

-1828년 『동락범월시(東洛泛月詩)』를 중심으로-

방현아*

目 次

1. 머리말
2. 상주지역 낙강시회(洛江詩會)의 전통과 뱃놀이
3. 열운사(悅雲社)와 『동락범월시(東洛泛月詩)』의 의의
4. 맺음말

| 국문초록 |

19세기 초 상주지역 시사인 열운사(悅雲社)는 추수사(秋水社), 죽우사(竹雨社)의 맹주였던 강세백(姜世白, 1748~1824), 이경유(李敬儒, 1750~1821)가 세상을 떠난 뒤 열운산인(悅雲山人) 강세륜(姜世綸, 1761~1842)이 1828년 6월에 강장흠(姜長欽, 1770~1834), 강철흠(姜哲欽, 1778~1856), 강용흠(姜龍欽, 1764~1832), 강굉흠(姜肱欽, 1772~1839) 및 조덕(趙櫝, 1773~1851), 강세규(姜世揆, 1762~1833), 강봉흠(姜鳳欽, 1762~1828)과 함께 거듭 꾸린 시회이다.

열운사의 회원들이 1828년 7월 16일에 진행한 선유에 황반로(黃蟠老, 1766~1840), 류심춘(柳尋春, 1762~1834)이 함께하였고 낙암서원(洛嵓書院)을 창건한 김동필(金東弼, 1736~1807)의 삼종제 김상추(金相秋, 1776~1831)도 참석하였다. 낙암서원에서 출발하여 합강정(合江亭)에 정박해서는 병중인 창강노인(滄江老人) 김헌경(金憲慶, 1753~1829)과 함께 시를 짓고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한문학연구소 수석연구원.

도남서원을 향했다. 그날의 정취는『동락범월시(東洛泛月詩)』시축으로 남았다. 이 선유는 1622년 조정(趙靖), 이준(李埈), 류진(柳袗) 등이 주최한 임술년의 선유와 1770년 조천경(趙天經), 류성로(柳聖魯), 강필공(姜必恭) 등의 경인년 선유의 문학적 전통을 계승하면서 1832년 후진들에게 시회의 바통을 넘겨주는 세대 간 소통 그리고 선진으로부터의 학문적 전승, 시사(詩社)의 계승, 그리고 회문보인(會文輔仁)의 실천이라는 의의가 있다.

상주지역의 낙강시회는 퇴계 이황과 서애 류성룡 등 영남지역의 성리학적 학문을 면면히 이어갔으며 강안(江岸)의 도남서원과 관수루(觀水樓) 등 성현의 뜻을 기리는 상징적 공간를 포섭하여 근 200여 년 이상 이어온 향촌지역 시회의 지속적인 소통을 보여주는 대표사례이다.

핵심어 『동락범월시(東洛泛月詩)』, 열운사(悅雲社), 강세륜(姜世綸), 류심춘(柳尋春), 도남서원(道南書院), 낙암서원(洛嵓書院).

1. 머리말

본고는 상주지역 낙강시회(洛江詩會)의 전통을 이은 열운사(悅雲社)가 무자년(1828, 순조28) 7월 16일에 주도한 선유와『동락범월시(東洛泛月詩)』[1]를 소개하고 그 의의를 고찰한 글이다. 또한, 19세기 초부터 선유를 주도하던 진주강씨(晉州姜氏)와 풍산류씨(豐山柳氏) 두 가문 사이에는 혼맥으로 이루어진 교류가 상당 부분 작용하였다는 점도 주목하였다. 낙강시회는 소동파의 임술년 범주를 따라 오랜 세월 영남을 대표하는 문화로 자리잡고 최근까지도 상주지역에서는 문학행사를 통해 그 전통을 잇고 있다.[2] 북송의 대문호인 소동파를 사모하고 시문을 학습한 것은 조선 전

1)『東洛泛月詩』(1828)는 진주강씨 가문에 소장된 두루마리 형태의 시첩으로 크기는 33cm×8m이다.『洛遊帖』(1832)보다 5년 앞선 것으로 상주지역 낙강선유시회의 실제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체의 기풍이었는데 상주에서 특히 오래 전승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임술년인 1082년 7월 16일 가을 달빛이 가장 밝은 밤에 소동파는 벗과 함께 적벽에서 뱃놀이를 즐긴 뒤 「적벽부(赤壁賦)」를 짓고 같은 해 10월 15일에도 임고정(臨皐亭) 근처에서 뱃놀이하며 「후적벽부(後赤壁賦)」를 지었다. "강산과 풍월은 본래 일정한 주인이 없나니, 한가로이 즐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주인이다."[3]라는 그의 말은 산수에서의 풍류를 언급할 때 많이 인용된다. 풍류를 표방한 뱃놀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성행하여 낙동강뿐 아니라 한강, 양강, 임진강, 금호강 등 강 연안의 지역에서 즐겨 행하였다. 이는 조선 시대 내내 사대부 문사들이 소동파를 따르고 사모한 데서 연유하지만,[4] 이들 선유가 모두 세대를 이어 진행되거나 사적 전개를 동반한 체계적인 행사는 아니었다.

상주지역의 선유는 660년 이상 약 51회나 행해졌으며[5] 오랜 기간 세대를 이어 전개된다는 점, 문인들 간의 교유를 통한 시회(詩會)를 통해 거행되는 특징이 있다. 우선 자천대(自天臺)로부터 도남서원(道南書院),[6] 합강정(合江亭)을 지나 봉황성(鳳凰城), 퇴치암(退致巖), 청룡사(靑龍寺), 관수루(觀水樓) 등을 경유하는 30~50여 리의 구간이 삶의 공간과 가까워

2) 상주지역의 洛江詩會는 洛江詩祭로 이름을 바꾸어 2002년부터 해마다 개최하는 문학 축제로 자리잡았으며 2022년에는 경천섬 인근 낙동강문학관에서 '낙강시제 문학 페스티벌'이 주최되기도 했다.

3) 蘇東坡, 『東坡全集』 卷104, '亭堂'. "江山風月本無常主, 閑者便是主人."

4) 이태호, 「새로 공개된 겸재(謙齋) 정선(鄭敾)의 1742년작 <연강임술첩(漣江壬戌帖)> -소동파(蘇東坡) 적벽부(赤壁賦)의 조선적 형상화-」, 『동양미술사학』 2권, 동양미술사학회, 2013, 163쪽; 강경희, 「조선시대 東坡 「赤壁賦」의 수용 -赤壁船遊와 「赤壁賦」 倣作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61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10 등 참고.

5) 권태을 역, 『낙강범월시』, 아세아문화사, 2007, 12쪽 이구의 해제 참조.

6) 道南書院은 1606년(선조39)에 지방 유림의 공의로 鄭夢周, 金宏弼, 鄭汝昌, 李彦迪, 李滉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1616년에 盧守愼, 柳成龍, 1635년에 鄭經世를 추가 배향하였고, 그 뒤 李埈을 추가 배향하였다. 1677년 道南으로 사액되어 승격하였다.

뱃놀이에 용이하기 때문이었으며, 도남서원에서 하룻밤 묵으며 성현의 판상에 차운하여 시를 짓는 것은 이황(李滉, 1501~1570)과 류성룡(柳成龍, 1542~1607) 등 영남학파의 학문적 연원을 계승한다는 학적 의미가 있다. 관수루 역시 군자가 도에 뜻을 두고 문장을 이루어 '회문보인(會文輔仁)'의 경지에까지 나아간다는 관수지술(觀水之術)의 의미를 내포하며 서원과 누정의 상징성을 대표하였다.[7] 상주지역의 선유는 단순한 놀이나 문화행사를 넘어 학문과 교유의 장으로서 성현의 학문과 도학을 존숭하고 따르는 학적 계승이 배경으로 작용하여 오상(五常)을 실천하는 향촌의 윤리적 역할까지 담당하며 오랜 기간 존속되었다.

퇴계는 일찍이 "우리나라 남쪽 낙동강은 모든 강의 으뜸으로 존귀하네. 누대의 이름에서 오묘한 이치를 알고 땅의 형세에서 웅장한 나뉨을 보네."[8]라 하며 낙강과 누정에 주목하였다. 그가 임술년(1562, 명종17) 7월, 이현보의 넷째아들 이중량(李仲樑)의 시에 차운하며 "임술년 초가을 기망에 적벽에서 노닐기로 한 약속 어긋나 아쉽구나."[9]라 하거나 금난수(琴蘭秀), 금응협(琴應夾), 조목(趙穆), 김부필(金富弼), 김신중(金愼仲), 김부륜(金富倫)과 함께 풍월담에서 전날 내린 큰비로 선유를 실행하지 못한 아쉬움을 시로 남긴 것은 당대의 선유에 대한 기대를 엿볼 수 있다.[10] 갑자년 6월 보름 풍월담에서의 뱃놀이는 사제가 함께 학문을 수양하는 행사였으며[11] 1616년(광해군8) 이윤우(李潤雨)가 역동서원 근처 오담에서 퇴계의 선유를 따라 도산서원 부근 퇴계의 전적(前跡)을 답습한 것은 그의

7) 방현아, 「18~19세기 南人 詩壇의 시적 특징의 일면 -菊圃의 시맥과 상주지역 洛江船遊를 중심으로」, 『東方漢文學』, 동방한문학회, 2023, 430~434쪽에 자세하다.

8) 李滉, 『退溪集 別集』 卷1, 「洛東觀水樓」. "洛水吾南國, 尊爲衆水君. 樓名知妙悟, 地勢見雄分."

9) 『退溪集 外集』 卷1, 「次李公幹韻」. "壬戌初秋月旣望, 將遊赤壁恨乖逢."

10) 『退溪集』 卷3, 「七月旣望, 期與趙士敬, 金彦遇, 愼仲, 惇敍, 琴夾之, 聞遠諸人, 泛舟風月潭, 前一日大雨水, 不果會, 戲吟二絶, 呈諸友一笑」.

11) 『退溪集』 卷1, 「甲子六月望日, 陪郭明府, 與諸人避暑月川亭, 因泛風月潭」.

학적 체계를 따르고자 한 것이었다.[12] 서애 역시 적벽에서 뱃놀이하던 정황을 가슴에 새겨두라는 가친의 명을 시로 기리었다.

임술년 초가을 7월 16일	壬戌初秋月旣望
길게 읊조리며 홀로 앉아 옛 현인을 그리네	長吟獨坐感前賢
목란 상앗대 계수나무 노로 신선놀음 오래건만	蘭槳桂棹仙遊遠
산빛이며 물결 소리 여전히 선명하도다	山色江聲尙宛然[13]

해마다 7월 16일 선유할 수 있건만 임술년의 행사는 남달랐다. 3구의 '난장계도(蘭槳桂棹)'란 소식이 노래한 "계수나무 노와 목란 상앗대로, 맑은 물결을 치며 달빛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도다.[桂棹兮蘭槳, 擊空明兮泝流光.]"라는 시구를 떠올린다. 소동파에서 이어오는 선유를 통해 풍류를 즐기고 선진의 시에 차운하던 낙강은 성현의 사상과 학문을 계승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현장이었다. 영남지역 사대부들이 유람을 통해 보이는 일반적인 경향 속에서 상주의 낙강시회는 소식의 「적벽부」를 수용하면서 어떻게 독창적으로 나아갔는지 사례를 통해 그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상주지역 낙강시회(洛江詩會)의 전통과 뱃놀이

(1) 사례로 본 상주지역 낙강시회의 특징과 인적교유

소동파의 적벽 놀이는 천고에 회자되어 그 부(賦)를 외우는 자가 상상하고 부러워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으니, 매번 임술년 7월 16일을 만나면 배를 띄

12) 李潤雨, 『石潭集』, 「石潭先生年譜」 참조.

13) 柳成龍 著, 류명희, 안유호 역주, 『(국역) 류성룡 시 1-3』, 2011. 「壬戌秋七月旣望, 懷蘇子赤壁之遊, 承家君之命作」.

> 워 달을 감상하며 좋은 놀이를 마련하고 싶어 한다. 우리 상주의 도남서원은 바로 낙동강 가에 임하여 강과 산이 넓고도 그윽하니 영남의 좋은 구역이라고 부른다. 아, 서원을 창설한 이후로 선배 유자들 가운데 무릇 여기에 귀의한 이들이 진실로 이해 이날을 만나거나 혹은 임술년이 아니더라도 이날을 만나면 반드시 서로 앞 강물에 배를 띄워 놀이를 하고, 또 「적벽부」로 분운하여 시를 지어 그 흥을 적어 내었다.14)

윗글은 정종로(鄭宗魯, 1738~1816)가 정조의 3년 상을 추모하여 7월의 범주를 생략한다는 취지로 쓴 글이지만, 인용한 부분을 보면 임술년 7월 16일 되면 늘 아름다운 낙강에 배를 띄워 소동파의 「적벽부」에 차운하며 그 흥을 시로 지어내는 전통적 행사였음을 알 수 있다. 상주의 낙강은 '영남의 승경지[嶺中勝區]'요, 도남서원을 창설한 이래로 선유시회의 적합지요, 서원은 선유의 중심축이었다. 선진의 '범월유(泛月遊)'는 그 유래가 오래며 교남에서의 좋은 풍광은 상주의 도남서원과 낙동강 만한 곳이 없다는 은근한 자긍심이 엿보인다.

선유(船遊), 범주(泛舟), 범월(泛月)이라 불리는 뱃놀이는 달이 가장 밝은 날을 택해 하룻밤을 같이 지내며 선현들의 시에 차운하고 음식을 나누며 풍류를 더하는 지역 문화이다. 이는 특정 지역의 전통, 예술, 자연과의 연결, 지역 주민의 생활 방식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낙강은 영남 사람들의 삶의 공간이자 전통과 예술을 포함하여 독특한 그들의 생활 양식을 보여준다. 학술과 문화가 소통하는 장(場)이었으며 선유문학은 바로 강 문화가 형성하는 그들만의 독특한 양식이 되었다.15)

---

14) 鄭宗魯, 『立齋集』 제3권. "東坡赤壁之遊, 膾炙千古, 誦其賦者, 莫不想像而艷歎之. 每遇壬戌之秋七月旣望, 則思欲泛舟弄月, 以辦勝遊, 吾商道院, 正臨洛水之上, 江山曠幽, 號爲嶺中勝區, 粵自創設以後, 先輩縫掖之凡依歸於此者, 苟遇是年是日, 或雖非是年而遇是日, 則必相與泛舟前江而遊. 又用赤壁賦分韻賦詩, 以寫其興 ……."

15) 정우락 외, 『강안학이란 무엇인가』, 역락, 2023, 39쪽 참조.

특히 16세기 이후 사림파의 성장과 더불어 낙강은 강거문화와 접목되어 누정들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누정은 영남 선비들의 수양처이자 학술문화 공간으로 기능했다. 선유문화는 학파의 형성기라 할 수 있는 16세기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학파의 발전기인 17세기부터 보편화되었다.[16] 선유를 통해 시를 짓는 근본 목적은 대체로 소동파의 적벽유를 재현하려는 의도가 기저에 깔려 있지만, 흥취와 단합을 넘어 새로운 문장(文章)이 창작되는 작품의 생산지가 되었다. 다음은 1770년 강재(剛齋) 이승연(李承延, 1720~1806)의 언급이다.

> 소동파의 임술년 적벽유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바가 되어 지금도 강에 달 띄우고 노는 이는 반드시 7월 16일에 하니 이는 무슨 까닭인가. 일월이 좋아서 그런 것인가, 강산이 좋아서 그런 것인가, 문장이 좋아서 그런가, 아니면 그 사람 때문인가. 가령 임술년 놀이를 적벽에서가 아니라 동정호에서 가졌다 하면 반드시 동정호를 일컬었을 것이니 강산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임자년에 있었고 임술년에 있지 않았다 하면 반드시 임자년을 일컬었을 것이니 일월이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천년이 지났는데도 부러워함이 쇠퇴하지 않음은 그 사람과 문장 때문이 아니겠는가.[17]

위는 소동파의 적벽이 아닌 우리의 공간에서도 가능하며 임술년이 아닌 무자년, 경인년이라 해도 무관하다는 것이다. 누군가와 '함께' 시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그 결과 이루어진 '문장'을 중시한 것이다. 이어서 소동파가 평생 산수를 방랑한 것이 적벽 한 곳이 아닌데도 오직 두 「적벽부」만 드러난 것은 바로 "홀로 깨끗이 속세를 벗어나 천고에 문장의 절조가

16) 김학수, 「船遊를 통해 본 洛江 연안지역 선비들의 집단의식 -17세기 寒旅學人을 중심으로-」, 『영남학』 18권, 경북대학교영남문화연구원, 2010, 41~42쪽.

17) 李承延, 「合江亭賦詩幷序」. "坡公壬戌之遊, 爲人所歆艷, 至今爲泛月之遊者, 必用七月旣望何也. 以日月與, 以文章與, 抑亦以其人與, 向使壬戌之遊, 不在赤壁而在洞庭, 江山何如焉. 在壬子而不在壬戌, 必稱壬子, 日月何如焉. 歷千載歆艷而不衰者, 不以其人與文章與."(권태을 역, 220쪽)

된 까닭"이라 하였다.[18] 이들이 남긴 '시'는 학문과 사상, 풍류가 담긴 선유의 핵심이 아닐 수 없다. 상주지역 시사의 전승에 힘을 다했던 강세륜(姜世綸, 1761~1842)은 『동락범월시』의 서문에서 1622년, 1770년, 1816년, 1828년, 1832년 다섯 차례의 대표 선유를 꼽았다.[19]

첫째, 임술년(1622, 광해군14) 7월 16일의 선유는 창석(蒼石) 이준(李埈, 1560~1635), 수암(修巖) 류진(柳袗, 1582~1635), 사서(沙西) 전식(全湜, 1563~1642)이 주도하였다. 약 25인이 동참했다고 하나[20] 이준에 의하면 기약하지 않고 온 사람까지 합하면 약 38인이었다.[21] 그날의 흥과 자취는 『임술범월록(壬戌泛月錄)』에 담겼다.

둘째, 경인년(1770, 영조46)의 선유는 강세륜의 종부 호은(壺隱) 강필공(姜必恭)[22]이 향약을 통해 맺은 이웃 부로들과 임술년 창석과 수암의 자취를 108년 만에 재현한 것이었다.[23] 진주강씨 인물로는 강세로(姜世魯),[24] 강세문(姜世文)[25]의 시가 시첩에 수록되어 있다.[26] 이날의 정경은 이경유

---

18) 「合江亭賦詩幷序」. "雖然坡公平生放浪於山澤, 非止一赤壁, 而惟其二賦, 獨能蟬蛻物表, 爲千古文章絶調, 故赤壁最著, 由是觀之, 文章較重焉."(권태을 역, 220쪽)

19) 『동락범월시』 시첩 서문이다. 『芝園集』 卷13에는 「東洛泛月詩序」라는 제목이다.

20) 趙靖, 『黔澗集』 卷1, 「壬戌七月旣望, 泛舟洛東江, 同遊凡二十五人 ……」; 李埈, 『蒼石集』 卷3, 「壬戌七月旣望, 泛月東江, 同遊凡二十五人, 以赤壁賦從頭分韻, 次第占之, 得秋字」; 趙又新, 『白潭遺集』 卷1, 「天啓二年壬戌七月旣望, 泛舟東江, 同遊凡二十五人 ……」; 李坱, 『月澗集』 卷1, 「壬戌之秋七月旣望, 泛月東江, 同遊凡二十五人, 以赤壁賦, 從頭分韻, 得之字」.

21) 李埈, 『蒼石續集』 卷5, 「洛江泛月詩序」. "天啓二年(1622)七月, 蒼石子謀于其友若干人曰: '蘇老赤壁之遊, 爲古今所歆羨, 至有丹靑而想像者, 是因此老豪詞傑句 …… 泝龍淵而續古事.' 於是鄕之少長, 不期而聚者, 三十八人."

22) 姜必恭(1717~1783)은 강세륜의 부친 姜必岳(1723~1795)의 친형으로 강세륜에게는 백부가 된다.

23) 姜世綸, 『芝園集』 卷13, 「少輩東江軸詩序」. "元陵庚寅, 我從父壺隱公, 約鄕隣父老, 繼蒼修往蹟."

24) 姜世魯(1737~1814)의 자는 幼道, 호는 九遷翁이다.

25) 姜世文(1738~1802)의 낙강시는 방현아, 「상주지역 문인 구옹(癯翁) 강세문(姜世文)의 시 세계」, 『東方漢文學』 106, 동방한문학회, 2026, 233~235쪽에 자세하다.

(李敬儒, 1750~1821)의 후지(後識)와 이승연의 「합강정부시 병서(合江亭賦詩幷序)」에 남아있다. 특히 추수사의 초기멤버인 강세문의 「동강팔영(東江八詠)」이 주목된다.

셋째, 병자년(1816, 순조16)에는 정종로가 도남서원의 일관당(一貫堂)에서 제생들을 강도(講道)하고 모임을 마친 후 강세백(姜世白, 1748~1824), 이경유 등과 정허루(靜虛樓)에서 배를 띄웠다. 정종로는 이해 6월에 세상을 떠났으므로 선유 시기는 4월경으로 추정된다. 정종로의 사후 제자들은 그를 추모하는 시회를 가졌고 이는 『죽우사시집(竹雨社詩集)』에 남았다.[27]

넷째, 무자년(1828, 순조28)의 선유는 1821, 1824년, 이경유와 강세백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고 모임이 시들해지자 열운산인(悅雲山人) 강세륜이 강장흠(姜長欽, 1770~1834), 강철흠(姜哲欽, 1778~1856) 등과 6월에 열운사로 재결하고 7월 16일에 진행한 것이다. 류심춘과 황반로(黃磻老, 1766~1840)가 함께하였으며 『동락범월시』 105수를 남겼다. 시첩이 발견됨으로써 무자년 선유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28]

다섯째, 임진년(1832, 순조32)의 선유는 앞세대의 자녀, 조카, 손자들에게 직접 낙동강에 나가 함께 선유를 하며 시회의 학습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이때의 시문들은 『낙유첩(洛遊帖)』으로 남았다. 이 선유시회의 참가자들은 친인척으로 구성된 인물들이 종횡으로 결집되었다는 특징이 있다.[2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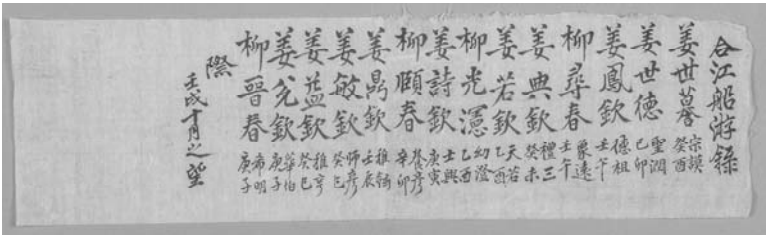
26) 강필공의 『寡諧集』에는 「次合江亭韻二首」처럼 낙강선유와 관련된 시가 남아있다.

27) 『竹雨社詩集』, 「愚山喪後, 社事曠月廢, 盖春不杵之義也. 白下黃叔璜, 至話此事, 滋然拈松坡韻同賦, 寄社中諸君子」, 「適小會林下相對, 悲吒而已. 詩到聊思, 同率爾幷和」, 『상주문화』 제8집.

28) 필자는 선행논문에서 이 5차례의 선유를 언급한 바 있다.(방현아(2023), 417~418쪽) 그때는 시첩을 알기 전이었기에 『芝園集』 卷13, 「東洛泛月詩序」를 통해 언급하였다. 본고는 그 후속 논의이다.

29) 참가한 인원과 전개에 대해서는 방현아, 「尙州지역 詩社의 전통과 그 史的 전개양상 -秋水社, 竹雨社, 悅雲社와 「洛遊帖」을 중심으로-」, 『漢文學報』 47, 우리한문

특히 진주강씨와 풍산류씨의 혼맥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1802년 10월 15일에 이루어진 선유록을 보면 진주강씨, 풍산류씨 14명만 보인다.


合江船游錄
姜世馨 癸酉 宗親
姜世德 己卯 聖淵
姜鳳欽 士午 德祖
柳尋春 士午 叟遠
姜典欽 癸未 禮三
姜若欽 丙酉 天澄
柳光濕 己酉 士興
姜詩欽 庚寅 養卿
柳順春 辛卯 士彦
姜昜欽 壬辰 雅存
姜敏欽 癸巳 雅亨
姜益欽 癸巳 雅亨
姜允欽 庚申 子明
柳晉春 壬戌 子晉
際

[그림 1] 合江船游錄(1802) 8×26.2 상주박물관 소장

1802년 10월의 선유를 주도한 사람은 강세모와 류심춘이었다. 시회의 가장 연장자인 강세모는 강항[30]의 손자이며 강필장[31]의 아들, 강세은[32]의 형으로 1808년에 옥동서원장을 했다. 죽우사시사의 회원이었고 『죽우사시집』에 11수가 수록되었다. 그는 류발(柳潑, 1731~1755)의 맏사위가 되어 류심춘과 처남 매부가 되었다. 강항의 차녀는 류사춘(柳師春, 1741~1814)의 아들 류철조[33]와 혼인하였으며, 강세모의 여동생은 류광득(柳光得, 1749~1798)의 아들 류변춘(柳抃春, 1776~1849)과 혼인하였다. 류사춘의 딸은 옥동서원장을 지낸 강철흠과 혼인하였다. 류심춘의 조부 류성로(柳聖魯, 1709~1782)는 한사(寒沙) 강대수(姜大遂, 1591~1658)의 후손 강세은(姜世殷)의 딸(1707~1754)과 혼인하였고, 류성로의 장녀는 강

학회, 2022, 236~237쪽.

30) 姜杭(1702~1787)의 본관은 晉州, 자는 而直, 호는 市北이다.

31) 姜必章(1722~1798)의 字는 希晦, 부인은 安東金氏, 豐山金氏, 一直孫氏이다. 장남 세모의 모친은 풍산김씨이며, 둘째 世謇은 姜必名에게 양자로 가고, 강세은의 모친은 일직손씨이다.

32) 姜世聞(1780~1835)의 字는 啓好, 號는 過菴, 『竹雨社詩集』에 12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33) 柳喆祚(1771~1842)는 1825년부터 1830년까지 고성군수를 지냈다.

명흠(姜明欽)과 혼인하였다. 류효조(柳孝祚, 1798~1857)는 강세백의 손녀와 혼인하여, 류심춘은 강세모와는 처남매부요 강장흠과는 사돈이 되었다. 요컨대 혼맥으로 이어진 두 가문의 돈독한 교유관계가 상당히 견고해진 인맥 구조가 되어 선유의 인적구성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풍산류씨의 선유시회 역시 류성룡→류진→류성로→류발→류심춘→류후조·류효조→류주목[34]으로 계승되는 특징을 보이는 것은 혼맥의 영향이 지대하다.

<표 1> 1802년 10월 15일 「합강선유록(合江船游錄)」의 명단

	성명	생몰년	본관	자	호	기타
1	姜世晉	1753~ ?	진주	宗謨	坐隱	부: 姜必章, 모: 豐山金氏 金瑞大의 딸, 장인: 柳潑
2	姜世德	1759~1813	진주	聖潤	志齋	부: 姜必炯[35], 모: 星山李氏 李碩佐의 딸, 동생: 姜世揆[36]
3	姜鳳欽	1762~1828	진주	德祖 (德祚)	南厓 (南涯)	조부: 姜必愼, 부: 姜世晉, 『南涯詩史』의 저자
4	柳尋春	1762~1834	풍산	象遠 象叟	江皐 二勤窩	생부: 柳光洙, 양부: 柳潑
5	姜典欽	1763~1823	진주	禮三		조부: 姜必悌, 부: 姜世師, 姜詩欽의 친형
6	姜若欽	1765~1816	진주	天若		조부: 姜必穆, 부: 姜世喆
7	柳光濕	1765~1811	풍산	幼澄		부: 柳聖樂, 류심춘의 再從叔
8	姜詩欽	1770~1825	진주	士興		조부: 姜必孝, 부: 姜世尙(생부: 姜世師), 姜典欽의 친동생
9	柳頤春	1771~1822	풍산	養彦		부: 柳光漢[37]
10	姜鼎欽	1772~1835	진주	稚鉉	巷倉	부: 姜世鷹, 姜兌欽의 친형
11	姜敏欽	1773~ ?	진주	師彦		
12	姜益欽	1773~1844	진주	稚亨[38]	滄溟	조부: 姜必玉, 부: 姜世趾
13	姜兌欽	1780~1831	진주	華伯[39]		생부: 姜世鷹, 양부: 姜世魯, 姜鼎欽의 친동생
14	柳晉春	1780~1834	풍산	希明		생부: 柳光懿, 양부: 柳光濂

34) 柳厚祚(1798~1875), 柳疇睦(1813~1872).

(2) 낙강에서의 뱃놀이

다음은 류심춘의 문집에 수록된 1802년 10월의 선유시이다.

남애자에게 묻노니	爲問南厓子
오늘밤 뱃놀이 어떠한가	何如今夜遊
고기 잡아 술 안주 삼고	得魚因小酌
학이 있어 외로운 배로 돌아오네	有鶴復孤舟
천년 전 적벽대전은	赤壁千年事
고운 모래 펼쳐진 곳이었네	明沙十里區
뱃전 두드리며 한 곡 노래하니	叩舷歌一曲
내 심사 참으로 여유롭네	我思正悠悠[40]

수련의 1구의 남애자(南厓子)는 남애(南涯) 강봉흠(姜鳳欽, 1762~1828)이다. 강봉흠은 강필신(姜必愼, 1687~1756)의 손자요, 강세진(姜世晉, 1717~1786)의 아들로 조부와 부친의 시맥을 이어 시사의 핵심역할을 담당했으며 『남애시사(南涯詩史)』를 저술하여 우리나라의 시사(詩史)를 정리하였다. 낙강에서 고기 잡아 직접 술안주 삼고 소동파의 적벽대전을 생각하던 그날의 풍류는 미련의 7구에 드러난 청각적 심상과 함께 풍류와 흥취를 한껏 고조시켰다. 1802년 10월의 선유를 통해 교유의 인맥에는 혼맥이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선유 과정을 살펴보자. 선유에 필수적인 배와 이들이 거친 장소, 낙강 주변의 풍경 등이 다소 궁금해진다. 배는 여타 선유 기록 그림을

35) 姜必炯(1722~1793)의 字는 汝明, 號는 楸原이다.

36) 姜世揆(1762~1833)의 字는 公敍, 號는 兢菴(兢庵), 兢齋, 부친은 姜必炯. 정종로의 문인이다.

37) 柳光漢은 류심춘의 三從叔으로 1622년 임술범주에 참가하였다.

38)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에는 致亨으로 되어있으나 세보에도 稚亨이다.

39) 세보에는 和伯이다.

40) 柳尋春, 『江皐集』 卷1, 「十月之望, 與姜德祖鳳欽, 泛月洛江」.

참고할 수 있다. 1763년 낙동강 연안의 실경 12폭을 그린 이종악(李宗岳, 1726~1773)의 『허주부군산수유첩(虛舟府君山水遺帖)』(장서각 소장)에는 임청각 앞 동호에서 닻줄을 풀고 선유하며 반변천 상류쪽의 양정을 지나는 배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그려져 있다. 『낙유첩』의 전면(前面)에도 여러 모양의 배가 나오는데, 그중 7인의 인원이 탄 배가 눈에 띈다. 거문고 연주가, 노를 젓는 사람, 생황으로 추정되는 악기를 들고 갓을 쓴 선비도 보인다. 1828년의 선유도 이와 유사한 형태가 아니었을까.



[그림 2] 『허주부군산수유첩』(1763) 「七灘候船」 부분



[그림 3] 『낙유첩』(1832)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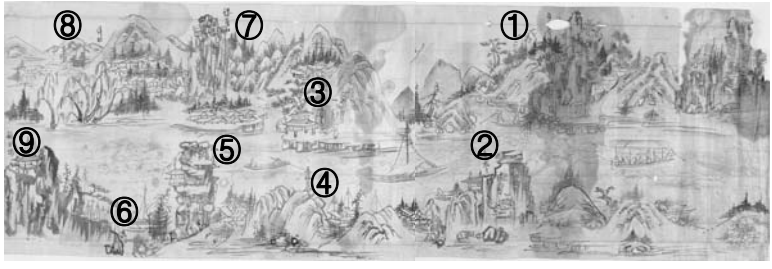
배를 타고 자천대, 청룡사, 도남서원, 퇴치암, 나각산(螺角山), 진촌(津村), 봉황성, 위수(渭水)를 거쳐 관수루로 향하는 것은 상주 낙강시회의 일반적 코스였다. 자천대는 지금의 경천대이며 청룡사는 지금도 낙강 바로 옆 절벽 중앙에 위모를 드러낸다. 퇴치암은 도남서원 앞 강 건너 정면에 있는데, 청대(淸臺) 강온(姜溫, 1496~1533)이 자연을 벗 삼아 소요음영하던 곳이었으며. 『영남누대지(嶺南樓臺志)』에는 강적(姜績)[41]의 소유였다가 조굉(趙宏, 1563~1639)의 소유가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강장흠은 "퇴치암에 배를 매었으니, 우리집의 옛 별장이라네.[維舟退致巖, 吾家舊輞川.][42]라고 노래하였다. 진촌은 나루 옆 마을이며, 나각산은 산의 형세

41) 姜績(1561~1620)의 자는 仲成, 行副護軍을 지냈다. 姜士翼의 아들이다.

가 둥근 소라 뿔[螺角]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나가산(羅駕山)으로도 불린다. 다음은 나각산을 소재로 한 류심춘의 시이다.

반쯤 드리운 발 너머 푸른 나각산이	半簾迢遞綠螺山
낙동강 굽이에 천 길 높이 솟아났네	聳出千尋洛水灣
소나무 이슬 떨어질 때 신선 손바닥과 가깝고	松露滴時仙掌近
돌로 만든 배 가로놓인 곳은 학이 날아 돌아오네	石舟橫處鶴飛還
아침저녁으로 창을 대하면 파란 숲이 눈에 들어오고	對窗朝暮靑開眼
위아래로 고개 돌리면 푸른 쪽을 진듯하네	回首高低翠作鬟
속세 밖의 봉래와 영주가 여기 있음을 알겠으니	世外蓬瀛知在是
의연하게 백년동안 늙지도 않는 모습이네	依然不老百年顔[43]

나각산의 모습과 오랜 기간 그곳에 자리하고 있는 여전함을 읊었다. 필자가 실제로 방문해보니 나각산의 위치는 강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다. [그림 4]는 『동락범월시』에 나오는 선유의 장소들과 동일하다. 지금은 의성으로 옮긴 관수루의 당시의 위치를 보여준다.



[그림 4] 『낙유첩』(1832, 22.47m) 前面, 낙동강기념관소장[44]
①自天臺 ②靑龍寺 ③道南書院 ④退致巖 ⑤鳳凰城 ⑥渭水 ⑦螺角山 ⑧津村 ⑨觀水樓

42) 『東洛泛月詩』 8제, 「舟行雜詠」 중 강장흠의 6번째 시.
43) 『江皐集』 卷1.
44) 『낙유첩』 前面에 그려진 것으로 당대의 선유공간 주변 9곳의 이름이 써 있다.

3. 열운사(悅雲社)와 『동강범월시(東洛泛月詩)』의 의의

19세기 초 열운사는 추수사, 죽우사의 맹주였던 강세백, 이경유가 세상을 떠난 뒤 시사가 적료해지자 열운산인 강세륜이 1828년 유두절이 지난 음력 6월 어느 날 강장흠, 강철흠, 강용흠(姜龍欽), 강굉흠(姜肱欽) 및 조덕(趙櫃), 강세규, 강봉흠과 함께 재결성하였다. 강세백의 장남인 강장흠과 강철흠은 금강산을 다녀온 후 삼촌인 강세륜을 만나 이미 시들한 시사의 맥을 잇기로 하였으며, 한 달에 3회 가량 모이기로 하고 몇 차례의 모임 후에 그해 7월 16일 선유시회를 열었다.[45] 강세륜의 이 쓴 『동강범월시』의 서문을 보자.

> 낙동강의 큰 강을 보자면
> 남국으로 오랜 세월 펼쳐져서
> 백두산의 정상에서 발원하여 중간에 70주의 봉강으로 나뉘며
> 황지(潢池)의 입술에서 범람하여 1천 리 금대로 흘러가니
> 맑은 기운이 정기 모아 이수(伊水)와 낙수(洛水)의 여러 현인들을 배출하였으며
> 맑은 근원이 영장되어 수수(洙水)와 사수(泗水)의 참 흐름이 되어 멀리 흘러가니
> 흘러흘러 우리 고을의 왼쪽 지경에 이르러
> 상류의 이름난 곳이 되었다네.
> 봉산의 우뚝함과 구암의 가파름이 황강과 비교해서 못하지 않고
> 용연의 물결과 구정의 아름다움이 적벽과 비교해서 누가 나은가.
> 오른쪽으로 분양의 마을을 끼고 있으니, 창석(-이준) 노인의 옛 집이요
> 왼쪽으로 우천의 농막을 흐르면 또한 수암(-류진)이 사는 곳이니……[46]

---

45) 시사를 재결성하게 된 연유와 과정은 방현아(2022), 227~234쪽에 자세하다. 『芝園集』 卷9, 「將重理社事, 簡寄約中諸君子」; 姜長欽, 『半醒帖拾遺』, 「敬次芝園公簡寄約中諸人韻幷序」 참조.

46) 『東洛泛月詩』, 서문. "睠焉東洛大江, 展也南國攸紀. 肇發於白山之頂, 中分七十

강세륜의 위 서문은 낙동강은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상주까지 내려온 것이며, 이수와 낙수의 여러 현인[伊洛之羣賢]은 주희(朱熹), 주돈이(周敦頤), 정호(程顥), 정이(程頤) 등의 현자들을 배출한 것을 말하며 수수(洙水)와 사수(泗水)의 참 갈래[洙泗之眞派]란 말은 두 강 사이에서 공자가 제자를 데리고 학문을 강론했기 때문에 후세에 수사를 유가(儒家)의 대칭으로 삼았다는 낙강의 연원과 학문의 연원을 연결하였다. 즉 공자의 학문과 학통을 상징한 것이다. 또 낙강을 중심으로 우측은 창석의 집, 좌측은 수암의 집이 있다고 하여 이들이 선유를 주도하기에 유리한 위치임과 동시에 학문의 전승자들임을 언급하였다. 낙강의 선유는 바로 퇴계와 서애의 학통을 잇는 함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동락범월시』의 배경에는 열운사의 결사가 있었고 강물의 흐름은 도통(道統)의 전승에 비긴 것으로 시회의 계승은 곧 학통의 계승이었다.



[그림 5] 『東洛泛月詩』 시축(1828) 부분_진주강씨 가문 소장

州封疆, 汎濫乎簨池之昏, 去作一千里襟帶. 淑氣亭毒, 輩出伊洛之羣賢, 澄源靈長, 遠沂洙泗之眞派. 滾到吾州左境, 寔爲上流名區. 鳳山之嵽嵲, 龜巖之峻嶪, 較簨岡而非遜, 龍淵之滀湟, 鷗亭之明媚, 擬赤壁則誰優. 右夾汾陽之村, 是惟蒼老舊宅, 左洄愚川之墅, 亦奧修翁攸居……."

(1) 범주의 형태와 시회의 실제

1828년 7월 16일에 선유를 위해 낙암서원(洛嵓書院)에서 모였다. 강세륜, 류심춘, 황반로, 강용흠, 강굉흠, 강장흠, 강철흠, 조덕, 김상추(金相秋)[47] 9인이 참석하였다. 강장흠은 국포 강박의 맏손자인 강세백의 아들이고, 강철흠은 강세백의 동생 강세위의 아들이다. 낙암서원에서 가장 가까운 죽암의 대바위나루터에서 배를 띄워 출발하였다.[48] 낙암서원은 1745년(영조21)에 지방 유림의 공의로 김담수(金聃壽), 김정룡(金廷龍), 김정견(金廷堅)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묵암(默巖) 김동필(金東弼)이 창건한 서원이다.[49] 그 밤에 청룡사를 지나 도남서원에서 하룻밤 묵고 다음 날 퇴치암과 봉황성을 거쳐 관수루에 배를 대는 코스였다. 강장흠의 아들 강주영[50]도 1제의 시에 추차(追次)하여 선유에 함께하였고, 중간에 창강노인 김헌경을 방문하여 시를 한 편 받았으므로 시를 남긴 시인은 모두 11명이다.

---

47) 金相秋(1776~1831)에 대해서는 김동필 지음, 박미경 옮김, 『묵암문집』 2, 한국국학진흥원, 2016, 277쪽, 주138.

48) 2023년 6월에 건립한 대바위나루터 표지석에는 “상주시 7개 나무터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큰 규모로 인근군민들 2만호 이상이 왕래되었던 문헌이 상산지(창석본)에 기록되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2026년 필자답사)

49) 낙암서원은 상주시 중동면 대바위길 183-13 낙동강 가에 있다. 정우락, 「상주 죽암촌 서계 가문의 학문과 문풍」, 『영남학』 92,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5, 80쪽. 의성김씨 金聃壽(1535~1603)는 조식의 문인, 아들 金廷龍(1561~1619), 金廷堅(1576~1645)은 정구의 문인으로 낙암에 정사를 지어 후진을 양성하였고 金東弼(1736~1807)은 『默巖文集』이 있다,

50) 강주영(姜胄永, 1794~1861): 자는 用華・聳華, 호는 耳山, 강세백의 장손이요, 강장흠의 장남이다. 모친은 鵝洲申氏 申鼎沃의 딸(1766~1838)이다. 부인은 정종로의 장남 鄭象晉(1770~1847)의 딸이다.

<표 2> 1828년 7월 16일『동락범월시』시첩의 시인

	성명	생몰년	본관	자	호	기타
1	姜世綸	1761~1841	晉州	文擧	芝園	부: 姜必岳, 형: 姜世白, 姜世緯, 별호: 悅雲山人
2	柳尋春	1762~1834	豐山	象遠	江皐	생부: 柳光洙, 양부: 柳潑
3	姜龍欽	1764~1832	晉州	舜三	艮窩	姜士孚의 후예
4	黃礪老	1766~1840	長水	叔璜	白下 平窩	黃喜의 후예, 부: 黃啓熙. 형: 黃莘老, 黃巖老, 별호: 叱石仙子
5	姜長欽	1770~1834	晉州	穉仁	半醒	부: 강세백, 사돈: 류심춘(강장흠의 딸과 류심춘의 아들 柳孝祚가 혼인)
6	姜肱欽	1772~1839	晉州	幼淮	梧下	부: 姜世濟
7	趙櫨	1773~1851	豐壤	希大	致齋	黔澗 趙靖의 후예. 부: 趙濯洙, 지평・정언・헌납・양산군수 등을 역임
8	姜哲欽	1778~1856	晉州	穉養	渾齋	부: 강세위, 장인: 柳師春
9	金相秋	1776~1831	義城	文玉		조부: 金敬彬, 부: 金東載, 김동필의 삼종제
10	姜胄永	1794~1861	晉州	用華	耳山	부: 강장흠, 장인: 鄭象晉(정종로 장남)
11	金憲慶	1753~1829	永同	仲章	簡默翁	부친은 金光澈, 별호: 滄江老人

우선 시첩의 서두에서 강세륜은 이 시회의 오랜 전통과 연원, 선유의 이유와 목적 등을 장편의 부(賦)로 상주지역의 선유를 정리하였다.

> 소동파의 적벽의 유람과 같은 것에 이르러서는 일년 중 달이 밝은 날을 정해서 삼강의 맑은 물결에 배 띄워 넓은 기운이 옷깃에 차고 차가운 바람이 소매를 치며 구름과 별을 치고 시를 지어 건업의 산천을 모두 넣고 별과 달을 읊어 멀리 조조의 기개를 위로하니 풍류의 맑고 밝음을 다하고 문한을 초빙하여 넓게 펴네. 그러나 신세는 아득히 이리저리 남쪽변방의 나그네 같고, 노래하며 아득히 슬퍼함은 서방의 미인과 같네. 마침내 바보처럼 슬퍼하며, 울적한 심사를 쏟아 보내네. 어찌 밝은 성군을 만나고 태평성대에서 늙도록 살며 나가서는 벼슬하여 밝은 조정에서 이력을 날려 배와 노의 책무를 다하고 돌아와서는 연못에서 헤엄치며 강과 바다의 맹약을 저버리지 아니함만 같겠는가![51]

서문에서 강세륜은 1622년 창석의 임술년 범월회에 마을의 덕스런 노인들이 도의로 깊이 교유하고 뜻이 맞는 벗들끼리 계도난장으로 푸른 낙강에서 시회를 한 일과, 1770년의 시회 역시 배 위의 시편은 오히려 옛날의 전범을 보고, 달 아래 관패는 옛 놀이의 여전함이 많으며, 강고징사(-류심춘)가 오래도록 수암의 대를 잇는 사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52] 또 1828년 시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예로부터 지금까지 아! 이 달의 불변함이여, 객도 있고 술도 있어 "좋은 밤을 어찌할 것인가"라고 말하네. 푸르고 푸른 갈대가 완연히 연못의 가운데 있음을 읊조리고 무성한 마름풀 저 꽃다운 물가에 따르네. 장맛비 새로 그치자 배는 천상으로 가고, 둥근 혼은 그림자처럼 흘러 사람이 거울 속에 가는 듯하구나. 이에 일엽편주 타고 가는 바에 맡겨두고, 만상을 포용하여 무진을 취하니, 천길 가파른 절벽을 찾아 잠깐 봉황과 난새의 생황소리 들리고, 백길 깊은 물결에서 갑자기 용과 교룡이 노래하고 춤추는 듯하니, 앞에서는 백로

51) 『東洛泛月詩』, 서문. "至若蘇子瞻赤壁之遊, 卜一年之多月, 泛三江之澄波, 灝氣盈襟, 冷颼拂袂, 抉雲漢而爲賦, 盡籠建業之山川, 詠星月之前詩, 遐弔孟德之氣槩. 極風流之爽朗, 騁文翰而鋪張. 然而身世飄飄彳亍南荒之遷客, 歌思渺渺怊悵西方之美人, 終有侘傺之悲, 寄瀉牢騷之恨, 曷若遭遇明聖, 生老昇平, 出而仕則歷歷明廷, 以盡舟楫之責, 卷而歸則涵泳至澤, 不負湖海之盟者哉! 睠焉東洛大江, 展也南國攸紀, 肇發於白山之頂, 中分七十州封疆, 汎濫乎簧池之唇, 去作一千里襟帶, 淑氣亭毒, 輩出伊洛之羣賢, 澄源靈長, 遠沂洙泗之眞泒, 滾到吾州左境, 寔爲上流名區, 鳳山之嵱崒, 龜巖之峻嶒, 較簧岡而非遜, 龍淵之滀湟, 鷗亭之明媚, 擬赤壁則誰優, 右夾汾陽之村, 是惟蒼老舊宅, 左洄愚川之墅, 亦奧修翁攸居, 奮厥笙鏞, 大鳴國家之盛, 聘以玉帛, 克賁邱園之光, 猗二老契誼金蘭, 隔一水昕夕杖屨." 이 서문은 『芝園集』 卷13에도 「東洛泛月詩序」라는 제목으로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52) 『東洛泛月詩』, 서문. "往在天啓年間, 値舊甲之載回, 憶前壬之遐致, 招招乎鄕里耆德, 摠道義之深交, 于于焉意中朋儕, 喜聲氣之相感, 淸颸練魄, 浩渺乎十里沙洲, 桂櫂蘭橈, 溯洄乎萬頃滄浪, 豪標逸韻, 夐挹杜蘅芬芳, 傑句雄詞, 尙留珠璣之璀璨, 一代之文物, 照暎星斗長懸, 百年之風采, 想望江山不老, 勝蹟遂傳於商雒, 續事又在於庚寅, 船上詩篇, 猶見昔日之型範, 月下冠珮, 多是舊遊之雲仍, 怳忘妃之與榮, 若嫦娥之更待, 矧玆江皐徵士, 久矣修巖嗣孫, 威鳳覽輝, 出爲漢儲之羽翼, 被羊遜跡, 歸臥嚴瀨之釣磯, 起同人之幽思, 秋水莽瀁, 緬先哲之徽躅, 寒月蒼凉."

> 의 물가를 맞아 익조의 여정은 나는 듯하고, 이미 청학의 누대를 지나니 원숭이 소리 끊이지 않네.53)

보름달에 배를 띄운 것은 달빛의 충만함과 그 불변성을 중시하기 때문이고, 객・술・푸른 갈대・무성한 마름풀・난새의 생황소리・용과 교룡의 노랫소리・백로와 익조・청학・원숭이 소리 등 온갖 시각과 청각의 감각적심상을 동원하여 자연과 더불어 느끼는 풍류를 노래하였다. 마지막으로 강세륜은 자신들이 선유를 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 아아! 가는 것이 이와 같고, 도(道)가 여기에 있구나. 우리 학문의 원류가 물처럼 깨끗하여 도산과 옥연을 흘러 돌고, 이러한 마음의 체가 달처럼 빛나 천광의 구름 그림자에서 배회하네. 강에 임한 묘를 쳐다보니 아득하도다! 팔부자의 덕음이여, 관수루를 구경하니 환하도다! 삼 선생의 시판이여, 풍경을 꾀하는 것은 멀리 사모하는 것이요, 갱장54)에 우거하며 밝게 읊조리네.55)

학문의 원류가 강물 속에 있으며 물처럼 깨끗하여 도산과 옥연을 흘러 돌고 성현의 어짊을 사모하는 내 마음이 달처럼 빛나는 것을 노래하였다. 관수루에서는 성현의 시를 통해 차운하고 풍경을 꾀하는 것은 먼 성현의 뜻을 사모하는 것이며, 자연과 교감하며 태평성대를 구가하였다. 이것이 선유를 통해 이들이 추구하는 것이었다. 인용문의 '삼 선생의 시판'이란 관

---

53) 『東洛泛月詩』, 서문. "是歲則代聽二年之晨際, 是日也困敦七月之旣望, 由古由今噫此月之不變, 有客有酒曰良夜之如何, 咏蒼蒼之蒹葭宛在中沚, 言采采兮蘋藻遵彼芳洲, 積雨新收船如天上, 圓魄流影人行鏡中. 於是, 縱一葉而信所如, 籠萬象而取無盡, 千尋峻壁乍聞鳳笙鸞簫, 百丈深湫忽疑龍吟鮫舞, 前迎白鷺之渚鷁路如飛, 已過靑鶴之臺猿聲不斷."

54) 羹墻은 어진 이를 사모한다는 말이다. 堯가 죽은 뒤 舜이 3년 동안 지극히 仰慕한 나머지 국그릇에서도 요를 보고 담장에서도 요를 보았다는 고사이다.

55) 『東洛泛月詩』, 서문. "於戱! 逝者如斯, 道在於是, 吾學之源流皎若水, 沿廻於陶山玉淵, 此心之體段炯如月, 徘徊於天光雲影, 奧瞻臨江之廟, 邈哉! 八夫子德音, 薄言觀水之樓, 煥乎! 三先生詩板, 景風猷而遐慕, 寓羹墻而朗吟."

수루에 걸린 김일손(1464~1498), 김종직(1431~1492), 이황의 시판을 말한다.[56] 이처럼 자신들의 창작에 앞서 늘 선현들의 시에 차운하는 것은 여전히 선조들의 뜻을 따른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삶의 현장으로서의 낙강의 다양한 모습을 노래하였다.

> 아! 우리 무리여, 어떤 사람은 밭에서 일하는 보통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벼슬하는 옛 관직에 있던 사람이라. 젊어서는 당우(唐虞)의 나라에서 벼슬하여 감히 규홍(逵鴻)의 위모가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늙어서는 회갈(懷葛)의 백성이 되어 산의 미록과 친구를 맺네. 선사의 아름다운 은혜를 입어 여름과 겨울에 시례(詩禮)를 배우고 학문을 닦아 성인의 지극한 다스림에서 놀며 아침이면 밭갈고 우물 파서 정돈되고 여유있게 이러한 맑은 놀음 얻으니 강가와 산간 중에서 끝이 없는 것은 바람과 달이요, 밝고 밝은 시절 다투지 않는 것은 나와 너로구나. 짧은 율시 긴 노래 한강의 구름으로 수작하고, 차조술 빚어 술동이에 담아 새벽 물결에 술 깨고, 애오라지 좋은 때에 답하며 또한 저무는 경치를 스스로 즐기네.[57]

함께하는 사람들은 농사짓는 보통사람도 있고, 관직 생활을 했던 자도 있다. 바람과 달의 불변성을 본받아 자연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구가하는 여유를 즐기는 평범함 속에서 삶을 공유하는 자들이었다. 회갈(懷葛)의 백성처럼 순박한 백성으로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였다.

---

56) 金馹孫의 시는『濯纓集』卷5,「與睡軒登觀水樓」, 李滉의 시는『退溪集別集』卷1,「洛東觀水樓」, 김종직의 시는『佔畢齋集』卷5,「洛東謠」이다. 강장흠이 이 시판에 차운한 시도 남아있다. 姜長欽,『半醒帖拾遺』,「曉登觀水樓, 謹次三先生板上韻」.

57)『東洛泛月詩』, 서문. “嗟! 吾輩, 或畎畝逸人, 或簪笏舊物, 少仕唐虞之國, 敢曰逵鴻之爲儀, 老作懷葛之民, 甘與山糜結友, 佩先師之嘉惠, 優遊乎夏禮冬詩, 囿聖人之至治, 朝晡於耕田鑿井, 於焉整暇, 得此淸遊, 江上山間不盡者, 風與月也. 明時凞代無競者, 吾若子乎. 短律兮長歌酬酢一江雲物, 匏罇兮秫釀醉醒五更烟波, 聊以答乎昌辰, 亦自樂乎暮景.”

<표 3> 1828년 7월 16일『東洛泛月詩』의 시제와 시인 명단

시제와 시수		시인
1	서문에 이어지는 시(제목없음), 10수	강세륜, 강용흠, 강장흠, 황반로, 강굉흠, 조덕, 강철흠, 김상추, 류심춘, 강주영
2	翌午舟泊兎巖, 舟中和唐人韻, 9수	황반로, 강세륜, 류심춘, 조덕, 강장흠, 강용흠, 강굉흠, 강철흠, 김상추
3	暮泊合江亭訪滄江老人方病在床, 5수	강세륜, 황반로, 강용흠, 창강노인(김헌경)
4	合江亭分舟送觀水樓戲贈一律, 2수	황반로, 강용흠
5	次戲贈韻留別舟中, 1수	강세륜
6	乘舟下觀水樓舟中拈杜韻, 6수	조덕, 강철흠, 강장흠, 강굉흠, 류심춘, 강용흠
7	江行聯句排律四十韻, 80구 1수	강세륜, 황반로, 강장흠, 강용흠, 류심춘, 강굉흠, 조덕, 강철흠
8	舟行雜詠, 81수	강세륜(30수), 류심춘(13수), 강용흠(10수), 강장흠(28수)

1제는 서문에 이어 쓴 시로 제목 없이 10인의 오언율시가 있다. 강세륜, 강용흠, 강장흠, 황반로, 강굉흠, 조덕, 강철흠, 김상추, 유심춘 9명이 각각 오언율시 1수씩을 지었다. 다음은『동락범월시』의 첫수 강세륜의 시이다.

밤 배는 모름지기 노젓기 조심해야 하니	夜舟須戒楫
가을 강은 쉽게 물결진다네	秋水易爲波
달은 명주처럼 맑고	得月澄如練
흐르는 구름 비단처럼 흐르네	流雲漾作羅
황충이 날면 너는 말할 수 없지만	蝗飛爾莫說
매미 잠들어도 나는 노래하리	蟬宿我能歌
뱃전을 두드리고 노를 저으며 강 중류에서	叩拙中江去
사방을 바라보니 산빛이 짙구나	四望山色多[58]

58)『동락범월시』1제, 강세륜(『芝園集』卷9에도「七月之望, 約江皐白下及鄕裏諸益, 會洛嵓書院, 夜泛舟前江, 長哲二侄從焉.」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2구의 '추수'는 이 시사가 처음 결성되었을 때의 이름이다. 즉 추수란 7월 기망에 뱃놀이하던 전통을 따라 가을 물결이 일렁이는 것을 따서 지은 이름임을 알 수 있다. 보통은 연장자 혹은 시회의 주도자가 먼저 운를 정해 선창을 하면 이어서 회원들이 한 수씩 지었다. 맨 뒤에 강세백의 장손인 강주영이 추차하였는데, 이 시회에 강장흠과 강주영의 참석은 큰 의미가 있다. 몇 해 전 이미 세상을 떠난 강세백을 대신해 부자가 모두 참석하여 그의 시맥을 잇고 함께 참석한 선배들의 시에 차운한 것은 시사의 전통을 가문 안에서 어떻게 전승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조각배를 중류에 가만히 띄우니	片舸中流穩
맑게 갠 강에 흰 물결 일렁이네	晴江漾素波
고운 모래는 온통 눈 덮인 듯하고	明沙渾似雪
향기로운 풀은 비단처럼 깨끗하네	芳草淨如羅
천하에 뜻이 맞는 이 구하였으니	四海求同志
가을 내내 호쾌한 노래 부르리	三秋發浩歌
오늘 밤은 맑은 뜻 충분하니	今宵淸意足
먼저 달빛을 풍족하게 얻네	先得月光多[59]

수련, 함련에서는 낙동강에 띄워진 조각배에 흰 물결 일렁이고 주변의 아름다운 정경을 노래하였다. 경련에서는 시회를 하는 시우들을 '同志'라 표현하였고, '浩歌'라 하여 호연지기를 드러내는 풍류를 언급하였다.

7월 16일 낮에 토암에 배를 대고 배에서 당나라 시인의 시에 화운하였다. 황반로의 선창으로 9명이 모두 한 수씩 지었다. 운자를 정해 처음 선창을 하는 사람 역시 연장자 중에서 번갈아 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나이순으로 지은 경우가 많은데, 황반로, 강세륜, 류심춘, 조덕, 강장흠, 강용

59) 『동락범월시』 1제, 류심춘(『江皐集』 卷1에도 「戊子七月旣望, 與姜文擧姜稧仁黃叔璜磻老趙希大諸友, 赴洛邑舟行共賦.」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흠, 강굉흠, 김상추, 강철흠 순이다. 이 시들이 2제의 시들이다.

날이 저물어 합강정에 정박하여 창강노인[60]을 방문하였지만 노인이 병으로 침상에 있어 서글픔을 시로 표현하였다.[61] '합강(合江)'은 낙동강과 위수(渭水) 두 강이 합해진다는 뜻이며 합강정은 봉황성이 있는 산에 있었는데, 영동김씨 석천(石川) 김각(金覺, 1536~1610)이 터를 잡고, 아들 김지덕(金知德)이 세운 정자이다.[62] 김헌경은 이듬해 8월 3일에 졸하였다. 류심춘의 선조인 류진과 김헌경의 선조인 김지덕이 매우 가까이 교유하였지만 류진이 김지덕의 죽음을 보지 못하였고, 류심춘 역시 김헌경의 죽음을 보지 못한 아쉬움을 글로 전하였다.[63] 창강노인을 만난 후 이들은 배를 나누어 관수루를 향하면서 배 안에서 두보의 시에 차운하였다. 관수루는 낙강시회에 있어 가장 핵심적 공간이다. '물'의 속성을 따라 선현의 도와 성리학의 학문을 따른다는 관수지술(觀水之術)의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64] 류심춘의 손자로 선유시회를 가장 늦게까지 전개한 류주목은 "멀고 가까운 물가에는 모래가 눈처럼 하얗고 달빛은 물결에 일렁이고, 나각산의 개인 달, 삼봉의 언 눈, 천등의 대둔, 운수 속의 새벽 경쇠소리 저물녘의 종소리가 더욱 누거의 아름다운 곳임을 탄식하게 하네."[65]라고 강

60) 金憲慶(1753~1829)의 본관은 永同, 자는 仲章, 호는 簡默翁으로 金憲敬이라고도 한다. 부친은 金光澈, 모친은 商山金氏 金汝玉의 딸이다. 柳尋春, 『江皐集』 권1, 「四月與金仲章憲敬, 趙戚兄完之述舜, 泛舟前江聯句」, 「次金仲章」, 「輓金仲章幷小序」; 권5, 「答金仲章」; 권19, 「簡默翁金公行狀」 등 참조.

61) 『芝園集』 卷9, 「暮泊合江亭, 訪滄江老人, 老人方病在床」.

62) 상주시 마을유래 중동면, 于勿里, 합강정 정자터 참고. 『江皐集』, 「簡默翁金公行狀」에 "합강정은 처사공(김지덕)이 학문에 전념했던 곳이다. 공은 만년에 이곳에 와 살면서 그 옆에 작은 누대를 짓고 봉황루라 불렀다."라는 내용이 있다.

63) 『江皐集』, 「輓金仲章幷小序」.

64) 觀水樓에 대해서는 柳疇睦의 『溪堂集』 卷9, 「觀水樓重修記」와 權相一의 『淸臺集』 卷11, 「觀水樓重刱記」 등 참조.

65) 柳疇睦, 『溪堂集』 卷9, 「觀水樓重修記」. "…… 遠近洲渚, 平沙雪皚, 月波落照, 螺山霽月, 三峯凍雪, 天燈大芚, 雲樹裏晨磬暮鍾, 益嘆樓居佳麗之地. ……"

변의 아름다운 풍광을 묘사하였다. [그림 4]처럼 위수(渭水)를 사이에 두고 좌측에 관수루, 우측에는 봉황성이 있다.

7제는 강에서 연구(聯句)로 지은 배율로 40운 80구이다.[66] 강세륜, 황반로, 강장흠, 강용흠, 류심춘, 강굉흠, 조덕, 강철흠 8인이 함께 지었다. 이는 이들이 선유를 통해 즉흥으로 지은 것으로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음을 보여준다. 8제는 「주행잡영(舟行雜詠)」이다. 4명이 함께 지은 5언절구 81수이다.[67] 강세륜이 류진의 시에 차운한 시에서는 류심춘이 집안이 대를 이어 나랏일을 맡고 늙어서는 강호에서 지내는 형편을 말하였다.

문중 어르신의 어진 자손	大老文忠有賢胤
일생 덕을 기르며 강호에서 늙어가네	一生養德老江湖
나랏일 잠시 맡아 대궐의 조서 받고	玉帛暫膺魏闕詔
관직에서 일찍 한양길 하직했네	軒冕早謝秦京衢
꿈처럼 그윽해 흰 갈매기 모랫가를 찾으니	幽夢歸尋白鷗沙
벗의 소리 황조의 모퉁이에서 들리네	友聲去聽黃鳥隅
물을 사이에 두고 분양리로 돌아오니	隔水還往汾陽里
창석선생은 곧 우리 스승이라	蒼石先生卽吾徒
예전 천계 임술년에	昔在天啓歲壬戌
낙동강 가을 물결이 흰 비단처럼 펼쳐졌으니	東洛秋波素練鋪
하물며 7월 16일을 맞아	況値七月之旣望
여러 현인들 달빛에 배 띄우니 달은 외롭지 않네	羣賢泛月月不孤
지금도 향기가 풀과 나무에 묻어있으니	芬芳至今被草樹
당시의 문채는 술잔에 빛나네	文彩當時暎蓬壺
강고징사는 본래 사손이라	江皐徵士寔嗣孫
시와 예로 가문을 이어 남은 일이 없네	詩禮承家餘事無
면례하며 선인의 발자취를 다르고	緬焉追躡先人武

66) 이 시는 黃礪老, 『白下集』 卷2, 「江行聯句」라는 제목으로 모두 수록되어 있다.

67) 姜世綸의 30수 중 15수는 『芝園集』 권9에 수록되었으며, 柳尋春이 쓴 13수는 『江皐集』에, 강장흠의 28수는 『半醒帖拾遺』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같은 소리 구하며 부르네	求以同聲費招呼[68]
……	……

위 시는 수암 류진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7언고시이다. 강장흠의 문집에도 류진의 시에 차운한 7언고시가 수록되어 있다.[69] 물을 사이에 두고 분양(汾陽)에는 스승인 창석선생이 있어 1622년의 뱃놀이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신들의 학술과 문학적 계승적 의미를 드러냈다. 분양(汾陽)은 분수(汾水)의 남쪽으로 분황(汾皇), 분촌(汾村)이라 했다. 창석 이준이 살던 곳으로 『상산지』에는 “산을 등진 마을을 분황이라 하고, 누대가 산 위에 있으니 이곳이 나의 사는 곳이다.[背山有村曰: ‘汾黃’, 臺在山上, 是余所卜.]”라고 하였다. 또한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1563~1633) 선생이 살던 봉양촌(鳳陽村)을 노래하기도 했다.

밤새 시를 짓고 날이 밝자 류심춘의 아들 류효조가 와서 누각에 술자리를 차려두었기에 점필재의 판상의 시에 차운하여 류심춘에게 보여주었다.

흥이 다하여 장차 노를 돌리려 하는데	興盡將回棹
누각의 술자리 또 사람을 끌어당기네	樓筵又縶人
가난한 집에서 술자리 차렸으니	貧家能辦讌
어진 아들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구나	賢子爲娛親[70]
……	……

이 시는 선유를 마치자 류심춘의 아들 류효조가 부친과 장인 강장흠, 그 외 어르신들을 위해 관수루 술자리를 베풀자 강세륜이 현판의 점필재의 시에 차운하여 류심춘에게 준 것이다. 함련의 3, 4구는 부친을 위해 어려

68) 『芝園集』 卷9, 「舟中敬次柳修巖泛月韻」.

69) 姜長欽, 『半醒帖拾遺』, 「敬次柳修巖先生泛月韻分得七古別韻」.

70) 『芝園集』 卷9, 「天旣明柳忠可孝祚, 設小筵於樓中以留之, 謹次佔畢齋板上韻示江皐」.

운 형편에도 술자리를 마련해준 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한 것이다. 종일토록 누각에 있다가 다시 날이 저물어 누각에서 내려와 퇴계선생의 판상의 시에 차운하고 류심춘과 이별하였다.[71] 그렇게 泛舟를 마쳤다.

(2) 삶의 터전으로써의 낙강과 선유시회의 의미

1828년 무자년의 선유시회는 단순한 뱃놀이에서 그친 것이 아니요, 추수사, 죽우사의 맥을 이어 새로 열운사로 재결성하고 시사의 핵심적 행사인 선유를 통해 선진들의 풍류와 문학적 전통을 따르며 시를 통해 소통하는 '이문회우(以文會友)', '이우보인(以友輔仁)'하였다. 윗세대에서 아랫세대로 퇴계로부터 이어지는 학문적 계보를 잇는 '계학통(繼學統)'의 상징적 의미도 내포되었다. 이처럼 오래도록 선유시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낙강 주변이 바로 이들의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이다. 주요한 도남서원을 중심으로 주변의 뛰어난 풍광이 어우러지면서도 언제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다. 『동락범월시』의 시들은 장삿배 모이는 도회지로서의 강변은 여염집 많은 평범한 삶의 활기를 그려내고 있다는 의의가 있다.

강을 사이에 두고 여염집이 많으니	隔江閭閻大
어염은 도회지가 있는 곳에 있네	魚鹽所都會
장삿배 구름처럼 모이니	商舶簇如雲
번화하기가 영남에서 최고라네	繁華嶺南最[72]

지금은 볼 수 없는 낙강의 모습이다. 강 주변으로 여염집이 있고, 생선과 소금[魚鹽]을 위해 장삿배들이 구름처럼 모인 영남에서 최고로 번화한 곳이었다. 류심춘도 "명승지에다 아울러 도회지이니, 인가가 더욱 빽빽이

71) 『芝園集』 卷9, 「向暮下樓謹次退陶板上韻留別江皐」.
72) 『東洛泛月詩』 8제, 「舟行雜詠」 중 강장흠의 24번째 시.

모여 있네.[勝地兼都會, 人烟復稠密]"[73]라고 하였다. 낙동강은 태백 황지에서 발원하여 내를 이루다가 상주 경계에 와서 비로소 강을 형성하였으며, 강폭이 넓어지고 수량이 많아지기에 나루가 많았는데, 현재 상주 관할 구역 내에는 11개의 나루가 형성되어 있다. 고지도에는 발원지에서 하류 방향으로 하풍진(河豊津), 삼탄진(三灘津), 비란진, 회촌진(回村津), 죽암진, 낙동진 6개만 표기되어 있다.[74] 예전에 낙동강 하구에 소금과 생선, 생필품을 실은 배가 들어오면 나루에는 상주, 문경, 풍양 사람들이 모여들어 큰 장이 열렸다. 강의 물길 따라 세곡과 소금 실은 배가 다니면 나루터 장시와 주막촌이 형성되었다. 경천대 주변에는 물고기가 많아 고깃배들도 드나들었고 상주장이나 사벌장이 서는 날에는 장꾼들로 붐비고 강 연안 중동 쪽에 관곡을 보관하던 창고도 있었다고 한다.

여인의 집에 점심밥을 준비하니	女家備午饌
하얗게 찧은 쌀에 개장국을 겸하네	白鑿兼狗醬
거리에는 구름처럼 많은 나그네	通衢客如雲
함께 먹는 일 즐겁고도 훌륭한 일이라네	勝事樂共餉[75]

강변 나루에서 점심을 준비하는 풍경도 노래한 시이다. 1구의 점심밥의 메뉴는 2구의 흰 쌀밥에 개장국이었다. 3구의 구름처럼 모여드는 나그네는 강변에 들어선 시장과 어염시로 사람들이 북적대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강세륜의 시에서도 "개를 삶고 하얗게 찧은 쌀로 밥을 해서, 소나무 그늘에 둘러서 점심을 요기하네.[烹狗飯白鑿, 午餘匝松陰]"[76]라고 하여

73) 『東洛泛月詩』 8제, 「舟行雜詠」 중 류심춘의 7번째 시.
74) 나루에 대해서는 상주박물관 엮음, 『옛지도로 재현하는 경상도 상주』, 민속원, 2006, 42~43쪽.
75) 『東洛泛月詩』 8제, 「舟行雜詠」 중 강장흠의 27번째 시.
76) 『東洛泛月詩』 8제, 「舟行雜詠」 중 강세륜의 7번째 시.

생생함을 묘사하였다. 이처럼 『동락범월시』에는 평범한 강변의 사람들의 생활상이 그려져 있다. 이는 시회와 일상이 분리된 것이 아니며, 문학이 생활과 유리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류심춘의 시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의 삶을 걱정하는 치자의 마음을 드러내어 본 시회가 경치를 노래하고 풍류와 흥취를 시로 읊은 것만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백성들의 일을 돌이켜 생각하건대	飜思民間事
모적(蟊賊)이 있으면 추수할 수 없다네	蟊賊將無秋
두보의 시를 길게 읊조려 보노라니	長吟杜子詩
옛 사람이 이미 앞서 근심하였구나	古人已先憂[77]

2구의 모적은 벼의 뿌리와 줄기를 갉아 먹는 벌레로 《시경》 <소아(小雅) 대전(大田)>에 "그 명특을 제거하고, 그 모적을 잡아서, 우리 밭의 어린 벼 싹을 해치지 말게 하리라.[去其螟螣, 及其蟊賊, 無害我田穉.]"라고 하였다. 이는 백성의 재물을 빼앗아 먹는 탐관오리(貪官汚吏)를 가리키는 말로 평생 관직에 종사했던 치자로서의 마음이 묻어난다. 이들이 차운했다는 삼 선생 중 김종직의 시에서도 "아침에 월파정에서 출발하여, 저녁에는 관수루에서 자는데, 관수루 아래 줄이은 관선의 천만 꿰미 돈이여, 남민들이 그 가렴주구를 어떻게 견디리오. 쌀단지 이미 텅비고 상률마저 떨어졌는데, 강 난간엔 풍악 울리고 살진 소를 때려잡네."라고 하였다.[78]

무자년 선유시회의 또 하나의 의의는 200년 전 임술년(1622)의 선유와 1770년의 범주를 계승함으로써 5년 뒤 1832년 4월 16일, 또다시 풍산류씨, 진주강씨, 연안이씨 등 문중의 자제들을 중심으로 이우러진 시회를 연결

77) 『東洛泛月詩』 8제, 「舟行雜詠」 중 류심춘의 12번째 시.

78) 金宗直, 『佔畢齋集』 卷5, 「洛東謠」. "朝發月波亭, 暮宿觀水樓, 樓下綱船千萬緡, 南民何以堪誅求. 餠罌已罄橡栗空, 江干歌吹椎肥牛."

해주는 교량적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여기서 낙파 류후조와 류효조 형제의 주선으로 『낙유첩』이 탄생하였다.[79] 서문은 강세모의 조카이자 강세은의 아들인 광사(曠士) 강성흠(姜性欽, 1805~1864)과 류심춘의 손자인 류주목이 썼다. 시제는 총 9제이며, 시는 126수로 『동락범월시』와 유사한 형식을 띠고 있다. 후진들은 배 안에서 선유하며 시를 짓고 선배들은 배 밖에서 차운하며 시회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학습과 계승의 장이었다. 배를 탄 자들의 시가 82수요, 밖에서 차운한 증시·격려시가 44수, 배에 탄 사람은 15인, 시첩에 시를 남긴 시인은 모두 20명이다. 이 시들의 큰 특징으로 모든 시에 붉은 비점(批點)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특히 이 시회가 비평이 가해진 '학습의 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시제와 구정면에서는 1832년 선유시회 역시 1828년의 선유시회와 유사하게 모두 9제로 되어 있어 선진들의 선유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80]

4. 맺음말

본고는 1828년 6월 재결성된 열운사 회원들이 거행한 7월 16일의 선유와 『동락범월시』를 고찰하여 선유의 특징과 상주지역에서 낙강시회가 오래도록 전개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강안학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선유의 참가자와 주도자, 시회의 진행 과정 등을 시를 통해 세밀하게 밝혀내야만 비로소 그 실체를 온전히 구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주지역의 선유는 오래 세월 소동파의 적벽 선유를 재연하며 그의 탁월한 문장력과 시공을 초월한 풍류, 기개를 계승하고자 하였다. 또한, 혈연

79) 이 시첩은 근 200여 년간 愚川世家(柳昌夏)에서 보존해 온 것이다.

80) 1제 「屛城途中」, 2제 「宿道南書院」, 3제 「自天臺」, 4제 「病中寄天臺遊子」, 5제 「江行」, 6제 「落火」, 7제 「奉寄東江舟中」, 8제 「觀水樓敬次退陶先生韻」, 9제 「雜詠」으로 1828년의 선유와 유사한 작시 형식을 띠고 있다.

과 혼맥으로 맺어진 인맥을 바탕으로 회문보인(會文輔仁)을 실천하며 시회의 전통 속에서 나름의 독창적인 문화를 구축하였다. 이는 퇴계 이황과 서애 류성룡 등 선대의 사상과 학문적 적통을 잇고 문학적으로는 그들의 시에 차운하면서도 자신들만의 문학세계를 다져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이었다. 상주지역 낙강 연안은 물자와 어염이 운송되는 활기찬 일상적 삶의 공간이자, 학문의 도를 계승하고 문학적 성과를 다져온 연대의 공간이었다. 특히 창석 이준과 수암 류진은 위수를 사이에 두고 생활공간을 형성하고 있었기에, 낙강은 이들에게 일상의 공간이자 문화적 소통 매개로 작동했다. 이러한 학문적 교류 공간을 바탕으로 200여 년 이상 대를 이어 선유시회가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속성과 연속성이다. 특히 추수사, 죽우사, 열운사 등 상주지역 시사가 활발히 운영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형성된 문인집단이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문학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4월, 7월, 10월 등 가장 좋은 때를 정해 선유 행사를 열고 꾸준히 창작활동을 지속한 점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둘째, 학문적 계승 의식이다. 이들은 퇴계 이황과 서애 류성룡으로 이어지는 학맥을 중시하며 낙강선유를 단순한 유흥이 아닌 학술적 공간이자 행사로 인식했다. 두보의 시는 물론 김일손, 이황, 김종직의 현판의 시에 차운하고 창석 이준과 수암 류진 등이 지은 선유시에 차운한 것은 이러한 문학적 계승을 통해 내재된 사상과 학적 유산을 지속적으로 습득하고자 도모한 것이었다. 셋째, 관계의 밀접함이다. 촘촘한 혼맥을 바탕으로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원 간의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으며 서로의 삶에 깊이 간여하며 유대하고 응원하는 단합으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이러한 혈연과 혼맥으로 이어진 선유의 문화행사는 일면 가문의식의 계승적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자신의 가문에만 국한하지 않고 동료의 가문, 혼맥의 가문으로 확장되었다. 마지막으로 당대 소동파에 대한 애호와 선유 문화가 유행한 현실, 그리고 낙동강과 일대의 풍경과 활발

한 나루 문화의 배경도 한몫하였다.

『동락범월시』는 강가에 북적대는 여염집의 풍경, 음식을 대접하고[鷄黍] 개장국 끓여 나누던 광경, 장삿배 모이는 영남의 최대의 도회지임을 노래하였다. 이러한 문학과 생활의 융합은 1622년 임술년으로부터의 선유 문학을 계승하면서 후진에게 아름다운 전통을 전승하는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풍산류씨 사손(嗣孫)이며 시회에 적극적이었던 류심춘은 달빛 아래 배를 띄우며 "반짝반짝 천년 간 전해져 온 마음은 넘실넘실 강물에 비친 달과 같다네. 운당포에서 세월이 이미 저물었으니, 다시금 참된 비결 읽기를 기약하네."라며 읊어 차가운 가을 강물에 비친 둥근 보름달은 천년 전 성현의 마음이 지금도 여전한데 참된 학문을 깨우치지 못함을 돌아보며 앞으로 참된 비결을 배워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소동파의 적벽유는 우리나라에서 시공을 달리하며 오랜 기간 계승되고 발전되었다. 심지어 일제강점기인 1922년 안동현의 압록강에서도 행해졌다.[81] 선유의 형태는 지역마다 다양하여 각기 독특한 문화로 전승되었다. 특히 상주지역의 선유는 달빛 아래 배를 타고 시를 지으며 성현의 삶을 본받고, 학문의 연원을 확인하며 자신들의 현재를 돌아보고 나아가 자신들의 학풍과 학문적 정통성을 확립해 가는 노력이자 후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다. 그저 한두 번 행하는 일상의 뱃놀이와는 달리 창석과 수암의 사상과 학맥을 이어가려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향촌 사회의 혼맥과 교유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지속 가능한 문화의 한 틀로 자리잡았다. 상주지역의 낙강선유는 퇴계학파의 도학(道學)을 고수·계승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술적 의의를 지니며 낙강의 강변을 무대로 긴 세월 펼쳐진 작품에는 그 지역의 삶의 모습과 향토정서 등이 개성 있게 반영되었다.

81) 李建昇,『海耕堂收草』권6, <接梨收草>,「壬戌秋七月旣望, 安東縣寓諸人, 將泛舟鴨江邀余共游, 以詩辭不往.」.

◆ 참고문헌

『洛遊帖』(1832), 낙동강기념관 소장.
『東洛泛月詩』(1828), 진주강씨 대사간공파 소장.
『竹雨社詩集』(1816), 상주문화 제8집 수록.
「合江仙遊錄」(1802), 상주박물관 소장.
姜世綸, 『芝園集』.
姜長欽, 『半醒帖拾遺』.
姜必恭, 『寡諧集』.
權相一, 『淸臺集』.
金東弼, 『默巖文集』.
柳成龍, 『西厓集』.
柳尋春, 『江皐集』.
柳疇睦, 『溪堂集』.
李建昇, 『海耕堂收草』.
李坱, 『月澗集』.
李宗岳, 『虛舟府君山水遺帖』.
李埈, 『蒼石續集』.
李滉, 『退溪集 外集』.
趙又新, 『白潭遺集』.
趙靖, 『黔澗集』.

강경희, 「조선시대 東坡 「赤壁賦」의 수용 - 赤壁船遊와 「赤壁賦」 倣作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61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10.
권태을, 『洛江泛月詩』, 아세아문화사, 2007.
김동필 지음, 박미경 옮김, 『묵암문집』 2, 한국국학진흥원, 2016.
김학수, 「船遊를 통해 본 洛江 연안지역 선비들의 집단의식 - 17세기 寒旅學人을 중심으로-」, 『영남학』 18권, 경북대학교영남문화연구원, 2010.
류성룡 지음, 류명희, 안유호 역주, 『(국역) 류성룡 시 1-3』, 2011.
방현아, 「尙州지역 詩社의 전통과 그 史的 전개양상 -秋水社, 竹雨社, 悅雲社와 「洛遊帖」을 중심으로-」, 『漢文學報』 47, 우리한문학회, 2022.
_____, 「18～19세기 南人 詩壇의 시적 특징의 일면 -菊圃의 시맥과 상주지역 洛江船遊를 중심으로」, 『東方漢文學』 97, 동방한문학회, 2023.
_____, 「상주지역 문인 구옹(癯翁) 강세문(姜世文)의 시 세계」, 『東方漢文學』

106, 동방한문학회, 2026. , 동방한문학회, 2026.
상주박물관 엮음, 『옛지도로 재현하는 경상도 상주』, 민속원, 2006.
이태호, 「새로 공개된 겸재(謙齋) 정선(鄭敾)의 1742년작〈연강임술첩(漣江壬戌帖)〉 -소동파(蘇東坡) 적벽부(赤壁賦)의 조선적 형상화-」, 『동양미술사학』 2권, 동양미술사학회, 2013,
정우락 외, 『강안학이란 무엇인가』, 역락, 2023.
정우락, 「상주 죽암촌 서계 가문의 학문과 문풍」, 『영남학』 92,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5.

투고일 2026. 7. 31 심사시작일 2026. 8. 18 게재확정일 2026. 9. 21

Abstract

A Study on 'Yeol-unsa(悅雲社)' and a Case of the Nak-river Boating Excursion Poetry Gathering in the Sangju Region

-Focusing on『Dongnakbeomwolsi(東洛泛月詩)』in 1828-

Bang, Hyun-a

In the early 19th century, Yeol-unsa was established in June 1828 by Kang Se-ryun along side Kang Jang-heum, Kang Cheol-heum, Kang Yong-heum, Kang Goeng-heum, Cho Deok, Kang Se-gyu, and Kang Bong-heum. The poetry society was reorganized following the passing of Kang Se-baek and Lee Gyeong-yu, who had previously led Chususa and Jug-usa in the Sangju region.

On July 16, 1828, the members of Yeol-unsa engaged in a boating excursion, joined by Hwang Ban-ro, Ryu Sim-chun, and Kim Sang-chu a second cousin of Kim Dong-pil, who founded Nag-am Seowon. Departing from Nag-am Seowon, they anchored at Hapgang-jeong to compose poetry with Kim Heon-gyeong , who was ill, before proceeding to Donam Seowon. The aesthetic and literary inspiration of that evening was preserved in the poetry scroll titled『Dongnakbeomwolsi』. This boating excursion inherited the literary traditions of the 1622 excursion hosted by Cho Jeong, Lee Jun, and Ryu Jin, as well as the 1770 excursion by Cho Cheon-gyeong, Ryu Seong-ro, and Kang Pil-gong. Furthermore, it holds significant historical value as it demonstrated intergenerational communication by passing the torch of poetry gatherings to younger scholars in 1832, embodied the academic transmission of Neo-Confucian teachings, continued the tradition of poetry societies, and practiced the Confucian ideal of nurturing virtue through fellowship.

The Nak-river Poetry Society in the Sangju region steadily preserved the Neo-Confucian academic legacy of prominent scholars such as Toegye Lee Hwang and Seoae Ryu Seong-ryong. By incorporating symbolic landmarks that honor ancient sages, such as Donam Seowon and Gwansuru along the

riverbank, serves as a representative example showcasing the continuous, two-century-long communication of regional rural poetry societies.

Keywords 『Dongnakbeomwolsi(東洛泛月詩)』, Yeol-unsa(悅雲社), Kang Se-ryun(姜世綸), Ryu Sim-chun(柳尋春), Donam Seowon(道南書院), Nag-am Seowon(洛嵓書院).

東方漢文學會 會則

제1장 總則

제1조 본회는 '東方漢文學會'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함)

제2조 본회는 한문학 및 한문교육 연구를 통하여 한문학 발전과 한문교육에 기여하며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事業

제3조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회지『東方漢文學』의 간행
2. 학술 발표회 및 학술 강연회 개최
3. 학술 자료의 수집 및 간행
4. 선현유적지 및 문화재 답사
5. 기타 필요한 사업

제3장 會員

제4조 본회는 정회원, 종신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한문학을 전공하였거나 한문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2. 종신회원 : 학회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3. 특별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사업을 후원하는 사람 또는 단체

제5조 본회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정회원과 종신회원은 의결권,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지닌다.
2. 특별회원은 본회의 각종 행사에 참가한다.

제4장 任員

제6조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2인
3. 총무이사 3인
4. 기획이사 3인
5. 연구이사 3인
6. 출판이사 3인
7. 섭외이사 3인
8. 국제이사 3인
9. 감　　사 2인

제7조 본회 임원의 선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4. 총무이사는 본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5. 기획이사는 학술대회나 연구과제 등을 기획한다.
6. 연구이사는 학술대회나 강연회 등을 주관한다.
7. 출판이사는 학회지와 자료집 등의 편집, 출판을 담당한다.
8. 섭외이사는 회원 관리 및 외교를 주관한다.
9. 국제이사는 국제학술 교류를 주관한다.
10. 감사는 제반 사항을 감사하여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제5장 會議

제8조 본회에 다음의 회의를 둔다.

1.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회장이나 회원 다수의 의견으로 소집한다.

제9조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0조 정기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 선출

2. 예산 결산 심의
3. 회칙 개정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 본회는 학회지와 자료집 등의 심사, 편집과 관련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그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본회는 연구윤리의 확보와 유지에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본 학회의 회원들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두며 그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6장 財政

제13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입금 및 찬조금으로 한다.

제14조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장 附則

제1조 본 회칙은 1982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개정 회칙은 199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개정 회칙은 1994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개정 회칙은 2004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개정 회칙은 200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개정 회칙은 2007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본 개정 회칙은 2008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본 개정 회칙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본 개정 회칙은 2015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본 개정 회칙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본 개정 회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본 개정 회칙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東方漢文學會 編輯委員會 運營 規程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동방한문학회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와 자료집 등의 심사와 편집에 관련된 제반 업무의 담당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회장이 편집위원장이 되며,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한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자격) 편집위원의 자격은 한문학 및 한문교육 전공자로서 연구 업적과 능력이 탁월한 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제5조(임기)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 위촉과 배정)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여야 한다. 단, 해당 분야의 전공자가 부족할 경우 인접 전공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투고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투고자의 논문 지도교수, 친족 등)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4. 논문 한 편 당 1인의 편집위원과 2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한다.

제7조(익명성과 비밀 유지)

1. 심사용 원고는 반드시 저자명을 삭제하며,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장 책임 하에 대외비로 하여야 한다.

2. 익명성과 비밀 유지의 조건을 위반하여 심사위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그 징계를 의결하여 시행한다.
3.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은 당해인을 궐석시킨 후에 심사위원을 배정한다.

제8조(심사 절차)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한국학술지 인용색인의 논문유사도 검사(https://www.kci.go.kr/kciportal/po/member/loginForm.kci?returnUrl=check/login.jsp)를 실시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2. 표절 판정된 논문은 반려한다.
3. 편집위원장은 투고 마감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4.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을 배정한다.
5. 심사 의뢰 및 심사결과보고서 제출은 전자논문투고심사시스템(http://dongbang.jams.or.kr)을 이용한다.
6.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반려의 소견을 표명한다.
7. 해당 논문의 편집위원은 총평을 제출한다.
8.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시 함께 제출된 초록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9.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수합하고 검토하여 투고 논문의 게재, 수정 후 게재 또는 반려를 결정한다.
10. 심사 결과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판정 소견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게재 처리한다.
11.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1) 편집위원회는 그 판정 소견을 검토하여 수정 요구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2) 투고자는 논문심사서를 수령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 원고와 '수정 의견 반영서'를 제출한다.
    3) '수정 의견 반영서'에서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 또는 심사 의견에 대한 반론을 제시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는 수정 요구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되거나 해명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를 최종 결정한다.

12. 심사 결과 '반려'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1) 편집위원회는 그 판정 소견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논문을 반려한다.
    2) '반려' 판정을 받은 논문은 차후에 다시 작성한 후 투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일반 투고 논문과 마찬가지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9조(심사 기준)
1. 심사 결과는 항목별 평가, 게재 여부, 판정 소견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2. '논문심사서'는 ①방법론의 진취성 및 문제의식의 참신성, ②연구 내용 및 결과의 창의성과 논리성, ③기존성과의 활용 및 연구사적 검토, ④용어, 개념의 적절성 및 논리적 정합성, ⑤자료 번역의 정확성, ⑥초록과 주제어의 적합성 및 명확성의 6가지 질문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매 질문마다 5가지의 차등 점수를 부여한다.
3. 판정은 ①게재, ②수정 후 게재 ③반려 중의 하나로 하되, 수정을 단서로 하는 조건부 게재 판정을 할 수 있다.
4. 심사 질문의 항목별 평가 총점이 48점 이상은 '게재', 48점 미만~36점 이상은 '수정 후 게재', 36점 미만은 '반려' 판정을 한다.
5. 판정 소견은 항목별 평가와 게재 여부에 대한 근거 및 의견을 총괄적으로 기술하되, 수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서평, 번역, 해제, 번역문 및 기타 유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의 방법으로 심사하며, 논문과 구별하여 게재한다.

제10조(게재 여부 결정의 조건)
1. 심사 결과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판정 소견을 검토하여 게재를 결정한다.
2.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판정 소견을 검토하여 수정 요구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요구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되거나 해명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반려'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판정 소견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논문을 반려한다.

4. 동일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간의 평가가 현저하게 다를 경우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1조(투고일 및 심사일)

각 논문의 '참고문헌' 하단에 투고일, 심사시작일, 게재확정일을 명기한다.

제12조(이의 신청)

1.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투고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신청의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東方漢文學』論文審査書

○ 논문심사서 임시저장

심사질문	심사답변
1. 방법론의 진취성 및 문제의식의 참신성	○ A(10 점) ○ B(8 점) ○ C(6 점) ○ D(4 점) ○ E(2 점)
2. 연구 내용 및 결과의 창의성과 논리성	○ A(10 점) ○ B(8 점) ○ C(6 점) ○ D(4 점) ○ E(2 점)
3.기존성과의 활용 및 연구사적 검토	○ A(10 점) ○ B(8 점) ○ C(6 점) ○ D(4 점) ○ E(2 점)
4.용어, 개념의 적절성 및 논리적 정합성	○ A(10 점) ○ B(8 점) ○ C(6 점) ○ D(4 점) ○ E(2 점)
5. 자료 번역의 정확성	○ A(10 점) ○ B(8 점) ○ C(6 점) ○ D(4 점) ○ E(2 점)
6. 초록과 주제어의 적합성 및 명확성	○ A(10 점) ○ B(8 점) ○ C(6 점) ○ D(4 점) ○ E(2 점)
심사배점	0 점

○ 지적사항 임시저장

No	페이지	라인	수정요구사항	
1				삭제 추가
2				삭제 추가
3				삭제 추가

※ 전자논문투고시스템(http://dongbang.jams.or.kr)의 '논문심사' 화면을 캡쳐한 것임.

東方漢文學會 硏究倫理委員會 運營 規程

제1장 硏究倫理 規程

제1조(목적) 이 규정은 硏究倫理의 확보와 유지에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본 학회의 회원들에게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동방한문학회 투고 규정」 제3조에 준하여 투고하는 연구자들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연구의 수행・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僞造・變造・剽竊・重複揭載 등을 말하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僞造'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變造'는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剽竊'은 타인의 구상,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盜用하는 행위를 말한다.
4. '重複揭載' 혹은 '이중 투고'는 저자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존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저자의 윤리 규정)

1. 僞造・變造・剽竊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연구 과정 또는 연구 결과 등을 왜곡하여 자신의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저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인용할 때, 비록 일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2. 重複揭載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왕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

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지 않는다.

3. 출판 업적
   1) 저자는 자신이 직접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 순서는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히 반영한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기여는 각주 등에서 致辭할 수 있다.
4. 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정확히 명기하여야 한다.
   2)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구상을 차용할 경우, 脚註에 그 사실을 밝혀서 독자로 하여금 선행연구 결과와 연구자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생성형 AI 기술 활용에 관한 기준
   1) 저자가 논문의 데이터 수집, 분석, 번역, 문장 작성 등 연구 및 저술 과정 전반에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다면, 기술 활용의 주체는 저자 자신이어야 하며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2) 생성형 AI는 연구에 기여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므로, 논문의 공동 저자 또는 교신 저자로 등재할 수 없다.
   3) 생성형 AI가 도출한 결과물의 부정확성, 편향성, 저작권 침해 및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모든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으므로 저자는 검증에 대한 책무가 있다.
6. AI 활용의 공개 및 소명 의무
   1) 저자가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기술을 사용하였을 경우, 이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2) AI 활용 사실은, 사용한 AI 모델의 명칭, 버전, 사용 일자, 활용 범위 및 목적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3) 편집위원회나 윤리위원회는 저자에게 AI 활용 관련 명령어 기록이나 입력 데이터 등의 소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5조(편집위원의 윤리 규정)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

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입각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배제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편집위원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6조(심사위원의 윤리 규정)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심사 의뢰한 논문을 심사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정의 의견서를 통해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 평가의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논문 심사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하여 개인적인 학술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배제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논문을 반려하여서는 안된다. 또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반려하여서는 안된다.
3.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소정의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상세히 밝힌다. 투고자에 대해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고, 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논문의 내용을 타인과 논의해서는 안 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된다.
5.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의 보안 유지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심사 대상 원고의 전체 또는 일부를 생성형 AI에 입력해서는 안 된다.
6. 생성형 AI를 활용한 심사평 자동 생성 행위는 심사위원의 독립적인 학술적 평가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간주하여 금지한다.

제2장 研究倫理 規程 施行 指針

제1조(윤리 규정 서약)

본 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 규정의 발효 시에 윤리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윤리 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의 윤리 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그 회원에게 윤리 규정을 환기시켜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조(윤리위원회 구성)

1. 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임원단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2. 위원장은 윤리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서 회장이 1인을 임명한다.

제4조(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 피조사자 · 증인 ·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 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를 건의할 수 있다.

제5조(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의 조사에 응해야 한다. 조사에 대한 불응 행위는 윤리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제6조(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유지)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한 최종적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8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1.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위조・변조・표절・중복게재로 판명이 날 경우, 해당 학술지의 논문 목록을 삭제한다. 해당 논문 투고자에 대하여는 향후 5년 내의 투고를 금지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지한다.
2.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9조(윤리 규정의 수정)

윤리 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 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東方漢文學會 投稿 規程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동방한문학회 투고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동방한문학회의 학회지『東方漢文學』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투고 논문의 성격)『東方漢文學』에는 한문학 및 한문교육과 관련이 있는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단, 필요에 따라 새로운 자료의 발굴 소개 및 서평, 해제, 번역문 및 기타 유관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1. 논문은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새로운 자료의 발굴 소개 및 서평, 해제, 번역물 및 기타 유관 논문의 게재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3. 투고 논문이 연구 부정 행위를 범하였을 경우, 향후 5년간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다.

제4조(투고 시한) 투고 시한은 春刊 1월 31일, 夏刊 4월 30일, 秋刊 7월 31일, 冬刊 10월 31일이다.

제5조(투고 자격) 투고 자격은 본회의 회원을 원칙으로 하되, 학문적으로 본회의 취지에 부합되고 연구 성과가 우수한 필자에게는 편집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투고 자격을 부여한다.

제6조(투고 요건)

1. 동일 호에는 1인 1편의 논문만 투고할 수 있다.
2. 구체적 내용은「동방한문학회 연구윤리 규정」제4조를 따른다.

제7조(제출 문서) 본 학회지에 투고하기 위해서는 전자논문투고심사시스템

(http://dongdang.jams.or.kr) 상의 논문투고 절차에서 요구하는 '저작권 활용 동의 및 연구윤리 서약서'에 서명해야만 한다.

제8조(원고 분량)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한다.

제9조(원고의 제출) 투고는 전자논문투고심사시스템(http://dongbang.jams.or.kr)에 한다. 단, 전자논문투고심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관리자의 승인 하에 이메일이나 우편을 이용할 수도 있다.

제10조(게재료) 연구비를 받아서 수행된 논문을 게재할 경우, 소정의 게재료를 투고자가 부담한다.

제11조(원고 작성 방식) 모든 원고는 본 학회가 정한 원고 작성 방식을 따라야 한다.

1.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의 한국어 번역문 첨부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2. 원고의 본문은 필요시 괄호 병기로 한자를 표기하고, 각주와 참고문헌은 한자 노출 형태로 표기한다.
3. 원고는 제목, 저자 표시, 목차, 국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의 순서로 작성한다.
   1) 국문초록의 분량은 1,000자 내외로 하며, 주제어는 논문의 주제와 내용을 대표할 만한 10개 내외의 단어로 한다.
   2) 영문초록의 분량과 내용은 국문초록에 준하여 작성하되,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10개 내외의 Key Words가 들어가야 한다.
4. 논문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나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논문 제목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5. 저자 표시 사항
   1) 저자의 이름, 소속 기관 및 직위 등을 밝히되 저자 이름 이외의 사항들은 저자 이름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2) 필자의 E-mail은 학회지 제일 끝 페이지에 일괄적으로 모아서 기재한다.

단,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주저자, 공동 저자 순으로 기재한다.

6.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 1저자를 맨 앞에 쓰고, 저자의 인적 사항을 밝힌 각주에서 제 1저자임을 표시한다.

7. 논문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단계 : 1, 2, 3 ……
2단계 : (1), (2), (3) ……
3단계 : 1), 2), 3) ……
4단계 : ①, ②, ③ ……

8. 脚註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번호는 1), 2), 3) 등으로 표기한다.
2) 논문 또는 저서를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의 이름, 출판 연도(같은 해에 여러 편의 논저가 있을 경우에는 a, b, c 등으로 구분 표기), 관련 쪽수(쪽수를 표시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생략)만을 다음의 예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논문 또는 저서의 제목과 발간 정보 등을 표기할 수 있다.
예) 조윤제(1963), 20쪽.
조윤제(1963) 참조.
조윤제(1963a), 217쪽.
조윤제(1963b), 66~67쪽 참조.
3) 두 개 이상의 다른 논저를 인용할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하되, 저자가 동일할 때는 맨 앞에만 저자 이름을 표기한다.
4) 공동 저자가 2인일 경우에는 저자를 모두 제시한다.
5) 공동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대표 저자의 이름을 제시하고, 그 외 인원은 숫자로 표시한다.
6) 원전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의 이름, 서명 및 권수, 작품 제목을 표기한 뒤 마침표를 찍고 따옴표 안에 원문을 싣는다.
예) 朴趾源, 『燕巖集』 卷8, 「兩班傳」. "兩班者, 士族之尊稱也."
7) 서양 논저를 인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예) James, Palais(1975), p. 135.
Henderson, Gregory(1957), p. 19.
James, Palais(1975), ibid., p. 107.

Henderson, Gregory(1957), op. cit., pp. 20～21.

9. 인용문은 위 아래로 본문과 한 줄씩 띄운다. 다른 예문이 이어서 나올 때는 사이를 띄우지 않는다.
10. 참고문헌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지에 쓰지 않고 본문 뒤에 이어 쓴다.
    2) 참고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주요 문헌 정보를 수록하되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3) 각 문헌은 원전 자료, 연구 논저의 순으로 배열하고, 연구 논저는 한국어 문헌, 중국어・일본어 문헌, 서양어 문헌의 순으로 배치하되, 그 배열 순서는 동양어 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서양어 문헌은 알파벳순으로 한다.
    4) 원전 자료는 저자 및 편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료의 서명, 출판사, 발행 연도의 순으로 표기하되, 가나다 순으로 배치한 뒤, 이어서 저자 및 편자의 이름을 알 수 있는 원전 자료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5) 연구 논저는 저자 및 편자의 이름(다수일 경우 모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함), 논문 제목(단행본의 경우 생략), 서명, 출판사, 출판 연도(같은 해에 여러 편의 논저가 있을 경우에는 a, b, c 등으로 구분 표기)의 순으로 표기한다.
    6) 출판 예정인 논저는 출판 연도 대신 '출판 예정'이라고 기재한다.
    7) 미간행 저술은 위의 연구 논저의 예에 준하되 발표된 기관, 장소 및 날짜를 기재한다.
    8) 논문 내용 속에 참고문헌을 표시할 경우 괄호 속에 넣는다.
       예) (김태준, 1931, 23쪽)
    9) 국문의 경우
       ① 저자와 연도 다음에는 마침표를 붙일 것. 예) 김태준(1931).
       ② 띄울 때마다 쉼표를 붙일 것. 예) 『동방한문학』,
       ③ 참고문헌 마지막에 마침표를 붙일 것. 예) 동방출판사.
       ④ 공동저자의 경우 저자 사이에 가운데 점(・)을 붙일 것.
    10) 영문 등 기타 외국어의 경우
       ① 저서와 저널명만 이탤릭체로 처리할 것.
       ② 첫 단어는 대문자(관사와 전치사는 제외)로 쓸 것.
    11) 인터넷 자료인 경우
       사이트 이름과 자료명, 인터넷 주소, 검색일 순으로 처리할 것.

예) 국사편찬위원회.
http://thesaurus.history.go.kr (검색일 : 2004. 6. 20)

12) 서양 논저의 경우에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예) James, Palais, Politics and Policy in Kore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Henderson, Gregory, "Chong Ta-san, A Study on Korea's Intellectual History", Jonual of Asian Studies, Vol. XVI, No.3, 1975, pp.15～29.

11. 주요 부호(기호)는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1) 저서, 단행본, 문집, 학회지 - 『 』
2) 중제목 - 〈 〉
3) 논문(석·박사 학위 논문 포함), 작품, 단행본 속의 소제목 등 - 「 」
예) 『星湖僿說』 卷1, 〈天地門〉, 「箕指我東」.
4) 강조, 간접 인용 - ‘ ’
5) 직접 인용, 원문 인용(단, 인용문을 별도의 인용 문단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기호 생략) - “ ”
6) 한시를 인용할 경우, 번역시를 좌측에 원시를 우측에 놓는다.
7) 한시의 인용에서, 각주 번호는 원문에 표시하고, 문장부호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표와 그림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표와 그림과 사진에는 〈표 1〉, 〔그림 1〕, 〔사진 1〕이라고 일련 번호를 붙이고, 이어서 제목을 제시한다.
2) 표 제목은 상단에, 그림과 사진의 제목은 하단에 제시한다.
3) 표와 그림은 원본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한 형태로 제시한다.

13. 본문에서 전문용어를 사용할 경우의 한글과 원어를 병기하되 원어는 괄호로 묶는다. 한 번 쓴 원어를 반복해서 쓸 필요는 없다.
예)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

14.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논저 저술의 일반적 원칙을 따른다.

東方漢文學會 學會誌 發行 規程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동방한문학회 학회지 발행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동방한문학회의 학회지 『東方漢文學』의 발행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행 시기) 『東方漢文學』은 연 4회 발간하되, 春刊 3월 31일, 夏刊 6월 30일, 秋刊 9월 30일, 冬刊 12월 31일로 발행 시기를 정한다.

제4조(발행인) 『東方漢文學』의 발행인은 동방한문학회로 한다.

제5조(저작권) 『東方漢文學』에 게재된 논문 및 저술의 저작권은 본 학회가 소유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다만, 필자가 본인의 논문 및 저술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제6조(연구윤리 준수) 『東方漢文學』의 투고자는 연구 윤리를 준수해야하며, 투고시 '연구 윤리 서약'에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

彙 報

2026년 하계 학술대회

· 일시 : 2026. 7. 18(토) 13:00~18:00
· 장소 : 경북대학교 인문한국진흥관 B102호
· 주최 : 동방한문학회,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 발표자 및 논제

하정승(국립경국대)	정재 박의중 한시에 나타난 표현 기법과 문학적 특징
구슬아(계명대)	15세기 조(朝)·명(明)의 여성 효행 담론 연구
이성형(공주대)	조선시대 충청 수영성의 문학 지리적 장소감 고찰
강민구(경북대)	지속되는 지식, 후대 수용을 통해 본 조선 유서의 고전성
윤재환(단국대)	남계 박세채 문인의 전개와 문학관
권진옥(단국대)	운와 홍중성의 비지류(碑誌類) 산문 연구
박혜민(연세대)	조선 후기 경연고사(經筵故事)류 산문의 성립과 전개 양상
박수밀(한양대)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에 나타난 시간의 형상화 양상

· 지정토론

이국진(강원대)
채윤미(전남대)
이군선(원광대)
박준원(경성대)
김종하(성균관대)
이승용(성균관대)
민희주(동국대)
김민학(경북대)

임원 명단

회 장	강민구(경북대)		
부 회 장	김영주(성균관대)	이군선(원광대)	
총무이사	우지영(경북대)	하정원(한국고전번역원)	허 철(경성대)
기획이사	김용재(성신여대)	이향배(충남대)	정경훈(원광대)
연구이사	김우정(단국대)	김형술(전주대)	하정승(안동대)
출판이사	권진옥(단국대)	신영주(성신여대)	이국진(강원대)
섭외이사	김미선(청주대)	송혁기(고려대)	이미애(경북대)
국제이사	Yannick Bruneton(프랑스 파리7대학)		李學堂(中國 山東大)
	鄭日男(中國 延邊大)		

편집위원

강민구(경북대) / 위원장
김성중(계명대)
김영주(성균관대)
김창호(원광대)
박준원(경성대)
신익철(한국학중앙연구원)
심경호(고려대)
안세현(강원대)
윤재환(단국대)
이동재(공주대)

연구윤리위원

박영호(경북대) / 위원장
김왕규(한국교원대)
이영호(성균관대)
이준규(부산대)
임완혁(영남대)

감사

박준호(계명대)
신두환(안동대)

가나다 순임.

동방한문학 제108집 필자 연락처

하정승	gohak@andong.ac.kr
구슬아	admireyuna9@kmu.ac.kr
강민구	mgkang6165@hanmail.net
정서현	shc077@skku.edu
박혜민	heminpark83@gmail.com
윤재환	inse-yoon@hanmail.net
권진옥	uipop98@daum.net
신호승	poe554@naver.com
박수밀	davidmil@hanmail.net
방현아	bha5429@naver.com



東方漢文學 第 108輯

2026년 9월 23일 인쇄
2026년 9월 30일 발행

발 행 東方漢文學會
제 작 도서출판 이회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471-1번지 2층
전 화 (031)955-9797 전 송 (02)922-6990
E-mail kanapub3@naver.com

ISSN 1226-668X 정가 15,000원

■ 학회 연락처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한문학과
(우)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산격동) 전화 (053)950-6160, 6165
홈페이지 : https://dongbang.jams.or.kr